

발간등록번호

2020-KIHF-155



베이비붐 세대 1인가구를 고려한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운영모형 연구

2020. 12.

연구기관 : 사단법인 한국여성연구소

연구책임자 : 황정미 (한국여성연구소 이사)

공동연구자 : 김수정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순미 (전남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팀장)

연구지원 : 이예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본 보고서는 (사)한국여성연구소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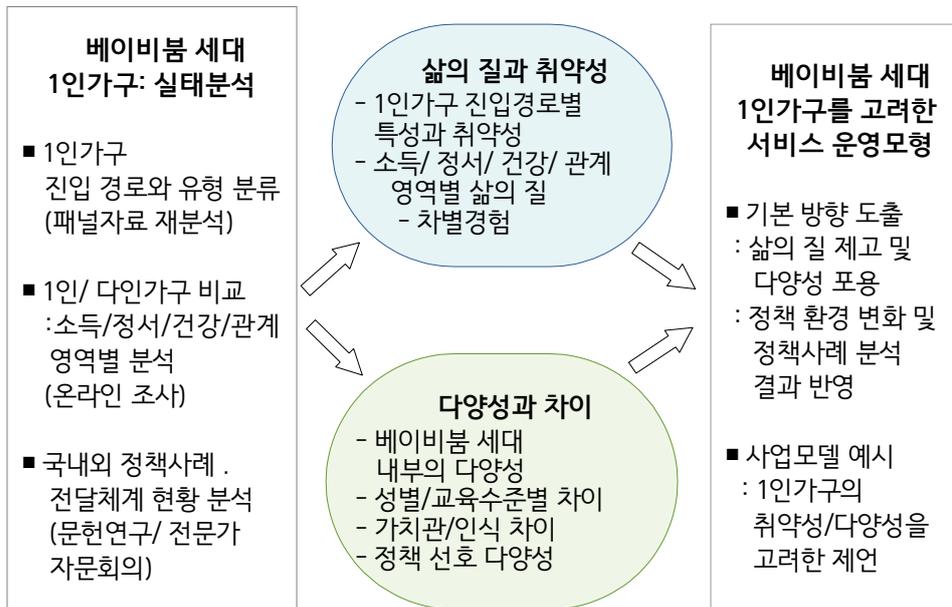
I. 연구배경 및 목적

- 이 연구에서는 광범위한 인구변동에 대응하는 가족정책의 확장이라는 차원에서 베이비붐 세대 1인가구의 생활실태와 정책의 방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한국에서는 2005년경부터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정책연구와 논의들이 활성화되었지만, 고용, 은퇴, 빈곤, 노후대비, 소비 등의 문제 영역을 각각 분절적으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들의 가족생활 실태와 생애주기의 유동성, 친밀한 관계 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1인가구 관련 정책과 연구들은 주로 청년층 및 노년 1인가구에 집중되었으며, 1차 및 2차 베이비부머의 현재 연령대인 중장년층(만45~64세) 1인가구에 대한 조사 및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 이러한 배경 위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1·2차 베이비붐 세대의 가족생활과 베이비부머 1인가구의 특성을 경험적 자료에 기반하여 분석하고, 인구구성 및 생애주기 변화라는 차원에서 가족지원 서비스의 중장기적 방향 모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는 대규모의 인구 집단이므로 그 내부의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필요하다. 베이비부머 1인가구와 다인가구 간의 차이, 그리고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와 다양한 정책 수요 등을 분석함으로써 가족지원 서비스의 다양한 요구도를 진단해 본다. 셋째, 생활 SOC 복합시설화 등 가족지원 서비스의 전달체계와 거버넌스가 변화하는 최근의 맥락 위에서 베이비붐세대 1인가구를 고려한 서비스의 기본 원칙, 지역사회와 주민참여를 고려한 운영방향 등을 제언하고자 한다.
-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통계자료 재분석,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활용한다.
 - 원자료 재분석 : 한국노동패널, 한국복지패널 원자료(2006~2019)에 나타난 베이비붐 세대 1인가구의 지난 14년간 주거배열 형태 변화를 분석하고, 최적일치법을 이용하여 1인가구로 진입하는 경로를 유형화, 군집별 특성을 분석한다.
 - 온라인 설문조사 : 전국규모의 온라인 패널을 이용하여 베이비붐 세대 1300명(1인가구 500명, 다인가구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는 통계청 인구 총조사, 행안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근거로 성별·연령별·거

주지역별 할당비율을 설정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20년 8월 25일부터 9월 7일 까지이다.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연구윤리 규정을 엄격히 준수 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

- 문헌연구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국내외 베이비붐 세대 관련 주요 정책 사례, 전달체계 모델 등을 검토하였다.

<연구의 분석틀>



II. 기존연구 검토

- 베이비붐 세대의 정의 : 베이비붐의 기준은 출산율의 급등으로 인한 출생아 수의 증가를 의미하는데, 서구와 달리 한국의 경우 출산율 급등은 1950년대 중반에 있었으나 출생아 수의 급증은 1960년과 1971년을 정점으로 하는 두 번의 봉우리가 형성되었다(김태현, 2010). 기존 연구에 근거하여 이 연구에서 베이비붐 세대는 1차(1955~64년 출생)와 2차(1965~74년 출생)를 포함하여 설정하였으며(정경희 외, 2010), 현 시점에서 45~64세 연령에 해당한다.

□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기존 실태조사 및 연구들은 이들이 이미 노년층에 진입한 ‘전후세대’에 비해 다른 특성을 갖는 ‘신노년’임을 강조하며, 또한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 소득, 교육수준 등)에 따라 다양한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 내부의 다양성과 차이가 크다는 점을 분석하고 있다.

□ 1인가구의 규모 변화와 중장년 1인가구

- 지난 20~30년 동안 1인가구는 양적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해 왔다. 통계청 인구 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중장년기(45세~64세) 1인가구는 전체 1인가구 중 32.9%, 약 1/3을 차지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하는 이 연령층을 연령구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체 1인가구중 45~54세는 15.8%를 차지하며, 그 중 40%가 여성이다. 55~64세 비중은 17.1%이고 여성이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다.
- 혼인상태별 구성을 보면, 2015년 현재 40대 후반에서는 미혼이 45.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50대에는 이혼(50대 초반 38.3%, 50대 후반 38.4%)이, 60대 초반에는 사별(40.9%)이 가장 많다. 전체 베이비부머 1인가구 161만 명의 혼인 지위를 보면 이혼(34.6%), 미혼(24.8%), 유배우(21.9%), 사별(18.6%)의 순으로 나타났다.

□ 해외 연구동향 및 정책 사례 검토

- 대다수 OECD 국가들에서 1인가구 증가는 일반적인 흐름으로 가속화되고 있으며, 1인가구의 증가가 가져올 사회변화와 정책 트렌드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다. 영국 정부는 2018년 외로움 장관을 임명하고 『연결된 사회 : 외로움에 대응하는 전략 (A connected society : A strategy for tackling loneliness)』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미국의 사회학자 클라이넨버그는 혼자 사는 생활로 고립된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social infrastructure)’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등 움직임에 제약이 있고 자율도가 낮아 사는 곳에 묶여 있는 사람에게 특히 더 중요하다고 본다.
-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학계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1인가구 증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후지모리 가츠히코(2018)는 1인가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일본에서 1인가구의 빈곤, 돌봄,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1인가구를 근로세대 1인가구, 고령 1인가구, 1인가구 예비군(부모와 동거하는 40대, 50대 미혼자)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이 안고

있는 생활리스크와 욕구를 분석하였다.

- 일본의 1인가구 정책에서는 지역실태에 대한 조사, 다양한 비영리기관(NPO)과 연계하는 거버넌스가 중시되는 공통점이 있으며, 다양한 정책 기능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지자체의 역할과 역량이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정책 사례는 지자체가 자치회나 비영리단체(NPO)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주민 네트워크 구축 모델, 새로운 거주형태인 ‘컬렉티브 하우스’에 기반한 모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영국에서는 사회적 처방(social prescribing)과 ‘링크 워커’(link worker)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사례, 노인들을 위한 동아리를 조직하여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때 서로 도와주는 사회적 네트워크 지원, 관계적 복지를 지향하는 런던의 서클 모델(Circle Model) 등의 사례가 있다.

Ⅲ. 베이비붐세대 1인가구의 진입경로와 유형별 특성

- 베이비부머 1인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1인가구로 진입하는 경로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과 한국복지패널 두 자료에 포함된 베이비붐 세대 1인가구 응답자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중졸 이하의 비율이 2배 가까이 높고, 대졸 학력자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지위를 보면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상용직 비율이 낮은 반면, 반면 실업 (1인가구 2.3%, 다인가구 4.5%), 또는 ‘그냥 쉰다’(1인가구 21.1%, 다인가구 6.7%)고 응답한 사람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에서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 성별, 연령, 교육수준에 따른 혼인지위의 차이를 보면, 다인가구 내 집단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는데 비해 1인가구 내부의 이질성은 상당히 크다는 점이 주목된다.
- 배열분석을 통해 현재 1인가구인 응답자가 지난 14년 동안 어떤 혼인지위에서 누구와 같이 살았는지의 시계열적 변화를 유형화하였다. 혼인 상태와 가구구성 상태를 결합한 ‘혼인-동거배열’을 최적일치법에 근거하여 유형화한 결과, 6개의 군집이 가장 뚜렷하게 구별되었다.
- 첫 번째 군집인 “미혼 1인가구”는 남성(72.2%), 미·비혼자(97.0%)가 많으며 40대 고학력 상위직 남성형이라고 부를 만한 특성을 보인다. [군집 1]과 정반대

특성을 보이는 [군집 5]는 “사별 1인가구”라고 부를 수 있는데, 주로 60대 저학력 빈곤층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이혼·별거 후 1인가구가 된 [군집 2, 3, 4]는 55세 이상이 대부분이라는 유사점이 있지만,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서는 다소 차이가 나타난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군집 3]은 이혼 후 평균 혼자 생활한 기간이 9.1년으로 가장 길며, 성별, 학력, 직종 등의 분포가 고른 편이지만 절반 이상이 소득1분위에 속해있어 ‘55세 이상 빈곤층 장기이혼·별거형’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군집 2]는 이혼 후 원가족과 결합하여 생활하다가 다시 1인가구가 된 유형이며 ‘55세 이상 저학력 하층 여성형’으로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한편 [군집 4]는 배우자나 자녀와 동거한 기간이 평균 9.4년으로 가장 긴 집단이며, ‘55세 이상 고학력 상층 최근 이혼·별거형’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IV. 베이비붐 세대의 ‘혼자살기’ 경험

- 온라인 조사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 1인가구 응답자들이 혼자 살기 시작한 시점과 기간을 조사한 결과, 40대 중반에 1인가구 생활을 시작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또, 비교적 최근 5년 이내(2015년부터) 1인가구의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았다. 혼인지위가 미혼인 집단을 보면, 혼자 산 기간이 5년 이하인 응답자가 25.3%인데 비해 20년 넘게 1인가구로 살아온 응답자 비율이 28%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미혼·미혼 인구의 증가 추세를 볼 때 앞으로 중장년층에서도 1인가구 중 미·비혼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혼자 살게 된 이유에 대한 응답을 보면 40대 후반 연령층일수록 가족관계 사유(18%) 보다는 학교/직장 생활 때문에(38%),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37%)가 높게 나타난다. 이혼, 사별, 가족분가 등 가족관계 사유는 50대 후반부터 1인가구 형성의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 1인가구중 원래 가족과 함께 산 경험이 있는 비율도 60% 정도로 높은 편이며, 다인가구 중 예전에 혼자 생활한 적이 있다는 비율도 58%에 이른다. 한편 1인가구, 다인가구의 각각 40%는 성인이 된 후 계속 같은 가구형태로 살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 1인가구가 혼자 살면서 겪는 어려움과 불편은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이 가장 많았고(77%), 다음으로 혼자 있을 때 외로움(60%)도 어려운 점이었다. 가사일 처리와 관련된 어려움은 남성이, 경제적 어려움은 여성이 더 어렵다고

응답했다. 특히 “혼자 사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사회적 시선”과 “편견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은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가구로 살면서 사회적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응답은 미혼자인 경우, 그리고 혼자 산 기간이 길수록 더 많았다.

V. 가족·친구관계와 가족가치관

- 1인가구와 따로 거주하는 가족들과 관계, 즉 부모·형제자매·성인 자녀 등과의 만남 및 연락 빈도 등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가구형태에 따른 가족 만남이나 연락 빈도에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1인가구 내에서 교육수준이 높고 가구소득수준이 높은 응답자들은 따로 사는 가족과의 교류가 더 활발한 경향이 있다.
- 가족관계 만족도는 1인가구에서 전반적으로 다인가구보다 다소 낮은 편이다. 특히 1인가구 내부의 차이가 있는데, 교육수준이 높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더 높아졌다. 흥미로운 점은 1인가구가 다인가구보다 친구와의 만남이 빈번하며, 가족관계 만족도와 달리 친구관계 만족도에서는 1인가구와 다인가구에 차이가 없었다.
- 베이비붐 세대 전체의 가족가치관을 살펴보면 개인보다 가족, 부모의 희생을 강조하는 식의 전통적 태도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있다. 성별과 혼인지위,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여성, 미혼·비혼자, 그리고 40대 후반 연령층의 경우 가족보다 개인을 중시하며 독신생활이나 무자녀 가족에 대한 허용적 태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I. 사회관계망과 삶의 질

- 경제, 일상생활, 정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관계망을 조사한 결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다인가구보다 1인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1인가구의 사회관계망은 다인가구에 비해 양적으로 다소 취약해 보이며, 가족의 지원은 다인가구보다 적은 반면 친구와의 관계는 더 중요하게 나타났다.

- 영역별 생활만족도를 살펴보면 1인가구는 건강상태와 인간관계에서 다인가구보다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경제상태와 여가 생활에서 다인가구와 1인가구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10점 만점의 행복점수를 측정했을 때 1인가구 평균은 5.6점, 다인가구는 6.2점으로 나타나 다인가구가 더 높으며, 1인가구 내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행복감이 높아졌다.
- 정서적 영역에서 우울, 외로움, 자살생각을 자주 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우울에서는 가구유형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외로움, 자살생각은 다인가구에 비해 1인가구가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인가구의 경우에도 절반 이상(51.4%)이 외로움을 “가끔” 혹은 “자주” 느꼈다고 응답했다. 한편 지난 1년간 자살생각을 “가끔” 혹은 “자주” 했다는 비율은 1인가구 중 19.6%로 다인가구(13.5%)보다 높다. 지난 1년간 자살생각을 “가끔” 혹은 “자주” 했다는 비율은 남성의 경우 1인가구와 다인가구 응답자가 각각 21.5%, 2.2%이며 여성은 11.6%, 3.1%였다. 베이비붐 1인가구 남성의 약 1/4정도가 자살생각을 가끔 또는 자주 한다는 것은 이들의 정서적,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사회적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VII. 노후준비와 정책 인식

- 베이비붐 세대는 노년기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어 노후준비의 중요성이 크다. 1인가구와 다인가구에서 공통적인 결과는 경제, 인간관계, 정서, 건강 등 네 가지 노후대비 영역 모두에서 가구소득,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주거 형태가 안정적인 집단에서 노후대비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을 가장 많이 느끼는 영역은 소득과 경제 영역(78.0%)이며 그 다음은 건강에 대한 불안, 외로움과 소외감, 그리고 소일거리가 없는 무료함의 순이다. 경제적 불안은 1인가구와 다인가구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1인가구에서는 노후에 아파도 적절한 치료나 간병을 받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 무료함이나 외로움에 대한 걱정이 더 높게 나타난다. 특히 교육수준이 낮은 1인가구에서 노후의 무료함이나 소외에 대한 불안이 더 높다.
-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거주지 주변의 공적 시설이나 서비스 중 가장 선호하는 것은 북카페 등 문화 공간이었으며, 자녀·부모를 함께 돌보는 공간, 업무나 이동

중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다인가구에 비해 1인가구는 공적 시설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다소 낮은 편인데, 정책의 접근성 차원에서 고려해볼 만한 대목이다. 한편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문화 공간이나 돌봄 공간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았고, 다인가구 응답자 역시 1인가구에 비해 문화 공간이나 자녀 돌봄 공간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 중장년 가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전체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척도 점수를 기준으로 할 때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와 취업지원(3.37점), 신체 건강 증진(3.28점), 가족 돌봄에 대한 지원(3.20점), 노후대비 재무설계(3.15), 문화·취미활동 프로그램, 힐링 캠프와 힐링 여행(각각 3.06점)의 순으로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돌봄에 대한 지원은 다인가구가 더 관심이 높은 반면, 안전확인을 위한 주기적 연락·방문, 고립 방지를 위한 관계 맺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1인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VIII. 결론 및 정책 제언

- 문헌연구 및 조사결과 분석을 통해 베이비부머 1인가구를 고려한 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운영모델과 관련하여 먼저 세 가지 기본 방향을 제언하였다.
 - 첫째, 가족지원 서비스 및 전달체계의 확장성 및 개방성을 지향하며, 특정한 가족 유형을 기준으로 하는 이른바 ‘맞춤형’ 서비스보다는 베이비부머 1인가구 내부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 가족정책, 개인화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장하려는 접근이 필요하다.
 - 둘째, 지역사회에 기반한 서비스의 접근성, 지역 특성에 맞는 기능을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1인가구의 실태 파악, 생활 SOC의 확대를 가족센터와 지역 주민들 간의 접촉면을 넓히고 인접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확대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 셋째, 지역사회에 기반한 가족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을 강화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지역사회의 공급자 네트워크와 주민(참여자) 네트워크를 연계하는 촉진자 역할을 검토할 수 있다. 다양한 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가족센터의 경험을 기반으로 1인가구 프로그램에서도 한편으로 공급자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늘리고, 다른 한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인가구 주민들 사이의 느슨한 연대나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함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최근 진행되고 있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가족센터의 공간적 환경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 내 역할을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로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시설환경의 물리적 변화에 그치지 않으며, 산업·기술·문화 등이 역동적으로 변화되는 환경에서 시민들이 일과 삶을 함께 영위하면서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공간 복지의 확대, 시민들이 원하는 안전하고 좋은 삶의 적정 수준 (national minimum)을 가까운 지역공동체 안에서 충족하는 것을 지향한다. 가족센터의 공간이 중장년 1인가구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접근성, 개방성, 참여성, 포용성을 높이는 방안, 특히 “다목적 교류·소통공간”의 기능 강화 및 적극적 활용이 중요해 보인다.
- 이 연구에서 패널 자료 및 온라인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베이비부머 1인가구를 위한 사업 모델을 제언하였다 (표의 예시 사례 참조).

< 조사결과에 기반한 1인가구 사업 예시 >

| | 사업 유형 | 주요 대상집단 | 프로그램/ 공간 및 전달체계 활용 |
|---|---------------------------|---|--|
| 1 | 생활리스크 중첩집단의 예방/관리 | - 장기간 1인 생활한 사람 - 정서적 취약성 높은 남성 1인가구 - 삶의 질 낮은 여성 1인가구 | - 지역별 실태 파악 - 상담을 통한 지원, 기관 연결 - ‘휴먼링크’(생활코디네이터)를 통한 일대일 정보제공과 관리 - 1인가구 온라인 플랫폼 |
| 2 | 외로움. 정서지원에 특화된 상담+문화 프로그램 | - 외로움, 소외감, 사회적 고립감에장기 노출된 집단 - 정서적 취약성이 높은 남성 1인가구 | - 사회연결망, 관계망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참여형 주민 네트워크 형성 - 정서적 지원 + 접근성 향상 - 문화 프로그램과 상담을 함께 진행 |
| 3 | 지역참여형 문화활동 지원 | - 문화, 여가활동에 관심 많은 베이비부머 (비혼, 40대, 여성) - 단순한 문화 소비자에서 참여형 활동으로 확대하기를 원하는 사람 | - 교육 프로그램 + 참여자 주도형 모임 - 참여자들의 거점 공간 제공 (다목적 소통 공간) - 지역 내 문화기관들과 연계 |
| 4 | 1인가구 사회적 인정 제고 프로그램 | -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편견극복 (특히 여성/비혼/이혼자에 대한 낙인) | - 교육 프로그램 (가족 변화와 새로운 가치관) - 글쓰기, 독서토론 모임 (새로운 가족, 성평등한 가족문화에 대한 독서 리스트) |
| 5 | 자기돌봄, 독립생활역량 강화 | - 독립적인 1인 라이프를 위한 역량 강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 | - 간단한 집 수선과 셀프 인테리어, 건강 유기농 식단과 채식 요리, 홈트레이닝, 1인 방송 등 활동에 필요한 기구, 장비, 새로운 정보 등 지원 (공간 및 장비 대여 / 교육 프로그램 등) |
| 6 | 느슨하고 완만한 공존 | - 누구나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공유하면서 느슨한 관계 맺기/ 언택트 프로그램 구축 | - 북카페, 멀티미디어 데스크, 멀티미디어 교육장, 모바일 충전, 빈백/캠핑용 텐트 등 간단한 휴식공간 등 - 1인가구 온라인 플랫폼 |
| 7 | 지역주거 특성에 맞는 1인가구 프로그램 | - 공공임대주택 등 콜렉티브 하우스에 거주하는 1인가구 (예비 1인가구, 다양한 세대 포함) | - 지역 주거환경을 고려한 주민과 이웃간의 관계 형성, 공동관리를 위한 자치회, 문화 프로그램 등. |

차례

제1장 서론

| | |
|-------------------------------------|----|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
| 2. 연구 방법 | 9 |
| 가. 문헌연구 | 9 |
| 나. 통계자료 재분석 | 9 |
| 1) 분석방법 | 9 |
| 2) 자료와 분석대상 | 9 |
| 3) 상태범주 정의 및 배열 구성 | 10 |
| 4) 유형별 특성 분석: 최적일치법을 이용한 배열분석 | 11 |
| 다. 온라인 설문조사 | 13 |
| 1) 표본 추출 및 응답자 특성 | 13 |
| 2) 설문지 개발 | 15 |
| 라. 전문가 자문회의 | 16 |
| 3. 분석틀 | 16 |

제2장 기존연구 검토: 베이비붐 세대와 1인가구

| | |
|--|----|
| 1. 베이비붐 세대와 중장년층의 가족생활 | 21 |
| 가. '베이비붐 세대'의 정의와 규모 | 21 |
| 나. 베이비부머 및 중년층 실태와 노후준비 관련 기존연구 검토 | 23 |
| 1) 베이비붐 세대와 전후세대 | 23 |
| 2) 베이비붐 세대 내부의 다양성 | 25 |
| 3) 신중년·베이비부머 대상 정책 연구 | 27 |
| 2. 1인가구 특징과 서비스 욕구 | 31 |
| 가. 1인가구 정의와 규모 | 31 |
| 1) 1인가구 개념 정의 | 31 |
| 2) 1인가구 규모와 분포 | 33 |

| | |
|--|----|
| 나. 1인가구 진입경로 | 38 |
| 다. 1인가구 서비스 욕구 | 40 |
| 3. 1인가구 증가와 사회적 리스크 : 해외 연구동향 | 44 |
| 가. ‘외로움’과 사회적 인프라(social infrastructure) | |
| : 1인가구 증가에 대한 진단과 대응 | 44 |
| 나. 1인가구와 ‘싱글화’에 대한 일본의 연구동향 | 47 |
| 4.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서비스 지원 사례 | 49 |
| 가. 외국 사례 | 49 |
| 1) 일본 | 49 |
| 2) 영국 | 52 |
| 나. 국내 사례 | 53 |
| 1) 서울시 1인가구 기본계획 중 중장년 대상 프로그램 | 53 |
| 2) 기재부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 54 |
| 3) 1인가구 서비스 전달체계: 서울시 사례 | 55 |

제3장 원자료 재분석: 베이비붐 세대 1인가구의 진입경로와 유형별 특성

| | |
|--------------------------------|----|
| 1. 베이비붐 세대 1인가구의 특징 : 사회경제적 특성 | 61 |
| 2. 1인가구 진입경로와 유형별 특성 | 71 |
| 가. 1인가구 진입경로: 혼인-동거배열 | 71 |
| 나. 1인가구 진입경로별 특성 | 73 |
| 3. 소결 | 76 |

제4장 베이비붐 세대 1인가구의 “혼자살기” 경험

| | |
|---------------------|----|
| 1. 혼자 산 경험: 언제부터 왜? | 81 |
| 2. 혼자 사는 이유 | 84 |
| 가. 혼자 사는 이유: 1인가구 | 84 |

| | |
|---|-----|
| 나. 혼자 살다가 원가족과 합쳤던 경험 유무: 1인가구 | 88 |
| 다. 성인이 된 후 혼자 생활한 경험 유무: 다인가구 응답자 | 90 |
| 3. 혼자 사는 삶의 어려움 | 94 |
| 가. 혼자 사는 삶에 만족하는가 | 94 |
| 나. 혼자 사는 생활의 불편과 어려움 | 96 |
| 다. 혼자 사는 삶의 사회적 불이익과 편견 | 103 |
| 4. 1인가구 생활과 경제·정서적 상황 변화 | 107 |
| 5. 소결 | 110 |

제5장 베이비붐 세대의 가족·친구관계와 가족가치관

| | |
|---|-----|
| 1. 가족과의 만남과 연락: 1인가구와 다인가구 | 116 |
| 가. 부모와의 만남 | 116 |
| 나. 형제자매와의 만남 | 118 |
| 다. 배우자·성인 자녀와의 만남 | 121 |
| 라. 가족과의 연락 빈도: 1인가구와 다인가구 | 125 |
| 2. 부모·자녀와의 상호지원: 1인가구와 다인가구 | 134 |
| 가. 부모와의 상호지원: 경제·가사돌봄·정서적 지원 | 134 |
| 1) 부모를 지원해 드린 경험 | 134 |
| 2) 부모님의 지원을 받은 경험: 경제·가사돌봄·정서적 지원 | 140 |
| 나. 성인 자녀와의 상호 지원: 경제·가사돌봄·정서적 지원 | 146 |
| 1) 성인 자녀를 지원해준 경험 | 146 |
| 2) 성인 자녀에게 도움 받은 경험: 경제·가사돌봄·정서적 지원 | 154 |
| 3. 가족관계 만족도 | 162 |
| 가. 부모, 형제·자매와의 관계 만족도 | 162 |
| 나. 배우자·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 166 |
| 4. 친구관계: 1인가구와 다인가구 | 170 |
| 가. 친구와의 만남 | 170 |
| 나. 친구와의 연락 빈도 | 173 |

| | |
|---------------------------------|-----|
| 다. 친구 관계 만족도 | 178 |
| 5. 베이비붐 세대의 가족 가치관과 세대인식 | 180 |
| 가. 베이비붐 세대의 가족 가치관 | 180 |
| 1) 베이비붐 세대의 가족 가치관: 전체 비교 | 180 |
| 2) 베이비붐 세대 1인가구의 가족가치관 | 183 |
| 나. 베이비붐 세대의 세대 인식 | 186 |
| 6. 소결 | 189 |

제6장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관계망과 삶의 질

| | |
|--|-----|
| 1. 일상 속의 사회관계망: 1인가구와 다인가구 | 197 |
| 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사회관계망 | 197 |
| 1)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경제/ 일상생활/ 정서적 지지망 | 198 |
| 2) 도움을 준 경험 | 211 |
| 나. 갑자기 연락해도 응해줄 수 있는 사람 | 222 |
| 다. 다양한 관계에 대한 기대 | 225 |
| 2. 베이비붐 세대의 온라인 활동과 사회참여 | 230 |
| 가. 인터넷, 온라인 활동: 1인가구와 다인가구 | 230 |
| 나. 집단 및 조직 참여 경험과 친밀도 | 245 |
| 3.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질: 1인가구와 다인가구 | 261 |
| 가. 정서적 건강 상태 | 261 |
| 나. 여가 활동 | 269 |
| 다. 생활 만족도 | 274 |
| 4. 소결 | 280 |

제7장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인식과 정책 수요

| | |
|--|-----|
| 1. 노후준비와 노후생활에 대한 기대 | 287 |
| 가. 노후대비: 경제 · 인간관계 · 건강관리 · 여가 생활 영역 | 287 |
| 나. 노후에 하고 싶은 활동 | 295 |

| | |
|------------------------------------|-----|
| 다. 노후에 누구와 함께 살까: 1인가구와 다인가구 | 297 |
| 1) 노후에 함께 살고 싶은 사람: 희망사항 | 297 |
| 2) 노후에 함께 살 사람: 현실 | 299 |
| 라. 노후생활의 불안과 어려움 | 302 |
| 1) 노후에 대한 불안감: 네 가지 영역 | 302 |
| 2) 노후에 누구로부터 지원을 받고 싶은가 | 309 |
| 2. 정책 수요 | 311 |
| 가. 지역사회 기반의 정책 수요 | 311 |
| 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 환경에 대한 만족도 | 311 |
| 2) 거주지 주변의 공적 공간/ 공공 서비스 필요도 | 315 |
| 나. 중장년 가족을 위한 정책 수요와 전달체계 선호 | 320 |
| 1) 중장년 가족지원 정책의 필요성 | 320 |
| 2) 서비스 이용방식 선호 | 328 |
| 다. 가족관련 공적 지원서비스 인지도 | 331 |
| 3. 소결 | 333 |

제8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 |
|---|-----|
| 1. 연구 결과 요약 | 337 |
| 가. 베이비붐 세대 1인가구의 취약성과 차별경험 | 338 |
| 1) 유형별 특성과 취약성 : 패널자료 재분석 | 338 |
| 2) 1인가구의 삶의 질과 차별 경험 : 온라인 조사 | 339 |
| 나. 베이비붐 세대 1인가구의 다양성 | |
| : 생애과정의 유동성과 다양한 가치관 . 정책 인식 | 341 |
| 1) 혼자 사는 이유와 생애과정의 유동성 | 341 |
| 2) 가족 . 친구관계와 가족가치관 | 342 |
| 3) 노후준비와 정책 인식 | 342 |
| 2. 정책 제언: 베이비붐 세대 1인가구를 고려한 가족지원 서비스 운영모형 | 344 |
| 가. 1인가구와 가족지원 서비스 현황 | 344 |

| | |
|---|-----|
| 1) 가족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 방향 | 344 |
| 2) 가족센터와 1인가구 지원 | 345 |
| 나. 베이비붐 세대 1인가구를 고려한 가족지원 서비스 운영모형 : 제언 | 346 |
| 1) 기본 방향 | 346 |
| 2) 생활 SOC 복합화와 1인가구를 고려한 가족센터 공간운영 | 349 |
| 3) 조사결과에 기반한 사업 내용 제언 | 352 |
| 4) 전달체계 운영에서 유의점 및 고려 사항 | 357 |
| | |
| 참고문헌 | 361 |
| | |
| 부록 | 366 |

표 차례

| | |
|--|----|
| <표 1-1> 패널자료 분석대상 | 10 |
| <표 1-2> 혼인-동거배열 상태범주 | 11 |
| <표 1-3> 혼인-동거배열 예시 | 11 |
| <표 1-4> 1인가구 진입경로별 특성 비교 변수 | 12 |
| <표 1-5>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구성 | 14 |
| <표 1-6> 설문지 주요 항목 | 15 |
| <표 2-1> 1인가구 개념 정의 | 32 |
| <표 2-2> 유사 개념 비교 | 33 |
| <표 2-3> 일반가구원 및 1인가구 변화추이 (2000-2017년) | 34 |
| <표 2-4> 1인가구 기존 연구내용 요약 | 41 |
| <표 2-5> 서울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에서 중장년 프로그램 | 54 |
| <표 2-6> 생애주기별 1인가구 주요 프로그램 | 55 |
| <표 3-1> 원자료 1인가구·다인가구의 성별·연령별 분포 | 62 |
| <표 3-2> 원자료 1인가구·다인가구의 교육수준 | 62 |
| <표 3-3> 원자료 1인가구·다인가구의 혼인지위 | 63 |
| <표 3-4> 원자료 1인가구·다인가구의 경제활동상태 및 종사지위 | 64 |
| <표 3-5> 원자료 1인가구·다인가구의 직종 | 66 |
| <표 3-6> 원자료 1인가구·다인가구의 연금 가입 현황 | 67 |
| <표 3-7> 통계청 공표 2019년 가구소득 5분위 경계값, 평균소득액 | 68 |
| <표 3-8> 원자료 1인가구·다인가구의 가구소득 현황 | 69 |
| <표 3-9> 원자료 1인가구·다인가구의 1인가구 기간 | 70 |
| <표 3-10> 진입경로 유형별 사회경제적 특성 | 74 |
| <표 3-11> 진입경로 유형별 특징 요약 | 75 |
| <표 3-12> 진입경로 유형별 삶의 질 비교 | 76 |
| <표 4-1> 혼자 산 기간: 연령별, 성별, 혼인지위별 차이 | 82 |
| <표 4-2> 1인가구가 혼자 사는 이유 | 86 |
| <표 4-3> 과거에 혼자 살다가 원래 가족과 함께 산 경험 유무(1인가구) | 89 |
| <표 4-4> 과거에 혼자 살다가 같이 산 이유(1인가구) | 90 |
| <표 4-5> 성인이 되고 혼자 생활한 경험 유무 (다인가구) | 91 |
| <표 4-6> 성인이 되고 혼자 생활한 이유 (다인가구) | 93 |
| <표 4-7>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만족도 | 95 |

| | |
|--|-----|
| <표 4-8> 혼자 생활하면서 겪는 불편 및 어려움 | 97 |
| <표 4-9> 혼자 사는 어려움: 혼자 있을 때 외로움 | 98 |
| <표 4-10> 혼자 사는 어려움: 가사일, 은행 업무 등 도와줄 사람이 없음 | 99 |
| <표 4-11> 혼자 사는 어려움: 소득 경제적 어려움 | 100 |
| <표 4-12> 혼자 사는 어려움: 아플 때 돌봐줄 사람 없음 | 101 |
| <표 4-13> 혼자 사는 어려움: 사회적 시선 | 102 |
| <표 4-14> 혼자 산다는 이유로 불이익 받은 경험 | 104 |
| <표 4-15> 편견이나 무시당한 경험 | 106 |
| <표 4-16> 처음 1인가구 생활을 시작했을 때와 비교해 현재 경제적 정서적 상황 | 108 |
| <표 5-1> 따로 사는 가족 비율 | 115 |
| <표 5-2> 따로 사는 부모님과 직접 만나는 빈도 | 117 |
| <표 5-3> 따로 사는 형제, 자매와 직접 만나는 빈도 | 120 |
| <표 5-4> 따로 사는 배우자와 직접 만나는 빈도 | 122 |
| <표 5-5> 따로 사는 자녀와 직접 만나는 빈도 | 124 |
| <표 5-6> 따로 사는 부모와 연락하는 빈도 | 127 |
| <표 5-7> 따로 사는 형제, 자매와 연락하는 빈도 | 129 |
| <표 5-8> 따로 사는 배우자와 연락하는 빈도 | 131 |
| <표 5-9> 따로 사는 자녀와 연락하는 빈도 | 133 |
| <표 5-10> 부모님께 경제적 지원 해드린 경험 | 135 |
| <표 5-11> 부모님께 집안일 혹은 건강 돌보기 해드린 경험 | 137 |
| <표 5-12> 부모님 개인적인 문제나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 들어준 경험 | 139 |
| <표 5-13> 부모님의 지원을 받은 경험: 경제적 지원 | 141 |
| <표 5-14> 부모님의 지원을 받은 경험: 집안일과 돌봄 | 143 |
| <표 5-15> 부모님의 지원을 받은 경험: 정서적 지원 | 145 |
| <표 5-16> 성인자녀에게 지원 해 준 경험 : 경제적 지원 | 147 |
| <표 5-17> 성인자녀에게 지원해준 경험: 집안일, 돌봄 | 149 |
| <표 5-18> 손자녀 돌봐준 경험 | 151 |
| <표 5-19> 성인자녀에게 지원해준 경험 : 정서적 지원 | 153 |
| <표 5-20> 성인자녀의 지원 받은 경험: 경제적 지원 | 156 |
| <표 5-21> 성인자녀에게 지원 받은 경험 : 집안일, 돌봄 | 158 |
| <표 5-22> 성인자녀에게 도움 받은 경험 : 정서적 지원 | 161 |
| <표 5-23>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 163 |
| <표 5-24> 형제, 자매와의 관계 만족도 | 165 |
| <표 5-25>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 167 |
| <표 5-26>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 169 |

| | |
|--|-----|
| <표 5-27> 친구와 직접 만나는 빈도 | 172 |
| <표 5-28> 친구와 연락하는 빈도 | 175 |
| <표 5-29> 친구와의 관계 만족도 | 179 |
| <표 5-30> 베이비붐 세대의 가족가치관 : 전체 | 181 |
| <표 5-31> 베이비붐 세대의 가족가치관: 1인가구 | 185 |
| <표 5-32> 세대에 대한 인식: 전체 응답 | 186 |
| <표 5-33> 세대에 대한 인식: 가구형태·성별·연령별 응답 | 188 |
| <표 5-34> 1인가구의 가족 및 친구와 만남 | 189 |
| <표 5-35> 1인가구의 가족 및 친구와 연락 | 190 |
| <표 5-36> 1인가구가 부모님과 주고받은 도움 | 191 |
| <표 5-37> 1인가구가 성인자녀와 주고받은 도움 | 192 |
| <표 5-38>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관계 만족 비교 | 193 |
| <표 6-1>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수 | 199 |
| <표 6-2>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려 줄 수 있는 사람 | 201 |
| <표 6-3> 아플 때나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수 | 203 |
| <표 6-4> 아플 때나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 205 |
| <표 6-5> 우울·스트레스·걱정거리가 있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수 | 207 |
| <표 6-6> 우울·스트레스·걱정거리가 있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 209 |
| <표 6-7> 본인이 목돈을 빌려준 경험 | 212 |
| <표 6-8> 본인이 돈을 빌려준 사람 | 214 |
| <표 6-9> 본인이 다른 사람의 집안 일/일상생활 도와준 경험 | 216 |
| <표 6-10> 본인이 다른 사람의 집안 일이나 일상생활을 도와준 사람 | 218 |
| <표 6-11> 우울·스트레스·걱정거리가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 준 경험 | 220 |
| <표 6-12> 우울·스트레스·걱정거리가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 도움 준 사람 | 221 |
| <표 6-13> 갑자기 연락해 만나자고 할 때 응해줄 수 있는 사람 | 224 |
| <표 6-14> '현재보다 더 다양한 관계가 있으면 좋겠다'에 대한 생각 | 226 |
| <표 6-15> 새롭게 생기기를 희망하는 관계 | 229 |
| <표 6-16> 자신의 SNS에 글쓰기 빈도_1인가구 | 232 |
| <표 6-17> 자신의 SNS에 글쓰기 빈도_다인가구 | 233 |
| <표 6-18> 채팅/메신저 사용 빈도_1인가구 | 236 |
| <표 6-19> 채팅/메신저 사용 빈도_다인가구 | 237 |
| <표 6-20>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빈도_1인가구 | 240 |
| <표 6-21>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빈도_다인가구 | 241 |
| <표 6-22> 인터넷 정보검색 빈도_1인가구 | 243 |
| <표 6-23> 인터넷 정보검색 빈도_다인가구 | 244 |

| | |
|--|-----|
| <표 6-24> 1인가구의 동창회/동창모임 참여 경험과 친밀도 | 247 |
| <표 6-25> 1인가구의 지역모임/향우회 참여 경험과 친밀도 | 249 |
| <표 6-26> 1인가구의 인터넷 커뮤니티/온라인카페 참여 경험과 친밀도 | 251 |
| <표 6-27> 1인가구의 등산/취미 등 동호회 모임 참여 경험과 친밀도 | 253 |
| <표 6-28> 1인가구의 계모임/친목회 참여 경험과 친밀도 | 255 |
| <표 6-29> 1인가구의 종교단체 참여 경험과 친밀도 | 257 |
| <표 6-30> 1인가구의 자원봉사 단체 및 시민운동단체 참여 경험 | 259 |
| <표 6-31> 정서에서 1인가구·다인가구 차이 | 261 |
| <표 6-32> 지난 1년간 우울 경험 | 263 |
| <표 6-33> 지난 1년간 외로움 경험 | 265 |
| <표 6-34> 지난 1년간 자살생각 경험 | 267 |
| <표 6-35> 가구유형별 여가시간 충분성 | 269 |
| <표 6-36> 인구사회학적 요인별 여가시간 충분성 | 270 |
| <표 6-37> 여가 활동의 유형(1인가구) | 271 |
| <표 6-38> 문화관람 참여율 | 272 |
| <표 6-39> 여가활동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 | 273 |
| <표 6-40> 삶의 영역별 만족도 | 276 |
| <표 6-41> 행복감 수준 | 277 |
| <표 6-42> 생활 만족의 다양한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79 |
| <표 6-43> 도움이 필요할 때 1인가구와 다인가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280 |
| <표 7-1> 베이비붐 세대의 분야별 노후대비 - 경제, 인간관계, 건강, 여가 | 287 |
| <표 7-2> 노후준비 정도_1) 노후생활을 대비한 경제적 준비(보험, 저축 등) | 290 |
| <표 7-3> 노후준비 정도_2)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 | 292 |
| <표 7-4> 노후준비 정도_3)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체력관리 | 293 |
| <표 7-5> 노후준비 정도_4) 노후의 여가 생활을 위한 대비 | 294 |
| <표 7-6> 노후를 주로 어떤 활동을 하면서 보내기를 희망하는가 | 296 |
| <표 7-7> 희망하는 노후생활 동반자 | 298 |
| <표 7-8>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노후생활 동반자 | 300 |
| <표 7-9> 노후에 대한 불안 - 소득감소, 건강, 무료함, 외로움 | 302 |
| <표 7-10> 노후 불안_1)소득이 줄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질 것 같아 걱정된다 | 304 |
| <표 7-11> 노후 불안_2) 몸이 아파도 적절한 치료나 간병을 못 받을까봐 불안하다 | 306 |
| <표 7-12> 노후 불안_3) 마땅한 취미, 소일거리 없어 무료함을 느낄 것 같다 | 307 |
| <표 7-13> 노후 불안_4) 사람의 왕래가 줄어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낄 것 같다 | 308 |
| <표 7-14> 노후에 어려움에 처하면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가 | 309 |
| <표 7-15> 노후에 어려움에 처하면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가 (1인가구) | 310 |

| | |
|--|-----|
| <표 7-16> 주거지 환경에 대한 만족도: 성별·가구형태별 비교 | 312 |
| <표 7-17> 주거지 환경에 대한 만족도 (평균 비교): 1인가구 | 313 |
| <표 7-18> 주거지 환경에 대한 만족도 (평균 비교): 다인가구 | 314 |
| <표 7-19> 거주지 주변에 필요한 공적 시설/ 공적 서비스: 1인가구와 다인가구 | 316 |
| <표 7-20> 거주지 주변에 필요한 공적 공간/ 공적 서비스: 1인가구 | 317 |
| <표 7-21> 거주지 주변에 필요한 공적 공간/ 공적 서비스: 다인가구 | 318 |
| <표 7-22> 중장년 가족을 위한 정책 수요: 전체 가구 | 321 |
| <표 7-23> 중장년 가족에게 필요한 정책: 1인가구 (1) | 323 |
| <표 7-24> 중장년 가족에게 필요한 정책: 1인가구 (2) | 324 |
| <표 7-25> 중장년 가족에게 필요한 정책: 다인가구 (1) | 325 |
| <표 7-26> 중장년 가족에게 필요한 정책: 다인가구 (2) | 326 |
| <표 7-27>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 전체 | 328 |
| <표 7-28>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 | 330 |
| <표 7-29> 가족관련 공적 서비스 인지도 | 332 |
| <표 8-1> 가족센터 생활 SOC 유형과 다목적 소통공간 예시 | 345 |
| <표 8-2> 베이비붐 세대 1인가구를 고려한 가족센터 공간 운영 | 352 |
| <표 8-3> 조사결과에 기반한 1인가구 사업 예시 | 356 |

그림 차례

| | |
|---|-----|
| <그림 1-1> 과제수행체계 | 8 |
| <그림 1-2> 분석틀 | 17 |
| <그림 2-1>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 추이 (2010년 기준) | 22 |
| <그림 2-2> 1인가구 비율의 증가 | 34 |
| <그림 2-3> 일반가구원 대비 1인가구인구의 성별·연령별 비율 (2000년, 2017년) | 35 |
| <그림 2-4> 1인가구 인구의 성별 연령대별 비중 (2017년) | 36 |
| <그림 2-5> 1인가구 혼인상태별 비율 및 분포 | 37 |
| <그림 2-6> 베이비붐 세대 연령별 혼인지위 분포 | 38 |
| <그림 2-7> 혼자 사는 삶으로의 진입 경로 | 40 |
| <그림 2-8> 영국의 외로움 전략: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 분담 | 45 |
| <그림 2-9> 서울시 1인가구 서비스 전달체계 | 56 |
| <그림 2-10> 건강가정센터 1인가구 서비스 전달체계 | 57 |
| <그림 3-1> 혼인-동거배열 군집별 상태분포 그래프 | 72 |
| <그림 4-1> 혼자 생활하기 시작한 시점 (연도) | 83 |
| <그림 4-2> 혼자 생활하기 시작한 나이 | 83 |
| <그림 4-3> 1인가구가 혼자 사는 이유 | 87 |
| <그림 4-4> 1인가구가 혼자 사는 이유: 성별·연령별·교육수준별 | 87 |
| <그림 4-5> 혼자 생활하면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 성별 차이 | 97 |
| <그림 4-6> 혼자 산다는 이유로 불이익 받은 경험: 전체 | 105 |
| <그림 4-7> 혼자 산다는 이유로 불이익 받은 경험: 혼인지위별·혼자 산 기간별 | 105 |
| <그림 4-8> 처음 1인가구 생활을 시작했을 때와 비교해 현재 경제적 정서적 상황: 성별 | 109 |
| <그림 4-9> 처음 1인가구 생활을 시작했을 때와 비교해 현재 경제적 정서적 상황: 혼인지위별 | 109 |
| <그림 5-1> 따로 사는 가족과 만나는 빈도 (종합): 1인가구와 다인가구 | 125 |
| <그림 5-2> 부모님께 경제적·가사돌봄·정서적 지원을 제공해 준 경험: 1인가구와 다인가구 | 140 |
| <그림 5-3> 성인자녀에게 경제적·가사돌봄·정서적 지원 제공: 1인가구와 다인가구 비교 | 154 |
| <그림 5-4> 성인자녀에게 경제적·가사돌봄·정서적 지원을 받은 경험: 1인가구와 다인가구 | 160 |
| <그림 5-5> 가족관계 만족도 (종합): 1인가구와 다인가구 | 168 |
| <그림 5-6> 친구와의 만남·연락 빈도(전체): 1인가구와 다인가구 | 176 |
| <그림 5-7> 친구와의 만남·연락 빈도(성별): 1인가구와 다인가구 | 176 |
| <그림 5-8> 친구와의 만남·연락 빈도 (가구소득별): 1인가구와 다인가구 | 177 |
| <그림 5-9> 베이비붐 세대의 가족가치관 (종합): 1인가구와 다인가구 | 180 |
| <그림 6-1> 경제적·일상생활·정서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의 수 | 210 |

| | |
|---|-----|
| <그림 6-2> 경제적·일상생활·정서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 210 |
| <그림 6-3> 다양한 관계에 대한 욕구: 성별 | 227 |
| <그림 6-4> 다양한 관계에 대한 욕구: 주관적 경제 수준별 | 227 |
| <그림 6-5> 새롭게 생기기를 희망하는 관계(1인가구) | 230 |
| <그림 6-6> 1인가구 사회활동 참여 경험 | 260 |
| <그림 6-7> 1인가구 사회활동 참여자가 느끼는 친밀도 | 260 |
| <그림 6-8> 지난 1년간 우울 경험(1인가구) | 264 |
| <그림 6-9> 지난 1년간 외로움 경험(1인가구) | 266 |
| <그림 6-10> 지난 1년간 자살생각 경험(1인가구) | 268 |
| <그림 6-11> 삶의 영역별 만족도 | 276 |
| <그림 7-1>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1인가구와 다인가구 | 288 |
| <그림 7-2> 희망하는 노후생활 동반자와 노후에 함께 살 사람: 1인가구 | 301 |
| <그림 7-3> 희망하는 노후생활 동반자와 노후에 함께 살 사람: 다인가구 | 301 |
| <그림 7-4> 노후에 대한 불안 - 소득감소, 건강, 무료함, 외로움 | 303 |
| <그림 7-5> 거주지 주변에 필요한 공적 공간/ 공적 서비스 수요 | 319 |
| <그림 7-6> 중장년 가족을 위한 정책 수요 | 327 |
| <그림 8-1> 가족센터 : 공급자 네트워크와 주민 네트워크 | 348 |
| <그림 8-2> 일과 삶이 공존하는 포용적 혁신공간 | 350 |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3. 분석틀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가족정책의 방향과 전달체계에 대한 논의에서 가족다양성, 1인가구의 증가는 핵심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가족의 변화는 가족 형태의 외형적 변화를 넘어서서 변화된 사회환경에서 생애주기의 재편성과 개인화(individualization)의 확대 등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할 만한 역동성을 보이고 있다. 가족지원 정책 및 서비스에 측면에서도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지원과 특히 1인가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김은지 외, 2017; 박건·김연재, 2016; 김석호 외, 2018; 강은나·이민홍, 2016). 기존의 가족지원 서비스가 한국사회의 보편혼 관념에 기반하여 유배우 가족의 자녀양육 지원에 중점을 두어 왔다면, 가족원이나 배우자가 없이 혼자 거주하는 1인가구와 중장년기 연령층은 가족지원 서비스에서 포괄되지 못했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확대되고 있는 1인가구에 대한 정책과 연구 관심은 주로 청년층 및 노년 1인가구에 집중되었으며, 1차 및 2차 베이비부머의 현재 연령대인 중장년층(만45~64세) 1인가구에 대한 조사 및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 연구에서는 광범위한 인구변동에 대응하는 가족정책의 확장이라는 차원에서 베이비붐 세대 1인가구의 생활실태와 정책 방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논의는 가족정책보다 광범위한 사회정책의 차원,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2005년경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베이비붐’은 특

정 시기에 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후 다시 출산이 줄어드는 ‘베이비버스트’로 이어지는 인구학적 개념에서 출발하지만, 베이비붐 이후의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논의는 광범위한 사회, 경제, 문화적 변화 등 다양한 논의로 확장되고 있다.

한국에서 베이비붐 세대는 일반적으로 한국전쟁 이후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출생한 코호트 집단을 가리키지만(1차 베이비붐), 1960년대 후반부터 1974년까지 출생아 수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 기간을 2차 베이비붐으로 포함하는 견해도 있다.¹⁾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는 1차(1955~1964년), 2차(1965~1974년) 베이비붐 기간의 출생자를 포괄할 때 전체 인구의 약 1/3 (약 1,650만명)을 차지하는 큰 규모의 인구 집단이며,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인구구조의 변동과 그로 인한 사회·경제·문화적 전환의 중심에 있는 집단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사회정책의 측면에서는, 1955년 출생자들이 이미 노년기로 진입함에 따라 베이비부머의 문제는 무엇보다 고령화의 규모와 속도 진전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졌으며 은퇴와 정년, 노후 빈곤과 건강, 연금과 재정 부담 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 문제는 단순히 노인 문제나 인구 고령화의 문제에 그치지 않으며 (김용하·임성은, 2011), 이들이 한국사회의 경제성장과 민주화, 경제위기, 가족의 다양화 등 굵직한 사회적 변화들을 주도해온 집단이라는 점에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베이비부머들의 고용, 은퇴, 빈곤, 노후대비, 소비 등의 문제 영역을 기존 연구에서는 각각 분절적으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한편 이들의 가족생활의 실태와 유동성, 친밀한 관계 등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은퇴와 노후대비 등 베이비부머와 관련된 문제들이 가족주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가족생활이나 가족관계의 맥락에서 다루는 연구가 많지 않은 것이다.

또한 1·2차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하는 중장년층(46~65세)은 정상가족의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할 때 영유아 자녀 양육의 부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며, 노동경력의

1) 한국의 경우 1960년대 이전 출생에 대해서는 공식적 인구추계나 인구동태 자료가 없어 베이비부머 선정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통계청의 분석에 따르면 1955~63년도의 조출생률이 다른 연도보다 두드러지게 높아 이 시기 출생자를 베이비부머로 보고 있음. 또한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1968~74년에는 출산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임여성의 증가로 출생아 수가 크게 늘어나 이를 2차 베이비부머로 구분함(통계청, 2012; 정경희 외, 2013).

정점에 도달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하면서 노후를 준비하는 시기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주기에서 벗어난 일부 취약집단에 대해서만 선별적인 정책 지원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가족생활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도에 대한 경험적 조사 및 실태분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1인가구 또는 ‘혼자 사는 생활’(living alone)을 그 자체로 취약성 내지 고립으로 간주하며, 이른바 ‘정상 가족’을 기준으로 하여 가족 형성 준비기(청년)나 빈둥지·사별 기간(노년)을 1인가구의 속성으로 전제하는 통념에서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가족생활 및 인구구조의 변화에서 1인가구 증가는 더 이상 주변적인 현상이 아니다. 유럽 국가의 경우 1인가구 비중이 40%를 상회하고 있다. 1인가구는 후기현대·탈산업화·개인화된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주거·생활 배치’(living arrangement) 방식으로 볼 수 있으며, 결혼제도 변화와 수명연장 등의 영향으로 1인가구의 내부 구성도 달라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유럽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주로 노년기 여성 위주였던 1인가구의 내부구성이 점차 변화하여 청년 및 중년층 1인가구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중년 남성의 비중이 높아지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Demey et al., 2013).

한국 전체 가구 중 1인가구의 비율은 2000년 15.5%에서 빠르게 증가해 2015년 우리 사회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구 유형이 된 이후, 2018년 현재 29.3%를 차지하고 있으며(KOSIS, 2020a) 2047년에는 전체 가구 중 37.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KOSIS, 2020b). 전 연령 1인가구 중 1·2차 베이비붐 세대(만 45~64세)비율은 33.1%로 65세 이상의 1인가구(24.7%) 비율보다 높으며, 그 구성도 남성 54.8%, 여성 45.2%(KOSIS, 2020a)로 세계적인 흐름과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가구 구성 및 주거·생활 배치의 변화는 가족정책의 체계 및 지원서비스 제공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가족지원 서비스에서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않았던 베이비부머의 가족생활실태 및 베이비부머 1인가구의 특성을 체계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취약성과 고립이라는 1인가구의 스테레오타입에 국한되지 않는 새로운 가족지원 정책 수요의 흐름을 중장기적 시각에서 진단하고자 한다.

특히 베이비부머 1인가구에 초점을 맞춘 분석은 가족변화의 학문적 분석 및 정책

적 진단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베이비붐 세대 1인가구는 혼자 사는 삶의 형태가 더 이상 일부 취약집단의 문제가 아니며 가족 생애주기의 재편성 및 개인화의 확대와 연관되어 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집단이라고 하겠다. 기존 연구에서 청년이나 노인집단에 초점을 맞추면서 소득 및 건강 측면의 1인가구의 취약성을 주로 다루었다면, 이 연구에서는 1, 2차 베이비붐 세대를 포괄하는 중장년 집단의 1인가구 생활을 폭넓게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온라인 조사에서는 베이비부머 1인가구를 같은 연령대의 다인가구와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1인가구의 다양한 삶의 실태와 역동적 특징들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 1인가구의 이러한 특징들은 향후 가족지원 서비스의 내용과 전달 방식을 모색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한국의 급속한 가족 변화를 고려할 때 1인가구의 정책 수요에 대한 연구는 한편으로 취약성과 긴급 지원의 필요성을 진단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 1인 가구 내부의 차이와 다양한 가치관을 고려한 정책 접근성 또한 새롭게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령 성별, 혼인지위(사별/ 이혼 및 별거/ 비혼 및 미혼), 교육수준이나 가치관·인식에 따라 중장년 1인가구가 원하는 정책 수요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간의 관계도 일방적인 지원 제공에서 참여에 기반한 상호협력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지역 환경이나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정책에 관한 정보를 얻고 참여하는 통로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위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1·2차 베이비붐 세대의 가족생활과 베이비붐 1인가구의 특성을 경험적 자료에 기반하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가족지원 서비스의 중장기적 추진 방향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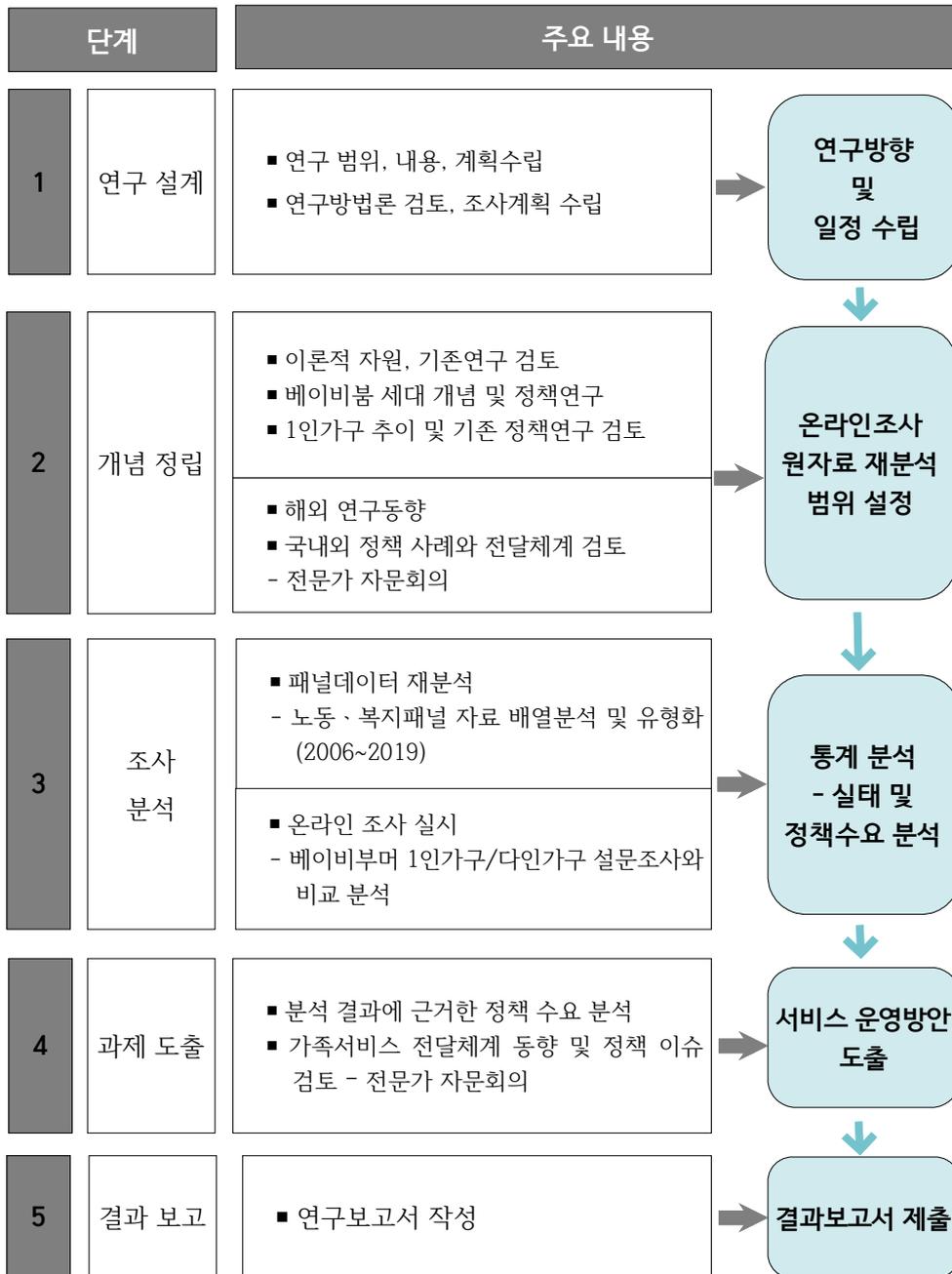
베이비붐 세대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존 통계자료 재분석과 더불어 베이비부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기존 자료에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가족관계, 친밀성과 정서적 관계, 사회자본과 사회적 고립 경험, 삶의 질과 문화·여가 생활, 가족가치관, 가족지원서비스에 대한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별도의 설문 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는 대규모의 인구집단이므로 그 내부의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필요하다. 베이비부머 1인가구와 다인가구 간의 차이, 그리고 성

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와 차별화된 정책 수요 여부 등을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비교 분석 및 차이 검정을 실시할 것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 1인가구가 동일 연령층 다인가구에 비해 생활실태에서 어떤 차이점 및 내부적 다양성을 보이는지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가족지원 서비스의 다양한 요구도를 중장기적 시각에서 진단해 본다.

셋째, 경험적 자료 분석에 근거하여 1인가구를 포함한 베이비부머 가족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가족지원 서비스의 방향을 검토한다. 주지하다시피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각각 운영되던 지역센터들이 통합센터로 전환되고 있으며, 최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확장되고 있는 생활 SOC 복합시설화로 지역 센터의 전달체계 및 거버넌스가 광범위하게 재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전반적인 변화와 개편은 다양한 가족,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개방적·복합적·다기능적인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베이비부머 1인가구를 고려한 가족지원 서비스의 필요성과 지향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다. 최근 가족센터를 비롯하여 지자체의 다양한 창구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1인가구 관련 서비스 사례, 1인가구와 중장년층에 관련된 외국의 정책지원 사례 등도 참고할 것이다. 이처럼 한국 가족정책 및 지역센터를 통한 지원서비스의 변화라는 맥락 위에서, 베이비붐세대 및 베이비붐세대 1인가구를 고려한 서비스 운영모형의 방향과 기본 원칙, 지역사회에 기반한 운영방안 등을 제언하고자 한다.



<그림 1-2> 과제수행체계

2.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붐 세대 1인가구, 1인가구의 증가와 다양성에 대한 인구학적 논의, 베이비부머의 경험과 문화, 가치관 등을 다루는 사회문화적 분석, 베이비부머의 노동경험과 은퇴과정, 소득과 사회보장 등에 대한 정책연구 문헌 등을 다각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과 이들의 고령화가 제기하는 사회정책의 과제들은 국가별 배경이나 역사적 맥락에 따라 상이하다.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의 베이비붐 세대 관련 논의와 국가별 특징, 그리고 정책에 관한 쟁점들과 주목할 만한 사례들을 문헌 연구를 통하여 살펴본다.

나. 통계자료 재분석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사회학적 구성과 기본적인 특성을 분석한다. 특히 패널조사 원자료(한국노동패널, 한국복지패널)를 재분석하여 1인가구로 진입하게 되는 경로를 파악하고, 현재 1인가구로 생활하게 된 경로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유형화하여 분석할 것이다.

1) 분석방법

1인가구로의 진입경로 파악을 위한 유용한 분석도구는 ‘누구와 살고 있는가’의 거주형태 배열(living arrangement)이다. 거주형태 배열은 결혼, 출산, 분가 등을 둘러싼 생애과정의 구조, 장기간에 걸친 가족관계 구조를 보여주기 때문에 유동적인 가족의 삶을 고찰하는데 유용하다.

2) 자료와 분석대상

거주형태 배열에 필요한 정보는 혼인력(婚姻歷), 출산력, 동거관계력이나 이 모든

정보가 제공되는 자료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조사기간 동안 동거관계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패널데이터는 조사 1차년 시점 이전의 과거 가족력 정보는 알 수 없는 좌측 관찰중단(left censored) 사례가 된다.

국내에서 패널조사 중 이력이 긴 자료는 2019년에 21차 조사가 완료된 한국노동패널(KLIPS)과 14차 조사가 완료된 한국복지패널(KoWePS)이다. 충분한 분석대상 확보를 위해 두 자료를 모두 활용하고자 하며, 이 경우 관찰기간은 조사가 늦게 시작된 한국복지패널을 기준으로 2006년~2019년의 14개년이다.

분석대상은 관찰종료 시점인 2019년 현재 1인가구면서 출생시점이 1955년~1974년인 사례 865명 중 배열 구성에 필요한 혼인상태와 동거가구원 정보가 최소 3개년 이상 응답된 사례를 추출하여, 최종적으로 총 755명이 분석대상으로 추출되었다. 이 중 남성은 378명, 여성은 377명이다.

<표 1-1> 패널자료 분석대상

| 출생년도 | 남 | 여 | 전체 | 복지패널 기준 조사1차년(2006년) 만나이 | 2019년 (관찰종료) 만나이 | 배열길이 |
|------|-----|-----|-----|-----------------------------|---------------------|------|
| 노동패널 | 228 | 208 | 436 | | | |
| 복지패널 | 150 | 169 | 319 | 32~51 | 45~64 | 14년 |
| 전체 | 378 | 377 | 755 | | | |

3) 상태범주 정의 및 배열 구성

이 연구는 가족생활 및 가족관계의 변동이라는 맥락에서 베이비부머 1인가구를 고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므로, 부모 등 출신가족과 배우자 및 자녀와의 동거 여부를 중심으로 거주형태 배열을 구성하였으며, 동시에 이러한 거주형태가 해당 시점에 어떤 혼인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교차하여 상태범주를 구성하였다. 이를 ‘혼인-동거배열’이라 명명하였고, 상태범주는 아래 <표1-2>와 같이 총 12개로 구성하였다.²⁾

배열의 구성은, 예를 들어 1960년생 어떤 사람이 관찰기간 동안 배우자와 살다가

자녀 출산 후 배우자, 자녀와 살다가 분거 주말부부를 거쳐 다시 합가했다가 이혼 후 자녀와만 살다가 1인가구가 되었다면 이는 다음과 같은 배열로 표현될 수 있다.

<표 1-2> 혼인-동거배열 상태범주

| 코드 | 상태범주 | 코드 | 상태범주 |
|----|-------------------|----|------------------|
| 0 | 무응답/패널 이탈 | 6 | 유배우-친인척, 비혈연과 |
| 1 | 미혼-혼자 | 7 | 이혼-혼자 |
| 2 | 미혼-부모와 | 8 | 이혼-부모, 부모·자녀, 자녀 |
| 3 | 유배우-혼자 | 9 | 사별-혼자 |
| 4 | 유배우-배우자, 배우자·자녀 | 10 | 사별-부모, 부모·자녀, 자녀 |
| 5 | 유배우-부모, 부모·자녀, 자녀 | 11 | 싱글-친인척, 비혈연 |

배열의 구성은, 예를 들어 1960년생 어떤 사람이 관찰기간 동안 배우자와 살다가 자녀 출산 후 배우자, 자녀와 살았고, 분거 주말부부를 거쳐 다시 합가했다가 이혼 후 자녀와만 생활한 후 1인가구가 되었다면, 이는 아래 <표 1-3>과 같은 배열로 표현될 수 있다.

<표 1-3> 혼인-동거배열 예시

| 시점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 유배우 | 유배우 | 유배우 | 유배우 | 유배우 | 유배우 | 유배우 | 이혼 | 이혼 | 이혼 |
| 상태 | 배우자와 | 배우자·자녀와 | 배우자·자녀와 | 혼자 | 혼자 | 배우자·자녀와 | 자녀와 | 자녀와 | 혼자 |
| 배열 | 4 | 4 | 4 | 3 | 3 | 4 | 8 | 8 | 11 |

4) 유형별 특성 분석: 최적일치법을 이용한 배열분석

혼인-동거배열 구성을 완료한 후 배열에 존재하는 일련의 패턴을 기준으로 유형

2) 상태범주의 조작은 크게 두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가구자료에서 모든 가구원들의 '가구주와의 관계'와 '동거 여부' 변수를 활용하여 매 시점의 가구형태 변수를 만들었다. 두 번째는 가구형태 변수를 개인자료와 통합하여 개인의 동거상태 변수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 가구형태가 '부모, 가구주, 자녀'인 가구에 속한 미혼의 응답자가 '가구주의 자녀'인 경우 이 개인의 해당 시점의 상태범주는 '2. 미혼-부모와 동거'가 된다.

화를 진행하였다. 유형화를 위한 거리 측정의 알고리즘으로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최적일치법(optimal matching algorithm)을 활용하였다.

유형화 후 각각의 1인가구로의 진입 경로가 관찰종료 시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삶의 질 차원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³⁾

<표 1-4> 1인가구 진입경로별 특성 비교 변수

| 변수 | | 측정 |
|---------|----------------------|---|
| | 성별 | 남성, 여성 |
| | 연령 | 만나이(45~64세) 5세 구간 |
| | 교육수준 | 중졸 이하, 고졸, 초대졸 이상 |
| | 혼인 지위 | 미·비혼, 유배우, 이혼·별거, 사별 |
| 경제 수준 | 소득 5분위 | 통계청 공표 2019년 소득분위 경계값 기준 |
| | 연금 가입 여부 | 공적연금만 가입, 개인연금만 가입, 둘 다 가입, 둘 다 미가입 |
| 노동시장 지위 | 고용형태 | 상용직, 임시일용직, 비임금근로, 비취업 |
| | 직종 | 관리직·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기계 등 숙련직, 단순노무직 |
| | 주관적 건강상태 | 1. 매우 나쁘다 ~ 5. 매우 건강 |
| 삶의 질 | 수입만족도 | 1. 매우 불만족 ~ 5. 매우 만족 |
| | 가족관계 만족도 | |
| |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 |
| | 여가 생활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 |

3) 본 분석에 사용한 통계패키지 및 모듈은 다음과 같다. 배열의 구성은 SAS를, 배열 비교 및 최적일치법에 근거한 유형화는 R 패키지 중 TraMineR을, 유형별 특성 분석에는 IBM SPSS 24를 이용하였다.

다. 온라인 설문조사

기존 원자료에서 얻을 수 없는 베이비붐 세대의 생활 및 가족관계, 삶의 질과 사회적 자본, 가족 서비스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를 개발하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하였다.

1) 표본 추출 및 응답자 특성

전문조사회사가 보유한 전국규모 온라인 패널을 이용, 1차 및 2차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하는 연령의 국민(만 45~64세) 1,300사례에 대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계청 인구 총조사, 행안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근거로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 할당비율을 설정하였고, 1인가구 거주자가 일정 비율로 표집될 수 있도록 할당을 설정하였다. 1인가구 응답자는 1,300사례 중 500사례이다.⁴⁾ 조사 기간은 2020년 8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이다.

온라인 조사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1인가구 응답자 중 고학력자가 많은 편이며(대졸 이상 71.6%), 혼인지위별로는 유배우자의 비중이 다소 높은 반면 사별자의 비중이 낮은 편이다(1인가구 중 미혼 비혼 기타 39.6%, 유배우 28.2%, 이혼·별거 27.8%, 사별 4.4%).

4) 1인가구 500 사례는 통계청 「인구 총조사」(2018)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권역별 할당을 적용함. 비1인가구(다인가구) 800사례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20)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권역별 할당을 적용함.

<표 1-5>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구성

(단위: 명, %)

| 구분 | | 1인가구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합계 | |
|-----------|------------|-------|-------|---------------|-------|--------|-------|
| 전체 | | (500) | 100.0 | (800) | 100.0 | (1300) | 100.0 |
| 성별 | 남자 | (275) | 55.0 | (402) | 50.3 | (677) | 52.1 |
| | 여자 | (225) | 45.0 | (398) | 49.8 | (623) | 47.9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250) | 50.0 | (402) | 50.3 | (652) | 50.2 |
| | 도 지역 | (250) | 50.0 | (398) | 49.8 | (648) | 49.8 |
| 거주 권역 | 서울 | (86) | 17.2 | (145) | 18.1 | (231) | 17.8 |
| | 인천, 경기, 강원 | (159) | 31.8 | (275) | 34.4 | (434) | 33.4 |
| | 충청권 | (52) | 10.4 | (83) | 10.4 | (135) | 10.4 |
| | 전라권 | (65) | 13.0 | (88) | 11.0 | (153) | 11.8 |
| | 경북권 | (55) | 11.0 | (81) | 10.1 | (136) | 10.5 |
| | 경남권 | (83) | 16.6 | (128) | 16.0 | (211) | 16.2 |
| 연령 | 45-49세 | (116) | 23.2 | (210) | 26.3 | (326) | 25.1 |
| | 50-54세 | (118) | 23.6 | (209) | 26.1 | (327) | 25.2 |
| | 55-59세 | (135) | 27.0 | (201) | 25.1 | (336) | 25.8 |
| | 60-64세 | (131) | 26.2 | (180) | 22.5 | (311) | 23.9 |
| 혼인 지위 | 유배우 | (141) | 28.2 | (696) | 87.0 | (837) | 64.4 |
| | 사별 | (22) | 4.4 | (5) | .6 | (27) | 2.1 |
| | 이혼·별거 | (139) | 27.8 | (43) | 5.4 | (182) | 14.0 |
| | 미혼·비혼·기타 | (198) | 39.6 | (56) | 7.0 | (254) | 19.5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142) | 28.4 | (229) | 28.6 | (371) | 28.5 |
| | 대학교 | (297) | 59.4 | (469) | 58.6 | (766) | 58.9 |
| | 대학원 | (61) | 12.2 | (102) | 12.8 | (163) | 12.5 |
| 근로 여부 | 그렇다 | (390) | 78.0 | (555) | 69.4 | (945) | 72.7 |
| | 아니다 | (110) | 22.0 | (245) | 30.6 | (355) | 27.3 |
| 가구 소득 (월) | 199만원 이하 | (164) | 32.8 | (67) | 8.4 | (231) | 17.8 |
| | 200~399만원 | (182) | 36.4 | (227) | 28.4 | (409) | 31.5 |
| | 400~599만원 | (89) | 17.8 | (280) | 35.0 | (369) | 28.4 |
| | 600만원 이상 | (65) | 13.0 | (226) | 28.3 | (291) | 22.4 |
| 주택점 유형태 | 자가 | (235) | 47.0 | (595) | 74.4 | (830) | 63.8 |
| | 전세 | (101) | 20.2 | (109) | 13.6 | (210) | 16.2 |
| | 월세 기타 | (164) | 32.8 | (96) | 12.0 | (260) | 20.0 |
| 주관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98) | 19.6 | (252) | 31.5 | (350) | 26.9 |
| | 중하층 | (182) | 36.4 | (369) | 46.1 | (551) | 42.4 |
| | 하층 | (220) | 44.0 | (179) | 22.4 | (399) | 30.7 |

2) 설문지 개발

베이비붐 세대, 1인가구, 중년 및 노년층 생활실태와 노후준비 등을 다루는 기존 연구의 설문지 20여 종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본 연구의 설문지 개발에 참조하였다. 주요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⁵⁾

<표 1-6> 설문지 주요 항목

| 구분 | 주요 항목 |
|------------|--|
| 1인가구 생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자 생활한 기간 □ 혼자 사는 것에 만족도 □ 혼자 사는 것의 불편함/어려움/ 불이익/ 차별·편견 경험 □ 1인가구 생활에서 경제적 상황, 정서적 상황의 변화 |
| 가족·친구 관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로 사는 가족 유무 □ 따로 사는 가족, 친구와의 만남/ 연락 □ 부모님/성인 자녀와의 자원 교환 □ 가족/친구 관계 만족도 |
| 사회관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본 (도움을 받거나 준 사람) □ 인터넷, 온라인 활동 참여 □ 사회활동 참여 및 친밀도 |
| 정서·여가·삶의 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울/외로움/자살생각 경험 □ 여가시간 부족 여부 □ 여가활동 참여 및 어려움 □ 삶의 각 영역에 대한 만족도 □ 전반적인 행복감 |
| 노후준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대비 정도 □ 노후에 하고 싶은 일/ 고민되고 불안한 점 □ 노후에 도움 받고 싶은 사람 |
| 정책 태도 및 수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환경 만족도 □ 거주지 주변 공적 공간 및 공공서비스 수요 □ 중장년 가족을 위한 정책지원 수요 |
| 가치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가치관 □ 세대 인식 |

5) 자세한 설문지 문항은 부록을 참조.

라.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가 자문회의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개최하였다. 첫째, 전문가를 초빙하여 베이비붐 1인가구 관련 해외 연구 흐름과 정책 동향, 전달체계 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둘째, 국내에서 가족센터 전달체계의 재편 과정과 주요 논점, 지자체(서울시)의 1인가구 가족지원 서비스 계획 및 현황, 중장년층 대상 정책 사례로 50플러스 센터의 프로그램 및 실태조사결과 등을 발표하고 논의하였다.⁶⁾

3. 분석틀

이 연구의 분석틀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 <그림 1-2>와 같다.

베이비붐세대 1인가구를 고려한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운영모형을 도출하기 위해 서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실태 분석을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노동패널 및 복지패널 원자료를 재분석하여 1인가구로의 진입경로를 유형화하였고, 온라인 조사를 통해서 베이비붐 1인가구의 광범위한 생활 실태를 동일연령대 다인가구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중장년 1인가구와 관련된 국내외 정책 사례 및 전달체계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문헌연구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함에 있어 이 연구는 베이비붐 1인가구에서 나타나는 취약성 뿐 아니라 다양성 또한 다각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앞서서도 강조하였듯이, 1인가구는 ‘정상가족’(다인가구)에 대비되는 정태적 가족 유형이라기보다는, 가족생애주기의 전개와 그에 따른 ‘주거·생활배치’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삶의 형태이자 유동적인 가족생활의 한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베이비부머는 전체 인구의 약 1/3에 해당하는 대규모 집단이며, 베이비붐 세대가 공유하는 코호트로서

6) 전문가 자문회의 일정 및 발표 주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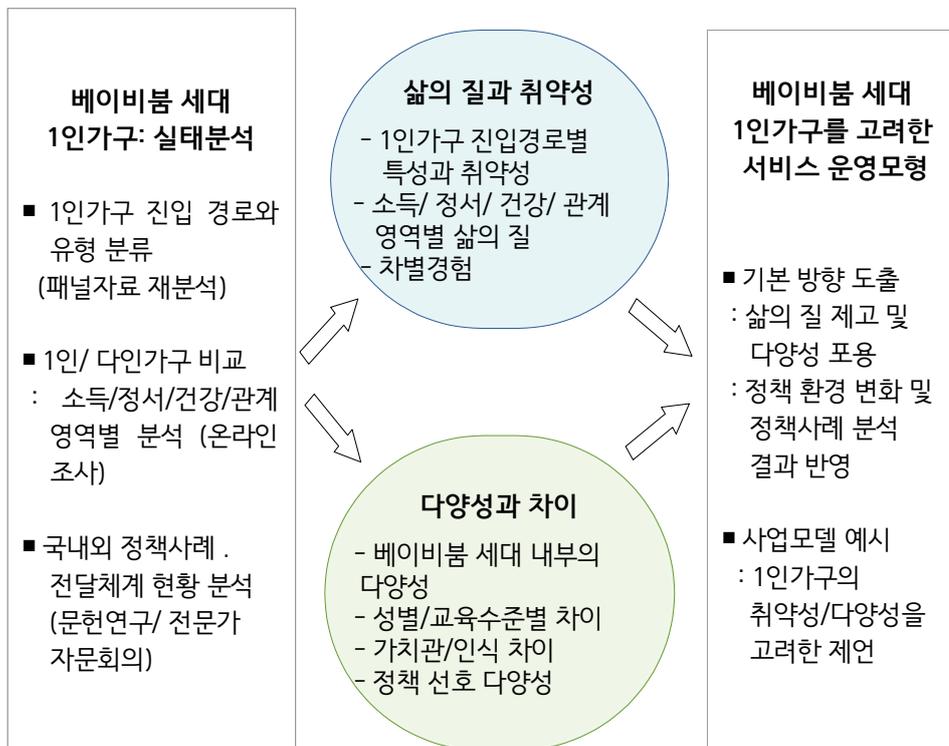
-1차 자문회의 (8. 13): “일본 단카이 세대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지자체의 사례” (이지영 동국대 일본연구소)/ “베이비붐세대 1인가구를 고려한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서울시 사례”(이선형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2차 자문회의 (10. 8): “베이비붐세대의 특성과 50플러스 정책사업 사례”(강소랑, 서울시 50플러스재단)/ “가족센터 SOC와 가족서비스”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자문회의에 외부 토론자를 초빙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서면자문 및 별도 자문으로 대체하였다.

의 속성과 더불어 그 내부의 다양성과 차이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석의 두 가지 축은 취약성과 다양성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베이비붐 1인가구의 삶의 질 차원에서 취약성을 분석하며 1인가구로의 진입경로 유형에 따른 특성과 취약성, 소득/정서/건강/관계 등 각 영역의 삶의 질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취약성, 그리고 1인가구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하는지 등을 분석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 내부에서도 성별이나 교육수준에 따라 관찰되는 1인가구의 다양한 실태, 가치관이나 인식의 차이, 가족지원서비스와 관련된 정책 선호에서의 차이 등을 다각적으로 고찰하였다. 실태 분석결과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정책 제언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가족지원 서비스의 기본 방향을 진단하고, 1인가구의 취약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다각적인 사업 모델을 제시한다.



<그림 1-3> 분석틀

제 2 장

기존연구 검토 :: 베이비붐 세대와 1인가구

1. 베이비붐 세대와 중장년층의 가족생활
2. 1인가구 특징과 서비스 욕구
3. 1인가구 증가와 사회적 리스크 : 해외 연구동향
4.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서비스 지원 사례

2

기존연구 검토 < : 베이비붐 세대와 1인가구 <

1. 베이비붐 세대와 중장년층의 가족생활

가. ‘베이비붐 세대’의 정의와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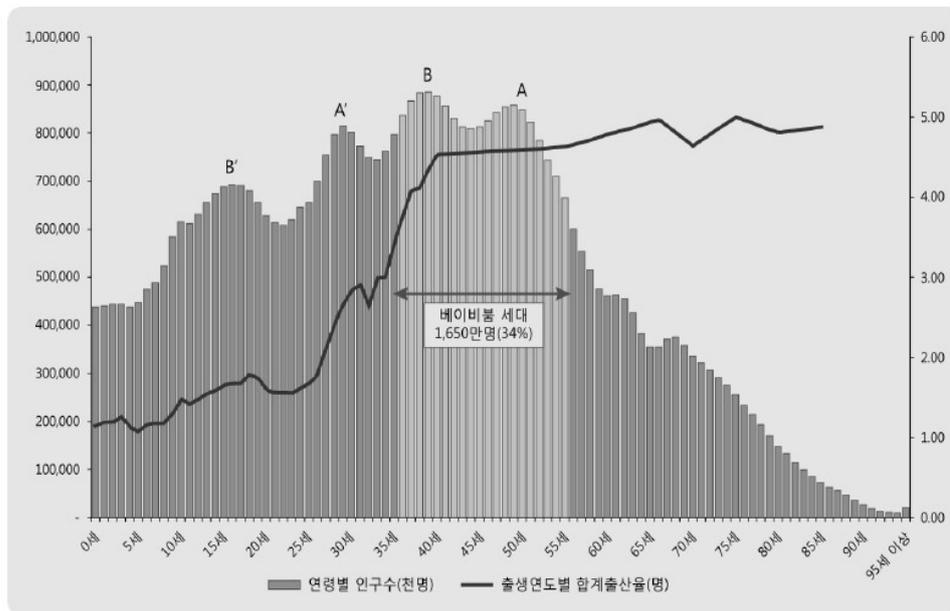
베이비붐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 시기에 출산이 집중되어 출생아 수가 폭증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베이비붐이 일어난 이후에 다시금 출산율이 감소하는 현상(베이비버스트)이 나타남으로써 결과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 크기는 그 이전이나 이후에 태어난 인구에 비해 돌출적으로 비대해진다. 베이비붐 세대가 경험하는 삶의 어려움은 이전이나 이후 세대에 비해 비대한 인구 크기 그리고 이로 인한 인구 압력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는 사회구조 및 제도적 한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여봉, 2016). 서구 사회에서는 대체로 2차 세계대전 이후 20여 년간 이러한 현상을 경험했는데, 한국 역시 한국전쟁 이후 베이비붐이 나타났다.

한국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범위와 규모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들이 제기된 바 있다. 한국전쟁 이후 부부 재결합 증가하고 유아 사망률이 하락하는 등의 영향으로 인구성장이 급격히 이루어진 1955년~63년의 시기를 베이비붐으로 보는 논의가 많다(계봉오, 2016).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는 국제공통의 통계적 기준으로 분류된 개념은 아니며 국가마다 기준과 범위가 다르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베이비붐 발생 기준을 출산율로 설정하며 합계출산율이 3.0 이상으로 증가한 후 지속되는 1947년~1964년까지 18년간 출생한 세대를 베이비붐 세대로 보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합계출산율이 3.0 이상으로 유지된 기간이 1947~1951년이었지만, 실제로 일본에서

베이비부머는 1947~1949년의 3년 동안 태어난 이른바 ‘단카이(團塊) 세대’를 의미한다(김용하·임성은, 2011).

베이비붐의 기준은 출산율의 급등으로 인한 출생아 수의 증가인데, 서구와 달리 한국의 경우 출산율 급등은 1950년대 중반에 있었으나 출생아 수의 급증은 1960년과 1971년을 정점으로 하는 두 번의 봉우리가 형성되었다. 즉, 출생아 수가 80만 명 이상으로 급등한 1955년부터 1964년까지와, 그 후 출생아 수가 다시 급증하여 100만 명이 넘었다가 점차 80만 명대로 감소한 1965~74년까지, 즉 전기와 후기로 구분할 수 있다(김태헌, 2010).



<그림 2-1>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 추이 (2010년 기준)

주: A: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 B: 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생)

A': 1차 베이비붐 세대 자녀 / B': 2차 베이비붐 세대 자녀

자료: 김용하·임성은(201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이 연구에서는 1차, 2차 베이비붐을 모두 포함하는 폭넓은 집단을 베이비붐 세대로 본다. 이렇게 확장된 정의를 적용하는 근거 및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1차, 2차 베이비붐을 모두 포괄하는 광의의 베이

비붐 세대 개념은 기존 연구들에서 그 근거가 충분히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정경희 외, 2010; 김태현, 2010).

둘째, 베이비붐 세대 중에서도 1인가구를 고려한 가족지원 정책을 다루는 이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베이비붐 세대의 범위를 협의로 설정할 경우 1인가구 사례가 줄어들게 되며, 1인가구 자체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는 집단이라고 볼 때 분석의 범위가 협소해지고 그 효용도 제한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광의의 베이비붐 세대 내에서 1인가구의 다양한 실태를 분석하는 것이 더 적절한 접근이라고 하겠다.

셋째, 광의의 베이비붐 세대는 1955~1974년 사이의 출생자로, 그 규모가 1,650만 명에 이르는 총인구의 약 1/3을 차지하는 거대한 인구집단이다. 현재 시점에서 45~65세 연령에 해당하는 이 집단은 중장년, '신중년' 등의 개념과도 중첩된다. 이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 내의 다양성과 차이(성별, 연령별, 계층별 차이 등), 1인가구와 비(非)1인가구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해서 고찰한다. 또한, 현재 1인가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과정과 경로를 거쳐 왔는지를 패널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할 것이다(배열분석). 이처럼 이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 또는 중장년층을 동일 연령대의 동질적 집단으로 전제하기보다는, 베이비붐 세대의 다양성과 역동성이라는 맥락 위에서 1인가구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접근을 취할 것이다.

나. 베이비부머 및 중년층 실태와 노후준비 관련 기존연구 검토

1) 베이비붐 세대와 전후세대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연구는 인구 고령화 현상에 따라 이들 베이비부머가 노인층에 진입하기 전인 2010년 즈음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베이비부머 연구는 특정 시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2010년은 1955년~1963년 출생 코호트인 1차 베이비부머들이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 연령에 도달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은퇴 시점에 근접한 베이비부머들의 노후생활 준비와 고령화 등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는 청년기, 중장년기를 통해 한국 사회 및 경제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과거의 노인세대와는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연구와 정책의 대상으로 부각되었다(정경희·손창균·박보미, 2010). 종전의 노인세

대와는 다른 노년기를 경험할 것을 기대하는 의미에서 1차 베이비부머는 ‘신노년층’으로 규정되기도 하였으며, 이들의 은퇴 시기에 맞추어 신노년층을 위한 노인복지정책 방향을 재점검하고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진 노인세대로서의 1차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면밀한 이해 과정이 축적되어 있지 않았고, 따라서 이들의 생활특성 및 욕구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들이 실시된 점이 주목된다.

1차 베이비붐 세대와 50대 후반까지 아울러 중년층 4,050명을 대상으로 2010년도에 이루어진 ‘중년층(46~59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에서는 가족 및 사회관계, 건강, 경제, 여가 및 사회참여, 가치관 등 생활 전반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졌다. 이 조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와 전후세대인 50대 후반을 비교함으로써 신노년층인 1차 베이부머의 특성을 강조하였다(정경희, 손창균, 박보미, 2010).

이 연구의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가족관계 측면에서는 전후세대보다 1차 베이비붐 세대가 부모에 대한 친밀감과 부부만족도가 높았다. 자녀로부터 가사도움은 덜 받지만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경우는 상당히 차이가 나타났다. 사회관계와 관련해서는, 지인 중 자주 접촉하는 사람이 지역주민이라는 응답은 연령이 높은 전후 세대에서 높게 나타났고,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전후세대보다 동창이나 직장 동료의 비율이 높다.

건강관련 항목을 살펴보면, 베이비붐 세대와 전후세대 모두 운동을 하는 비율은 높으나 전후세대가 약간 높게 나타나 노인층이 운동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은 연령이 높은 전후세대가 베이비붐 세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제생활 측면에서는 베이비붐 세대가 전후세대 비해 은퇴 경험 비율이 낮으며, 소득이 높고 부채도 많다. 자산규모 면에서는 베이비붐 세대나 전후세대 간에 큰 차이가 없다. 두 세대 모두 일을 그만 두는 것에 대해 특별한 대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주목할 만하다. 경제적 부양은 가족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전후세대에서 더 높았다. 두 세대 모두 건강 및 기능 약화,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노후에 겪을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있다.

여가와 사회참여에 관해서는, 여가활동이 현재의 삶이나 노후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활동 내용은 다양하지 않고 운동이나 모임 정도에 국한되어 있다.

노후설계컨설팅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의향은 베이비부머가 전후세대보다 많으며 평생교육기관의 필요성은 두 세대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베이비붐 세대 내부의 다양성

‘중년층(46~59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결과를 활용해 전후세대와의 비교가 아니라 1차 베이비붐 세대 3,027명 만을 대상으로 베이비부머의 특성을 세부 분석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정경희 외, 2010). 이 연구에서 분석한 베이비부머는 읍면부보다 동부에 거주하는 비율이 더 높으며 약 70%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이었다. 응답자의 약 85%는 배우자가 있었고, 1인가구는 5.5%였다.

가족관계, 특히 부모와의 관계를 보면, 부계가족 중심의 관계가 두드러진다. 여성 응답자가 남성보다 배우자 부모와의 접촉이 많고 경제적 지원 역시 남자 배우자의 부모 위주로 제공하고 있다. 교육수준 및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 부모에 대한 친밀감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지만 여성은 배우자 부모에게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 비율이 높다. 자녀관계를 살펴보면,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베이비부머는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시에 거주하거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았다. 그런데 자녀를 위한 경제적 지원에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건강과 관련해서는, 학력이 높고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흡연율이나 음주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 베이비부머의 약 70%가 운동을 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은 30% 이하로 낮은 편이다. 우울증상이 있다는 응답은 약 10% 정도로 나타났는데 특히 취약계층에서 더 높았다.

경제 관련 항목을 보면, 도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가 비도시 거주자보다 가구 소득이 높으며 자산규모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은 교육수준이 높은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약 65% 정도가 노후에도 일을 하고 싶어하며 그 비율은 남성이 80% 이상으로 여성의 경우(약 48%)보다 월등히 높다. 70% 이상이 노후 생활에서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특히 남성,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더욱 그러한 인식이 뚜렷해졌다.

여가 및 사회참여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70% 정도가 현재 여가활동을 중요시하며 노후에는 여가활동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80% 이상으로 더 높아졌다. 여가나 사

회참여 활동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더 높았다.

가족 부양과 관련해서는, 노부모나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을 느낀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노후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본인이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과 함께 연금 및 사회보험으로 충당한다는 응답비율도 높았다. 노후생활을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인식과 사회의 지원에 대한 기대가 혼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노후에 함께 거주하기 희망하는 형태는 부부끼리나 혼자라는 응답이 매우 높아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노후에 대한 정책으로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소득보장, 고용 관련 정책 등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들은 1차 베이비부머의 특징이 이전 세대(전후 세대)와 비교해 다른 점들, 또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 소득, 교육수준 등)에 따라 다양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경희 등의 연구(정경희, 오영희, 이윤경, 박보미, 2011)는 ‘중년층(46~59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베이비붐 세대를 성, 경제상황, 생애에 걸친 종사상 지위 기준으로 여성, 남성 각각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집단별 다양성을 분석한 연구로 주목할 만하다. 분류의 기준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으로 생애 걸쳐 불안정하거나 비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한 유형’(유형 I), ‘저소득층이지만 생애에 걸쳐 비교적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한 유형’(유형 II), ‘중상층이지만 생애에 걸쳐 불안정하거나 비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한 유형’(유형 III), ‘중상층으로 생애에 걸쳐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한 유형’(유형 IV)으로 베이비부머를 유형화하였다(정경희 외, 2011, p.6)

먼저 ‘여자 I, II 유형’에서는 저소득층의 공통점이 나타난다. 공적연금 미가입률이 높으며 현재 삶에 비관적인 태도, 앞으로 삶에서 경제적 불안이 커 보인다. 가족이나 친구 등 인적 자원이 부족하고 여가나 취미 생활이 없어 노인이 되면 사회적 고립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다른 유형에 비해 이 집단에서는 만성질환이나 우울증상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이와 달리 ‘여자 III 유형’은 부모와 교류가 많으며 친구도 많다. 배우자 중요성을 높이 인식하고 노후준비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 IV 유형’ 역시 부모와의 교류가 활발하고 건강 관리도 잘하는 편이다. 안정적인 소득으로 자원봉사 참여 및 희망률이 높게 나타난다.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남자 유형 I’은 노후준비가 매우 부족한 측면이 나타난다.

반면 ‘남자 III유형’에서는 배우자 가족에 대한 친밀감이나 지원 또는 교류가 높게 나타나고, 비교적 적극적인 노후준비를 하는 가운데 배우자 중심의 준비가 두드러진다. 또한, 동창모임이나 지역모임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삶에 있어 여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특성을 보인다. ‘남자 IV유형’은 무자녀 비율이 낮고 부모 생존율이 높아 가족자원이 많은 편이며, 배우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생활방식이 나타난다. 삶의 질도 비교적 높은 특성을 보이며 노후에 대해 긍정적 기대를 갖고 준비하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기존의 노인세대와 마찬가지로 1차 베이비붐 세대에서도 여성과 남성의 생활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종사상 지위는 계층에 따른 고착화가 드러나며, 경제상황과 소득수준은 가족관계뿐 아니라 친구나 사회 관계 등 노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족생활 측면에서는 자녀 중심에서 탈피해 부부 중심으로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베이비붐 세대의 공통점과 유형별 특성에 대한 분석은 정책 제언에도 고려할 사항인데, 가령 중상층 대상 자원봉사 및 사회적 기여 기회에 대한 필요,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 및 소득 관련 지원정책 필요성을 정경희 등의 연구에서는 강조하고 있다.

3) 신중년·베이비부머 대상 정책 연구

중년층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여러 연구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기존 통계자료에서 현황파악이 어려운 영역들에 대해 전국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2,250명을 대상으로 소득, 경제활동, 건강, 사회참여, 주거 관련 영역을 전화로 조사한 정경희 외(2011)의 연구에서는 공적·사적 소득보장에 대한 개선, 노년층의 문화 수요 파악 및 문화정책 활성화, 베이비부머 자립적으로 활동하는 자원봉사활동 기회 제공, 고령자 주거에 대한 적정기준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세대로 진입하였을 때의 정책은 기존의 노인 정책과는 다소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가령 스스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과 이를 위해서 일자리나 경제적인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안하는 연구도 있다. 또한 친밀감 교환이나 소속감도 중요시 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사회참여와 사회적 기여에 대한 기회가 풍부하게 제공되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정경희 외, 2013).

베이비붐 세대가 이전의 중장년과 다른 특성을 보이며 이들이 노인세대가 되었을 때를 대비한 연구와 정책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결국 이들은 이전 노인 세대와 다른 신노년층을 구성할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현재 이들이 포함됨 중년층은 이전 중년과 다른 특성을 보인다는 의미에서 ‘신중년’으로 구분된다. 또한, 1차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관심 이후 약 1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2차 베이비부머 (1964~1974년생)가 50대 중반에 이르렀으며, 이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추가되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50대 이상 연령층, 신중년 대상 정책에 대한 연구도 최근 활발해지고 있다. 전국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서울시 50~64세 1,225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노후준비, 가족관계, 사회관계, 건강, 여가, 학습, 생활만족도 등을 조사해 서울시 50대 이상의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강소랑, 이은정, 임승연, 2017). 마찬가지로 지역차원에서 이루어진 또 다른 조사는 인천에서는 2018년 현재 만 44~63세를 대상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안정된 노년기 삶을 위한 베이비부머 실태 및 욕구 조사(양지훈, 권미애, 2018)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1955년~1974년 출생자 1,907명을 대상으로 가족생활, 사회활동, 건강, 주거 및 지역사회 인식, 일자리 및 경제 상황, 노후준비 교육 등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가장 최근에 신중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전국단위 조사 연구는 2019년 전국 50~69세 4,00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이다. 이 연구에서는 주로 50~64세까지를 중장년으로 보는 기존 연구와 달리, 기대여명의 증가와 함께 65~69세도 노인으로 보지 않는 현재의 환경과 시각을 반영해 50~69세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황남희 외, 2019).

전반적으로 삶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은 53.5%로 과반이지만, 영역별로 만족한다는 응답률을 보면 경제상태는 약 30%, 근로활동은 약 49%, 건강상태는 약 55%, 여가활동은 약 30%, 부모와의 관계는 약 60%, 배우자와의 관계는 약 64%, 자녀와의 관계는 약 77%, 친구 및 이웃과의 관계는 약 67%로 나타난다. 즉, 경제나 일자리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은 과반에 못 미치고 있으나, 여가활동이나 다른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만족도가 높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점수가 상향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황남희 외, 2019).

베이비부머나 신중년에 대한 연구들은 이들이 노인세대가 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특히 경제적 상황, 일자리 등에 집중해 연구나 정책 방향 설정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집단 내 다양성과 새로운 세대로서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경제 상황과 고용 문제 이외에 다른 정책 이슈들, 예컨대 정서나 여가 활동,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특성 및 욕구 등 이전보다 세분화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및 경기지역 45~64세의 중장년층 271명을 대상으로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요인에서만 보면 월평균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후준비도와 자기효능감을 모두 놓고 보면 결국 자기효능감, 노후준비(사회적, 신체적, 경제적 노후준비), 학력 순으로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모든 노후준비 영역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후준비의 수준이 매우 중요하며 심리적 불안감이나 자신감 등 정서적 관리를 통해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염인숙, 2019).

또한, 한국 사회의 가구형태 중 1인가구가 가장 많은 형태의 가구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베이비붐 세대 및 중장년층에서도 1인가구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중장년의 1인가구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한국복지패널조사 제11차년도(2016년) 자료 중 40~64세 중장년 1인가구 344명의 자료를 활용해 사회경제적 박탈(식생활, 주거, 사회보장, 직업 및 경제, 사회적 박탈, 건강 및 의료 영역)과 이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 결과, 6개의 영역 중 한 영역이라도 사회적 박탈을 경험한 1인가구의 비율은 7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사회보장 영역의 박탈 경험이 약 49%로 매우 높고, 직업 및 경제 영역에서의 박탈은 약 43%, 주거 박탈은 약 30%, 사회적 박탈은 약 26% 등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박탈의 관계에서는 식생활 영역, 사회적 영역, 주거 영역에서의 박탈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장년의 식생활이나 주거 등 물리적인 환경의 중요성과 더불어, 가족관계나 사회적 친분관계 등의 만족이 우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임유진, 박미현, 2018).

마찬가지로 중장년층의 박탈과 우울을 연구하면서 1인가구와 다인가구를 비교하는 분석도 있다. 고아라 외(2018)의 연구에서는 두 집단 간의 사회경제적 박탈(식생활, 주거, 사회보장, 직업 및 경제, 사회적 박탈, 건강 및 의료 영역) 차이와 우울의

차이, 그리고 사회경제적 박탈이 우울이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한국복지패널 제7차년도부터 제11차년도(2012~2016년) 자료를 이용해 1인가구 211사례, 다인가구 4,001사례를 비교한 결과, 중장년 다인가구에 비해 1인가구는 사회경제적 박탈과 우울이 2배 이상 높았고, 특히 1인가구는 시간이 경과해도 사회경제적 박탈이 감소하지 않은 취약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의 모든 가구는 사회경제적 박탈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특성이 있었는데, 1인가구는 특히 사회경제적 박탈 및 우울의 초기값이 높아 더욱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아라, 정규형, 신보경, 2018).

1인가구 중에도 남성, 저소득층의 취약성을 주목한 연구도 있다.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 중장년 남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참여자의 경험 및 프로그램 결과 등을 분석한 연구이다(박소영, 최윤정 김주희, 2020).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과 생활환경 관리능력 증진’ 위주로 진행되었는데(박소영·최윤정·김주희, 2020), 집단 프로그램의 특성이 사회적 관계 형성이나 타인과 관계맺음에서 긍정적인 경험으로 작용하였고, 프로그램 참여는 자신감 향상이나 불안·우울한 감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의 흐름을 종합해보면, 1차 베이비부머가 노년기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새로운 고령화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차원의 실태조사가 다수 진행되었으며, 2차 베이비부머에 대해서도 새로운 욕구 파악을 위한 조사와 연구들이 실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나 신중년 내부의 다양한 삶의 방식과 차별화된 욕구 등이 논의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실태조사들은 베이비부머 및 중년층의 전반적인 생활실태를 일반적인 차원에서 다루거나 여전히 경제·고용·일자리 중심의 정책 논의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정서나 관계, 여가 등 새로운 관심 영역 및 관련 정책 논의들을 다루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중장년층 1인가구의 경우 정서 및 관계 영역의 문제를 중시하는 논의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1차, 2차 베이비부머가 포함된 현재 만45~64세 중장년층 중 1인가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중에서도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정서, 여가와 같이 최근에 더욱 집중해야 할 영역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장년층을 대상 조사를 통해 다인가구와 1인가구를 비교함으로써 베이비

붐 세대 및 중장년층의 1인가구 특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1인가구 특징과 서비스 욕구

가. 1인가구 정의와 규모

1) 1인가구 개념 정의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1인가구 개념은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로 정의된다. 즉 1인가구를 구성하는 두 가지 차원은 주거공간을 혼자 “독립적”으로 점유하고 취사, 취침 등의 “생활”을 혼자 영위한다는 생활단위의 개념이 결합되어 있다. 이 정의는 지자체의 조례 등에서 행정적 개념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김혜영(2014)와 문정희(2019) 등 가족연구자들은 1인가구가 배우자 유무, 기혼 여부와 상관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가족관계와 구분되는 주거 및 생활단위로서 가구 구분에 입각하여 직장/학업 등의 이유로 떨어져 사는 가족은 별도가구임을 강조하고 있다. 평균수명의 증가와 만혼 등의 인구변동이 결합되면서 청년에서는 유배우가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중장년에서는 유배우 가구가 증가하는 동시에 유배우 1인가구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가구를 포함하여 1인가구를 정의하는 것이 개념의 일관성 뿐 아니라 변화하는 가족관계 및 생활양식을 파악하는데도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1인가구를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한 최현수 외 (2016)은 1인취약 가구를 정의하고 있는데, 1인가구 중에서 중위 소득 60%미만, 수급빈곤층과 차상위 계층 소득수준을 포함하는 범위로 1인취약가구를 한정하고 있다.

1인가구 개념과 유사한 개념으로 독신가구, 단독가구 개념이 있다. 독신은 혼인지위에 따라 구분되는 개념으로 미혼, 이혼, 사별 등으로 현재 비혼 상태, 즉 법적 배우자가 없는 가구를 의미한다. 반면 단독가구는 1인가구라는 의미 뿐 아니라, 부부단독 가구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어 세대분리의 의미가 강조되는 개념이다. 미혼단독가구, 노인단독가구, 노인부부 단독가구 개념 등이 모두 가능하다. 국세청에서는 단독가구를 행정적으로 적용할 때,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가 없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처럼 1인가구는 가족 “밖”에서 “혼자 산다”는 의미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1인가구를 문화적 부상이라는 측면에서 조명하기도 한다. 클라이넨 버그의 “싱글턴” 개념은 1인가구 라이프 스타일, 솔로 이코노미를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결핍, 고독이 아니라 더 큰 자유와 만족이라는 의미를 강조하며(클라이넨버그, 2012), 드 파울로의 “독신 선언(singled out)은 원하는 만큼 고독을 즐기되, 필요한 만큼 연대를 나누는 1인가구 생활양식에 주목하면서 결혼을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비혼, 미혼을 차별화하는 ”싱글리즘“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드 파울로, 2012).

<표 2-1> 1인가구 개념 정의

| 구분 | 개념 | 비고 |
|-------|---|---------------------------------|
| 통계청 |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 | 통계청, 통계표준용어 및 지표(인구주택총조사) |
| 조례 | 1명이 단독으로 취사, 취침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 | 서울시(2016), 부산시(2016), 성남시(2017) |
| 연구보고서 |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및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 | 이민홍 외(2015) |
| | “결혼이나 배우자(또는 동거인)의 유무와 상관없이 혼자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 (기혼여부와 상관없음) | 문정희(2019) |
| | 의식주 등과 같은 일상생활을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영위하는 사람들 | 김윤영(2017) |
| | 일반가구 가운데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식사, 취침 등 일상적 생활 및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중위소득 60%미만) | 최현수 외(2016) “1인 취약가구” 정의 |
| | 배우자가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혼자 생활하거나 결혼하지 않아서 혼자 생활하는 가구 | 김혜영(2014) |
| | 혼자 사는 사람들, 독립된 공간에서 의식주의 일상생활을 혼자영위하는 사람 | 변미리(2008) |

주: 문정희 외(2019: 29의 표 2-8), 이민홍 외(2014:41의 표 2-2)를 수정보완

<표 2-2> 유사 개념 비교

| 구분 | 정의 |
|-----------------|---|
| 1인가구 |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
| 독신(unmarried)가구 | 미혼, 이혼, 사별 등으로 현재 비혼 상태 즉 법적 배우자가 없는 상태의 가구를 통칭함 |
| 단독가구 | 1인 혹은 부부가 한 가구를 형성하는 것으로, 혼자의 의미보다 세대분리의 의미가 강조됨. |
| | 배우자, 부양 자녀(18세 미만), 부양 부모(70세 이상)가 없는 가구(국세청 근로장려세제 적용시 정의) |

주: 변미리 외(2019), 4쪽 <표1-1>을 수정.

2) 1인가구 규모와 분포

① 1인가구 증가추이

지난 20-30년동안 1인가구는 양적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1990년~2005년까지 4인가구가 최빈가구였지만 2010년에는 2인가구가 최빈가구가 되었으며 2015년에는 1인가구가 주된 가구유형(최빈가구)가 되었다. 2019년에는 1인가구가 600만을 넘어서면서 전체 가구의 30% 선을 돌파했다.

2000년대 이래 1인가구의 증가추이를 수치로 살펴보면<그림 2-2>, 2000년 222만가구, 15.5%에서 2005년 317만 가구 20%를 넘어섰으며, 2019년 614만, 30.2%를 차지하게 되었다. 20년 정도만에 1인가구는 다인가구를 제치고 주된 가구유형(가장 흔한 가구유형)이 되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1인가구 비중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며, 2017년 558만가구에서 2045년 810만 가구, 전체 가구의 36.3%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가구원 대비 1인가구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데, 2000년 1인가구 인구비율은 5.0%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일반가구원의 11.6%로 상승하였다. 남녀의 비율은 2000년에는 남성이 적고(4.3%) 여성(5.6%)이 많았으나 전반적으로 1인가구원이 증가하는 추세속에서 2017년 현재 남녀 1인가구원은 각각 279만명, 282만명으로 유사하며 비율은 남성이 11.6%, 여성이 11.5%이다.



<그림 2-2> 1인가구 비율의 증가

자료: 통계청(2020) 2019년 인구주택 총조사 보도자료

<표 2-3> 일반가구원 및 1인가구 변화추이 (2000-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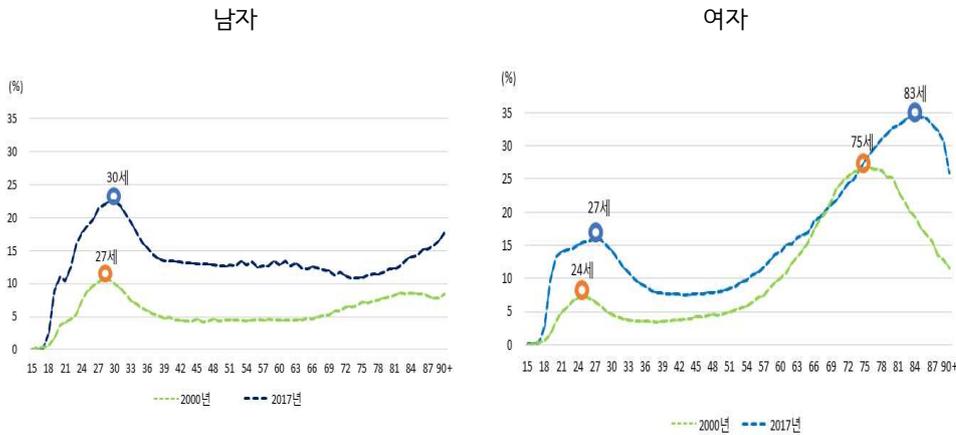
(단위: 천 명, %)

| 구 분 | 2000년 | 2005년 | 2010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 일반가구원(B) | 44,712 | 45,737 | 46,651 | 48,340 | 48,551 | 48,615 |
| 남자 | 22,022 | 22,438 | 22,812 | 23,805 | 23,919 | 23,973 |
| 여자 | 22,690 | 23,299 | 23,839 | 24,535 | 24,633 | 24,642 |
| 1인가구(A) | 2,224 | 3,171 | 4,142 | 5,203 | 5,398 | 5,619 |
| 남자 | 945 | 1,418 | 1,924 | 2,593 | 2,676 | 2,792 |
| 여자 | 1,279 | 1,753 | 2,218 | 2,610 | 2,722 | 2,827 |
| 1인가구 인구비율 [(A/B)*100] | 5.0 | 6.9 | 8.9 | 10.8 | 11.1 | 11.6 |
| 남자 | 4.3 | 6.3 | 8.4 | 10.9 | 11.2 | 11.6 |
| 여자 | 5.6 | 7.5 | 9.3 | 10.6 | 11.1 | 11.5 |

자료: 통계청 (2018),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1인가구의 현황 및 특성, 통계청 보도자료.

② 1인가구 성별·연령별 분포

1인가구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구성도 달라졌다. 일반 가구원 대비 1인가구 인구의 변화를 성별·연령별로 살펴보면, 2000년에 비해 2017년에 남성은 특정 연령대에 1인가구가 집중되는 단봉형 추세가 뚜렷해졌다. 남성 1인가구 형성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은 30세(22.5%)이다. 반면, 여성은 청년기와 노년기에 봉우리가 생기는 쌍봉형 곡선을 형성하고 있는데, 평균수명의 증가 등으로 인해 두 번째 봉우리가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성 중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은 83세, 34.4%이고, 다음으로 27세(16.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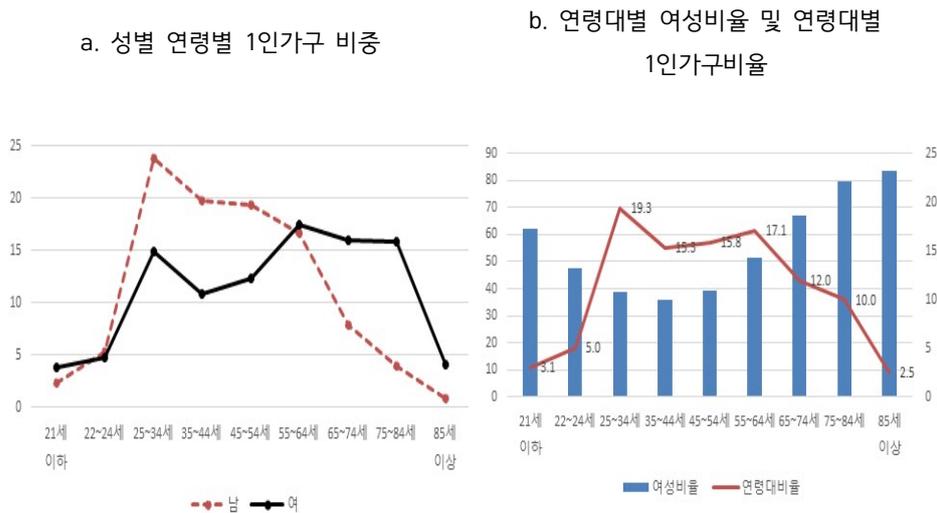
<그림 2-3> 일반가구원 대비 1인가구인구의 성별·연령별 비율 (2000년, 2017년)

자료: 통계청 (2018),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1인가구의 현황 및 특성, 통계청 보도자료.

1인가구 내에서 성별·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그림 2-3a>), 2017년 현재 남성 1인가구는 25세~34세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지만, 여성은 55세~64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녀 1인가구의 연령별 분포를 교차하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교차하는 연령은 55~64세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3b> 그래프 중 실선은 연령별 1인가구 인구비율로 <그림 2-3a>의 성별 구분을 없앤 값이다. 중장년기(45세~64세) 1인가구 인구는 전체 1인가구의 32.9%(15.8%+17.1%)를 차지한다.⁷⁾ 막대 그래프는 연령대별로 전체 1인가구에서

여성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주는데, 55세 구간부터 여성들의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55세 구간부터는 남녀 비율에서도 역전이 발생한다. 이 둘을 결합해서 해석한다면, 전체 1인가구에서 45~54세는 15.8%를 차지하는데, 그중 40%가 여성이며, 55~64세 비중은 17.1%이고 여성이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다. 중장년기로 접어들면서 1인가구에서 여성의 비율이 현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4> 1인가구 인구의 성별 연령대별 비중 (2017년)

자료: 통계청 (2018),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1인가구의 현황 및 특성, 재분석

③ 1인가구 혼인상태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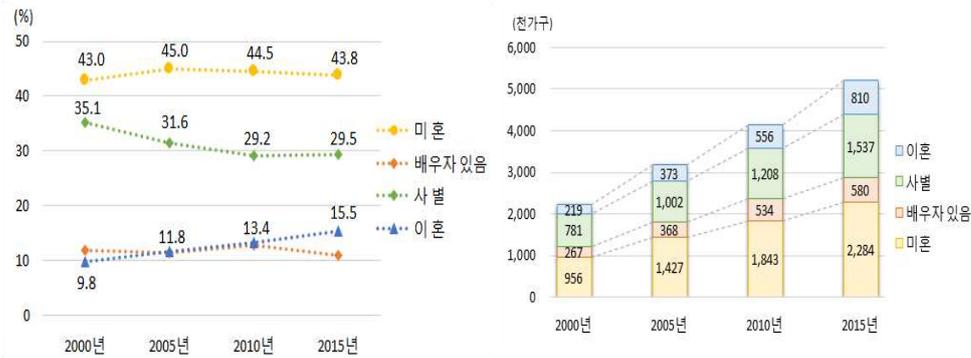
2000년 이후 1인가구의 혼인상태별 변화를 보면, 미혼이 1인가구의 주된 혼인상태임을 알 수 있다. 2000년에서 2015년까지 40%대 중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5년 43.8%). 이에 비해 이혼은 2000년 9.8%에서 2015년 15.5%로 증가하는 추세이다(통계청, 2019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1인가구의 현황 및 특성). 사별은 미혼에 이어 1인가구 혼인상태 중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이지만 2000년 35.1%에서 2015년 29.5%로 감소하는 추이다. 2015년 1인가구는 미혼이 228만, 사별이 153

7) 2017년 1인가구 통계에서 45~54세는 89만, 55~64세는 95.9만명으로, 전체 562만 1인가구의 32.9%를 차지한다.(통계청, 2018)

만, 이혼 81만, 유배우(배우자 있음)가 58만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1인가구의 혼인상태별 비율: 2000-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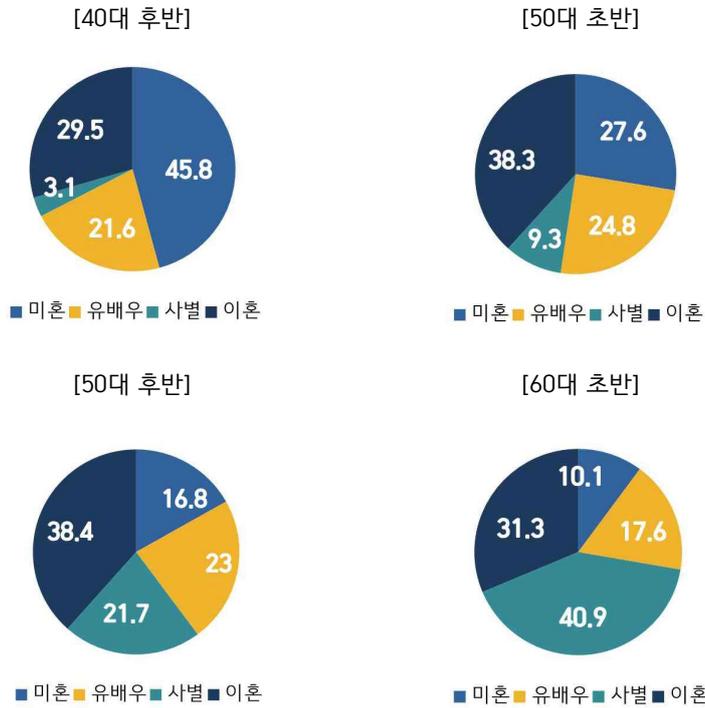
[1인가구의 혼인상태별 분포: 2000-2015년]



<그림 2-5> 1인가구 혼인상태별 비율 및 분포

자료: 통계청(2018)

우리 연구의 관심인 베이비부머(45~64세)세대로 한정하여 혼인 지위를 살펴보면, 2015년 현재 40대 후반에서는 미혼이 45.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50대에는 이혼이(50대 초반 38.3%, 50대 후반 38.4%), 60대 초반에는 사별(40.9%)이 가장 많다. 전체 베이비부머 1인가구 161만 명 중 가장 많은 혼인지위는 이혼(34.6%), 미혼(24.8%), 유배우(21.9%), 사별(18.6%)로 나타났다(그림 2-6).



<그림 2-6> 베이비붐 세대 연령별 혼인지위 분포

자료: KOSIS, 성별/연령별/혼인상태별 1인가구 자료(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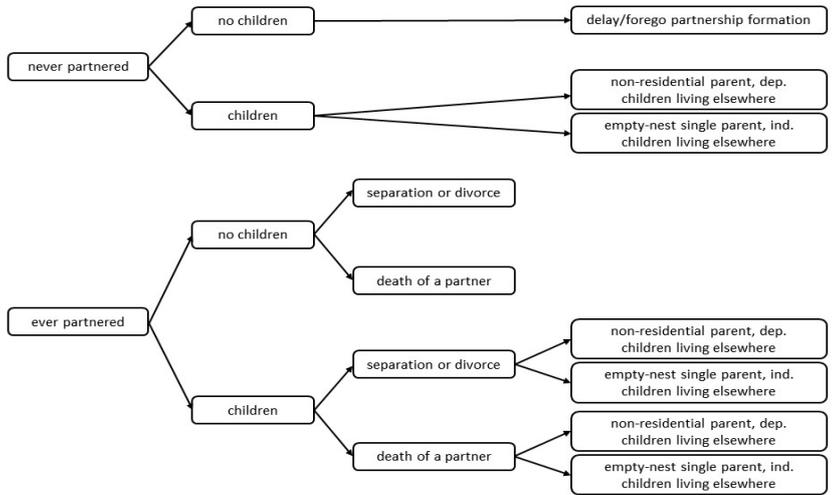
나. 1인가구 진입경로

유럽에서는 1980년대 이후 청년과 중년층, 특히 중년층 남성에서 혼자 사는 1인가구가 증가해 왔으며, 동시에 노년기 여성 1인가구의 비중은 남성의 기대여명 연장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혼인의 감소, 무자녀 부부, 이혼율의 증가 등으로 생애과정의 궤적이 다양화되고, 그 결과 1인가구의 성별·세대별 구성이 변화하고 있다(Demey et al., 2013). 특히, 베이비붐 시기에 출생한 중년층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구성이 생애과정의 다양화로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향후 사회정책 및 서비스 설계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Demey et al.(2013)의 연구는 영국의 중년층이 혼자 사는 생활로 진입(혹은 이

탈)하는 경로(transition in and out of living alone)에 주목하고, 젠더, 종족, 연령, 소득, 시기에 따라 이러한 경로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파트너 여부, 그리고 자녀 유무, 자녀와의 동거 유무에 따라 혼자 사는 생활로 진입하는 경로는 다양하게 구분된다(그림 2-7). 1인가구 경로는 9가지로 구분된다. ① 미혼/비혼으로서 파트너십 형성을 지연하거나 싱글의 삶을 지속하는 경로, ② 미혼부모의 경로로서 미성년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경로, ③ 미혼부모로 자녀와 지내다가 자녀가 독립한 빈둥지 한부모 경로, ④ 자녀 없이 배우자와 이혼·별거한 경로, ⑤ 자녀 없이 배우자와 살다가 사별한 경로, ⑥ 이혼·별거 후 미성년자녀가 다른 부모에게 사는 경로, ⑦ 이혼·별거 후 자녀와 함께 살다가 자녀가 독립한 경로, ⑧ 사별 후 미성년 자녀와 따로 살게 되는 경로, 마지막으로, ⑨ 사별 후 자녀와 함께 살다가 자녀가 독립하는 경로이다. 이와 같은 경로는 동거, 이혼 등 파트너십 문화와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화적 규범의 차이에 의해 비활성화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도 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인가구 진입경로를 배열 분석할 것인데, 혼자 사는 삶이 정태적이고 고정적인 삶의 양식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방식 중의 하나이며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삶은 서로 연속적, 유동적, 가역적이며 개인의 생애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접할 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11> 혼자 사는 삶으로의 진입 경로

자료: Demey et al. (2013)

다. 1인가구 서비스 욕구

1인가구의 증가는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를 초래하며, 무엇보다 단절과 고립, 사회적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다루어져 왔다 1인가구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정책적 개입의 방향을 제시한 주요연구들의 목록과 정책방향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2-4>와 같다. 이 연구들 중장년에 주목하기보다 주로 전반적인 1인가구와 관련된 욕구 및 서비스를 파악하는 가운데, 세대별 공통점과 차이를 지적하였다.

중장년 1인가구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복지패널을 분석한 강은나·이민홍(2016)의 연구에 따르면, 중년의 1인가구는 같은 연령대의 다인가구에 비해 소득이나 자가 소유율이 낮아 경제적 불안정성이 높으며, 건강수준에서도 다인가구에 비해 열악하여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특징을 보인다. 노인 1인가구와 비교할 때 중년 1인가구도 못지않게 소득이 불안정하며 일부 건강상태나 주거환경에서는 노인보다 더 열악한 수준이다. 이들 1인가구를 위해서는 취업지원, 노후준비교육 및 서비스 연계, 그리고 정신 건강관리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표 2-4〉 1인가구 기존 연구내용 요약

| 구분 | 연구내용 |
|--------------|---|
| 이민홍 외 (2015) | 연구방법: 복지패널, 노인실태조사 2차분석, FGI 정책방향: 1인가구의 보편적 위험요인(1인가구 공통적으로 건강문제, 주거지원), 세대별 위험요인의 차이에 주목하는 정책대안 필요. *중장년1인가구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통한 소득지원, 건강,주거, 무연사방지운동, 정신건강, 가족건강지원 프로그램 |
| 장진희 외 (2017) | 서울시거주 20~80대 1인가구 설문조사 3,000명, FGI 정책방향: 자립적 독립적 삶의 보장, 개방적 유대와 다양한 지지체계, 다양한 삶의 인정과 존중 *중장년1인가구: 일자리, 건강 지원 서비스, 1인가구 재무금융 컨설팅, 이웃지킴이, 맞춤형 부동산, 물품보관서비스, 위급상황 지원, 공동체활동공간. |
| 박건 외 (2016) | 연구방법: 서울 중장년 여성 1인가구 설문조사 500명, FGI 정책수요: -일자리와 정서적 지지를 위한 네트워크 필요성. -응급상황시 임시간병인, 법적 후견인 제도의 필요성. -반려동물 임시위탁시설 마련, 노후 재무설계 지원, 건강고민 상담 서비스 |
| 김윤영 (2017) | -연구방법: 인천거주 20세이상 1인가구조사 설문조사 정책수요: -주거: 다양한 소형 임대주택. -건강:(배달음식, 즉석식품 위주에서 벗어나도록) 도시락배달, 정기 건강검진, 응급시 대응연락망 구축 소포장 판매 및 배달 확충. 거주지 주변 치안 및 방범강화. 1인가구 전시 공연 문화 공간. -노후준비, 자산관리, 일상생활, 주택계약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정보제공서비스 -1인가구들 간 네트워크 강화 (정보 교환, 외로움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완화, 응급상황 시 연락할 수 있는 관계망 구축). |
| 문정희 외 (2017) | 부산거주 20세이상 1인가구 900명 설문조사, 심층면접 -1인가구 경제적 자립지원 -주거안정성 확보 -생활유대감 강화 (정신건강, 사회적 네트워크,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식생활 개선지원 등) *중장년 취약1인가구를 위한 사례관리프로그램 운영, 중년 심리상담센터, "팜브릿지"(1인가구 관계재생 프로젝트), 50+ 돌봄매니저 (전직 보건복지전문인력 기초심리상담, 건강검진), 자기돌봄 생활역량 강화(요리, 정리, 금융관리 등의 교육프로그램) |
| 변미리 외 (2019) | 연구방법: 성남시거주 20세이상 1인가구 방문면접조사 300명, FGI -1인가구 인식과 이해확장을 위한 교육 (가족다양성, 홀로서기심리교육, 고독사 웰다잉 교육) -고립예방과 상호돌봄: 사회적 가족형성 지원서비스, 시간은행, 1인가구 지원 플랫폼 구축 -1인가구 생활지원서비스(마음상담, 위기집단발굴, 생활지원 등) *중장년1인가구: 홀로서기 심리교육, 고독사예방 웰다잉교육, 나눔돌봄 시간은행 구축(고립 해소), 1인가구 사랑방사업 |
| 이수인 외 (2020) | 연구방법: 전북 농촌 1인가구 설문조사 450명 정책수요: 여성은 안전, 노인은 돌봄, 중장년 남성은 정신건강문제 지원 필요함. - 농촌 1인가구 이혼별거 비율 높음. 여성은 경제적 불안 해소, 남성은 정신건강 서비스 필요. - 농촌은 노년, 중장년 지역네트워크 있음. 농촌 삶에 대한 이해 증진 필요. 정주여건 개선 |

서울시 1인가구 실태를 분석한 장진희 외(2017)에 따르면, 1인가구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취약성이 높고, 1인가구로 살더라도 원가족과 관계가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며 부모돌봄책임의 1순위가 되기 쉬운 특징이 있다. 1인가구를 성별, 세대별로 분석한 결과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정책으로는 1인가구를 위한 주거서비스 및 경제 취약성 대책이 제시되었으며, 건강 및 사회적 관계망 지원의 차원에서 위급상황 지원, 건강동아리, 공동체생활공간, 공동부역, 이웃지킴이, 고립1인 발굴 사업 등이 제안되었다.

중장년 1인가구 서비스 대책과 관련하여 기존연구는 특히 중년남성 1인가구의 불안정성에 주목했다. 중년 1인가구 남성들은 돌봄 및 가사노동 미숙에서 오는 일상생활상의 곤란이 있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빈곤위험이 높고 남성다움을 강요받은 세대라는 점에서 정서적 지지망이 부족하고 취약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이진숙·이윤석, 2014). 생활습관에 있어서도 중장년 남성의 경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음주 흡연 등의 습관적, 중독적 행위와 여가활동이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장년 남성 1인가구에 대한 정서·심리적, 사회적 지원이 필요성이 지적되었다(김혜영, 2014). 변미리 외 (2019)은 성남시 1인가구 지원정책을 제안하면서 중장년에 대해서는 (이혼 별거후) 홀로서기에 필요한 자립감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심리교육서비스, 중장년 남성고독사에 대해서는 고독사 예방 및 웰다잉 서비스 지원, 사회적 관계를 위해서는 나눔 돌봄을 위한 시간은행 서비스를 제시했다.

중장년 가구의 복지 욕구에서는 성별 차이가 주요한 변인으로 발견된다. 이한나·조영태(2019)의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 분석에 따르면, 중년 1인가구는 객관적 건강지표에서 취약성을 보인다. 성별로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스트레스 항목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상태가 더 좋게 나타났으며, 삶의 만족도도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우리나라 중년여성들의 스트레스 주원인이 가족 관계문제가 많은데 이에 비해 “홀로 사는” 중년여성 1인가구는 이런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자유롭고 주관적 건강상태도 상대적으로 낫다고 해석했다. 권혁철·김형용(2017)도 중년 1인가구 남성의 경우 다인가구에 비해 사회적 관계나 삶의 질, 주관적 행복감이 낮은 특징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년 1인가구 여성은 노후불안, 경제적 불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이 있음을 주장했다.

한편, 중장년(4050) 여성의 삶에 대한 박건·김연재(2016)의 연구에 따르면, 중년

1인가구 여성이 혼자 살면서 가장 곤란한 점은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하기 어려움이고 다음으로 외로움, 경제적 불안감 순이었다. 이 연구는 중년여성 1인가구의 삶이 예외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장기지속적인 삶의 형태로 존중될 수 있도록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교육훈련 등을 통해 경제적 지지체계가 필요할 뿐 아니라 주거, 건강과 관련된 서비스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응급상황시 임시간병서비스 제공,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법적 후견인 제도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 1인가구 증가와 사회적 리스크 : 해외 연구동향

가. ‘외로움’과 사회적 인프라(social infrastructure)
: 1인가구 증가에 대한 진단과 대응

대다수 OECD 국가들에서 1인가구 증가는 일반적인 흐름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적인 삶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차원의 새로운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다수의 문헌들은 강조하고 있다. 연구자, 국가별 배경에 따라 강조점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는 외로움과 고립, 사회적 박탈과 격차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의 필요성들을 강조하는 논의들은 공통된 흐름이다.

영국 정부는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 장관을 임명하고 정부의 체계적인 전략을 담은 보고서 『연결된 사회 : 외로움에 대응하는 전략 (A connected society : A strategy for tackling loneliness)』를 발간하였다. 외로움과 사회적 관계는 매우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정신건강을 포함한 광의의 건강과 복리(well-being)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다른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기본 시각이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정부 정책의 전반적인 목적은 세 가지이다. 첫째, 외로움의 원인, 영향, 극복 방안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경험적 근거를 개선하는 것, 둘째, 정부 정책 전반에 외로움을 고려하고 반영하려는 노력, 셋째 외로움에 대한 전국적인 대화를 구축함으로써 외로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 영향 파악 및 낙인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외로움 대응 전략에서 중앙정부, 지방 정부, 보건 서비스를 포함한 공공서비스, 고용주, 자원 활동 섹터, 그리고 가족 및 공동체들이 서로 협력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2-12> 영국의 외로움 전략 :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 분담

자료: HM Government. (2018). A connected society.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Crown copyright. p.15)

미국에서 ‘싱글턴 사회’의 도래를 분석하는 저서로 주목을 받았던 사회학자 에릭 클라이넨 버그는 혼자 사는 생활로 고립된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social infrastructure)’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클라이넨버그, 2019).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대인 네트워크를 의미한다면, ‘사회적 인프라’는 사람들이 교류하는 방식을 결정짓는 물리적 공간 및 조직, 즉 사회적 자본이 발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물리적 환경을 지칭한다. 클라이넨버그는 학교, 놀이터, 동네 식당 등에서 서로 얼굴을 직접 마주하며 이루어지는 지역적 교류가 사람들의 공공 생활을 구성하며, 건실한 사회적 인프라를 갖춘 장소에서 사람들은 꾸준하고 반복적인 모임과 즐거운 교류를 통해 유대관계를 형성한다고 본다.

클라이넨 버그가 1995년 미국 시카고의 폭염사태⁸⁾의 피해를 분석한 결과, 사회

8) 1995년 미국 시카고에서 이상 고온이 지속되면서 폭염으로 인한 정전, 단수, 차량 과열과 교통 체증으로 도시가 마비되는 환경 재난이 발생함. 7월 14일 ~20일 사이 일주일 동안 시카고 주민 739명 사망

적 고립은 사망 위험을 더 가중시키며 1인가구의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 사태로 인한 사망률에서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사망률이 가장 낮은 지역 열 곳 중 세 곳은 경제적으로 빈곤한 흑인 및 라틴계 주민 거주지역이 포함돼 있었다. 클라이넨버그는 폭염사태를 잘 견뎌낸 지역의 공통적 특징이 주민들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라는데 착안하여, 이를 ‘사회적 인프라’로 개념화한 것이다.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1인가구로 살아가는 사회에서 IT와 전자기기의 발달, 경쟁적 조직 환경 등은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사회적 응집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각자도생의 사회에서 시민사회를 재건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기술적 해결, 자발적 결사체 촉진 등을 대안으로 논의하지만, 흔히 간과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적 인프라, 즉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라고 클라이넨 버그는 강조한다. 사회적 인프라는 사소해 보이지만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등 움직임에 제약이 있고 자율도가 낮아 사는 곳에 묶여 있는 사람에게 특히 더 중요하다. 1인가구가 늘어날수록 사회적 인프라에 투자함으로써 공적 영역에서의 교류와 활동적 라이프스타일을 촉진할 장소들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클라이넨 버그의 주장이다.

하였음. 시카고에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수천명이 폭염 관련 증세로 응급실 방문함. 에릭 클라이넨버그, 2018, 『폭염사회』, 글항아리.

※ 사회적 인프라와 도시계획 사례⁹⁾

- 뉴욕 : 공공도서관 -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조건 없이 입장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장소. 모든 연령, 모든 민족, 다양한 집단에게 최대한 폭넓은 문화자료를 제공하며, 같은 연배 고령자들간의 만남, 다른 세대와 교류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됨 (재즈가 있는 티타임, 도서관 간의 온라인 볼링대회 등 개최)
- 싱가포르 :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센터” (Centre for Livable Cities) - 싱가포르 국민 중 80%가 공공주택에 거주하며, 공공주택 복합시설 주변에 운동시설을 갖춘 공원, 만남의 광장, 건물 1층에 저렴한 식당가 ‘호커 센터’ 등 활발한 공공센터가 있음. 혼자 사는 고령자들이 언제든지 나와 아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소.
- 스웨덴 : 40대 이상을 위한 코하우징 프로젝트 페르드크네펜 (Färdknäppen) - 대형 공용부엌과 야식 타임, 거주자들이 원하는 곳에서 함께 요리하고 식사.
- 핀란드 : 3대를 위한 놀이공간 - 놀이터 설비생산업체인 라프셋(Lapsset)이 지자체와 협업하여 설치한 놀이공간.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나이에 관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그물망, 정글짐, 그네 등을 갖춘. 65~81세 사이의 실험참가자 40명이 3개월간 공원 놀이터 운동시설에서 운동한 결과 평형감각, 신체조절 능력이 향상, 넘어질 위험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나. 1인가구와 ‘싱글화’에 대한 일본의 연구동향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학계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1인가구의 증가, 특히 고령 1인가구와 비혼 1인가구의 증가에 대한 분석과 진단이 활발하며, 사회적 고립과 일상생활에서의 리스크에 대한 논의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9) 클라이넨 버그는 도시사회학자로서 도시계획에서 사회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계 각국의 사례들도 다루고 있다. 박스 안의 사례들은 그의 책(클라이넨버그, 2019)의 책에 소개된 사회적 인프라 사례 중에서 중장년 1인가구와 관련된 내용들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후지모리 가츠히코(2018)는 1인가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일본에서 1인가구의 빈곤, 돌봄,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1인가구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도쿄 등의 대도시에서는 이웃 간 네트워크가 부재하고 사회적 고립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후지모리는 1인가구 유형을 근로세대 1인가구, 고령 1인가구, 1인가구 예비군(부모와 동거하는 40대, 50대 미혼자)로 구분하여 각 집단이 안고 있는 생활리스크와 욕구를 분석하였다. 일본의 중장년층에서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최대원인은 미혼자의 증가로 진단하였고, 앞으로 1인가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패러사이트 싱글’에 대한 연구로 널리 알려진 야마다 마사히로는 일본 사회의 1인가구 증가, 즉 싱글화가 가족 격차와 중첩될 때 가족격차의 패자인 ‘가족 난민’이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한다(야마다, 2019). 일본사회에서 싱글의 숫자가 증가하는 동시에 싱글로 보내야 하는 기간도 연장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야마다는 “싱글화”로 개념화한다. 싱글화에 내포된 변화는 첫째, 생애 미혼자의 증가, 둘째 싱글의 장기화, 셋째 고립된 싱글 즉 가족 난민의 증가이다. 싱글 자체는 개인이 선택하는 삶의 양식 중 하나이므로 그 자체를 문제시해서는 안되지만, 그러나 가족 난민의 출현은 사회문제라는 것이다.

가족난민이란 가족의 지원이 중단된 사람들로서 자신을 필요로 하고 소중히 대해주는 존재가 없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가족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족 안에 포섭되어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지만 가족을 만들 수 없거나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가족 안에 포섭되지 못한 채 경제적 빈곤과 심리적 불안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싱글화에 대응하는 대책에는 두 가지 방향, 첫째 결혼의 성공확률을 높이는 것, 둘째 가족이나 파트너가 없더라도 고독한 상태에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안심하고 계속 살 수 있는 삶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야마다 교수는 두 가지 대책이 모두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결혼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기준 가족 규범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유형의 커플을 형성할 수 있도록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표준 가족이 아닌 개인의 삶을 기준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일본 사회는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가족에게 전가해 왔으며, 가족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질수록 싱글화 현상이 가속화되며, 싱글의 증가는 다시 약자의 증가로 연결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이는 ‘표준 가족’에 긴박

된 가족제도의 한계라고 야마다 교수는 지적한다.

사회적 참여를 활성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취미 인연’, 즉 취미를 통해 친구를 만들거나 자원봉사를 통한 교류 등이 바람직하지만, 가족·직장과 무관한 사회활동으로 사회연계망을 만드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관계망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좋은 직장, 서로 돕는 가족이 있는 사람은 자원봉사, 취미생활도 함께 즐기게 되는 반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어느 것 하나도 못하고 고립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¹⁰⁾

4.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서비스 지원 사례

가. 외국 사례

1) 일본¹¹⁾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하는 일본의 ‘단카이’ 세대는 일본의 고령자 정책 방향을 주도하는 중심적 위치에 있다. 단카이 세대가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는 2007년에 즈음하여 노동생산성 하락, 숙련 노동자 부족,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단카이 세대가 75세에 이르는 2025년은 초고령화 시대를 알리는 중요한 시점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돌봄 부족과 사회적 고립 해소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고립 문제는 가족을 구성하지 않는 1인 세대의 증가, 고립사(孤立死)¹²⁾의 증가, 재난 재해사의 증가 등에서 부각되었다. 일본에서 1인가구에 대한 대응은 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자체 차원에서의 실태조사, 다양한 비영리기관(NPO)과 연계하는 거버넌스가 중시되는 공통점이 있으며, 다양한 정책 기능에서 중

10) 동경대 겐다 유지 교수는 일본사회에서 스넵 SNEP(Solitary Non-Employed Persons), 즉 고립무업(孤立無業) 상태의 사람들이 증가한다고 지적함. 고령의 싱글 뿐 아니라 집에 틀어박혀 고립된 청년, 중년의 싱글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주장함(야마다, 2019).

11) 일본의 정책 사례는 본 연구에서 개최한 전문가 세미나에서 다루었던 토론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문헌연구의 내용을 발췌하여 작성하였다.

12) 최근 일본에서는 ‘고독사’보다 ‘고립사’라는 용어가 더 많이 쓰임. 고독사가 외로움의 개인적인 차원을 강조하는 반면, 고립사는 고립된 개인의 사회적 상황을 강조하기 때문에 더 적절한 표현으로 간주되고 있음.

심에 위치하는 지자체의 역할과 역량이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일본 1인가구 서비스 전달의 원칙은 “ゆるやかなつながり”(유루야카나 쓰나가리) (low or loose connection)로 표현되는데, 개인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밀접하고 긴밀한 연결을 선호하지 않으며, 친구보다 가깝지만 가족보다는 먼 완만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

일본의 정책 사례는 지자체가 자치회나 비영리단체(NPO)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주민 네트워크 구축 모델, 새로운 거주형태인 ‘컬렉티브 하우스’에 기반한 모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지자체와 주민자치회·NPO가 협력하는 주민네트워크 구축 사례

1인가구의 증가는 배우자나 가족이 없는 독립적인 삶의 가능성을 확대하며, 그 이면은 가족의 기능 위축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령자가 많은 일본에서는 이들의 빈곤과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지자체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1인가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든 지역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 필요한데,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란 1인가구 고령자가 가족의 도움 없이도 자립적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 간호, 방문 돌봄, 재활, 식사와 가사 등 생활 지원, 복지, 보건 등 다양한 서비스가 연속적 포괄적으로 제공되도록 공급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 공급자들의 네트워크라면, 이와 더불어 주민들의 네트워크도 중요하다(후지모리, 2019). 이웃 간의 도움과 상호 관계망은 공급자 네트워크만으로 충족될 수 없는 다양한 교류와 참여, 문화적 활동 등으로 삶의 질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다.

도쿄시는 일본 전체 NPO의 16%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중심지역으로써 지자체와 민간단체간의 거버넌스에 기반한 활동이 활발하다. 지역에서 이미 조직되어 있는 노인클럽, 주민자치회, 사회복지사 협의회 등을 활용하여 회원들 간에 사회봉사활동, 취미활동, 건강유지활동 등을 함께 공유하고 주민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한 사례로 민간단체(NPO)인 ‘나기사무지개회’는 회원들의 상부상조 활동 통해 몸이 불편한 회원의 외출 지원, 가사지원, 병 간호 등을 하거나 식사회, 티타임, 취미씨클 등을 조직하여 상담활동도 하고 있다.

도쿄도 하치오지시의 다테가오카 단지의 주민네트워크 사례를 보면, 2011년 시로부터 지원받은 ‘도쿄도 실버파출소 설치사업 보조금’을 활용하여 ‘하치오지시 다

테가오카 실버 살짜상담실'을 개설하였다. 살짜상담실은 첫째, 고령자의 종합상담 창구로서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거나 관계기관에 연계해 준다. 둘째, 주민들이 자치회, 노인회, 씨클 등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개별방문이나 상담실 운영을 통해 고령자 주민의 실태를 파악한다. 이러한 사업을 실현할 수 있었던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서는 3가지가 있다. 첫째, 살짜 상담실 안에 카페를 운영하여 누구나 부담 없이 커피를 마시기 위해 상담실에 들어오며 편안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카페에 모임으로써 주민들 간에 네트워크나 상담실 직원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형성되었다. 둘째, 복합적 목적의 이벤트를 다양하게 개최한다. 한 예로 매년 8월 '주먹밥(오무스비 おむすび) 계획' 이벤트를 여는데, 단지 내 가구를 방문하여 열사병을 조심하도록 주위를 환기시키며 직접 만든 주먹밥을 함께 먹고, 음료를 배부하며 여름 축제를 준비하는 등의 프로그램이다. '오무스비'에는 주먹밥이라는 뜻과 함께 지역주민들이 '연결된다'는 의미도 있으며, 주먹밥을 통해 단지 주민들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도 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이 즐겁다'는 메시지도 전달한다. 세 번째로 학생 자원봉사자 등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하치오지시에는 대학 캠퍼스가 많으며, 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주먹밥 계획에도 참여하면서 카페에서 청소년과 고령자들의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후지모리, 2019).

농촌 지역인 도치기현 오야마시의 '지켜보기 네트워크'는 자녀가 도시로 떠나간 후 혼자 생활하는 고령 1인가구를 돌보는 동시에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의미도 갖고 있다. 일본 지자체에서는 도시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신의 고향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이른바 '고향납세'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야마시에서는 기업과 연계하여 고향납세자에 대한 감사의 선물을 고향에 남아있는 부모들에게 정기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고령 1인가구인 노인에게 선물을 전달하면서 이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도시에 있는 자녀들에게 부모의 안부를 메일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컬렉티브 하우스'에 기반한 모델

1인가구 거주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일본에서는 '혈연에 의지하지 않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가는 대안적인 주거형태로 컬렉티브 하우스(collective house)가 운영되는 사례들이 있다. 2003년 도쿄도 아라카와구 닛포리에 설립된 '컬렉티브 하우스 칸칸모리'가 일본의 첫 사례로 알려져 있다. 칸칸모리

는 건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공간 구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넓은 공유공간이 있고, 생활의 일부를 거주자와 공유하며, 거주자가 자치적인 운영을 하는 등의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운영되고 있다. 칸칸모리에는 40명이 앉을 수 있는 대형 공용식당이 있으며, ‘커먼 밀’이라고 불리는 거주자끼리의 식사 모임과 맞벌이 세대의 공동보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후지모리, 2019).

2012년 군마현에는 군마현 주택공급공사가 일본 최초로 공설 콜렉티브 하우스를 개설하였다. 칸칸모리 하우스와 유사하게 주민 세대들 간의 교류, 협동, 지켜보기, 상부상조의 커뮤니티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에서 콜렉티브 하우스는 도시 생활을 하는 이웃 주민들끼리 자치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모델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그 핵심은 일상생활의 귀찮은 일들, 가령 정원 정리, 정기회의 참석, 청소 담당, 정기 식사 등을 함께 함으로써 인간관계를 키워 나가는 데 있다.

2) 영국

□ 사회적 처방(social prescribing)과 ‘링크 워커’(link worker)

“사회적 처방”은 부채, 일자리, 주거문제, 관계 문제뿐 아니라 외로움 등 사회적, 정서적, 실천적 욕구를 해결해주는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휴먼 링크, 생활 코디네이터라고 부를 수 있는 ‘link worker’가 개입하여 지역의 거주자 집단과 서비스와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링크워커는 지역의 복지관 등 기관들과 보건소(GPs)에서 의뢰를 받아 사람들의 웰빙 욕구에 적합한 맞춤형 플랜을 작성한다. 일자리, 부채, 주거 문제뿐 아니라 예술 프로그램, 친구 사귀기, 스포츠 운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조직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 관계적 복지(relational welfare): 런던의 “서클 모델”(Circle Model)

런던의 서클 모델은 노인들을 위한 동아리를 조직하여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때 서로 도와주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지원, 관계적 복지를 지향한다. 런던의 경우 민간조직(Participle)이 주도하며 사우스워크 지역 중장년 노년 인구 250명 대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였다. 일차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봄을 연결,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전통적 돌봄 서비스와는 달리 이웃끼리 사회적 관계를 맺도록 하고 그렇게 맺은 촘촘한 관계망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도록 한다(윤

찬영, 2019). 서로 간의 도움, 관계 욕구, 배움 및 자기 계발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이다. 씨클의 주 회원은 50대 장년층이며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2014년 공공자금 지원이 중단되면서 재정문제로 결국 씨클이 폐쇄되었는데, 자금 확보능력 부족이 실패의 가장 큰 이유였다.

□ 우체스터셔 “Reconnection”: SIB 모델

“Reconnection”(다시 연결)은 우체스터셔(Worcestershire) 지역의 50세 이상 주민 3000명을 대상으로 외로움과 고립을 줄이기 위해 실시된 사회 프로그램이다.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방식¹³⁾으로 진행되었으며, 프로그램 수행기관과 더불어 투자자, 성과보상자, 운영기관, 평가기관 등 최소 5개의 주체가 함께 관여한다. 영국에서는 NETA(기업)이 투자를 하고, 지자체와 성과계약을 추진하는 중간단체(contractor)인 리커넥션 유한책임회사가 서비스 공급자인 AgeUK와 계약을 맺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평가기관은 런던정경대학이었다. 친구맺기, 그룹활동, 사별증후군 극복 활동, 자조그룹 연결 등의 활동 수행하였고, 평가는 고독감 지수(R-UCLA)를 사전 사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나. 국내 사례

최근 각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종합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1인가구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도 많다. 올해 8월 기재부도 1인가구 중장기 대책안을 발표하였다. 이 절에서는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정책 계획에서 1인가구 지원과 관련된 내용들을 요약하고 주요 흐름과 특징 등을 간략히 살펴본다.

1) 서울시 1인가구 기본계획 중 중장년 대상 프로그램

중장년(30~64세) 1인가구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해 커뮤니티 공간 확충(확보), 마을 공동부역 등이 강조되며, 50플러스 사업과 연계된 중장년 1인가구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중장년 1인가구 SIB 사업에서도

13) 민간투자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성과평가에 따라 사업비와 성과금을 상환하는 시스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 중요한 목표로 강조되고 있다. 2018년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구축 시범사업에서는 주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중장년 남성의 취미, 요리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으며, 자치구는 1인가구 센터 공간확보와 공간개선 사업을 추진하였다.¹⁴⁾

<표 2-5> 서울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에서 중장년 프로그램

| | 프로그램 내용 | 사업기관 | 비고 |
|-------------------------|--|--------------------------------------|--|
| 커뮤니티 공간확충 |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 확보, 마을 공동부엌(소셜다이닝) | 종합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50플러스 캠퍼스 | 중장년1인가구 맞춤형 서비스: 취업강자, 밥터디, 일자리서비스 |
| 중장년 1인가구 커뮤니티 지원 | 맞춤형 교육, 커뮤니티 인프라, '50+나홀로족' 커리큘럼 정보제공, 50+커뮤니티 활용 소외이웃과 관계유지 | 중·장년 1인가구의 욕구분석, 50+당사자 주도형, 지역리더 발굴 | 서울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입각, 1인가구 지역리더 시범 선발, 위촉 |
| 중장년 1인가구 사회성과보상 사업(SIB) | 사회적 관계단절, 고립, 가족관계 등 위험, 외로움, 고립감, 사회적 단절 등을 겪는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심층 맞춤형 상담 실시 및 프로그램 제공 관계향상. 원가족관계 구축프로그램 | SIB 방식 | 서울시 50+세대 (50~64세) 및 중장년 1인가구 지원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적 관계단절, 고립을 겪는 중장년 1인가구대상 |

2) 기재부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기획재정부(2020)가 발표한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에서 중장년 1인가구는 전형적으로 "사회적 관계망" 구축이 필요한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외로움→우울감→자살·고독사"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차단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사회적 관계망의 구축을 정책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홀로서기 상담,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동아리 활동 지원이 주요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서비스 제공은 건강가정센터의 사업으로 이루어진다.

14) 자치구별 관련사업은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09779>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표 2-6〉 생애주기별 1인가구 주요 프로그램

| 생애주기 구분 | 주요 프로그램 |
|---------|--|
| 청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진입 예정자 대상 정서·경제·생활유지 등 독립생활 준비교육 ▶ 일, 가정, 건강, 주거 등 다양한 분야 커뮤니티, 정책 제안 등 청년 1인가구의 소통과 공감의 장인 '청년참여플랫폼' 운영 ▶ 청년 주거가 집중된 공동주택(예: 행복주택)에 인문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
| 중장년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홀로서기를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 자기돌봄 및 일상생활 유지관리 교육, 생애 후반기 진입 준비 교육 ▶ 가족상담전화(1644-6621) 및 가족상담인력을 통해 원가족과 관계 증진을 위한 상담, 교육 등 지원 ▶ 운동·여가·건강 등 1인가구를 포함한 동아리 활동 지원 |
| 고령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상담, 재산, 인생 되돌아보기 등 웰다잉(Well-Dying) 준비 교육 프로그램 마련 ▶ 고령층 안전 확인, 심리적 안정 지원 등을 위한 데일리콜 113 (매일1, 한번1, 삼분동안3 대화) 서비스 추진 검토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어르신 생활체육프로그램, 시니어 꿈꾸는 여행자 등 1인가구에 특화된 문화예술, 체육, 여행 등 여가프로그램 제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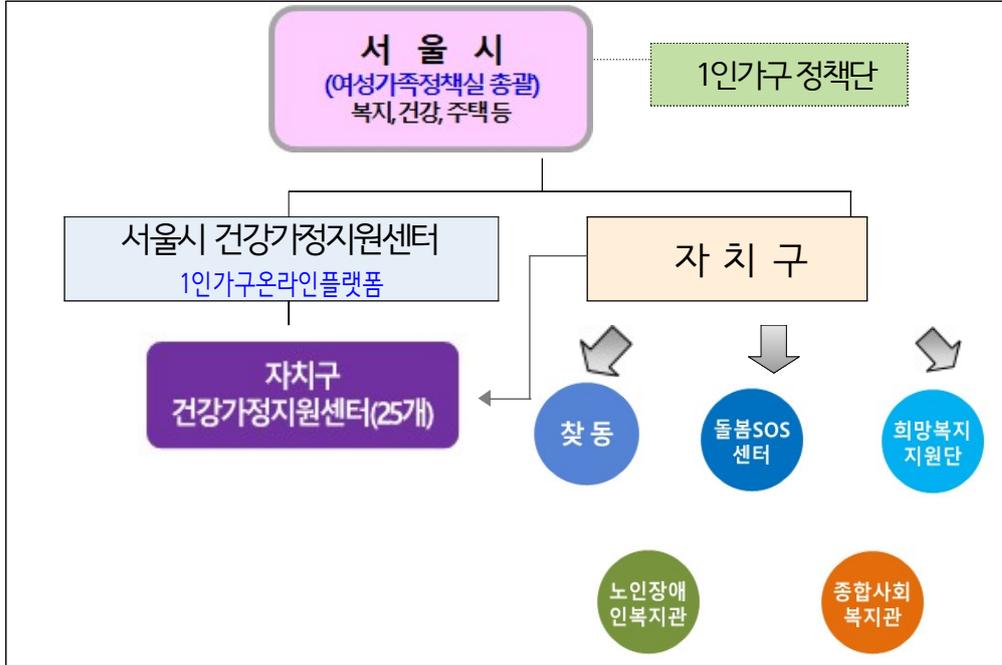
자료: 기재부(2020)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3) 1인가구 서비스 전달체계: 서울시 사례

여기에서는 서울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현재 1인가구 서비스 전달 체계의 구조와 구성요소를 살펴본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 1인가구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자치구라는 이중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자치구별로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 기존 지역사회 복지조직인 찾동, 돌봄 SOS, 희망복지지원단, 복지관 등을 활용하여 자원 연계를 지원하고 지역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1인가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1인가구 서비스와 관련된 각종 정보 접근 및 서비스 연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며, 자치구 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1인가구 지원센터를 두고 상담,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자치구는 지역사회 1인가구 전문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생활코디네이터를 양성하여 매뉴얼 및 지침을 마련,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실시한 정보제공 및 온·오프라인 소통을 활성화한다.



<그림 2-13> 서울시 1인가구 서비스 전달체계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달체계의 핵심은 1인가구 지원센터와 1인가구 생활 코디네이터라고 할 수 있다. 1인가구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생활코디는 개별 상담을 통해 프로그램 처방 및 기타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핵심적 창구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1인가구의 독립적 생활능력과 원가족과의 관계 회복, 사회적 관계망 확충과 관련된 상담 및 교육서비스, 일자리, 안전, 주거, 여가, 건강 등과 관련된 정보제공과 자원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2-14> 건강가정센터 1인가구 서비스 전달체계

자료: 출처: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2019). 서울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제 3 장

원자료 재분석:
베이비붐 세대 1인가구의
진입경로와 유형별 특성

1. 베이비붐 세대 1인가구의 특징
2. 1인가구 진입경로와 유형별 특성
3. 소결

3

원자료 재분석 < < : 베이비붐 세대 1인가구의 진입경로와 유형별 특성

1. 베이비붐 세대 1인가구의 특징 : 사회경제적 특성

한국노동패널과 한국복지패널 두 자료에서 베이비붐 세대 내 1인가구의 사회경제적 위치는 다음과 같다. 패널조사에 포함된 전체 사례 중 다인가구는 11,304 사례, 1인가구는 865가구이다. 1인가구 사례수가 많지 않아 대표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다른 기존 자료에서 1인가구의 소득수준, 경제활동, 혼인지위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패널 자료는 신뢰할 만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인가구는 모든 연령대에 고루 분포된 반면, 1인가구는 60-64세의 노년층 비율이 더 높은데, 이는 노년층 여성 1인가구 비율이 다른 연령대의 2배 가까이 높은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중졸 이하의 비율이 2배 가까이 높고, 대졸은 12.9%p 낮아 고졸 이하 저학력자가 전체의 79.6%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 다인가구 모두 여성이 남성에 비해 중졸 이하 저학력 비율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중졸 이하 비율이 높은 것은 공통적이거나, 1인가구의 경우 55세 이상에서 중졸 이하 비율이 급격히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3-1> 원자료 1인가구 · 다인가구의 성별 · 연령별 분포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45-49세 | 50-54세 | 55-59세 | 60-64세 | χ^2 | (명) | 45-49세 | 50-54세 | 55-59세 | 60-64세 | χ^2 | (명) |
| 전체 | 22.4 | 19.2 | 24.2 | 34.2 | - | (865) | 26.9 | 25.8 | 25.0 | 22.3 | - | (11,304) |
| 성별 | 남자 | 26.0 | 24.0 | 23.5 | 26.5 | 32.017 | (442) | 27.3 | 26.1 | 24.7 | 21.9 | (5,692) |
| | 여자 | 18.7 | 14.2 | 24.8 | 42.3 | *** | (423) | 26.6 | 25.5 | 25.3 | 22.7 | (5,612) |

<표 3-2> 원자료 1인가구·다인가구의 교육수준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 중졸 이하 | 고졸 | 대졸 | 석사 이상 | χ^2 | (명) | 중졸 이하 | 고졸 | 대졸 | 석사 이상 | χ^2 | (명) | |
| 전체 | 35.3 | 44.3 | 19.4 | 1.0 | - | (865) | 18.7 | 47.3 | 32.3 | 1.8 | - | (11,303) | |
| 성별 | 남자 | 30.3 | 46.2 | 23.1 | 0.5 | 16.203 | (442) | 13.7 | 44.9 | 39.0 | 2.5 | 360.187 | (5,692) |
| | 여자 | 40.4 | 42.3 | 15.6 | 1.7 | ** | (423) | 23.8 | 49.7 | 25.5 | 1.0 | *** | (5,611) |
| 연령 | 45-49세 | 6.7 | 55.7 | 36.6 | 1.0 | - | (194) | 3.1 | 47.7 | 46.8 | 2.4 | - | (3,044) |
| | 50-54세 | 19.9 | 50.6 | 27.1 | 2.4 | 191.870 | (166) | 9.7 | 51.4 | 36.9 | 1.9 | 1816.066 | (2,916) |
| | 55-59세 | 38.8 | 45.9 | 15.3 | 0.0 | *** | (209) | 23.6 | 48.9 | 25.9 | 1.6 | *** | (2,825) |
| | 60-64세 | 60.1 | 32.1 | 6.8 | 1.0 | - | (296) | 42.4 | 40.0 | 16.6 | 1.1 | - | (2,518) |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차이는 혼인지위라 할 만하다. 다인가구는 85.2%가 유배우 상태인데 반해, 1인가구는 미·비혼 상태가 36.4%로 높고, 사별이나 이혼 등 결혼관계 종식으로 인한 1인가구 비율이 60% 이상으로 높다. 1인가구, 다인가구 모두 성별, 연령, 교육수준에 따라 혼인지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만 다인가구 내 집단별 차이는 크지 않은데 비해 1인가구 내부의 이질성은 매우 크다. 1인가구의 경우 남성은 절반이 미·비혼 상태인데 비해 여성은 미·비혼보다 이혼·별거, 사별로 인한 1인가구 비율이 더 높다. 연령별로 45-49세는 미·비혼이 66.3%로 가장 높고, 50-54세는 미·비혼과 이혼·별거가 각각 47.9%, 47.3%, 60-64세의 노년층은 이혼·별거와 사별이 각각 51.7%, 32.9%로 높다. 고졸 이하 저학력자일수록 결혼관계 종식에 따른 1인가구 비율이 대부분인데 비해 대졸자는 미·비혼이 62.9%로 다수이다. 연령이 젊은 층일수록 대졸

자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하면, 고학력자의 높은 미·비혼율은 학력뿐만 아니라 연령 효과가 교차된 결과로 해석된다.

<표 3-3> 원자료 1인가구·다인가구의 혼인지위

| 항목 | 1인가구 | |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 미·비혼 | 유배우 | 이혼·별거 | 사별 | χ^2 | (명) | 미·비혼 | 유배우 | 이혼·별거 | 사별 | χ^2 | (명) | |
| 전체 | 36.4 | 1.9 | 45.7 | 16.1 | | (858) | 4.9 | 85.2 | 7.5 | 2.4 | | (11,126) | |
| 성별 | 남자 | 50.1 | 2.1 | 44.4 | 3.4 | 136.903 | (439) | 7.3 | 85.4 | 6.5 | 0.7 | 278.003 | (5,575) |
| | 여자 | 22.0 | 1.7 | 47.0 | 29.4 | *** | (419) | 2.5 | 85.0 | 8.4 | 4.1 | *** | (5,551) |
| 연령 | 45-49세 | 66.3 | 2.6 | 31.1 | 0.0 | | (193) | 9.8 | 83.1 | 6.3 | 0.8 | | (2,991) |
| | 50-54세 | 47.9 | 0.0 | 47.3 | 4.8 | 209.250 | (165) | 5.5 | 83.7 | 8.8 | 1.9 | 346.951 | (2,860) |
| | 55-59세 | 30.8 | 3.4 | 49.5 | 16.3 | *** | (208) | 2.5 | 86.2 | 8.0 | 3.3 | *** | (2,790) |
| | 60-64세 | 14.0 | 1.4 | 51.7 | 32.9 | | (292) | 1.0 | 88.2 | 6.7 | 4.0 | | (2,485) |
| 교육 수준 | 중졸이하 | 24.4 | 1.7 | 42.9 | 31.0 | | (303) | 4.1 | 81.3 | 9.1 | 5.4 | | (2,083) |
| | 고졸 | 34.0 | 1.6 | 55.1 | 9.2 | 130.613 | (379) | 4.6 | 83.9 | 9.2 | 2.3 | 228.885 | (5,268) |
| | 초대졸 | 62.9 | 3.0 | 29.3 | 4.8 | *** | (167) | 6.0 | 89.0 | 4.2 | 0.9 | *** | (3,590) |
| | 석사이상 | 44.4 | 0.0 | 44.4 | 11.1 | | (9) | 2.7 | 94.0 | 2.7 | 0.5 | | (184) |

1인가구의 취업자 비율은 69.1%로 다인가구 취업자 비율 74.6%보다 5.5%p 낮고, 실업자 비율은 2.3%로 2배 높다. 종사지위 및 비경제활동 상태에서 1인가구는 임시일용직 비율이 가장 높고, 그냥 쉬는 비율도 21.1%로 높다. 반면 다인가구는 상용직 비율이 32.5%로 가장 높고, 가사·육아·간병 등 가족책임으로 인한 비경제활동 비율이 1인가구의 2배 이상 높다.

요약하면, 1인가구의 경제활동 관련 지위는 불안정 고용, 높은 실업자 비율, 높은 NEET¹⁵⁾(그냥쉬) 비율로 특징지어진다. 이 특징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저학력일수록 더 두드러지며, 사별 상태인 경우가 1인가구 전체보다 상용직 비율은 낮고 NEET 비율은 높은 특징을 보였다. 다인가구의 경우 남성은 절반 가까이 상용직이고 여성은 가사, 육아 등 가족책임으로 인한 비경제활동 비율이 높은 성별 전형성을 보였다.

15) not in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

<표 3-4> 원자료 1인가구·다인가구의 경제활동상태 및 종사지위

| | 1인가구 | | | | | | | | | | χ ² | (명) |
|----------|---------------|----------|------------|-----------------|-----|------------|-------------------|----------------|---------|----------------|----------------|---------|
| | 상용직 | 임시 일용 | 고용- 자영업 | 무급- 가족 종사 | 실업자 | 근로- 무능력 | 가사- 육아- 간병등 | 교육- 훈련 등 | 그냥 쉽 | | | |
| 전체 | 24.2 | 29.8 | 15.1 | 0.0 | 2.3 | 1.5 | 5.7 | 0.4 | 21.1 | | | (857) |
| 성별 | 남자 | 29.7 | 28.5 | 15.3 | 0.0 | 2.5 | 2.3 | 1.8 | 0.5 | 19.4 | 40.656 | (438) |
| | 여자 | 18.4 | 31.0 | 14.8 | 0.0 | 2.1 | 0.7 | 9.8 | 0.2 | 22.9 | *** | (419) |
| 연령 | 45-49세 | 40.9 | 23.8 | 14.5 | 0.0 | 4.1 | 1.6 | 3.6 | 0.5 | 10.9 | | (193) |
| | 50-54세 | 28.7 | 31.7 | 19.5 | 0.0 | 1.8 | 0.6 | 3.0 | 0.0 | 14.6 | 85.196 | (164) |
| | 55-59세 | 19.7 | 32.7 | 13.5 | 0.0 | 1.0 | 1.4 | 7.7 | 1.0 | 23.1 | *** | (208) |
| | 60-64세 | 13.7 | 30.5 | 14.0 | 0.0 | 2.4 | 2.1 | 7.2 | 0.0 | 30.1 | | (292) |
| 교육 수준 | 중졸이하 | 9.9 | 37.0 | 14.2 | 0.0 | 1.7 | 2.3 | 5.0 | 0.0 | 30.0 | | (311) |
| | 고졸 | 28.2 | 29.8 | 14.5 | 0.0 | 2.4 | 0.8 | 6.3 | 0.0 | 17.9 | 30.710 | (16) |
| | 초대졸 | 39.8 | 18.1 | 18.1 | 0.0 | 3.0 | 1.8 | 5.4 | 1.8 | 12.0 | | (392) |
| | 석사이상 | 44.4 | 0.0 | 11.1 | 0.0 | 11.1 | 0.0 | 11.1 | 0.0 | 22.2 | | (138) |
| 혼인 지위 | 미·비혼 | 28.9 | 27.7 | 12.5 | 0.0 | 3.9 | 1.6 | 4.5 | 0.6 | 20.3 | | (303) |
| | 유배우 | 31.3 | 18.8 | 18.8 | 0.0 | 0.0 | 0.0 | 12.5 | 0.0 | 18.8 | 103.194 | (379) |
| | 이혼·별거 | 23.5 | 31.9 | 16.8 | 0.0 | 1.5 | 1.8 | 5.1 | 0.3 | 19.1 | *** | (166) |
| | 사별 | 14.5 | 29.7 | 15.2 | 0.0 | 1.4 | 0.7 | 9.4 | 0.0 | 29.0 | | (9)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 | |
| | 상용직 | 임시 일용 | 고용- 자영업 | 무급- 가족 종사 | 실업자 | 근로- 무능력 | 가사- 육아- 간병등 | 교육- 훈련 등 | 그냥 쉽 | χ ² | (명) | |
| 전체 | 32.5 | 19.9 | 17.7 | 4.5 | 1.4 | 1.2 | 12.8 | 3.2 | 6.7 | | (11,132) | |
| 성별 | 남자 | 42.7 | 17.3 | 26.1 | 1.1 | 2.0 | 1.8 | 0.7 | 0.7 | 7.7 | 2724.138 | (5,586) |
| | 여자 | 22.3 | 22.6 | 9.2 | 8.0 | 0.9 | 0.6 | 25.0 | 5.8 | 5.7 | | (5,546) |
| 연령 | 45-49세 | 42.8 | 18.1 | 13.3 | 2.4 | 1.4 | 0.6 | 12.4 | 4.9 | 4.2 | | (2,994) |
| | 50-54세 | 37.3 | 19.1 | 17.2 | 4.1 | 1.5 | 0.8 | 11.8 | 3.1 | 5.1 | 649.419 | (2,859) |
| | 55-59세 | 29.5 | 22.0 | 20.1 | 5.2 | 1.3 | 1.3 | 11.4 | 2.5 | 6.7 | *** | (2,791) |
| | 60-64세 | 18.1 | 20.8 | 20.9 | 6.6 | 1.6 | 2.3 | 16.1 | 2.1 | 11.5 | | (2,488) |
| 교육 수준 | 중졸이하 | 15.5 | 27.1 | 15.9 | 9.3 | 1.3 | 2.9 | 15.9 | 2.0 | 10.2 | | (545) |
| | 고졸 | 28.3 | 22.7 | 18.4 | 4.6 | 1.6 | 1.0 | 13.3 | 3.4 | 6.7 | 751.443 | (9,471) |
| | 초대졸 | 47.1 | 12.5 | 17.8 | 1.7 | 1.3 | 0.6 | 10.3 | 3.7 | 4.9 | *** | (831) |
| | 석사이상 | 64.7 | 3.8 | 16.3 | 1.1 | 1.1 | 0.0 | 9.8 | 0.0 | 3.3 | | (268) |
| 혼인 지위 | 미·비혼 | 24.2 | 27.0 | 10.1 | 0.7 | 4.8 | 5.9 | 3.3 | 2.9 | 21.1 | | (2,085) |
| | 유배우 | 34.1 | 18.1 | 18.5 | 5.1 | 1.2 | 0.7 | 13.7 | 3.4 | 5.1 | 1063.687 | (5,276) |
| | 이혼·별거 | 24.3 | 33.1 | 14.7 | 1.0 | 2.0 | 2.6 | 7.8 | 2.0 | 12.4 | *** | (3,586) |
| | 사별 | 22.8 | 29.1 | 14.6 | 1.1 | 1.5 | 1.1 | 16.4 | 1.1 | 12.3 | | (184) |

서비스·판매직과 농림어업·기계 등 숙련직 종사자가 절반 이상으로 높은 것이 베이비붐 세대의 직종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1인가구 취업자들은 다인가구에 비해 사무직 비율이 낮고 단순노무직 비율이 높아 직업 지위가 더 낮은 특징을 보였다. 두 가구형태 모두 성별에 따른 직종분리의 전형성이 두드러지며, 1인가구 남성이 다인가구보다 단순노무직 비율이 두 배 가까이 높다. 두 가구형태 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전문직·관리직, 사무직 비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단순노무직 비율이 높아지는 공통점을 보이지만, 60대 이상의 경우 1인가구는 단순노무직이 35.3%, 다인가구는 1,2차산업 숙련직이 40.7%로 가장 높은 차이가 있다. 학력별로 중졸 이하는 1,2차산업 숙련직과 단순노무직, 고졸자는 서비스·판매직과 숙련직, 대졸자 이상은 전문·관리직, 사무직 비율이 높은 보편성을 보이지만, 석사이상의 경우 1인가구는 사무직 비율이 높고, 다인가구는 대부분이 전문·관리직에 종사하는 차이가 있다. 미·비혼의 경우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전문·관리직 비율이 높고 사별의 경우 1인가구가 단순노무직 비율이 높은 차이가 있다.

1인가구의 연금 미가입 비율은 30.4%로 높아서 다인가구에 비해 노후대비의 취약성이 높고, 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공적연금 의존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가구형태 모두 여성, 연령이 높을수록, 미·비혼 집단, 비취업자의 연금 미가입 비율이 높은 것은 유사하지만, 다인가구의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개인연금 가입 비율이 월등히 높고, 1인가구 이혼·별거 집단의 연금 미가입 비율이 다인가구에 비해 4배 이상 높으며, 다인가구의 경우 고졸자가 다른 집단에 비해 공적연금, 개인연금 둘 다 가입한 비율이 높은 등의 차이가 있다.

<표 3-5> 원자료 1인가구·다인가구의 직종

| | 1인가구 | |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 전문·관리직 | 사무직 | 서비스 판매직 | 농림·어업·가계·숙련직 | 단순 노동직 | χ ² (명) | 전문·관리직 | 사무직 | 서비스 판매직 | 농림·어업·가계·숙련직 | 단순 노동직 | χ ² (명) | |
| 전체 | 12.6 | 6.8 | 25.0 | 31.6 | 24.0 | | 16.5 | 12.8 | 23.7 | 31.1 | 15.9 | (8,264) | |
| 성별 | 남자 | 12.5 | 5.3 | 9.3 | 49.8 | 23.1 | 156.24 6 | 16.8 | 14.1 | 14.6 | 42.7 | 11.7 | 1282.943 (4,833) |
| | 여자 | 12.7 | 8.6 | 43.8 | 9.7 | 25.1 | *** | 16.1 | 11.1 | 36.4 | 14.7 | 21.7 | *** (3,431) |
| 연령 | 45-49세 | 23.0 | 11.8 | 21.7 | 28.3 | 15.1 | | 23.3 | 20.5 | 20.8 | 23.6 | 11.5 | (2,284) |
| | 50-54세 | 16.0 | 9.2 | 20.6 | 34.4 | 19.8 | 92.364 | 17.9 | 13.6 | 25.2 | 29.4 | 14.0 | 715.726 (2,205) |
| | 55-59세 | 6.7 | 5.2 | 27.4 | 37.0 | 23.7 | *** | 13.2 | 9.4 | 25.3 | 33.4 | 18.6 | *** (2,131) |
| | 60-64세 | 5.3 | 1.8 | 29.4 | 28.2 | 35.3 | | 9.4 | 5.5 | 23.5 | 40.7 | 20.9 | (1,644) |
| 중졸이하 | 2.2 | 0.5 | 22.7 | 33.5 | 41.1 | | 1.6 | 1.1 | 24.2 | 41.8 | 31.4 | (1,412) | |
| 교육 수준 | 고졸 | 6.2 | 5.8 | 31.3 | 37.5 | 19.3 | 238.437 | 6.3 | 9.1 | 27.8 | 39.1 | 17.6 | 2919.704 (3,893) |
| 초대졸 | 41.5 | 16.3 | 15.4 | 17.1 | 9.8 | *** | 34.9 | 23.8 | 18.6 | 16.1 | 6.4 | *** (2,801) | |
| 석사이상 | 40.0 | 60.0 | 0.0 | 0.0 | 0.0 | | 74.1 | 15.8 | 6.3 | 1.9 | 1.9 | (158) | |
| 미·비혼 | 23.8 | 8.4 | 17.8 | 29.4 | 20.6 | | 17.4 | 11.4 | 18.0 | 32.1 | 21.0 | (333) | |
| 혼인 지위 | 유배우 | 0.0 | 10.0 | 20.0 | 50.0 | 20.0 | 87.667 | 17.3 | 13.5 | 22.9 | 31.6 | 14.6 | 161.038 (7,142) |
| 이혼·별거 | 7.1 | 6.0 | 26.6 | 36.9 | 23.4 | *** | 9.6 | 7.3 | 32.0 | 27.4 | 23.8 | *** (606) | |
| 사별 | 3.7 | 4.9 | 39.0 | 17.1 | 35.4 | | 7.7 | 7.2 | 35.9 | 21.0 | 28.2 | (181) |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표 3-6> 원자료 1인가구·다인가구의 연금 가입 현황

(단위: %, 명)

| | 1인가구 |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 | 공적연금 | 개인연금 | 둘다 가입 | 둘다 미가입 | χ^2 | (명) | 공적연금 | 개인연금 | 둘다 가입 | 둘다 미가입 | χ^2 | (명) | |
| 전체 | 50.2 | 6.1 | 13.3 | 30.4 | | (727) | 42.5 | 15.1 | 21.1 | 21.4 | | (9,992) | |
| 성별 | 남자 | 57.3 | 4.3 | 12.3 | 26.1 | 17.223 | (375) | 51.6 | 6.4 | 27.8 | 14.2 | 1163.450 | (5,028) |
| | 여자 | 42.6 | 8.0 | 14.5 | 34.9 | ** | (352) | 33.3 | 23.9 | 14.2 | 28.6 | *** | (4,964) |
| 연령 | 45-49세 | 56.2 | 3.6 | 21.3 | 18.9 | | (169) | 42.5 | 13.8 | 25.8 | 18.0 | | (2,798) |
| | 50-54세 | 59.7 | 5.2 | 12.7 | 22.4 | 49.568 | (134) | 43.4 | 14.3 | 22.8 | 19.5 | 253.873 | (2,606) |
| | 55-59세 | 52.3 | 5.2 | 12.8 | 29.7 | *** | (172) | 46.0 | 13.5 | 20.8 | 19.8 | *** | (2,495) |
| | 60-64세 | 39.7 | 8.7 | 8.7 | 42.9 | | (252) | 37.3 | 19.6 | 12.9 | 30.1 | | (2,093) |
| 혼인 지위 | 미·비혼 | 44.6 | 4.8 | 10.0 | 40.6 | | (251) | 38.7 | 16.9 | 11.5 | 33.0 | | (1,786) |
| | 유배우 | 53.8 | 6.6 | 10.7 | 28.9 | 46.914 | (318) | 43.9 | 15.9 | 19.0 | 21.2 | 411.243 | (4,735) |
| | 사별 | 51.7 | 6.0 | 25.5 | 16.8 | *** | (149) | 42.1 | 12.5 | 29.3 | 16.1 | *** | (3,329) |
| | 이혼별거 | 55.6 | 22.2 | 0.0 | 22.2 | | (9) | 53.2 | 24.8 | 17.0 | 5.0 | | (141) |
| 교육 수준 | 중졸이하 | 49.8 | 5.1 | 15.0 | 30.0 | | (273) | 54.8 | 6.5 | 13.2 | 25.5 | | (522) |
| | 고졸 | 46.7 | 6.7 | 20.0 | 26.7 | 2.899 | (15) | 41.2 | 15.3 | 22.9 | 20.7 | 157.657 | (8,308) |
| | 초대졸 | 52.0 | 6.2 | 11.5 | 30.2 | | (321) | 55.0 | 9.2 | 12.8 | 23.0 | *** | (751) |
| | 석사이상 | 49.5 | 4.5 | 14.4 | 31.5 | | (111) | 53.2 | 9.9 | 16.7 | 20.2 | | (233) |
| 고용 상태 | 상용직 | 72.4 | 1.7 | 21.5 | 4.4 | | (181) | 57.0 | 1.2 | 35.4 | 6.4 | | (3,244) |
| | 임시일용 비임금근로 | 61.3 | 3.3 | 12.7 | 22.7 | 247.831 | (181) | 53.3 | 6.7 | 18.5 | 21.5 | 4363.273 | (1,791) |
| | 미취업 | 60.4 | 1.1 | 26.4 | 12.1 | *** | (91) | 53.9 | 4.7 | 25.4 | 16.0 | *** | (1,964) |
| | | 25.6 | 11.3 | 3.8 | 59.4 | | (266) | 13.6 | 40.3 | 4.4 | 41.6 | | (2,821)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다음으로 경제적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무응답과 이상치를 제거한 가구소득 응답값을 소득5분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통계청은 2018년까지 가구소득을 가구원수로 표준화한 균등화가처분 소득으로 소득5분위를 공표하였으나 2019년에는 전체 가구에 대한 소득5분위를 공표하고 있어 1인가구와 다인가구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1인이상 전체 가구 대상 경계값 자료와 2인이상 가구 대상 경계값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5분위를 분류하였다. 분위별 소득평균액과 경계값 모두 소득이 낮은 하위 분위에서는 다인가구의 소득액이 높지만 소득이 높은 상위 분위로 갈수록 1인가구의 소득액이 더 높다.

<표 3-7> 통계청 공표 2019년 가구소득 5분위 경계값, 평균소득액

(단위: 만 원)

| |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
| 경계값 | 1인이상 | ~1,864 | ~3,632 | ~5,676 | ~8,695 | |
| | 다인가구 | ~2,239 | ~3,600 | ~4,984 | ~6,912 | |
| 가구소득 평균액 | 1인가구 | 981 | 2,601 | 4,476 | 6,661 | 13,175 |
| | 다인가구 | 1,324 | 2,940 | 4,291 | 5,841 | 9,459 |

자료: (1인가구)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2019 가계금융복지조사
(다인가구)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9 4분기)

두 패널 자료에서 1인가구는 81.7%가 소득1, 2분위의 하층에 속해있는 반면, 다인가구는 소득5분위가 39.1%, 소득4분위가 22.1%로 61.2%가 상층에 속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위별 평균소득액을 보면 3분위까지는 다인가구의 소득액이 1인가구보다 약간 더 많지만 소득4분위 이상에서는 1인가구의 소득액이 더 많고 금액 차이도 훨씬 더 크다. 소득5분위 평균액이 다인가구는 1억 8백여만원인데 1인가구는 1억 5천만원이 넘는다. 이는 다인가구에 비해 1인가구 내부의 소득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두 가구형태 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 하위분위 비율이 높고 결혼 유경험 집단에 비해 미·비혼 집단의 소득수준이 더 낮다. 결혼 유경험 집단에서는 사별보다 이혼·별거의 경우 고소득 분위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도 공통적인 현상이다.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다인가구에서만 나타나는데, 고졸자의 43.1%가 소득5분위에 속해있고 대졸 이상은 각 분위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학력 수준과 소득수준이 선형적 관계성을 보이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1인가구, 다인가구 모두 상용직과 비임금근로 집단에서 고소득 분위 비율이 높은 것은 유사하나, 비취업의 경우 1인가구는 79.7%가 소득1분위인 반면 다인가구는 각 분위에 고루 분포하고 있는 차이가 있다. 1인가구에서 공적연금, 개인연금 어떤 것도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의 대부분(86.9%)이 소득1분위에 속해있어 베이비붐 세대는 다인가구에 비해 1인가구의 빈곤 문제와 노후 경제적 위험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원자료 1인가구·다인가구의 가구소득 현황

(단위: %, 명)

| | 1인가구 | |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χ^2 (명)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χ^2 (명) | |
| 전체 | 비율 | 42.3 | 39.4 | 12.2 | 4.2 | 1.9 | (574) | 8.0 | 13.4 | 17.4 | 22.1 | 39.1 | (7,008) |
| | 평균소득 (만원) | 1,198 | 2,735 | 4,418 | 6,693 | 15,045 | 2,691 | 1,443 | 2,992 | 4,311 | 5,892 | 10,846 | 6,810 |
| 성별 | 남자 | 37.8 | 39.9 | 15.3 | 5.2 | 1.7 | (288) | 7.6 | 12.2 | 17.0 | 22.6 | 40.5 | (3,475) |
| | 여자 | 46.9 | 38.8 | 9.1 | 3.1 | 2.1 | 8.855 (286) | 8.4 | 14.5 | 17.7 | 21.7 | 37.7 | 13.204 (3,533) |
| 연령 | 45-49세 | 25.2 | 44.7 | 18.7 | 8.9 | 2.4 | (123) | 5.7 | 9.8 | 15.9 | 24.3 | 44.4 | (1,752) |
| | 50-54세 | 35.7 | 47.0 | 10.4 | 1.7 | 5.2 | 47.684 (115) | 7.1 | 12.8 | 16.4 | 21.2 | 42.5 | 191.386 (1,778) |
| | 55-59세 | 46.8 | 38.1 | 9.4 | 5.0 | 0.7 | *** (139) | 7.1 | 13.7 | 16.8 | 21.0 | 41.5 | *** (1,804) |
| | 60-64세 | 53.8 | 32.5 | 11.2 | 2.0 | 0.5 | (197) | 12.4 | 17.4 | 20.5 | 22.2 | 27.4 | (1,674) |
| 혼인 지위 | 미·비혼 | 59.1 | 34.3 | 5.6 | 0.5 | 0.5 | (198) | 16.3 | 20.5 | 23.5 | 20.8 | 19.0 | (1,377) |
| | 유배우 | 35.7 | 43.7 | 14.4 | 4.6 | 1.5 | 76.960 (263) | 6.8 | 14.1 | 17.7 | 24.2 | 37.2 | 587.394 (3251) |
| | 사별 | 27.9 | 38.5 | 19.2 | 10.6 | 3.8 | *** (104) | 5.0 | 8.3 | 13.6 | 20.5 | 52.6 | *** (2,180) |
| | 이혼 별거 | 33.3 | 33.3 | 11.1 | 0.0 | 22.2 | (9) | 3.5 | 8.0 | 11.1 | 16.1 | 61.3 | (199) |
| 교육 수준 | 중졸이하 | 39.6 | 39.6 | 12.5 | 6.3 | 2.1 | (192) | 40.5 | 21.6 | 17.9 | 10.5 | 9.5 | (190) |
| | 고졸 | 44.4 | 44.4 | 0.0 | 11.1 | 0.0 | (9) | 5.1 | 12.0 | 16.5 | 23.3 | 43.1 | 830.117 (6,061) |
| | 초대졸 | 39.8 | 41.4 | 13.5 | 3.4 | 1.9 | 12.670 (266) | 24.8 | 26.2 | 25.0 | 13.9 | 10.1 | *** (424) |
| | 석사이상 | 54.0 | 34.0 | 8.0 | 2.0 | 2.0 | (100) | 22.8 | 17.0 | 24.0 | 20.5 | 15.8 | (171) |
| 고용 상태 | 상용직 | 13.8 | 56.6 | 19.1 | 7.2 | 3.3 | (152) | 2.6 | 7.8 | 14.7 | 23.6 | 51.3 | (2,349) |
| | 임시일용 | 44.6 | 45.2 | 8.9 | 1.2 | 0.0 | (168) | 8.5 | 19.2 | 21.4 | 24.4 | 26.5 | 533.146 (1,214) |
| | 비임금근로 | 28.8 | 39.4 | 17.3 | 9.6 | 4.8 | 161.877 (104) | 6.7 | 13.1 | 16.4 | 21.5 | 42.2 | *** (1,669) |
| | 비취업 | 79.7 | 14.7 | 4.2 | 0.7 | 0.7 | (143) | 15.8 | 16.8 | 18.7 | 19.7 | 29.1 | (1,616) |
| 연금 가입 | 공적연금만 | 26.1 | 52.5 | 12.6 | 5.5 | 3.4 | (238) | 5.1 | 12.6 | 19.2 | 24.3 | 38.8 | (2,744) |
| | 개인연금만 | 34.5 | 41.4 | 17.2 | 3.4 | 3.4 | 172.790 (29) | 7.5 | 14.1 | 20.1 | 21.7 | 36.5 | 852.641 (1,089) |
| | 둘다 가입 | 10.2 | 38.8 | 34.7 | 14.3 | 2.0 | *** (49) | 1.6 | 3.6 | 7.6 | 21.5 | 65.7 | *** (1,056) |
| | 둘다 미가입 | 86.9 | 12.3 | 0.8 | 0.0 | 0.0 | (122) | 25.3 | 21.0 | 16.2 | 17.7 | 19.9 | (810) |

<표 3-9> 원자료 1인가구·다인가구의 1인가구 기간

(단위: 년, %, 명)

| 항목 | 1인가구 (N=755) | 그 외 가구(다인가구) (N=6,649) | | | | | (명) | | |
|-----------|-----------------|------------------------|-------------|----------|------------|---------|------|---------|-------|
| | | 1인가구 경험 유무 | | | 1인가구 기간(년) | | | | |
| | | 없음 | 있음 | χ^2 | 평균 | t/F | | | |
| 전체 | 7.65 | 95.6 | 4.4 | | 2.79 | (292) | | | |
| 성별 | 남자 | 7.94 | t=1.832 | 97.1 | 2.9 | 34.494 | 3.00 | t=1.036 | (97) |
| | 여자 | 7.36 | | 94.1 | 5.9 | *** | 2.68 | | (195) |
| 연령 | 45-49세 | 7.76 | | 95.9 | 4.1 | | 2.92 | | (79) |
| | 50-54세 | 7.69 | F=0.070 | 96.0 | 4.0 | 3.090 | 2.75 | F=2.545 | (68) |
| | 55-59세 | 7.66 | | 95.4 | 4.6 | | 2.20 | | (75) |
| | 60-64세 | 7.56 | | 94.9 | 5.1 | | 3.30 | | (70) |
| 혼인 지위 | 미·비혼 | 9.09 | | 37.5 | 2.5 | | 2.80 | | (10) |
| | 유배우 | 4.83 | F=15.650*** | 96.5 | 3.5 | 130.515 | 2.95 | F=.845 | (191) |
| | 이혼·별거 | 6.98 | | 88.9 | 11.1 | *** | 2.48 | | (64) |
| | 사별 | 7.06 | | 84.0 | 16.0 | | 2.37 | | (27) |
| 교육 수준 | 중졸이하 | 7.53 | | 93.7 | 6.3 | | 3.06 | | (78) |
| | 고졸 | 7.67 | F=.715 | 95.9 | 4.1 | 14.013 | 2.75 | F=.778 | (132) |
| | 초대졸 | 7.71 | | 96.3 | 3.7 | ** | 2.85 | | (82) |
| | 석사이상 | 9.56 | | 100.0 | - | | - | | - |
| 고용 상태 | 상용직 | 7.76 | | 96.2 | 3.8 | | 2.89 | | (76) |
| | 임시일용 | 7.53 | F=.347 | 94.8 | 5.2 | 11.090 | 2.93 | F=.563 | (82) |
| | 비임금근로 | 7.94 | | 96.8 | 3.2 | * | 2.63 | | (44) |
| | 비취업 | 7.51 | | 94.8 | 5.2 | | 2.80 | | (89) |
| 소득 5분위 | 1분위 | 8.50 | | 90.0 | 10.0 | | 2.82 | | (17) |
| | 2분위 | 8.08 | | 89.6 | 10.4 | | 3.24 | | (25) |
| | 3분위 | 7.82 | F=.882 | 90.5 | 9.5 | 14.900 | 4.03 | F=1.100 | (33) |
| | 4분위 | 7.43 | | 93.0 | 7.0 | ** | 3.10 | | (39) |
| | 5분위 | 7.00 | | 94.7 | 5.3 | | 2.78 | | (60) |

주: 1)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1인가구 기간 차이는 $t=-12.871$, 유의확률 0.000으로 유의함.2) $p<.05$ *, $p<.01$ **, $p<.001$ ***

마지막으로, 관찰기간인 2006년~2019년, 14년 동안 1인가구로 살았던 경험과 기간을 비교해 본 결과, 2019년 현재 다인가구 6,649 가구 중 4.4%에 해당하는 292가구가 그 전에 1인가구로 살았던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사별이나 이혼·별거, 중졸 이하, 임시일용이나 비취업자,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1인가구 경험 비율이 높다. 2019년 현재 1인가구를 포함하면 분석대상의 14.1%

가 1인가구와 다인가구를 오간 것인데, 인구 총조사에서 베이비붐 세대 1인가구 비율이 2019년 21.6%인 것을 고려하면, 두 패널 자료에서 1인가구는 과소표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관찰기간인 14년 중에 1인가구로 산 기간은 현재 1인가구인 경우 평균 7.65년, 다인가구는 2.79년이다. 1인가구 기간은 현재 1인가구인 집단에서 혼인 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그 외 집단 특성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1인가구 진입경로와 유형별 특성

가. 1인가구 진입경로: 혼인-동거배열

혼인 상태와 가구구성 상태를 결합한 ‘혼인-동거배열’을 최적일치법에 근거하여 유형화한 결과, 덴드로그램 상으로 3~7개의 적정군집이 도출되었다. 이에 1인가구 진입경로의 차이가 잘 드러날 때까지 군집화를 진행한 결과 6개의 군집이 가장 뚜렷하게 구별되었다.

군집별 특징을 시각화한 것이 <그림 3-1>의 상태분포 그래프다. x축은 시간 축으로 단위는 1년이며, 총 14개년의 혼인-동거배열 상태를 보여준다. y축은 해당 군집에 속하는 사례들의 누적분포이다.

[1]번 군집은 미혼-혼자인 기간이 평균 9.8년으로 관찰기간 전체가 미혼-혼자인 사례들이 가장 많고, 미혼 상태에서 부모와 살다가 1인가구로 살게 된 사례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미혼 1인가구’로 명명한다. 6개 군집 중 212명, 28.0%로 규모가 가장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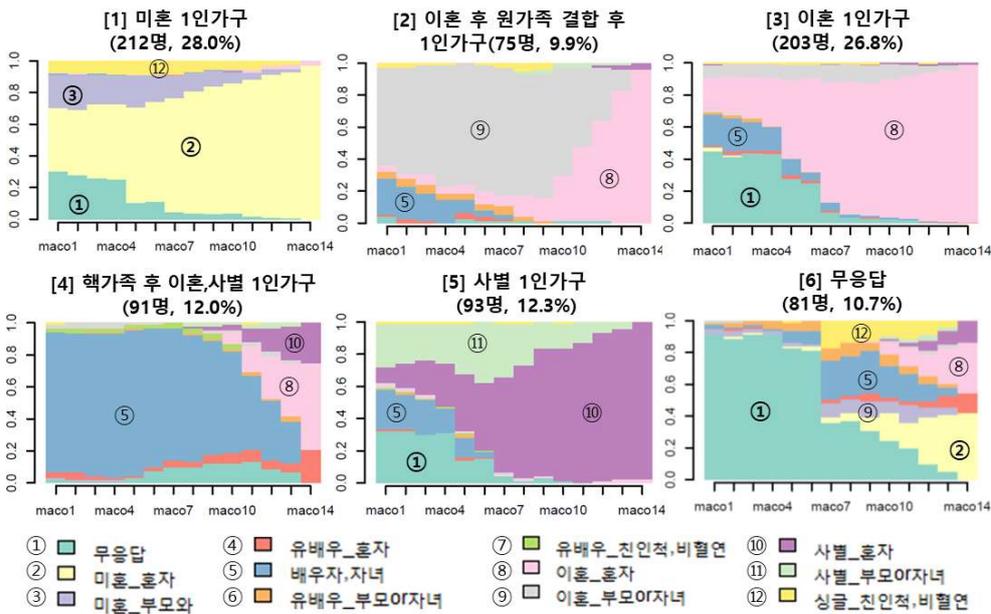
[2]번 군집은 이혼 상태에서 자신의 부모나 자녀와 산 기간이 평균 8.2년이고, 이혼-1인가구 기간은 3.8년인 특징을 보인다. 일부는 배우자 및 자녀와 살다가 이혼 후 혼자 살게 된 사례, 이혼-1인가구 상태였다가 부모나 자녀와 살다가 다시 1인가구로 살게 된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이혼 후 원가족 결합 후 1인가구’라 칭하도록 한다. 75명(9.9%)이 속해 있어 규모는 가장 적은 군집이다.

[3]번 군집은 이혼-혼자인 기간이 평균 9.1년으로, 관찰기간 내내 이혼-1인가구인 경우가 가장 많아 '이혼-1인가구'로 칭하도록 한다. 관찰 앞 시기에는 무응답 혹은 조사불응이었다가 이혼-1인가구인 경우도 절반 가까이 된다. 203명(26.8%)으로 두 번째로 큰 군집이다.

[4]번 군집은 배우자 및 자녀와 산 기간이 9.4년으로 가장 길고 관찰기간 후반부에 이혼-1인가구, 사별-1인가구가 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핵가족 후 이혼,사별 1인가구'로 군집의 특성을 유형화할 수 있다. 91명(12.0%)이 이에 해당한다.

[5]번 군집은 사별-혼자인 기간이 8.1년으로 가장 길고 사별 상태에서 부모나 자녀와 살다가 혼자 살게 된 경우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93명(12.3%)이 해당한다.

[6]번 군집은 무응답이나 조사 불응 기간이 6.9년으로 가장 길어서 1인가구 진입 경로를 특정하기 어렵다.



<그림 3-1> 혼인-동거배열 군집별 상태분포 그래프

나. 1인가구 진입경로별 특성

<표 3-10>은 각 유형별 사회경제적 특성을 비교한 것이고 이를 요약하여 유형별 특성을 정리한 것이 <표 3-11>이다.

[1] 미혼 1인가구는 남성이 72.2%, 미·비혼이 97.0%이고, 45-49세, 초대졸 이상, 관리직·전문직, 연금 미가입 비율이 높은 군집으로 '40대 고학력 상위직 남성형'이라 할 만하다. [1] 군집과 정반대 특성을 보이는 군집이 [5] 사별 1인가구로, 여성이 91.4%, 사별이 97.8%, 60-64세가 72.0%, 중졸 이하 72.0%이고, 임시일용직, 비취업, 소득 1분위 비율이 월등히 높은 '60대 저학력 빈곤층 여성형'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2]~[4] 군집은 이혼·별거 상태의 1인가구이며 55세 이상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2] 원가족 결합 후 1인가구형은 여성이 61.3%, 중졸 이하 37.3%, 소득 2분위 43.8%로 '55세 이상 저학력 하층 여성형' 특징을 보인다.

[3] 이혼 1인가구는 성별, 학력, 직종 등의 분포가 고르고 전체 군집 중에서 이혼-1인가구 기간이 9.1년으로 가장 길며 절반 이상이 소득1분위에 속해있어 '55세 이상 빈곤층 장기 이혼·별거형'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4] 핵가족 후 이혼·사별 1인가구는 핵가족 상태기간이 가장 긴 군집이며 초대졸 이상 22.5%, 소득4분위 이상 14.8%인 점이 특징적이다. '55세 이상 고학력 상층 최근 이혼·별거형'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 군집은 구성원 모두가 이혼·사별자는 아니며, 유배우 상태이면서 1인 분거자인 경우 및 별거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배우자 비율이 20.2%로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표 3-10> 진입경로 유형별 사회경제적 특성

(단위: %)

| | | 미혼 1인가구 | 이혼 후 원가족결합 후 1인가구 | 이혼 1인가구 | 핵가족 후 이혼, 사별 1인가구 | 사별 1인가구 | 무응답 | χ^2 |
|-----------|-----------------|------------|-------------------------|------------|-------------------------|------------|------|-----------------|
| 성별 | 남자 | 72.2 | 38.7 | 49.8 | 45.1 | 8.6 | 56.8 | 111.673 *** |
| | 여자 | 27.8 | 61.3 | 50.2 | 54.9 | 91.4 | 43.2 | |
| | (명) | (212) | (75) | (203) | (91) | (93) | (81) | |
| 연령 | 45-49세 | 42.9 | 8.0 | 17.2 | 17.6 | 0.0 | 30.9 | 1205.073 *** |
| | 50-54세 | 25.0 | 20.0 | 17.7 | 15.4 | 4.3 | 17.3 | |
| | 55-59세 | 20.8 | 26.7 | 25.6 | 28.6 | 23.7 | 19.8 | |
| | 60-64세 | 11.3 | 45.3 | 39.4 | 38.5 | 72.0 | 32.1 | |
| | (명) | (212) | (75) | (203) | (91) | (93) | (81) | |
| 혼인 지위 | 미·비혼 | 97.0 | 0.0 | 1.0 | 0.0 | 0.0 | 40.5 | 99.203 *** |
| | 유배우 | 0.0 | 0.0 | 0.5 | 20.2 | 0.0 | 12.7 | |
| | 이혼·별거 | 3.0 | 96.0 | 97.5 | 53.9 | 2.2 | 32.9 | |
| | 사별 | 0.0 | 4.0 | 1.0 | 25.8 | 97.8 | 13.9 | |
| | (명) | (200) | (75) | (200) | (89) | (93) | (79) | |
| 교육 수준 | 중졸이하 | 24.0 | 37.3 | 37.0 | 32.6 | 72.0 | 34.2 | 99.203 *** |
| | 고졸 | 42.0 | 50.7 | 51.5 | 44.9 | 24.7 | 36.7 | |
| | 초대졸 | 34.0 | 12.0 | 11.5 | 22.5 | 3.2 | 29.1 | |
| | (명) | (200) | (75) | (200) | (89) | (93) | (79) | |
| 고용 형태 | 상용직 | 33.5 | 25.3 | 25.0 | 22.5 | 17.2 | 24.1 | 20.980 |
| | 임시일용 | 25.5 | 32.0 | 31.5 | 27.0 | 34.4 | 26.6 | |
| | 비임금근로 | 14.0 | 20.0 | 15.0 | 24.7 | 18.3 | 11.4 | |
| | 비취업 | 27.0 | 22.7 | 28.5 | 25.8 | 30.1 | 38.0 | |
| 직종 | 관리·전문직 | 24.7 | 5.2 | 7.7 | 9.1 | 4.6 | 14.3 | 50.496 *** |
| | 사무직 | 6.8 | 8.6 | 5.6 | 4.5 | 6.2 | 14.3 | |
| | 서비스판매직 | 14.4 | 27.6 | 26.6 | 28.8 | 38.5 | 22.4 | |
| | 농림어업,기 계 숙련직 | 31.5 | 36.2 | 35.0 | 33.3 | 18.5 | 26.5 | |
| | 단순노무 | 22.6 | 22.4 | 25.2 | 24.2 | 32.3 | 22.4 | |
| (명) | (146) | (58) | (143) | (66) | (65) | (49) | | |
| 소득 5분위 | 1분위 | 41.4 | 38.4 | 50.5 | 35.2 | 59.8 | 50.0 | 42.620 ** |
| | 2분위 | 36.4 | 43.8 | 38.4 | 36.4 | 32.6 | 38.2 | |
| | 3분위 | 14.6 | 13.7 | 8.1 | 13.6 | 5.4 | 5.3 | |
| | 4분위 | 4.0 | 4.1 | 2.5 | 9.1 | 0.0 | 5.3 | |
| | 5분위 | 3.5 | 0.0 | 0.5 | 5.7 | 2.2 | 1.3 | |
| (명) | (198) | (73) | (198) | (88) | (92) | (76) | |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표 3-11> 진입경로 유형별 특징 요약

| 군집 번호 | 사례수 | 비율 (%) | 유형명 | 주요 특성 |
|-------|-----|--------|-------------------------|--|
| 1 | 212 | 28.0 | 미혼 1인가구 | 40대 후반 고학력 상위직 남성형 '미혼-혼자' 9.8년 남성 72.2%, 45-49세 42.9%, 초대졸 이상 34.0%, 관리·전문직 24.7% |
| 2 | 75 | 9.9 | 이혼 후 원가족결합 후 1인가구 | 55세 이상 저학력 하층 여성형 '이혼-부모나 자녀' 8.2년, '이혼-혼자' 3.8년 여성 61.3%, 55-64세 72%, 이혼·별거 96.0%, 중졸 이하 37.3%, 소득 2분위 43.8% |
| 3 | 203 | 26.8 | 이혼 1인가구 | 55세 이상 빈곤층 장기이혼 별거형 '이혼-혼자' 9.1년 55-64세 65%, 이혼·별거 97.5%, 소득 1분위 50.5% |
| 4 | 91 | 12.0 | 핵가족 후 이혼·사별 1인가구 | 55세 이상 고학력 상층 최근이혼 별거형 '배우자 및 자녀 동거' 9.4년, '이혼-혼자' 1.4년 55-64세 67.1%, 초대졸 이상 22.5%, 소득 4분 위 이상 14.8% |
| 5 | 93 | 12.3 | 사별 1인가구 | 60대 저학력 빈곤층 여성형 '사별-혼자' 8.1년 여성 91.4%, 60-64세 72.0%, 사별 97.8%, 중졸 이하 72.0%, 임시일용직 34.4%, 비취업 30.1%, 소득 1분위 59.8% |
| 6 | 81 | 10.7 | 무응답 | 무응답 6.9년 |

1인가구 진입경로별 특성 비교의 마지막으로, 삶의 질 차이를 살펴보면, 주관적 건강상태, 가족관계 만족도, 사회적 관계 만족도,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서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5] 사별 1인가구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보통 이하로 낮은 반면 다른 유형들은 양호한 편이었다. 가족관계 만족도와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2] 이혼·별거 후 원가족 결합 후 1인가구, [5] 사별 1인가구가 다른 집단에 비해 만족도가 높고, 사회적 관계 만족도는 [2], [5] 군집과 더불어 [4] 핵가족 후 이혼·사별 1인가구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동일한 이혼·별거 집단 내에서 누군가가 함께 살았던 기간이 긴 경우에 만족도가 더 높고, 사별한 노년층 여성의 경우

전체 군집 중에서 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다는 점이다. 또한, 관계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2]와 [5] 군집은 결혼관계 종식에 따른 1인가구 중에서도 여성형으로 구분되는 군집인 것도 주목할 만하다. 미·비혼 남성형인 [1]군집은 전체 군집 중에서 관계 만족도가 가장 낮다.

수입, 주거환경, 여가만족도는 유형별로 차이가 없는데, 베이비붐 세대 1인가구 모두가 수입에 불만족하고 있으며, 여가만족도는 보통 수준에서, 주거환경 만족도는 그보다 약간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 진입경로 유형별 삶의 질 비교

| | ① 미혼 1인가구 | ② 이혼 후 원가족결합 후 1인가구 | ③ 이혼 1인가구 | ④ 핵가족 후 이혼,사별 1인가구 | ⑤ 사별 1인가구 | ⑥ 무응답 | F | 사후검증 |
|------------|-----------|---------------------|-----------|--------------------|-----------|-------|-----------|---------------|
| 주관적 건강상태 | 3.31 | 3.24 | 3.14 | 3.30 | 2.90 | 3.15 | 3.014 * | ⑤ < ①=②=③=④=⑥ |
| 수입 만족도 | 2.86 | 2.88 | 2.77 | 2.89 | 2.86 | 2.74 | .651 | |
| 주거 만족도 | 3.28 | 3.29 | 3.30 | 3.36 | 3.46 | 3.27 | .984 | |
| 가족관계 만족도 | 3.25 | 3.53 | 3.21 | 3.34 | 3.75 | 3.33 | 8.349 *** | ①=③=④=⑥ < ②=⑤ |
| 사회적 관계 만족도 | 3.32 | 3.69 | 3.33 | 3.42 | 3.60 | 3.32 | 5.501 *** | ①=③=⑥ < ②=④=⑤ |
| 여가 만족도 | 3.10 | 3.09 | 3.02 | 3.09 | 3.19 | 3.10 | .728 | |
| 전반적 만족도 | 3.19 | 3.36 | 3.12 | 3.28 | 3.35 | 3.26 | 2.735 * | ①=③=④=⑥ < ②=⑤ |

주: 1) '수입만족도', '전반적 만족도'는 등분산 가정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Welch 통계량과 Dunnett T3 사후검증을 이용하였고, 나머지 변수들은 Scheffe에 의한 사후검증을 실시함

2) p<.05 *, p<.01 **, p<.001 ***

3. 소결

베이비부머 1인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1인가구로 진입하는 경로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과 한국복지패널 두 자료에 포함된 베이비붐 세대 1인가구 응답자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중졸 이하의 비율이 2배 가까이 높고, 대졸 학력자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지위를 보

면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상용직 비율이 낮은 반면, 반면 실업(1인가구 2.3%, 다인가구 4.5%), 또는 ‘그냥 쉽다’(1인가구 21.1%, 다인가구 6.7%)고 응답한 사람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에서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

성별, 연령, 교육수준에 따라 혼인지위의 차이를 보면, 다인가구 내 집단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는데 비해 1인가구 내부의 이질성은 상당히 크다는 점이 주목된다. 1인가구의 경우 남성은 절반이 미·비혼 상태인데 비해 여성은 미·비혼보다 이혼·별거, 사별로 인한 1인가구 비율이 더 높다. 평균소득을 보면 두 패널자료에서 1인가구 중 81.7%가 소득1, 2분위의 하층에 속해있는 반면, 다인가구는 전체적으로 61.2%가 상층(소득 4, 5분위)이었다. 그런데 평균소득액을 보면 3분위까지는 다인가구의 소득이 1인가구보다 약간 높지만, 소득4분위 이상 상층에서는 1인가구의 소득이 더 높게 나타나서, 1인가구 내부의 경제적 격차가 큰 것으로 보인다.

배열분석을 통해 현재 1인가구인 응답자가 지난 14년 동안 어떤 혼인지위에서 누구와 같이 살았는지의 시계열적 변화를 유형화하였다(배열분석). 혼인 상태와 가구구성 상태를 결합한 ‘혼인-동거배열’을 최적일치법에 근거하여 유형화한 결과, 6개의 군집이 가장 뚜렷하게 구별되었다.

첫 번째 군집인 “미혼 1인가구”는 남성(72.2%), 미·비혼자(97.0%)가 많으며 40대 고학력 상위직 남성형이라고 부를 만한 특성을 보인다. [군집 1]과 정반대 특성을 보이는 [군집 5]는 “사별 1인가구”라고 부를 수 있는데, 주로 60대 저학력 빈곤층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혼·별거 후 1인가구가 된 [군집 2, 3, 4]는 55세 이상이 대부분이라는 유사점이 있지만,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서는 다소 차이가 나타난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군집 3]은 이혼 후 평균 혼자 생활한 기간이 9.1년으로 가장 길며, 성별, 학력, 직종 등의 분포가 고른 편이지만 절반 이상이 소득1분위에 속해있어 ‘55세 이상 빈곤층 장기 이혼·별거형’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군집 2]는 이혼 후 원가족과 결합하여 생활하다가 다시 1인가구가 된 유형이며 ‘55세 이상 저학력 하층 여성형’으로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한편 [군집 4]는 배우자나 자녀와 동거한 기간이 평균 9.4년으로 가장 긴 집단이며, ‘55세 이상 고학력 상층 최근 이혼·별거형’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패널자료 재분석 결과는 중장년 1인가구 내부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다시금 확인해 준다. 군집별로 삶의 질 조사결과도 차이를 보인다. 가령 “미혼 1인가구”(군집 1)는 건강이나 수입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지만 가족관계나 사회 관계, 여가 만

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소득 지원은 필요하지 않더라도 관계망이나 여가에 대한 욕구가 있을 수 있는 집단이다. 이와 달리 “이혼 후 1인가구”(군집3)는 전반적인 만족도가 6개 군집 중 가장 낮은 편이며, 특히 건강, 가족관계, 여가 만족도 점수가 다른 1인가구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이혼 후 장기간 혼자 생활한 1인가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제 4 장

베이비붐 세대 1인가구의 “혼자 살기” 경험

1. 혼자 산 경험: 언제부터 왜?
2. 혼자 사는 이유
3. 혼자 사는 삶의 어려움
4. 1인가구 생활과 경제·정서적 상황 변화
5. 소결

4

베이비붐 세대 1인가구의 “혼자 살기” 경험 <

1인가구는 어떤 가족적,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가(사회적 네트워크), 어떤 이유로 1인가구로 살게 되었는가(진입경로)에 따라 내적 다양성을 가진 집단이다. 이 절에서는 온라인 조사결과를 통해 먼저 1인가구가 언제부터 왜 혼자 사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이것이 다인가구의 혼자 살았던 경험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또, 혼자 사는 삶은 어떤 점에서 불편과 어려움이 있는지 삶의 질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1. 혼자 산 경험: 언제부터 왜?

혼자 산 기간을 중심으로 얼마나 혼자 살았는지를 살펴보았다. 베이비부머 1인가구 중 혼자 산 기간이 5년 이하가 43.6%를 차지해 약 절반정도 가구가 최근 1인가구의 삶을 살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20년 초과 1인가구 생활을 한 경우도 15%에 달했다(<표4-1>). 표본의 최고 연령이 64세이므로, 44세이전부터 1인가구 생활을 한 베이비부머의 비율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1인가구 생활기간은 5년 이하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의 1인가구 증가라는 전반적인 인구동향과 일치하는 동시에, 특히 중장년 가구에서 1인가구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50대 후반에서는 20년 넘게 1인가구 생활을 한 집단의 비율도 높게 나타나는데(21.5%) 이들 가구는 30대 후반 (또는 그 이전부터) 1인가구 생활을 지속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상당수가 미혼일 것으로 짐작된다.

미혼의 경우 5년 이하가 25.3%, 20년 초과가 28.3%로 비교적 단기간 혹은 장기간 1인가구 생활을 한 집단으로 양극화되어 있고, 유배우집단은 5년 이하가 61.7%

로 비교적 최근 1인가구 생활을 시작한 집단의 비율이 높았다. 사별·이혼·별거 집단 역시 5년 이하가 50.3%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6~10년 이하가 21.7%를 차지해 유배우 집단과 마찬가지로 10년 이하 집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미혼집단에서 20년 초과 장기간 1인가구 생활을 한 비율이 최근 독립한 미혼집단보다 더 많다는 점은 다소 이례적이다.¹⁶⁾ 이것이 표본의 특징인지, 중장년 1인가구의 싱글화를 반영하는 것일지는 추후 자료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¹⁷⁾

<표 4-1> 혼자 산 기간: 연령별, 성별, 혼인지위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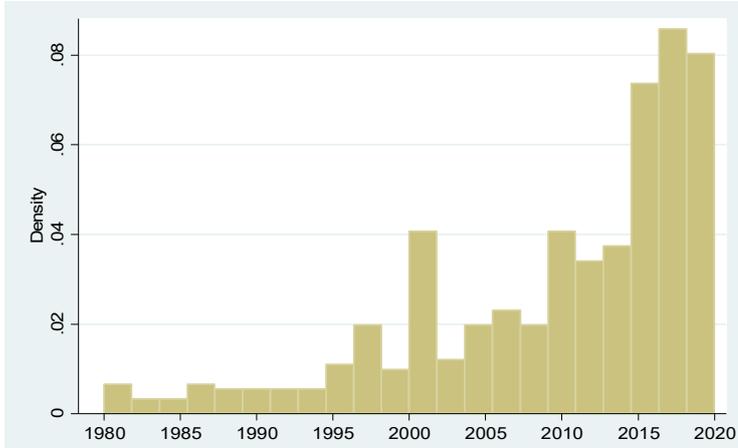
(단위: %, 명)

| 항목 | 5년 이하 | 6-10년 | 11-15년 | 16-20년 | 21년 이상 | 합계 | χ^2 | (명) |
|------|--------|-------|--------|--------|--------|------|----------|-------|
| 전체 | 43.6 | 20.4 | 9.8 | 11.2 | 15.0 | 100 | | (500) |
| 연령 | 45-49세 | 31.9 | 29.3 | 14.7 | 15.5 | 8.6 | 100 | (116) |
| | 50-54세 | 50.0 | 18.6 | 7.6 | 8.5 | 15.3 | 100 | (118) |
| | 55-59세 | 47.4 | 15.6 | 7.4 | 8.2 | 21.5 | 100 | (135) |
| | 60-64세 | 44.3 | 19.1 | 9.9 | 13.0 | 13.7 | 100 | (131) |
| 성별 | 남성 | 42.6 | 19.6 | 9.81 | 13.5 | 14.6 | 100 | (275) |
| | 여성 | 44.9 | 21.3 | 9.8 | 8.4 | 15.6 | 100 | (225) |
| 혼인지위 | 미혼비혼 | 25.3 | 19.2 | 12.6 | 14.7 | 28.3 | 100 | (198) |
| | 유배우 | 61.7 | 20.65 | 5.0 | 5.7 | 7.1 | 100 | (141) |
| | 사별이혼별거 | 50.3 | 21.7 | 10.6 | 11.8 | 5.6 | 100 | (16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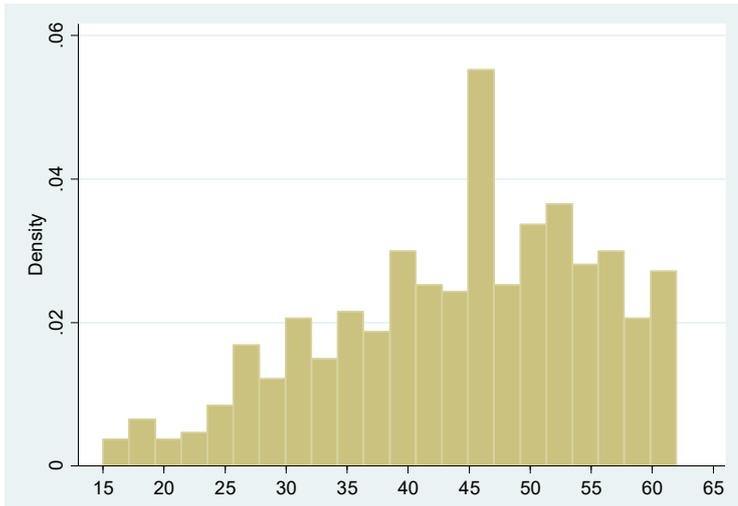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16) 추가 분석을 실시했을 때, 20년초과 장기 1인가구인 집단의 74.7%가 미혼비혼으로 나타나 가족관계상의 변동이나 단절보다 미혼 상태의 지속이 1인가구 생활의 장기화를 낳는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17) 2019년 가계금융복지 조사에서 베이비부머 1인가구를 추출하여 살펴보았을 때 평균연령은 54.8세이며, 성별에서 남성의 비율이 약간 더 높고 (55%), 미혼보다 이혼가구의 비중이 높았다 (이혼 43.1%, 미혼 26.0%, 사별 18.9%, 유배우 12.1%). 현재 1인가구 표본은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비해 이혼사례가 적고 미혼 사례가 상대적으로 과잉 대표된 경향이 있으며 또, 사별이 적고 유배우가 많은 특징을 갖고 있다 (이혼 24.6%, 미혼 39.6%, 사별 4.4%, 유배우 28.2%).



<그림 4-1> 혼자 생활하기 시작한 시점 (연도)



<그림 4-2> 혼자 생활하기 시작한 나이

<그림4-2>에 나타나듯이 전반적으로 베이비부머가 1인가구 삶을 (최근) 시작한 나이는 40대 중반~50대 초반이고 45세~46세가 이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30대 중반까지 증가 추이는 있었으나 크게 높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혼자 살기 시작한 시점(연도)을 살펴보면, 2015년 이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표4-1>의 분포에서도 밝혔듯이 2010년 이후 1인가구 생활을

한 집단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림4-1>에서 흥미로운 점은 2000년 경제위기 직후 혼자 살기 시작한 비율이 이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시 베이비부머는 23세~42세로 활발한 경제활동기였는데, 당시 고용불안정성의 증가, 이혼의 증가 등 경제위기의 충격이 비자발적인 1인가구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2. 혼자 사는 이유

가. 혼자 사는 이유: 1인가구

1인가구가 혼자 사는 이유는 다양하다. 학교와 직장과 때문에 혼자 살기도 하고, 함께 살던 가족관계의 변동으로 인해 혼자 살기도 하며 라이프스타일 선택에 의해서 혼자 살기도 한다. 서울 거주 1인가구에 대한 조사(변미리 외, 2014)에 따르면 1인가구가 혼자 생활하는 이유 중 가장 많은 답변은 “직장과의 거리 때문”(51.5%)이었으며, 가족으로부터 독립(37.1%), “함께 있던 가족의 이주, 사망 등 때문”(14.0%)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20대부터 50대까지, 즉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포함하는 조사인데, 직장 때문이라는 응답은 여자, 20~30대, 혼자 산 기간이 짧을수록(2년 미만)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혼자 사는 이유의 선택지를 “학교/직장 때문에” “배우자와의 이혼/별거/사별 때문에” “부모 또는 형제 자매의 사망 혹은 관계단절 때문에”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마땅히 함께 살 사람이 없어서”로 부여했다. “배우자와의 이혼/별거/사별”,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혹은 관계단절” “자녀의 분가, 독립” 등은 가족관계의 변동 혹은 단절로 인한 사유에 속한다.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와 “마땅히 함께 살 사람이 없어서”는 서로 다른 맥락이지만 “개인의 선호”와 관련된 이유이다. “학교/직장 때문에”는 1인가구에 대한 기존연구에서 가장 많이 지목된 혼자 사는 이유였다. 청년층일수록 학교/직장 때문에 1인가구로 산다는 응답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라이프스타일이나 가족관계적 사유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서정주·김예구, 2017).¹⁸⁾

우리 연구에서도 베이비부머 1인가구가 현재 혼자 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직장 때문에”가 가장 많았고(29.8%), 다음으로 “배우자와의 이혼/별거/사별 때문에”(24.8%),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22.0%) 순으로 나타났다. 혼자 사는 이유에서 순위는 남녀의 차이가 없었다. 남성은 학교나 직장 때문(31.4%), 배우자와의 이혼/별거와 같은 가족관계적 사유(26.6%),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23.4%) 순으로 높았다. 여성도 학교/직장 때문이 가장 많았으며(27.9%) 배우자와의 이혼사별(22.5%),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20.3%)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학교, 직장 때문이라는 비율이 약간 낮았고, 자녀의 독립 등으로 인해 혼자 살게 되었다고 응답한 이유가 18.5%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남성과 달리 1인가구 진입경로에서 자녀와의 동거가 선행하는 주거 및 생활양식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학교/직장 때문에 혼자 산다는 비율은 40대 후반에서 가장 높고(38.3%), 60대 초반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21.7%). 혼인관계 변동(사별/이혼/ 별거)으로 인한 것은 40대 후반에서는 7.0%에 불과했으나, 60대 초반에서는 34.9%로 1/3 이상이 배우자 관계의 변동¹⁹⁾으로 1인가구로 살게 되었다고 대답했다. 더욱이, 60대 초반은 혼자 사는 이유로 배우자뿐 아니라 자녀독립으로 인한 것도 20.9%로 매우 높게 나타나 절반 이상이 가족관계의 변동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1인가구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자유롭게 살고 싶어 혼자 산다는 것은 젊은 층에서 높고 (40대 후반, 37.4%), 학교/직장으로 인한 사유(38.3%)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베이비부머 중에서도 젊은 층일수록 가족 사유보다는 학교/직장 등의 공적 활동의 필요성과 혼자 사는 자유가 1인가구 형성을 추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8) 통계청 <사회조사>(2019)에 따르면 60세이상의 노년층의 경우 혼자 사는 이유는 아니지만 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이유를 물었을 때 1위 ‘따로 사는 것이 편해서’(33.1%), 2위 “자녀의 독립”(29.9%), 3위 “자녀에게 부담이 될까봐”(17.2%)로 나타났다. “편해서”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2년전(2017년) 조사에서는 “자녀의 독립”이 가장 중요한 사유였으나 2019년에는 “편해서”의 비율이 증가해 자녀의 독립을 제치고 1위가 되었다. 노년층의 자녀 비동거 사유에서도 비자발적인 가족관계 사유보다 자발적인 선택이 증가하고 있다.

19) 이 집단 내부의 혼인지위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이혼이 76.6%로 가장 높았고, 사별 15.6%, 별거 순으로 많았다.

<표 4-2> 1인가구가 혼자 사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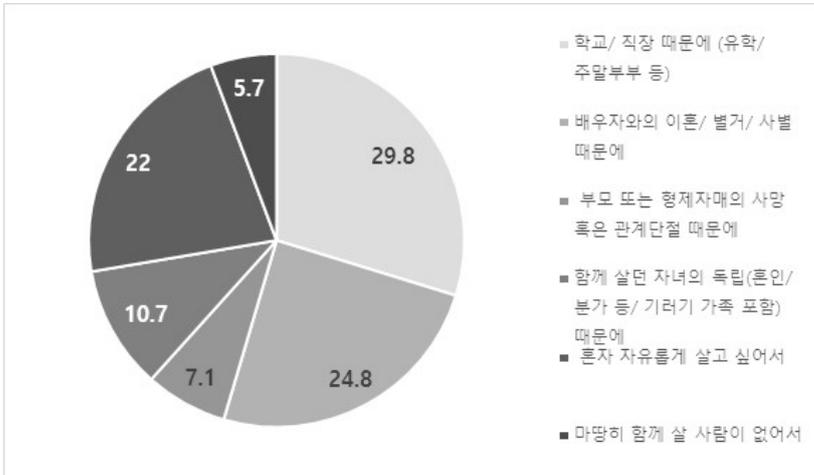
(단위: %, 명)

| 항목 | 학교/직장 때문에 (유학/주말 부부 등) | 배우자와의 이혼/별거/ 사별 때문에 |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혹은 관계단절 때문에 | 함께 살던 자녀의 독립(혼인/ 분가 등/기러기 가족 포함) 때문에 |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 마땅히 함께 살 사람이 없어서 | χ^2 | (명) | |
|----------|---------------------------------|------------------------------|--|--|-------------------------|---------------------------|----------|---------|-------|
| 전체 | 29.8 | 24.8 | 7.1 | 10.7 | 22.0 | 5.7 | - | (496) | |
| 성별 | 남자 | 31.4 | 26.6 | 8.0 | 4.4 | 23.4 | 6.2 | 25.805 | (274) |
| | 여자 | 27.9 | 22.5 | 5.9 | 18.5 | 20.3 | 5.0 | *** | (222) |
| 연령 | 45-49세 | 38.3 | 7.0 | 8.7 | 2.6 | 37.4 | 6.1 | | (115) |
| | 50-54세 | 34.2 | 23.9 | 4.3 | 9.4 | 23.9 | 4.3 | 78.246 | (117) |
| | 55-59세 | 26.7 | 31.1 | 11.1 | 8.9 | 14.1 | 8.2 | *** | (135) |
| | 60-64세 | 21.7 | 34.9 | 3.9 | 20.9 | 14.7 | 3.9 | | (129) |
| 혼인 지위 | 유배우 | 65.0 | 5.6 | 1.4 | 15.4 | 11.2 | 1.4 | | (143) |
| | 혼인 사별이혼 | 5.6 | 71.4 | 2.5 | 16.8 | 2.5 | 1.2 | 467.482 | (161) |
| | 미혼비혼 | 24.0 | 0.0 | 15.1 | 2.1 | 46.4 | 12.5 | *** | (192)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15.0 | 35.0 | 7.1 | 12.9 | 22.9 | 7.1 | | (140) |
| | 대학교 | 33.5 | 22.6 | 6.8 | 10.1 | 22.6 | 4.4 | 32.138 | (296) |
| | 대학원 이상 | 46.7 | 11.7 | 8.3 | 8.3 | 16.7 | 8.3 | *** | (60) |
| 근로 여부 | 그렇다 | 33.0 | 24.0 | 7.0 | 8.8 | 21.9 | 5.4 | 12.787 | (388) |
| | 아니다 | 18.5 | 27.8 | 7.4 | 17.6 | 22.2 | 6.5 | * | (108) |
| 가구 소득 | 199만 이하 | 13.5 | 30.1 | 11.1 | 12.3 | 25.2 | 8.0 | | (163) |
| | 200~399만 | 28.3 | 27.8 | 7.2 | 9.4 | 21.7 | 5.6 | 60.179 | (180) |
| | 400~599만 | 47.7 | 31.6 | 0.0 | 11.4 | 17.1 | 2.3 | *** | (88) |
| | 600만 이상 | 50.8 | 7.7 | 6.2 | 9.2 | 21.5 | 4.6 | | (65) |

주: 1) 기타 응답 무응답처리 하여 전체 496 케이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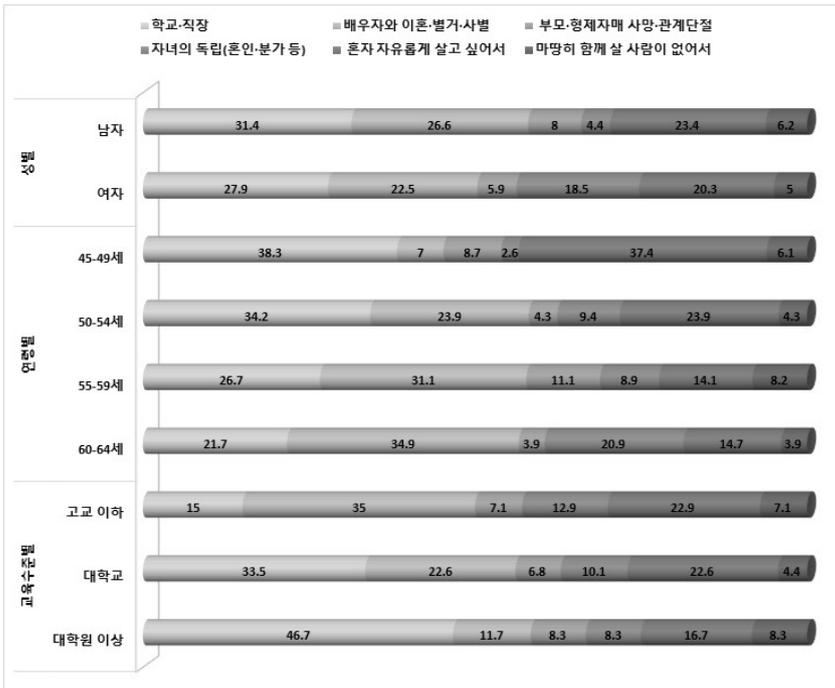
2) p<.05 *, p<.01 **, p<.001 ***

(단위: %, 명)



<그림 4-3> 1인가구가 혼자 사는 이유

(단위: %, 명)



<그림 4-4> 1인가구가 혼자 사는 이유: 성별·연령별·교육수준별

나. 혼자 살다가 원가족과 합쳤던 경험 유무: 1인가구

1인가구과 다인가구의 삶의 가역성, 유동성을 살펴보기 위해 혼자 살다가 원가족과 함께 산 1인가구의 경험과 현재 1인가구로 살고 있지만, 과거 다인가구로서 산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표4-3>).

1인가구 응답자의 60%가 “과거에 혼자 살다가 원래 가족과 함께 산”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원래 가족과 다시 함께 살았던 경험에서 성별, 연령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혼인지위, 가구소득, 혼자 산 기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배우의 경우 다시 가족과 함께 산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미혼/비혼과 이혼, 사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유배우 1인가구는 학교/직장 때문의 사유로 인해 가족과 분리되어 사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직장위치 이동 등의 “공간적 거리”가 변동할 경우 원가족과 재결합할 가능성이 높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또 혼자 산 기간이 짧을수록 원가족과 다시 산 비율이 높았다. 흥미로운 것은 혼자 산 기간이 10년이하인 집단의 60% 이상이 가족과 함께 산 경험이 있는데, 20년 초과 혼자 산 집단은 다시 가족과 함께 산 비율이 40% 수준에 불과했다. 20년 이상 혼자 살았다는 것 자체와 원가족과 다시 결합할 사유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혼자살기가 독립적 생활양식으로 정착했음을 의미할 것이다.

<표 4-3> 과거에 혼자 살다가 원래 가족과 함께 산 경험 유무(1인가구)

(단위 : %, 명)

| 항목 | 있다 | 없다 | F | (명) |
|---------|----------|------|------------------|----------------|
| 전체 | 59.8 | 40.2 | - | (500) |
| 성별 | 남자 | 39.3 | 0.218 (.640) | (275) |
| | 여자 | 41.3 | | (225) |
| 연령 | 45-49세 | 34.5 | 4.135 (.247) | (116) |
| | 50-54세 | 44.9 | | (118) |
| | 55-59세 | 37.0 | | (135) |
| | 60-64세 | 44.3 | | (131) |
| 혼인지위 | 미혼비혼 | 47.2 | 13.1 (.050*) | (198) |
| | 유배우 | 22.9 | | (141) |
| | 사별이혼별거 | 47.2 | | 1,3<2 (161) |
| 혼자 산 기간 | 5년 이하 | 33.5 | 4.35 (.002**) | (218) |
| | 6-10년 | 36.3 | | (102) |
| | 11-15년 | 49.0 | | (49) |
| | 16-20년 | 41.1 | | 1,2>5 (56) |
| | 21년 이상 | 58.7 | | (75) |
| 가구소득 | 199만 이하 | 44.5 | 3.23 (.023*) | (164) |
| | 200~399만 | 44.0 | | (182) |
| | 400~599만 | 36.0 | | 1,2<4 (89) |
| | 600만 이상 | 24.6 | | (65) |

주 : 1) F값은 “있다”값에 대한 분산분석결과 (집단간 차이는 Scheffe’s test 결과)

2) p<.05 *, p<.01 **, p<.001 ***

혼자 살다가 원 가족과 함께 산 사례를 중심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면, “생활비/주거비 등 경제적인 문제”가 47.5%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부모님을 돌봐야 해서”가 28.1%로 나타났다. “손자녀를 돌봐야 해서”도 5.0% 응답률을 보여서 가족 돌봄으로 인해 다시 가족과 함께 살게 산 비율이 33.1%로 나타났다. 다시 가족과 함께 산 이유에서 성별, 연령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남성에서 경제적인 이유가 좀더 높게 나타났고(남성 50.9%, 여성 43.2%), 여성은 혼자 사는 것이 안전하지 못해서 등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남성 3.0%, 여성 9.1%). 미혼 1인가구의 경우 부모님을 돌봐야 해서 다시 가족과 함께 살았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45.6%). 베이비부머 미혼자들이 다른 혼인지위 형태보다 원가족의 돌봄 부담을 더 지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부모 돌봄으로 인해 원래 가족과 다시 살았다는 비율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주관적 계층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4-4> 과거에 혼자 살다가 같이 산 이유(1인가구)

(단위: %, 명)

| 항목 | 생활비/주거비 등 경제적인 문제 | 부모님을 돌보아야 해서 | (손)자녀를 돌보아야 해서 |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서 | 혼자 사는 것이 안전하지 못해서 | 학교/직장 때문에 | 결혼 | 분가했던 가족의 복귀 | 기타 | (명) |
|-----------|-------------------|--------------|----------------|---------------|-------------------|-----------|-----|-------------|-----|-------|
| 전체 | 47.5 | 28.1 | 5.0 | 7.4 | 5.7 | 4.0 | 1.0 | 1.0 | .3 | (299) |
| 성별 | | | | | | | | | | |
| 남자 | 50.9 | 28.1 | 5.4 | 7.2 | 3.0 | 4.2 | .6 | .6 | 0.0 | (167) |
| 여자 | 43.2 | 28.0 | 4.5 | 7.6 | 9.1 | 3.8 | 1.5 | 1.5 | .8 | (132) |
| 연령 | | | | | | | | | | |
| 45-49세 | 42.1 | 39.5 | 2.6 | 5.3 | 5.3 | 3.9 | 1.3 | 0.0 | 0.0 | (76) |
| 50-54세 | 47.7 | 26.2 | 4.6 | 9.2 | 7.7 | 3.1 | 0.0 | 1.5 | 0.0 | (65) |
| 55-59세 | 54.1 | 21.2 | 5.9 | 8.2 | 5.9 | 3.5 | 1.2 | 0.0 | 0.0 | (85) |
| 60-64세 | 45.2 | 26.0 | 6.8 | 6.8 | 4.1 | 3.5 | 1.4 | 2.7 | 1.4 | (73) |
| 혼인 지위 | | | | | | | | | | |
| 미혼·비혼 | 42.7 | 45.6 | 0.0 | 1.9 | 3.9 | 3.9 | 0.0 | 1.9 | 0.0 | (198) |
| 유배우 | 51.4 | 20.7 | 6.3 | 9.9 | 7.2 | 3.6 | 0.9 | 0.0 | 0.0 | (141) |
| 사별·이혼·별거 | 48.2 | 16.5 | 9.4 | 10.6 | 5.9 | 4.7 | 2.4 | 1.2 | 1.2 | (161) |
| 교육 수준 | | | | | | | | | | |
| 고교 이하 | 48.8 | 17.9 | 8.3 | 7.1 | 11.9 | 1.2 | 2.4 | 2.4 | 0.0 | (84) |
| 대학교 | 44.4 | 33.7 | 4.5 | 9.0 | 3.4 | 4.5 | .6 | 0.0 | 0.0 | (178) |
| 대학원 이상 | 59.5 | 24.3 | 0.0 | 0.0 | 2.7 | 8.1 | 0.0 | 2.7 | 2.7 | (37) |
| 주관적 경제 수준 | | | | | | | | | | |
| 중상층 이상 | 47.0 | 18.2 | 4.5 | 16.7 | 6.1 | 3.0 | 0.0 | 3.0 | 1.5 | (66) |
| 중하층 | 46.0 | 31.9 | 3.5 | 5.3 | 5.3 | 7.1 | .9 | 0.0 | 0.0 | (113) |
| 하층 | 49.2 | 30.0 | 6.7 | 4.2 | 5.8 | 1.7 | 1.7 | .8 | 0.0 | (120) |
| 가구 소득 | | | | | | | | | | |
| 199만 이하 | 48.4 | 33.0 | 5.5 | 4.4 | 7.7 | 1.1 | 0.0 | 0.0 | 0.0 | (91) |
| 200~399만 | 46.1 | 30.4 | 5.9 | 3.9 | 3.9 | 5.9 | 2.9 | 1.0 | 0.0 | (102) |
| 400~599만 | 54.4 | 22.8 | 3.5 | 7.0 | 7.0 | 3.5 | 0.0 | 1.8 | 0.0 | (57) |
| 600만 이상 | 40.8 | 20.4 | 4.1 | 4.1 | 4.1 | 6.1 | 0.0 | 2.0 | 2.0 | (49) |

다. 성인이 된 후 혼자 생활한 경험 유무: 다인가구 응답자

지금까지 1인가구에게 혼자 살다가 가족과 함께 산 이유를 물었다면, 다인가구가 성인이 되고 혼자 생활한 경험과 이유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다인가구 중 혼자 생활한 경험이 있는 집단은 58.1%로 다인가구의 베이비부머 중 상당수가 혼자 생활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혼자 산 경험은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았고(남성 70.9%, 여성 45.2%), 유배우의 56.8%가 혼자 생활한 경험이 있었으며, 사별·이혼·별거의 80%, 미혼·비혼 집단의 77%가 혼자 산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취업자 집단에서 혼자 생활한 경험이 더 많았으며(64.3%), 비취업자에서는 44.1%로 낮았다. 또 대학원 이상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혼자 산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는데(69.6%), 다인가구에서도 학교, 직장 등 공적 사회생활과 직접적 연관성이 높은 하위 범주들에서 혼자 산 적이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4-5> 성인이 되고 혼자 생활한 경험 유무 (다인가구)

(단위: %, 명)

| 항목 | 있다 | 없다 | F | (명) | |
|-----------------|----------|------|------|--------------------|-------|
| 전체 | 58.1 | 41.9 | - | (800) | |
| 성별 | 남자 | 70.9 | 29.1 | 57.93 (.000***) | (402) |
| | 여자 | 45.2 | 54.8 | 1>2 | (398) |
| 연령 | 45-49세 | 61.4 | 38.6 | | (210) |
| | 50-54세 | 61.7 | 38.3 | 1.77 (.151) | (209) |
| | 55-59세 | 56.7 | 43.3 | | (201) |
| | 60-64세 | 51.7 | 48.3 | | (180) |
| 혼인 지위 | 유배우 | 56.8 | 43.2 | 3.81 (0.023*) | (696) |
| | 사별이혼별거 | 80.0 | 20.0 | 1,3<2 | (48) |
| | 미혼비혼 | 76.7 | 23.3 | | (56)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55.5 | 44.5 | 3.25 (.039*) | (229) |
| | 대학교 | 56.9 | 43.1 | 1,2<3 | (469) |
| | 대학원 | 69.6 | 30.4 | | (102) |
| 근로 여부 | 그렇다 | 64.3 | 35.7 | 29.60 (.000***) | (555) |
| | 아니다 | 44.1 | 55.9 | 1>2 | (245) |
| 가구 소득 | 199만 이하 | 62.7 | 37.3 | | (67) |
| | 200~399만 | 54.2 | 45.8 | 0.94 (.042*) | (227) |
| | 400~599만 | 57.9 | 42.1 | | (280) |
| | 600만 이상 | 61.1 | 38.9 | | (226) |
| 주관적 경제 수준 | 중상층 이상 | 60.7 | 39.3 | | (252) |
| | 중하층 | 57.7 | 42.3 | 0.65 (.522) | (369) |
| | 하층 | 55.3 | 44.7 | | (179) |

주: 1) F값은 “있다”값에 대한 분산분석결과 (집단 간 차이는 Scheffe’s test 결과)

2) p<.05 *, p<.01 **, p<.001 ***

혼자 산 적이 있다고 응답한 다인가구 응답자에게 혼자 생활한 이유를 물었을 때,

역시 학교/직장 때문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83.2%). 가족관계와 관련된 비율은 7.2%에 불과했으며,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응답이 8.0%를 차지했다. 혼인지위와 관련하여서는 사별·이혼·별거 집단에서는 학교/직장 때문의 비율이 낮고(46.0%) 배우자의 사별·이혼·별거으로 인해 혼자 산 적이 있다는 비율이 높았다(32.4%).²⁰⁾

1인가구 다인가구 모두 혼자 사는 이유로는 학교/직장처럼 공적 사회생활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 가장 컸으며, 다인가구의 경우 가족관계와 관련된 요인들의 영향이 약한 가운데 학교/직장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다인가구에서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혼자 산 적이 있다는 비율은 8%였는데, 1인가구가 혼자 사는 이유로 응답한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22%)보다 낮게 나타났다.

20) 추가 분석을 통해 다인가구에서 사별·이혼·별거를 경험했지만 현재 다른 가구원과 함께 살고 있는 집단의 가족구성을 살펴보았다. 37사례중 29사례가 자녀와 함께 산다고 응답했으며, 부모와 함께 산다는 응답도 10케이스(가구원 중복가능)였다.

<표 4-6> 성인이 되고 혼자 생활한 이유 다인가구)

(단위: %, 명)

| 항목 | 학교/직장 때문에 (유학/주말부부 등) | 배우자와 이혼/별거/사별 때문에 | 부모 또는 형제/매우 가까운 친척의 사망/관계 단절 때문에 | 함께 살던 자녀의 독립(혼인/분가/등/기러기 가족 포함) 때문에 |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 마땅히 살 함께 사람이 없어서 | (명) |
|-----------|-----------------------|-------------------|----------------------------------|-------------------------------------|----------------|------------------|-------|
| 전체 | 83.2 | 3.7 | 2.6 | 0.9 | 8.0 | 1.7 | (465) |
| 성별 | 남자 | 84.9 | 3.2 | 2.5 | 0.4 | 7.4 | (285) |
| | 여자 | 80.6 | 4.4 | 2.8 | 1.7 | 8.9 | (180) |
| 연령 | 45-49세 | 83.7 | 1.6 | 2.3 | 0.8 | 9.3 | (129) |
| | 50-54세 | 83.7 | 2.3 | 3.9 | 0.0 | 7.8 | (129) |
| | 55-59세 | 90.4 | 1.8 | 0.9 | 0.0 | 6.1 | (114) |
| | 60-64세 | 73.1 | 10.8 | 3.2 | 3.2 | 8.6 | (93) |
| 혼인 지위 | 유배우 | 87.1 | 1.3 | 2.0 | 1.0 | 6.8 | (395) |
| | 사별이혼별거 | 46.0 | 32.4 | 2.7 | 0.0 | 16.2 | (37) |
| | 미혼비혼 | 78.8 | 0.0 | 9.1 | 0.0 | 12.1 | (33) |
| 교육수준 | 고교 이하 | 74.0 | 5.5 | 6.3 | 0.8 | 10.2 | (127) |
| | 교육수준대학교 | 84.3 | 3.4 | 1.5 | 1.1 | 8.6 | (267) |
| | 대학원 이상 | 95.8 | 1.4 | 0.0 | 0.0 | 1.4 | (71) |
| 근로 여부 | 그렇다 | 86.8 | 3.1 | 1.7 | 0.6 | 6.4 | (357) |
| | 아니다 | 71.3 | 5.6 | 5.6 | 1.9 | 13.0 | (108) |
| 가구 소득 | 199만 이하 | 69.0 | 2.4 | 11.9 | 2.4 | 7.1 | (42) |
| | 200~399만 | 77.2 | 5.7 | 1.6 | 1.6 | 11.4 | (123) |
| | 400~599만 | 84.6 | 4.3 | 1.9 | 0.6 | 7.4 | (162) |
| | 600만 이상 | 91.3 | 1.4 | 1.4 | 0.0 | 5.8 | (138) |
| 주관적 경제 수준 | 중상층 이상 | 86.3 | 1.3 | 2.0 | 1.3 | 9.2 | (153) |
| | 중하층 | 82.6 | 4.2 | 1.9 | 0.9 | 8.5 | (213) |
| | 하층 | 79.8 | 6.1 | 5.1 | 0.0 | 5.1 | (99)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3. 혼자 사는 삶의 어려움

가. 혼자 사는 삶에 만족하는가

이 절에서는 1인가구의 혼자 사는 삶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고, 아울러 혼자 살면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조사대상 1인가구 중 74.4%가 혼자 사는 삶에 만족(대체로 만족+매우만족)한다고 대답했다. 특히 여성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1인가구 여성의 83.6%가 매우 만족, 혹은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라고 했다. 연령별 만족도는 40대 후반의 상대적으로 젊은 층일수록 만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85.4%). 이에 비해 60대 초반의 만족도는 약간 떨어져 71.8%의 만족율을 보였다. 또, 미혼, 고학력,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의 취업 1인가구일수록 혼자 사는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이나 주관적 소득계층에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4-7>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 항목 | 전혀 만족하지 않음 | 별로 만족하지 않음 | 대체로 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함 | χ^2 | (명) |
|-------------|------------------|------------------|-------------------|--------------|-------------|-----------------------------|
| 전체 | 3.2 | 22.4 | 61.4 | 13.0 | - | (500) |
| 성별 | 남자 | 4.7 | 28.4 | 59.3 | 7.6 | (275) |
| | 여자 | 1.3 | 15.1 | 64.0 | 19.6 | (225) |
| 연령 | 45-49세 | 0.0 | 14.7 | 63.8 | 21.6 | (116) |
| | 50-54세 | 3.4 | 22.9 | 61.0 | 12.7 | (118) |
| | 55-59세 | 5.2 | 26.7 | 56.3 | 11.9 | (135) |
| | 60-64세 | 3.8 | 24.4 | 64.9 | 6.9 | (131) |
| 혼인지위 | 미혼비혼 | 2.6 | 13.3 | 63.6 | 20.5 | (198) |
| | 유배우 사별이혼별거 | 2.8 4.4 | 34.0 23.0 | 57.6 62.1 | 5.6 10.6 | 32.702*** (141) (161) |
| 교육수준 | 고교 이하 | 4.9 | 25.4 | 53.5 | 16.2 | (142) |
| | 대학교 | 2.7 | 20.9 | 67.0 | 9.4 | 15.326 (297) |
| | 대학원 이상 | 1.6 | 23.0 | 52.5 | 23.0 | (61) |
| 근로여부 | 그렇다 | 1.8 | 23.3 | 61.5 | 13.3 | (390) |
| | 아니다 | 8.2 | 19.1 | 60.9 | 11.8 | 11.784** (110) |
| 가구소득 | 199만 이하 | 4.9 | 21.3 | 58.5 | 15.2 | (164) |
| | 200~399만 | 2.7 | 18.7 | 67.0 | 11.5 | (182) |
| | 400~599만 | 1.1 | 24.7 | 61.8 | 12.4 | (89) |
| | 600만 이상 | 3.1 | 32.3 | 52.3 | 12.3 | (65) |
| 주관적 경제수준 | 중상층 이상 | 3.1 | 21.4 | 59.2 | 16.3 | (98) |
| | 중하층 | 1.1 | 20.9 | 65.9 | 12.1 | 7.256 (182) |
| | 하층 | 5.0 | 24.1 | 58.6 | 12.3 | (220)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나. 혼자 사는 생활의 불편과 어려움

혼자 생활하면서 겪는 불편을 질문했을 때,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과 외로움이 가장 불편한 점이라고 응답했다(<표4-8>). 아플 때 돌봐줄 사람 없다는 것에 대해서 76.6%가, 외로움에 대해서는 60.2%가 그렇다(약간 그렇다+매우 그렇다)고 대답했다. 특히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도 25.8%에 달해 1인가구에서 아플 때라고 통칭 되는 건강상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가사일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각각 45.8%, 45.2%가 어려움을 호소했다.

혼자 생활하는 어려움의 유형별로 사회인구학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혼자 있을 때 외로움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등 사회경제적 지위가 모두 유의하지 않았고, 혼인지위에서만 차이가 있었다. 유배우나(70.2%) 사별·이혼·별거한 집단(66.4%)이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혼집단에서 외롭다고 응답한 비율은 47.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가사일 등을 도와줄 사람이 없음에 대해 남성의 49.9%가 어려움이 있다(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45.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은 남성의 41.8%가, 여성의 49.3%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가사일 부담은 남성이 더 어렵다고 응답한 반면, 경제적 어려움은 여성들이 더 많다고 응답한 특징을 보인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하위범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연령은 높을수록, 혼인지위는 사별·이혼·별거 집단의 어려움이 높았으며, 다른 집단에 비해 고졸 이하, 비취업, 소득 하층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크게 나타났다. 1인가구 역시 빈곤이나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하여 일반 가구에서 취약한 집단이 보이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다만 1인가구는 다인가구가 누릴 수 있는 소득합산과 소비지출 공동체로서의 가족이라는 안전망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표4-8>에서 살펴보았듯이 아플 때나 외로울 때보다는 소득으로 인한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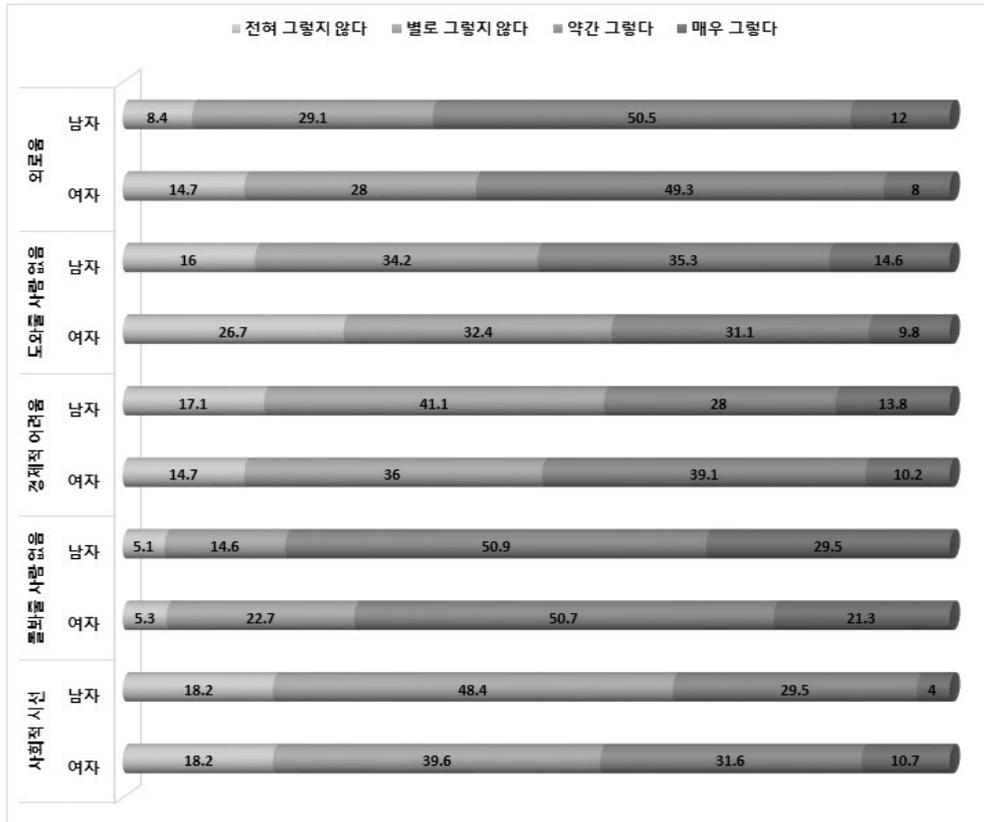
<표 4-8> 혼자 생활하면서 겪는 불편 및 어려움

(단위: %, 명)

| 항목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평균 | (명) |
|--------------------------|-----------|-----------|--------|--------|-----|-------|
| 혼자 있을 때 외로움 | 11.2 | 28.6 | 50.0 | 10.2 | 2.6 | (500) |
| 가사일, 은행업무 등 도와줄 사람이 없음 | 20.8 | 33.4 | 33.4 | 12.4 | 2.4 | (500) |
| 경제적 어려움 | 16.0 | 38.8 | 33.0 | 12.2 | 2.4 | (500) |
| 아플 때 돌봐줄 사람 없음 | 5.2 | 18.2 | 50.8 | 25.8 | 3.0 | (500) |
| 혼자 사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사회적 시선 | 18.2 | 44.4 | 30.4 | 7.0 | 2.3 | (500) |

주: 1) 점수는 4점 척도의 평균 점수임 (1점 매우 불만족 ~ 4점 매우 만족함)
 2)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단위: %)



<그림 4-5> 혼자 생활하면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 성별 차이

<표 4-9> 혼자 사는 어려움: 혼자 있을 때 외로움

(단위: %, 명)

| 항목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χ^2 | (명) |
|-------------|-----------------|-----------------|-----------|-----------|-----------|-------|
| 성별 | 남자 | 8.4 | 29.1 | 50.5 | 6.419 | (275) |
| | 여자 | 14.7 | 28.0 | 49.3 | | (225) |
| 연령 | 45-49세 | 15.5 | 31.0 | 45.7 | 4.767 | (116) |
| | 50-54세 | 8.5 | 28.8 | 51.7 | | (118) |
| | 55-59세 | 10.4 | 28.1 | 51.1 | | (135) |
| | 60-64세 | 10.7 | 26.7 | 51.1 | | (131) |
| 혼인지위 | 미혼비혼 | 16.7 | 35.4 | 40.9 | 23.612*** | (198) |
| | 유배우 | 6.4 | 23.4 | 58.9 | | (141) |
| | 사별이혼별거 | 8.7 | 24.8 | 53.4 | | (161) |
| 교육수준 | 고교 이하 | 10.6 | 23.2 | 58.5 | 9.353 | (142) |
| | 대학교 | 10.4 | 31.6 | 47.5 | | (297) |
| | 대학원 이상 | 16.4 | 26.2 | 42.6 | | (61) |
| 근로여부 | 아니다 | 9.1 | 24.6 | 53.6 | 2.627 | (390) |
| | 그렇다 | 11.8 | 29.7 | 49.0 | | (110) |
| 가구소득 | 199만 이하 | 11.0 | 29.3 | 47.6 | 8.437 | (164) |
| | 200~399만 | 11.5 | 30.2 | 51.6 | | (182) |
| | 400~599만 | 10.1 | 24.7 | 56.2 | | (89) |
| | 600만 이상 | 12.3 | 27.7 | 43.1 | | (65) |
| 주관적 경제수준 | 중상층 이상 | 11.2 | 31.6 | 46.9 | 4.234 | (98) |
| | 중하층 | 14.3 | 27.5 | 49.5 | | (182) |
| | 하층 | 8.6 | 28.2 | 51.8 | | (220)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표 4-10> 혼자 사는 어려움: 가사일, 은행 업무 등 도와줄 사람이 없음

(단위: %, 명)

| 항목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χ^2 | (명) | |
|----------|-----------|-----------|--------|--------|----------|---------|-------|
| 성별 | 남자 | 16.0 | 34.2 | 35.3 | 14.6 | 9.791** | (275) |
| | 여자 | 26.7 | 32.4 | 31.1 | 9.8 | | (225) |
| 연령 | 45-49세 | 16.4 | 29.3 | 37.1 | 17.2 | 12.519 | (116) |
| | 50-54세 | 15.3 | 39.0 | 35.6 | 10.2 | | (118) |
| | 55-59세 | 24.4 | 35.6 | 28.2 | 11.9 | | (135) |
| | 60-64세 | 26.0 | 29.8 | 33.6 | 10.7 | | (131) |
| 혼인지위 | 미혼비혼 | 16.2 | 34.9 | 34.9 | 14.1 | 12.493 | (198) |
| | 유배우 | 17.0 | 34.8 | 36.9 | 11.4 | | (141) |
| | 사별이혼별거 | 29.8 | 30.4 | 28.6 | 11.2 | | (161) |
| 교육수준 | 고교 이하 | 20.4 | 37.3 | 32.4 | 9.9 | 8.048 | (142) |
| | 대학교 | 19.5 | 34.0 | 32.3 | 14.1 | | (297) |
| | 대학원 이상 | 27.9 | 21.3 | 41.0 | 9.8 | | (61) |
| 근로여부 | 아니다 | 26.4 | 29.1 | 33.6 | 10.9 | 3.138 | (390) |
| | 그렇다 | 19.2 | 34.6 | 33.3 | 12.8 | | (110) |
| 가구소득 | 199만 이하 | 23.2 | 30.5 | 32.3 | 14.0 | 4.804 | (164) |
| | 200~399만 | 19.8 | 33.0 | 36.8 | 10.4 | | (182) |
| | 400~599만 | 16.9 | 39.3 | 30.3 | 13.5 | | (89) |
| | 600만 이상 | 23.1 | 33.9 | 30.8 | 12.3 | | (65) |
| 주관적 경제수준 | 중상층 이상 | 19.4 | 35.7 | 32.7 | 12.2 | 1.243 | (98) |
| | 중하층 | 23.1 | 31.9 | 33.5 | 11.5 | | (182) |
| | 하층 | 19.6 | 33.6 | 33.6 | 13.2 | | (220)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표 4-11> 혼자 사는 어려움: 소득 경제적 어려움

(단위: %, 명)

| 항목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χ^2 | (명) | | |
|----------|-----------|-----------|--------|--------|----------|-----------|-------|------|
| 성별 | 남자 | 17.1 | 41.1 | 28.0 | 13.8 | 7.222 | (275) | |
| | 여자 | 14.7 | 36.0 | 39.1 | 10.2 | | (225) | |
| 연령 | 45-49세 | 21.6 | 40.5 | 32.8 | 5.2 | 17.231* | (116) | |
| | 50-54세 | 10.2 | 44.9 | 33.9 | 11.0 | | (118) | |
| | 55-59세 | 17.8 | 33.3 | 35.6 | 13.3 | | (135) | |
| | 60-64세 | 14.5 | 37.4 | 29.8 | 18.3 | | (131) | |
| 혼인지위 | 미혼비혼 | 18.7 | 34.9 | 34.9 | 11.6 | 15.567** | (198) | |
| | 유배우 | 13.5 | 48.9 | 31.2 | 6.4 | | (141) | |
| | 사별이혼별거 | 14.9 | 34.8 | 32.3 | 18.0 | | (161) | |
| 교육수준 | 고교 이하 | 10.6 | 30.3 | 37.3 | 21.8 | 33.276*** | (142) | |
| | 대학교 | 16.5 | 44.8 | 29.3 | 9.4 | | (297) | |
| | 대학원 이상 | 26.2 | 29.5 | 41.0 | 3.3 | | (61) | |
| 근로여부 | 아니다 | 14.6 | 24.6 | 38.2 | 22.7 | 21.530*** | (390) | |
| | 그렇다 | 16.4 | 42.8 | 31.5 | 9.2 | | (110) | |
| 가구소득 | 199만 이하 | 8.5 | 17.7 | 45.7 | 28.1 | 105.437** | (164) | |
| | 200~399만 | 15.9 | 47.8 | 30.2 | 6.0 | | (182) | |
| | 400~599만 | 25.8 | 48.3 | 22.5 | 3.4 | | * | (89) |
| | 600만 이상 | 21.5 | 53.9 | 23.1 | 1.5 | | (65) | |
| 주관적 경제수준 | 중상층 이상 | 26.5 | 49.0 | 23.5 | 1.0 | 69.590*** | (98) | |
| | 중하층 | 17.6 | 45.6 | 32.4 | 4.4 | | (182) | |
| | 하층 | 10.0 | 28.6 | 37.7 | 23.6 | | (220) |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혼자 사는 어려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것은 아플 때이다(<표4-12>). 모든 집단에서 아플 때가 불편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면서 집단 차이는 크지 않았다. 주관적 경제수준만 유일하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다른 계층보다 하층의 어려움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중상층 이상의 위험이 크게 나타났다. 혼자 사는 것 자체가 아플 때 돌봐줄 친밀한 사람이 같이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돌봄은 대기성과 근접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1인가구는 가족이나 친밀한 개인 등의 돌봄자원이 부족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플 때가 “매우 불편하다”는 비율

은 하층(32.3%)에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중상층(22.5%), 중하층(19.8%) 순이었다.

<표 4-12> 혼자 사는 어려움: 아플 때 돌봐줄 사람 없음

(단위: %, 명)

| 항목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χ^2 | (명) |
|-------------|--------------|--------------|-----------|-----------|----------|-------|
| 성별 | 남자 | 5.1 | 14.6 | 50.9 | 7.663 | (275) |
| | 여자 | 5.3 | 22.7 | 50.7 | | (225) |
| 연령 | 45-49세 | 8.6 | 16.4 | 52.6 | 7.242 | (116) |
| | 50-54세 | 2.5 | 19.5 | 50.0 | | (118) |
| | 55-59세 | 4.4 | 21.5 | 48.2 | | (135) |
| | 60-64세 | 5.3 | 15.3 | 52.7 | | (131) |
| 혼인지위 | 미혼비혼 | 7.1 | 16.2 | 49.5 | 5.399 | (198) |
| | 유배우 | 4.3 | 19.2 | 55.3 | | (141) |
| | 사별이혼별거 | 3.7 | 19.9 | 48.5 | | (161) |
| 교육수준 | 고교 이하 | 6.3 | 16.2 | 45.1 | 7.874 | (142) |
| | 대학교 | 4.4 | 19.5 | 54.2 | | (297) |
| | 대학원 이상 | 6.6 | 16.4 | 47.5 | | (61) |
| 근로여부 | 아니다 | 6.4 | 18.2 | 48.2 | 0.676 | (390) |
| | 그렇다 | 4.9 | 18.2 | 51.5 | | (110) |
| 가구소득 | 199만 이하 | 4.3 | 13.4 | 47.6 | 15.919 | (164) |
| | 200~399만 | 7.1 | 22.0 | 48.4 | | (182) |
| | 400~599만 | 4.5 | 20.2 | 57.3 | | (89) |
| | 600만 이상 | 3.1 | 16.9 | 56.9 | | (65) |
| 주관적 경제수준 | 중상층 이상 | 3.1 | 21.4 | 53.1 | 12.761** | (98) |
| | 중하층 | 7.7 | 17.0 | 55.5 | | (182) |
| | 하층 | 4.1 | 17.7 | 45.9 | | (220)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마지막으로, “혼자 사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사회적 시선”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불편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4-13>). 남성은 33.5%가 불편하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42.3%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성별을 제외한 다른 변수들에서는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표 4-13> 혼자 사는 어려움: 사회적 시선

(단위: %, 명)

| 항목 |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χ^2 | (명) |
|-------------|----------|--------------|--------------|-----------|-----------|----------|-------|
| 성별 | 남자 | 18.2 | 48.4 | 29.5 | 4.0 | 10.19 | (275) |
| | 여자 | 18.2 | 39.6 | 31.6 | 10.7 | | (225) |
| 연령 | 45-49세 | 19.8 | 41.4 | 33.6 | 5.2 | 7.1581 | (116) |
| | 50-54세 | 16.1 | 41.5 | 35.6 | 6.8 | | (118) |
| | 55-59세 | 17.0 | 48.2 | 28.9 | 5.9 | | (135) |
| | 60-64세 | 19.9 | 45.8 | 24.4 | 9.9 | | (131) |
| 혼인지위 | 미혼비혼 | 18.2 | 43.9 | 32.8 | 5.1 | 9.852 | (198) |
| | 유배우 | 14.2 | 46.1 | 34.0 | 5.7 | | (141) |
| | 사별이혼별거 | 21.7 | 43.5 | 24.2 | 10.6 | | (161) |
| 교육수준 | 고교 이하 | 19.7 | 40.1 | 31.7 | 8.5 | 3.226 | (142) |
| | 대학교 | 17.2 | 47.5 | 29.3 | 6.1 | | (297) |
| | 대학원 이상 | 19.7 | 39.3 | 32.8 | 8.2 | | (61) |
| 근로여부 | 아니다 | 21.8 | 38.2 | 30.9 | 9.1 | 3.135 | (390) |
| | 그렇다 | 17.2 | 46.2 | 30.3 | 6.4 | | (110) |
| 가구소득 | 199만 이하 | 18.9 | 39.6 | 31.7 | 9.8 | 10.456 | (164) |
| | 200~399만 | 19.8 | 47.8 | 25.3 | 7.1 | | (182) |
| | 400~599만 | 16.9 | 48.3 | 31.5 | 3.4 | | (89) |
| | 600만 이상 | 13.9 | 41.5 | 40.0 | 4.6 | | (65) |
| 주관적 경제수준 | 중상층 이상 | 16.3 | 39.8 | 40.8 | 3.1 | 11.098 | (98) |
| | 중하층 | 21.4 | 44.5 | 28.0 | 6.0 | | (182) |
| | 하층 | 16.4 | 46.4 | 27.7 | 9.6 | | (220)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다. 혼자 사는 삶의 사회적 불이익과 편견

다음으로, 혼자 살면서 사회적 혜택 등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편견이나 무시 경험의 경험을 겪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표4-14>). 혼자 산다는 이유로 소득공제, 주택마련 등 복지서비스, 사회적 혜택에서 불이익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6%이다. 인구사회학적 분포를 살펴보면, 성별, 연령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혼인지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유배우 평균 2.78점, 사별 등은 2.97점, 미혼은 3.32점으로 미혼자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유배우, 사별이혼 < 미혼). 우리 사회는 여전히 보편혼 이데올로기가 강하고 세금, 복지 등 제도적으로 기혼자 집단에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없는 집단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는데, 특히 미혼자가 사회적 혜택에서 받는 불이익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에서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고 응답했다. 대학원 이상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45.9%이며, 고졸 이하에서는 26%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실제 불이익에서 대학원 이상의 1인가구가 더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으나, 본인의 경험에 기초한 주관적 응답이기 때문에 실제 불이익을 더 많이 경험한다기보다는 고학력자 집단에서 불이익에 대한 감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혼자 산 기간이 길수록 불이익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길었는데, 20년 초과시 57.3%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5년이하의 경우 28%만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혼자 산 기간이 긴 집단의 경우 미혼 등의 혼인지위와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불이익이나 차별의 경험이 혼인지위와 중첩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표 4-14> 혼자 산다는 이유로 불이익 받은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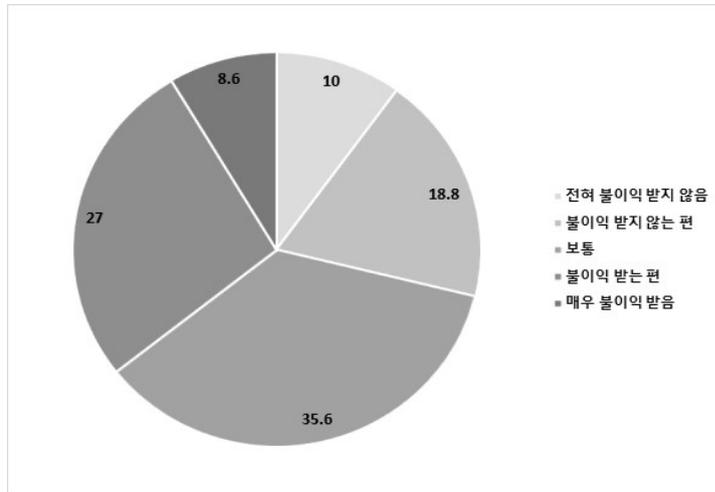
(단위: %, 명)

| 항목 | 전혀 불이익 받지 않음 | 불이익 받지 않는 편 | 보통 | 불이익 받는 편 | 매우 불이익 받음 | 평균 | F | (명) | |
|-----------|--------------|-------------|------|----------|-----------|------|------------|-----------|------|
| 전체 | 10.0 | 18.8 | 35.6 | 27.0 | 8.6 | 3.05 | - | (500) | |
| 성별 | 남자 | 9.1 | 19.6 | 33.1 | 29.5 | 8.7 | .69 | (275) | |
| | 여자 | 11.1 | 17.8 | 38.7 | 24.0 | 8.4 | (.408) | (225) | |
| 연령 | 45-49세 | 9.5 | 21.6 | 30.2 | 31.0 | 7.8 | | (116) | |
| | 50-54세 | 10.2 | 12.7 | 39.8 | 24.6 | 12.7 | .67 | (118) | |
| | 55-59세 | 10.4 | 20.0 | 34.1 | 28.9 | 6.7 | (.572) | (135) | |
| | 60-64세 | 9.9 | 20.6 | 38.2 | 23.7 | 7.6 | | (131) | |
| 혼인 지위 | 미혼비혼 | 9.9 | 27.0 | 40.4 | 20.6 | 2.1 | 11.07 | (198) | |
| | 유배우 | 11.8 | 16.2 | 41.6 | 24.2 | 6.2 | (.000***) | (141) | |
| | 사별이혼별거 | 8.6 | 15.2 | 27.3 | 33.8 | 15.2 | 2.3<1 | (161) |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11.3 | 22.5 | 40.1 | 19.7 | 6.3 | | (142) | |
| | 대학교 | 8.4 | 18.2 | 35.4 | 29.3 | 8.8 | 2.76 | (297) | |
| | 대학원 | 14.8 | 13.1 | 26.2 | 32.8 | 13.1 | (.064) | (61) | |
| 근로 여부 | 그렇다 | 9.7 | 17.2 | 36.7 | 27.7 | 8.7 | 1.38 | (390) | |
| | 아니다 | 10.9 | 24.5 | 31.8 | 24.5 | 8.2 | (.240) | (110) | |
| 가구 소득 | 199만 이하 | 9.1 | 18.9 | 34.8 | 26.8 | 10.4 | | (164) | |
| | 200~399만 | 11.0 | 20.3 | 37.9 | 24.7 | 6.0 | 1.05 | (182) | |
| | 400~599만 | 10.1 | 13.5 | 40.4 | 29.2 | 6.7 | (.340) | (89) | |
| | 600만 이상 | 9.2 | 21.5 | 24.6 | 30.8 | 13.8 | | (65) | |
| 주관적 경제 수준 | 중상층이상 | 10.2 | 25.5 | 34.7 | 21.4 | 8.2 | | (98) | |
| | 중하층 | 8.2 | 19.2 | 31.9 | 31.9 | 8.8 | 1.28 | (182) | |
| | 하층 | 11.4 | 15.5 | 39.1 | 25.5 | 8.6 | (.278) | (220) | |
| 혼자 산 기간 | 5년 이하 | 12.8 | 19.3 | 39.9 | 23.4 | 4.6 | | (218) | |
| | 6-10년 | 5.9 | 22.6 | 33.3 | 29.4 | 8.8 | | (102) | |
| | 11-15년 | 10.2 | 18.4 | 36.7 | 22.5 | 12.2 | 5.47 | (.000***) | (49) |
| | 16-20년 | 8.9 | 28.6 | 30.4 | 23.2 | 8.9 | 1,2,3,4,<5 | (56) | |
| | 21년 이상 | 8.0 | 5.3 | 29.3 | 40.0 | 17.3 | | (75)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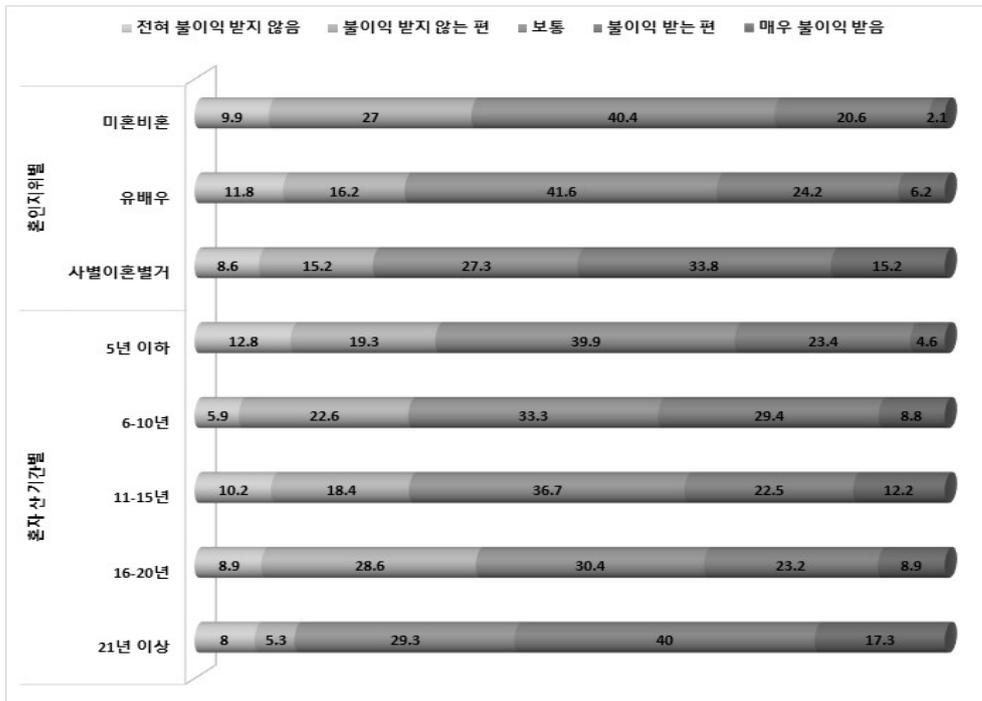
주 : 1) F값은 평균에 대한 분산분석결과 (집단간 차이는 Scheffe's test 결과)

2) p<.05 *, p<.01 **, p<.001 ***

(단위: %)



<그림 4-6> 혼자 산다는 이유로 불이익 받은 경험: 전체



<그림 4-7> 혼자 산다는 이유로 불이익 받은 경험: 혼인지위별 혼자 산 기간별

<표 4-15> 편견이나 무시당한 경험

(단위: %, 명)

| 항목 | 무시당한 경험자 비율 | 무능력자 또는 사연이 있는 사람으로 보는 시선 | 결혼을 해야 한다는 강요 | 성적으로 방탕한 사람으로 보는 시선 | 성희롱 | (명) |
|-----------|-------------|---------------------------|---------------|---------------------|------|------------|
| 전체 | 30.8 | 75.3 | 45.5 | 24.0 | 23.4 | (154) |
| 성별 | 남자 | 23.6 | 76.9 | 47.7 | 27.7 | 4.6 (65) |
| | 여자 | 39.6 | 74.2 | 43.8 | 21.3 | 37.1 (89) |
| 연령 | 45-49세 | 29.3 | 64.7 | 70.6 | 20.6 | 20.6 (34) |
| | 50-54세 | 32.2 | 73.7 | 47.4 | 15.8 | 13.2 (38) |
| | 55-59세 | 30.4 | 75.6 | 41.5 | 39.0 | 34.1 (41) |
| | 60-64세 | 31.3 | 85.4 | 26.8 | 19.5 | 24.4 (41) |
| 혼인 지위 | 유배우 | 30.3 | 76.3 | 36.8 | 28.9 | 10.5 (38) |
| | 사별 | 27.1 | 75.0 | 37.5 | 25.0 | 62.5 (8) |
| | 이혼별거 | 34.8 | 77.1 | 16.7 | 20.8 | 20.8 (48) |
| | 미혼비혼 | 33.8 | 73.3 | 75.0 | 23.3 | 28.3 (60)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29.3 | 68.8 | 43.8 | 22.9 | 22.9 (48) |
| | 대학교 | 31.1 | 78.2 | 46.0 | 21.8 | 18.4 (87) |
| | 대학원 | 30.0 | 78.9 | 47.4 | 36.8 | 47.4 (19) |
| 근로 여부 | 그렇다 | 33.6 | 73.5 | 48.7 | 27.4 | 21.4 (117) |
| | 아니다 | 40.2 | 81.1 | 35.1 | 13.5 | 29.7 (37) |
| 가구 소득 | 199만 이하 | 25.3 | 77.3 | 43.9 | 22.7 | 31.8 (66) |
| | 200~399만 | 23.6 | 78.3 | 45.7 | 21.7 | 23.9 (46) |
| | 400~599만 | 32.3 | 71.4 | 42.9 | 33.3 | 4.8 (21) |
| | 600만 이상 | 20.4 | 66.7 | 52.4 | 23.8 | 14.3 (21) |
| 주관적 경제 수준 | 중상층이상 | 26.4 | 65.0 | 60.0 | 30.0 | 20.0 (20) |
| | 중하층 | 39.1 | 72.9 | 50.0 | 20.8 | 22.9 (48) |
| | 하층 | 25.2 | 79.1 | 39.5 | 24.4 | 24.4 (86) |

주: 무시나 편견을 당한 경험의 종류는 중복응답임

혼자 사는 것으로 인해 무시나 편견을 당한 적이 있는지, 누구로부터 어떤 종류의 무시나 편견을 당했는지를 물었다. 1인가구 응답자의 30.8%가 무시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남성(23.6%)에 비해 여성(39.6%)이 무시나 편견을 겪은 경험이 많았다. 무시나 편견의 종류를 살펴보면(중복응답), 무능력자로 보는 시선을 경험한 적이 가장 많았고(75.3%), 결혼을 해야 한다는 강요를 경험했다는 비율도 45.5%에 달했다. 여성의 경우 무능력자로 보는 시선을 경험했다가 74.2%, 결혼을 해야 한다

는 강요를 경험한 비율도 43.8%에 달했으며, 성적으로 방탕한 사람으로 보는 시선도 21.3%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모두 경험하고 있는 편견이나 무시와 달리 여성의 경우 성희롱을 경험한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37.1%). 무시나 편견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유형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무능력자 혹은 사연이 있는 사람으로 보는 시선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결혼을 해야 한다는 강요는 미혼자들이 가장 많이 경험했다고 응답했다(75%).

4. 1인가구 생활과 경제·정서적 상황 변화

1인가구 생활을 시작했을 때와 비교해 현재 경제적 정서적 상황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경제적 상황이 더 좋아졌다는 20.6%, 비슷하다는 57.6%, 더 나빠졌다는 21.8%가 응답했다. 정서적 상황은 더 좋아졌다가 24.2%, 비슷하다가 52.8%, 나빠졌다가 23.0%로 좋아진 그룹과 나빠진 그룹의 비중이 20-25%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여성의 경우, 경제적, 정서적 상황이 더 좋아졌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경제적 상황이 더 좋아졌다고 응답한 남성은 18.9%인데 비해 여성은 22.7%였고, 정서적 상황에서 더 좋아졌다고 응답한 남성은 18.5%인데 여성은 31.1%가 더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상황의 변화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초기 상황에 따른 기저효과가 있을 수 있다. 1인가구로 출발시 여성의 상황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시간경과가 여성에게는 긍정적 방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관련된 사별, 이혼 등의 사건을 경험한 경우 초기에는 정서적 상황이 악화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삶에 대한 통제감이 높아지고 회복탄력성(resilience)이 작동하게 된다. 사별·이혼·별거 집단에서 정서적 상황이 개선된 집단이 30.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것도 이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표 4-16> 처음 1인가구 생활을 시작했을 때와 비교해 현재 경제적 정서적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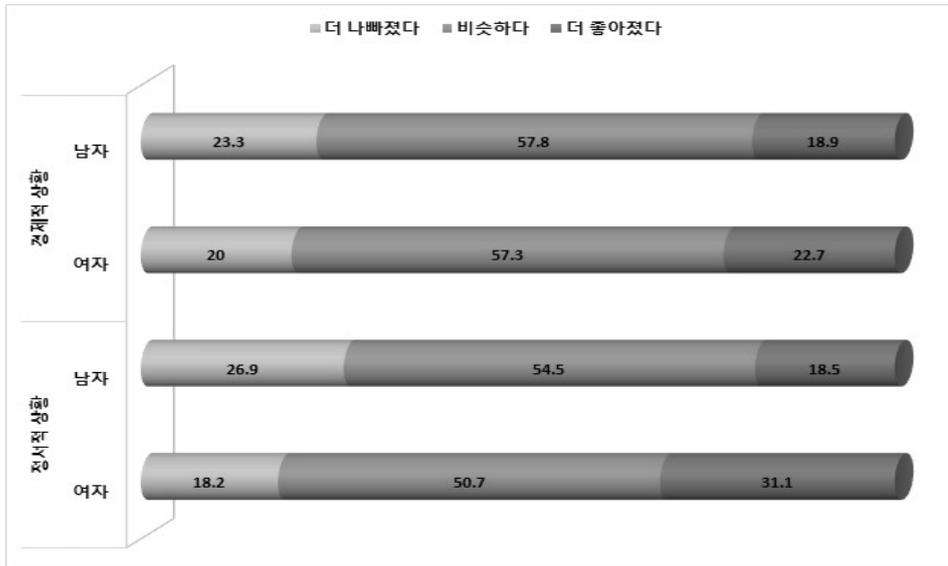
(단위: %, 명)

| 경제적 상황 | | 더 나빠졌다 | 비슷하다 | 더 좋아졌다 | 평균 | χ^2 | (명) |
|---------|--------|--------|------|--------|------|-----------|-------|
| 전체 | | 21.8 | 57.6 | 20.6 | -.01 | - | (500) |
| 성별 | 남자 | 23.3 | 57.8 | 18.9 | -.44 | 1.461 | (275) |
| | 여자 | 20.0 | 57.3 | 22.7 | .03 | | (225) |
| 혼인 지위 | 미혼비혼 | 23.6 | 51.3 | 25.1 | .02 | 15.775** | (198) |
| | 유배우동거 | 14.6 | 70.8 | 14.6 | .00 | | (141) |
| | 사별이혼별거 | 26.1 | 53.4 | 20.5 | -.06 | | (161) |
| 혼자 산 기간 | 5년 이하 | 22.0 | 62.8 | 15.1 | -.07 | 25.800*** | (218) |
| | 6-10년 | 14.7 | 64.7 | 20.6 | .06 | | (102) |
| | 11-15년 | 10.2 | 59.2 | 30.6 | .20 | | (49) |
| | 16-20년 | 28.6 | 42.9 | 28.6 | .00 | | (56) |
| | 21년 이상 | 33.3 | 42.7 | 24.0 | -.09 | | (75) |
| 정서적 상황 | | 더 나빠졌다 | 비슷하다 | 더 좋아졌다 | 평균 | χ^2 | (명) |
| 전체 | | 23.0 | 52.8 | 24.2 | .12 | - | (500) |
| 성별 | 남자 | 26.9 | 54.5 | 18.5 | -.84 | 12.487** | (275) |
| | 여자 | 18.2 | 50.7 | 31.1 | .13 | | (225) |
| 혼인 지위 | 미혼비혼 | 20.0 | 58.5 | 21.5 | .02 | 8.735 | (198) |
| | 유배우동거 | 24.3 | 54.9 | 20.8 | -.03 | | (141) |
| | 사별이혼별거 | 25.5 | 44.1 | 30.4 | .05 | | (161) |
| 혼자 산 기간 | 5년 이하 | 25.7 | 50.5 | 23.9 | -.02 | 6.178 | (218) |
| | 6-10년 | 18.6 | 53.9 | 27.5 | .09 | | (102) |
| | 11-15년 | 16.3 | 55.1 | 28.6 | .12 | | (49) |
| | 16-20년 | 19.6 | 60.7 | 19.6 | .00 | | (56) |
| | 21년 이상 | 28.0 | 50.7 | 21.3 | -.07 | | (75) |

주: 1) 평균은 더 나빠졌다 -1, 비슷하다 0, 더 좋아졌다 1을 부여해 산출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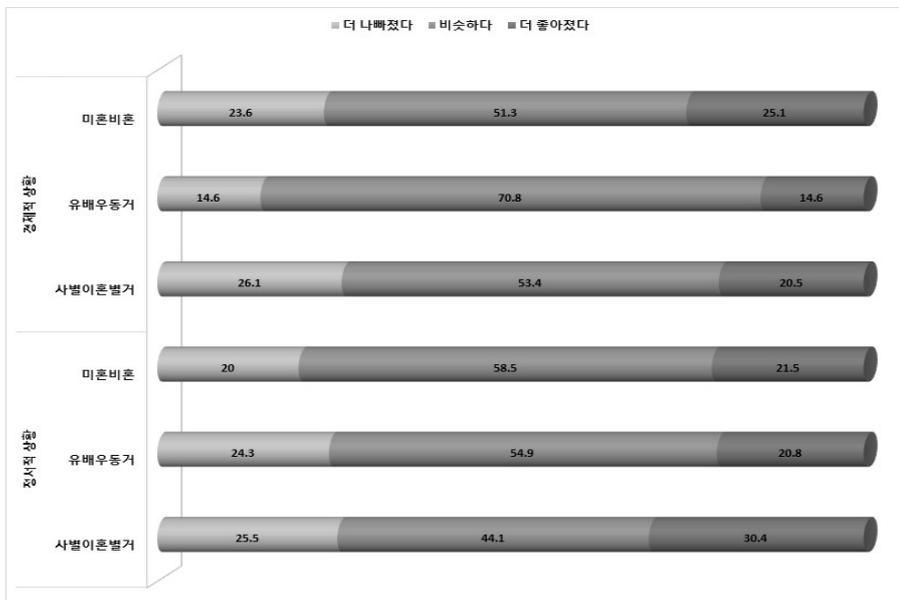
2) p<.05 *, p<.01 **, p<.001 ***

(단위: %)



<그림 4-8> 처음 1인가구 생활을 시작했을 때와 비교해 현재 경제적 정서적 상황 : 성별

(단위: %)



<그림 4-9> 처음 1인가구 생활을 시작했을 때와 비교해 현재 경제적 정서적 상황 : 혼인지위별

5. 소결

이 절에서는 베이비붐 세대 1인가구의 혼자 산 경험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연제부터 (연도와 나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40대 중반 1인가구를 시작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또, 비교적 최근 5년 이내(2015년) 1인가구의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았다. 베이비부머 코호트에서는 2000년 IMF 경제위기 시기에 1인가구에 진입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경제위기로 인해 직장, 가족적 사유가 1인가구의 일시적 증가를 낳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혼자 산 기간에서 미혼 집단은 5년이하 집단이 25.3%인데 비해 20년 넘게 1인가구 생활을 한 비율이 28%로 높게 나타났다. 혼인지위에서는 미혼이 1인가구 생활의 장기화를 낳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싱글화 (미혼의 증가)가 예상되는바, 1인가구에서 미혼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베이비부머 세대에서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인가구가 혼자 살게 된 이유는 학교/직장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29.8%), 혼자 산 경험이 있는 다인가구가 혼자 산 이유도 학교/직장 때문이 압도적이었다(83.2%). 베이비부머 1인가구가 혼자 사는 이유는 이들의 나이가 중장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가족적 사유로 인한 것이 많았다. 배우자, 자녀, 부모와의 관계 변동으로 인한 것이 합계 43%를 차지했다.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는 22.0%를 차지했다. 40대초반 젊은 베이비부머 일수록 가족관계 사유(18%)보다는 학교/직장의 생활의 필요(38%)와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37%)로 높게 나타났다. 가족관계 사유는 50대후반부터, 즉 후기 베이비부머 가구에서 1인가구 형성의 주요한 원인으로 부상하는 특징이 있다.

1인가구중 원래 가족과 함께 산 경험이 있는 비율도 60% 정도로 높은 편이며, 다인가구중 혼자 생활한 적이 있는 비율도 58%에 이른다. 1인가구 중 경제적인 문제나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등의 이유로 혼자 살다가 가족과 다시 함께 산 적도 있었으며(76%), 다인가구 중에서는 가족과 함께 살다가 학교/직장 때문에 따로 산 적도 있었다(83%). 개인의 생애 과정에서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삶은 유동적이고 가역적인 과정임을 알 수 있다. 1인가구, 다인가구의 각각 40%는 성인이 된 후 계속 같은 가구형태로 살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가 혼자 살면서 겪는 어려움과 불편은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이 가장 많았고(77%), 다음으로 혼자 있을 때 외로움(60%)도 어려운 점이었다. 가사일 처리와 관련된 어려움은 남성이, 경제적 어려움은 여성이 더 어렵다고 응답했다. 1인가구가 경험하는 어려움에서도 성별 격차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가부장적 가족의 성별 분업구조가 1인가구의 삶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혼자 사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사회적 시선”과 “편견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에서도 여성의 비율이 의미있게 높게 나타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은 남성보다 낮고 1인가구에 대해서도 성차별적 문화가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인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 뿐 아니라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정,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에서 젠더와 관련된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

또한, 1인가구로 살면서 사회적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는 미혼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보편혼 이데올로기가 강하고, 기혼자 집단에 세금, 복지 등 제도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미혼자가 상대적인 불이익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혼자 산 기간이 길수록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높아졌다. 인구학적으로 이미 1인가구가 최빈가구의 자리를 점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는 모든 사람들이 (정상)가족적 삶을 살 것이라는 전제하에 설계된 경향이 있으며, 1인가구에 대해서는 위기취약가족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제 1인가구 복지에 대해서도 보편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며 사회보장, 사회서비스의 “개인화”를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제 5 장

베이비붐 세대의 가족 · 친구관계와 가족가치관

1. 가족과의 만남과 연락: 1인가구와 다인가구
2. 부모 · 자녀와의 상호지원: 1인가구와 다인가구
3. 가족관계 만족도
4. 친구관계: 1인가구와 다인가구
5. 베이비붐 세대의 가족 가치관과 세대인식
6. 소결

5

베이비붐 세대의 < 가족 · 친구관계와 가족가치관 <

이 장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가족관계와 친구관계를 알아보고, 친밀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알아보았다. 온라인 조사 참여자 중에는 1인가구와 다인가구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1인가구의 경험을 상세하게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1인가구의 경험을 기준으로 삼아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관계 및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고찰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거주지와 다른 곳에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았다. 따로 사는 가족과 얼마나 자주 연락하고 지내는 지, 가족과 얼마나 도움이나 지지를 주고 받는지,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등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따로 사는 가족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이에 대해 알아보았다.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따로 사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질문을 하기 때문에 아래 표에서 있음에 응답한 비율이 이어지는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 만족도 분석의 대상이다. 간략히 살펴보면, 떨어져 사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는 1인가구가 다인가구보다 많고, 자녀가 있는 사람 중 만 19세 이상인 성인 자녀가 있는 비율은 다인가구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5-1> 따로 사는 가족 비율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다인가구 | | |
|----------------|------|------|-------|------|------|-------|
| | 있음 | 없음 | (명) | 있음 | 없음 | (명) |
| 부모 | 69.8 | 30.2 | (500) | 58.1 | 41.9 | (800) |
| 형제.자매 | 92.6 | 7.4 | (500) | 85.9 | 14.1 | (800) |
| 배우자 | 33.4 | 66.6 | (500) | 11.0 | 89.0 | (800) |
| 자녀 | 52.6 | 47.4 | (500) | 41.4 | 58.6 | (800) |
| 성인(만19세 이상) 자녀 | 87.1 | 12.9 | (263) | 93.4 | 6.6 | (331) |

1. 가족과의 만남과 연락: 1인가구와 다인가구

가. 부모와의 만남

우선, 따로 사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직접 만나는 빈도를 알아보면, 1인가구는 소통이 전혀 없는 비율이 11.5%, 월 1회 이하는 45.3%, 월 2-3회는 24.9%, 그리고 월 4회 이상인 경우는 18.3%로 월 1회 이하의 비율이 가장 높다. 1인가구가 아닌 다인가구의 경우에도 월 1회 이하인 경우가 4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월 2-3회는 23.0%, 월 4회 이상은 21.1%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통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6.7%로 나타나 1인가구보다는 다인가구가 따로 사는 부모와의 직접 만나는 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따로 사는 부모와의 만남이 잦은 경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다인가구의 남성인 경우는 소통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4%인데 반해 1인가구로 생활하는 남성은 따로 사는 부모와 소통이 전혀 없는 경우가 12.6%로 2배 가까이 나타나 남성 1인가구가 특히 부모와 소통이 없는 특징을 보인다. 연령에 따라서 살펴보면, 소통이 전혀 없다는 응답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는데, 월 4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0대에 높았다가 50대에 낮아졌다가 다시 60대에 높아지는 경향이 1인가구와 다인가구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다만, 다인가구의 60대는 부모를 월 4회 이상 만나는 비율이 30% 이상으로 1인가구 60대의 20% 정도 되는 비율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는 부모와 소통할 기회가 많지만 50대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가 60대가 되면 부모의 노화로 부모를 더욱 자주 만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50대에 만나지 않던 패턴이 그대로 이어지는 그룹으로 양분되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와의 만남 빈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1인가구의 혼인 지위와 교육수준이다. 1인가구 중 사별을 한 경우는 따로 사는 부모와 월 2-3회 만나는 비율은 38.5%, 월 4회 이상 만나는 비율은 30.8%로 자주 만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이혼이나 별거 중인 경우는 전혀 소통 없다는 비율이 20%, 월 1회 이하인 경우가 47.8%로 만남의 빈도가 낮은 경우가 과반을 차지해 차이를 보인다. 또한,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그룹은 전혀 만남이 없는 비율이 22.7%로 다른 그룹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고 자주 만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대학원 이상의 경우는 월 4회 이상의 비율이 10.0%로 다른 교육수준을 가진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월 1-3회 수준으로 만나는 비율에 집중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2> 따로 사는 부모님과 직접 만나는 빈도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 소통 전혀 없음 | 월1회 이하 | 월2~3 회 | 월4회 이상 | χ^2 | (명) | 소통 전혀 없음 | 월1회 이하 | 월2~3 회 | 월4회 이상 | χ^2 | (명) | |
| 전체 | 11.5 | 45.3 | 24.9 | 18.3 | - | (349) | 6.7 | 49.2 | 23.0 | 21.1 | - | (465) | |
| 성별 | 남자 | 12.6 | 45.5 | 27.2 | 14.7 | 4.462 | (191) | 6.4 | 49.1 | 24.8 | 19.7 | 1.142 | (234) |
| | 여자 | 10.1 | 44.9 | 22.2 | 22.8 | | (158) | 6.9 | 49.4 | 21.2 | 22.5 | | (231)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11.2 | 48.6 | 22.3 | 17.9 | 1.953 | (179) | 5.7 | 47.4 | 23.2 | 23.7 | 2.401 | (228) |
| | 도지역 | 11.8 | 41.8 | 27.6 | 18.8 | | (170) | 7.6 | 51.1 | 22.8 | 18.6 | | (237) |
| 연령 | 45-49세 | 6.0 | 45.0 | 26.0 | 23.0 | 12.575 | (100) | 4.4 | 48.4 | 24.5 | 22.6 | 11.080 | (159) |
| | 50-54세 | 10.2 | 43.2 | 29.5 | 17.0 | | (88) | 7.6 | 48.9 | 26.0 | 17.6 | | (131) |
| | 55-59세 | 14.6 | 48.3 | 25.8 | 11.2 | | (89) | 7.3 | 55.0 | 21.1 | 16.5 | | (109) |
| | 60-64세 | 16.7 | 44.4 | 16.7 | 22.2 | | (72) | 9.1 | 42.4 | 16.7 | 31.8 | | (66) |
| 혼인 지위 | 유배우 | 10.0 | 45.5 | 29.1 | 15.5 | 18.543* | (110) | 6.3 | 49.9 | 23.7 | 20.2 | - | (431) |
| | 사별 | 15.4 | 15.4 | 38.5 | 30.8 | | (13) | 50.0 | 50.0 | - | - | | (2) |
| | 이혼, 별거 | 20.0 | 47.8 | 17.8 | 14.4 | | (90) | 5.3 | 52.6 | 21.1 | 21.1 | | (19) |
| | 미혼·비혼·기타 | 6.6 | 46.3 | 25.0 | 22.1 | | (136) | 15.4 | 23.1 | 7.7 | 53.8 | | (13)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22.7 | 44.3 | 14.8 | 18.2 | 21.582** | (88) | 7.7 | 47.9 | 20.5 | 23.9 | 9.687 | (117) |
| | 대학교 | 6.6 | 44.5 | 28.4 | 20.4 | | (211) | 5.6 | 52.4 | 21.3 | 20.6 | | (286) |
| | 대학원 | 12.0 | 50.0 | 28.0 | 10.0 | | (50) | 9.7 | 37.1 | 35.5 | 17.7 | | (62) |
| 근로 여부 | 그렇다 | 9.7 | 46.5 | 26.4 | 17.4 | 7.190 | (288) | 6.2 | 50.6 | 23.7 | 19.5 | 2.477 | (338) |
| | 아니다 | 19.7 | 39.3 | 18.0 | 23.0 | | (61) | 7.9 | 45.7 | 21.3 | 25.2 | | (127)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18.4 | 45.9 | 18.4 | 17.3 | 14.537 | (98) | 11.1 | 44.4 | 14.8 | 29.6 | 10.678 | (27) |
| | 200~399 | 8.5 | 40.0 | 29.2 | 22.3 | | (130) | 11.0 | 48.0 | 19.7 | 21.3 | | (127) |
| | 400~599 | 10.0 | 55.7 | 21.4 | 12.9 | | (70) | 3.6 | 50.9 | 24.3 | 21.3 | | (169) |
| | 600 이상 | 7.8 | 43.1 | 31.4 | 17.6 | | (51) | 5.6 | 49.3 | 26.1 | 19.0 | | (142)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 9.6 | 43.7 | 24.0 | 22.8 | 6.413 | (167) | 6.6 | 49.7 | 22.4 | 21.3 | 1.197 | (348) |
| | 전세 | 10.5 | 48.7 | 23.7 | 17.1 | | (76) | 6.0 | 49.3 | 22.4 | 22.4 | | (67) |
| | 월세 기타 | 15.1 | 45.3 | 27.4 | 12.3 | | (106) | 8.0 | 46.0 | 28.0 | 18.0 | | (50) |
| 주관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9.0 | 46.2 | 29.5 | 15.4 | 12.172 | (78) | 6.4 | 44.4 | 23.4 | 25.7 | 9.050 | (171) |
| | 중하층 | 6.8 | 43.9 | 25.0 | 24.2 | | (132) | 5.0 | 55.5 | 22.0 | 17.5 | | (200) |
| | 하층 | 17.3 | 46.0 | 22.3 | 14.4 | | (139) | 10.6 | 44.7 | 24.5 | 20.2 | | (94)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나. 형제자매와의 만남

따로 사는 형제나 자매가 있는 경우 직접 만나는 빈도를 알아보면, 1인가구나 다인가구 모두 월 1회 이하에 60% 이상이 집중되어 있으며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부모와의 만남과 달리 형제나 자매와 월 4회 이상 만나는 비율은 1인가구인 경우가 11.9%로 다인가구인 경우의 8.6%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특성에 따른 차이는 성별, 근로 여부, 가구소득, 주택 점유형태 및 경제 수준에 따라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1인가구와 다인가구 모두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1인가구 남성은 형제.자매와 전혀 소통이 없는 경우가 13.1%로 여성의 3.8%보다 높고, 월 4회 이상 만나는 경우는 남성이 6.0%인데 반해 여성은 19.0%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졌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다인가구에서도 나타났는데 다인가구의 경우는 소통이 전혀 없는 비율은 남녀의 차이가 크지 않고 남성은 월 1회 이하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고 월 2회 이상의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아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같으나 그 패턴이 1인가구와 다인가구에서 상이한 것도 발견할 수 있다. 근로 여부에 따른 형제.자매와의 만남 횟수는 1인가구에서만 나타났는데, 근로를 하지 않는 1인가구는 형제.자매와 전혀 소통하지 않는 비율(14.3%)과 월 4회 이상 자주 만나는 비율(17.3%)이 근로를 하는 그룹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는 상황이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형제.자매와의 소통이 전혀 없을 수도 있으나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형제.자매와 돈독한 사이로 지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전혀 만나지 않거나 자주 만나는 비율로 양분되는 현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경향은 가구소득 결과에서도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가구소득이 가장 낮은 그룹의 1인가구는 형제.자매와 전혀 만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다른 소득그룹과 비교해 높고, 월 4회 이상 만난다는 비율도 다른 그룹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1인가구 중 가구소득이 600만 원 이상으로 높은 그룹은 형제.자매와 전혀 소통하지 않는 가구가 없으며 월 2-3회 만남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여 1인가구에서는 소득이 높은 그룹이 형제.자매와의 만남이 가장 많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인가구에서도 소득이 가장 낮은 그룹은 형제.자매와의 만남이 전혀 없거나 월 4회 이상인 비율이 다른 소득 그룹보다 높게 나타나 1인가구와 비슷한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1인가구에서는 6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형제.

자매와 만남이 가장 빈번한 특징을 보였지만, 다인가구에서는 이와 같은 특징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1인가구에서는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형제·자매와의 만남이 전세나 월세 등으로 거주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택 점유형태에 따른 차이는 다인가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형제·자매와 전혀 소통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차이를 보였는데 중상층은 2.2%, 중하층은 6.6%, 하층은 13.6%로 본인이 생각하는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형제·자매와 소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을 알 수 있다. 다인가구에서도 비슷한 경향으로 차이를 보였다.

형제·자매와의 만남은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1인가구의 경우는 근로 여부나 주택 점유형태에 따른 차이까지 보여 다인가구보다 형제·자매와의 만남에 더욱 다양한 경제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5-3> 따로 사는 형제, 자매와 직접 만나는 빈도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 소통 전혀 없음 | 월1회 이하 | 월2~3 회 | 월4회 이상 | χ^2 | (명) | 소통 전혀 없음 | 월1회 이하 | 월2~3 회 | 월4회 이상 | χ^2 | (명) | |
| 전체 | 8.9 | 62.4 | 16.8 | 11.9 | - | (463) | 7.3 | 69.0 | 15.1 | 8.6 | - | (687) | |
| 성별 | 남자 | 13.1 | 64.3 | 16.7 | 6.0 | 31.594 | 7.5 | 73.5 | 12.8 | 6.1 | | (359) | |
| | 여자 | 3.8 | 60.2 | 17.1 | 19.0 | *** | (211) | 7.0 | 64.0 | 17.7 | 11.3 | 10.292* | (328) |
| 거주 지역 | 광역·특별시 | 9.5 | 61.5 | 15.6 | 13.4 | | 7.9 | 67.0 | 17.0 | 8.2 | | (342) | |
| | 도지역 | 8.2 | 63.4 | 18.1 | 10.3 | 1.656 | (232) | 6.7 | 71.0 | 13.3 | 9.0 | 2.384 | (345) |
| 연령 | 45-49세 | 7.5 | 62.6 | 17.8 | 12.1 | | 9.8 | 67.0 | 13.9 | 9.3 | | (194) | |
| | 50-54세 | 13.9 | 54.6 | 19.4 | 12.0 | | 8.4 | 64.2 | 18.4 | 8.9 | | (179) | |
| | 55-59세 | 7.2 | 65.6 | 16.0 | 11.2 | 6.484 | (125) | 2.9 | 74.9 | 14.6 | 7.6 | 10.240 | (171) |
| | 60-64세 | 7.3 | 65.9 | 14.6 | 12.2 | | (123) | 7.7 | 70.6 | 13.3 | 8.4 | | (143) |
| 혼인 지위 | 유배우 | 7.7 | 62.3 | 18.5 | 11.5 | | (130) | 6.6 | 72.0 | 14.0 | 7.4 | (593) | |
| | 사별 | 5.0 | 55.0 | 25.0 | 15.0 | | (20) | - | 80.0 | - | 20.0 | (5) | |
| | 이혼, 별거 | 12.6 | 66.1 | 11.8 | 9.4 | 7.774 | (127) | 13.5 | 51.4 | 24.3 | 10.8 | - | (37) |
| | 미혼·비혼·기 타 | 7.5 | 60.8 | 18.3 | 13.4 | | (186) | 11.5 | 46.2 | 23.1 | 19.2 | | (52)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13.0 | 58.8 | 13.0 | 15.3 | | (131) | 10.7 | 65.7 | 12.4 | 11.2 | (178) | |
| | 대학교 | 7.7 | 64.7 | 16.9 | 10.7 | 9.794 | (272) | 6.7 | 69.2 | 16.2 | 7.9 | 8.949 | (419) |
| | 대학원 | 5.0 | 60.0 | 25.0 | 10.0 | | (60) | 3.3 | 74.4 | 15.6 | 6.7 | | (90) |
| 근로 여부 | 그렇다 | 7.4 | 64.7 | 17.5 | 10.4 | | (365) | 6.7 | 69.5 | 15.7 | 8.1 | | (479) |
| | 아니다 | 14.3 | 54.1 | 14.3 | 17.3 | 9.137* | (98) | 8.7 | 67.8 | 13.9 | 9.6 | 1.487 | (208)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15.4 | 57.1 | 14.1 | 13.5 | | (156) | 18.5 | 53.7 | 13.0 | 14.8 | | (54) |
| | 200~399 | 6.7 | 64.6 | 16.5 | 12.2 | | (164) | 12.4 | 64.8 | 16.6 | 6.2 | 32.605** | (193) |
| | 400~599 | 7.4 | 69.1 | 16.0 | 7.4 | 20.951* | (81) | 4.4 | 71.3 | 15.1 | 9.2 | * | (251) |
| | 600 이상 | - | 61.3 | 25.8 | 12.9 | | (62) | 2.6 | 74.6 | 14.3 | 8.5 | | (189)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 6.5 | 59.1 | 20.0 | 14.4 | | (215) | 7.7 | 68.5 | 15.9 | 7.9 | | (504) |
| | 전세 | 6.1 | 72.4 | 11.2 | 10.2 | 14.072* | (98) | 4.1 | 73.5 | 11.2 | 11.2 | 4.264 | (98) |
| | 월세 기타 | 14.0 | 60.7 | 16.0 | 9.3 | | (150) | 8.2 | 67.1 | 15.3 | 9.4 | | (85) |
| 주관 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2.2 | 63.7 | 19.8 | 14.3 | | (91) | 2.3 | 69.8 | 18.9 | 9.0 | | (222) |
| | 중하층 | 6.6 | 63.9 | 18.7 | 10.8 | 13.220* | (166) | 8.9 | 70.6 | 13.0 | 7.6 | 16.841* | (316) |
| | 하층 | 13.6 | 60.7 | 14.1 | 11.7 | | (206) | 11.4 | 64.4 | 14.1 | 10.1 | | (149)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다. 배우자·성인 자녀와의 만남

따로 사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직접 만나는 빈도를 보면, 1인가구인 경우는 월 4회 이상이 43.1%, 월 1회 이하가 21.0%, 월 2-3회와 전혀 소통 없는 비율이 각각 18.0%로 나타났다. 다인가구의 경우는 월 4회 이상이 61.4%, 월 2-3회 이상이 14.8, 월 1회 이하가 13.6%, 소통 전혀 없음은 10.2%로 1인가구보다는 다인가구가 따로 사는 배우자와 만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인가구의 경우는 월 4회 이상에 과반이 집중되어 있어 통계적으로 특성별 차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1인가구 중에서는 거주지역과 가구소득, 주관적 경제 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1인가구의 거주지역이 광역시나 특별시인 경우는 따로 사는 배우자와 월 4회 이상 만나는 비율이 51.9%로 높았고, 도 지역의 경우는 35.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월 2-3회 만나는 비율은 광역 및 특별시의 경우 8.9%인데 반해 도 지역은 26.1%로 높게 나타나 거주지역에 따라 배우자와 만나는 빈도의 차이를 보였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전혀 소통이 없는 비율이 소득이 가장 낮은 그룹은 38.7%로 높고, 소득이 가장 높은 그룹은 7.1%로 매우 낮은 양상을 보였다. 반면, 월 4회 이상 빈도에서는 소득이 가장 낮은 그룹은 29.0%인데 반해, 소득이 가장 높은 그룹은 59.5%로 과반으로 나타나 소득에 따라 따로 사는 배우자와의 만남 빈도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주관적 경제 수준에 따라서는 차이가 낮는데, 소득에서와 비슷하게 하층이라고 느끼는 그룹이 따로 사는 배우자와 전혀 소통이 없는 비율이 34.4%로 다른 그룹보다 높고 배우자와 월 4회 이상 만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중상이나 중하층과 다른 특성을 보였다.

<표 5-4> 따로 사는 배우자와 직접 만나는 빈도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 소통 전혀 없음 | 월1회 이하 | 월2~3 회 | 월4회 이상 | χ^2 | (명) | 소통 전혀 없음 | 월1회 이하 | 월2~3 회 | 월4회 이상 | χ^2 | (명) | |
| 전체 | 18.0 | 21.0 | 18.0 | 43.1 | - | (167) | 10.2 | 13.6 | 14.8 | 61.4 | - | (88) | |
| 성별 | 남자 | 17.6 | 23.1 | 18.7 | 40.7 | 0.781 | 6.3 | 6.3 | 12.5 | 75.0 | - | (32) | |
| | 여자 | 18.4 | 18.4 | 17.1 | 46.1 | | 12.5 | 17.9 | 16.1 | 53.6 | - | (56) |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19.0 | 20.3 | 8.9 | 51.9 | 9.723* | 11.9 | 11.9 | 16.7 | 59.5 | - | (42) | |
| | 도지역 | 17.0 | 21.6 | 26.1 | 35.2 | | 8.7 | 15.2 | 13.0 | 63.0 | - | (46) | |
| 거주 권역 | 서울 | 7.4 | 33.3 | 11.1 | 48.1 | (27) | 15.0 | 5.0 | 15.0 | 65.0 | - | (20) | |
| | 인천·경기·강 원 | 19.6 | 17.4 | 32.6 | 30.4 | (46) | 8.3 | 25.0 | 8.3 | 58.3 | - | (24) | |
| | 충청권 | 4.5 | 13.6 | 4.5 | 77.3 | - | - | 14.3 | 28.6 | 57.1 | - | (7) | |
| | 전라권 | 23.1 | 34.6 | 19.2 | 23.1 | (26) | 10.0 | 20.0 | 10.0 | 60.0 | - | (10) | |
| | 경북권 | 31.6 | 5.3 | 5.3 | 57.9 | (19) | - | 20.0 | - | 80.0 | - | (10) | |
| | 경남권 | 22.2 | 18.5 | 18.5 | 40.7 | (27) | 17.6 | - | 29.4 | 52.9 | - | (17) | |
| 연령 | 45-49세 | 9.1 | 22.7 | 22.7 | 45.5 | (22) | - | 22.2 | 33.3 | 44.4 | - | (18) | |
| | 50-54세 | 10.3 | 24.1 | 13.8 | 51.7 | 7.376 | 14.3 | 4.8 | 4.8 | 76.2 | - | (21) | |
| | 55-59세 | 23.3 | 16.7 | 23.3 | 36.7 | | (60) | 4.2 | 25.0 | 12.5 | 58.3 | - | (24) |
| | 60-64세 | 19.6 | 23.2 | 12.5 | 44.6 | | (56) | 20.0 | 4.0 | 12.0 | 64.0 | - | (25) |
| 혼인 지위 | 유배우 | 3.2 | 16.8 | 24.0 | 56.0 | | (125) | 1.4 | 10.0 | 15.7 | 72.9 | - | (70) |
| | 이혼, 별거 | 65.0 | 30.0 | - | 5.0 | - | 50.0 | 31.3 | 12.5 | 6.3 | - | (16) | |
| | 미혼·비혼·기 타 | - | 100.0 | - | - | (2) | - | - | - | 100.0 | - | (2) |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22.5 | 25.0 | 10.0 | 42.5 | (40) | 13.3 | 13.3 | 13.3 | 60.0 | - | (30) | |
| | 대학교 | 17.0 | 22.0 | 23.0 | 38.0 | 8.876 | 8.7 | 13.0 | 17.4 | 60.9 | - | (46) | |
| | 대학원 | 14.8 | 11.1 | 11.1 | 63.0 | (27) | 8.3 | 16.7 | 8.3 | 66.7 | - | (12) | |
| 근로 여부 | 그렇다 | 18.3 | 19.8 | 18.3 | 43.5 | 0.466 | 9.5 | 12.7 | 17.5 | 60.3 | - | (63) | |
| | 아니다 | 16.7 | 25.0 | 16.7 | 41.7 | | (36) | 12.0 | 16.0 | 8.0 | 64.0 | - | (25)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38.7 | 25.8 | 6.5 | 29.0 | (31) | 20.0 | 13.3 | 13.3 | 53.3 | - | (15) | |
| | 200~399 | 22.0 | 24.0 | 14.0 | 40.0 | 24.162** | 13.6 | 4.5 | 18.2 | 63.6 | - | (22) | |
| | 400~599 | 9.1 | 22.7 | 27.3 | 40.9 | | (44) | 5.9 | 14.7 | 14.7 | 64.7 | - | (34) |
| | 600 이상 | 7.1 | 11.9 | 21.4 | 59.5 | | (42) | 5.9 | 23.5 | 11.8 | 58.8 | - | (17)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 11.6 | 18.9 | 22.1 | 47.4 | | (95) | 9.3 | 13.0 | 13.0 | 64.8 | - | (54) |
| | 전세 | 23.1 | 15.4 | 19.2 | 42.3 | 11.262 | 5.9 | 11.8 | 29.4 | 52.9 | - | (17) | |
| | 월세 기타 | 28.3 | 28.3 | 8.7 | 34.8 | (46) | 17.6 | 17.6 | 5.9 | 58.8 | - | (17) | |
| 주관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10.0 | 18.0 | 22.0 | 50.0 | (50) | - | 21.7 | 17.4 | 60.9 | - | (23) | |
| | 중하층 | 7.1 | 19.6 | 19.6 | 53.6 | 21.855** | 12.1 | 3.0 | 15.2 | 69.7 | - | (33) | |
| | 하층 | 34.4 | 24.6 | 13.1 | 27.9 | (61) | 15.6 | 18.8 | 12.5 | 53.1 | - | (32) |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3)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따로 사는 자녀가 있는 경우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알아보면, 1인가구는 월 4회 이상이 35.7%, 월 1회 이하가 31.6%, 월 2-3회는 25.1%, 그리고 소통이 전혀 없는 경우는 7.6%로 나타났다. 다인가구는 월 1회 이하가 가장 높은 비율인 38.4%, 월 4회 이상은 33.5%, 월 2-3회는 26.3%, 소통이 전혀 없다는 응답은 1.8%로 나타났다.

자녀와는 전혀 소통이 없는 경우의 비율이 매우 낮은 특성으로 인해 통계적인 차이를 검증에는 한계가 있다. 그 중 통계적 차이를 보인 요인은 1인가구의 성별, 교육수준, 근로 여부, 주택 점유형태, 주관적 경제 수준이었다. 1인가구의 여성은 따로 사는 자녀와 월 4회 이상 만나는 비율이 44.2%로 남성의 27.6%보다 높아 차이를 보였다. 반면 다인가구의 경우는 월 4회 이상 만나는 비율이 남성이나 여성이 비슷하게 나타났고 오히려 남성이 약간 더 높은 수준을 보여 1인가구와 다른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 교육수준이 대학원 이상인 1인가구는 다른 교육수준 그룹과 비교해 월 4회 이상 만나는 비율이 58.1%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를 하지 않는 1인가구는 월 4회 이상 만나는 비율이 근로는 하는 가구보다 높고, 자녀와 소통이 전혀 없는 비율도 근로를 하지 않는 가구가 12.5%로 근로를 하는 1인가구의 6.0%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 근로 여부에 따라 따로 사는 자녀와의 만남 빈도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1인가구 중 주택 점유형태가 자가이거나 전세인 경우는 자녀를 만나는 빈도가 월 2-3회나 월 4회 이상인 비율이 월세나 기타 형태로 살고 있는 1인가구의 자녀와의 만남 빈도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동시에 전세로 살고 있는 1인가구의 경우는 전혀 소통이 없는 비율이 15.2%로 자가의 3.7%나 월세 및 기타의 9.9%보다 높아 소통이 없는 그룹과 소통이 많은 그룹으로 주거 형태 구분에 있어 가장 양분화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주관적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하층의 경우 전혀 소통이 없는 비율이 12.3%로 중하층의 1.1%와 비교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월 1회 이하로 만나는 경우는 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높아지며, 자녀와 월 2-3회 만남을 가지는 비율은 반대로 경제적 수준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1인가구는 본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낮은 그룹이라고 생각할 때 자녀와의 만남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5-5> 따로 사는 자녀와 직접 만나는 빈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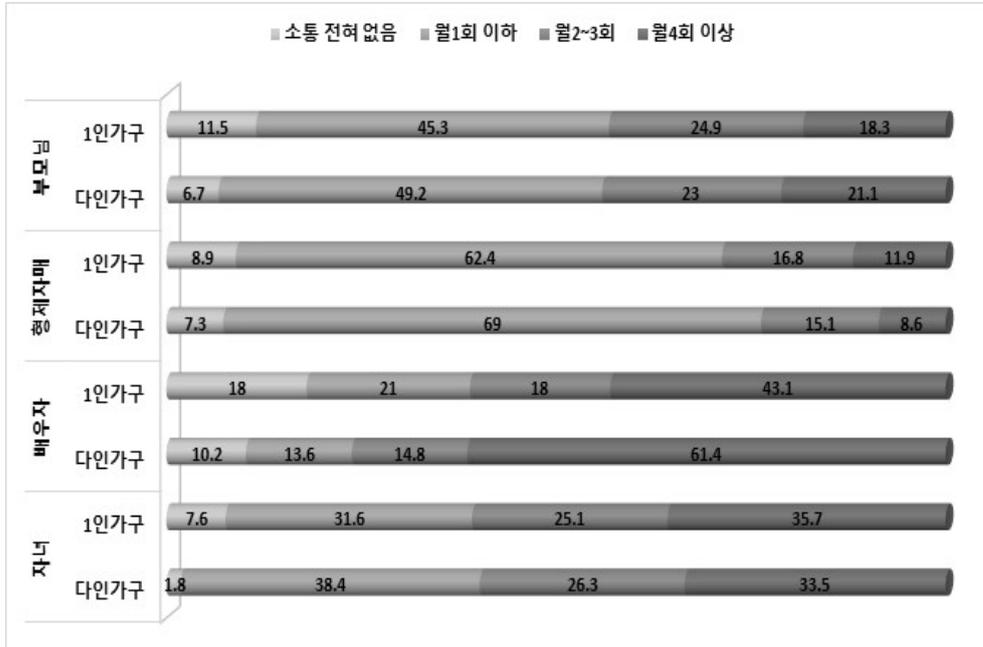
| 항목 | 1인가구 | |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 소통 전혀 없음 | 월1회 이하 | 월2~3 회 | 월4회 이상 | χ^2 | (명) | 소통 전혀 없음 | 월1회 이하 | 월2~3회 | 월4회 이상 | χ^2 | (명) | |
| 전체 | 7.6 | 31.6 | 25.1 | 35.7 | - | (263) | 1.8 | 38.4 | 26.3 | 33.5 | - | (331) | |
| 성별 | 남자 | 9.0 | 37.3 | 26.1 | 27.6 | 8.688* | (134) | 1.4 | 36.1 | 27.8 | 34.7 | - | (144) |
| | 여자 | 6.2 | 25.6 | 24.0 | 44.2 | | (129) | 2.1 | 40.1 | 25.1 | 32.6 | - | (187)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11.7 | 28.1 | 23.4 | 36.7 | 6.822 | (128) | 2.6 | 39.1 | 25.8 | 32.5 | - | (151) |
| | 도지역 | 3.7 | 34.8 | 26.7 | 34.8 | | (135) | 1.1 | 37.8 | 26.7 | 34.4 | - | (180) |
| 연령 | 45-49세 | 7.7 | 19.2 | 30.8 | 42.3 | 4.946 | (26) | - | 44.0 | 16.0 | 40.0 | - | (25) |
| | 50-54세 | 9.1 | 25.5 | 23.6 | 41.8 | | (55) | 1.6 | 41.3 | 25.4 | 31.7 | - | (63) |
| | 55-59세 | 5.9 | 35.3 | 25.9 | 32.9 | | (85) | 1.7 | 39.7 | 30.2 | 28.4 | - | (116) |
| | 60-64세 | 8.2 | 35.1 | 23.7 | 33.0 | | (97) | 2.4 | 34.6 | 25.2 | 37.8 | - | (127) |
| 혼인 지위 | 유배우 | 3.1 | 22.5 | 31.0 | 43.4 | - | (129) | 1.3 | 39.4 | 25.6 | 33.7 | - | (297) |
| | 사별 | - | 29.4 | 11.8 | 58.8 | | (17) | - | 25.0 | 50.0 | 25.0 | - | (4) |
| | 이혼·별거 | 13.2 | 43.0 | 19.3 | 24.6 | | (114) | 7.1 | 32.1 | 32.1 | 28.6 | - | (28) |
| | 미혼·비혼·기 타 | 33.3 | - | 66.7 | - | | (3) | - | - | - | 100.0 | - | (2)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10.1 | 32.9 | 19.0 | 38.0 | 13.887* | (79) | 2.9 | 36.9 | 29.1 | 31.1 | - | (103) |
| | 대학교 | 5.9 | 34.6 | 29.4 | 30.1 | | (153) | 1.6 | 39.4 | 23.9 | 35.1 | - | (188) |
| | 대학원 | 9.7 | 12.9 | 19.4 | 58.1 | | (31) | - | 37.5 | 30.0 | 32.5 | - | (40) |
| 근로 여부 | 그렇다 | 6.0 | 31.7 | 29.1 | 33.2 | 9.533* | (199) | 0.9 | 38.9 | 27.3 | 32.9 | - | (216) |
| | 아니다 | 12.5 | 31.3 | 12.5 | 43.8 | | (64) | 3.5 | 37.4 | 24.3 | 34.8 | - | (115)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12.3 | 42.5 | 13.7 | 31.5 | 15.111 | (73) | 3.6 | 35.7 | 17.9 | 42.9 | - | (28) |
| | 200~399 | 7.6 | 28.3 | 27.2 | 37.0 | | (92) | 2.9 | 35.0 | 32.0 | 30.1 | - | (103) |
| | 400~599 | 6.0 | 30.0 | 30.0 | 34.0 | | (50) | 0.8 | 44.3 | 24.6 | 30.3 | - | (122) |
| | 600 이상 | 2.1 | 22.9 | 33.3 | 41.7 | | (48) | 1.3 | 34.6 | 24.4 | 39.7 | - | (78)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 3.7 | 25.7 | 30.9 | 39.7 | 18.913** | (136) | 2.4 | 36.5 | 29.0 | 32.1 | - | (252) |
| | 전세 | 15.2 | 26.1 | 23.9 | 34.8 | | (46) | - | 38.1 | 26.2 | 35.7 | - | (42) |
| | 월세 기타 | 9.9 | 44.4 | 16.0 | 29.6 | | (81) | - | 51.4 | 8.1 | 40.5 | - | (37) |
| 주관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8.5 | 18.6 | 37.3 | 35.6 | 22.524** | (59) | 1.0 | 36.5 | 28.1 | 34.4 | - | (96) |
| | 중하층 | 1.1 | 30.0 | 28.9 | 40.0 | | (90) | 2.6 | 38.8 | 27.6 | 30.9 | - | (152) |
| | 하층 | 12.3 | 39.5 | 15.8 | 32.5 | | (114) | 1.2 | 39.8 | 21.7 | 37.3 | - | (83)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3)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단위: %)



<그림 5-1> 따로 사는 가족과 만나는 빈도 (종합) : 1인가구와 다인가구

라. 가족과의 연락 빈도: 1인가구와 다인가구

이번에는 직접 만나는 것 이외에 전화를 하거나 문자는 하는 등 연락하는 빈도를 알아보았다. 우선, 따로 사는 부모와의 연락하는 빈도가 월 4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인가구나 다인가구 모두 가장 높았는데, 다인가구는 51.4%로 과반으로 나타나 1인가구(46.1%)보다 자주 연락하는 비율이 약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인가구의 경우는 연락도 전혀 안 하는 비율이 10.3%로 다인가구의 6.5%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인가구는 성별에 따라 부모와 연락하는 것에 차이가 있었는데, 여성은 월 4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이 57.6%로 남성의 45.3%보다 높았고, 월 2-3회 연락한다는 비율이 남성은 32.1%, 여성은 21.2%로 나타나 남성보다 여성이 자주 연락하는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연령에 따라서는 1인가구와 다인가구 모두 차이를 보였는데, 소통이 없는 비율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데 1인가구는 60대에 매우 약간 낮아지는 반면,

다인가구는 가장 큰 폭으로 높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월 4회 이상 연락하는 경우는 55-59세 사이에 1인가구와 다인가구 모두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나다가 60-64세 연령대에서는 다시 높아져 1인가구는 43.1%, 다인가구는 47.0%로 나타난다. 부모와의 직접 만남에서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연령이 60세가 넘으면서 부모가 연로해짐에 따라 만남이나 연락의 빈도가 많아지는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혼인 지위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1인가구에서만 나타났는데, 이혼 및 별거 중인 1인가구는 부모와 월 4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이 32.2%로 다른 혼인 지위의 경우 모두 과반인 것과 차이를 보인다. 고졸 이하의 학력 수준에서는 부모와 연락이 없는 경우가 20.5%로 다른 그룹과 비교해 높고, 월 4회 이상 만나는 비율은 대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그룹은 52.6%로 높는데 반해 고졸 이하의 학력 그룹에서는 30.7%로 나타나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1인가구는 부모와의 연락 빈도가 대졸 이상의 학력 그룹과 차이를 보인다. 주관적 경제 수준은 1인가구와 다인가구 모두 차이를 보였는데, 1인가구 중 하층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소통 없음이 15.1%로 상대적으로 높고, 월 4회 이상은 35.5%로 낮은 특징을 보인다. 다인가구도 차이는 보이지만, 중하층이 중상층이나 하층보다 월 2-3회 연락한다는 비율은 33.0%로 높고, 월 4회 이상 연락한다는 비율은 44.0%로 다른 그룹보다 낮은 차이를 보여 1인가구와 차이의 양상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표 5-6> 따로 사는 부모와 연락하는 빈도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 소통 전혀 없음 | 월1회 이하 | 월2~3 회 | 월4회 이상 | χ^2 | (명) | 소통 전혀 없음 | 월1회 이하 | 월2~3 회 | 월4회 이상 | χ^2 | (명) | |
| 전체 | 10.3 | 18.3 | 25.2 | 46.1 | - | (349) | 6.5 | 15.5 | 26.7 | 51.4 | - | (465) | |
| 성별 | 남자 | 11.0 | 19.4 | 27.2 | 42.4 | 2.379 | (191) | 6.4 | 16.2 | 32.1 | 45.3 | 8.705* | (234) |
| | 여자 | 9.5 | 17.1 | 22.8 | 50.6 | | (158) | 6.5 | 14.7 | 21.2 | 57.6 | | (231)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8.4 | 20.7 | 26.3 | 44.7 | 2.748 | (179) | 4.8 | 15.8 | 26.3 | 53.1 | 2.127 | (228) |
| | 도지역 | 12.4 | 15.9 | 24.1 | 47.6 | | (170) | 8.0 | 15.2 | 27.0 | 49.8 | | (237) |
| 연령 | 45-49세 | 5.0 | 18.0 | 22.0 | 55.0 | 17.064* | (100) | 3.1 | 15.1 | 25.8 | 56.0 | 32.633*** | (159) |
| | 50-54세 | 6.8 | 22.7 | 22.7 | 47.7 | | (88) | 3.8 | 9.2 | 29.8 | 57.3 | | (131) |
| | 55-59세 | 15.7 | 13.5 | 33.7 | 37.1 | | (89) | 7.3 | 22.9 | 29.4 | 40.4 | | (109) |
| | 60-64세 | 15.3 | 19.4 | 22.2 | 43.1 | | (72) | 18.2 | 16.7 | 18.2 | 47.0 | | (66) |
| 혼인 지위 | 유배우 | 7.3 | 18.2 | 24.5 | 50.0 | 16.941* | (110) | 5.3 | 16.2 | 28.1 | 50.3 | - | (431) |
| | 사별 | 15.4 | 7.7 | 15.4 | 61.5 | | (13) | 50.0 | 50.0 | - | - | | (2) |
| | 이혼 별거 | 18.9 | 20.0 | 28.9 | 32.2 | | (90) | 21.1 | 5.3 | 15.8 | 57.9 | | (19) |
| | 미혼·비혼·기타 | 6.6 | 18.4 | 24.3 | 50.7 | | (136) | 15.4 | - | - | 84.6 | | (13)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20.5 | 19.3 | 29.5 | 30.7 | 20.301** | (88) | 7.7 | 14.5 | 19.7 | 58.1 | 8.185 | (117) |
| | 대학교 | 6.6 | 18.5 | 22.3 | 52.6 | | (211) | 4.9 | 16.1 | 29.4 | 49.7 | | (286) |
| | 대학원 | 8.0 | 16.0 | 30.0 | 46.0 | | (50) | 11.3 | 14.5 | 27.4 | 46.8 | | (62) |
| 근로 여부 | 그렇다 | 10.1 | 18.4 | 24.0 | 47.6 | 1.870 | (288) | 5.6 | 14.8 | 29.9 | 49.7 | 7.192 | (338) |
| | 아니다 | 11.5 | 18.0 | 31.1 | 39.3 | | (61) | 8.7 | 17.3 | 18.1 | 55.9 | | (127)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17.3 | 18.4 | 28.6 | 35.7 | 16.434 | (98) | 11.1 | 14.8 | 25.9 | 48.1 | 10.519 | (27) |
| | 200~399 | 6.9 | 20.0 | 26.2 | 46.9 | | (130) | 7.1 | 22.8 | 24.4 | 45.7 | | (127) |
| | 400~599 | 10.0 | 20.0 | 24.3 | 45.7 | | (70) | 5.3 | 14.8 | 27.2 | 52.7 | | (169) |
| | 600 이상 | 5.9 | 11.8 | 17.6 | 64.7 | | (51) | 6.3 | 9.9 | 28.2 | 55.6 | | (142)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 9.0 | 19.2 | 21.0 | 50.9 | 7.986 | (167) | 6.9 | 16.4 | 27.3 | 49.4 | 6.470 | (348) |
| | 전세 | 9.2 | 13.2 | 28.9 | 48.7 | | (76) | 6.0 | 11.9 | 31.3 | 50.7 | | (67) |
| | 월세 기타 | 13.2 | 20.8 | 29.2 | 36.8 | | (106) | 4.0 | 14.0 | 16.0 | 66.0 | | (50) |
| 주관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7.7 | 16.7 | 23.1 | 52.6 | 13.693* | (78) | 8.8 | 9.9 | 21.6 | 59.6 | 17.529** | (171) |
| | 중하층 | 6.8 | 18.2 | 21.2 | 53.8 | | (132) | 5.0 | 18.0 | 33.0 | 44.0 | | (200) |
| | 하층 | 15.1 | 19.4 | 30.2 | 35.3 | | (139) | 5.3 | 20.2 | 22.3 | 52.1 | | (94)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3)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형제·자매와의 전화 및 문자 연락은 1인가구는 월 4회 이상이 3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월 1회 이하는 32.2%, 월 2-3회는 25.7%, 소통 없음은 8.4%로 나타났다. 다

인가구의 경우는 월 1회 이하인 경우가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이 월 4회 이상으로 31.3%, 월 203회는 28.5%, 소통 없는 경우는 4.4%로 나타났다.

형제.자매와의 전화 및 문자 연락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1인가구와 다인가구 모두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월 4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 여성의 경우는 그 비율이 47.4%, 남성은 22.2%로 차이가 났으며, 다인가구는 월 4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이 여성은 44.5%, 남성은 19.2%로 두 배 이상 비율의 차이가 났다. 다인가구의 경우는 근로를 하는 경우 월 4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이 28.0%이지만,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는 38.9%로 높아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1인가구의 경우는 근로 여부에 따라 월 4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구소득에 있어서는 다인가구의 경우 소득이 높아질수록 전혀 연락하지 않는 비율은 줄고, 월 4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은 199만 원 이하의 경우 28.8%에서 200-399만 원 사이에는 26.9%로 약간 줄었다가 다시 상승해 600만 원 이상은 37.6%에 이른다. 그러나 1인가구의 경우는 전혀 연락하지 않는 비율이 199만 원 이하의 그룹은 14.7%로 다인가구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200-599만 원의 소득 그룹까지는 6% 정도로 비슷하게 유지하다가 600만 원 이상의 그룹은 1.6%로 낮아진다. 월 4회 이상 형제.자매와 자주 연락하는 비율은 소득이 높아지면서 증가하고 월 600만 원 이상인 1인가구는 50.0%까지 높아지는 특징을 보여 다인가구의 같은 그룹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인다. 1인가구는 주택 점유형태에 따라 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자가나 전세보다 월세인 경우 형제.자매와 연락하지 않는 비율이 14.0%로 높고, 월 4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은 자가 39.1%, 전세 35.7%, 월세 및 기타가 24.7%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주관적 경제 수준에 따라서는 1인가구와 다인가구 모두 형제.자매와 연락에 있어 차이를 보였는데, 1인가구는 주택 점유형태와 마찬가지로 하층이 형제.자매와 연락 안 하는 비율이 12.6%으로 다른 그룹보다 높고, 월 4회 이상 만나는 비율은 29.6%로 중상층의 39.6%나 중하층의 35.5%보다 낮게 나타났다. 다인가구 역시 연락하지 않는 비율이 하층에서 높아 차이를 보였으나 8.1%로 1인가구의 하층보다는 낮은 비율이다. 다인가구의 경우 가구소득에서의 차이에서와 마찬가지로 형제.자매와 자주 연락하는 비율이 경제적 수준에서도 순서대로 줄거나 증가하지 않고 200-399만 원 그룹과 중하층 그룹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여 소득이나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형제나 자매와 연락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은 1인가구와 동일하나 차이의 경향은 1인가구와 다인가구 사이에 차이가 있다.

<표 5-7>따로 사는 형제, 자매와 연락하는 빈도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소통 전혀 없음 | 월1회 이하 | 월2~3 회 | 월4회 이상 | χ^2 | (명) | 소통 전혀 없음 | 월1회 이하 | 월2~3 회 | 월4회 이상 | χ^2 | (명) |
| 전체 | 8.4 | 32.2 | 25.7 | 33.7 | - | (463) | 4.4 | 35.8 | 28.5 | 31.3 | - | (687) |
| 성별 | 남자 | 12.7 | 40.5 | 24.6 | 22.2 | 28.902*** | 5.3 | 46.0 | 29.5 | 19.2 | 58.419*** | (359) |
| | 여자 | 3.3 | 22.3 | 27.0 | 47.4 | | 3.4 | 24.7 | 27.4 | 44.5 | | (328)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8.7 | 30.3 | 26.4 | 34.6 | 0.745 | 4.4 | 34.5 | 31.3 | 29.8 | 2.609 | (342) |
| | 도지역 | 8.2 | 34.1 | 25.0 | 32.8 | | 4.3 | 37.1 | 25.8 | 32.8 | | (345) |
| 연령 | 45-49세 | 4.7 | 34.6 | 29.0 | 31.8 | 10.642 | 5.2 | 39.2 | 24.2 | 31.4 | 4.828 | (194) |
| | 50-54세 | 14.8 | 27.8 | 24.1 | 33.3 | | 5.0 | 34.1 | 31.3 | 29.6 | | (179) |
| | 55-59세 | 8.8 | 34.4 | 22.4 | 34.4 | | 2.9 | 33.3 | 29.8 | 33.9 | | (171) |
| | 60-64세 | 5.7 | 31.7 | 27.6 | 35.0 | | 4.2 | 36.4 | 29.4 | 30.1 | | (143) |
| 혼인 지위 | 유배우 | 6.2 | 28.5 | 26.2 | 39.2 | 8.339 | 3.9 | 36.8 | 30.0 | 29.3 | - | (593) |
| | 사별 | 10.0 | 20.0 | 25.0 | 45.0 | | - | 40.0 | 20.0 | 40.0 | | (5) |
| | 이혼·별거 | 11.8 | 33.9 | 26.8 | 27.6 | | 13.5 | 29.7 | 21.6 | 35.1 | | (37) |
| | 미혼·비혼·기타 | 7.5 | 34.9 | 24.7 | 32.8 | | 3.8 | 28.8 | 17.3 | 50.0 | | (52)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13.0 | 29.8 | 26.0 | 31.3 | 5.729 | 5.1 | 31.5 | 29.8 | 33.7 | 11.514 | (131) |
| | 대학교 | 7.0 | 33.5 | 25.7 | 33.8 | | 4.8 | 35.3 | 27.2 | 32.7 | | (419) |
| | 대학원 | 5.0 | 31.7 | 25.0 | 38.3 | | 1.1 | 46.7 | 32.2 | 20.0 | | (90) |
| 근로 여부 | 그렇다 | 7.1 | 33.7 | 26.3 | 32.9 | 5.276 | 4.0 | 39.7 | 28.4 | 28.0 | 12.741** | (365) |
| | 아니다 | 13.3 | 26.5 | 23.5 | 36.7 | | 5.3 | 26.9 | 28.8 | 38.9 | | (208)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14.7 | 31.4 | 25.0 | 28.8 | 22.101** | 14.8 | 33.3 | 24.1 | 27.8 | 23.192** | (156) |
| | 200~399 | 6.1 | 36.6 | 25.0 | 32.3 | | 4.7 | 36.8 | 31.6 | 26.9 | | (193) |
| | 400~599 | 6.2 | 33.3 | 27.2 | 33.3 | | 3.6 | 39.0 | 26.7 | 30.7 | | (251) |
| | 600 이상 | 1.6 | 21.0 | 27.4 | 50.0 | | 2.1 | 31.2 | 29.1 | 37.6 | | (189)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 5.6 | 29.3 | 26.0 | 39.1 | 19.298** | 4.4 | 35.3 | 29.8 | 30.6 | 2.694 | (215) |
| | 전세 | 6.1 | 39.8 | 18.4 | 35.7 | | 4.1 | 40.8 | 23.5 | 31.6 | | (98) |
| | 월세 기타 | 14.0 | 31.3 | 30.0 | 24.7 | | 4.7 | 32.9 | 27.1 | 35.3 | | (150) |
| 주관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4.4 | 31.9 | 24.2 | 39.6 | 13.010* | 1.8 | 34.7 | 27.9 | 35.6 | 13.017* | (91) |
| | 중하층 | 5.4 | 28.9 | 30.1 | 35.5 | | 4.4 | 39.2 | 27.5 | 28.8 | | (166) |
| | 하층 | 12.6 | 35.0 | 22.8 | 29.6 | | 8.1 | 30.2 | 31.5 | 30.2 | | (206)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3)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따로 사는 배우자와 연락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보면, 1인가구는 월 4회 이상이 59.3%, 소통이 전혀 없는 경우가 18.6%, 월 2-3회는 11.4%, 월 1회 이하는 10.8%로

나타났다. 다인가구는 월 4회 이상 연락한다는 비율이 70.5%로 1인가구보다 높고, 그 다음은 월 1회 이하가 11.4%, 월 2-3회와 소통 없는 경우는 각각 9.1%로 나타났다. 연락을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이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1인가구의 주관적 경제 수준은 배우자와 연락하는 횟수에 차이를 보였는데, 전혀 연락하지 않는 경우가 중하층은 5.4%인데 반해, 중상층은 12.0%, 하층은 36.1%로 높았다. 반면, 월 4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은 하층이 39.3%로 낮는데 중상층은 68.0%, 중하층은 73.2%로 차이를 보여 중하층이 가장 자주 연락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따로 사는 배우자와는 월 4회 이상 연락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찾아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1인가구 중 배우자와 월 4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이 높은 그룹은 거주지역이 충청권인 경우 81.8%, 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81.0%를 찾아볼 수 있다. 소득이 199만 원 이하이거나 월세에 사는 1인가구의 경우는 배우자와 전혀 연락이 없는 비율이 각각 38.7%와 30.4%로 높은 특징도 찾아볼 수 있다.

<표 5-8> 따로 사는 배우자와 연락하는 빈도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소통 전혀 없음 | 월1회 이하 | 월2~3 회 | 월4회 이상 | χ^2 | (명) | 소통 전혀 없음 | 월1회 이하 | 월2~3회 | 월4회 이상 | χ^2 | (명) |
| 전체 | 18.6 | 10.8 | 11.4 | 59.3 | - | (167) | 9.1 | 11.4 | 9.1 | 70.5 | - | (88) |
| 성별 | 남자 | 18.7 | 11.0 | 9.9 | 60.4 | 0.444 | 6.3 | 6.3 | 9.4 | 78.1 | - | (32) |
| | 여자 | 18.4 | 10.5 | 13.2 | 57.9 | | 10.7 | 14.3 | 8.9 | 66.1 | - | (56)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19.0 | 13.9 | 7.6 | 59.5 | 3.277 | 9.5 | 11.9 | 11.9 | 66.7 | - | (42) |
| | 도지역 | 18.2 | 8.0 | 14.8 | 59.1 | | 8.7 | 10.9 | 6.5 | 73.9 | - | (46) |
| 연령 | 45-49세 | 18.2 | 4.5 | 9.1 | 68.2 | - | - | 11.1 | 11.1 | 77.8 | - | (18) |
| | 50-54세 | 6.9 | 10.3 | 10.3 | 72.4 | - | 9.5 | 4.8 | 14.3 | 71.4 | - | (21) |
| | 55-59세 | 23.3 | 13.3 | 10.0 | 53.3 | - | - | 25.0 | 4.2 | 70.8 | - | (24) |
| | 60-64세 | 19.6 | 10.7 | 14.3 | 55.4 | - | 24.0 | 4.0 | 8.0 | 64.0 | - | (25) |
| 혼인 지위 | 유배우 | 3.2 | 4.8 | 14.4 | 77.6 | - | 1.4 | 5.7 | 8.6 | 84.3 | - | (70) |
| | 이혼·별거 | 67.5 | 25.0 | 2.5 | 5.0 | - | 43.8 | 37.5 | 6.3 | 12.5 | - | (16) |
| | 미혼·비혼·기타 | - | 100.0 | - | - | - | - | - | 50.0 | 50.0 | - | (2)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22.5 | 17.5 | 12.5 | 47.5 | - | 13.3 | 13.3 | 13.3 | 60.0 | - | (40) |
| | 대학교 | 18.0 | 11.0 | 11.0 | 60.0 | - | 6.5 | 8.7 | 8.7 | 76.1 | - | (46) |
| | 대학원 | 14.8 | - | 11.1 | 74.1 | - | 8.3 | 16.7 | - | 75.0 | - | (12) |
| 근로 여부 | 그렇다 | 19.1 | 12.2 | 10.7 | 58.0 | - | 7.9 | 12.7 | 6.3 | 73.0 | - | (131) |
| | 아니다 | 16.7 | 5.6 | 13.9 | 63.9 | - | 12.0 | 8.0 | 16.0 | 64.0 | - | (36)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38.7 | 16.1 | 6.5 | 38.7 | - | 13.3 | 6.7 | 13.3 | 66.7 | - | (31) |
| | 200~399 | 24.0 | 12.0 | 12.0 | 52.0 | - | 13.6 | 9.1 | 13.6 | 63.6 | - | (50) |
| | 400~599 | 6.8 | 13.6 | 18.2 | 61.4 | - | 5.9 | 17.6 | 5.9 | 70.6 | - | (44) |
| | 600 이상 | 9.5 | 2.4 | 7.1 | 81.0 | - | 5.9 | 5.9 | 5.9 | 82.4 | - | (42)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 11.6 | 7.4 | 16.8 | 64.2 | - | 5.6 | 11.1 | 11.1 | 72.2 | - | (95) |
| | 전세 | 23.1 | 15.4 | 3.8 | 57.7 | - | 11.8 | 17.6 | 11.8 | 58.8 | - | (26) |
| | 월세 기타 | 30.4 | 15.2 | 4.3 | 50.0 | - | 17.6 | 5.9 | - | 76.5 | - | (46) |
| 주관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12.0 | 6.0 | 14.0 | 68.0 | 35.380 *** | - | 8.7 | 13.0 | 78.3 | - | (50) |
| | 중하층 | 5.4 | 7.1 | 14.3 | 73.2 | | 9.1 | 6.1 | 9.1 | 75.8 | - | (56) |
| | 하층 | 36.1 | 18.0 | 6.6 | 39.3 | | 15.6 | 18.8 | 6.3 | 59.4 | - | (61)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3)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따로 사는 자녀가 있는 경우 얼마나 자주 연락하는지 알아본 결과, 1인가구는 월 4회 이상이 61.6%, 월 2-3회가 20.2%, 월 1회 이하는 11.4%, 전혀 연락하지 않는 경우는 6.8%로 나타났다. 다인가구는 월 4회 이상이 75.8%, 월 2-3회는 16.9%, 월 1회 이하가 6.3%, 소통 전혀 없는 경우는 0.9%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1인가구는 성별에 따라 자녀와의 연락 빈도에 차이가 있었는데, 여성은 월 4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이 76.7%인데 반해 남성은 47.0%에 지나지 않아 여성이 남성보다 자녀와 연락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다인가구의 경우는 보면 월 4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이 남성과 여성 모두 70%대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1인가구와 다인가구 사이의 차이도 찾아볼 수 있다.

자녀와는 전반적으로 자주 연락하는 빈도에 대한 응답으로 집중되어 있는 특징이 1인가구나 다인가구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주관적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와 월 4회 이상 연락하는 빈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었다.

<표 5-9> 따로 사는 자녀와 연락하는 빈도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소통 전혀 없음 | 월1회 이하 | 월2~3회 | 월4회 이상 | χ^2 | (명) | 소통 전혀 없음 | 월1회 이하 | 월2~3회 | 월4회 이상 | χ^2 | (명) |
| 전체 | 6.8 | 11.4 | 20.2 | 61.6 | - | (263) | 0.9 | 6.3 | 16.9 | 75.8 | - | (331) |
| 성별 | 남자 | 7.5 | 16.4 | 29.1 | 47.0 | 102.577 | 2.1 | 9.0 | 16.7 | 72.2 | - | (134) |
| | 여자 | 6.2 | 6.2 | 10.9 | 76.7 | *** | (129) | - | 4.3 | 17.1 | 78.6 | (187)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9.4 | 13.3 | 18.0 | 59.4 | 3.892 | 1.3 | 6.6 | 20.5 | 71.5 | - | (128) |
| | 도지역 | 4.4 | 9.6 | 22.2 | 63.7 | | (135) | 0.6 | 6.1 | 13.9 | 79.4 | (180) |
| 연령 | 45-49세 | 11.5 | 3.8 | 7.7 | 76.9 | 11.555 | - | 8.0 | 24.0 | 68.0 | - | (26) |
| | 50-54세 | 7.3 | 9.1 | 12.7 | 70.9 | | (55) | - | 3.2 | 19.0 | 77.8 | (63) |
| | 55-59세 | 5.9 | 11.8 | 27.1 | 55.3 | | (85) | 0.9 | 8.6 | 16.4 | 74.1 | (116) |
| | 60-64세 | 6.2 | 14.4 | 21.6 | 57.7 | | (97) | 1.6 | 5.5 | 15.0 | 78.0 | (127) |
| 혼인 지위 | 유배우 | 2.3 | 7.0 | 20.2 | 70.5 | (129) | 0.3 | 6.1 | 16.2 | 77.4 | (297) | |
| | 사별 | - | 5.9 | - | 94.1 | - | (17) | - | 25.0 | - | 75.0 | (4) |
| | 이혼 별거 미혼·비혼·기타 | 13.2 | 16.7 | 21.9 | 48.2 | (114) | 7.1 | 7.1 | 25.0 | 60.7 | (28) |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8.9 | 10.1 | 16.5 | 64.6 | (79) | 1.9 | 3.9 | 18.4 | 75.7 | (103) | |
| | 대학교 | 6.5 | 13.1 | 22.9 | 57.5 | 4.909 | 0.5 | 8.0 | 14.4 | 77.1 | (188) | |
| | 대학원 | 3.2 | 6.5 | 16.1 | 74.2 | (31) | - | 5.0 | 25.0 | 70.0 | (40) | |
| 근로 여부 | 그렇다 | 6.5 | 11.1 | 21.6 | 60.8 | 1.148 | 0.5 | 6.0 | 17.6 | 75.9 | (199) | |
| | 아니다 | 7.8 | 12.5 | 15.6 | 64.1 | | (64) | 1.7 | 7.0 | 15.7 | 75.7 | (115)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9.6 | 19.2 | 13.7 | 57.5 | 12.814 | 7.1 | 7.1 | 14.3 | 71.4 | (73) | |
| | 200~399 | 7.6 | 8.7 | 27.2 | 56.5 | | (92) | 1.0 | 8.7 | 18.4 | 71.8 | (103) |
| | 400~599 | 4.0 | 8.0 | 18.0 | 70.0 | | (50) | - | 4.9 | 21.3 | 73.8 | (122) |
| | 600 이상 | 4.2 | 8.3 | 18.8 | 68.8 | | (48) | - | 5.1 | 9.0 | 85.9 | (78)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 2.9 | 9.6 | 20.6 | 66.9 | (136) | 0.8 | 7.5 | 16.3 | 75.4 | (252) | |
| | 전세 | 10.9 | 10.9 | 17.4 | 60.9 | 9.309 | 2.4 | 4.8 | 14.3 | 78.6 | (42) | |
| | 월세 기타 | 11.1 | 14.8 | 21.0 | 53.1 | (81) | - | - | 24.3 | 75.7 | (37) | |
| 주관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6.8 | 6.8 | 22.0 | 64.4 | (59) | - | 3.1 | 20.8 | 76.0 | (96) | |
| | 중하층 | 1.1 | 11.1 | 22.2 | 65.6 | 10.962 | 0.7 | 6.6 | 15.8 | 77.0 | (90) | |
| | 하층 | 11.4 | 14.0 | 17.5 | 57.0 | (114) | 2.4 | 9.6 | 14.5 | 73.5 | (83) |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3)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부모 . 자녀와의 상호지원: 1인가구와 다인가구

가. 부모와의 상호지원: 경제 .가사돌봄 . 정서적 지원

1) 부모를 지원해 드린 경험

다음은 따로 사는 가족에게 지원을 해준 경험에 대해 알아보았다. 가장 먼저 따로 사는 부모님에게 경제적 지원을 얼마나 자주 해 드렸는지 보면, 1인가구는 가끔 해드렸다는 응답이 47.0%로 가장 높았고, 자주 해드렸다는 응답은 20.9%, 거의 해드리지 않는 경우는 20.1%, 전혀 해드리지 않는 경우는 12.0%로 나타났다. 다인가구의 경우는 1인가구와 마찬가지로 가끔 해드린 경우가 48.2%로 가장 많았고, 자주 해드렸다는 응답은 26.2%, 거의 해드리지 않았다는 응답은 16.8%, 그리고 전혀 해드리지 않은 경우는 8.8%로 1인가구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1인가구는 혼인지위에 따라 부모님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드린 경험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혼 및 별거의 경우 전혀 해드리지 않았다는 비율이 23.3%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6.4%보다 월등히 높고 다른 그룹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자주 해드렸다는 비율에서는 이혼 및 별거의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나 이혼이나 별거를 한 경우 부모님에게 경제적 지원을 자주 해드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인가구의 경우 각 혼인지위 마다의 사례 수가 작기는 하지만, 이혼이나 별거의 경우가 전혀 해드리지 않았다는 비율이 가장 높거나 하지 않아 다인가구와 1인가구의 차이도 찾아볼 수 있다.

1인가구 중 대학원 이상 학력을 가진 경우는 부모님에게 경제적 지원을 자주 해드렸다는 응답이 40.0%로 대학교 졸업인 경우 20.4%와 고졸인 경우 11.4%와 비교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근로를 하는 경우 자주 지원을 해드린 비율이 24.0%로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의 6.6%와 비교해 매우 큰 비율 차이를 보였다. 가구소득이 낮은 1인가구는 전혀 해드리지 못한 비율이 23.5%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600만 원 이상 높은 그룹은 자주 해드린 비율이 43.1%로 높게 나타나 가구소득에 따라 1인가구의 부모님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주관적 경제 수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경제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그룹은 전혀 해드린 적 없는 비율이 20.1%로 그 외 그룹이 6% 대로 나타난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다인가구의 경우도 근로 여부나 가구 소득, 주관적 경제 수준에 따라 부모님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 경험에 차이가 1인가구와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지만, 1인가구보다 비율 간의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표 5-10> 부모님께 경제적 지원 해드린 경험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 전혀 해드 리지 않았다 | 거의 해드 리지 않았다 | 가끔 해드 렸다 | 자주 해드 렸다 | χ^2 | (명) | 전혀 해드 리지 않았다 | 거의 해드 리지 않았다 | 가끔 해드 렸다 | 자주 해드 렸다 | χ^2 | (명) | |
| 전체 | 12.0 | 20.1 | 47.0 | 20.9 | - | (349) | 8.8 | 16.8 | 48.2 | 26.2 | - | (465) | |
| 성별 | 남자 | 12.0 | 17.8 | 48.2 | 22.0 | 1.427 | 7.7 | 15.0 | 49.1 | 28.2 | 2.391 | (234) | |
| | 여자 | 12.0 | 22.8 | 45.6 | 19.6 | | 10.0 | 18.6 | 47.2 | 24.2 | | (231) |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12.8 | 19.6 | 47.5 | 20.1 | 0.382 | 7.5 | 16.7 | 51.3 | 24.6 | 2.339 | (228) | |
| | 도지역 | 11.2 | 20.6 | 46.5 | 21.8 | | 10.1 | 16.9 | 45.1 | 27.8 | | (237) | |
| 연령 | 45-49세 | 7.0 | 12.0 | 55.0 | 26.0 | 17.678* | 7.5 | 17.6 | 47.2 | 27.7 | 1.762 | (159) | |
| | 50-54세 | 13.6 | 23.9 | 43.2 | 19.3 | | (88) | 8.4 | 16.0 | 49.6 | | 26.0 | (131) |
| | 55-59세 | 11.2 | 18.0 | 51.7 | 19.1 | | (89) | 11.0 | 17.4 | 45.9 | | 25.7 | (109) |
| | 60-64세 | 18.1 | 29.2 | 34.7 | 18.1 | | (72) | 9.1 | 15.2 | 51.5 | | 24.2 | (66) |
| 혼인 지위 | 유배우 | 6.4 | 16.4 | 57.3 | 20.0 | 24.196** | 8.6 | 16.9 | 48.5 | 26.0 | - | (431) | |
| | 사별 | 7.7 | 38.5 | 30.8 | 23.1 | | (13) | - | - | 50.0 | | 50.0 | (2) |
| | 이혼 | 23.3 | 22.2 | 40.0 | 14.4 | | (90) | 10.5 | 21.1 | 47.4 | | 21.1 | (19) |
| | 미혼·비혼·기타 | 9.6 | 19.9 | 44.9 | 25.7 | | (136) | 15.4 | 7.7 | 38.5 | | 38.5 | (13)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17.0 | 31.8 | 39.8 | 11.4 | 25.613*** | 10.3 | 19.7 | 46.2 | 23.9 | 4.803 | (117) | |
| | 대학교 | 9.0 | 16.6 | 54.0 | 20.4 | | (211) | 7.3 | 15.4 | 50.7 | | 26.6 | (286) |
| | 대학원 | 16.0 | 14.0 | 30.0 | 40.0 | | (50) | 12.9 | 17.7 | 40.3 | | 29.0 | (62) |
| 근로 여부 | 그렇다 | 9.0 | 18.1 | 49.0 | 24.0 | 17.613*** | 6.8 | 13.6 | 52.7 | 26.9 | 18.477*** | (338) | |
| | 아니다 | 26.2 | 29.5 | 37.7 | 6.6 | | (61) | 14.2 | 25.2 | 36.2 | | 24.4 | (127)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23.5 | 26.5 | 43.9 | 6.1 | 37.332*** | 18.5 | 29.6 | 33.3 | 18.5 | 22.777** | (27) | |
| | 200~399 | 10.8 | 20.0 | 52.3 | 16.9 | | (130) | 11.0 | 21.3 | 51.2 | | 16.5 | (127) |
| | 400~599 | 2.9 | 12.9 | 51.4 | 32.9 | | (70) | 6.5 | 17.2 | 47.3 | | 29.0 | (169) |
| 600 이상 | 5.9 | 17.6 | 33.3 | 43.1 | (51) | 7.7 | 9.9 | 49.3 | 33.1 | (142) | | |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 8.4 | 18.6 | 49.7 | 23.4 | 12.305 | 9.8 | 17.2 | 47.7 | 25.3 | 12.575 | (348) | |
| | 전세 | 7.9 | 23.7 | 47.4 | 21.1 | | (76) | 7.5 | 7.5 | 47.8 | | 37.3 | (67) |
| | 월세 기타 | 20.8 | 19.8 | 42.5 | 17.0 | | (106) | 4.0 | 26.0 | 52.0 | | 18.0 | (50) |
| 주관 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6.4 | 15.4 | 41.0 | 37.2 | 13.220*** | 7.6 | 11.7 | 50.9 | 29.8 | 15.730* | (171) | |
| | 중하층 | 6.8 | 18.2 | 51.5 | 23.5 | | (132) | 6.5 | 19.0 | 47.0 | | 27.5 | (200) |
| | 하층 | 20.1 | 24.5 | 46.0 | 9.4 | | (139) | 16.0 | 21.3 | 45.7 | | 17.0 | (94)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3)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부모님께 해드린 일 중 청소, 식사준비, 장보기, 심부름 등과 같은 집안 일이나 건강을 돌봐드리는 일을 얼마나 자주했는지 알아보면, 1인가구는 가끔 해드린 비율이 40.7%, 거의 해드리지 않았다는 응답은 31.5%, 전혀 해드리지 않았다는 비율은 15.2%, 자주 해드린 경우는 12.6%였다. 다인가구 역시 가끔 해드렸다는 비율이 45.8%로 가장 높고, 거의 해드리지 않았다는 응답은 26.9%, 자주 해드린 비율은 17.4%, 전혀 해드리지 않았다는 비율은 9.9%로 가장 낮게 나타나 1인가구와 비율이 높은 순위가 다르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 부모님의 집안일이나 건강을 챙겨드린 경험의 차이가 1인가구와 다인가구 모두에서 나타났다. 1인가구는 이런 일들을 자주 해드린 경험이 여성이 20.3%, 남성이 6.3%로 차이가 나타났으며, 다인가구는 여성이 22.1%, 남성이 12.8%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부모님을 물리적으로 챙겨드린 경험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인가구의 남성은 이런 일들을 자주 해드렸다는 비율이 매우 낮은 특징을 보인다. 혼인 지위에 따라서 보면, 1인가구 중 사별을 한 경우는 부모님에게 집안일이나 건강 돌보기를 자주 해드린 비율이 46.2%로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고, 이별이나 별거한 경우는 전혀 해드리지 않은 비율이 24.4%로 높으며 자주 해드렸다는 비율은 7.8%로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고졸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그룹은 전혀 해드리지 않은 비율이 26.1%로 높고 자주 해드린 비율은 6.8%로 다른 그룹과 비교해 낮다. 1인가구 중 일을 하는 경우는 전혀 해드리지 않았다는 비율이 13.5%이고, 가끔 해드렸다는 비율이 42.0%로 높다. 일을 하지 않는 1인가구는 전혀 해드리지 않은 비율이 23.0%로 높고 자주 해드렸다는 비율이 21.3%로 일을 하는 가구보다 높았다. 일을 하는 경우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부모님에게 물리적인 도움을 자주 드리지는 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다인가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5-11> 부모님께 집안일 혹은 건강 돌보기 해드린 경험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 전혀 해드리지 않았다 | 거의 해드리지 않았다 | 가끔 해드 렸다 | 자주 해드 렸다 | χ^2 | (명) | 전혀 해드리지 않았다 | 거의 해드리지 않았다 | 가끔 해드 렸다 | 자주 해드 렸다 | χ^2 | (명) | |
| 전체 | 15.2 | 31.5 | 40.7 | 12.6 | - | (349) | 9.9 | 26.9 | 45.8 | 17.4 | - | (465) | |
| 성별 | 남자 | 18.3 | 34.6 | 40.8 | 6.3 | 17.359** | 8.5 | 30.3 | 48.3 | 12.8 | 9.314* | (191) | |
| | 여자 | 11.4 | 27.8 | 40.5 | 20.3 | | (158) | 11.3 | 23.4 | 43.3 | | 22.1 | (231)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14.5 | 31.3 | 45.3 | 8.9 | 5.917 | 8.3 | 23.2 | 49.1 | 19.3 | 5.280 | (179) | |
| | 도지역 | 15.9 | 31.8 | 35.9 | 16.5 | | (170) | 11.4 | 30.4 | 42.6 | | 15.6 | (237) |
| 연령 | 45-49세 | 14.0 | 29.0 | 48.0 | 9.0 | 10.572 | 7.5 | 26.4 | 53.5 | 12.6 | 12.278 | (100) | |
| | 50-54세 | 11.4 | 37.5 | 40.9 | 10.2 | | (88) | 9.9 | 30.5 | 43.5 | | 16.0 | (131) |
| | 55-59세 | 16.9 | 25.8 | 39.3 | 18.0 | | (89) | 11.9 | 22.0 | 43.1 | | 22.9 | (109) |
| | 60-64세 | 19.4 | 34.7 | 31.9 | 13.9 | | (72) | 12.1 | 28.8 | 36.4 | | 22.7 | (66) |
| 혼인 지위 | 유배우 | 10.9 | 34.5 | 40.0 | 14.5 | 26.727** | 9.5 | 27.8 | 45.7 | 16.9 | - | (110) | |
| | 사별 | - | 38.5 | 15.4 | 46.2 | | (13) | - | - | 100.0 | | - | (2) |
| | 이혼·별거 미혼·비혼·기타 | 24.4 | 31.1 | 36.7 | 7.8 | | (90) | 10.5 | 26.3 | 42.1 | | 21.1 | (19)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26.1 | 30.7 | 36.4 | 6.8 | 16.650* | 13.7 | 24.8 | 38.5 | 23.1 | 8.314 | (88) | |
| | 대학교 | 10.0 | 30.8 | 43.6 | 15.6 | | (211) | 8.4 | 28.3 | 48.6 | | 14.7 | (286) |
| | 대학원 | 18.0 | 36.0 | 36.0 | 10.0 | | (50) | 9.7 | 24.2 | 46.8 | | 19.4 | (62) |
| 근로 여부 | 그렇다 | 13.5 | 33.7 | 42.0 | 10.8 | 10.532* | 8.0 | 28.7 | 49.1 | 14.2 | 16.366** | (288) | |
| | 아니다 | 23.0 | 21.3 | 34.4 | 21.3 | | (61) | 15.0 | 22.0 | 37.0 | | 26.0 | (127)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18.4 | 31.6 | 34.7 | 15.3 | 9.880 | 11.1 | 22.2 | 40.7 | 25.9 | 9.565 | (98) | |
| | 200~399 | 19.2 | 31.5 | 39.2 | 10.0 | | (130) | 11.0 | 32.3 | 38.6 | | 18.1 | (127) |
| | 400~599 | 8.6 | 32.9 | 47.1 | 11.4 | | (70) | 7.7 | 23.7 | 53.8 | | 14.8 | (169) |
| | 600 이상 | 7.8 | 29.4 | 47.1 | 15.7 | | (51) | 11.3 | 26.8 | 43.7 | | 18.3 | (142)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 12.6 | 28.1 | 43.7 | 15.6 | 8.126 | 10.3 | 29.0 | 44.0 | 16.7 | 6.349 | (167) | |
| | 전세 | 14.5 | 31.6 | 40.8 | 13.2 | | (76) | 10.4 | 16.4 | 50.7 | | 22.4 | (67) |
| | 월세 기타 | 19.8 | 36.8 | 35.8 | 7.5 | | (106) | 6.0 | 26.0 | 52.0 | | 16.0 | (50) |
| 주관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10.3 | 32.1 | 42.3 | 15.4 | 10.991 | 8.8 | 25.7 | 48.0 | 17.5 | 3.003 | (78) | |
| | 중하층 | 10.6 | 30.3 | 46.2 | 12.9 | | (132) | 9.5 | 29.5 | 45.0 | | 16.0 | (200) |
| | 하층 | 22.3 | 32.4 | 34.5 | 10.8 | | (139) | 12.8 | 23.4 | 43.6 | | 20.2 | (94)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3)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따로 사는 부모님의 개인적인 문제나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준 경험에 대해 알아본 결과, 1인가구는 가끔 해드렸다는 비율이 50.1%, 거의 해드리지 않았다는 비율은 21.8%, 자주 해드렸다는 비율은 18.6%, 전혀 해드리지 않았다는 비율은 9.5%로 나타났다. 다인가구의 경우는 가끔 해드렸다가 5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1인가구와 동일하나 그다음 높은 비율은 자주 해드렸다는 응답으로 26.0%였으며, 거의 해드리지 않았다는 15.5%, 전혀 해드리지 않았다는 4.3%로 나타나 1인가구와 다인가구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정서적 도움을 준 경험은 다인가구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자주 해드렸다는 응답이 35.5%인데 반해 남성은 16.7%에 그쳤다. 1인가구에서는 남성은 다인가구와 비슷한 수준의 15.2%가 자주 해드렸다는 응답을 했으나, 1인가구 여성은 자주 해드렸다는 비율이 22.8%에 그쳐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인가구와 1인가구 여성의 부모님에 대한 정서적 지원 경험의 차이를 찾아볼 수 있다. 1인가구는 교육수준이 고졸 이하인 그룹은 전혀 해드리지 않았다는 비율이 22.7%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매우 자주 해드렸다는 비율은 9.1%로 낮은 특징을 보였다. 다인가구는 근로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근로를 하는 경우는 가끔 해드린 비율이 57.4%, 자주 해드린 비율은 21.9%인데,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는 가끔 해드린 비율이 45.7%, 자주 해드린 비율은 37.0%으로 그룹 간 차이를 보였다. 다인가구는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부모님에게 정서적 도움을 준 자주 준 비율이 높은 것인데, 1인가구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다인가구와 다르게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부모님에게 정서적 도움을 자주 준 비율이 11.5%로 근로를 하는 경우의 20.1%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나 다인가구와 다른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1인가구는 가구 소득과 주관적 경제 수준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다. 소득 및 경제 수준이 낮은 그룹이 부모님에게 정서적 지원을 전혀 해 드린 경험이 없는 비율이 높았고, 높은 그룹은 자주 해드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다인가구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가구소득이 199만 원 이하로 가장 낮은 그룹이 정서적 지원을 자주 했다는 응답 비율이 37.0%로 다른 소득그룹보다 오히려 높아 1인가구와 정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이는 앞서 부모님과 만남이나 연락을 자주 하는 비율이 1인가구가 다인가구 보다 낮고, 만남과 연락 자체에서부터 소득이나 경제적 수준, 근로 여부 등 경제적 수준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특성들로 인해, 부모님에게 해드리는 정서적인 지원에까지도

1인가구 본인의 경제적 조건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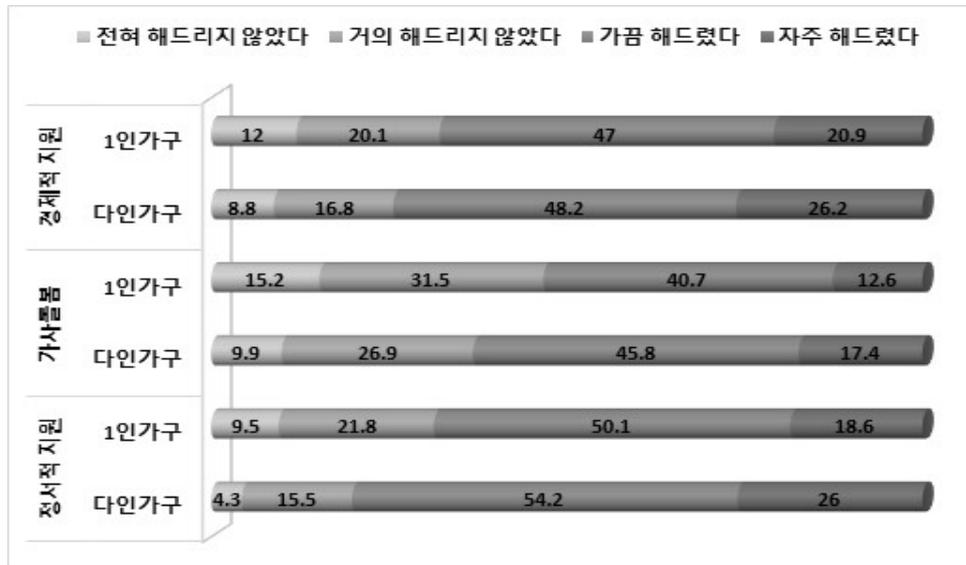
<표 5-12> 부모님 개인적인 문제나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 들어준 경험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 | 전혀 해당 하지 않았다 | 거의 해당 하지 않았다 | 가끔 해당 했다 | 자주 해당 했다 | χ^2 | (명) | 전혀 해당 하지 않았다 | 거의 해당 하지 않았다 | 가끔 해당 했다 | 자주 해당 했다 | χ^2 | (명) | | |
| 전체 | 9.5 | 21.8 | 50.1 | 18.6 | - | (349) | 4.3 | 15.5 | 54.2 | 26.0 | - | (465) | | |
| 성별 | 남자 | 8.9 | 26.7 | 49.2 | 15.2 | 7.592 | (191) | 4.3 | 21.4 | 57.7 | 16.7 | 27.437 | (234) | |
| | 여자 | 10.1 | 15.8 | 51.3 | 22.8 | | (158) | 4.3 | 9.5 | 50.6 | 35.5 | *** | (231) |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9.5 | 21.8 | 49.2 | 19.6 | 0.241 | (179) | 3.1 | 13.2 | 59.2 | 24.6 | 5.583 | (228) | |
| | 도지역 | 9.4 | 21.8 | 51.2 | 17.6 | | (170) | 5.5 | 17.7 | 49.4 | 27.4 | | (237) | |
| 연령 | 45-49세 | 5.0 | 23.0 | 51.0 | 21.0 | 10.098 | (100) | 4.4 | 17.6 | 54.7 | 23.3 | 4.193 | (159) | |
| | 50-54세 | 6.8 | 19.3 | 52.3 | 21.6 | | (88) | 2.3 | 14.5 | 56.5 | 26.7 | | (131) | |
| | 55-59세 | 11.2 | 20.2 | 51.7 | 16.9 | | (89) | 5.5 | 15.6 | 51.4 | 27.5 | | (109) | |
| | 60-64세 | 16.7 | 25.0 | 44.4 | 13.9 | | (72) | 6.1 | 12.1 | 53.0 | 28.8 | | (66) | |
| 혼인 지위 | 유배우 | 6.4 | 18.2 | 52.7 | 22.7 | 9.514 | (110) | 3.9 | 16.0 | 53.6 | 26.5 | - | (431) | |
| | 사별 | 7.7 | 23.1 | 53.8 | 15.4 | | (13) | - | - | 100.0 | - | | (2) | |
| | 이혼 별거 | 15.6 | 22.2 | 50.0 | 12.2 | | (90) | 5.3 | 15.8 | 57.9 | 21.1 | | (19) | |
| | 미혼·비혼·기타 | 8.1 | 24.3 | 47.8 | 19.9 | | (136) | 15.4 | - | 61.5 | 23.1 | | (13) |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22.7 | 21.6 | 46.6 | 9.1 | 38.852 | (88) | 5.1 | 15.4 | 50.4 | 29.1 | 5.152 | (117) | |
| | 대학교 | 4.3 | 20.9 | 53.6 | 21.3 | | (211) | 3.5 | 16.8 | 53.8 | 25.9 | | (286) | |
| | 대학원 | 8.0 | 26.0 | 42.0 | 24.0 | | (50) | 6.5 | 9.7 | 62.9 | 21.0 | | (62) | |
| 근로 여부 | 그렇다 | 8.0 | 21.2 | 50.7 | 20.1 | 6.160 | (288) | 3.8 | 16.9 | 57.4 | 21.9 | 12.565 | (338) | |
| | 아니다 | 16.4 | 24.6 | 47.5 | 11.5 | | (61) | 5.5 | 11.8 | 45.7 | 37.0 | ** | (127) |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17.3 | 27.6 | 40.8 | 14.3 | 22.552 | (98) | 7.4 | 14.8 | 40.7 | 37.0 | 3.851 | (27) | |
| | 200~399 | 8.5 | 21.5 | 51.5 | 18.5 | | (130) | 4.7 | 15.7 | 55.1 | 24.4 | | (127) | |
| | 400~599 | 5.7 | 17.1 | 61.4 | 15.7 | | ** | (70) | 3.6 | 14.2 | 56.8 | | 25.4 | (169) |
| | 600 이상 | 2.0 | 17.6 | 49.0 | 31.4 | | (51) | 4.2 | 16.9 | 52.8 | 26.1 | | (142) |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 7.2 | 16.2 | 56.9 | 19.8 | 11.791 | (167) | 5.2 | 15.8 | 54.6 | 24.4 | 6.694 | (348) | |
| | 전세 | 7.9 | 26.3 | 46.1 | 19.7 | | (76) | 3.0 | 14.9 | 56.7 | 25.4 | | (67) | |
| | 월세 기타 | 14.2 | 27.4 | 42.5 | 16.0 | | (106) | - | 14.0 | 48.0 | 38.0 | | (50) | |
| 주관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1.3 | 23.1 | 50.0 | 25.6 | 19.422 | (78) | 4.7 | 14.0 | 53.8 | 27.5 | 4.626 | (171) | |
| | 중하층 | 6.8 | 18.9 | 55.3 | 18.9 | | ** | (132) | 3.0 | 16.5 | 57.5 | | 23.0 | (200) |
| | 하층 | 16.5 | 23.7 | 45.3 | 14.4 | | (139) | 6.4 | 16.0 | 47.9 | 29.8 | | (94) |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3)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단위: %)



<그림 5-2> 부모님께 경제적·가사돌봄·정서적 지원을 제공해 준 경험 : 1인가구와 다인가구

2) 부모님의 지원을 받은 경험 : 경제·가사돌봄·정서적 지원

지금까지 부모님에게 해드린 일들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반대로 부모님이 해주신 일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우선, 경제적 지원에 있어서는 1인가구는 가끔 해주셨다는 응답이 35.5%, 거의 해주시지 않았다는 응답은 30.9%, 전혀 해주시지 않았다는 응답은 28.9%, 자주 해주셨다는 응답은 4.6%로 나타났다. 다인가구는 가끔 해주셨다는 비율은 35.1%, 거의 해주시지 않았다는 응답은 29.0%, 전혀 해주시지 않았다는 응답은 27.1%, 자주 해주셨다는 응답 비율은 8.8%로 해주시지 않은 쪽의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13> 부모님의 지원을 받은 경험: 경제적 지원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 전혀 시지 않았다 | 거의 시지 않았다 | 가끔 했다 | 자주 했다 | χ^2 | (명) | 전혀 시지 않았다 | 거의 시지 않았다 | 가끔 했다 | 자주 했다 | χ^2 | (명) | |
| 전체 | 28.9 | 30.9 | 35.5 | 4.6 | - | (349) | 27.1 | 29.0 | 35.1 | 8.8 | - | (465) | |
| 성별 | 남자 | 28.8 | 33.5 | 34.0 | 3.7 | 1.943 | (191) | 21.4 | 33.8 | 35.0 | 9.8 | 9.881* | (234) |
| | 여자 | 29.1 | 27.8 | 37.3 | 5.7 | | (158) | 32.9 | 24.2 | 35.1 | 7.8 | | (231)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29.6 | 31.3 | 35.2 | 3.9 | 0.446 | (179) | 23.2 | 28.9 | 39.0 | 8.8 | 4.474 | (228) |
| | 도지역 | 28.2 | 30.6 | 35.9 | 5.3 | | (170) | 30.8 | 29.1 | 31.2 | 8.9 | | (237) |
| 연령 | 45-49세 | 27.0 | 41.0 | 29.0 | 3.0 | - | (100) | 15.1 | 27.7 | 47.2 | 10.1 | - | (159) |
| | 50-54세 | 23.9 | 23.9 | 47.7 | 4.5 | - | (88) | 30.5 | 25.2 | 37.4 | 6.9 | 32.659*** | (131) |
| | 55-59세 | 31.5 | 28.1 | 33.7 | 6.7 | (89) | 38.5 | 32.1 | 20.2 | 9.2 | (109) | | |
| | 60-64세 | 34.7 | 29.2 | 31.9 | 4.2 | (72) | 30.3 | 34.8 | 25.8 | 9.1 | (66) | | |
| 혼인 지위 | 유배우 | 23.6 | 32.7 | 40.0 | 3.6 | - | (110) | 26.9 | 29.9 | 34.8 | 8.4 | - | (431) |
| | 사별 | 46.2 | 7.7 | 38.5 | 7.7 | - | (13) | - | - | 100.0 | - | - | (2) |
| | 이혼 별거 | 33.3 | 23.3 | 40.0 | 3.3 | - | (90) | 42.1 | 10.5 | 42.1 | 5.3 | - | (19) |
| | 미혼·비혼·기타 | 28.7 | 36.8 | 28.7 | 5.9 | - | (136) | 15.4 | 30.8 | 23.1 | 30.8 | - | (13)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37.5 | 30.7 | 28.4 | 3.4 | - | (88) | 35.0 | 29.1 | 25.6 | 10.3 | - | (117) |
| | 대학교 | 25.1 | 29.9 | 40.3 | 4.7 | 7.699 | (211) | 25.5 | 30.1 | 37.1 | 7.3 | 11.682 | (286) |
| | 대학원 | 30.0 | 36.0 | 28.0 | 6.0 | - | (50) | 19.4 | 24.2 | 43.5 | 12.9 | - | (62) |
| 근로 여부 | 그렇다 | 29.2 | 30.6 | 36.1 | 4.2 | 0.894 | (288) | 23.7 | 30.5 | 37.3 | 8.6 | 8.079* | (338) |
| | 아니다 | 27.9 | 32.8 | 32.8 | 6.6 | | (61) | 36.2 | 25.2 | 29.1 | 9.4 | | (127)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34.7 | 27.6 | 34.7 | 3.1 | - | (98) | 18.5 | 37.0 | 25.9 | 18.5 | - | (27) |
| | 200~399 | 32.3 | 33.1 | 30.8 | 3.8 | 9.713 | (130) | 29.1 | 20.5 | 36.2 | 14.2 | 18.825* | (127) |
| | 400~599 | 20.0 | 34.3 | 38.6 | 7.1 | | (70) | 26.0 | 31.4 | 38.5 | 4.1 | | (169) |
| | 600 이상 | 21.6 | 27.5 | 45.1 | 5.9 | | (51) | 28.2 | 32.4 | 31.7 | 7.7 | | (142)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 25.1 | 27.5 | 41.3 | 6.0 | - | (167) | 30.5 | 26.1 | 33.9 | 9.5 | - | (348) |
| | 전세 | 27.6 | 32.9 | 35.5 | 3.9 | 9.426 | (76) | 16.4 | 40.3 | 37.3 | 6.0 | 11.555 | (67) |
| | 월세 기타 | 35.8 | 34.9 | 26.4 | 2.8 | - | (106) | 18.0 | 34.0 | 40.0 | 8.0 | - | (50) |
| 주관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21.8 | 26.9 | 43.6 | 7.7 | - | (78) | 29.2 | 32.7 | 31.6 | 6.4 | - | (171) |
| | 중하층 | 26.5 | 34.8 | 33.3 | 5.3 | 10.124 | (132) | 28.5 | 28.5 | 35.0 | 8.0 | 10.828 | (200) |
| | 하층 | 35.3 | 29.5 | 33.1 | 2.2 | - | (139) | 20.2 | 23.4 | 41.5 | 14.9 | - | (94)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3)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은 다인가구의 성별, 연령, 근로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다인가구의 경우 부모님이 경제적 지원을 전혀 해주시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성은 32.9%, 남성은 21.4%로 차이를 보였고, 40대는 전혀 해주시지 않았다는 비율이 15.1%로 다른 연령대가 모두 30% 이상으로 나타난 것과 차이를 보였다. 근로를 하지 않는 다인가구의 경우 부모님이 경제적 지원을 전혀 해주지 않았다는 비율이 36.2%이고 근로를 하는 경우는 23.7%로 차이를 보였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199만원 이하의 그룹이 전혀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비율이 18.5%로 다른 소득 그룹보다 낮았고, 자주 받았다는 비율은 18.5%로 다른 그룹보다 높아 소득이 적은 다인가구에게는 부모님이 경제적 지원을 자주 해주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이 청소, 식사준비, 장보기, 심부름 등 집안일이나 건강 돌보기를 해준 경험을 알아보면, 1인가구는 전혀 해주시지 않았다는 비율이 33.5%, 가끔 해주셨다는 비율은 30.4%, 거의 해주시지 않았다는 비율은 28.9%, 자주 해주셨다는 비율은 7.2%로 나타났다. 다인가구 역시 전혀 해주시지 않았다는 응답이 3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끔 해주셨다는 비율은 27.3%, 거의 해주시지 않았다는 응답은 24.9%, 자주 해주셨다는 비율은 10.1%로 나타났다.

이러한 물리적인 지원을 부모님께 받은 경험에 대해서는 다인가구의 경우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고, 1인가구는 주관적 경제 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다인가구의 경우 이러한 도움을 부모님으로부터 전혀 받아보지 않았다고 응답한 여성이 43.7%, 남성은 31.6%로 여성이 남성보다 전혀 받지 보지 못한 비율이 높았다. 이는 앞서 알아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경제적인 지원에서도 다인가구의 여성이 전혀 받아보지 않은 비율이 높은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1인가구에서는 주관적 경제 수준이 하층의 경우 부모님이 집안일이나 건강 챙기기 등을 전혀 해주시지 않았다는 비율이 45.3%로 중하층의 28.0%나 중상층의 21.8%보다 높아 차이를 보였다. 또한 가끔 받거나 자주 받은 비율 또한 다른 그룹보다 낮은 것을 볼 수 있어 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1인가구는 경제적인 지원이 아닌 물리적인 도움도 부모님에게 전혀 받아보지 못하는 분위기를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다인가구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경제적 수준이 하층인 그룹이 전혀 도움을 받아본 적 없다는 비율이 가장 높지도 않고, 이 응답에 대한 계층간의 차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1인가구와의 차이를 찾아볼 수 있다.

<표 5-14> 부모님의 지원을 받은 경험: 집안일과 돌봄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 전혀 하지 않았다 | 거의 하지 않았다 | 가끔 했다 | 자주 했다 | χ^2 | (명) | 전혀 하지 않았다 | 거의 하지 않았다 | 가끔 했다 | 자주 했다 | χ^2 | (명) | |
| 전체 | 33.5 | 28.9 | 30.4 | 7.2 | - | (349) | 37.6 | 24.9 | 27.3 | 10.1 | - | (465) | |
| 성별 | 남자 | 33.0 | 28.3 | 31.9 | 6.8 | 0.517 | (191) | 31.6 | 29.1 | 28.6 | 10.7 | 8.172* | (234) |
| | 여자 | 34.2 | 29.7 | 28.5 | 7.6 | | (158) | 43.7 | 20.8 | 26.0 | 9.5 | | (231)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30.2 | 31.3 | 30.7 | 7.8 | 2.171 | (179) | 32.9 | 25.9 | 29.8 | 11.4 | 4.603 | (228) |
| | 도지역 | 37.1 | 26.5 | 30.0 | 6.5 | | (170) | 42.2 | 24.1 | 24.9 | 8.9 | | (237) |
| 연령 | 45-49세 | 29.0 | 22.0 | 40.0 | 9.0 | 16.133 | (100) | 26.4 | 30.2 | 32.7 | 10.7 | 16.803 | (159) |
| | 50-54세 | 28.4 | 35.2 | 29.5 | 6.8 | | (88) | 38.9 | 24.4 | 27.5 | 9.2 | | (131) |
| | 55-59세 | 32.6 | 34.8 | 24.7 | 7.9 | | (89) | 48.6 | 20.2 | 20.2 | 11.0 | | (109) |
| | 60-64세 | 47.2 | 23.6 | 25.0 | 4.2 | | (72) | 43.9 | 21.2 | 25.8 | 9.1 | | (66) |
| 혼인 지위 | 유배우 | 30.0 | 36.4 | 28.2 | 5.5 | - | (110) | 37.8 | 25.8 | 27.4 | 9.0 | - | (431) |
| | 사별 | 61.5 | 23.1 | 7.7 | 7.7 | | (13) | - | - | 50.0 | 50.0 | | (2) |
| | 이혼 | 42.2 | 22.2 | 28.9 | 6.7 | | (90) | 52.6 | 15.8 | 26.3 | 5.3 | | (19) |
| | 미혼·비혼·기타 | 27.9 | 27.9 | 35.3 | 8.8 | | (136) | 15.4 | 15.4 | 23.1 | 46.2 | | (13)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46.6 | 27.3 | 21.6 | 4.5 | 12.264 | (88) | 42.7 | 21.4 | 23.1 | 12.8 | 8.811 | (117) |
| | 대학교 | 27.5 | 30.3 | 34.6 | 7.6 | | (211) | 38.5 | 25.5 | 27.6 | 8.4 | | (286) |
| | 대학원 | 36.0 | 26.0 | 28.0 | 10.0 | | (50) | 24.2 | 29.0 | 33.9 | 12.9 | | (62) |
| 근로 여부 | 그렇다 | 31.3 | 30.6 | 31.6 | 6.6 | 5.580 | (288) | 34.0 | 26.3 | 29.6 | 10.1 | 7.585 | (338) |
| | 아니다 | 44.3 | 21.3 | 24.6 | 9.8 | | (61) | 47.2 | 21.3 | 21.3 | 10.2 | | (127)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42.9 | 27.6 | 24.5 | 5.1 | 11.309 | (98) | 33.3 | 29.6 | 14.8 | 22.2 | 13.878 | (27) |
| | 200~399 | 35.4 | 26.9 | 30.8 | 6.9 | | (130) | 38.6 | 16.5 | 33.1 | 11.8 | | (127) |
| | 400~599 | 22.9 | 32.9 | 32.9 | 11.4 | | (70) | 37.3 | 27.2 | 26.6 | 8.9 | | (169) |
| | 600 이상 | 25.5 | 31.4 | 37.3 | 5.9 | | (51) | 38.0 | 28.9 | 25.4 | 7.7 | | (142)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 29.9 | 29.3 | 33.5 | 7.2 | 8.408 | (167) | 40.8 | 25.9 | 23.9 | 9.5 | 11.789 | (348) |
| | 전세 | 27.6 | 31.6 | 30.3 | 10.5 | | (76) | 31.3 | 22.4 | 34.3 | 11.9 | | (67) |
| | 월세 기타 | 43.4 | 26.4 | 25.5 | 4.7 | | (106) | 24.0 | 22.0 | 42.0 | 12.0 | | (50) |
| 주관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21.8 | 33.3 | 34.6 | 10.3 | 16.060* | (78) | 32.7 | 32.2 | 22.8 | 12.3 | 10.912 | (171) |
| | 중하층 | 28.0 | 30.3 | 34.1 | 7.6 | | (132) | 41.0 | 21.0 | 29.0 | 9.0 | | (200) |
| | 하층 | 45.3 | 25.2 | 24.5 | 5.0 | | (139) | 39.4 | 20.2 | 31.9 | 8.5 | | (94)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3)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부모님이 나의 개인적인 문제나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등 정서적인 지원을 얼마나 자주 해주는지 살펴보았다. 1인가구는 가끔 해주셨다는 응답이 40.1%, 거의 해주시지 않으셨다는 응답은 29.8%, 전혀 해주시지 않으셨다는 응답은 19.5%, 자주 해주셨다는 응답은 10.6%로 나타났다. 다인가구는 가끔 해주셨다는 응답 비율이 42.2%, 거의 해주시지 않으셨다는 응답이 25.4%, 전혀 해주시지 않으셨다는 비율은 17.2%, 자주 해주셨다는 응답은 15.3%로 나타났다.

부모님이 해주신 정서적 지원에서도 역시 다인가구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경제적 지원이나 물리적 지원에서의 차이와는 달리 정서적 지원은 다인가구의 여성이 자주 받았다는 응답이 21.6%로 매우 높고 남성은 9.0%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1인가구는 교육수준, 가구소득, 주관적 경제 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고졸 이하인 경우는 부모님에게 정서적 지원을 자주 받았다는 응답이 3.4%로 매우 낮고, 대학원 이상인 경우는 16.0%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고졸 이하는 부모님이 전혀 정서적 지원을 해주시지 않았다는 응답이 31.8%로 높고, 대졸 학력을 가진 그룹은 13.3%로 낮아 이 또한 차이를 보였다. 가구소득은 낮을수록 전혀 받아보지 않았다는 비율이 상승해 199만 원 이하의 그룹은 31.6%로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자주 받았다는 응답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증가해 6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1인가구는 23.5%로 높게 나타나 가수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와 비슷하게 주관적 경제 수준도 높아질수록 부모님의 정서적 지원을 자주 받는 비율이 높아지고 전혀 받지 않는 비율은 주관적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표 5-15> 부모님의 지원을 받은 경험: 정서적 지원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 전혀 시지 않았다 | 거의 시지 않았다 | 가끔 시켰다 | 자주 시켰다 | χ^2 | (명) | 전혀 시지 않았다 | 거의 시지 않았다 | 가끔 시켰다 | 자주 시켰다 | χ^2 | (명) | |
| 전체 | 19.5 | 29.8 | 40.1 | 10.6 | - | (349) | 17.2 | 25.4 | 42.2 | 15.3 | - | (465) | |
| 성별 | 남자 | 18.3 | 31.9 | 41.4 | 8.4 | 3.071 | 15.4 | 32.1 | 43.6 | 9.0 | 21.631*** | (234) | |
| | 여자 | 20.9 | 27.2 | 38.6 | 13.3 | | (158) | 19.0 | 18.6 | 40.7 | | 21.6 | (231)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16.8 | 31.3 | 40.8 | 11.2 | 1.826 | 12.3 | 28.5 | 44.3 | 14.9 | 8.560* | (228) | |
| | 도지역 | 22.4 | 28.2 | 39.4 | 10.0 | | (170) | 21.9 | 22.4 | 40.1 | | 15.6 | (237) |
| 연령 | 45-49세 | 16.0 | 30.0 | 42.0 | 12.0 | 14.765 | 11.9 | 24.5 | 46.5 | 17.0 | 12.971 | (100) | |
| | 50-54세 | 17.0 | 31.8 | 45.5 | 5.7 | | (88) | 13.7 | 28.2 | 43.5 | | 14.5 | (131) |
| | 55-59세 | 18.0 | 27.0 | 37.1 | 18.0 | | (89) | 23.9 | 25.7 | 34.9 | | 15.6 | (109) |
| | 60-64세 | 29.2 | 30.6 | 34.7 | 5.6 | | (72) | 25.8 | 21.2 | 40.9 | | 12.1 | (66) |
| 혼인 지위 | 유배우 | 16.4 | 30.0 | 40.9 | 12.7 | 8.627 | 16.9 | 26.7 | 41.5 | 14.8 | - | (110) | |
| | 사별 | 38.5 | 30.8 | 23.1 | 7.7 | | (13) | - | - | 100.0 | | - | (2) |
| | 이혼 별거 | 24.4 | 23.3 | 43.3 | 8.9 | | (90) | 26.3 | 10.5 | 47.4 | | 15.8 | (19) |
| | 미혼·비혼·기타 | 16.9 | 33.8 | 39.0 | 10.3 | | (136) | 15.4 | 7.7 | 46.2 | | 30.8 | (13)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31.8 | 29.5 | 35.2 | 3.4 | 20.613** | 19.7 | 24.8 | 42.7 | 12.8 | 6.510 | (88) | |
| | 대학교 | 13.3 | 32.2 | 42.2 | 12.3 | | (211) | 17.8 | 26.9 | 39.9 | | 15.4 | (286) |
| | 대학원 | 24.0 | 20.0 | 40.0 | 16.0 | | (50) | 9.7 | 19.4 | 51.6 | | 19.4 | (62) |
| 근로 여부 | 그렇다 | 17.7 | 29.9 | 41.3 | 11.1 | 3.669 | 16.0 | 26.6 | 43.5 | 13.9 | 3.882 | (288) | |
| | 아니다 | 27.9 | 29.5 | 34.4 | 8.2 | | (61) | 20.5 | 22.0 | 38.6 | | 18.9 | (127)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31.6 | 28.6 | 34.7 | 5.1 | 24.715** | 18.5 | 33.3 | 25.9 | 22.2 | 5.907 | (98) | |
| | 200~399 | 17.7 | 32.3 | 40.8 | 9.2 | | (130) | 19.7 | 23.6 | 39.4 | | 17.3 | (127) |
| | 400~599 | 12.9 | 30.0 | 45.7 | 11.4 | | (70) | 15.4 | 26.6 | 44.4 | | 13.6 | (169) |
| | 600 이상 | 9.8 | 25.5 | 41.2 | 23.5 | | (51) | 16.9 | 23.9 | 45.1 | | 14.1 | (142)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 15.0 | 25.7 | 47.9 | 11.4 | 15.360** | 19.3 | 26.1 | 39.4 | 15.2 | 6.739 | (167) | |
| | 전세 | 17.1 | 40.8 | 32.9 | 9.2 | | (76) | 11.9 | 23.9 | 50.7 | | 13.4 | (67) |
| | 월세 기타 | 28.3 | 28.3 | 33.0 | 10.4 | | (106) | 10.0 | 22.0 | 50.0 | | 18.0 | (50) |
| 주관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10.3 | 24.4 | 43.6 | 21.8 | 30.917*** | 14.0 | 26.9 | 43.9 | 15.2 | 3.932 | (78) | |
| | 중하층 | 15.2 | 34.1 | 42.4 | 8.3 | | (132) | 19.0 | 26.0 | 41.5 | | 13.5 | (200) |
| | 하층 | 28.8 | 28.8 | 36.0 | 6.5 | | (139) | 19.1 | 21.3 | 40.4 | | 19.1 | (94)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3)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나. 성인 자녀와의 상호 지원: 경제·가사돌봄·정서적 지원

1) 성인 자녀를 지원해준 경험

성인 자녀가 있는 경우 본인이 성인 자녀에게 해준 일을 알아보았는데, 먼저 경제적 지원을 해준 경험에 대해 살펴보았다. 1인가구는 가끔 해주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42.8%, 자주 해주었다는 응답은 26.2%, 거의 해주지 않았다는 17.9%, 전혀 해주지 않았다는 응답은 13.1%로 나타났다. 다인가구는 1인가구와 달리 자주 해주었다는 응답이 37.2%로 가장 높고, 가끔 해주었다는 응답은 36.6%, 거의 해주지 않았다는 비율은 19.1%, 전혀 해주지 않았다는 응답은 7.1%로 나타났다.

성인 자녀에게 해 준 경제적 지원에서는 기대빈도가 낮은 셀이 많아 통계적인 차이 검증 값을 제시하지 않았다. 통계적 차이를 구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눈에 띄는 차이를 보면 다인가구의 남성은 경우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자주 해주었다는 비율이 46.6%로 여성의 30.3%보다 높았다. 하지만 1인가구는 성별에 따라 응답 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다인가구의 50-54세는 자주 해주었다는 비율이 56.4%로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이고, 1인가구에서는 전혀 해주지 않았다는 비율이 가구 소득 199만 원 이하인 경우 24.6%로 높게 나타난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표 5-16> 성인자녀에게 지원 해 준 경험 : 경제적 지원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전혀 해주지 않았다 | 거의 해주지 않았다 | 가끔 해주었다 | 자주 해주었다 | (명) | 전혀 해주지 않았다 | 거의 해주지 않았다 | 가끔 해주었다 | 자주 해주었다 | (명) | |
| 전체 | 13.1 | 17.9 | 42.8 | 26.2 | (229) | 7.1 | 19.1 | 36.6 | 37.2 | (309) | |
| 성별 | 남자 | 11.5 | 18.6 | 44.2 | 25.7 | (113) | 5.3 | 12.2 | 35.9 | 46.6 | (131) |
| | 여자 | 14.7 | 17.2 | 41.4 | 26.7 | (116) | 8.4 | 24.2 | 37.1 | 30.3 | (178)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15.3 | 16.2 | 44.1 | 24.3 | (111) | 7.8 | 19.1 | 41.1 | 31.9 | (141) |
| | 도지역 | 11.0 | 19.5 | 41.5 | 28.0 | (118) | 6.5 | 19.0 | 32.7 | 41.7 | (168) |
| 거주 권역 | 서울 | 11.4 | 17.1 | 37.1 | 34.3 | (35) | 10.8 | 24.3 | 37.8 | 27.0 | (37) |
| | 인천·경기·강원 | 13.8 | 21.5 | 46.2 | 18.5 | (65) | 7.2 | 20.6 | 38.1 | 34.0 | (97) |
| | 충청권 | 11.1 | 18.5 | 40.7 | 29.6 | (27) | 2.5 | 15.0 | 35.0 | 47.5 | (40) |
| | 전라권 | 15.2 | 21.2 | 39.4 | 24.2 | (33) | 7.3 | 22.0 | 36.6 | 34.1 | (41) |
| | 경북권 | 13.8 | 10.3 | 44.8 | 31.0 | (29) | 10.5 | 13.2 | 31.6 | 44.7 | (38) |
| | 경남권 | 12.5 | 15.0 | 45.0 | 27.5 | (40) | 5.4 | 17.9 | 37.5 | 39.3 | (56) |
| 연령 | 45-49세 | - | - | 42.9 | 57.1 | (7) | - | 18.8 | 37.5 | 43.8 | (16) |
| | 50-54세 | 12.8 | 6.4 | 38.3 | 42.6 | (47) | 1.8 | 18.2 | 23.6 | 56.4 | (55) |
| | 55-59세 | 8.6 | 18.5 | 44.4 | 28.4 | (81) | 8.0 | 18.6 | 34.5 | 38.9 | (113) |
| | 60-64세 | 18.1 | 24.5 | 43.6 | 13.8 | (94) | 9.6 | 20.0 | 44.0 | 26.4 | (125) |
| 혼인 지위 | 유배우 | 7.5 | 10.4 | 47.2 | 34.9 | (106) | 6.1 | 17.6 | 37.4 | 38.8 | (278) |
| | 사별 | 11.8 | 11.8 | 35.3 | 41.2 | (17) | 25.0 | 25.0 | 25.0 | 25.0 | (4) |
| | 이혼·별거 | 19.0 | 26.7 | 39.0 | 15.2 | (105) | 16.0 | 32.0 | 28.0 | 24.0 | (25) |
| | 미혼·비혼·기타 | - | - | 100.0 | - | (1) | - | 50.0 | 50.0 | - | (2)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17.8 | 24.7 | 38.4 | 19.2 | (73) | 13.5 | 25.0 | 34.4 | 27.1 | (96) |
| | 대학교 | 10.9 | 17.1 | 42.6 | 29.5 | (129) | 4.0 | 15.9 | 37.5 | 42.6 | (176) |
| | 대학원 | 11.1 | 3.7 | 55.6 | 29.6 | (27) | 5.4 | 18.9 | 37.8 | 37.8 | (37) |
| 근로 여부 | 그렇다 | 10.1 | 17.9 | 44.0 | 28.0 | (168) | 5.5 | 13.6 | 37.2 | 43.7 | (199) |
| | 아니다 | 21.3 | 18.0 | 39.3 | 21.3 | (61) | 10.0 | 29.1 | 35.5 | 25.5 | (110)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24.6 | 30.4 | 34.8 | 10.1 | (69) | 12.5 | 12.5 | 41.7 | 33.3 | (24) |
| | 200~399 | 12.9 | 11.8 | 51.8 | 23.5 | (85) | 7.1 | 25.5 | 40.8 | 26.5 | (98) |
| | 400~599 | - | 17.5 | 42.5 | 40.0 | (40) | 4.5 | 18.8 | 37.5 | 39.3 | (112) |
| | 600 이상 | 5.7 | 8.6 | 37.1 | 48.6 | (35) | 9.3 | 13.3 | 28.0 | 49.3 | (75)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 7.6 | 16.0 | 42.0 | 34.5 | (119) | 7.2 | 19.0 | 34.2 | 39.7 | (237) |
| | 전세 | 15.8 | 18.4 | 50.0 | 15.8 | (38) | 5.4 | 18.9 | 43.2 | 32.4 | (37) |
| | 월세 기타 | 20.8 | 20.8 | 40.3 | 18.1 | (72) | 8.6 | 20.0 | 45.7 | 25.7 | (35) |
| 주관 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4.2 | 10.4 | 43.8 | 41.7 | (48) | 5.7 | 13.6 | 35.2 | 45.5 | (88) |
| | 중하층 | 11.4 | 15.2 | 43.0 | 30.4 | (79) | 4.8 | 21.2 | 36.3 | 37.7 | (146) |
| | 하층 | 18.6 | 23.5 | 42.2 | 15.7 | (102) | 13.3 | 21.3 | 38.7 | 26.7 | (75) |

주: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본인이 성인 자녀에게 청소, 식사준비, 장보기, 심부름 등 집안일이나 건강 돌보기와 같은 도움을 얼마나 주었는지 알아보면, 1인가구는 가끔 해주었다는 응답이 33.2%, 거의 해주지 않았다는 응답은 24.9%, 자주 해주었다는 비율은 22.7%, 그리고 전혀 해주지 않았다는 응답이 19.2%로 나타났다. 다인가구에서는 가끔 해주었다는 응답이 38.2%, 그다음은 자주 해주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24.6%로 1인가구와 다른 경향을 보였다. 거의 해주지 않았다는 비율은 20.4%, 전혀 해주지 않았다는 응답은 16.8%로 나타났다.

성인자녀에게 해준 물리적인 지원에서도 기대빈도가 작은 셀 값으로 인해 통계적 차이 검증에 대한 값은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빈도로 보았을 때 자녀에게 해주는 물리적인 지원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자주 해주는 비율이 높은 특징이 있다. 다인가구 중 경북에 거주하는 경우 자주 해주었다는 응답 비율이 34.2%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경제적 지원에서와 마찬가지로 물리적 지원에서도 경제적 수준이 낮은 1인가구의 경우 전혀 해주지 않았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가구소득 199만 원 이하의 1인가구는 34.8%, 주관적 경제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1인가구는 30.4%가 자녀에게 전혀 집안일이나 건강 돌보기와 같은 일을 해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7> 성인자녀에게 지원해준 경험: 집안일, 돌봄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전혀 해주지 않았다 | 거의 해주지 않았다 | 가끔 해주었다 | 자주 해주었다 | (명) | 전혀 해주지 않았다 | 거의 해주지 않았다 | 가끔 해주었다 | 자주 해주었다 | (명) | |
| 전체 | 19.2 | 24.9 | 33.2 | 22.7 | (229) | 16.8 | 20.4 | 38.2 | 24.6 | (309) | |
| 성별 | 남자 | 25.7 | 34.5 | 22.1 | 17.7 | (113) | 18.3 | 24.4 | 41.2 | 16.0 | (131) |
| | 여자 | 12.9 | 15.5 | 44.0 | 27.6 | (116) | 15.7 | 17.4 | 36.0 | 30.9 | (178)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21.6 | 25.2 | 32.4 | 20.7 | (111) | 15.6 | 17.7 | 43.3 | 23.4 | (141) |
| | 도지역 | 16.9 | 24.6 | 33.9 | 24.6 | (118) | 17.9 | 22.6 | 33.9 | 25.6 | (168) |
| 거주 권역 | 서울 | 17.1 | 17.1 | 22.9 | 42.9 | (35) | 21.6 | 18.9 | 29.7 | 29.7 | (37) |
| | 인천·경기·강원 | 21.5 | 23.1 | 32.3 | 23.1 | (65) | 15.5 | 20.6 | 38.1 | 25.8 | (97) |
| | 충청권 | 14.8 | 18.5 | 44.4 | 22.2 | (27) | 10.0 | 30.0 | 47.5 | 12.5 | (40) |
| | 전라권 | 12.1 | 42.4 | 33.3 | 12.1 | (33) | 26.8 | 22.0 | 34.1 | 17.1 | (41) |
| | 경북권 | 24.1 | 24.1 | 34.5 | 17.2 | (29) | 13.2 | 18.4 | 34.2 | 34.2 | (38) |
| | 경남권 | 22.5 | 25.0 | 35.0 | 17.5 | (40) | 16.1 | 14.3 | 42.9 | 26.8 | (56) |
| | 연령 | 45-49세 | 14.3 | - | 42.9 | 42.9 | (7) | 25.0 | 12.5 | 37.5 | 25.0 |
| 50-54세 | 14.9 | 19.1 | 29.8 | 36.2 | (47) | 9.1 | 23.6 | 36.4 | 30.9 | (55) | |
| 55-59세 | 16.0 | 22.2 | 35.8 | 25.9 | (81) | 19.5 | 21.2 | 36.3 | 23.0 | (113) | |
| 60-64세 | 24.5 | 31.9 | 31.9 | 11.7 | (94) | 16.8 | 19.2 | 40.8 | 23.2 | (125) | |
| 혼인 지위 | 유배우 | 12.3 | 19.8 | 40.6 | 27.4 | (106) | 16.2 | 20.5 | 39.9 | 23.4 | (278) |
| | 사별 | - | 17.6 | 41.2 | 41.2 | (17) | 25.0 | 25.0 | 50.0 | - | (4) |
| | 이혼·별거 | 29.5 | 30.5 | 24.8 | 15.2 | (105) | 24.0 | 16.0 | 16.0 | 44.0 | (25) |
| | 미혼·비혼·기타 | - | 100.0 | - | - | (1) | - | 50.0 | 50.0 | - | (2)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21.9 | 24.7 | 38.4 | 15.1 | (73) | 21.9 | 16.7 | 37.5 | 24.0 | (96) |
| | 대학교 | 20.2 | 27.9 | 26.4 | 25.6 | (129) | 13.6 | 21.0 | 39.2 | 26.1 | (176) |
| | 대학원 | 7.4 | 11.1 | 51.9 | 29.6 | (27) | 18.9 | 27.0 | 35.1 | 18.9 | (37) |
| 근로 여부 | 그렇다 | 16.7 | 28.0 | 31.5 | 23.8 | (168) | 16.6 | 20.6 | 40.7 | 22.1 | (199) |
| | 아니다 | 26.2 | 16.4 | 37.7 | 19.7 | (61) | 17.3 | 20.0 | 33.6 | 29.1 | (110)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34.8 | 20.3 | 34.8 | 10.1 | (69) | 8.3 | 12.5 | 45.8 | 33.3 | (24) |
| | 200~399 | 14.1 | 31.8 | 29.4 | 24.7 | (85) | 17.3 | 24.5 | 34.7 | 23.5 | (98) |
| | 400~599 | 7.5 | 30.0 | 40.0 | 22.5 | (40) | 20.5 | 16.1 | 42.9 | 20.5 | (112) |
| | 600 이상 | 14.3 | 11.4 | 31.4 | 42.9 | (35) | 13.3 | 24.0 | 33.3 | 29.3 | (75)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 9.2 | 23.5 | 38.7 | 28.6 | (119) | 15.6 | 21.5 | 41.8 | 21.1 | (237) |
| | 전세 | 21.1 | 18.4 | 42.1 | 18.4 | (38) | 16.2 | 18.9 | 29.7 | 35.1 | (37) |
| | 월세 기타 | 34.7 | 30.6 | 19.4 | 15.3 | (72) | 25.7 | 14.3 | 22.9 | 37.1 | (35) |
| 주관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6.3 | 27.1 | 35.4 | 31.3 | (48) | 14.8 | 19.3 | 37.5 | 28.4 | (88) |
| | 중하층 | 12.7 | 27.8 | 32.9 | 26.6 | (79) | 14.4 | 19.9 | 43.2 | 22.6 | (146) |
| | 하층 | 30.4 | 21.6 | 32.4 | 15.7 | (102) | 24.0 | 22.7 | 29.3 | 24.0 | (75) |

주: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자녀에게 해 준 물리적인 지원 중 하나일 수 있는 손자녀 돌봄도 알아보았다. 돌봄 손자녀가 있는 경우 응답을 하고 없는 경우 해당 없음에 응답을 하였다. 자녀를 위해 손자녀 돌봄을 얼마나 자주 해주었는지 알아보면, 우선 손자녀가 없어 해당 없다는 비율이 1인가구는 37.6%, 다인가구는 44.7%로 다인가구에서 해당 없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해당 없음 이외에 손자녀 돌봄이 가능한 경우 1인가구는 전혀 해주지 않았다는 비율이 28.9%, 거의 해주지 않았다는 응답은 13.1%, 가끔 해주었다는 비율은 10.9%, 자주 해주었다는 9.6%로 나타났다. 다인가구는 전혀 해주지 않은 경우가 28.8%, 자주 해주었다는 비율은 10.7%, 가끔 해주었다는 응답은 9.4%, 그리고 거의 해주지 않았다는 응답이 6.5%로 나타나 1인가구와 약간 다른 양상을 보였다.

손자녀 돌봄은 해당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없음에 대한 응답으로 인해 특성별 차이를 보일 수 있어 교차분석을 제외하였다. 일반적으로 손자녀 돌봄은 조부모 중에서도 조모가 하는 경우가 많다. 1인가구의 성별 구분을 보면, 자주 해주었다는 비율이 남성은 4.4%, 여성은 14.7%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자주 해주었다는 비율이 높았는데 1인가구는 12.8%, 다인가구는 21.6%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손자녀 돌봄을 전혀 해주지 않았다는 비율을 사례 수를 고려해 살펴보면, 이혼이나 별거한 1인가구가 40.0%, 가구소득이 199만 원 이하인 1인가구가 40.6%, 주관적 경제수준이 낮은 1인가구가 40.2% 등이 높게 나타났다. 다인가구에서는 일을 하는 경우 손자녀 돌봄을 자주 해주었다는 비율이 5.5%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일을 하지 않는 경우는 20.0%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5-18〉 손자녀 돌봐준 경험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 전혀 해주지 않았다 | 거의 해주지 않았다 | 가끔 해주었다 | 자주 해주었다 | 해당 없음 | (명) | 전혀 해주지 않았다 | 거의 해주지 않았다 | 가끔 해주었다 | 자주 해주었다 | 해당 없음 | (명) | |
| 전체 | 28.8 | 13.1 | 10.9 | 9.6 | 37.6 | (229) | 28.8 | 6.5 | 9.4 | 10.7 | 44.7 | (309) | |
| 성별 | 남자 | 34.5 | 16.8 | 10.6 | 4.4 | 33.6 | (113) | 33.6 | 6.1 | 11.5 | 11.5 | 37.4 | (131) |
| | 여자 | 23.3 | 9.5 | 11.2 | 14.7 | 41.4 | (116) | 25.3 | 6.7 | 7.9 | 10.1 | 50.0 | (178)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27.9 | 16.2 | 10.8 | 9.0 | 36.0 | (111) | 32.6 | 6.4 | 7.8 | 8.5 | 44.7 | (141) |
| | 도지역 | 29.7 | 10.2 | 11.0 | 10.2 | 39.0 | (118) | 25.6 | 6.5 | 10.7 | 12.5 | 44.6 | (168) |
| 연령 | 45-49세 | 57.1 | - | - | - | 42.9 | (7) | 18.8 | - | 6.3 | 6.3 | 68.8 | (16) |
| | 50-54세 | 34.0 | 6.4 | 6.4 | 6.4 | 46.8 | (47) | 23.6 | 5.5 | 1.8 | - | 69.1 | (55) |
| | 55-59세 | 21.0 | 14.8 | 13.6 | 8.6 | 42.0 | (81) | 36.3 | 4.4 | 8.0 | 4.4 | 46.9 | (113) |
| | 60-64세 | 30.9 | 16.0 | 11.7 | 12.8 | 28.7 | (94) | 25.6 | 9.6 | 14.4 | 21.6 | 28.8 | (125) |
| 혼인 지위 | 유배우 | 19.8 | 15.1 | 11.3 | 12.3 | 41.5 | (106) | 29.5 | 5.8 | 9.7 | 9.7 | 45.3 | (278) |
| | 사별 | 17.6 | 11.8 | 5.9 | 17.6 | 47.1 | (17) | 25.0 | - | 25.0 | 25.0 | 25.0 | (4) |
| | 이혼 별거 | 40.0 | 11.4 | 10.5 | 5.7 | 32.4 | (105) | 24.0 | 12.0 | - | 20.0 | 44.0 | (25) |
| | 미혼·비혼·기타 | - | - | 100.0 | - | - | (1) | - | 50.0 | 50.0 | - | - | (2)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31.5 | 11.0 | 9.6 | 12.3 | 35.6 | (73) | 29.2 | 6.3 | 11.5 | 15.6 | 37.5 | (96) |
| | 대학교 | 27.1 | 14.0 | 10.1 | 8.5 | 40.3 | (129) | 28.4 | 6.8 | 8.0 | 8.0 | 48.9 | (176) |
| | 대학원 | 29.6 | 14.8 | 18.5 | 7.4 | 29.6 | (27) | 29.7 | 5.4 | 10.8 | 10.8 | 43.2 | (37) |
| 근로 여부 | 그렇다 | 28.0 | 15.5 | 12.5 | 7.1 | 36.9 | (168) | 31.2 | 5.5 | 11.6 | 5.5 | 46.2 | (199) |
| | 아니다 | 31.1 | 6.6 | 6.6 | 16.4 | 39.3 | (61) | 24.5 | 8.2 | 5.5 | 20.0 | 41.8 | (110)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40.6 | 10.1 | 11.6 | 8.7 | 29.0 | (69) | 20.8 | 8.3 | 8.3 | 33.3 | 29.2 | (24) |
| | 200-399 | 28.2 | 11.8 | 9.4 | 10.6 | 40.0 | (85) | 29.6 | 8.2 | 10.2 | 14.3 | 37.8 | (98) |
| | 400-599 | 15.0 | 20.0 | 15.0 | 15.0 | 35.0 | (40) | 33.0 | 6.3 | 9.8 | 6.3 | 44.6 | (112) |
| | 600 이상 | 22.9 | 14.3 | 8.6 | 2.9 | 51.4 | (35) | 24.0 | 4.0 | 8.0 | 5.3 | 58.7 | (75)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 15.1 | 16.8 | 10.9 | 13.4 | 43.7 | (119) | 28.3 | 7.6 | 10.1 | 10.5 | 43.5 | (237) |
| | 전세 | 42.1 | 7.9 | 15.8 | 13.2 | 21.1 | (38) | 21.6 | 2.7 | 8.1 | 16.2 | 51.4 | (37) |
| | 월세 기타 | 44.4 | 9.7 | 8.3 | 1.4 | 36.1 | (72) | 40.0 | 2.9 | 5.7 | 5.7 | 45.7 | (35) |
| 주관 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18.8 | 20.8 | 6.3 | 10.4 | 43.8 | (48) | 27.3 | 6.8 | 8.0 | 12.5 | 45.5 | (88) |
| | 중하층 | 20.3 | 11.4 | 12.7 | 16.5 | 39.2 | (79) | 28.1 | 6.2 | 9.6 | 8.9 | 47.3 | (146) |
| | 하층 | 40.2 | 10.8 | 11.8 | 3.9 | 33.3 | (102) | 32.0 | 6.7 | 10.7 | 12.0 | 38.7 | (75) |

주: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본인이 성인 자녀에게 개인적인 문제나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준 경험에서는 1인가구가 가끔 해주었다는 응답이 43.7%, 자주 해주었다는 비율은 36.2%, 거의 해주지 않았다는 비율은 11.8%, 전혀 해주지 않았다는 경우는 8.3%로 나타났다. 다인가구

는 1인가구와 달리 자주 해주었다는 비율이 4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이 가끔 해주었다는 응답으로 41.7%, 거의 해주지 않았다는 8.4%, 전혀 해주지 않았다는 비율은 3.6%로 나타났다.

성인 자녀의 정서적 지지 역시 작은 빈도 값으로 인해 차이검증 값은 제시하지 않는다. 1인가구의 남성은 자녀에게 정서적인 지원을 자주 해주었다는 응답이 25.7% 여성의 46.6%보다 낮다. 이는 다인가구의 경우 남성이 42.7%, 여성이 48.9%로 성별에 따른 비율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거주지역에서 그 사례 수가 적기는 하지만 충청권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경우는 자주 해주었다는 비율이 59.3%로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1인가구는 경제적 조건이 좋을수록 자녀의 이야기를 자주 들어준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는 전혀 해주지 않았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1인가구의 경향은 다인가구에서는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으며 차이가 있더라도 크지 않아 1인가구와 다인가구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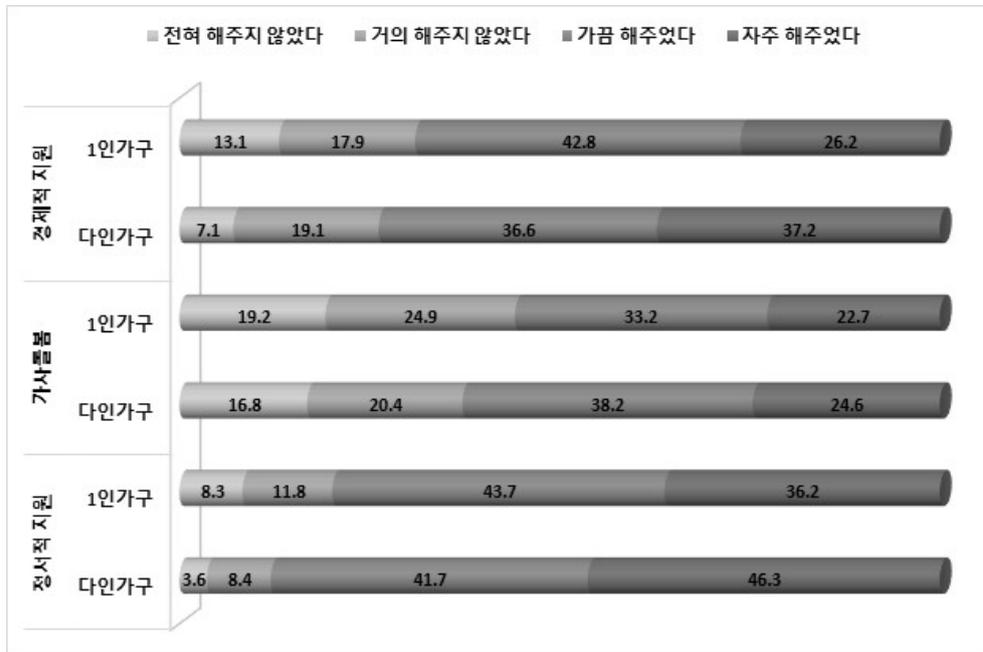
<표 5-19> 성인자녀에게 지원해준 경험 : 정서적 지원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전혀 해주지 않았다 | 거의 해주지 않았다 | 가끔 해주 었다 | 자주 해주 었다 | (명) | 전혀 해주지 않았다 | 거의 해주지 않았다 | 가끔 해주 었다 | 자주 해주 었다 | (명) | |
| 전체 | 8.3 | 11.8 | 43.7 | 36.2 | (229) | 3.6 | 8.4 | 41.7 | 46.3 | (309) | |
| 성별 | 남자 | 11.5 | 17.7 | 45.1 | 25.7 | (113) | 5.3 | 8.4 | 43.5 | 42.7 | (131) |
| | 여자 | 5.2 | 6.0 | 42.2 | 46.6 | (116) | 2.2 | 8.4 | 40.4 | 48.9 | (178)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10.8 | 11.7 | 42.3 | 35.1 | (111) | 4.3 | 8.5 | 48.2 | 39.0 | (141) |
| | 도지역 | 5.9 | 11.9 | 44.9 | 37.3 | (118) | 3.0 | 8.3 | 36.3 | 52.4 | (168) |
| 연령 | 45-49세 | - | - | 14.3 | 85.7 | (7) | 6.3 | 12.5 | 37.5 | 43.8 | (16) |
| | 50-54세 | 10.6 | 17.0 | 31.9 | 40.4 | (47) | 1.8 | 16.4 | 38.2 | 43.6 | (55) |
| | 55-59세 | 7.4 | 9.9 | 46.9 | 35.8 | (81) | 5.3 | 8.0 | 44.2 | 42.5 | (113) |
| | 60-64세 | 8.5 | 11.7 | 48.9 | 30.9 | (94) | 2.4 | 4.8 | 41.6 | 51.2 | (125) |
| 혼인 지위 | 유배우 | 3.8 | 7.5 | 49.1 | 39.6 | (106) | 2.9 | 9.0 | 40.6 | 47.5 | (278) |
| | 사별 | - | 5.9 | 41.2 | 52.9 | (17) | - | - | 75.0 | 25.0 | (4) |
| | 이혼 별거 | 14.3 | 17.1 | 38.1 | 30.5 | (105) | 12.0 | - | 48.0 | 40.0 | (25) |
| | 미혼·비혼·기타 | - | - | 100.0 | - | (1) | - | 50.0 | 50.0 | - | (2)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9.6 | 12.3 | 43.8 | 34.2 | (73) | 5.2 | 8.3 | 39.6 | 46.9 | (96) |
| | 대학교 | 8.5 | 11.6 | 43.4 | 36.4 | (129) | 2.8 | 9.1 | 40.9 | 47.2 | (176) |
| | 대학원 | 3.7 | 11.1 | 44.4 | 40.7 | (27) | 2.7 | 5.4 | 51.4 | 40.5 | (37) |
| 근로 여부 | 그렇다 | 7.1 | 13.1 | 44.6 | 35.1 | (168) | 3.5 | 9.5 | 42.7 | 44.2 | (199) |
| | 아니다 | 11.5 | 8.2 | 41.0 | 39.3 | (61) | 3.6 | 6.4 | 40.0 | 50.0 | (110)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13.0 | 17.4 | 37.7 | 31.9 | (69) | 4.2 | - | 45.8 | 50.0 | (24) |
| | 200~399 | 8.2 | 11.8 | 43.5 | 36.5 | (85) | 4.1 | 9.2 | 43.9 | 42.9 | (98) |
| | 400~599 | 7.5 | 7.5 | 45.0 | 40.0 | (40) | 3.6 | 9.8 | 42.9 | 43.8 | (112) |
| | 600 이상 | - | 5.7 | 54.3 | 40.0 | (35) | 2.7 | 8.0 | 36.0 | 53.3 | (75)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 2.5 | 8.4 | 47.1 | 42.0 | (119) | 3.8 | 8.4 | 40.1 | 47.7 | (237) |
| | 전세 | 13.2 | 13.2 | 36.8 | 36.8 | (38) | - | 13.5 | 35.1 | 51.4 | (37) |
| | 월세 기타 | 15.3 | 16.7 | 41.7 | 26.4 | (72) | 5.7 | 2.9 | 60.0 | 31.4 | (35) |
| 주관 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2.1 | 6.3 | 43.8 | 47.9 | (48) | 2.3 | 9.1 | 35.2 | 53.4 | (88) |
| | 중하층 | 6.3 | 8.9 | 45.6 | 39.2 | (79) | 4.1 | 8.2 | 42.5 | 45.2 | (146) |
| | 하층 | 12.7 | 16.7 | 42.2 | 28.4 | (102) | 4.0 | 8.0 | 48.0 | 40.0 | (75) |

주: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단위: %)



<그림 5-3> 성인자녀에게 경제적·가사돌봄·정서적 지원 제공 : 1인가구와 다인가구 비교

2) 성인 자녀에게 도움 받은 경험: 경제·가사돌봄·정서적 지원

본인이 성이나 자녀에게 해준 일을 알아보았다면, 역으로 성인 자녀가 본인에게 해준 일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경제적 지원에 대해 알아보면, 1인가구는 자녀가 나에게 경제적 지원을 전혀 해주지 않았다는 비율이 38.4%, 거의 해주지 않았다는 비율은 27.9%, 가끔 해주었다는 응답은 26.2%, 자주 해주었다는 비율은 7.4%로 나타났다. 다인가구의 경우에는 전혀 해주지 않았다는 응답이 33.3%, 가끔 해주었다는 비율이 31.4%, 거의 해주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26.2%, 자주 해주었다는 비율은 9.1%로 다인가구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은 비율이 약간 더 높았다.

자녀가 해준 경제적 지원은 1인가구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여성은 전혀 받지 않은 경우가 25.9%인데 반해 남성은 51.3%로 남성이 전혀 안 받은 비율이 더 높았다. 가끔 해주거나 자주 해주었다는 비율도 여성은 각각 38.8%와 10.3%인데 반해 남

성은 13.3%와 4.4%로 여성보다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반면, 다인가구는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연령이 높아지면서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전혀 받지 않은 비율은 40대 56.3%부터 60대 18.4%까지 매우 낮아지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40대에는 자주 받은 비율이 전혀 없지만, 60대에는 12.8%로 증가하고 가끔 받은 비율도 60대는 41.6%로 60대는 유일하게 받았다는 비율이 과반으로 나타나는 연령 그룹이다.

근로 여부에 따른 차이는 1인가구와 다인가구 모두에서 나타났는데, 그 경향이 상이했다. 1인가구는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자녀에게 전혀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는 비율이 41.0%로 일하는 그룹의 37.5%보다 높았는데, 거의 받지 않았다는 응답은 일하는 그룹이 32.7%, 일하지 않는 그룹이 14.8%로 나타났다. 반면, 다인가구에서는 일하지 않는 그룹이 전혀 받지 않았다는 비율이 30.9%이고 일하는 그룹은 34.7%로 더 높게 나타났으며, 가끔 받았다는 응답은 일하는 그룹이 25.6%, 일하지 않는 그룹이 27.3%로 비슷하지만 일하지 않는 그룹이 더 높아 1인가구와 반대의 경향으로 나타났다. 다인가구에서는 일하는 경우 자주 받았다는 비율이 5.5%로 일하지 않는 경우의 15.5%보다 낮아 차이가 나타났다. 자녀가 경제적 지원을 해준 경험이 있는 경우(가끔 해주었다 + 자주 해주었다)와 없는 경우(거의 해주지 않았다 + 전혀 해주지 않았다)로 나누어 보면, 다인가구는 자녀가 경제적 지원을 해준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일을 하는 경우는 39.7%, 일을 안하는 경우는 41.9%로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1인가구는 자녀가 지원을 해준 경험이 있는 비율이 일을 하는 경우는 29.7%, 일을 하지 않는 경우는 44.3%로 일을 하는 1인가구는 자녀에게서 경제적 지원을 받은 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인가구는 주택 점유형태가 전세인 경우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자주 받았다는 응답이 21.1%로 높고, 월세 등의 경우에는 전혀 받지 않았다는 비율이 54.2%로 높았다. 1인가구가 자가인 경우 자녀의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일 수 있어 전혀 도움받은 경험이 없는 비율이 34.5%로 전세의 21.1%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월세 등의 형태로 사는 경우 자녀의 경제적 지원을 전혀 받은 적이 없다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이유는 이러한 1인가구의 자녀는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지원을 안 하기보다는 못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표 5-20> 성인자녀의 지원 받은 경험: 경제적 지원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전혀 해주지 않았다 | 거의 해주지 않았다 | 가끔 해주었다 | 자주 해주었다 | χ^2 | (명) | 전혀 해주지 않았다 | 거의 해주지 않았다 | 가끔 해주었다 | 자주 해주었다 | χ^2 | (명) |
| 전체 | 38.4 | 27.9 | 26.2 | 7.4 | - | (229) | 33.3 | 26.2 | 31.4 | 9.1 | - | (309) |
| 성별 | 남자 | 51.3 | 31.0 | 13.3 | 4.4 | 46.364 | (113) | 36.6 | 28.2 | 29.0 | 6.1 | (131) |
| | 여자 | 25.9 | 25.0 | 38.8 | 10.3 | *** | (116) | 30.9 | 24.7 | 33.1 | 11.2 | 3.707 (178)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37.8 | 29.7 | 27.0 | 5.4 | 1.502 | (111) | 32.6 | 25.5 | 34.0 | 7.8 | (141) |
| | 도지역 | 39.0 | 26.3 | 25.4 | 9.3 | (118) | 33.9 | 26.8 | 29.2 | 10.1 | 1.120 (168) | |
| 연령 | 45-49세 | 57.1 | 14.3 | 28.6 | - | (7) | 56.3 | 25.0 | 18.8 | - | (16) | |
| | 50-54세 | 46.8 | 19.1 | 27.7 | 6.4 | - | (47) | 49.1 | 25.5 | 21.8 | 3.6 | 28.710** (55) |
| | 55-59세 | 34.6 | 32.1 | 29.6 | 3.7 | (81) | 38.9 | 25.7 | 26.5 | 8.8 | (113) | |
| | 60-64세 | 36.2 | 29.8 | 22.3 | 11.7 | (94) | 18.4 | 27.2 | 41.6 | 12.8 | (125) | |
| 혼인 지위 | 유배우 | 32.1 | 28.3 | 32.1 | 7.5 | (106) | 33.8 | 27.0 | 30.9 | 8.3 | (278) | |
| | 사별 | 17.6 | 17.6 | 47.1 | 17.6 | - | (17) | 50.0 | - | 25.0 | 25.0 | - (4) |
| | 이혼 별거 | 48.6 | 29.5 | 16.2 | 5.7 | (105) | 28.0 | 16.0 | 40.0 | 16.0 | (25) | |
| | 미혼·비혼기타 | - | - | 100.0 | - | (1) | - | 100.0 | - | - | (2) |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34.2 | 26.0 | 32.9 | 6.8 | (73) | 29.2 | 26.0 | 29.2 | 15.6 | (96) | |
| | 대학교 | 41.9 | 27.1 | 22.5 | 8.5 | 4.506 | (129) | 35.2 | 23.9 | 34.1 | 6.8 | 11.346 (176) |
| | 대학원 | 33.3 | 37.0 | 25.9 | 3.7 | (27) | 35.1 | 37.8 | 24.3 | 2.7 | (37) | |
| 근로 여부 | 그렇다 | 37.5 | 32.7 | 22.6 | 7.1 | 8.475* | (168) | 34.7 | 25.6 | 34.2 | 5.5 | 9.454* (199) |
| | 아니다 | 41.0 | 14.8 | 36.1 | 8.2 | (61) | 30.9 | 27.3 | 26.4 | 15.5 | (110) |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42.0 | 23.2 | 23.2 | 11.6 | (69) | 29.2 | 16.7 | 37.5 | 16.7 | (24) | |
| | 200~399 | 36.5 | 29.4 | 28.2 | 5.9 | 8.855 | (85) | 28.6 | 25.5 | 32.7 | 13.3 | 15.980 (98) |
| | 400~599 | 30.0 | 40.0 | 22.5 | 7.5 | (40) | 33.9 | 24.1 | 37.5 | 4.5 | (112) | |
| | 600 이상 | 45.7 | 20.0 | 31.4 | 2.9 | (35) | 40.0 | 33.3 | 18.7 | 8.0 | (75) |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 34.5 | 28.6 | 31.1 | 5.9 | (119) | 33.8 | 28.3 | 28.7 | 9.3 | (237) | |
| | 전세 | 21.1 | 26.3 | 31.6 | 21.1 | 45.675*** | (38) | 35.1 | 21.6 | 35.1 | 8.1 | 5.127 (37) |
| | 월세 기타 | 54.2 | 27.8 | 15.3 | 2.8 | (72) | 28.6 | 17.1 | 45.7 | 8.6 | (35) | |
| 주관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39.6 | 25.0 | 29.2 | 6.3 | (48) | 34.1 | 27.3 | 30.7 | 8.0 | (88) | |
| | 중하층 | 27.8 | 29.1 | 32.9 | 10.1 | 8.472 | (79) | 31.5 | 28.8 | 30.8 | 8.9 | 2.282 (146) |
| | 하층 | 46.1 | 28.4 | 19.6 | 5.9 | (102) | 36.0 | 20.0 | 33.3 | 10.7 | (75) |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3)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다음은 성인 자녀가 청소 식사준비, 장보기, 심부름 등 집안일이나 건강 돌보기를 해 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1인가구는 자녀가 이러한 지원을 가끔 해주었다는

응답이 31.9%, 전혀 해주지 않았다는 응답과 거의 해주지 않았다는 응답은 각각 31.4%, 자주 해주었다는 응답은 5.2%로 나타났다. 다인가구의 경우는 가끔 해주었다는 응답이 36.9%, 전혀 해주지 않았다는 응답과 거의 해주지 않았다는 응답은 각각 28.2%, 자주 해주었다는 응답은 56.8%로 1인가구와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는 이러한 지원을 자녀에게 받은 경험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전혀 해주지 않았다는 응답이 남성은 41.6%, 여성은 21.6%, 거의 해주지 않았다는 응답은 남성이 38.1%, 여성이 25.0%, 가끔 해주었다는 응답은 남성이 20.4%, 여성이 43.1%, 그리고 자주 해주었다는 응답은 남성은 없었고, 여성은 10.3%로 나타나 남성 1인가구는 여성 1인가구에 비해 자녀에게 물리적인 지원을 받은 경험이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1인가구 여성은 다인가구의 여성이나 남성보다도 자녀로부터 이러한 지원을 더 많이 받은 경향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다인가구의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크지 않아 1인가구는 매우 다른 특성을 보인다.

1인가구는 성별 이외에 근로 여부, 주택점유 형태, 주관적 경제 수준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일을 하지 않는 1인가구는 자녀가 물리적인 지원을 가끔 해주었다는 비율이 24.6%, 자주 해주었다는 비율이 11.5%였으나, 일을 하는 1인가구는 가끔 해주었다는 비율이 34.5%, 자주 해주었다는 비율이 3.0%였다.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오히려 물리적 지원을 자주 받은 경험이 더 많았다. 주택 점유형태가 전세인 1인가구는 자녀에게 물리적 지원을 자주 받은 경험이 13.2%인데 반해 월세 등으로 살고 있는 1인가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받은 적 없는 비율이 월세 및 기타 형태로 살고 있는 1인가구에서 48.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1인가구와 다인가구가 주택 점유형태에 따라 자녀에게 물리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매우 다른 비율로 각각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는 월세 등으로 사는 1인가구나 다인가구가 자녀에게 물리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전세나 자가로 살고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향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1인가구의 주관적 경제 수준에 따라서 보면, 하층인 경우 자녀에게 전혀 받은 적 없다는 비율이 42.2%로 중상층의 29.2%, 중하층의 19.0%보다 높게 나타났다. 1인가구 중 자신의 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그룹은 앞서 경제적 지원에 이어서 자녀에게 물리적인 지원 또한 전혀 받아 본 적 없는 경험이 많은 그룹으로 나타났다.

<표 5-21> 성인자녀에게 지원 받은 경험 : 집안일, 돌봄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 전혀 해주지 않았다 | 거의 해주지 않았다 | 가끔 해주었다 | 자주 해주었다 | χ^2 | (명) | 전혀 해주지 않았다 | 거의 해주지 않았다 | 가끔 해주었다 | 자주 해주었다 | χ^2 | (명) | |
| 전체 | 31.4 | 31.4 | 31.9 | 5.2 | - | (229) | 28.2 | 28.2 | 36.9 | 6.8 | - | (309) | |
| 성별 | 남자 | 41.6 | 38.1 | 20.4 | - | 31.666 | (113) | 24.4 | 30.5 | 37.4 | 7.6 | 1.830 | (131) |
| | 여자 | 21.6 | 25.0 | 43.1 | 10.3 | *** | (116) | 30.9 | 26.4 | 36.5 | 6.2 | | (178)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28.8 | 36.9 | 29.7 | 4.5 | | (111) | 27.0 | 31.2 | 34.0 | 7.8 | 1.948 | (141) |
| | 도지역 | 33.9 | 26.3 | 33.9 | 5.9 | 3.071 | (118) | 29.2 | 25.6 | 39.3 | 6.0 | | (168) |
| 연령 | 45-49세 | 42.9 | - | 57.1 | - | | (7) | 25.0 | 31.3 | 43.8 | - | | (16) |
| | 50-54세 | 34.0 | 19.1 | 40.4 | 6.4 | | (47) | 36.4 | 23.6 | 34.5 | 5.5 | | (55) |
| | 55-59세 | 28.4 | 35.8 | 29.6 | 6.2 | - | (81) | 29.2 | 28.3 | 35.4 | 7.1 | | (113) |
| | 60-64세 | 31.9 | 36.2 | 27.7 | 4.3 | | (94) | 24.0 | 29.6 | 38.4 | 8.0 | | (125) |
| 혼인 지위 | 유배우 | 21.7 | 30.2 | 41.5 | 6.6 | | (106) | 28.1 | 28.4 | 37.4 | 6.1 | | (278) |
| | 사별 | 11.8 | 41.2 | 35.3 | 11.8 | | (17) | 50.0 | - | 25.0 | 25.0 | | (4) |
| | 이혼·별거 | 44.8 | 31.4 | 21.0 | 2.9 | - | (105) | 28.0 | 24.0 | 36.0 | 12.0 | | (25) |
| | 미혼·비혼기타 | - | - | 100.0 | - | | (1) | - | 100.0 | - | - | | (2)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30.1 | 34.2 | 27.4 | 8.2 | | (73) | 27.1 | 21.9 | 39.6 | 11.5 | | (96) |
| | 대학교 | 33.3 | 29.5 | 33.3 | 3.9 | 3.410 | (129) | 27.8 | 31.8 | 35.8 | 4.5 | 7.250 | (176) |
| | 대학원 | 25.9 | 33.3 | 37.0 | 3.7 | | (27) | 32.4 | 27.0 | 35.1 | 5.4 | | (37) |
| 근로 여부 | 그렇다 | 30.4 | 32.1 | 34.5 | 3.0 | | (168) | 26.6 | 27.6 | 39.7 | 6.0 | 2.188 | (199) |
| | 아니다 | 34.4 | 29.5 | 24.6 | 11.5 | 7.889* | (61) | 30.9 | 29.1 | 31.8 | 8.2 | | (110)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42.0 | 29.0 | 24.6 | 4.3 | | (69) | 20.8 | 25.0 | 37.5 | 16.7 | | (24) |
| | 200~399 | 30.6 | 31.8 | 30.6 | 7.1 | | (85) | 27.6 | 24.5 | 40.8 | 7.1 | 6.684 | (98) |
| | 400~599 | 15.0 | 42.5 | 37.5 | 5.0 | - | (40) | 30.4 | 31.3 | 33.9 | 4.5 | | (112) |
| | 600 이상 | 31.4 | 22.9 | 42.9 | 2.9 | | (35) | 28.0 | 29.3 | 36.0 | 6.7 | | (75)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 23.5 | 30.3 | 40.3 | 5.9 | | (119) | 24.9 | 29.5 | 38.0 | 7.6 | | (237) |
| | 전세 | 23.7 | 28.9 | 34.2 | 13.2 | 19.946*** | (38) | 40.5 | 8.1 | 45.9 | 5.4 | 15.832* | (37) |
| | 월세 기타 | 48.6 | 34.7 | 16.7 | - | | (72) | 37.1 | 40.0 | 20.0 | 2.9 | | (35) |
| 주관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29.2 | 27.1 | 37.5 | 6.3 | | (48) | 27.3 | 34.1 | 31.8 | 6.8 | | (88) |
| | 중하층 | 19.0 | 34.2 | 41.8 | 5.1 | 14.602* | (79) | 24.7 | 32.2 | 37.0 | 6.2 | 11.634 | (146) |
| | 하층 | 42.2 | 31.4 | 21.6 | 4.9 | | (102) | 36.0 | 13.3 | 42.7 | 8.0 | | (75)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3)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성인 자녀가 나의 개인적인 문제나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준 경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1인가구는 가끔 해주었다는 응답이 41.0%, 거의 해주지 않았다는 응답은

22.7%, 전혀 해주지 않았다는 응답은 19.7%, 자주 해주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16.6%로 나타났다. 다인가구는 가끔 해주었다는 응답 비율은 48.2%, 자주 해주었다는 응답은 26.2%, 거의 해주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5.2%, 전혀 해주지 않았다는 응답은 10.4%로 나타나 1인가구와 다인가구 모두 가끔 해주었다는 응답이 40% 이상으로 다수를 차지한 것은 동일하나 다인가구는 자주 해주었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고, 1인가구는 거의 해주지 않았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아 다른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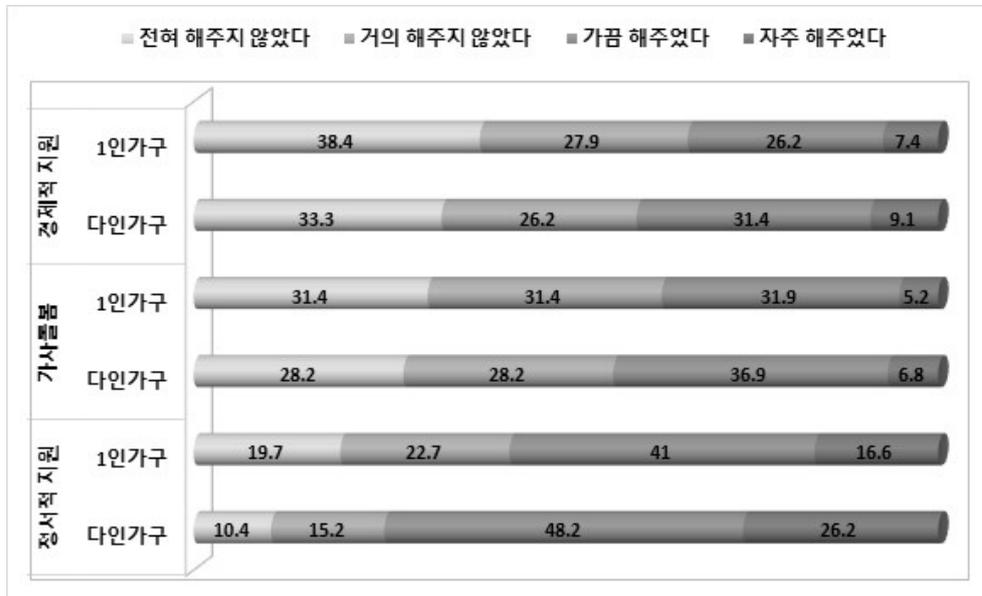
1인가구와 다인가구 모두 자녀의 이러한 정서적인 지원을 받아 본 경험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났다. 자녀가 정서적 지원을 전혀 해주지 않았다는 비율이 1인가구 남성은 31.0%이었으나 여성은 8.6%로 낮았다. 또한 거의 해주지 않았다는 비율이 남성은 27.4%, 여성은 18.1%, 가끔 해주었다는 비율은 남성이 35.4%, 여성이 46.6%, 그리고 자주 해주었다는 비율은 여성이 26.7%, 남성이 6.2%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다인가구의 경우는 자녀가 정서적 지원을 전혀 해주지 않았다는 비율이 남성은 15.3%, 여성은 6.7%, 거의 해주지 않았다는 비율은 남성은 18.3%, 여성은 12.9%, 가끔 해주었다는 비율은 남성이 51.1%, 여성이 46.1%, 자녀가 정서적 지원을 자주 해주었다는 비율은 여성이 34.3%, 남성이 15.3%로 여성이 남성보다 자녀에게 정서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와 다인가구를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다인가구가 자녀에게 정서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더 빈번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인가구 남성은 이러한 경험이 다인가구의 남성보다도 적은 특징을 볼 수 있다.

1인가구는 거주지역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광역시나 특별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는 자녀가 정서적 지원을 거의 해주지 않았다는 비율이 28.8%인데 반해 도 지역에 거주하는 1인가구는 16.9%였고, 가끔 해주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광역시나 특별시에서는 32.4%였는데, 도 지역에서는 49.2%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도 지역에 거주하는 1인가구가 자녀에게 정서적인 지원을 받은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과 근로 여부에 따라서는 다인가구가 차이를 보였다. 고졸 이하의 다인가구는 자녀에게 정서적 지원을 전혀 받아본 적 없는 비율이 1.0%로 매우 낮았고 자금 받았다는 비율은 58.3%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근로 여부에 따라서 보면, 자녀에게 정서적 지원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비율이 일을 하는 다인가구는 13.6%였으나, 일을 하지 않는 다인가구는 4.5%로 매우 낮았다. 자주 받았다는 비율로 비교해 보면, 일을 하지 않는 다인가구는 33.6%였으나, 일을 하는 다

인가구는 22.1%로 낮았다. 일을 하지 않는 다인가구가 자녀에게 정서적 지원을 더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1인가구는 주택 점유형태와 주관적 경제 수준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다. 월세 등으로 사는 1인가구는 자녀에게 자주 받았다는 비율이 6.9%로 전세나 자가의 경우 20% 이상인 것과 매우 비교되는 수준을 보였다. 반면, 월세 등으로 사는 1인가구는 전혀 받지 않았다는 비율이 29.2%로 높아 차이를 보였다. 마찬가지로 경제적 수준에서도 하층인 1인가구의 경우 자녀에게 정서적 지원을 자주 받았다는 응답은 8.8%로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전혀 받지 않았다는 비율은 29.4%로 높게 나타나 주택 점유형태에서와 유사한 경향으로 차이를 보였다.

(단위: %)



<그림 5-4> 성인자녀에게 경제적·가사돌봄·정서적 지원을 받은 경험
: 1인가구와 다인가구

<표 5-22> 성인자녀에게 도움 받은 경험 : 정서적 지원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 | 저희 해주지 않았다 | 거의 해주지 않았다 | 가끔 해주었다 | 자주 해주었다 | χ^2 | (명) | 저희 해주지 않았다 | 거의 해주지 않았다 | 가끔 해주었다 | 자주 해주었다 | χ^2 | (명) | |
| 전체 | 19.7 | 22.7 | 41.0 | 16.6 | - | (229) | 10.4 | 15.2 | 48.2 | 26.2 | - | (309) | |
| 성별 | 남자 | 31.0 | 27.4 | 35.4 | 6.2 | 6.346*** | 15.3 | 18.3 | 51.1 | 15.3 | 17.541** | (113) | |
| | 여자 | 8.6 | 18.1 | 46.6 | 26.7 | | (116) | 6.7 | 12.9 | 46.1 | | 34.3 | (178)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20.7 | 28.8 | 32.4 | 18.0 | 7.839* | 9.2 | 16.3 | 53.9 | 20.6 | 5.420 | (111) | |
| | 도지역 | 18.6 | 16.9 | 49.2 | 15.3 | | (118) | 11.3 | 14.3 | 43.5 | | 31.0 | (168) |
| 거주 권역 | 서울 | 22.9 | 25.7 | 22.9 | 28.6 | 19.421 | 5.4 | 18.9 | 56.8 | 18.9 | 13.810 | (35) | |
| | 인천·경기·강원 | 20.0 | 23.1 | 44.6 | 12.3 | | (65) | 10.3 | 9.3 | 48.5 | | 32.0 | (97) |
| | 충청권 | 22.2 | 25.9 | 29.6 | 22.2 | | (27) | 12.5 | 17.5 | 42.5 | | 27.5 | (40) |
| | 전라권 | 12.1 | 27.3 | 57.6 | 3.0 | | (33) | 12.2 | 17.1 | 36.6 | | 34.1 | (41) |
| | 경북권 | 24.1 | 24.1 | 34.5 | 17.2 | | (29) | 15.8 | 15.8 | 47.4 | | 21.1 | (38) |
| | 경남권 | 17.5 | 12.5 | 50.0 | 20.0 | | (40) | 7.1 | 19.6 | 55.4 | | 17.9 | (56) |
| 연령 | 45-49세 | - | 42.9 | 57.1 | - | - | 6.3 | 25.0 | 43.8 | 25.0 | 12.454 | (7) | |
| | 50-54세 | 25.5 | 19.1 | 38.3 | 17.0 | | (47) | 18.2 | 10.9 | 49.1 | | 21.8 | (55) |
| | 55-59세 | 19.8 | 23.5 | 38.3 | 18.5 | | (81) | 12.4 | 15.0 | 51.3 | | 21.2 | (113) |
| | 60-64세 | 18.1 | 22.3 | 43.6 | 16.0 | | (94) | 5.6 | 16.0 | 45.6 | | 32.8 | (125) |
| 혼인 지위 | 유배우 | 11.3 | 19.8 | 48.1 | 20.8 | - | 10.4 | 14.7 | 48.9 | 25.9 | - | (106) | |
| | 사별 | 5.9 | 17.6 | 52.9 | 23.5 | | (17) | - | 25.0 | 50.0 | | 25.0 | (4) |
| | 이혼 별거 | 30.5 | 26.7 | 31.4 | 11.4 | | (105) | 12.0 | 16.0 | 40.0 | | 32.0 | (25) |
| | 미혼·비혼·기타 | - | - | 100.0 | - | | (1) | - | 50.0 | 50.0 | | - | (2)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19.2 | 23.3 | 41.1 | 16.4 | 0.616 | 1.0 | 14.6 | 58.3 | 26.0 | 15.742* | (73) | |
| | 대학교 | 20.9 | 22.5 | 40.3 | 16.3 | | (129) | 14.8 | 15.9 | 42.0 | | 27.3 | (176) |
| | 대학원 | 14.8 | 22.2 | 44.4 | 18.5 | | (27) | 13.5 | 13.5 | 51.4 | | 21.6 | (37) |
| 근로 여부 | 그렇다 | 19.0 | 24.4 | 43.5 | 13.1 | 6.457 | 13.6 | 15.6 | 48.7 | 22.1 | 9.240* | (168) | |
| | 아니다 | 21.3 | 18.0 | 34.4 | 26.2 | | (61) | 4.5 | 14.5 | 47.3 | | 33.6 | (110)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26.1 | 23.2 | 34.8 | 15.9 | 7.240 | - | 20.8 | 50.0 | 29.2 | 7.138 | (69) | |
| | 200~399 | 21.2 | 20.0 | 41.2 | 17.6 | | (85) | 7.1 | 14.3 | 49.0 | | 29.6 | (98) |
| | 400~599 | 15.0 | 27.5 | 40.0 | 17.5 | | (40) | 12.5 | 16.1 | 46.4 | | 25.0 | (112) |
| | 600 이상 | 8.6 | 22.9 | 54.3 | 14.3 | | (35) | 14.7 | 13.3 | 49.3 | | 22.7 | (75)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 14.3 | 18.5 | 47.1 | 20.2 | 15.469* | 10.1 | 15.6 | 47.7 | 26.6 | 3.496 | (119) | |
| | 전세 | 18.4 | 26.3 | 31.6 | 23.7 | | (38) | 13.5 | 18.9 | 40.5 | | 27.0 | (37) |
| | 월세 기타 | 29.2 | 27.8 | 36.1 | 6.9 | | (72) | 8.6 | 8.6 | 60.0 | | 22.9 | (35) |
| 주관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12.5 | 20.8 | 39.6 | 27.1 | 18.648** | 9.1 | 17.0 | 46.6 | 27.3 | 2.038 | (48) | |
| | 중하층 | 11.4 | 20.3 | 48.1 | 20.3 | | (79) | 9.6 | 15.8 | 50.0 | | 24.7 | (146) |
| | 하층 | 29.4 | 25.5 | 36.3 | 8.8 | | (102) | 13.3 | 12.0 | 46.7 | | 28.0 | (75)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3)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가족관계 만족도

가. 부모, 형제·자매와의 관계 만족도

부모와의 관계 만족 정도를 보면, 1인가구는 약간 만족한다는 비율은 38.6%,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38.1%로 76.7%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다인가구의 경우는 매우 만족한다가 49.9%, 약간 만족한다는 34.1%로 만족하는 비율이 84.0%로 1인가구보다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1점, 매우 만족한다는 4점으로 점수화하여 평균을 살펴보면, 1인가구는 만족도 평균이 3.10점, 다인가구는 3.31점이었다.

평균 점수 비교를 통해 특성별 차이를 알아보면, 다인가구는 남성이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가 3.40점으로 여성의 만족도 3.22점보다 높아 차이를 보였다. 남성은 매우 만족한다에 대한 응답이 53.1%로 높았다. 1인가구는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고졸 이하 그룹의 평균 점수는 2.84점으로 대학교 졸업 그룹 3.17점과 대학원 이상 그룹 3.27점보다 낮아 차이를 보였다. 고졸 이하 그룹에서는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25.5%로 낮은 특성을 보였다.

근로 여부, 가구소득, 주관적 경제 수준에 따라서는 1인가구와 다인가구 모두 차이를 보였는데 먼저 근로 여부에서는 일하지 않는 경우 만족하는 정도가 일하는 경우보다 낮은 경향을 볼 수 있다. 가구소득에서는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만족도도 높아지는 경향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소득이 높은 그룹은 만족도 점수도 비슷했지만, 소득이 낮은 그룹일수록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점수가 차이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199만 원 이하의 그룹의 만족도를 보면, 1인가구는 2.77점, 다인가구는 3.07점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경제 수준도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높아져 그룹 간 차이를 보였고, 소득에서와 마찬가지로 높은 층의 만족도는 1인가구와 다인가구가 비슷했으나, 낮은 그룹은 1인가구 2.86점, 다인가구 3.18점으로 1인가구의 부모와의 관계 만족이 다인가구보다 더 낮은 특성을 보였다. 이 외에 1인가구는 주택 점유형태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월세 등의 형태로 사는 경우 만족도가 2.94점으로 자가의 경우 3.22점보다 낮았다.

<표 5-23>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 | 약간 만족한다 | 매우 만족한다 | 평균 | t/F | (명) |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 | 약간 만족한다 | 매우 만족한다 | 평균 | t/F | (명) |
| 전체 | 4.6 | 18.8 | 38.6 | 38.1 | 3.10 | - | (373) | 2.8 | 13.1 | 34.1 | 49.9 | 3.31 | - | (633) |
| 성별 | 남자 | 2.9 | 20.2 | 37.5 | 39.4 | 3.13 | (208) | 1.9 | 9.4 | 35.6 | 53.1 | 3.40 | | (320) |
| | 여자 | 6.7 | 17.0 | 40.0 | 36.4 | 3.06 | t=0.824 (165) | 3.8 | 16.9 | 32.6 | 46.6 | 3.22 | t=2.816** | (313)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2.1 | 23.2 | 37.9 | 36.8 | 3.55 | (190) | 3.1 | 13.9 | 34.0 | 49.1 | 3.62 | | (324) |
| | 도지역 | 7.1 | 14.2 | 39.3 | 39.3 | 3.62 | t=-0.643 (183) | 2.6 | 12.3 | 34.3 | 50.8 | 3.71 | t=-1.200 | (309) |
| 거주 권역 | 서울 | 3.1 | 25.0 | 32.8 | 39.1 | 3.08 | (64) | 3.3 | 17.5 | 29.2 | 50.0 | 3.26 | | (120) |
| | 인천·경기·강원 | 10.0 | 12.5 | 41.7 | 35.8 | 3.03 | (120) | 3.3 | 8.9 | 36.0 | 51.9 | 3.36 | | (214) |
| | 충청권 | 2.6 | 23.1 | 46.2 | 28.2 | 3.00 | F=0.626 (39) | 1.4 | 15.7 | 32.9 | 50.0 | 3.31 | F=0.788 | (70) |
| | 전라권 | 4.1 | 16.3 | 36.7 | 42.9 | 3.18 | (49) | 1.5 | 12.1 | 33.3 | 53.0 | 3.38 | | (66) |
| | 경북권 | - | 17.9 | 41.0 | 41.0 | 3.23 | (39) | 3.1 | 18.5 | 36.9 | 41.5 | 3.17 | | (65) |
| 경남권 | - | 24.2 | 33.9 | 41.9 | 3.18 | (62) | 3.1 | 12.2 | 35.7 | 49.0 | 3.31 | | (98) | |
| 연령 | 45-49세 | 3.9 | 16.5 | 32.0 | 47.6 | 3.23 | (103) | 3.5 | 10.1 | 33.3 | 53.0 | 3.36 | | (198) |
| | 50-54세 | 4.2 | 16.7 | 49.0 | 30.2 | 3.05 | (96) | 2.7 | 10.7 | 30.5 | 56.1 | 3.40 | F=2.531 | (187) |
| | 55-59세 | 5.4 | 22.8 | 34.8 | 37.0 | 3.03 | F=1.132 (92) | 2.8 | 17.6 | 38.0 | 41.5 | 3.18 | | (142) |
| | 60-64세 | 4.9 | 19.5 | 39.0 | 36.6 | 3.07 | (82) | 1.9 | 17.0 | 36.8 | 44.3 | 3.24 | | (106) |
| 혼인 지위 | 유배우 | 1.7 | 18.1 | 37.9 | 42.2 | 3.21 | (116) | 2.7 | 13.3 | 34.4 | 49.5 | 3.31 | | (547) |
| | 사별 | 7.1 | 28.6 | 57.1 | 7.1 | 2.64 | (14) | - | - | 50.0 | 50.0 | 3.50 | F=0.472 | (2) |
| | 이혼 별거 | 6.3 | 17.7 | 38.5 | 37.5 | 3.07 | F=1.978 (96) | 3.0 | 18.2 | 33.3 | 45.5 | 3.21 | | (33) |
| 미혼비혼기타 | 5.4 | 19.0 | 37.4 | 38.1 | 3.08 | (147) | 3.9 | 7.8 | 31.4 | 56.9 | 3.41 | | (51) |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9.6 | 22.3 | 42.6 | 25.5 | 2.84 | (94) | 5.3 | 15.3 | 31.8 | 47.6 | 3.22 | | (170) |
| | 대학교 | 3.0 | 17.3 | 39.0 | 40.7 | 3.17 | F=6.211** (231) | 1.8 | 13.7 | 35.4 | 49.1 | 3.32 | F=2.938 | (379) |
| | 대학원 | 2.1 | 18.8 | 29.2 | 50.0 | 3.27 | (48) | 2.4 | 6.0 | 33.3 | 58.3 | 3.48 | | (84) |
| 근로 여부 | 그렇다 | 4.2 | 17.6 | 37.6 | 40.5 | 3.14 | (306) | 1.9 | 11.2 | 35.6 | 51.2 | 3.36 | | (463) |
| | 아니다 | 6.0 | 23.9 | 43.3 | 26.9 | 2.91 | t=2.016* (67) | 5.3 | 18.2 | 30.0 | 46.5 | 3.18 | t=2.352* | (170)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10.6 | 21.2 | 49.0 | 19.2 | 2.77 | (104) | 2.3 | 27.3 | 31.8 | 38.6 | 3.07 | | (44) |
| | 200~399 | 2.9 | 20.9 | 38.8 | 37.4 | 3.11 | (139) | 3.8 | 15.3 | 36.1 | 44.8 | 3.22 | | (183) |
| | 400~599 | 2.6 | 15.6 | 29.9 | 51.9 | 3.31 | F=9.993*** (77) | 3.1 | 11.6 | 32.1 | 53.1 | 3.35 | F=3.331* | (224) |
| 600 이상 | - | 13.2 | 30.2 | 56.6 | 3.43 | (53) | 1.6 | 9.3 | 35.2 | 53.8 | 3.41 | | (182) | |
| 주택 형태 | 자가 | 3.4 | 15.3 | 37.5 | 43.8 | 3.22 | (176) | 3.2 | 11.8 | 35.4 | 49.6 | 3.31 | | (474) |
| | 점유 | 3.6 | 21.7 | 37.3 | 37.3 | 3.08 | F=3.658* (83) | 3.4 | 13.8 | 23.0 | 59.8 | 3.39 | F=1.187 | (87) |
| | 월세 기타 | 7.0 | 21.9 | 41.2 | 29.8 | 2.94 | (114) | - | 20.8 | 38.9 | 40.3 | 3.19 | | (72) |
| 주관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1.2 | 9.8 | 32.9 | 56.1 | 3.44 | (82) | 2.4 | 9.0 | 33.8 | 54.8 | 3.41 | | (210) |
| | 중하층 | 2.1 | 17.6 | 42.3 | 38.0 | 3.16 | F=13.376*** (142) | 2.7 | 13.4 | 35.3 | 48.6 | 3.30 | F=3.284* | (292) |
| | 하층 | 8.7 | 24.8 | 38.3 | 28.2 | 2.86 | (149) | 3.8 | 19.1 | 32.1 | 45.0 | 3.18 | | (131)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형제.자매와의 관계 만족을 보면, 1인가구는 약간 만족한다는 응답이 43.1%,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27.3%이고 다인가구에서는 약간 만족한다는 비율이 41.0%,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은 36.1%로 나타났다.

평균점수로 특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1인가구 남성은 만족도 점수가 2.78점, 여성은 3.00으로 차이를 보였다. 여성이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2.4%로 높아 성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거주 권역에 따라 1인가구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는데 인천.경기.강원과 충청권의 경우 평균이 각각 2.75점이었는데, 전라권은 3.14점으로 높았다. 전라권은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의 응답이 34.4%로, 충청권 19.2%보다 응답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1인가구는 또한 교육수준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고졸 이하의 경우 형제.자매와의 관계 만족도가 2.71점이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만족도도 높아져 대학원 이상의 그룹은 3.13점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1인가구와 다인가구 모두 차이가 나타났는데, 소득이 가장 낮은 그룹의 만족도가 1인가구는 2.64점, 다인가구는 2.78점이고 소득이 높은 그룹은 1인가구 3.22점, 다인가구 3.18점으로 소득이 높은 그룹이 만족도도 높았다. 1인가구는 주택 점유형태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자가의 경우 3.00점, 월세 및 기타의 경우는 2.70점이었다. 월세 등의 형태로 사는 1인가구는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이 19.6%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1인가구와 다인가구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만족도도 낮아지는 경향으로 나타나 부모와의 관계에서와 유사한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표 5-24〉 형제, 자매와의 관계 만족도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 전혀 만족 스럽지 않다 | 별로 만족 스럽지 않다 | 약간 만족 한다 | 매우 만족 한다 | 평균 | t/F | (명) | 전혀 만족 스럽지 않다 | 별로 만족 스럽지 않다 | 약간 만족 한다 | 매우 만족 한다 | 평균 | t/F | (명) |
| 전체 | 9.3 | 20.3 | 43.1 | 27.3 | 2.88 | - | (483) | 4.3 | 18.5 | 41.0 | 36.1 | 3.09 | - | (782) |
| 성별 | 남자 | 10.6 | 23.5 | 42.8 | 23.1 | 2.78 | (264) | 4.3 | 17.4 | 46.3 | 32.0 | 3.06 | t=-2.653** | (397) |
| | 여자 | 7.8 | 16.4 | 43.4 | 32.4 | 3.00 | (219) | 4.4 | 19.7 | 35.6 | 40.3 | 3.12 | t=-0.933 | (385)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9.2 | 20.5 | 42.3 | 28.0 | 2.98 | (239) | 4.5 | 18.7 | 40.7 | 36.1 | 3.11 | t=.640 | (396) |
| | 도지역 | 9.4 | 20.1 | 43.9 | 26.6 | 2.93 | (244) | 4.1 | 18.4 | 41.5 | 36.0 | 3.15 | t=-0.522 | (386) |
| 거주 권역 | 서울 | 6.3 | 26.3 | 41.3 | 26.3 | 2.88 | (80) | 4.2 | 20.4 | 38.0 | 37.3 | 3.08 | | (142) |
| | 인천·경기·강 원 | 15.6 | 19.5 | 39.6 | 25.3 | 2.75 | (154) | 4.9 | 15.5 | 41.3 | 38.3 | 3.13 | | (264) |
| | 충청권 | 7.7 | 28.8 | 44.2 | 19.2 | 2.75 | (52) | 2.4 | 29.3 | 40.2 | 28.0 | 2.94 | F=1.512 | (82) |
| | 전라권 | 3.1 | 14.1 | 48.4 | 34.4 | 3.14 | (64) | - | 16.5 | 43.5 | 40.0 | 3.24 | | (85) |
| | 경북권 | 9.1 | 16.4 | 45.5 | 29.1 | 2.95 | (55) | 4.9 | 23.5 | 42.0 | 29.6 | 2.96 | | (81) |
| 경남권 | 6.4 | 17.9 | 44.9 | 30.8 | 3.00 | (78) | 7.0 | 14.1 | 42.2 | 36.7 | 3.09 | | (128) | |
| 연령 | 45-49세 | 9.0 | 17.1 | 42.3 | 31.5 | 2.96 | (111) | 4.3 | 19.3 | 40.1 | 36.2 | 3.08 | | (207) |
| | 50-54세 | 14.9 | 18.4 | 42.1 | 24.6 | 2.76 | (114) | 4.4 | 17.6 | 37.7 | 40.2 | 3.14 | F=1.230 | (204) |
| | 55-59세 | 7.6 | 25.2 | 41.2 | 26.0 | 2.85 | (131) | 3.6 | 17.4 | 44.6 | 34.4 | 3.10 | F=0.534 | (195) |
| | 60-64세 | 6.3 | 19.7 | 46.5 | 27.6 | 2.95 | (127) | 5.1 | 19.9 | 42.0 | 33.0 | 3.03 | | (176) |
| 혼인 지위 | 유배우 | 6.5 | 17.4 | 43.5 | 32.6 | 3.02 | (138) | 3.9 | 18.2 | 41.0 | 36.8 | 3.11 | | (685) |
| | 사별 | 9.5 | 38.1 | 33.3 | 19.0 | 2.62 | (21) | - | 20.0 | 60.0 | 20.0 | 3.00 | F=2.386 | (5) |
| | 이혼·별거 | 12.0 | 21.8 | 43.6 | 22.6 | 2.77 | (133) | 12.8 | 17.9 | 41.0 | 28.2 | 2.85 | F=1.259 | (39) |
| 미혼비혼기타 | 9.4 | 19.4 | 43.5 | 27.7 | 2.90 | (191) | 3.8 | 22.6 | 39.6 | 34.0 | 3.04 | | (53) |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14.6 | 22.6 | 40.1 | 22.6 | 2.71 | (137) | 6.0 | 19.3 | 35.8 | 39.0 | 3.08 | | (218) |
| | 대학교 | 8.4 | 18.9 | 45.3 | 27.4 | 2.92 | (285) | 4.1 | 17.8 | 42.4 | 35.7 | 3.10 | F=5.013** | (465) |
| | 대학원 | 1.6 | 21.3 | 39.3 | 37.7 | 3.13 | (61) | 2.0 | 20.2 | 46.5 | 31.3 | 3.07 | F=0.061 | (99) |
| 근로 여부 | 그렇다 | 8.2 | 19.8 | 44.3 | 27.7 | 2.92 | (379) | 3.1 | 18.9 | 42.1 | 35.8 | 3.11 | | (544) |
| | 아니다 | 13.5 | 22.1 | 38.5 | 26.0 | 2.77 | (104) | 7.1 | 17.6 | 38.7 | 36.6 | 3.05 | t=1.366 | (238)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15.6 | 24.4 | 40.0 | 20.0 | 2.64 | (160) | 10.8 | 26.2 | 36.9 | 26.2 | 2.78 | | (65) |
| | 200~399 | 8.1 | 16.8 | 46.8 | 28.3 | 2.95 | (173) | 6.3 | 18.5 | 38.7 | 36.5 | 3.05 | F=7.274*** | (222) |
| | 400~599 | 6.9 | 21.8 | 41.4 | 29.9 | 2.94 | (87) | 2.6 | 19.3 | 42.0 | 36.1 | 3.12 | F=3.873** | (274) |
| 600 이상 | - | 17.5 | 42.9 | 39.7 | 3.22 | (63) | 2.7 | 15.4 | 43.4 | 38.5 | 3.18 | | (221) |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 7.1 | 18.6 | 41.2 | 33.2 | 3.00 | (226) | 4.9 | 17.1 | 41.6 | 36.3 | 3.09 | | (586) |
| | 전세 | 7.1 | 21.2 | 45.5 | 26.3 | 2.91 | (99) | 1.9 | 20.6 | 40.2 | 37.4 | 3.13 | F=5.421** | (107) |
| | 월세 기타 | 13.9 | 22.2 | 44.3 | 19.6 | 2.70 | (158) | 3.4 | 25.8 | 38.2 | 32.6 | 3.00 | F=0.634 | (89) |
| 주관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2.1 | 15.8 | 38.9 | 43.2 | 3.23 | (95) | 2.8 | 12.6 | 45.1 | 39.4 | 3.21 | | (246) |
| | 중하층 | 5.7 | 18.4 | 49.4 | 26.4 | 2.97 | (174) | 4.4 | 19.3 | 42.4 | 33.9 | 3.06 | F=14.529*** | (363) |
| | 하층 | 15.4 | 23.8 | 39.7 | 21.0 | 2.66 | (214) | 6.4 | 25.4 | 32.4 | 35.8 | 2.98 | F=4.393* | (173)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나. 배우자·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배우자의 관계 만족도는 1인가구는 매우 만족한다가 33.9%, 약간 만족한다는 27.1%였고, 다인가구는 매우 만족한다는 54.3%, 약간 만족한다는 30.2%로 매우 만족하는 비율이 과반으로 높았다. 1인가구에서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 중에서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20.3%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도 찾아볼 수 있다. 배우자가 있는 1인가구의 경우 배우자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혼자 생활하는 경우로 별거 중인 경우가 다수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배우자와의 만족도가 전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1인가구에서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성별에 따른 차이가 다인가구에서 나타났는데, 남성은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 평균이 3.52점, 여성은 3.14점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66.1%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다인가구 여성은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이 42.1%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만족의 차이를 볼 수 있다. 가구소득과 주관적 경제 수준에서는 1인가구와 다인가구 모두 차이를 보였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이전의 관계 만족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만족도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소득이 199만 원 이하인 1인가구의 경우는 만족도가 2.26점으로 낮은 수준이었는데 6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3.24점으로 그룹 사이 차이가 있었다. 다인가구는 1인가구보다 평균이 높기는 하지만 소득이 낮은 그룹과 높은 그룹 사이 각각 3.04점과 3.49점으로 배우자와의 만족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주관적 경제 수준에서도 가구소득과 마찬가지로의 경향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주택 점유형태에 따라서는 다인가구에서만 차이를 보였는데, 자가의 경우 3.39점, 월세 등의 경우 3.05점으로 주택을 어떠한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는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가 달라졌다. 즉, 경제 상황이 배우자에 대한 만족에 중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다인가구의 경우는 배우자와 따로 생활하기보다 함께 생활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주택 점유형태에 따라서까지 배우자에 대한 만족에 차이를 보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표 5-25>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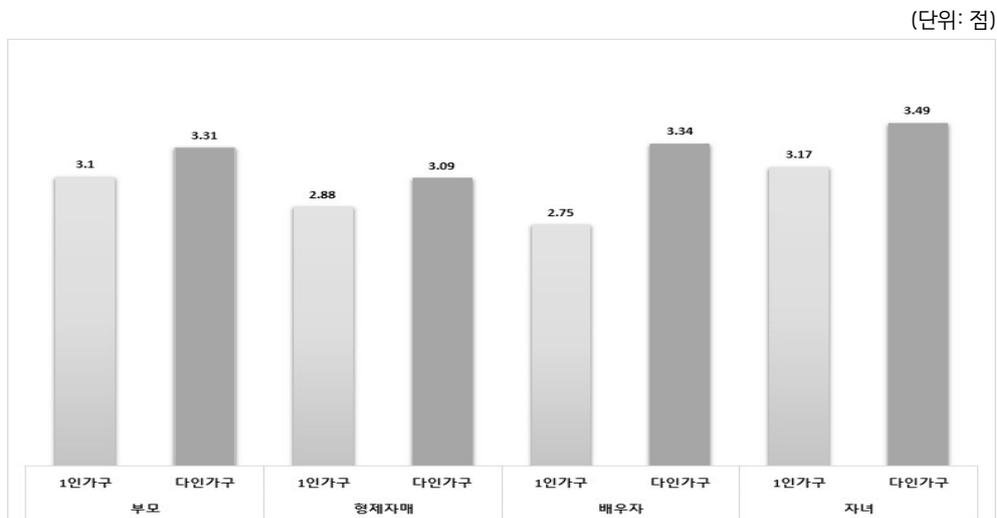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
|------------|-------------|-------------|---------|---------|---------------|------|------------------|-------------|-------------|---------|---------|------|-------------|-------|
| |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 | 약간 만족한다 | 매우 만족한다 | 평균 | t/F | (명) |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 | 약간 만족한다 | 매우 만족한다 | 평균 | t/F | (명) |
| 전체 | 20.3 | 18.6 | 27.1 | 33.9 | 2.75 | - | (236) | 5.0 | 10.5 | 30.2 | 54.3 | 3.34 | - | (733) |
| 성별 | 남자 | 16.1 | 25.5 | 27.0 | 31.4 | 2.74 | (137) | 3.0 | 7.8 | 23.1 | 66.1 | 3.52 | t=6.125 | (372) |
| | 여자 | 26.3 | 9.1 | 27.3 | 37.4 | 2.76 | t=0.136 (99) | 7.2 | 13.3 | 37.4 | 42.1 | 3.14 | *** | (361)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도지역 | 23.1 | 18.8 | 23.1 | 35.0 | 3.92 | (117) | 5.5 | 10.4 | 31.5 | 52.6 | 3.47 | t=-0.259 | (365) |
| | 도지역 | 17.6 | 18.5 | 31.1 | 32.8 | 3.95 | t=0.196 (119) | 4.6 | 10.6 | 28.8 | 56.0 | 3.48 | | (368) |
| 거주 권역 | 서울 | 25.6 | 10.3 | 25.6 | 38.5 | 2.77 | (39) | 6.1 | 12.2 | 32.1 | 49.6 | 3.25 | | (131) |
| | 인천·경기·강원 | 19.1 | 20.6 | 32.4 | 27.9 | 2.69 | (68) | 4.4 | 10.3 | 31.0 | 54.4 | 3.35 | | (252) |
| | 충청권 | 6.7 | 16.7 | 33.3 | 43.3 | 3.13 | F=0.862 (30) | 2.6 | 9.1 | 33.8 | 54.5 | 3.40 | F=0.383 | (77) |
| | 전라권 | 22.9 | 22.9 | 20.0 | 34.3 | 2.66 | (35) | 3.7 | 12.2 | 28.0 | 56.1 | 3.37 | | (82) |
| | 경북권 | 32.0 | 12.0 | 16.0 | 40.0 | 2.64 | (25) | 5.3 | 10.5 | 30.3 | 53.9 | 3.33 | | (76) |
| | 경남권 | 17.9 | 25.6 | 28.2 | 28.2 | 2.67 | (39) | 7.8 | 8.7 | 25.2 | 58.3 | 3.34 | | (115) |
| 연령 | 45-49세 | 27.5 | 12.5 | 42.5 | 17.5 | 2.50 | (40) | 3.7 | 9.5 | 30.7 | 56.1 | 3.39 | | (189) |
| | 50-54세 | 16.7 | 20.4 | 29.6 | 33.3 | 2.80 | F=0.788 (54) | 6.3 | 12.6 | 28.9 | 52.1 | 3.27 | F=0.880 | (190) |
| | 55-59세 | 24.7 | 15.1 | 19.2 | 41.1 | 2.77 | (73) | 5.3 | 11.8 | 29.4 | 53.5 | 3.31 | | (187) |
| | 60-64세 | 14.5 | 24.6 | 24.6 | 36.2 | 2.83 | (69) | 4.8 | 7.8 | 31.7 | 55.7 | 3.38 | | (167) |
| 혼인 지위 | 유배우 | 5.0 | 13.5 | 27.7 | 53.9 | 3.30 | (141) | 3.3 | 10.2 | 30.5 | 56.0 | 3.39 | | (696) |
| | 사별 | - | 100.0 | - | - | 2.00 | (3) | 50.0 | - | - | 50.0 | 2.50 | | (2) |
| | 이혼·별거 | 49.2 | 27.0 | 19.0 | 4.8 | 1.79 | (63) | 47.8 | 21.7 | 13.0 | 17.4 | 2.00 | | (23) |
| 교육 수준 | 미혼·비혼·기타 | 34.5 | 17.2 | 44.8 | 3.4 | 2.17 | (29) | 16.7 | 8.3 | 50.0 | 25.0 | 2.83 | | (12) |
| | 고교 이하 | 27.9 | 21.3 | 23.0 | 27.9 | 2.51 | (61) | 3.8 | 15.4 | 30.3 | 50.5 | 3.27 | | (208) |
| | 대학교 | 18.6 | 19.3 | 26.9 | 35.2 | 2.79 | F=2.436 (145) | 5.8 | 8.6 | 30.2 | 55.3 | 3.35 | F=0.966 | (430) |
| 근로 여부 | 대학원 | 13.3 | 10.0 | 36.7 | 40.0 | 3.03 | (30) | 4.2 | 8.4 | 29.5 | 57.9 | 3.41 | | (95) |
| | 그렇다 | 19.9 | 18.3 | 29.0 | 32.8 | 2.75 | (186) | 5.1 | 9.5 | 28.9 | 56.4 | 3.37 | t=1.379 | (505) |
| 가구 소득 | 아니다 | 22.0 | 20.0 | 20.0 | 38.0 | 2.74 | t=0.040 (50) | 4.8 | 12.7 | 32.9 | 49.6 | 3.27 | | (228) |
| | 199 이하 | 37.0 | 22.2 | 18.5 | 22.2 | 2.26 | (54) | 12.5 | 14.3 | 30.4 | 42.9 | 3.04 | | (56) |
| | 200~399 | 26.0 | 23.4 | 26.0 | 24.7 | 2.49 | (77) | 7.6 | 12.6 | 26.3 | 53.5 | 3.26 | | (198) |
| | 400~599 | 10.7 | 12.5 | 30.4 | 46.4 | 3.13 | F=11.165*** (56) | 3.4 | 11.0 | 34.1 | 51.5 | 3.34 | F=5.177** | (264) |
| 주택 형태 | 600 이상 | 4.1 | 14.3 | 34.7 | 46.9 | 3.24 | (49) | 2.8 | 7.0 | 28.8 | 61.4 | 3.49 | | (215) |
| | 자가 | 16.3 | 18.6 | 27.9 | 37.2 | 2.86 | (129) | 4.0 | 9.5 | 29.6 | 56.9 | 3.39 | | (550) |
| | 점유 | 25.6 | 10.3 | 33.3 | 30.8 | 2.69 | F=1.644 (39) | 6.8 | 10.7 | 33.0 | 49.5 | 3.25 | F=6.292** | (103) |
| 주관 적 경제 수준 | 전세 | 25.0 | 23.5 | 22.1 | 29.4 | 2.56 | (68) | 10.0 | 17.5 | 30.0 | 42.5 | 3.05 | | (80) |
| | 월세 | 11.3 | 11.3 | 29.0 | 48.4 | 3.15 | (62) | 1.7 | 8.4 | 26.1 | 63.9 | 3.52 | | (238) |
| | 중하층 | 11.8 | 21.2 | 34.1 | 32.9 | 2.88 | F=11.183*** (85) | 3.9 | 11.3 | 34.1 | 50.7 | 3.32 | F=11.845*** | (337) |
| 하층 | 34.8 | 21.3 | 19.1 | 24.7 | 2.34 | (89) | 12.7 | 12.0 | 27.8 | 47.5 | 3.10 | | (158) |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3) 혼인지위는 빈도수가 낮은 셀이 포함되어 F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는데, 1인가구는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이 44.9%, 약간 만족한다는 35.1%였고, 다인가구는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58.5%, 약간 만족한다는 응답은 33.2%로 나타나 만족스럽지 않다는 비율은 10% 미만이었다.

자녀와의 관계는 1인가구에서 특성별 차이가 많이 나타났는데,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을 보면, 남성은 34.5%, 여성은 27.1%로 관계 만족도가 아주 높은 경우가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만족도 평균 차이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또는 사별한 경우의 만족도가 높았으나 사례수가 작아 특성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1인가구는 주택 점유형태와 주관적 경제 수준에 따라서도 자녀와의 관계 만족에 있어 차이가 나타났다. 주택 점유형태에서는 자가인 경우 3.31점이었으나 전세는 3.02점, 월세 등에서는 3.01점으로 나타났다. 자가로 살고 있는 1인가구는 자녀와의 관계가 매우 만족스러운 경우가 52.2%로 높은 특징을 보인다. 주관적 경제수준에서는 낮은 그룹일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여기에서도 중상층의 자녀와 매우 만족스러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55.4%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림 5-5> 가족관계 만족도 (종합) : 1인가구와 다인가구

<표 5-26>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평균 | t/F | (명) | | | |
|-----------|-------------|-------------|---------|---------|---------------|-------------|---------|---------|------|------|------|------|-----------|-------|
| |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 | 약간 만족한다 | 매우 만족한다 |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 | 약간 만족한다 | 매우 만족한다 | | | | | | |
| 전체 | 7.9 | 12.1 | 35.1 | 44.9 | 3.17 | - | (305) | 1.1 | 7.2 | 33.2 | 58.5 | 3.49 | - | (726) |
| 성별 | 남자 | 7.9 | 14.5 | 43.0 | 34.5 | 3.04 | (165) | 1.6 | 6.6 | 31.3 | 60.4 | 3.51 | t=2.646** | (364) |
| | 여자 | 7.9 | 9.3 | 25.7 | 57.1 | 3.32 | (140) | 0.6 | 7.7 | 35.1 | 56.6 | 3.48 | t=0.548 | (362)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11.8 | 12.4 | 33.3 | 42.5 | 3.82 | (153) | 1.4 | 5.8 | 34.5 | 58.3 | 3.65 | t=-1.324 | (362) |
| | 도지역 | 3.9 | 11.8 | 36.8 | 47.4 | 3.95 | (152) | 0.8 | 8.5 | 31.9 | 58.8 | 3.62 | t=0.565 | (364) |
| 거주 권역 | 서울 | 11.5 | 11.5 | 28.8 | 48.1 | 3.13 | (52) | 0.8 | 6.9 | 36.2 | 56.2 | 3.48 | | (130) |
| | 인천·경기·강원 | 10.0 | 12.2 | 38.9 | 38.9 | 3.07 | (90) | 1.6 | 7.6 | 32.5 | 58.2 | 3.47 | | (249) |
| | 충청권 | - | 18.9 | 29.7 | 51.4 | 3.32 | (37) | 1.3 | 6.4 | 34.6 | 57.7 | 3.49 | F=0.183 | (78) |
| | 전라권 | 5.1 | 7.7 | 46.2 | 41.0 | 3.23 | (39) | - | 10.0 | 26.3 | 63.8 | 3.54 | | (80) |
| | 경북권 | 8.6 | 11.4 | 25.7 | 54.3 | 3.26 | (35) | - | 6.7 | 38.7 | 54.7 | 3.48 | | (75) |
| | 경남권 | 7.7 | 11.5 | 36.5 | 44.2 | 3.17 | (52) | 1.8 | 5.3 | 31.6 | 61.4 | 3.53 | | (114) |
| 연령 | 45-49세 | 21.4 | 7.1 | 38.1 | 33.3 | 2.83 | (42) | 2.2 | 7.2 | 28.7 | 61.9 | 3.50 | | (181) |
| | 50-54세 | 7.0 | 16.9 | 29.6 | 46.5 | 3.15 | (71) | 0.5 | 7.6 | 34.6 | 57.3 | 3.49 | F=2.404 | (185) |
| | 55-59세 | 7.7 | 6.6 | 36.3 | 49.5 | 3.27 | (91) | 1.6 | 6.4 | 38.0 | 54.0 | 3.44 | F=0.593 | (187) |
| | 60-64세 | 3.0 | 15.8 | 36.6 | 44.6 | 3.23 | (101) | - | 7.5 | 31.2 | 61.3 | 3.54 | | (173) |
| 혼인 지위 | 유배우 | 2.2 | 5.9 | 34.6 | 57.4 | 3.47 | (136) | 0.6 | 7.0 | 32.9 | 59.5 | 3.51 | | (671) |
| | 사별 | 5.6 | 5.6 | 22.2 | 66.7 | 3.50 | (18) | - | - | 60.0 | 40.0 | 3.40 | | (5) |
| | 이혼·별거 | 8.1 | 21.1 | 35.0 | 35.8 | 2.98 | (123) | 5.1 | 10.3 | 30.8 | 53.8 | 3.33 | | (39) |
| | 미혼·비혼기타 | 35.7 | 7.1 | 46.4 | 10.7 | 2.32 | (28) | 18.2 | 9.1 | 45.5 | 27.3 | 2.82 | | (11)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13.7 | 16.8 | 21.1 | 48.4 | 3.04 | (95) | 0.5 | 7.5 | 30.5 | 61.5 | 3.53 | | (200) |
| | 대학교 | 5.6 | 9.0 | 44.1 | 41.2 | 3.21 | (177) | 0.9 | 7.2 | 34.2 | 57.7 | 3.49 | F=1.5 | (430) |
| | 대학원 | 3.0 | 15.2 | 27.3 | 54.5 | 3.33 | (33) | 3.1 | 6.3 | 34.4 | 56.3 | 3.44 | F=0.640 | (96) |
| 근로 여부 | 그렇다 | 6.9 | 10.8 | 39.0 | 43.3 | 3.19 | (231) | 1.2 | 7.2 | 33.5 | 58.2 | 3.49 | t=0.478 | (502) |
| | 아니다 | 10.8 | 16.2 | 23.0 | 50.0 | 3.12 | (74) | 0.9 | 7.1 | 32.6 | 59.4 | 3.50 | t=-0.338 | (224)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11.5 | 20.7 | 25.3 | 42.5 | 2.99 | (87) | 6.3 | 6.3 | 29.2 | 58.3 | 3.40 | | (48) |
| | 200~399 | 9.3 | 8.4 | 35.5 | 46.7 | 3.20 | (107) | 1.0 | 7.5 | 37.5 | 54.0 | 3.45 | F=1.775 | (200) |
| | 400~599 | 3.2 | 8.1 | 43.5 | 45.2 | 3.31 | (62) | 0.4 | 8.3 | 34.7 | 56.6 | 3.48 | F=1.828 | (265) |
| | 600 이상 | 4.1 | 10.2 | 40.8 | 44.9 | 3.27 | (49) | 0.9 | 5.6 | 28.2 | 65.3 | 3.58 | | (213)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 6.3 | 8.2 | 33.3 | 52.2 | 3.31 | (159) | 1.1 | 6.8 | 33.3 | 58.8 | 3.50 | | (546) |
| | 전세 | 7.8 | 17.6 | 39.2 | 35.3 | 3.02 | (51) | - | 8.1 | 27.3 | 64.6 | 3.57 | F=4.091* | (99) |
| | 월세 기타 | 10.5 | 15.8 | 35.8 | 37.9 | 3.01 | (95) | 2.5 | 8.6 | 39.5 | 49.4 | 3.36 | F=2.194 | (81) |
| 주관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3.1 | 9.2 | 32.3 | 55.4 | 3.40 | (65) | 0.9 | 7.7 | 26.5 | 65.0 | 3.56 | | (234) |
| | 중하층 | 4.7 | 8.4 | 41.1 | 45.8 | 3.28 | (107) | 1.2 | 6.2 | 37.1 | 55.5 | 3.47 | F=6.054** | (337) |
| | 하층 | 12.8 | 16.5 | 31.6 | 39.1 | 2.97 | (133) | 1.3 | 8.4 | 34.8 | 55.5 | 3.45 | | (155)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3) 혼인지위는 빈도수가 낮은 셀이 포함되어 F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친구관계: 1인가구와 다인가구

가. 친구와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에 대해 알아보면, 1인가구는 친구와의 만남이 다인가구보다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는 월 1회 이하로 친구와 만나는 비율이 42.4%, 월 2-3회 친구와 만나는 비율이 28.0%이고, 월 4회 이상 친구와 만나는 경우는 20.0%, 소통이 전혀 없는 경우는 9.6%로 나타났다. 다인가구의 경우는 월 1회 이하로 친구를 만나는 비율이 57.0%로 1인가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월 2-3회 만나는 경우는 23.0%, 월 4회 이상은 21.1%, 그리고 소통이 전혀 없는 경우는 6.7%로 나타나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친구를 만나는 빈도에 있어 비율 순위 경향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1인가구 중 도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월 1회 이하로 친구를 만난다는 비율과 월 4회 이상 만난다는 비율은 광역 및 특별시 거주자보다 높고 소통이 전혀 없거나 월 2-3회 친구를 만나는 비율은 도지역보다 광역 및 특별시 지역 거주자가 높게 나타났다. 40대 1인가구는 친구와 소통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2%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으며, 월 4회 이상 만난다고 응답한 비율도 12.1%로 다른 연령대보다 낮은 특징을 보인다. 1인가구가 월 2-3회에 응답한 비율과 월 4회 이상에 응답한 비율을 더해 보면, 55-59세가 52.6%로 과반으로 나타나 친구와의 만남을 가장 빈번하게 갖는 연령대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1인가구는 교육수준, 근로 여부, 가구소득, 주택 점유형태, 주관적 경제적 수준에서도 친구와의 만남 빈도에 차이를 보였다.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는 소통 없다는 비율과 월 4회 이상이라는 비율이 다른 그룹에 비해 높아 친구와의 소통이 양극단으로 분리되는 현상을 보이는 그룹이다. 근로를 하지 않는 1인가구는 친구와 소통이 전혀 없다는 비율이 17.3%로 근로를 하는 경우의 7.4%보다 높아 차이를 보이고,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소통 없음에 응답한 비율이 17.1%로 다른 소득 구간의 1인가구보다 높은 특징을 보인다. 월 4회 이상 친구와 만나는 경우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그 비율도 증가하다가 월 600이상의 소득이 있는 1인가구는 그 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어드는 특징을 보인다.

주택 점유형태가 자가인 경우 친구와의 만남이 4회 이상인 비율이 높고 소통이 없는

경우의 비율은 낮는데 점유형태가 전세, 월세로 이어지면서 그 비율은 반대로 증감해 월세일 때 소통 없는 비율이 가장 높고, 월 4회 이상 만나는 비율은 가장 낮아진다. 이러한 경향은 주관적 경제 수준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어 하층은 소통 없는 비율이 가장 높고 월 4회 이상 만남의 비율은 가장 낮은 특성을 보인다.

즉, 1인가구의 친구와의 만남은 매우 여러 요인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경제적인 수준과 관련된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반면, 다인가구의 경우는 가구소득과 주관적 경제적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가구소득이 199만 원 이하인 경우의 친구와 소통 없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월 1회 이하인 비율은 낮은 특성을 보인다. 1인가구와 달리 가구소득이 600만 원 이상으로 높은 다인가구는 친구와의 만남이 월 2-3회와 월 4회 이상인 경우가 높은 특성을 보인다. 주관적 경제적 수준은 1인가구에서와 같이 다인가구 또한 본인의 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친구와 소통이 없는 비율이 증가하고 경제적 수준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자주 만나는 비율은 증가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27> 친구와 직접 만나는 빈도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 | 소통 없음 | 월1회 이하 | 월2~3 회 | 월4회 이상 | χ^2 | (명) | 소통 없음 | 월1회 이하 | 월2~3 회 | 월4회 이상 | χ^2 | (명) | |
| 전체 | 9.6 | 42.4 | 28.0 | 20.0 | - | (500) | 10.4 | 57.0 | 21.4 | 11.3 | - | (800) | |
| 성별 | 남자 | 10.2 | 41.5 | 30.2 | 18.2 | 2.393 | 8.5 | 57.2 | 23.6 | 10.7 | 5.015 | (402) | |
| | 여자 | 8.9 | 43.6 | 25.3 | 22.2 | | 12.3 | 56.8 | 19.1 | 11.8 | | (398) |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10.4 | 38.0 | 33.2 | 18.4 | 8.085* | 10.0 | 57.0 | 19.7 | 13.4 | 4.686 | (402) | |
| | 도지역 | 8.8 | 46.8 | 22.8 | 21.6 | | 10.8 | 57.0 | 23.1 | 9.0 | | (398) | |
| 거주 권역 | 서울 | 4.7 | 39.5 | 40.7 | 15.1 | 23.575 | 6.9 | 60.7 | 21.4 | 11.0 | 16.952 | (145) | |
| | 인천·경기·강원 | 10.1 | 50.9 | 18.9 | 20.1 | | 10.5 | 60.0 | 18.9 | 10.5 | | (275) | |
| | 충청권 | 9.6 | 40.4 | 32.7 | 17.3 | | 12.0 | 57.8 | 25.3 | 4.8 | | (83) | |
| | 전라권 | 10.8 | 32.3 | 36.9 | 20.0 | | 11.4 | 45.5 | 25.0 | 18.2 | | (88) | |
| | 경북권 | 10.9 | 45.5 | 21.8 | 21.8 | | 14.8 | 54.3 | 22.2 | 8.6 | | (81) | |
| 경남권 | 12.0 | 36.1 | 26.5 | 25.3 | (83) | 9.4 | 55.5 | 21.1 | 14.1 | (128) | | | |
| 연령 | 45-49세 | 5.2 | 45.7 | 37.1 | 12.1 | 18.112* | 10.5 | 64.3 | 14.8 | 10.5 | 10.640 | (210) | |
| | 50-54세 | 11.9 | 42.4 | 25.4 | 20.3 | | 10.0 | 53.6 | 24.4 | 12.0 | | (209) | |
| | 55-59세 | 10.4 | 37.0 | 31.1 | 21.5 | | 11.4 | 56.2 | 22.9 | 9.5 | | (201) | |
| | 60-64세 | 10.7 | 45.0 | 19.1 | 25.2 | | 9.4 | 53.3 | 23.9 | 13.3 | | (180) | |
| 혼인 지위 | 유배우 | 5.0 | 48.9 | 24.1 | 22.0 | 14.968 | 10.3 | 57.0 | 21.4 | 11.2 | - | (696) | |
| | 사별 | - | 40.9 | 31.8 | 27.3 | | (22) | - | 80.0 | 20.0 | | - | (5) |
| | 이혼·별거 | 14.4 | 36.0 | 28.1 | 21.6 | | 11.6 | 55.8 | 23.3 | 9.3 | | (43) | |
| 미혼·비혼기타 | 10.6 | 42.4 | 30.3 | 16.7 | (198) | 10.7 | 55.4 | 19.6 | 14.3 | (56) | | |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16.9 | 38.0 | 19.7 | 25.4 | 21.027** | 15.3 | 54.1 | 21.4 | 9.2 | 9.974 | (229) | |
| | 대학교 | 7.4 | 43.1 | 31.3 | 18.2 | | (297) | 8.5 | 57.8 | 22.0 | | 11.7 | (469) |
| | 대학원 | 3.3 | 49.2 | 31.1 | 16.4 | | (61) | 7.8 | 59.8 | 18.6 | | 13.7 | (102) |
| 근로 여부 | 그렇다 | 7.4 | 43.1 | 30.5 | 19.0 | 13.770** | 9.0 | 58.0 | 21.4 | 11.5 | 3.720 | (555) | |
| | 아니다 | 17.3 | 40.0 | 19.1 | 23.6 | | (110) | 13.5 | 54.7 | 21.2 | | 10.6 | (245)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17.1 | 41.5 | 24.4 | 17.1 | 27.896*** | 28.4 | 38.8 | 20.9 | 11.9 | 41.668*** | (67) | |
| | 200~399 | 8.2 | 39.6 | 31.3 | 20.9 | | (182) | 12.8 | 59.9 | 18.1 | | 9.3 | (227) |
| | 400~599 | 5.6 | 50.6 | 18.0 | 25.8 | | (89) | 9.6 | 58.6 | 20.7 | | 11.1 | (280) |
| 600 이상 | - | 41.5 | 41.5 | 16.9 | (65) | 3.5 | 57.5 | 25.7 | 13.3 | (226) | | |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 4.7 | 43.4 | 26.4 | 25.5 | 21.695** | 10.3 | 58.0 | 20.3 | 11.4 | 2.046 | (595) | |
| | 전세 | 10.9 | 38.6 | 33.7 | 16.8 | | (101) | 11.0 | 53.2 | 23.9 | | 11.9 | (109) |
| | 월세 기타 | 15.9 | 43.3 | 26.8 | 14.0 | | (164) | 10.4 | 55.2 | 25.0 | | 9.4 | (96) |
| 주관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6.1 | 34.7 | 34.7 | 24.5 | 18.028** | 5.6 | 56.0 | 24.2 | 14.3 | 16.773* | (252) | |
| | 중하층 | 5.5 | 42.9 | 30.8 | 20.9 | | (182) | 10.8 | 58.5 | 20.1 | | 10.6 | (369) |
| | 하층 | 14.5 | 45.5 | 22.7 | 17.3 | | (220) | 16.2 | 55.3 | 20.1 | | 8.4 | (179)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3)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나. 친구와의 연락 빈도

직접 만남이 아니라 친구와 연락하는 빈도를 질문한 결과를 보면, 1인가구의 경우 월 4회 이상이 41.6%, 월 2-3회가 26.2%, 월 1회 이하는 25.6%, 전혀 연락하지 않는 경우는 6.6%로 나타났다. 다인가구는 1인가구와 달리 월 2-3회라는 응답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 월 1회 이하가 32.3%, 월 4회 이상은 29.6%, 전혀 연락하지 않는 경우는 5.0%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 1인가구와 다인가구 모두 친구와의 연락 빈도에 차이를 보였는데, 1인가구는 월 4회 이상 친구와 연락한다는 비율이 남성 35.6%, 여성 48.9%로 차이를 보였고, 다인가구는 남성 27.1%, 여성 32.2%로 차이를 보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친구와 자주 연락하는 비율이 높고, 다인가구보다 1인가구가 친구와 자주 연락하는 비율이 높았다.

다인가구의 경우는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는데, 월 2-3회 연락하는 비율이 광역시나 특별시의 경우는 36.3%인데 반해, 도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29.9%로 약간 낮았다. 1인가구는 혼인 지위에 따라 친구와 연락하는 것에 차이를 보였는데, 배우자가 있는 1인가구는 친구와 소통이 없는 비율이 1.4%였으나, 이혼이나 별거 한 그룹은 10.8%, 미혼이나 비혼 및 기타는 8.1%로 배우자가 있는 그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별한 그룹은 친구와 가장 자주 연락하는 그룹으로 나타났는데, 친구와 소통이 없는 경우는 없으며, 월 1회 이하도 9.1%로 낮고, 월 2-3회가 31.8%, 월 4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은 59.1%로 월 2회 이상의 비율이 다른 그룹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차이를 보인다.

1인가구는 친구와의 연락에 있어 교육수준, 근로 여부, 가구소득, 주택 점유형태, 주관적 경제 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1인가구의 고졸 이하 그룹은 친구와 소통하지 않는 비율이 12.7%로 높고, 월 4회 이상 만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는 친구와 연락하지 않는 비율이 11.8%로 근로하는 경우의 5.1%보다 높고, 월 1회 이하로 연락하는 비율은 근로를 하는 경우가 27.4%로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의 19.1%보다 높았다. 가구소득이 199만 원 이하인 1인가구는 친구와 연락하지 않는 비율이 13.4%로 매우 높은 편이고, 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그룹은 월 4회 이상이 53.8%로 다른 그룹보다 친구와 자주 연락하는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월세나 기

타 점유형태의 인 가구는 친구와 만나지 않는 비율이 높고 자주 만나는 비율은 낮으며, 경제적 수준이 가장 낮다고 생각하는 그룹이 친구와 전혀 연락하지 않는 비율이 높고, 월 4회 이상 만나는 비율은 가장 낮은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다인가구의 경우는 성별과 거주지역 이외에 차이를 보인 것은 교육수준, 가구소득인데, 고졸 이하가 친구와 전혀 연락하지 않는 비율이 10.0%로 높고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은 1인가구와 같으나 월 4회 이상 연락하는 경우는 대학교 졸업의 학력 그룹이 30.9%로 가장 높아 1인가구와 그 경향이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있다. 가구소득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친구와 전혀 연락하지 않는 비율은 줄고, 월 4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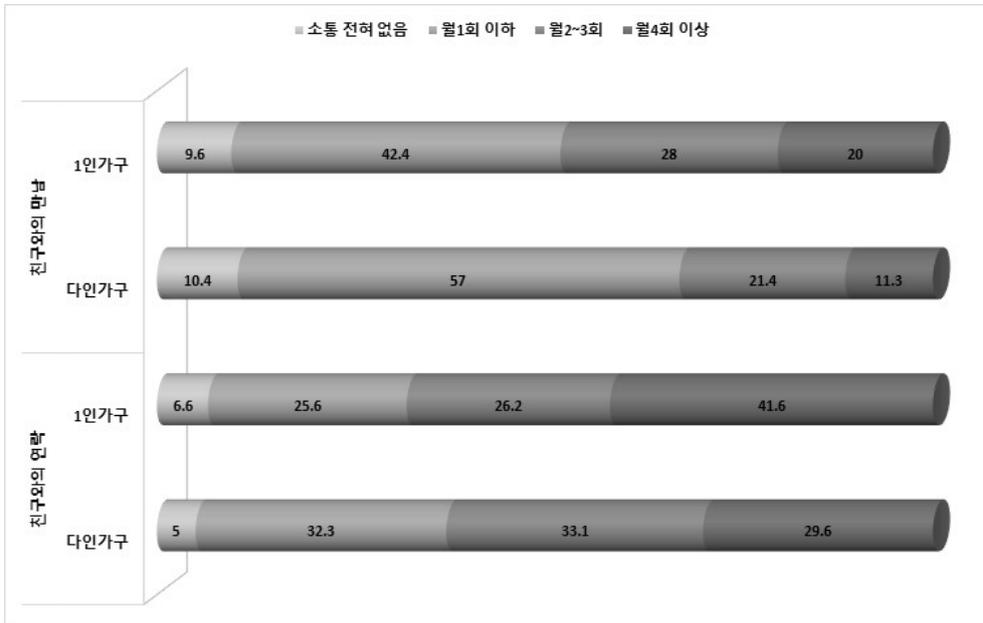
<표 5-28> 친구와 연락하는 빈도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 소통 전혀 없음 | 월1회 이하 | 월2~3 회 | 월4회 이상 | χ^2 | (명) | 소통 전혀 없음 | 월1회 이하 | 월2~3 회 | 월4회 이상 | χ^2 | (명) | |
| 전체 | 6.6 | 25.6 | 26.2 | 41.6 | - | (500) | 5.0 | 32.3 | 33.1 | 29.6 | - | (800) | |
| 성별 | 남자 | 7.6 | 28.0 | 28.7 | 35.6 | 9.084* | (275) | 4.0 | 36.6 | 32.3 | 27.1 | 8.221* | (402) |
| | 여자 | 5.3 | 22.7 | 23.1 | 48.9 | | (225) | 6.0 | 27.9 | 33.9 | 32.2 | | (398)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7.2 | 24.0 | 28.8 | 40.0 | 2.370 | (250) | 2.5 | 31.1 | 36.3 | 30.1 | 13.085** | (402) |
| | 도지역 | 6.0 | 27.2 | 23.6 | 43.2 | | (250) | 7.5 | 33.4 | 29.9 | 29.1 | | (398) |
| 거주 권역 | 서울 | 4.7 | 19.8 | 30.2 | 45.3 | 13.296 | (86) | 2.1 | 31.0 | 39.3 | 27.6 | 13.506 | (145) |
| | 인천·경기·강원 | 7.5 | 25.8 | 23.3 | 43.4 | | (159) | 6.9 | 30.9 | 32.4 | 29.8 | | (275) |
| | 충청권 | 1.9 | 30.8 | 26.9 | 40.4 | | (52) | 4.8 | 38.6 | 32.5 | 24.1 | | (83) |
| | 전라권 | 6.2 | 18.5 | 33.8 | 41.5 | | (65) | 6.8 | 30.7 | 30.7 | 31.8 | | (88) |
| | 경북권 | 10.9 | 32.7 | 18.2 | 38.2 | | (55) | 6.2 | 33.3 | 33.3 | 27.2 | | (81) |
| | 경남권 | 7.2 | 28.9 | 26.5 | 37.3 | | (83) | 2.3 | 32.8 | 29.7 | 35.2 | | (128) |
| 연령 | 45-49세 | 3.4 | 29.3 | 22.4 | 44.8 | 11.047 | (116) | 6.7 | 33.3 | 31.9 | 28.1 | 4.892 | (210) |
| | 50-54세 | 6.8 | 32.2 | 25.4 | 35.6 | | (118) | 4.8 | 33.0 | 33.0 | 29.2 | | (209) |
| | 55-59세 | 8.9 | 19.3 | 26.7 | 45.2 | | (135) | 3.5 | 34.3 | 33.8 | 28.4 | | (201) |
| | 60-64세 | 6.9 | 22.9 | 29.8 | 40.5 | | (131) | 5.0 | 27.8 | 33.9 | 33.3 | | (180) |
| 혼인 지위 | 유배우 | 1.4 | 29.1 | 27.7 | 41.8 | 17.328* | (141) | 5.0 | 33.0 | 33.2 | 28.7 | - | (696) |
| | 사별 | - | 9.1 | 31.8 | 59.1 | | (22) | - | 40.0 | 20.0 | 40.0 | | (5) |
| | 이혼·별거 | 10.8 | 23.7 | 23.7 | 41.7 | | (139) | 7.0 | 20.9 | 37.2 | 34.9 | | (43) |
| | 미혼·비혼·기타 | 8.1 | 26.3 | 26.3 | 39.4 | | (198) | 3.6 | 30.4 | 30.4 | 35.7 | | (56)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12.7 | 26.1 | 21.8 | 39.4 | 14.889* | (142) | 10.0 | 31.0 | 29.7 | 29.3 | 23.920** | (229) |
| | 대학교 | 4.7 | 24.6 | 29.0 | 41.8 | | (297) | 3.0 | 30.5 | 35.6 | 30.9 | | (469) |
| | 대학원 | 1.6 | 29.5 | 23.0 | 45.9 | | (61) | 2.9 | 43.1 | 29.4 | 24.5 | | (102) |
| 근로 여부 | 그렇다 | 5.1 | 27.4 | 25.4 | 42.1 | 8.689* | (390) | 4.5 | 33.5 | 32.6 | 29.4 | 1.971 | (555) |
| | 아니다 | 11.8 | 19.1 | 29.1 | 40.0 | | (110) | 6.1 | 29.4 | 34.3 | 30.2 | | (245)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13.4 | 25.0 | 25.0 | 36.6 | 23.619** | (164) | 10.4 | 40.3 | 25.4 | 23.9 | 23.464** | (67) |
| | 200~399 | 4.4 | 26.4 | 26.4 | 42.9 | | (182) | 6.6 | 35.7 | 32.2 | 25.6 | | (227) |
| | 400~599 | 3.4 | 29.2 | 28.1 | 39.3 | | (89) | 5.0 | 33.2 | 30.7 | 31.1 | | (280) |
| | 600 이상 | - | 20.0 | 26.2 | 53.8 | | (65) | 1.8 | 25.2 | 39.4 | 33.6 | | (226)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 2.1 | 26.0 | 26.0 | 46.0 | 21.739** | (235) | 4.7 | 32.4 | 32.4 | 30.4 | 2.749 | (595) |
| | 전세 | 6.9 | 23.8 | 23.8 | 45.5 | | (101) | 6.4 | 31.2 | 32.1 | 30.3 | | (109) |
| | 월세 기타 | 12.8 | 26.2 | 28.0 | 32.9 | | (164) | 5.2 | 32.3 | 38.5 | 24.0 | | (96) |
| 주관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4.1 | 21.4 | 20.4 | 54.1 | 16.277* | (98) | 2.8 | 28.6 | 32.9 | 35.7 | 11.708 | (252) |
| | 중하층 | 3.8 | 24.2 | 29.7 | 42.3 | | (182) | 5.1 | 34.4 | 33.1 | 27.4 | | (369) |
| | 하층 | 10.0 | 28.6 | 25.9 | 35.5 | | (220) | 7.8 | 33.0 | 33.5 | 25.7 | | (17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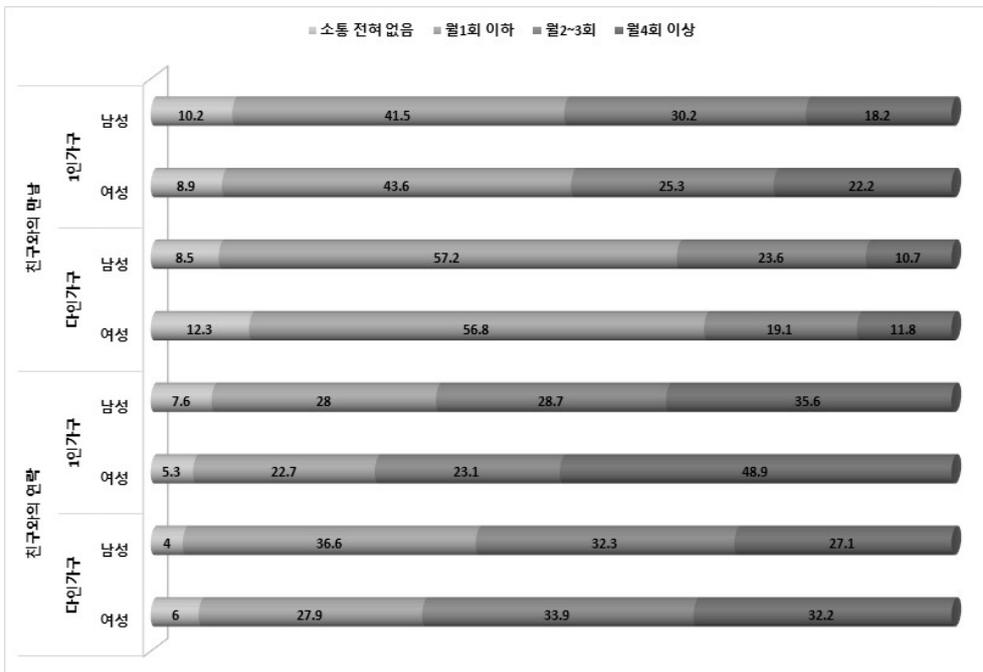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3)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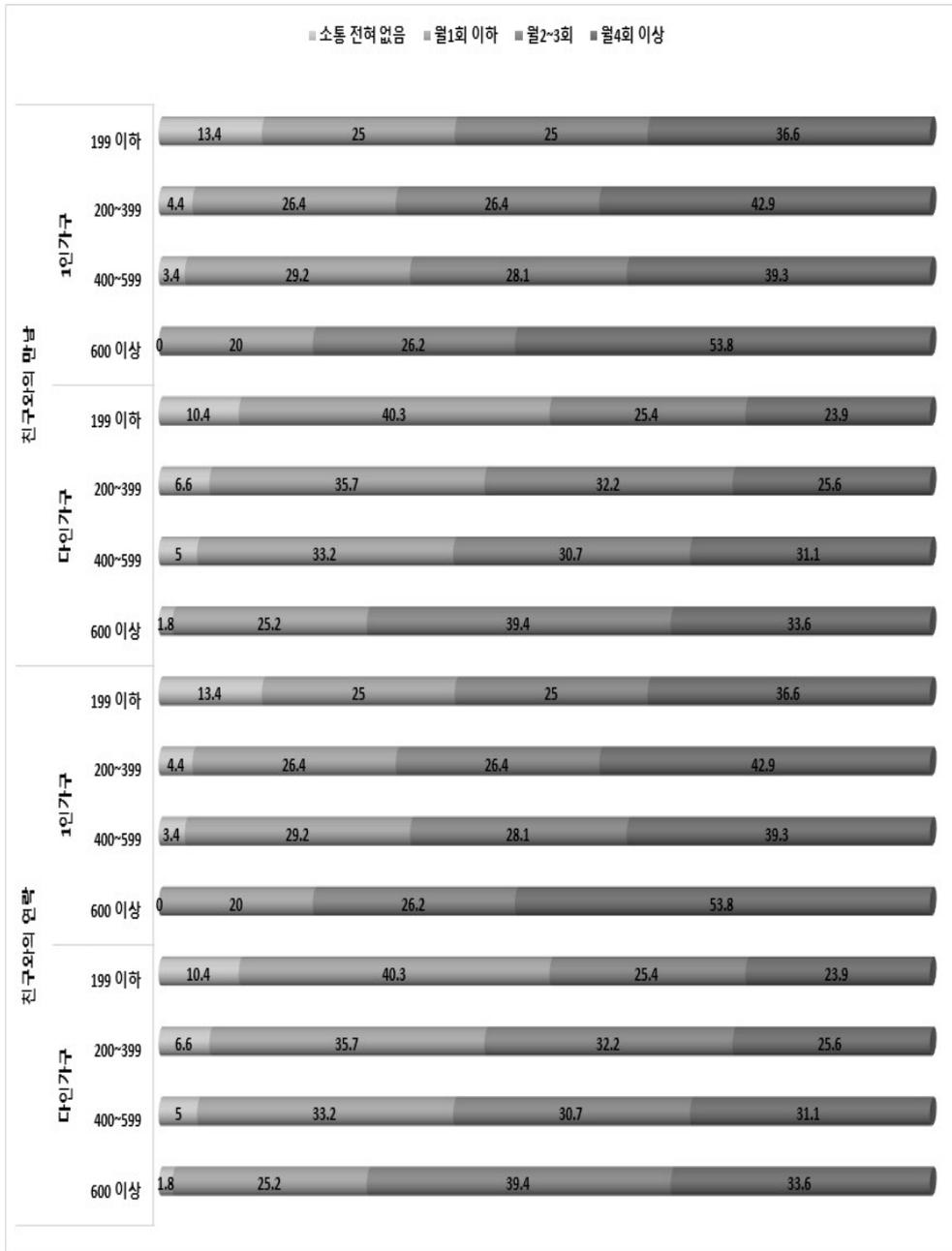
<그림 5-6> 친구와의 만남·연락 빈도(전체): 1인가구와 다인가구

(단위: %)



<그림 5-7> 친구와의 만남·연락 빈도(성별): 1인가구와 다인가구

(단위: %)



<그림 5-8> 친구와의 만남·연락 빈도 (가구소득별) : 1인가구와 다인가구

다. 친구 관계 만족도

친구와의 관계 만족에서는 1인가구가 약간 만족한다는 응답 52.7%,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27.2%로 나타났다. 다인가구에서는 약간 만족한다는 비율이 51.3%,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30.8%로 나타나 다인가구가 1인가구보다 친구와의 관계 만족이 약간 더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1인가구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 주택 점유형태,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라 만족도 차이를 보였다. 연령대에서는 50-55세의 만족도가 2.87점으로 가장 낮았고, 60세 이상은 3.13점으로 가장 높아 차이가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친구와 관계 만족도가 높아졌는데, 고졸 이하의 그룹에서는 2.89점, 대학원 이상에서는 3.17점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과 주관적 경제수준에서는 경제적 상황이 좋을수록 친구와 관계 만족도 점수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가구소득이 가장 낮은 그룹과 주관적 경제 수준이 가장 낮은 그룹은 친구와 만족도가 2.85점으로 만족도 점수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1인가구 중 월세 등의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도 만족도가 2.84로 경제수준이 낮은 그룹들과 비슷한 수준의 점수를 보였으며, 전세나 자가보다 그 점수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즉, 1인가구의 친구 관계 또한 경제적 수준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인가구에서는 가구소득과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라서 친구와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차이를 보였는데, 1인가구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 상황이 좋을수록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표 5-29> 친구와의 관계 만족도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 | 전혀 만족 스럽 지 않다 | 별로 만족 스럽 지 않다 | 약간 만족 한다 | 매우 만족 한다 | 평균 | t/F | (명) | 전혀 만족 스럽 지 않다 | 별로 만족 스럽 지 않다 | 약간 만족 한다 | 매우 만족 한다 | 평균 | t/F | (명) | |
| 전체 | 3.6 | 16.5 | 52.7 | 27.2 | 3.04 | - | (478) | 2.4 | 15.4 | 51.3 | 30.8 | 3.11 | - | (791) | |
| 성별 | 남자 | 4.5 | 17.3 | 54.1 | 24.1 | 2.98 | t=-1.87 5 | (266) | 1.5 | 14.3 | 53.6 | 30.6 | 3.13 | t=1.021 | (399) |
| | 여자 | 2.4 | 15.6 | 50.9 | 31.1 | 3.11 | | (212) | 3.3 | 16.6 | 49.0 | 31.1 | 3.08 | | (392)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3.3 | 15.5 | 56.1 | 25.1 | 3.12 | t=-0.15 8 | (239) | 1.3 | 15.8 | 50.0 | 33.0 | 3.16 | t=1.089 | (400) |
| | 도지역 | 3.8 | 17.6 | 49.4 | 29.3 | 3.13 | | (239) | 3.6 | 15.1 | 52.7 | 28.6 | 3.10 | | (391) |
| 연령 | 45-49세 | 2.7 | 14.2 | 61.9 | 21.2 | 3.02 | | (113) | 3.8 | 18.8 | 51.4 | 26.0 | 3.00 | | (208) |
| | 50-54세 | 6.3 | 23.4 | 46.8 | 23.4 | 2.87 | F=2.672 | (111) | 1.5 | 15.6 | 50.2 | 32.7 | 3.14 | F=2.258 | (205) |
| | 55-59세 | 4.0 | 12.7 | 53.2 | 30.2 | 3.10 | * | (126) | 2.0 | 14.1 | 53.3 | 30.7 | 3.13 | | (199) |
| | 60-64세 | 1.6 | 16.4 | 49.2 | 32.8 | 3.13 | | (128) | 2.2 | 12.8 | 50.3 | 34.6 | 3.17 | | (179) |
| 혼인 지위 | 유배우 | 3.6 | 13.0 | 49.3 | 34.1 | 3.14 | | (138) | 2.5 | 14.4 | 52.3 | 30.8 | 3.11 | | (688) |
| | 사별 | - | 22.7 | 50.0 | 27.3 | 3.05 | F=1.309 | (22) | - | 20.0 | 40.0 | 40.0 | 3.20 | F=0.585 | (5) |
| | 이혼 별거 | 4.6 | 17.7 | 54.6 | 23.1 | 2.96 | | (130) | 2.4 | 19.0 | 42.9 | 35.7 | 3.12 | | (42) |
| | 미혼비혼기타 | 3.2 | 17.6 | 54.3 | 25.0 | 3.01 | | (188) | 1.8 | 25.0 | 46.4 | 26.8 | 2.98 | | (56)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8.4 | 20.6 | 45.0 | 26.0 | 2.89 | | (131) | 5.3 | 16.4 | 45.6 | 32.7 | 3.06 | | (226) |
| | 대학교 | 2.1 | 14.9 | 56.4 | 26.6 | 3.08 | F=3.941 * | (289) | 1.3 | 13.6 | 55.4 | 29.7 | 3.14 | F=0.926 | (464) |
| | 대학원 | - | 15.5 | 51.7 | 32.8 | 3.17 | | (58) | 1.0 | 21.8 | 45.5 | 31.7 | 3.08 | | (101) |
| 근로 여부 | 그렇다 | 3.4 | 15.9 | 52.4 | 28.3 | 3.06 | | (378) | 2.2 | 15.1 | 52.8 | 29.9 | 3.11 | t=0.054 | (551) |
| | 아니다 | 4.0 | 19.0 | 54.0 | 23.0 | 2.96 | t=1.117 | (100) | 2.9 | 16.3 | 47.9 | 32.9 | 3.11 | | (240)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5.3 | 22.5 | 53.6 | 18.5 | 2.85 | | (151) | 6.3 | 27.0 | 44.4 | 22.2 | 2.83 | | (63) |
| | 200~399 | 4.0 | 16.1 | 52.3 | 27.6 | 3.03 | F=6.522 | (174) | 3.6 | 20.0 | 44.9 | 31.6 | 3.04 | F=6.251 | (225) |
| | 400~599 | 1.1 | 14.6 | 52.8 | 31.5 | 3.15 | *** | (89) | 1.8 | 14.1 | 55.6 | 28.5 | 3.11 | *** | (277) |
| | 600 이상 | 1.6 | 6.3 | 51.6 | 40.6 | 3.31 | | (64) | 0.9 | 9.3 | 54.4 | 35.4 | 3.24 | | (226)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 2.2 | 13.7 | 51.1 | 33.0 | 3.15 | | (227) | 2.4 | 14.3 | 52.6 | 30.7 | 3.12 | | (593) |
| | 전세 | 1.0 | 17.3 | 55.1 | 26.5 | 3.07 | F=7.767 *** | (98) | 1.9 | 15.9 | 48.6 | 33.6 | 3.14 | F=1.105 | (107) |
| | 월세 기타 | 7.2 | 20.3 | 53.6 | 19.0 | 2.84 | | (153) | 3.3 | 22.0 | 46.2 | 28.6 | 3.00 | | (91) |
| 주관 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1.1 | 10.6 | 44.7 | 43.6 | 3.31 | | (94) | 1.2 | 10.4 | 51.4 | 37.1 | 3.24 | | (251) |
| | 중하층 | 1.7 | 12.1 | 59.2 | 27.0 | 3.11 | F=14.12 7*** | (174) | 2.2 | 17.9 | 51.4 | 28.6 | 3.06 | F=6.809 *** | (364) |
| | 하층 | 6.2 | 22.9 | 51.0 | 20.0 | 2.85 | | (210) | 4.5 | 17.6 | 51.1 | 26.7 | 3.00 | | (176)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5. 베이비붐 세대의 가족 가치관과 세대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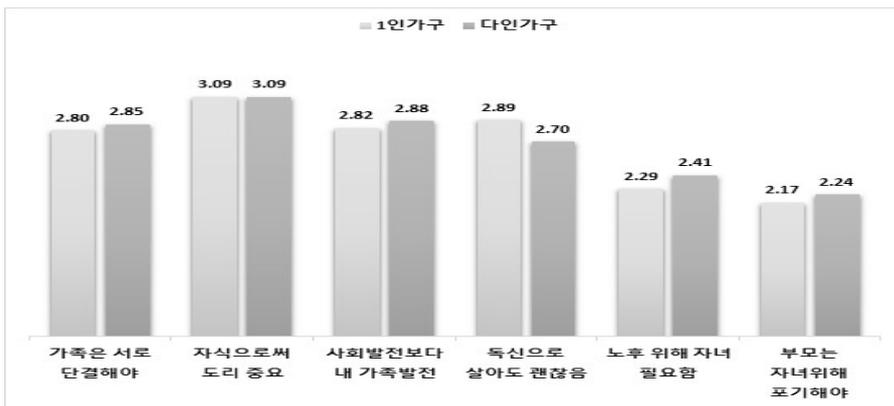
가. 베이비붐 세대의 가족 가치관

1) 베이비붐 세대의 가족 가치관: 전체 비교

이번 연구의 조사대상인 1, 2차 베이비붐 세대가 가족에 대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베이비붐 세대 내부의 차이, 특히 1인가구 거주자의 가치관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모두 여섯 가지 항목으로 조사를 하였는데, 가장 동의의 정도가 높은 것은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4점 척도 평균 3.09점)였다. 다른 항목에서는 척도 평균이 3점에 가까운 수준, 즉 “약한 동의”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 “사회의 발전보다는 내 가족의 발전이 중요하다”(2.86점), “가족은 어떠한 희생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서로 단결해야 한다”(2.83점)에 대해서도 평균점수가 3점 미만이었다. 자녀에 관한 항목으로 “노후를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하다”(2.36점),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해야 한다”(2.21점)에 대한 동의 수준은 조금 더 낮게 조사되었다. 한편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도 괜찮다”에 대한 평균점수는 2.77점으로 마찬가지로 “약한 동의”에 가까운 응답이었다. 45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이번 조사의 응답자들 사이에서 가족을 개인(가족구성원)보다 중요시하거나, 자식을 위해 부모가 희생해야 한다는 전통적 가치관은 상당히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위: 점)



<그림 5-9> 베이비붐 세대의 가족가치관 (종합) : 1인가구와 다인가구

<표 5-30> 베이비붐 세대의 가족가치관 : 전체

(단위: 점)

| 구분 | 가족은 서로 단결해야 | 자식으로서 도리 중요 | 사회발전보다 내 가족발전 | 독신으로 살아도 괜찮음 | 노후 위해 자녀 필요함 | 부모는 자녀 위해 포기해야 |
|------------|-------------|-------------|---------------|--------------|--------------|----------------|
| 전체 | 2.83 | 3.09 | 2.86 | 2.77 | 2.36 | 2.21 |
| 성별 | | | | | | |
| 남성 | 2.93 | 3.16 | 2.89 | 2.64 | 2.36 | 2.26 |
| 여성 | 2.72 | 3.02 | 2.82 | 2.91 | 2.36 | 2.16 |
| t | 5.615*** | 4.311* | 2.195* | -6.4185*** | .547 | 2.431* |
| 가구 형태 | | | | | | |
| 1인가구 | 2.80 | 3.09 | 2.82 | 2.89 | 2.29 | 2.17 |
| 다인가구 | 2.85 | 3.09 | 2.88 | 2.70 | 2.41 | 2.24 |
| t | -1.018 | -.107 | -1.509 | 4.547*** | -2.886** | -1.844 |
| 거주 지역 | | | | | | |
| 광역시·특별시 | 2.84 | 3.08 | 2.87 | 2.80 | 2.38 | 2.22 |
| 도지역 | 2.81 | 3.10 | 2.84 | 2.74 | 2.34 | 2.20 |
| t | .733 | -.467 | .729 | 1.608 | 1.040 | .478 |
| 연령 | | | | | | |
| 45-49세 | 2.70 | 3.06 | 2.86 | 2.93 | 2.21 | 2.17 |
| 50-54세 | 2.78 | 3.08 | 2.84 | 2.91 | 2.30 | 2.24 |
| 55-59세 | 2.88 | 3.10 | 2.87 | 2.69 | 2.40 | 2.17 |
| 60-64세 | 2.96 | 3.13 | 2.85 | 2.54 | 2.54 | 2.27 |
| F | 8.568*** | .559 | .073 | 20.416*** | 12.540*** | 1.686 |
| 혼인 지위 | | | | | | |
| 유배우 | 2.86 | 3.09 | 2.87 | 2.65 | 2.44 | 2.27 |
| 사별 | 2.70 | 2.85 | 2.85 | 2.85 | 2.37 | 2.33 |
| 이혼, 별거 | 2.85 | 3.13 | 2.92 | 2.92 | 2.46 | 2.21 |
| 미혼, 비혼기 타 | 2.73 | 3.11 | 2.75 | 3.06 | 2.04 | 2.00 |
| F | 2.593 | 1.650 | 3.108* | 24.012*** | 23.018*** | 9.818*** |
| 교육 수준 | | | | | | |
| 고교 이하 | 2.84 | 3.02 | 2.87 | 2.78 | 2.42 | 2.25 |
| 대학교 | 2.82 | 3.12 | 2.85 | 2.78 | 2.35 | 2.19 |
| 대학원 | 2.83 | 3.12 | 2.83 | 2.70 | 2.31 | 2.20 |
| F | .132 | 3.712* | .257 | .810 | 1.705 | .926 |
| 가구 소득 | | | | | | |
| 199 이하 | 2.81 | 3.07 | 2.81 | 2.81 | 2.35 | 2.18 |
| 200~399 | 2.83 | 3.09 | 2.83 | 2.79 | 2.37 | 2.19 |
| 400~599 | 2.81 | 3.10 | 2.89 | 2.72 | 2.40 | 2.20 |
| 600 이상 | 2.86 | 3.11 | 2.89 | 2.77 | 2.32 | 2.29 |
| F | .276 | .176 | 1.339 | .927 | .614 | 1.666 |
| 주관 적 경제 수준 | | | | | | |
| 중상층 | 2.83 | 3.11 | 2.89 | 2.74 | 2.39 | 2.25 |
| 중하층 | 2.81 | 3.11 | 2.85 | 2.76 | 2.35 | 2.20 |
| 하층 | 2.85 | 3.06 | 2.83 | 2.80 | 2.36 | 2.19 |
| F | .243 | .667 | .869 | .704 | .361 | .699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베이비붐 세대 내부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의해 가족가치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의견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가족의 단결과 희생, 자녀를 위한 희생을 강조하는 항목 모두에 대해 여성들은 남성보다 더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노후를 위해 자녀가 필요하다”는 항목을 제외하면 여성들은 전통적 가족가치관에 동조하는 태도가 확연히 낮으며, 이러한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도 태도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가족의 단결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40대 후반보다 6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 조금 더 동의하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반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40대 초반(2.93)과 60대 초반(2.54) 연령층의 태도에 차이가 나타난다.

가구형태에 따른 가족 가치관을 비교해 보면,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가도 괜찮다”(1인가구 2.89, 다인가구 2.70)에 더 많이 동의하고 있으며, “노후를 위해 자녀가 필요하다”(1인가구 2.29, 다인가구 2.41)는데 동의하는 수준은 좀 더 낮은 편이다. 결혼하지 않고 자녀 없이 혼자 사는 삶도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태도가 1인가구 응답자들 사이에서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혼인지위에 따른 응답의 차이도 흥미롭게 나타난다.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가도 괜찮다”는 항목에 대해 현재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들의 응답(2.65)보다 미혼·비혼 기타(3.06), 이혼·별거(2.92), 사별(2.85) 상태인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노후를 위해 자녀가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유배우자(2.44)보다 이혼·별거(2.46) 상태의 응답자들이 더 강한 동의를 하고 있으며,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유배우(3.09)보다 이혼·별거(3.13) 상태인 사람들의 응답이 더 높다. 이혼·별거 중인 사람들은 독신생활에 동의하는 점에 있어서는 미혼·비혼 응답자들과 비슷한 태도를 보이지만, 가족의 발전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유배우자와 유사한 의견을 나타낸다. 배우자와는 함께 살지 않지만 자녀는 중요시하는 태도가 이혼·별거자 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도시 거주자와 도 지역 거주자 간의 의견 차이를 살펴보면, 독신생활에 대한 동의에서만 다소 차이가 있었다. 다른 항목에서는 가족가치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 내부에서는 교육수준, 가구소득수준, 주관적 계층 지위에 따라서도 가족 가치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베이비붐 세대들의 가족 가치관은 개인보다 가족, 자녀를 위한 부모의 희생을 강조하는 식의 전통적 태도에 강하게 동조하지 않는 응답을 보이고 있다. 기존 연구 결과를 고려해본다면, 베이비붐 세대는 65세 이상의 기존 노년층(전후 세대)에 비해 전통적 가족가치관에 강하게 동조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 안에서 가족에 대한 태도는 교육수준,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베이비붐 세대가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성장 배경과 사회적 경험들의 공통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성별과 혼인지위,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는 전통적 가족가치관에 대한 의견에 베이비붐 세대 내부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성, 미혼·비혼자, 그리고 40대 후반 등의 집단은 가족보다는 개인을 중시하며 독신생활이나 무자녀 가족에 대한 허용적 태도도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가족지원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전통적 가족중심적 문화를 반드시 전제로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2) 베이비붐 세대 1인가구의 가족가치관

응답자 중 1인가구 거주자의 가족가치관이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어떤 차이나 다양성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전체 응답자에 대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성별에 따른 태도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모든 항목에서 베이비붐 세대 1인가구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전통적 가치관에 동의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1인가구 여성들은 자식으로 도리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3.01)는 데에는 약간 동의하면서도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3.00)에 긍정적이며, 자녀를 위한 희생적 삶(2.09)이나 자녀가 꼭 필요한가(2.26)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혼인지위에 따른 차이를 보면, 1인가구 중에서도 미혼·비혼·기타의 응답자들이 전통적 가치관에 동의하지 않는 태도가 뚜렷한 편이었다. 이들은 “사회의 발전보다 내 가족의 발전이 중요하다”, “노후를 위해 자녀가 필요하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항목에서 유배우·이혼·별거·사별 집단에 비해 부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 반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도 괜찮다”는 항목에서는 뚜렷하게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베이비붐 세대 중 현재 1인가구로 살아가는 미혼·비혼자들은 베이비붐 세대 안에서조차 전통적 가치관에 가장 동조하지 않는 집단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1인가구 생활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선택이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 1인가구 내에서도 혼인지위에 따라, 특히 이혼·별거 집단과 미혼·비혼 집단 사이에 가족가치관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연령별로는 1인가구 중에서도 40대 후반이 독신생활에 대한 허용도가 가장 높은 반면, 자녀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응답은 가장 낮은 편이었다. 또한 1인가구 중에서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밖에 거주지역, 가구소득 등에 따라서는 뚜렷한 가족가치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5-31〉 베이비붐 세대의 가족가치관: 1인가구

(단위: 점)

| 구분 | 가족은 서로 단결해야 | 자식으로서 도리 중요 | 사회발전보다 내 가족발전 | 독신으로 살아도 괜찮음 | 노후 위해 자녀 필요함 | 부모는 자녀 위해 포기해야 |
|-------------|-------------|-------------|---------------|--------------|--------------|----------------|
| 성별 | | | | | | |
| 남성 | 2.93 | 3.16 | 2.88 | 2.80 | 2.32 | 2.23 |
| 여성 | 2.65 | 3.01 | 2.75 | 3.00 | 2.26 | 2.09 |
| t | 4.568*** | 2.537* | 2.309* | -3.365** | .884 | 2.155* |
| 거주지역 | | | | | | |
| 광역시·특별시 | 2.82 | 3.06 | 2.84 | 2.91 | 2.32 | 2.19 |
| 도지역 | 2.79 | 3.12 | 2.80 | 2.87 | 2.26 | 2.14 |
| t | .383 | -.894 | .742 | .708 | .910 | .677 |
| 연령 | | | | | | |
| 45-49세 | 2.76 | 3.15 | 2.84 | 3.08 | 2.13 | 2.15 |
| 50-54세 | 2.80 | 3.05 | 2.77 | 2.97 | 2.25 | 2.18 |
| 55-59세 | 2.87 | 3.16 | 2.93 | 2.82 | 2.32 | 2.18 |
| 60-64세 | 2.79 | 3.01 | 2.74 | 2.73 | 2.44 | 2.16 |
| F | .553 | 1.599 | 2.058 | 6.373*** | 3.753* | .053 |
| 혼인 지위 | | | | | | |
| 유배우 | 2.87 | 3.09 | 2.87 | 2.66 | 2.47 | 2.27 |
| 사별 | 2.73 | 2.91 | 2.77 | 2.82 | 2.36 | 2.32 |
| 이혼, 별거 | 2.79 | 3.09 | 2.94 | 2.91 | 2.42 | 2.22 |
| 미혼, 비혼, 기 타 | 2.77 | 3.11 | 2.71 | 3.05 | 2.07 | 2.04 |
| F | .681 | .608 | 3.894** | 9.229*** | 10.934*** | 3.759* |
| 교육 수준 | | | | | | |
| 고교 이하 | 2.78 | 2.99 | 2.84 | 2.87 | 2.36 | 2.25 |
| 대학교 | 2.81 | 3.14 | 2.83 | 2.88 | 2.30 | 2.12 |
| 대학원 | 2.80 | 3.08 | 2.74 | 3.02 | 2.08 | 2.16 |
| F | .107 | 2.411 | .565 | 1.158 | 3.108* | 1.517 |
| 가구 소득 | | | | | | |
| 199 이하 | 2.76 | 3.03 | 2.75 | 2.87 | 2.30 | 2.20 |
| 200~399 | 2.86 | 3.07 | 2.81 | 2.89 | 2.28 | 2.09 |
| 400~599 | 2.76 | 3.24 | 2.91 | 2.85 | 2.36 | 2.17 |
| 600 이상 | 2.83 | 3.09 | 2.92 | 2.98 | 2.18 | 2.29 |
| F | .732 | 2.015 | 1.709 | .517 | .739 | 1.352 |
| 주관적 경제 수준 | | | | | | |
| 중상층 | 2.89 | 3.19 | 2.97 | 2.89 | 2.35 | 2.22 |
| 중하층 | 2.76 | 3.15 | 2.79 | 2.96 | 2.20 | 2.14 |
| 하층 | 2.80 | 3.00 | 2.79 | 2.84 | 2.34 | 2.16 |
| F | 1.005 | 4.368* | 3.039* | 1.481 | 2.253 | .459 |

주: p<.05 *, p<.01 **, p<.001 ***

나. 베이비붐 세대의 세대 인식

한국사회에서 “세대”는 근현대사의 흐름이나 사회현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세대는 연령집단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인구에 회자되는 전형적인 세대 특징을 묘사하는 문장을 제시하고 이러한 특징이 어느 연령대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질문하였다.

<표 5-32> 세대에 대한 인식: 전체 응답

(단위: %)

| 항목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 계(명) |
|--------------------------|------|------|------|------|--------|-----------------|
| 1)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는 세대 | 0.6 | 13.2 | 48.3 | 21.6 | 16.3 | 100.0 (1300) |
| 2) 가족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세대 | 0.3 | 1.8 | 22.9 | 36.1 | 38.8 | 100.0 (1300) |
| 3) 이기적인 세대 | 62.6 | 23.4 | 5.3 | 2.4 | 6.3 | 100.0 (1300) |
| 4) 자신의 선호를 잘 표현하는 세대 | 64.2 | 25.4 | 5.4 | 3.6 | 1.4 | 100.0 (1300) |
| 5) 불운한 (시대를 잘못 타고난) 세대 | 19.2 | 8.3 | 12.2 | 21.6 | 38.7 | 100.0 (1300) |
| 6)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는 세대 | 1.8 | 4.8 | 16.5 | 52.7 | 24.3 | 100.0 (1300) |

전체 응답 결과를 보면 세대에 대한 전형적인 태도들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는 세대”는 40대(48.3%)라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웠으며, 그 다음은 50대(21.6%), 60대 이상(16.4%)의 순이었다. 현재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인 30대(13.2%)보다 오히려 50대와 60대의 경제적 기여를 더 중요하게 보는 응답 경향은 장년층이 과거에 기여한 부분을 중요하게 평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응답자인 베이비붐 세대들이 자신들이 청년 시절 경제발전에 기여한 부분을 현재 20, 30대의 경제적 기여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회고적 시각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가족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세대”가 누구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60대 이상(38.8%)과 50대(36.1%)를 꼽는 응답이 많았으며, 그 다음은 40대(22.9%)였다. 달리 해석하면, 베이비부머인 응답자들은 스스로를 가족을 위해 희생한 세대로 보고 있는

셈이다. 반면 이기적인 세대, 자신의 선호를 잘 표현하는 세대로는 응답자 10명 중 6명 정도가 20대를 꼽았으며, 10명 중 2명 정도는 30대라고 응답했다. 중장년층에 비해 청년층이 이기적이면서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한다는데 많은 응답자들이 비슷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시대를 잘못 타고난 불운한 세대”는 60대 이상이라는 응답이 38.7%였고, 그 다음은 50대(21.6%), 20대(19.2%)의 순이었다. 응답자 10명 중 6명 정도는 50대와 60대 이상 고연령층이 과거 어려운 시절을 살아왔다는 점에서 불운한 세대라는 인식을 보인 것이다. 그런가 하면 10명 중 2명 정도는 이른바 ‘3포세대’로 불리고 있는 20대 청년들이 불운한 세대라고 생각하고 있다.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는 세대”로 50대(52.7%)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60대 이상(24.3%), 40대(16.5%)의 순이었다. 이른바 386 세대로 알려진 50대가 민주화 운동 등에 기여한 부분에는 다수의 응답자가 동의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60대 이상 고연령층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점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응답 경향도 주목할 만하다.

<표 5-33> 세대에 대한 인식: 가구형태·성별·연령별 응답

(단위: %)

| 항목 | |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는 세대” | | | | | χ ² | (명) |
|-------|--------|-----------------------|------|------|------|------|----------------|-------|
| |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 |
| 가구 형태 | 1인가구 | 0.6 | 13.8 | 47.0 | 21.2 | 17.4 | 1.208 | (500) |
| | 다인가구 | 0.6 | 12.8 | 49.1 | 21.9 | 15.6 | | (800) |
| 성별 | 남성 | 0.6 | 13.1 | 47.1 | 22.3 | 16.8 | .981 | (677) |
| | 여성 | 0.6 | 13.2 | 49.6 | 20.9 | 15.7 | | (623) |
| 연령 | 45-49세 | 0.3 | 12.3 | 60.4 | 16.3 | 10.7 | 35.826*** | (326) |
| | 50-54세 | 0.6 | 14.1 | 46.2 | 23.5 | 15.6 | | (327) |
| | 55-59세 | 0.9 | 13.1 | 43.2 | 25.9 | 17.0 | | (336) |
| | 60-64세 | 0.6 | 13.2 | 43.4 | 20.6 | 22.2 | | (311) |
| 항목 | | “가족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세대” | | | | | χ ² | (명) |
| |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 |
| 가구 형태 | 1인가구 | 0.6 | 1.6 | 21.8 | 34.8 | 41.2 | 4.496 | (500) |
| | 다인가구 | 0.1 | 2.0 | 23.6 | 36.9 | 37.4 | | (800) |
| 성별 | 남성 | 0.3 | 1.8 | 27.0 | 37.1 | 33.8 | 20.004*** | (677) |
| | 여성 | 0.3 | 1.9 | 18.5 | 35.0 | 44.3 | | (623) |
| 연령 | 45-49세 | 0.3 | 2.1 | 37.7 | 30.7 | 29.1 | 107.880*** | (326) |
| | 50-54세 | 0.6 | 1.8 | 20.8 | 42.2 | 34.6 | | (327) |
| | 55-59세 | 0.3 | 1.2 | 17.3 | 45.5 | 35.7 | | (336) |
| | 60-64세 | 0.0 | 2.3 | 15.8 | 25.1 | 56.9 | | (311) |
| 항목 | | “불운한 (시대를 잘못 타고난) 세대” | | | | | χ ² | (명) |
| |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 |
| 가구 형태 | 1인가구 | 18.2 | 8.8 | 12.8 | 24.2 | 36.0 | 5.014 | (500) |
| | 다인가구 | 19.9 | 8.0 | 11.8 | 20.0 | 40.4 | | (800) |
| 성별 | 남성 | 19.5 | 8.7 | 14.5 | 22.0 | 35.3 | 10.896* | (677) |
| | 여성 | 18.9 | 7.9 | 9.6 | 21.2 | 42.4 | | (623) |
| 연령 | 45-49세 | 16.6 | 8.6 | 33.4 | 15.0 | 26.4 | 288.044*** | (326) |
| | 50-54세 | 22.6 | 8.6 | 6.1 | 32.1 | 30.6 | | (327) |
| | 55-59세 | 20.5 | 7.1 | 4.2 | 30.4 | 37.8 | | (336) |
| | 60-64세 | 17.0 | 9.0 | 4.8 | 8.0 | 61.1 | | (311)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6. 소결

1인가구와 다인가구는 따로 사는 가족이 있는 경우 직접 만나거나 연락하는 빈도가 크게 차이나는지는 않았다. 오히려 1인가구 내에서의 차이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1인가구는 배우자나 자녀를 가장 자주 만났는데 1인가구는 배우자와 직장 및 그 외 이유로 주말부부 등의 형태로 지내는 경우와 별거 등 혼인지위 지위와 관계된 경우가 혼재해 있을 가능성으로 인해 소통이 전혀 없다는 비율도 배우자가 가장 높고, 월 4회 이상 만난다는 비율로 가장 높은 특징을 보인다.

1인가구 내에서 차이를 가족이나 친구와 직접 만나는 빈도에 차이를 보인 변수를 보면, 가족과의 만남보다 친구와의 만남에서 그룹 간 차이를 보인 요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만남을 제외하고는 경제수준이 중요한 요인으로 보이는데, 주로 만남이 전혀 없는 경우나 만남이 빈번한 경우에 있어 경제수준이 높은 그룹과 낮은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부모와 자녀를 제외하고는 형제·자매, 배우자, 친구와의 만남은 소득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경제 수준이 가장 높은 그룹은 매우 빈번한 만남 보다는 적절한 수준의 빈도로 상대를 만나는 특징이 보이기도 했다.

<표 5-34> 1인가구의 가족 및 친구와 만남

(단위: %, 명)

| 항목 | 소통 전혀 없음 | 월 1회 이하 | 월 2~3회 | 월 4회 이상 | (명) | 차이 나타난 변수 | |
|----|----------|---------|--------|---------|-------|--|----------------------------|
| 가족 | 부모 | 11.5 | 45.3 | 24.9 | 18.3 | (349) | 혼인지위, 교육수준 |
| | 형제·자매 | 8.9 | 62.4 | 16.8 | 11.9 | (463) | 성별, 근로여부, 소득, 주택점유형태, 경제수준 |
| | 배우자 | 18.0 | 21.0 | 18.0 | 43.1 | (167) | 거주지역, 소득, 경제수준 |
| | 자녀 | 7.6 | 31.6 | 25.1 | 35.7 | (263) | 성별, 근로여부, 주택점유형태, 경제수준 |
| 친구 | 9.6 | 42.4 | 28.0 | 20.0 | (500) | 거주지역, 연령, 교육수준, 근로여부, 소득, 주택점유형태, 경제수준 | |

가족이나 친구와 연락하는 측면에서 나타난 특징은 배우자와 자녀와 연락이 가장 빈번하고, 그중 배우자는 전혀 소통이 없는 경우도 가장 많아 직접 만남에서와 비슷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부모, 형제·자매, 친구도 연락의 빈도가 높아 연락하는 빈도는 모두 높은 특징을 보인다. 다만, 부모와 친구와의 관계는 만남은 친구와 더 빈번하지만 연락은 부모와 더 자주 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친구는 여전히 여러 조건에 따라 연락하는 빈도가 달라지는 것도 직접 만남에서와 비슷한 점이라 할 수 있다. 부모에게 혼인지위에 따라 만남이나 연락 빈도가 차이 나는 것은 성인자녀 입장에서 이혼이나 별거 중인 것은 연락 및 만남을 불편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형제·자매와 친구와의 만남이나 연락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교류가 좀 더 활발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5-35> 1인가구의 가족 및 친구와 연락

(단위: %, 명)

| 항목 | | 소통 전혀 없음 | 월 1회 이하 | 월 2~3회 | 월 4회 이상 | (명) | 차이 나타난 변수 |
|----|------|-------------|------------|-----------|------------|-------|--|
| 가족 | 부모 | 10.3 | 18.3 | 25.2 | 46.1 | (349) | 혼인지위, 교육수준, 경제수준 |
| | 형제자매 | 8.4 | 32.2 | 25.7 | 33.7 | (463) | 성별, 소득, 주택점유형태, 경제수준 |
| | 배우자 | 18.6 | 10.8 | 11.4 | 59.3 | (167) | 경제수준 |
| | 자녀 | 6.8 | 11.4 | 20.2 | 61.6 | (263) | 성별 |
| 친구 | | 6.6 | 25.6 | 26.2 | 41.6 | (500) | 성별, 혼인지위, 교육수준, 근로여부, 소득, 주택점유형태, 경제수준 |

1인가구가 떨어져 사는 부모 또는 성인자녀와 주고받은 지원에 대해 알아본 결과, 1인가구는 전반적으로 받은 경우보다 해준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과 의 관계에서는 경제적 지원, 물리적 도움, 정서적 지지 모두 1인가구가 부모님께 자주 해드린 경험이 많고 부모님이 1인가구에게 해준 경험은 없는 편이 많고 해주더라도 가끔 해준 경험이 많아 1인가구가 부모님에게 도움을 준 경험이 더 많았다.

1인가구가 부모님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서 그룹 간 차이가 있었는데, 경제적 지원의 경우가 그룹 간 차이가 나타난 변수가 가장 많았다. 경제적 지원은 근로여부, 소득, 경제수준 등 경제적 조건과 관련된 변수들에 따라 차이를 보였고, 물리적 도움보다 정서적 지지가 소득이나 경제수준 등 경제적 요건에 따른 차이가 더 나타났다. 직접적인 경

제적 지원에도 경제상황이 중요하게 작동하지만, 정서적 지지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작동하는 것은 경제적인 상황이 정서적 지지를 줄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실질적으로 있을 때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표 5-36> 1인가구가 부모님과 주고받은 도움 (349명)

(단위: %, 명)

| 구분 | 1인가구→부모님 | | | | | 부모님→1인가구 | | | | |
|--------|-------------------|-------------------|------------|------------|---|-------------------|-------------------|------------|------------|-------------------|
| | 전혀 해드리지 않았다 | 거의 해드리지 않았다 | 가끔 해드렸다 | 자주 해드렸다 | 차이 나타난 변수 | 전혀 해주지지 않았다 | 거의 해주지지 않았다 | 가끔 해주셨다 | 자주 해주셨다 | 차이 나타난 변수 |
| 경제적 지원 | 12.0 | 20.1 | 47.0 | 20.9 | 연령, 혼인지위, 교육수준, 근로여부, 소득, 경제수준 | 28.9 | 30.9 | 35.5 | 4.6 | - |
| 물리적 도움 | 15.2 | 31.5 | 40.7 | 12.6 | 성별, 혼인지위, 교육수준, 근로여부 | 33.5 | 28.9 | 30.4 | 7.2 | 경제수준 |
| 정서적 지지 | 9.5 | 21.8 | 50.1 | 18.6 | 교육수준, 소득, 경제수준 | 19.5 | 29.8 | 40.1 | 10.6 | 교육수준, 소득, 경제수준 |

가족과 주고받은 도움 중 1인가구가 성인자녀와의 관계에서 주고받은 지원에서도 1인가구가 성인자녀에게 준 경험이 성인자녀가 1인가구에게 해준 경험보다 더 자주 나타났다. 자녀에게 주는 도움이나 지원의 빈도에서는 1인가구의 조건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었다. 그러나 1인가구가 자녀에게서 받은 지원의 빈도는 1인가구의 여러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모두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성인자녀로부터 다양한 차원의 지원을 더 자주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주택점유형태에 따른 차이도 보였는데, 1인가구가 자가나 전세인 경우보다 월세나 기타인 경우 성인자녀로부터 지원을 받은 빈도가 가장 낮았다. 경제적인 도움의 경우는 자가인 경우 덜 받고, 전세인 경우가 도움을 가장 자주 받았다. 그리고 월세나 기타인 경우 지원을 받은 빈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물리적 도움이나 정서적 지지는 경제수준에 따라 달라서 주관적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는 자녀로부터 물리적 도움이나 정서적 지지도 덜 빈번하게 받고 있었다. 즉, 1인가구의 경제적인 조건이 자녀에게 얼마나 자주 지원을 받는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부모와 자녀의 경제적인 조건이 완전 별개가 아닌 사회에서 1인가구의 상황은 자녀의 상황을 보여주는 대리변

수일 수 있기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한편으로는 1인가구가 가진 경제적 조건에 따라 자녀의 물리적 도움이나 정서적 지지에 대한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5-37> 1인가구가 성인자녀와 주고받은 도움 (229명)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성인자녀 | | | | | 성인자녀→1인가구 | | | | |
|--------|------------|------------|---------|---------|-----------|------------|------------|---------|---------|------------------------|
| | 전혀 해주지 않았다 | 거의 해주지 않았다 | 가끔 해주었다 | 자주 해주었다 | 차이 나타난 변수 | 전혀 해주지 않았다 | 거의 해주지 않았다 | 가끔 해주었다 | 자주 해주었다 | 차이 나타난 변수 |
| 경제적 지원 | 13.1 | 17.9 | 42.8 | 26.2 | - | 38.4 | 27.9 | 26.2 | 7.4 | 성별, 근로여부, 주택점유형태 |
| 물리적 도움 | 19.2 | 24.9 | 33.2 | 22.7 | - | 31.4 | 31.4 | 31.9 | 5.2 | 성별, 근로여부, 주택점유형태, 경제수준 |
| 정서적 지지 | 8.3 | 11.8 | 43.7 | 36.2 | - | 19.7 | 22.7 | 41.0 | 16.6 | 성별, 주택점유형태, 경제수준 |

1인가구의 가족이나 친구와 관계에서 만족도는 서로 만나고 연락하는 것, 또는 서로를 돌보고 돕는 것에서 나타났듯이 경제적인 상황이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관계 만족도를 평균으로 1인가구와 다인가구를 비교해 보면, 가족과의 관계, 즉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1인가구보다 다인가구가 더 만족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친구와의 관계 만족에 있어서는 1인가구와 다인가구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가족 중 형제·자매나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보다 친구와의 관계가 더 만족스러운 것을 알 수 있다.

<표 5-38>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관계 만족 비교

(단위: %, 명)

| 관계 | | 1인가구 (N=500)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N=800) | t |
|----|-------|-----------------|--------------------------|-----------|
| 가족 | 부모 | 3.10 | 3.31 | -3.880*** |
| | 형제,자매 | 2.88 | 3.09 | -4.046*** |
| | 배우자 | 2.75 | 3.34 | -7.374*** |
| | 자녀 | 3.17 | 3.49 | -5.469*** |
| 친구 | | 3.04 | 3.11 | -1.629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이렇게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친구 관계의 선택 가능성 때문으로 이해된다. 친구는 1인가구의 여러 조건에 따라 만남이나 연락 등 교류 빈도에 차이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친구와의 교류는 여러 상황에 따라 줄이거나 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선택적인 만남이나 교류가 가능한 친구와 관계 만족은 1인가구나 다인가구 사이 차이가 없을 수 있다. 반면, 가족과의 관계는 1인가구인 경우 만남이나 교류가 철저히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 같은 경우는 만남이나 교류와 관계없이 1인가구는 이미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 놓인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인가구와의 관계 만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 전체의 가족가치관을 살펴보면 개인보다 가족, 자녀를 위한 부모의 희생을 강조하는 식의 전통적 태도에 강하게 동조하지 않는 응답을 보이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 안에서 가족에 대한 태도는 교육수준,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베이비붐 세대가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성장 배경과 사회적 경험들의 공통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성별과 혼인지위, 연령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특히 여성, 미혼·비혼자, 그리고 40대 후반 연령층은 가족보다 개인을 중시하며 독신생활이나 무자녀 가족에 대한 허용적 태도도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가족지원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전통적 가족중심적 문화를 반드시 전제로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베이비부머 1인가구 응답자의 가족가치관에서도 성별에 따른 태도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모든 항목에서 베이비붐 세대 1인가구 여성들은 남성에게 비해 전

통적 가치관에 동의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1인가구 여성들은 “자식으로 도리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3.01)는 데에는 약간 동의하면서도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3.00)에 긍정적이며, 자녀를 위한 희생적 삶(2.09)이나 자녀가 꼭 필요한가(2.26)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혼인지위별로는 1인가구 중에서도 미혼·비혼·기타의 응답자들이 전통적 가치관에 동의하지 않는 태도가 뚜렷한 편이었다. 이들은 “사회의 발전보다 내 가족의 발전이 중요하다”, “노후를 위해 자녀가 필요하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항목에서 유배우자나 이혼·별거·사별 집단에 비해 부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 반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도 괜찮다”는 항목에서는 뚜렷하게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연령별로는 1인가구 중에서도 40대 후반이 독신생활에 대한 허용도가 가장 높은 반면, 자녀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응답은 가장 낮은 편이었다. 또한 1인가구 중에서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난다. 전통적 가족중심주의, 근대적 핵가족 중심주의와는 다른, 보다 다양한 태도들이 조사결과에서 확인되며, 가족지원 정책이나 서비스에서도 이러한 가치관 변화를 반영하는 개인 중심의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제 6 장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관계망과 삶의 질

1. 일상 속의 사회관계망: 1인가구와 다인가구
2. 베이비붐 세대의 온라인 활동과 사회참여
3.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질: 1인가구와 다인가구
4. 소결

6

베이비붐 세대의 < 사회관계망과 삶의 질 <

1. 일상 속의 사회관계망: 1인가구와 다인가구

사회관계망과 온라인 활동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경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관계 또는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에 대해 알아본다. 경제적인 도움, 일상생활에서의 도움 즉, 물리적인 도움, 정서적인 도움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현재보다 더 다양한 관계를 맺기 원하는지와 원한다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싶은지도 알아본다.

최근에는 직접 만나는 활동만큼 인터넷상에서의 활동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인터넷에서의 활동이 어느 정도 활발한지 살펴본다. 인터넷 검색, 자신의 SNS 활동, 채팅, 인터넷 카페 활동 등 외부와의 소통의 일환으로 인터넷의 활용 정도를 파악한다.

나아가 직접적인 사회활동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모임이나 단체 참여와 같이 매우 적극적인 사회활동 수준을 알아본다. 그러한 활동을 통해 친밀감을 느끼는지도 함께 살펴본다.

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사회관계망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에 대해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있는지, 있다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본인이 도움을 준 경험은 있는지, 있다면 누구였는지 알아본다. 이때 도움은 경제적인 도움, 일상생활에 도움, 정서적인 도움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1)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경제/ 일상생활/ 정서적 지지망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있는지 알아본 결과, 1인가구는 1-2명이라는 비율이 50.2%, 없다는 비율이 30.4%, 3-4명은 11.4%, 5-9명은 1.8%, 10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0%로 나타났다. 다인가구는 1-2명이 59.1%, 없다는 비율이 22.6%, 3-4명은 15.3%, 5-9명은 1.8%, 10명 이상은 1.3%로 나타났다.

1인가구와 다인가구 전체적으로 낮은 빈도 셀이 분포되어 있어 차이 값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다인가구에서는 성별과 거주지역에서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했다. 다인가구 중 목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1-2명 있다는 응답이 여성은 66.1%로 남성의 52.2%보다 높게 나타났고, 3-4명이라는 응답은 남성이 18.9%로 여성의 11.6%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5-9명이나 10명 이상이라는 응답은 여성보다 남성이 높지만, 없다는 응답은 남성이 25.1%로 여성의 20.1% 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1인가구는 통계적 차이를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없다는 응답이 남성은 33.8%, 여성은 26.2%로 남성이 높고 1-2명이라는 응답은 남성이 50.2%, 여성이 61.8%로 여성이 높았다. 남성보다 여성이 1-2명이라는 응답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과 없다는 응답이 남성이 더 높은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1인가구 중 고졸 이하 그룹은 전혀 없다는 응답이 42.3%로 매우 높고, 199만 원 이하 소득을 가진 1인가구와 월세 등으로 생활하는 경우, 그리고 주관적 경제수준이 하층인 1인가구는 모두 전혀 없다는 응답 비율이 40% 이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다인가구에서는 전혀 없다는 응답이 가구소득 199만 원 이하인 경우 46.3%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긴 하지만, 그 외에는 전혀 없다는 비율이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나는 그룹이 없어 1인가구인 경우 돈을 빌릴 사람이 전혀 없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6-1>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수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 | 없음 | 1-2명 | 3-4명 | 5-9명 | 10명 이상 | (명) | 없음 | 1-2명 | 3-4명 | 5-9명 | 10명 이상 | χ^2 | (명) | |
| 전체 | 30.4 | 55.4 | 11.4 | 1.8 | 1.0 | (500) | 22.6 | 59.1 | 15.3 | 1.8 | 1.3 | - | (800) | |
| 성별 | 남자 | 33.8 | 50.2 | 13.1 | 1.1 | 1.8 | (275) | 25.1 | 52.2 | 18.9 | 2.2 | 1.5 | 17.275** | (402) |
| | 여자 | 26.2 | 61.8 | 9.3 | 2.7 | - | (225) | 20.1 | 66.1 | 11.6 | 1.3 | 1.0 | | (398)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26.4 | 57.6 | 13.2 | 2.0 | 0.8 | (250) | 23.1 | 61.4 | 12.7 | 1.7 | 1.0 | 4.729 | (402) |
| | 도지역 | 34.4 | 53.2 | 9.6 | 1.6 | 1.2 | (250) | 22.1 | 56.8 | 17.8 | 1.8 | 1.5 | | (398) |
| 연령 | 45-49세 | 25.9 | 59.5 | 12.1 | 0.9 | 1.7 | (116) | 21.0 | 64.8 | 12.9 | 0.5 | 1.0 | - | (210) |
| | 50-54세 | 34.7 | 50.0 | 12.7 | 2.5 | - | (118) | 26.3 | 55.5 | 13.9 | 3.3 | 1.0 | - | (209) |
| | 55-59세 | 28.9 | 54.1 | 12.6 | 2.2 | 2.2 | (135) | 22.9 | 56.7 | 15.9 | 1.5 | 3.0 | - | (201) |
| | 60-64세 | 32.1 | 58.0 | 8.4 | 1.5 | - | (131) | 20.0 | 59.4 | 18.9 | 1.7 | - | - | (180) |
| 혼인 지위 | 유배우 | 22.7 | 56.7 | 16.3 | 2.8 | 1.4 | (141) | 21.7 | 59.5 | 15.7 | 1.9 | 1.3 | - | (696) |
| | 사별 | 22.7 | 68.2 | 9.1 | - | - | (22) | - | 80.0 | 20.0 | - | - | - | (5) |
| | 이혼 별거 | 39.6 | 53.2 | 6.5 | - | 0.7 | (139) | 37.2 | 41.9 | 18.6 | - | 2.3 | - | (43) |
| | 미혼·비혼기타 | 30.3 | 54.5 | 11.6 | 2.5 | 1.0 | (198) | 25.0 | 66.1 | 7.1 | 1.8 | - | - | (56)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42.3 | 45.1 | 9.9 | 2.1 | 0.7 | (142) | 28.8 | 56.3 | 12.7 | 1.7 | 0.4 | - | (229) |
| | 대학교 | 26.6 | 59.6 | 11.4 | 1.0 | 1.3 | (297) | 20.0 | 61.2 | 15.1 | 1.9 | 1.7 | - | (469) |
| | 대학원 | 21.3 | 59.0 | 14.8 | 4.9 | - | (61) | 20.6 | 55.9 | 21.6 | 1.0 | 1.0 | - | (102) |
| 근로 여부 | 그렇다 | 27.4 | 56.4 | 12.8 | 2.1 | 1.3 | (390) | 22.3 | 58.6 | 16.0 | 1.8 | 1.3 | - | (555) |
| | 아니다 | 40.9 | 51.8 | 6.4 | 0.9 | - | (110) | 23.3 | 60.4 | 13.5 | 1.6 | 1.2 | - | (245)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46.3 | 45.7 | 7.3 | - | 0.6 | (164) | 46.3 | 46.3 | 7.5 | - | - | - | (67) |
| | 200~399 | 27.5 | 62.6 | 8.2 | 0.5 | 1.1 | (182) | 29.1 | 60.4 | 8.8 | 1.3 | 0.4 | - | (227) |
| | 400~599 | 19.1 | 59.6 | 15.7 | 3.4 | 2.2 | (89) | 20.0 | 61.1 | 16.8 | 1.1 | 1.1 | - | (280) |
| | 600 이상 | 13.8 | 53.8 | 24.6 | 7.7 | - | (65) | 12.4 | 59.3 | 22.1 | 3.5 | 2.7 | - | (226)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 25.5 | 58.7 | 12.8 | 2.1 | 0.9 | (235) | 20.8 | 59.8 | 16.5 | 1.7 | 1.2 | - | (595) |
| | 전세 | 20.8 | 65.3 | 9.9 | 2.0 | 2.0 | (101) | 29.4 | 54.1 | 11.9 | 3.7 | 0.9 | - | (109) |
| | 월세 기타 | 43.3 | 44.5 | 10.4 | 1.2 | 0.6 | (164) | 26.0 | 60.4 | 11.5 | - | 2.1 | - | (96) |
| 주관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9.2 | 62.2 | 22.4 | 4.1 | 2.0 | (98) | 16.3 | 57.5 | 21.0 | 3.2 | 2.0 | - | (252) |
| | 중하층 | 26.4 | 59.9 | 11.0 | 1.6 | 1.1 | (182) | 20.3 | 63.7 | 13.6 | 1.4 | 1.1 | - | (369) |
| | 하층 | 43.2 | 48.6 | 6.8 | 0.9 | 0.5 | (220) | 36.3 | 52.0 | 10.6 | 0.6 | 0.6 | - | (179)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3)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갑자기 돈을 빌리려 할 때 그 돈을 빌려줄 사람은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1인가구는 가족이 63.8%, 친구가 23.3%, 친인척은 8.6%, 직장 동료나 선후배는 4.3%로 나타났다. 다인가구는 가족이 70.6%, 친구가 16.8%, 친인척은 10.8%, 직장 동료 및 선후배는 1.8%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1인가구는 차이 값 제시에 한계가 있었고, 다인가구는 성별, 거주지역, 근로여부에 대한 차이 값 제시가 가능했다. 그 중 다인가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여성은 가족인 경우가 76.7%로 남성의 64.1%보다 높고, 친구인 경우는 여성이 12.9%로 남성의 20.9%보다 낮아 차이를 보였다. 1인가구 중 고졸 이하의 그룹과 월세 등의 형태로 살고 있는 경우, 그리고 주관적 경제수준이 낮은 그룹은 돈을 빌려줄 사람이 가족이라는 비율이 50%대로 다른 그룹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인다.

<표 6-2>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려 줄 수 있는 사람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 가족 | 친인척 | 친구 | 직장 동료/ 선후배 | (명) | 가족 | 친인척 | 친구 | 직장 동료/ 선후배 | χ^2 | (명) | |
| 전체 | 63.8 | 8.6 | 23.3 | 4.3 | (348) | 70.6 | 10.8 | 16.8 | 1.8 | - | (619) | |
| 성별 | 남자 | 58.8 | 10.4 | 25.3 | 5.5 | (182) | 64.1 | 11.3 | 20.9 | 3.7 | 9.823* | (301) |
| | 여자 | 69.3 | 6.6 | 21.1 | 3.0 | (166) | 76.7 | 10.4 | 12.9 | - | | (318)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64.7 | 7.6 | 23.9 | 3.8 | (184) | 72.5 | 9.1 | 17.2 | 1.3 | 4.693 | (309) |
| | 도지역 | 62.8 | 9.8 | 22.6 | 4.9 | (164) | 68.7 | 12.6 | 16.5 | 2.3 | | (310) |
| 연령 | 45-49세 | 69.8 | 2.3 | 24.4 | 3.5 | (86) | 76.5 | 7.2 | 13.3 | 3.0 | - | (166) |
| | 50-54세 | 57.1 | 10.4 | 23.4 | 9.1 | (77) | 71.4 | 7.8 | 19.5 | 1.3 | | (154) |
| | 55-59세 | 62.5 | 10.4 | 24.0 | 3.1 | (96) | 63.9 | 15.5 | 18.7 | 1.9 | | (155) |
| | 60-64세 | 65.2 | 11.2 | 21.3 | 2.2 | (89) | 70.1 | 13.2 | 16.0 | 0.7 | | (144) |
| 혼인 지위 | 유배우 | 67.0 | 11.9 | 18.3 | 2.8 | (109) | 71.4 | 11.2 | 15.4 | 2.0 | - | (545) |
| | 사별 | 70.6 | 11.8 | 11.8 | 5.9 | (17) | 20.0 | 20.0 | 60.0 | - | | (5) |
| | 이혼 별거 | 64.3 | 9.5 | 23.8 | 2.4 | (84) | 70.4 | 3.7 | 25.9 | - | | (27) |
| | 미혼·비혼·기타 | 60.1 | 5.1 | 28.3 | 6.5 | (138) | 66.7 | 9.5 | 23.8 | - | (42) |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57.3 | 14.6 | 20.7 | 7.3 | (82) | 68.7 | 9.8 | 19.0 | 2.5 | - | (163) |
| | 대학교 | 66.5 | 7.8 | 22.0 | 3.7 | (218) | 72.0 | 10.9 | 15.7 | 1.3 | | (375) |
| | 대학원 | 62.5 | 2.1 | 33.3 | 2.1 | (48) | 67.9 | 12.3 | 17.3 | 2.5 | | (81) |
| 근로 여부 | 그렇다 | 63.6 | 8.1 | 23.7 | 4.6 | (283) | 69.8 | 10.0 | 17.9 | 2.3 | 1.980 | (431) |
| | 아니다 | 64.6 | 10.8 | 21.5 | 3.1 | (65) | 72.3 | 12.8 | 14.4 | 0.5 | | (188)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61.4 | 12.5 | 23.9 | 2.3 | (88) | 75.0 | 13.9 | 11.1 | - | - | (36) |
| | 200~399 | 65.2 | 6.1 | 22.7 | 6.1 | (132) | 70.2 | 9.9 | 18.6 | 1.2 | | (161) |
| | 400~599 | 65.3 | 8.3 | 20.8 | 5.6 | (72) | 71.0 | 10.7 | 16.5 | 1.8 | | (224) |
| | 600 이상 | 62.5 | 8.9 | 26.8 | 1.8 | (56) | 69.7 | 11.1 | 16.7 | 2.5 | | (198)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 71.4 | 6.9 | 20.0 | 1.7 | (175) | 71.3 | 11.0 | 16.1 | 1.5 | - | (471) |
| | 전세 | 61.3 | 8.8 | 25.0 | 5.0 | (80) | 63.6 | 15.6 | 16.9 | 3.9 | | (77) |
| | 월세 기타 | 51.6 | 11.8 | 28.0 | 8.6 | (93) | 73.2 | 4.2 | 21.1 | 1.4 | | (71) |
| 주관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66.3 | 4.5 | 24.7 | 4.5 | (89) | 71.1 | 9.0 | 18.0 | 1.9 | - | (211) |
| | 중하층 | 71.6 | 6.0 | 17.9 | 4.5 | (134) | 70.7 | 12.2 | 15.3 | 1.7 | | (294) |
| | 하층 | 53.6 | 14.4 | 28.0 | 4.0 | (125) | 69.3 | 10.5 | 18.4 | 1.8 | | (114)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3)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아플 때나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몇 명이나 있는지 알아본 결과에서는 1인가구는 1-2명이라는 응답이 61.6%, 없다는 비율은 19.2%, 3-4명은 16.4%, 5-9명은 1.8%, 10명 이상인 경우는 1.0%로 나타났다. 다인가구에서는 1-2명이 63.5%, 3-4명이 22.6%, 없다는 응답은 8.6%, 5-9명은 4.0%, 10명 이상은 1.3%로 나타나 1인가구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에서와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서도 1-2명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다인가구의 남성이 59.2%, 여성은 67.8%로 여성이 높고 3-4명 이상에서는 남성이 더 높아 차이를 보인다. 없다는 응답과 1-2명에 응답이 집중되어 있어 통계적 차이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특징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찾아볼 수 있다. 1인가구에서는 없다고 응답한 남성이 23.6%로 여성의 13.8%보다 높고 1-2명이라는 응답도 여성이 66.7%로 남성의 57.5%보다 높다. 3명 이상의 응답에서는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 1인가구에서는 물리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성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구소득이 199만 원 이하인 그룹, 월세 등의 형태로 주거하고 있는 경우, 주관적 경제 수준이 낮은 1인가구의 경우는 물리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0% 이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그룹이다. 이 그룹은 이전 경제적 도움 결과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 그룹과 유사해 복지지원의 차원에서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그룹이라 생각된다.

<표 6-3> 아플 때나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수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 없음 | 1-2명 | 3-4명 | 5-9명 | 10명 이상 | (명) | 없음 | 1-2명 | 3-4명 | 5-9명 | 10명 이상 | χ^2 | (명) |
| 전체 | 19.2 | 61.6 | 16.4 | 1.8 | 1.0 | (500) | 8.6 | 63.5 | 22.6 | 4.0 | 1.3 | - | (800) |
| 성별 | 남자 | 23.6 | 57.5 | 16.4 | 1.1 | 1.5 | (275) | 9.0 | 59.2 | 24.6 | 5.5 | 1.7 | (402) |
| | 여자 | 13.8 | 66.7 | 16.4 | 2.7 | 0.4 | (225) | 8.3 | 67.8 | 20.6 | 2.5 | 0.8 | (398)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18.4 | 65.2 | 14.0 | 1.2 | 1.2 | (250) | 7.5 | 66.2 | 22.4 | 3.0 | 1.0 | (402) |
| | 도지역 | 20.0 | 58.0 | 18.8 | 2.4 | 0.8 | (250) | 9.8 | 60.8 | 22.9 | 5.0 | 1.5 | (398) |
| 연령 | 45-49세 | 16.4 | 63.8 | 17.2 | 1.7 | 0.9 | (116) | 8.1 | 65.2 | 21.4 | 3.8 | 1.4 | (210) |
| | 50-54세 | 22.9 | 58.5 | 16.1 | 0.8 | 1.7 | (118) | 12.9 | 59.3 | 23.4 | 2.9 | 1.4 | (209) |
| | 55-59세 | 20.0 | 58.5 | 17.8 | 2.2 | 1.5 | (135) | 7.0 | 66.7 | 20.9 | 3.5 | 2.0 | (201) |
| | 60-64세 | 17.6 | 65.6 | 14.5 | 2.3 | - | (131) | 6.1 | 62.8 | 25.0 | 6.1 | - | (180) |
| 혼인 지위 | 유배우 | 9.2 | 59.6 | 27.0 | 2.8 | 1.4 | (141) | 8.5 | 62.5 | 23.6 | 4.2 | 1.3 | (696) |
| | 사별 | 9.1 | 68.2 | 18.2 | 4.5 | - | (22) | - | 80.0 | 20.0 | - | - | (5) |
| | 이혼 별거 | 25.9 | 63.3 | 10.1 | 0.7 | - | (139) | 14.0 | 62.8 | 20.9 | 2.3 | - | (43) |
| | 미혼·비혼·기타 | 22.7 | 61.1 | 13.1 | 1.5 | 1.5 | (198) | 7.1 | 75.0 | 12.5 | 3.6 | 1.8 | (56)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25.4 | 56.3 | 14.1 | 3.5 | 0.7 | (142) | 10.0 | 65.1 | 17.9 | 6.1 | 0.9 | (229) |
| | 대학교 | 17.8 | 63.0 | 17.5 | 1.0 | 0.7 | (297) | 7.7 | 63.5 | 24.1 | 3.2 | 1.5 | (469) |
| | 대학원 | 11.5 | 67.2 | 16.4 | 1.6 | 3.3 | (61) | 9.8 | 59.8 | 26.5 | 2.9 | 1.0 | (102) |
| 근로 여부 | 그렇다 | 16.2 | 63.3 | 17.9 | 1.3 | 1.3 | (390) | 8.8 | 62.3 | 23.6 | 3.8 | 1.4 | (555) |
| | 아니다 | 30.0 | 55.5 | 10.9 | 3.6 | - | (110) | 8.2 | 66.1 | 20.4 | 4.5 | 0.8 | (245)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32.3 | 57.3 | 9.1 | 1.2 | - | (164) | 13.4 | 67.2 | 17.9 | 1.5 | - | (67) |
| | 200~399 | 16.5 | 64.8 | 16.5 | 0.5 | 1.6 | (182) | 9.7 | 70.9 | 16.3 | 2.6 | 0.4 | (227) |
| | 400~599 | 10.1 | 62.9 | 22.5 | 3.4 | 1.1 | (89) | 8.9 | 62.1 | 22.9 | 5.0 | 1.1 | (280) |
| | 600 이상 | 6.2 | 61.5 | 26.2 | 4.6 | 1.5 | (65) | 5.8 | 56.6 | 30.1 | 4.9 | 2.7 | (226)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 13.2 | 64.3 | 18.7 | 2.6 | 1.3 | (235) | 8.1 | 63.0 | 24.2 | 3.5 | 1.2 | (595) |
| | 전세 | 10.9 | 68.3 | 16.8 | 3.0 | 1.0 | (101) | 13.8 | 60.6 | 18.3 | 5.5 | 1.8 | (109) |
| | 월세 기타 | 32.9 | 53.7 | 12.8 | - | 0.6 | (164) | 6.3 | 69.8 | 17.7 | 5.2 | 1.0 | (96) |
| 주관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6.1 | 62.2 | 25.5 | 4.1 | 2.0 | (98) | 5.2 | 57.5 | 29.4 | 5.6 | 2.4 | (252) |
| | 중하층 | 11.0 | 67.6 | 18.1 | 1.6 | 1.6 | (182) | 7.9 | 65.3 | 21.7 | 4.3 | 0.8 | (369) |
| | 하층 | 31.8 | 56.4 | 10.9 | 0.9 | - | (220) | 15.1 | 68.2 | 15.1 | 1.1 | 0.6 | (179)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3)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아플 때나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사람은 누구인지 알아보면, 1인가구는 가족이 69.8%, 친구가 20.0%, 친인척은 6.7%, 직장 동료 및 선후배는 3.5% 순으로 나타났다. 다인가구는 가족이 85.1%, 친구가 8.8%, 친인척이 4.9%, 직장 동료 및 선후배가 1.2%로 나타나 1인가구와 다인가구 모두 가족이 가장 높은 비율이며 그다음 이 친구인 것을 동일하나 다인가구는 가족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고 1인가구는 친구의 도움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1인가구 여성은 가족인 경우가 74.2%로 남성의 65.7%와 비교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1인가구는 도움을 줄 사람이 가족인 경우가 83.6%로 높았다. 미혼, 비혼 등인 경우와 주관적 경제 수준이 낮은 1인가구는 도와줄 사람이 가족인 비율이 각각 60.1%와 60.7%로 상대적으로 낮고 대신 친구인 경우가 26.1%와 27.3%로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볼 수 있다.

<표 6-4> 아플 때나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가족 | 친인척 | 친구 | 직장 동료/ 선후배 | (명) | 가족 | 친인척 | 친구 | 직장 동료/ 선후배 | (명) | |
| 전체 | 69.8 | 6.7 | 20.0 | 3.5 | (404) | 85.1 | 4.9 | 8.8 | 1.2 | (731) | |
| 성별 | 남자 | 65.7 | 8.1 | 21.9 | 4.3 | (210) | 82.8 | 5.5 | 9.6 | 2.2 | (366) |
| | 여자 | 74.2 | 5.2 | 18.0 | 2.6 | (194) | 87.4 | 4.4 | 7.9 | 0.3 | (365)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72.1 | 4.9 | 19.6 | 3.4 | (204) | 85.2 | 4.3 | 9.4 | 1.1 | (372) |
| | 도지역 | 67.5 | 8.5 | 20.5 | 3.5 | (200) | 85.0 | 5.6 | 8.1 | 1.4 | (359) |
| 연령 | 45-49세 | 69.1 | 7.2 | 20.6 | 3.1 | (97) | 85.5 | 3.1 | 8.8 | 2.6 | (193) |
| | 50-54세 | 74.7 | 5.5 | 14.3 | 5.5 | (91) | 83.0 | 6.0 | 10.4 | 0.5 | (182) |
| | 55-59세 | 68.5 | 5.6 | 21.3 | 4.6 | (108) | 86.1 | 3.7 | 9.1 | 1.1 | (187) |
| | 60-64세 | 67.6 | 8.3 | 23.1 | 0.9 | (108) | 85.8 | 7.1 | 6.5 | 0.6 | (169) |
| 혼인 지위 | 유배우 | 83.6 | 5.5 | 8.6 | 2.3 | (128) | 86.2 | 5.0 | 7.5 | 1.3 | (637) |
| | 사별 | 65.0 | 10.0 | 25.0 | - | (20) | 100.0 | - | - | - | (5) |
| | 이혼 별거 | 68.0 | 5.8 | 24.3 | 1.9 | (103) | 75.7 | - | 21.6 | 2.7 | (37) |
| | 미혼·비혼기타 | 60.1 | 7.8 | 26.1 | 5.9 | (153) | 76.9 | 7.7 | 15.4 | - | (52)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66.0 | 5.7 | 24.5 | 3.8 | (106) | 83.5 | 6.3 | 9.7 | 0.5 | (206) |
| | 대학교 | 72.1 | 6.6 | 19.3 | 2.0 | (244) | 86.4 | 4.8 | 7.4 | 1.4 | (433) |
| | 대학원 | 66.7 | 9.3 | 14.8 | 9.3 | (54) | 82.6 | 2.2 | 13.0 | 2.2 | (92) |
| 근로 여부 | 그렇다 | 68.8 | 6.7 | 20.8 | 3.7 | (327) | 84.2 | 4.9 | 9.1 | 1.8 | (506) |
| | 아니다 | 74.0 | 6.5 | 16.9 | 2.6 | (77) | 87.1 | 4.9 | 8.0 | - | (225)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62.2 | 9.0 | 27.0 | 1.8 | (111) | 82.8 | 8.6 | 8.6 | - | (58) |
| | 200~399 | 69.1 | 6.6 | 21.1 | 3.3 | (152) | 86.8 | 3.4 | 8.8 | 1.0 | (205) |
| | 400~599 | 78.8 | 3.8 | 13.8 | 3.8 | (80) | 85.5 | 6.7 | 7.5 | 0.4 | (255) |
| | 600 이상 | 73.8 | 6.6 | 13.1 | 6.6 | (61) | 83.6 | 3.3 | 10.3 | 2.8 | (213)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 75.0 | 6.4 | 17.2 | 1.5 | (204) | 86.3 | 4.6 | 7.9 | 1.3 | (547) |
| | 전세 | 63.3 | 7.8 | 23.3 | 5.6 | (90) | 76.6 | 7.4 | 16.0 | - | (94) |
| | 월세 기타 | 65.5 | 6.4 | 22.7 | 5.5 | (110) | 86.7 | 4.4 | 6.7 | 2.2 | (90) |
| 주관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73.9 | 4.3 | 16.3 | 5.4 | (92) | 81.2 | 4.2 | 12.1 | 2.5 | (239) |
| | 중하층 | 75.9 | 6.2 | 15.4 | 2.5 | (162) | 86.8 | 5.6 | 7.4 | 0.3 | (340) |
| | 하층 | 60.7 | 8.7 | 27.3 | 3.3 | (150) | 87.5 | 4.6 | 6.6 | 1.3 | (152)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3)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또는 걱정거리가 있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즉 정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몇 명이나 있는지 알아보았다. 1인가구는 1-2명이 60.8%, 3-4명은 18.4%,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7.0%, 5-9명은 3.2%, 10명 이상은 0.6%의 분포를 보였다. 다인가구는 1-2명이 61.8%, 3-4명이 24.3%, 없는 경우가 9.0%, 5-9명은 3.6%, 10명 이상은 1.4%로 나타났다. 1-2명인 경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과 그 비율이 1인가구는 60.8%, 다인가구는 61.8%로 매우 비슷하다. 하지만 3-4명인 경우가 다인가구가 많으며, 없는 비율은 1인가구가 다인가구보다 많아 정서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다인가구보다 1인가구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1인가구는 기대빈도가 낮은 셀이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차이 분석값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인가구 차이 분석에서도 몇 가지 특성에서만 차이 값을 제시할 수 있었다. 그 중 다인가구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5명 이상의 응답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의 비율이 높고, 4명 이하의 응답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다. 하지만 없다는 응답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특징을 보이며 차이가 나타났다. 1인가구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정서적 지지를 해줄 사람이 없다는 비율이 남성에서 22.5%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전반적으로 없다는 응답 비율이 다인가구보다 1인가구가 높기는 하지만, 1인가구 남성은 특히 높은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인천, 경기, 강원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경우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23.9%로 높은 특징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고졸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경우,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가구소득이 199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등의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주관적 경제 수준이 낮은 1인가구의 경우 모두 정서적 지원을 받을 사람이 주변에 없다는 응답이 2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주택 점유형태가 월세 등의 형태인 그룹은 없다는 응답이 29.9%로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인다. 반면, 가구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1인가구는 전혀 없다는 비율이 4.6%로 1인가구 중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인다.

<표 6-5> 우울·스트레스·걱정거리가 있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수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 | 없음 | 1-2명 | 3-4명 | 5-9명 | 10명 이상 (명) | 없음 | 1-2명 | 3-4명 | 5-9명 | 10명 이상 | χ^2 | (명) | |
| 전체 | 17.0 | 60.8 | 18.4 | 3.2 | 0.6 (500) | 9.0 | 61.8 | 24.3 | 3.6 | 1.4 | - | (800) | |
| 성별 | 남자 | 22.5 | 58.5 | 15.6 | 2.2 | 1.1 (275) | 10.0 | 60.9 | 21.6 | 5.5 | 2.0 | 12.995* | (402) |
| | 여자 | 10.2 | 63.6 | 21.8 | 4.4 | - (225) | 8.0 | 62.6 | 26.9 | 1.8 | 0.8 | | (398)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14.8 | 60.4 | 20.8 | 3.2 | 0.8 (250) | 7.5 | 63.7 | 24.4 | 3.7 | 0.7 | 4.964 | (402) |
| | 도지역 | 19.2 | 61.2 | 16.0 | 3.2 | 0.4 (250) | 10.6 | 59.8 | 24.1 | 3.5 | 2.0 | | (398) |
| 거주 권역 | 서울 | 9.3 | 66.3 | 20.9 | 2.3 | 1.2 (86) | 5.5 | 61.4 | 25.5 | 5.5 | 2.1 | - | (145) |
| | 인천·경기·강원 | 23.9 | 54.7 | 16.4 | 4.4 | 0.6 (159) | 9.8 | 59.3 | 27.3 | 2.5 | 1.1 | - | (275) |
| | 충청권 | 17.3 | 63.5 | 15.4 | 3.8 | - (52) | 8.4 | 67.5 | 21.7 | 2.4 | - | - | (83) |
| | 전라권 | 15.4 | 66.2 | 15.4 | 3.1 | - (65) | 11.4 | 58.0 | 22.7 | 6.8 | 1.1 | - | (88) |
| | 경북권 | 18.2 | 69.1 | 7.3 | 5.5 | - (55) | 11.1 | 67.9 | 18.5 | 1.2 | 1.2 | - | (81) |
| | 경남권 | 12.0 | 55.4 | 31.3 | - | 1.2 (83) | 8.6 | 62.5 | 22.7 | 3.9 | 2.3 | - | (128) |
| 연령 | 45-49세 | 14.7 | 57.8 | 24.1 | 2.6 | 0.9 (116) | 10.0 | 62.9 | 22.9 | 3.3 | 1.0 | - | (210) |
| | 50-54세 | 18.6 | 63.6 | 15.3 | 2.5 | - (118) | 9.6 | 64.1 | 22.0 | 3.3 | 1.0 | - | (209) |
| | 55-59세 | 18.5 | 57.8 | 18.5 | 4.4 | 0.7 (135) | 10.9 | 60.2 | 24.4 | 3.0 | 1.5 | - | (201) |
| | 60-64세 | 16.0 | 64.1 | 16.0 | 3.1 | 0.8 (131) | 5.0 | 59.4 | 28.3 | 5.0 | 2.2 | - | (180) |
| 혼인 지위 | 유배우 | 9.2 | 60.3 | 24.1 | 5.7 | 0.7 (141) | 8.2 | 62.2 | 24.4 | 3.7 | 1.4 | - | (696) |
| | 사별 | 9.1 | 59.1 | 31.8 | - | - (22) | - | 80.0 | 20.0 | - | - | - | (5) |
| | 이혼·별거 | 23.0 | 65.5 | 9.4 | 1.4 | 0.7 (139) | 11.6 | 53.5 | 30.2 | 2.3 | 2.3 | - | (43) |
| | 미혼·비혼·기타 | 19.2 | 58.1 | 19.2 | 3.0 | 0.5 (198) | 17.9 | 60.7 | 17.9 | 3.6 | - | - | (56)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22.5 | 59.2 | 16.2 | 2.1 | - (142) | 14.8 | 60.3 | 21.4 | 2.6 | 0.9 | - | (229) |
| | 대학교 | 16.2 | 60.3 | 20.2 | 2.4 | 1.0 (297) | 7.0 | 61.4 | 25.8 | 4.5 | 1.3 | - | (469) |
| | 대학원 | 8.2 | 67.2 | 14.8 | 9.8 | - (61) | 4.9 | 66.7 | 23.5 | 2.0 | 2.9 | - | (102) |
| 근로 여부 | 그렇다 | 15.4 | 62.1 | 18.2 | 3.6 | 0.8 (390) | 9.0 | 62.7 | 23.6 | 3.4 | 1.3 | 0.952 | (555) |
| | 아니다 | 22.7 | 56.4 | 19.1 | 1.8 | - (110) | 9.0 | 59.6 | 25.7 | 4.1 | 1.6 | | (245)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26.2 | 59.1 | 12.8 | 1.8 | - (164) | 20.9 | 64.2 | 9.0 | 4.5 | 1.5 | - | (67) |
| | 200~399 | 16.5 | 63.2 | 15.9 | 3.3 | 1.1 (182) | 13.7 | 63.0 | 19.8 | 3.1 | 0.4 | - | (227) |
| | 400~599 | 10.1 | 58.4 | 27.0 | 3.4 | 1.1 (89) | 6.4 | 65.0 | 24.6 | 2.9 | 1.1 | - | (280) |
| | 600 이상 | 4.6 | 61.5 | 27.7 | 6.2 | - (65) | 4.0 | 55.8 | 32.7 | 4.9 | 2.7 | - | (226)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 11.5 | 60.9 | 23.0 | 4.3 | 0.4 (235) | 7.2 | 63.5 | 24.4 | 3.9 | 1.0 | - | (595) |
| | 전세 | 8.9 | 69.3 | 18.8 | 2.0 | 1.0 (101) | 13.8 | 55.0 | 24.8 | 3.7 | 2.8 | - | (109) |
| | 월세 기타 | 29.9 | 55.5 | 11.6 | 2.4 | 0.6 (164) | 14.6 | 58.3 | 22.9 | 2.1 | 2.1 | - | (96) |
| 주관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6.1 | 55.1 | 30.6 | 7.1 | 1.0 (98) | 4.4 | 59.9 | 29.4 | 4.8 | 1.6 | - | (252) |
| | 중하층 | 13.2 | 63.7 | 19.8 | 2.2 | 1.1 (182) | 8.7 | 61.5 | 25.2 | 3.5 | 1.1 | 28.133*** | (369) |
| | 하층 | 25.0 | 60.9 | 11.8 | 2.3 | - (220) | 16.2 | 64.8 | 15.1 | 2.2 | 1.7 | | (179)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3)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걱정거리가 있을 때 정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알아보면, 1인가구는 친구가 54.7%, 가족이 33.0%, 직장 동료 및 선후배가 8.2%, 친인척이 4.1%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인가구의 경우에는 가족이 45.9%, 친구가 45.6%, 직장 동료 및 선후배가 4.7%, 친인척이 3.8%로 나타나 다인가구는 가족과 친구가 비슷한 비율을 보이지만 1인가구보다 가족에게 도움을 받은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빈도 낮은 셀이 포함되어 있어 차이 값은 제시하지 않았다. 1인가구 중 미혼이나 비혼 등의 경우에는 가족에게서 정서적 도움을 받는 비율이 24.4%에 지나지 않으며, 친구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61.3%로 매우 높아지는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가구소득으로 보았을 때 정서적으로 지지가 필요할 때 가족의 도움을 많이 받는 그룹은 1인가구의 경우 400-599만 원 그룹이지만, 다인가구에서는 소득이 가장 낮은 그룹인 199만 원 이하의 그룹이 52.8%로 나타났다. 다인가구 중 가족에게 정서적 도움을 많이 받는 그룹은 경북권에 거주하는 경우, 40대인 경우, 가구소득 199만 원 이하인 경우가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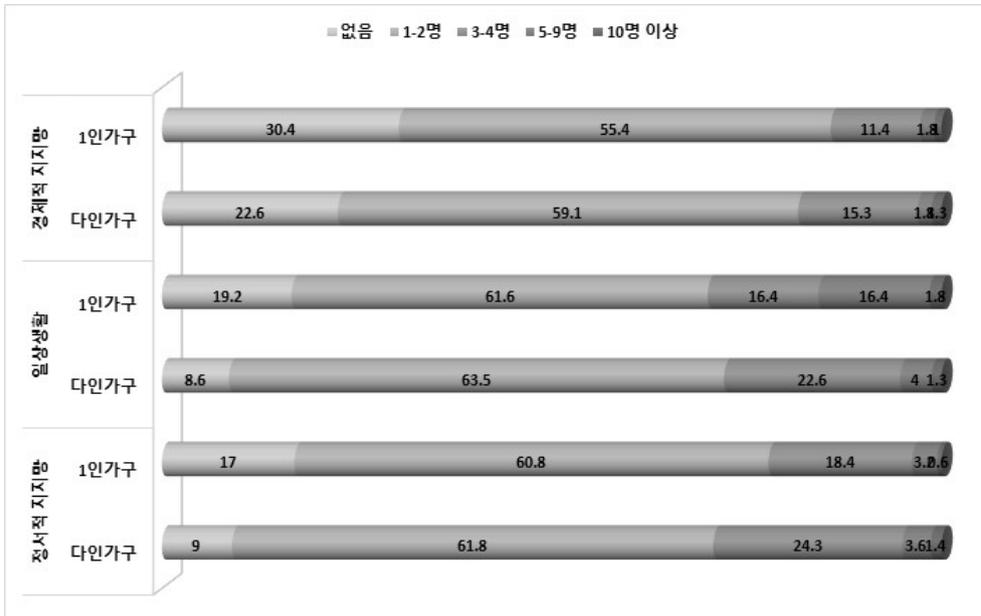
<표 6-6> 우울·스트레스·걱정거리가 있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가족 | 친인척 | 친구 | 직장동료/ 선후배 | (명) | 가족 | 친인척 | 친구 | 동료/선 후배 | (명) | |
| 전체 | 33.0 | 4.1 | 54.7 | 8.2 | (415) | 45.9 | 3.8 | 45.6 | 4.7 | (728) | |
| 성별 | 남자 | 29.6 | 4.2 | 56.8 | 9.4 | (213) | 42.8 | 4.1 | 47.2 | 5.8 | (362) |
| | 여자 | 36.6 | 4.0 | 52.5 | 6.9 | (202) | 48.9 | 3.6 | 44.0 | 3.6 | (366)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33.8 | 1.9 | 55.4 | 8.9 | (213) | 46.5 | 3.8 | 45.2 | 4.6 | (372) |
| | 도지역 | 32.2 | 6.4 | 54.0 | 7.4 | (202) | 45.2 | 3.9 | 46.1 | 4.8 | (356) |
| 거주 권역 | 서울 | 30.8 | 1.3 | 59.0 | 9.0 | (78) | 39.4 | 2.2 | 50.4 | 8.0 | (137) |
| | 인천·경기·강원 | 35.5 | 7.4 | 52.1 | 5.0 | (121) | 48.4 | 4.4 | 43.5 | 3.6 | (248) |
| | 충청권 | 25.6 | - | 65.1 | 9.3 | (43) | 42.1 | 5.3 | 48.7 | 3.9 | (76) |
| | 전라권 | 32.7 | 1.8 | 52.7 | 12.7 | (55) | 46.2 | 6.4 | 43.6 | 3.8 | (78) |
| | 경북권 | 35.6 | 11.1 | 48.9 | 4.4 | (45) | 52.8 | 2.8 | 44.4 | - | (72) |
| | 경남권 | 34.2 | 1.4 | 53.4 | 11.0 | (73) | 46.2 | 2.6 | 44.4 | 6.8 | (117) |
| 연령 | 45-49세 | 31.3 | 1.0 | 61.6 | 6.1 | (99) | 52.9 | 2.1 | 40.7 | 4.2 | (189) |
| | 50-54세 | 39.6 | 5.2 | 43.8 | 11.5 | (96) | 42.9 | 2.6 | 48.1 | 6.3 | (189) |
| | 55-59세 | 29.1 | 2.7 | 59.1 | 9.1 | (110) | 40.8 | 5.6 | 48.0 | 5.6 | (179) |
| | 60-64세 | 32.7 | 7.3 | 53.6 | 6.4 | (110) | 46.8 | 5.3 | 45.6 | 2.3 | (171) |
| 혼인 지위 | 유배우 | 43.8 | 3.1 | 45.3 | 7.8 | (128) | 47.1 | 3.6 | 44.8 | 4.5 | (639) |
| | 사별 | 40.0 | 10.0 | 50.0 | - | (20) | 40.0 | 20.0 | 40.0 | - | (5) |
| | 이혼·별거 | 31.8 | 4.7 | 57.0 | 6.5 | (107) | 36.8 | 2.6 | 55.3 | 5.3 | (38) |
| | 미혼·비혼·기타 | 24.4 | 3.8 | 61.3 | 10.6 | (160) | 37.0 | 6.5 | 50.0 | 6.5 | (46)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38.2 | 4.5 | 50.9 | 6.4 | (110) | 43.6 | 6.2 | 45.1 | 5.1 | (195) |
| | 대학교 | 30.1 | 4.4 | 57.8 | 7.6 | (249) | 46.3 | 3.4 | 45.9 | 4.4 | (436) |
| | 대학원 | 35.7 | 1.8 | 48.2 | 14.3 | (56) | 48.5 | 1.0 | 45.4 | 5.2 | (97) |
| 근로 여부 | 그렇다 | 32.7 | 3.6 | 53.9 | 9.7 | (330) | 45.3 | 4.0 | 44.6 | 6.1 | (505) |
| | 아니다 | 34.1 | 5.9 | 57.6 | 2.4 | (85) | 47.1 | 3.6 | 48.0 | 1.3 | (223)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31.4 | 5.8 | 59.5 | 3.3 | (121) | 52.8 | 5.7 | 39.6 | 1.9 | (53) |
| | 200-399 | 28.9 | 4.6 | 56.6 | 9.9 | (152) | 46.9 | 4.1 | 44.4 | 4.6 | (196) |
| | 400-599 | 41.3 | 3.8 | 45.0 | 10.0 | (80) | 44.7 | 5.0 | 48.1 | 2.3 | (262) |
| | 600 이상 | 35.5 | - | 53.2 | 11.3 | (62) | 44.7 | 1.8 | 45.2 | 8.3 | (217)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 37.0 | 2.9 | 55.3 | 4.8 | (208) | 46.9 | 3.4 | 45.1 | 4.5 | (552) |
| | 전세 | 32.6 | 6.5 | 55.4 | 5.4 | (92) | 38.3 | 6.4 | 51.1 | 4.3 | (94) |
| | 월세 기타 | 26.1 | 4.3 | 53.0 | 16.5 | (115) | 47.6 | 3.7 | 42.7 | 6.1 | (82) |
| 주관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39.1 | - | 47.8 | 13.0 | (92) | 46.9 | 3.3 | 44.4 | 5.4 | (241) |
| | 중하층 | 35.4 | 3.8 | 54.4 | 6.3 | (158) | 44.8 | 3.3 | 47.2 | 4.7 | (337) |
| | 하층 | 27.3 | 6.7 | 58.8 | 7.3 | (165) | 46.7 | 6.0 | 44.0 | 3.3 | (15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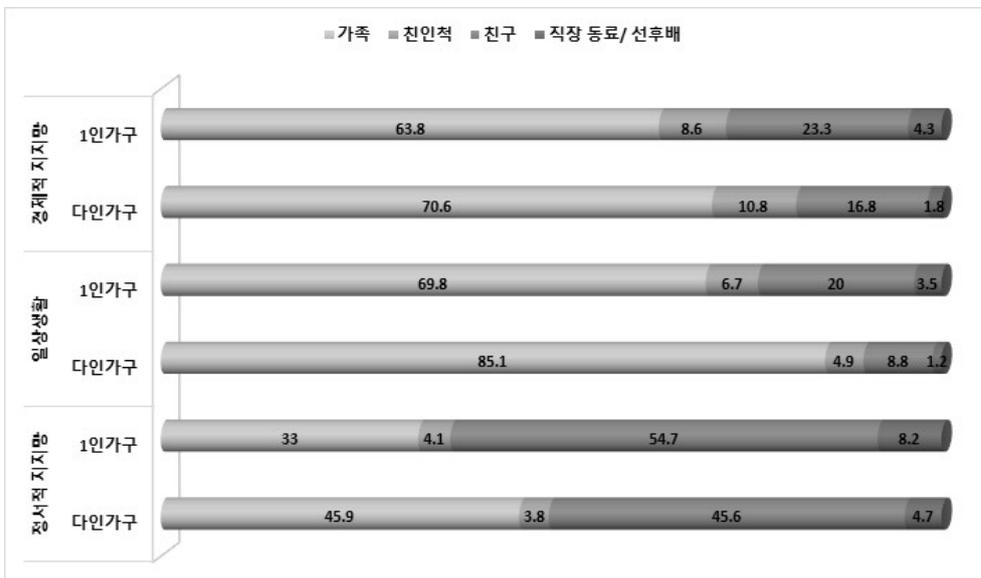
주: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단위: %)



<그림 6-1> 경제적·일상생활·정서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의 수

(단위: %)



<그림 6-2> 경제적·일상생활·정서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2) 도움을 준 경험

지금까지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반대로 도움을 준 경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먼저 목돈을 빌려준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면, 1인가구는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7.8%,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62.2%였다. 다인가구는 있음에 대한 응답 비율이 37.8%, 없음에 응답한 비율은 62.3%로 1인가구와 다인가구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1인가구의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학원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그룹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4.1%로 고졸 이하 그룹의 33.8%와 대졸 이하의 36.4%보다 빌려준 경험이 많아 차이를 보였다. 주관적 경제 수준에서는 빌려준 경험이 하층의 경우 43.4%, 중하층은 36.3%였으나 중상층은 53.1%로 높게 나타나 돈을 빌려준 경험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전라권에 거주하는 다인가구의 경우는 빌려준 경험이 있는 비율이 48.9%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표 6-7> 본인이 목돈을 빌려준 경험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있음 | 없음 | χ^2 | (명) | 있음 | 없음 | χ^2 | (명) | |
| 전체 | 37.8 | 62.2 | - | (500) | 37.8 | 62.3 | - | (800) | |
| 성별 | 남자 | 35.3 | 64.7 | 1.660 | (275) | 38.3 | 61.7 | 0.107 | (402) |
| | 여자 | 40.9 | 59.1 | | (225) | 37.2 | 62.8 | | (398)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38.8 | 61.2 | 0.213 | (250) | 35.8 | 64.2 | 1.280 | (402) |
| | 도지역 | 36.8 | 63.2 | | (250) | 39.7 | 60.3 | | (398) |
| 연령 | 45-49세 | 37.1 | 62.9 | 1.511 | (116) | 34.8 | 65.2 | 5.140 | (210) |
| | 50-54세 | 42.4 | 57.6 | | (118) | 33.5 | 66.5 | | (209) |
| | 55-59세 | 37.0 | 63.0 | | (135) | 40.8 | 59.2 | | (201) |
| | 60-64세 | 35.1 | 64.9 | | (131) | 42.8 | 57.2 | | (180) |
| 혼인 지위 | 유배우 | 41.1 | 58.9 | 1.013 | (141) | 38.1 | 61.9 | - | (696) |
| | 사별 | 36.4 | 63.6 | | (22) | 20.0 | 80.0 | | (5) |
| | 이혼·별거 | 37.4 | 62.6 | | (139) | 34.9 | 65.1 | | (43) |
| | 미혼·비혼·기타 | 35.9 | 64.1 | | (198) | 37.5 | 62.5 | | (56)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33.8 | 66.2 | 8.117* | (142) | 39.7 | 60.3 | 1.095 | (229) |
| | 대학교 | 36.4 | 63.6 | | (297) | 36.2 | 63.8 | | (469) |
| | 대학원 | 54.1 | 45.9 | | (61) | 40.2 | 59.8 | | (102) |
| 근로 여부 | 그렇다 | 38.7 | 61.3 | 0.635 | (390) | 39.8 | 60.2 | 3.304 | (555) |
| | 아니다 | 34.5 | 65.5 | | (110) | 33.1 | 66.9 | | (245)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29.3 | 70.7 | 10.622* | (164) | 29.9 | 70.1 | 3.071 | (67) |
| | 200~399 | 37.9 | 62.1 | | (182) | 39.6 | 60.4 | | (227) |
| | 400~599 | 44.9 | 55.1 | | (89) | 36.1 | 63.9 | | (280) |
| | 600 이상 | 49.2 | 50.8 | | (65) | 40.3 | 59.7 | | (226)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 43.0 | 57.0 | 5.203 | (235) | 39.0 | 61.0 | 1.647 | (595) |
| | 전세 | 34.7 | 65.3 | | (101) | 33.0 | 67.0 | | (109) |
| | 월세 기타 | 32.3 | 67.7 | | (164) | 35.4 | 64.6 | | (96) |
| 주관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53.1 | 46.9 | 12.749** | (98) | 41.3 | 58.7 | 3.513 | (252) |
| | 중하층 | 36.3 | 63.7 | | (182) | 37.9 | 62.1 | | (369) |
| | 하층 | 32.3 | 67.7 | | (220) | 32.4 | 67.6 | | (179)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3)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목돈을 빌려준 경험이 있는 경우 그 대상이 누구였는지 알아보면, 1인가구는 친구인 경우가 42.3%, 가족은 31.2%, 직장 동료나 선후배는 14.3%, 친인척은 12.2%로 나타났다. 반면, 다인가구는 가족이 40.7%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친구는 31.5%, 친

인척이 16.9%, 직장 동료 및 선후배는 10.9%로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경향이 달랐다.

응답이 가족이나 친구로 집중되어 빈도가 낮은 셀이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차이 값은 제외하였다. 1인가구와 다인가구 모두 남성보다는 여성이 가족에게 빌려준 경험이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남성은 친구나 직장 동료 및 선후배에게 빌려준 경험이 여성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다인가구에서는 40대에서 가족에게 빌려준 비율이 58.9%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이며 60대에서는 친인척이나 친구에게 빌려준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1인가구는 55-59세 연령대에서 친구에게 빌려준 경험이 52.0%로 매우 높은 특징을 보였다.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은 1인가구는 가족에게 빌려준 경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데 반해, 동일한 조건의 다인가구는 가족에게 빌려준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표 6-8> 본인이 돈을 빌려준 사람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가족 | 친인척 | 친구 | 직장 동료/ 선후배 | (명) | 가족 | 친인척 | 친구 | 직장 동료/ 선후배 | (명) | |
| 전체 | 31.2 | 12.2 | 42.3 | 14.3 | (189) | 40.7 | 16.9 | 31.5 | 10.9 | (302) | |
| 성별 | 남자 | 21.6 | 12.4 | 48.5 | 17.5 | (97) | 30.5 | 16.9 | 37.7 | 14.9 | (154) |
| | 여자 | 41.3 | 12.0 | 35.9 | 10.9 | (92) | 51.4 | 16.9 | 25.0 | 6.8 | (148)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35.1 | 8.2 | 39.2 | 17.5 | (97) | 41.0 | 15.3 | 32.6 | 11.1 | (144) |
| | 도지역 | 27.2 | 16.3 | 45.7 | 10.9 | (92) | 40.5 | 18.4 | 30.4 | 10.8 | (158) |
| 연령 | 45-49세 | 32.6 | 4.7 | 46.5 | 16.3 | (43) | 58.9 | 5.5 | 26.0 | 9.6 | (73) |
| | 50-54세 | 38.0 | 12.0 | 36.0 | 14.0 | (50) | 41.4 | 12.9 | 35.7 | 10.0 | (70) |
| | 55-59세 | 20.0 | 14.0 | 52.0 | 14.0 | (50) | 35.4 | 20.7 | 28.0 | 15.9 | (82) |
| | 60-64세 | 34.8 | 17.4 | 34.8 | 13.0 | (46) | 28.6 | 27.3 | 36.4 | 7.8 | (77) |
| 혼인 지위 | 유배우 | 34.5 | 19.0 | 34.5 | 12.1 | (58) | 41.1 | 18.5 | 29.4 | 10.9 | (265) |
| | 사별 | 37.5 | - | 50.0 | 12.5 | (8) | - | - | 100.0 | - | (1) |
| | 이혼 별거 | 28.8 | 9.6 | 44.2 | 17.3 | (52) | 33.3 | - | 53.3 | 13.3 | (15) |
| | 미혼·비혼·기타 | 29.6 | 9.9 | 46.5 | 14.1 | (71) | 42.9 | 9.5 | 38.1 | 9.5 | (21)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25.0 | 12.5 | 47.9 | 14.6 | (48) | 31.9 | 14.3 | 40.7 | 13.2 | (91) |
| | 대학교 | 32.4 | 11.1 | 41.7 | 14.8 | (108) | 47.1 | 18.8 | 24.7 | 9.4 | (170) |
| | 대학원 | 36.4 | 15.2 | 36.4 | 12.1 | (33) | 34.1 | 14.6 | 39.0 | 12.2 | (41) |
| 근로 여부 | 그렇다 | 33.1 | 11.3 | 41.7 | 13.9 | (151) | 38.0 | 17.6 | 33.9 | 10.4 | (221) |
| | 아니다 | 23.7 | 15.8 | 44.7 | 15.8 | (38) | 48.1 | 14.8 | 24.7 | 12.3 | (81)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33.3 | 4.2 | 50.0 | 12.5 | (48) | 35.0 | 20.0 | 30.0 | 15.0 | (20) |
| | 200~399 | 30.4 | 11.6 | 42.0 | 15.9 | (69) | 36.7 | 14.4 | 36.7 | 12.2 | (90) |
| | 400~599 | 30.0 | 15.0 | 40.0 | 15.0 | (40) | 38.6 | 16.8 | 37.6 | 6.9 | (101) |
| | 600 이상 | 31.3 | 21.9 | 34.4 | 12.5 | (32) | 48.4 | 18.7 | 19.8 | 13.2 | (91)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 36.6 | 14.9 | 37.6 | 10.9 | (101) | 40.1 | 17.2 | 31.0 | 11.6 | (232) |
| | 전세 | 17.1 | 5.7 | 57.1 | 20.0 | (35) | 36.1 | 19.4 | 33.3 | 11.1 | (36) |
| | 월세 기타 | 30.2 | 11.3 | 41.5 | 17.0 | (53) | 50.0 | 11.8 | 32.4 | 5.9 | (34) |
| 주관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28.8 | 15.4 | 42.3 | 13.5 | (52) | 44.2 | 17.3 | 29.8 | 8.7 | (104) |
| | 중하층 | 33.3 | 12.1 | 39.4 | 15.2 | (66) | 39.3 | 18.6 | 30.7 | 11.4 | (140) |
| | 하층 | 31.0 | 9.9 | 45.1 | 14.1 | (71) | 37.9 | 12.1 | 36.2 | 13.8 | (58) |

주: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집안일이나 일상생활 등과 관련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보면, 1인가구는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4.8%,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45.2%로 나타났다. 다인가구에서 도움을 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인가구보다 높은 64.8%로

나타났고,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5.3%였다.

다른 사람에게 집안일이나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준 경험은 1인가구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남성은 없다는 응답이 45.2%로 있다는 응답 46.9%보다 높은 특징을 보여 있다는 응답이 64.4%로 없다는 응답인 35.6%보다 높아 여성의 결과와 반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다인가구는 남성 여성 모두 있다는 응답이 60% 이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여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차이도 찾아볼 수 있다. 1인가구의 혼인 지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배우자가 있거나 사별을 한 경우는 도와준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각각 68.1%와 77.3%로 높게 나타난 것에 비해 이혼 및 별거는 46.0%, 미혼이나 비혼 등의 경우는 49.0%로 도와준 경험이 없는 비율이 더 높아 차이를 보였다. 다인가구에서는 사례 수가 적기는 하지만 이혼이나 별거 또는 미혼이나 비혼 등인 경우에도 도와준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더 높아 혼인 지위가 같아도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이 200-399만 원인 1인가구는 도와준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48.4%로 낮게 나타났으며, 월세 등으로 사는 경우와 주관적 경제 수준이 낮은 그룹의 1인가구는 도와준 경험이 있는 비율이 약 47%로 절반이 되지 않아 경험이 없는 비율이 더 높은 그룹이다. 주관적 경제 수준에 따라서는 다인가구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중상층인 경우에서 도와준 경험이 71.0%로 중하층이나 하층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다인가구에서는 도와준 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있다는 비율보다 더 높은 그룹은 나타나지 않았다.

<표 6-9> 본인이 다른 사람의 집안 일/일상생활 도와준 경험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있음 | 없음 | χ^2 | (명) | 있음 | 없음 | χ^2 | (명) | | |
| 전체 | 54.8 | 45.2 | - | (500) | 64.8 | 35.3 | - | (800) | | |
| 성별 | 남자 | 46.9 | 53.1 | 26.463 | (275) | 66.9 | 33.1 | 1.660 | (402) | |
| | 여자 | 64.4 | 35.6 | *** | (225) | 62.6 | 37.4 | (.198) | (398) |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56.4 | 43.6 | 0.517 | (250) | 64.2 | 35.8 | 0.115 | (402) | |
| | 도지역 | 53.2 | 46.8 | | (250) | 65.3 | 34.7 | | (.734) | (398) |
| 연령 | 45-49세 | 50.9 | 49.1 | 1.205 | (116) | 66.2 | 33.8 | 1.968 | (210) | |
| | 50-54세 | 56.8 | 43.2 | | (118) | 60.8 | 39.2 | | (209) | |
| | 55-59세 | 57.0 | 43.0 | | (135) | 66.2 | 33.8 | | (201) | |
| | 60-64세 | 54.2 | 45.8 | | (131) | 66.1 | 33.9 | | (180) | |
| 혼인 지위 | 유배우 | 68.1 | 31.9 | 15.274 | (141) | 64.5 | 35.5 | - | (696) | |
| | 사별 | 77.3 | 22.7 | | (22) | 80.0 | 20.0 | | (5) | |
| | 이혼·별거 | 46.0 | 54.0 | | *** | (139) | 65.1 | | 34.9 | (43) |
| | 미혼·비혼·기타 | 49.0 | 51.0 | | (198) | 66.1 | 33.9 | | (56) |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52.1 | 47.9 | 1.259 | (142) | 60.3 | 39.7 | 3.719 | (229) | |
| | 대학교 | 54.9 | 45.1 | | (297) | 65.7 | 34.3 | | (469) | |
| | 대학원 | 60.7 | 39.3 | | (61) | 70.6 | 29.4 | | (102) | |
| 근로 여부 | 그렇다 | 54.9 | 45.1 | 0.004 | (390) | 66.8 | 33.2 | 3.491 | (555) | |
| | 아니다 | 54.5 | 45.5 | | (110) | 60.0 | 40.0 | | (245) |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53.7 | 46.3 | 8.284* | (164) | 68.7 | 31.3 | 8.626* | (67) | |
| | 200-399 | 48.4 | 51.6 | | (182) | 59.5 | 40.5 | | (227) | |
| | 400-599 | 61.8 | 38.2 | | (89) | 70.7 | 29.3 | | (280) | |
| | 600 이상 | 66.2 | 33.8 | | (65) | 61.5 | 38.5 | | (226) |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 59.6 | 40.4 | 6.351* | (235) | 66.9 | 33.1 | 5.905 | (595) | |
| | 전세 | 56.4 | 43.6 | | (101) | 55.0 | 45.0 | | (109) | |
| | 월세 기타 | 47.0 | 53.0 | | (164) | 62.5 | 37.5 | | (96) | |
| 주관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65.3 | 34.7 | 10.27** | (98) | 71.0 | 29.0 | 6.631* | (252) | |
| | 중하층 | 58.2 | 41.8 | | (182) | 62.6 | 37.4 | | (369) | |
| | 하층 | 47.3 | 52.7 | | (220) | 60.3 | 39.7 | | (179) |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3)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다른 사람에게 집안일이나 일상생활에 도움을 준 경험이 있는 경우 누구에게 준 경험이 있는지 알아보면, 1인가구는 가족이 71.2%, 친구가 19.7%, 친인척이 5.5%, 직장 동료 및 선후배는 3.6%로 나타났다. 다인가구 역시 가족이 76.8%로 가장 높았고, 친구

가 10.8%, 친인척이 9.5%, 직장 동료 및 선후배는 2.9% 순으로 1인가구와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도움을 준 사람은 가족 및 친구에 크게 집중되어 있어, 낮은 빈도로 인해 차이 값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빈도로 확인해 보면 1인가구의 남성은 가족에게 도움을 준 경우가 66.7%로 여성의 75.2%보다 낮고 친구에게 도움을 준 비율이 23.3%로 여성의 16.6%보다 높았다. 배우자가 있는 1인가구는 가족인 경우가 83.3%로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이혼이나 별거, 미혼 및 비혼 등의 경우는 친구에게 도움을 준 비율이 25% 내외로 다른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졸 이하의 1인가구는 가족에게 도움을 준 비율이 58.1%로 낮은 수준을 보이며 친구에게 도움을 준 비율은 31.1%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다인가구의 경우는 40대의 경우 가족에게 도움을 준 비율이 84.9%로 높은 특징을 보인다.

<표 6-10> 본인이 다른 사람의 집안 일이나 일상생활을 도와준 사람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가족 | 친인척 | 친구 | 동료/ 선후배 | (명) | 가족 | 친인척 | 친구 | 동료/ 선후배 | (명) | |
| 전체 | 71.2 | 5.5 | 19.7 | 3.6 | (274) | 76.8 | 9.5 | 10.8 | 2.9 | (518) | |
| 성별 | 남자 | 66.7 | 3.9 | 23.3 | 6.2 | (129) | 74.3 | 9.3 | 12.3 | 4.1 | (269) |
| | 여자 | 75.2 | 6.9 | 16.6 | 1.4 | (145) | 79.5 | 9.6 | 9.2 | 1.6 | (249) |
| 연령 | 45-49세 | 78.0 | 5.1 | 13.6 | 3.4 | (59) | 84.9 | 2.9 | 10.1 | 2.2 | (139) |
| | 50-54세 | 74.6 | 1.5 | 19.4 | 4.5 | (67) | 77.2 | 7.9 | 11.0 | 3.9 | (127) |
| | 55-59세 | 64.9 | 6.5 | 26.0 | 2.6 | (77) | 72.2 | 12.0 | 12.0 | 3.8 | (133) |
| | 60-64세 | 69.0 | 8.5 | 18.3 | 4.2 | (71) | 72.3 | 16.0 | 10.1 | 1.7 | (119) |
| 혼인 지위 | 유배우 | 83.3 | 4.2 | 10.4 | 2.1 | (96) | 76.6 | 10.5 | 10.5 | 2.4 | (449) |
| | 사별 | 76.5 | 5.9 | 17.6 | - | (17) | 75.0 | - | 25.0 | - | (4) |
| | 이혼 별거 | 62.5 | 6.3 | 26.6 | 4.7 | (64) | 78.6 | 3.6 | 10.7 | 7.1 | (28) |
| | 미혼·비혼·기타 | 63.9 | 6.2 | 24.7 | 5.2 | (97) | 78.4 | 2.7 | 13.5 | 5.4 | (37)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58.1 | 5.4 | 31.1 | 5.4 | (74) | 73.9 | 11.6 | 10.1 | 4.3 | (138) |
| | 대학교 | 74.2 | 6.1 | 17.2 | 2.5 | (163) | 77.6 | 8.8 | 11.4 | 2.3 | (308) |
| | 대학원 | 83.8 | 2.7 | 8.1 | 5.4 | (37) | 79.2 | 8.3 | 9.7 | 2.8 | (72) |
| 근로 여부 | 그렇다 | 70.1 | 6.1 | 20.1 | 3.7 | (214) | 77.9 | 7.5 | 11.6 | 3.0 | (371) |
| | 아니다 | 75.0 | 3.3 | 18.3 | 3.3 | (60) | 74.1 | 14.3 | 8.8 | 2.7 | (147)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69.3 | 4.5 | 22.7 | 3.4 | (88) | 69.6 | 13.0 | 13.0 | 4.3 | (46) |
| | 200~399 | 67.0 | 6.8 | 21.6 | 4.5 | (88) | 77.8 | 8.1 | 11.1 | 3.0 | (135) |
| | 400~599 | 76.4 | 5.5 | 14.5 | 3.6 | (55) | 76.8 | 10.6 | 9.1 | 3.5 | (198) |
| | 600 이상 | 76.7 | 4.7 | 16.3 | 2.3 | (43) | 78.4 | 7.9 | 12.2 | 1.4 | (139)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 77.9 | 5.7 | 15.7 | 0.7 | (140) | 77.1 | 9.3 | 11.1 | 2.5 | (398) |
| | 전세 | 63.2 | 7.0 | 26.3 | 3.5 | (57) | 73.3 | 10.0 | 11.7 | 5.0 | (60) |
| | 월세 기타 | 64.9 | 3.9 | 22.1 | 9.1 | (77) | 78.3 | 10.0 | 8.3 | 3.3 | (60) |
| 주관 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73.4 | 4.7 | 20.3 | 1.6 | (64) | 78.2 | 6.7 | 11.7 | 3.4 | (179) |
| | 중하층 | 75.5 | 5.7 | 15.1 | 3.8 | (106) | 75.3 | 10.8 | 11.7 | 2.2 | (231) |
| | 하층 | 65.4 | 5.8 | 24.0 | 4.8 | (104) | 77.8 | 11.1 | 7.4 | 3.7 | (108) |

주: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다른 사람이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또는 걱정거리가 있을 때 이야기를 나누어 도움을 준 경험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1인가구는 있음이 70.8%, 없음이 29.2%로 나타났고 다인가구는 있음이 74.4%, 없음이 25.6%로 나타났다.

1인가구와 다인가구 모두 이러한 정서적인 도움을 준 경험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1인가구의 남성은 있다는 응답 비율이 62.2%로 여성의 81.3%보다

낮았다. 다인가구 또한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은 66.7%, 여성은 82.2%로 차이를 보였다. 1인가구는 거주지역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광역시나 특별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는 정서적인 도움을 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5.2%로 도 지역의 66.4%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서울과 경남권에 거주하는 1인가구는 도움을 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9.1%와 83.1%로 다른 그룹보다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혼인 지위에 따른 차이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1인가구의 경우는 도움을 준 경험이 있는 비율이 79.4%로 높았으나 미혼이나 비혼 등인 1인가구는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5.7%로 낮아 차이를 보였다. 근로 여부에 따라서는 1인가구와 다인가구 모두 차이를 보이기는 했으나, 그 경향은 다르게 나타났다. 1인가구 중 일을 하지 않는 그룹은 도움을 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2.7%이고 일을 하는 그룹은 같은 응답에 대해 73.1%가 응답해 1인가구는 일을 하는 그룹이 다른 사람에게 정서적인 도움을 준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다인가구에서는 도움을 준 경험이 있다는 응답에 대해 일을 하지 않는 그룹은 80.0%, 일을 하는 그룹은 71.9%로 일을 하지 않는 그룹이 도움을 더 많이 준 것으로 나타나 1인가구와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그 외에 가구소득, 주택 점유형태, 주관적 경제 수준에 따른 차이는 1인가구에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도움을 준 경험 비율은 낮아지며 가구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도움을 주는 비율이 87.7%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여 차이가 나타났다. 주택 점유형태는 자가, 전세, 월세 등의 순으로 도움을 준 경험이 있는 비율이 낮아진다. 특히, 월세 등의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도움을 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4%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주관적 경제 수준 역시 낮을수록 도움 준 경험 비율이 낮았는데, 중상층은 82.7%가 도움 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데 반해, 하층은 64.5%만이 있다고 응답해 차이가 두드러졌다.

<표 6-11> 우울·스트레스·걱정거리가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 준 경험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있음 | 없음 | χ^2 | (명) | 있음 | 없음 | χ^2 | (명) | |
| 전체 | 70.8 | 29.2 | - | (500) | 74.4 | 25.6 | - | (800) | |
| 성별 | 남자 | 62.2 | 37.8 | 35.128*** | (275) | 66.7 | 33.3 | 25.192*** | (402) |
| | 여자 | 81.3 | 18.7 | | (225) | 82.2 | 17.8 | | (398)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75.2 | 24.8 | 4.682* | (250) | 73.9 | 26.1 | 0.104 | (402) |
| | 도지역 | 66.4 | 33.6 | | (250) | 74.9 | 25.1 | | (398) |
| 거주 권역 | 서울 | 79.1 | 20.9 | 14.769* | (86) | 77.2 | 22.8 | 7.807 | (145) |
| | 인천·경기·강원 | 64.8 | 35.2 | | (159) | 77.8 | 22.2 | | (275) |
| | 충청권 | 71.2 | 28.8 | | (52) | 66.3 | 33.7 | | (83) |
| | 전라권 | 61.5 | 38.5 | | (65) | 67.0 | 33.0 | | (88) |
| | 경북권 | 67.3 | 32.7 | | (55) | 72.8 | 27.2 | | (81) |
| | 경남권 | 83.1 | 16.9 | | (83) | 75.0 | 25.0 | | (128) |
| 연령 | 45-49세 | 69.0 | 31.0 | 1.014 | (116) | 75.2 | 24.8 | 2.647 | (210) |
| | 50-54세 | 70.3 | 29.7 | | (118) | 72.7 | 27.3 | | (209) |
| | 55-59세 | 74.1 | 25.9 | | (135) | 71.6 | 28.4 | | (201) |
| | 60-64세 | 69.5 | 30.5 | | (131) | 78.3 | 21.7 | | (180) |
| 혼인 지위 | 유배우 | 79.4 | 20.6 | 7.858* | (141) | 74.9 | 25.1 | - | (696) |
| | 사별 | 72.7 | 27.3 | | (22) | 100.0 | - | | (5) |
| | 이혼·별거 | 69.1 | 30.9 | | (139) | 74.4 | 25.6 | | (43) |
| | 미혼·비혼·기타 | 65.7 | 34.3 | (198) | 66.1 | 33.9 | (56) | |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64.1 | 35.9 | 5.297 | (142) | 72.5 | 27.5 | 1.793 | (229) |
| | 대학교 | 72.4 | 27.6 | | (297) | 74.2 | 25.8 | | (469) |
| | 대학원 | 78.7 | 21.3 | | (61) | 79.4 | 20.6 | | (102) |
| 근로 여부 | 그렇다 | 73.1 | 26.9 | 4.446* | (390) | 71.9 | 28.1 | 5.863* | (555) |
| | 아니다 | 62.7 | 37.3 | | (110) | 80.0 | 20.0 | | (245)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62.2 | 37.8 | 17.011** | (164) | 70.1 | 29.9 | 6.384 | (67) |
| | 200~399 | 69.2 | 30.8 | | (182) | 69.2 | 30.8 | | (227) |
| | 400~599 | 77.5 | 22.5 | | (89) | 78.2 | 21.8 | | (280) |
| | 600 이상 | 87.7 | 12.3 | | (65) | 76.1 | 23.9 | | (226) |
| 주택 형태 | 자가 | 76.6 | 23.4 | 13.039** | (235) | 74.1 | 25.9 | 0.209 | (595) |
| | 전세 | 74.3 | 25.7 | | (101) | 76.1 | 23.9 | | (109) |
| | 월세 기타 | 60.4 | 39.6 | | (164) | 74.0 | 26.0 | | (96) |
| 주관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82.7 | 17.3 | 10.945** | (98) | 77.4 | 22.6 | 2.688 | (252) |
| | 중하층 | 72.0 | 28.0 | | (182) | 74.3 | 25.7 | | (369) |
| | 하층 | 64.5 | 35.5 | | (220) | 70.4 | 29.6 | | (179)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3)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표 6-12〉 우울·스트레스·걱정거리가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 도움 준 사람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가족 | 친인척 | 친구 | 동료/ 선후배 | (명) | 가족 | 친인척 | 친구 | 동료/ 선후배 | (명) | |
| 전체 | 26.8 | 3.4 | 54.2 | 15.5 | (354) | 33.6 | 5.0 | 48.1 | 13.3 | (595) | |
| 성별 | 남자 | 24.0 | 4.1 | 54.4 | 17.5 | (171) | 31.7 | 4.5 | 46.6 | 17.2 | (268) |
| | 여자 | 29.5 | 2.7 | 54.1 | 13.7 | (183) | 35.2 | 5.5 | 49.2 | 10.1 | (327)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29.8 | 2.1 | 55.3 | 12.8 | (188) | 32.7 | 3.7 | 51.2 | 12.5 | (297) |
| | 도지역 | 23.5 | 4.8 | 53.0 | 18.7 | (166) | 34.6 | 6.4 | 45.0 | 14.1 | (298) |
| 거주 권역 | 서울 | 30.9 | - | 57.4 | 11.8 | (68) | 30.4 | - | 59.8 | 9.8 | (112) |
| | 인천·경기·강원 | 26.2 | 3.9 | 51.5 | 18.4 | (103) | 34.6 | 6.1 | 48.1 | 11.2 | (214) |
| | 충청권 | 29.7 | - | 45.9 | 24.3 | (37) | 30.9 | 7.3 | 40.0 | 21.8 | (55) |
| | 전라권 | 22.5 | 5.0 | 55.0 | 17.5 | (40) | 37.3 | 8.5 | 39.0 | 15.3 | (59) |
| | 경북권 | 24.3 | 10.8 | 56.8 | 8.1 | (37) | 33.9 | 5.1 | 49.2 | 11.9 | (59) |
| | 경남권 | 26.1 | 2.9 | 58.0 | 13.0 | (69) | 34.4 | 5.2 | 43.8 | 16.7 | (96) |
| 연령 | 45-49세 | 27.5 | - | 57.5 | 15.0 | (80) | 31.0 | 3.2 | 48.7 | 17.1 | (158) |
| | 50-54세 | 27.7 | - | 50.6 | 21.7 | (83) | 28.9 | 3.3 | 53.3 | 14.5 | (152) |
| | 55-59세 | 24.0 | 4.0 | 55.0 | 17.0 | (100) | 37.5 | 6.9 | 43.1 | 12.5 | (144) |
| | 60-64세 | 28.6 | 8.8 | 53.8 | 8.8 | (91) | 37.6 | 7.1 | 46.8 | 8.5 | (141) |
| 혼인 지위 | 유배우 | 33.9 | 4.5 | 49.1 | 12.5 | (112) | 34.5 | 5.4 | 47.2 | 12.9 | (521) |
| | 사별 | 37.5 | 12.5 | 50.0 | - | (16) | 40.0 | - | 60.0 | - | (5) |
| | 이혼 별거 | 20.8 | 3.1 | 58.3 | 17.7 | (96) | 28.1 | 3.1 | 53.1 | 15.6 | (32) |
| | 미혼·비혼·기타 | 23.8 | 1.5 | 56.2 | 18.5 | (130) | 24.3 | 2.7 | 54.1 | 18.9 | (37)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30.8 | 3.3 | 52.7 | 13.2 | (91) | 29.5 | 6.6 | 50.0 | 13.9 | (166) |
| | 대학교 | 25.1 | 4.2 | 55.3 | 15.3 | (215) | 35.6 | 4.9 | 48.3 | 11.2 | (348) |
| | 대학원 | 27.1 | - | 52.1 | 20.8 | (48) | 33.3 | 2.5 | 43.2 | 21.0 | (81) |
| 근로 여부 | 그렇다 | 27.0 | 2.8 | 53.0 | 17.2 | (285) | 32.3 | 3.3 | 46.4 | 18.0 | (399) |
| | 아니다 | 26.1 | 5.8 | 59.4 | 8.7 | (69) | 36.2 | 8.7 | 51.5 | 3.6 | (196)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26.5 | 4.9 | 58.8 | 9.8 | (102) | 36.2 | 8.5 | 38.3 | 17.0 | (47) |
| | 200~399 | 25.4 | 4.0 | 54.0 | 16.7 | (126) | 33.8 | 3.2 | 52.2 | 10.8 | (157) |
| | 400~599 | 31.9 | 1.4 | 46.4 | 20.3 | (69) | 34.7 | 4.1 | 50.7 | 10.5 | (219) |
| | 600 이상 | 24.6 | 1.8 | 56.1 | 17.5 | (57) | 31.4 | 7.0 | 43.6 | 18.0 | (172)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 28.3 | 3.3 | 53.3 | 15.0 | (180) | 34.7 | 5.7 | 48.3 | 11.3 | (441) |
| | 전세 | 32.0 | - | 56.0 | 12.0 | (75) | 25.3 | 3.6 | 50.6 | 20.5 | (83) |
| | 월세 기타 | 20.2 | 6.1 | 54.5 | 19.2 | (99) | 36.6 | 2.8 | 43.7 | 16.9 | (71) |
| 주관 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28.4 | 2.5 | 50.6 | 18.5 | (81) | 41.0 | 4.1 | 41.0 | 13.8 | (195) |
| | 중하층 | 29.0 | 4.6 | 52.7 | 13.7 | (131) | 29.2 | 5.8 | 50.4 | 14.6 | (274) |
| | 하층 | 23.9 | 2.8 | 57.7 | 15.5 | (142) | 31.7 | 4.8 | 54.0 | 9.5 | (126) |

우울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는 경우, 또는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며 정서적 도움을 준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대상이 누구였는지 알아보았다. 1인가구는 친구가 54.2%, 가족은 26.8%, 직장 동료 및 선후배는 15.5%, 친인척은 3.4%로 나타났다. 다인가구 에서는 친구가 48.1%, 가족은 33.6%, 직장 동료 및 선후배는 13.3%, 친인척은 5.0%로 친구와 가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한 응답은 앞서와 같이 가족 및 친구로 집중되어 빈도가 낮은 셀로 인해 차이 값을 제시하지 않았다. 1인가구 중 가족에게 이러한 정서적 도움을 준 경험의 비율이 높은 그룹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33.9%로 높게 나타났다. 사별의 경우 37.5%로 비율이 높지만 사례 수가 많지 않아 비율로 해석하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인가구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친구에게 이러한 도움을 주었다는 비율이 59.8%로 다른 지역보다 높았고, 전라권이나 충청권에 거주하는 경우는 친구에게 도움을 준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각각 39.0%와 40.0%로 다른 그룹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나. 갑자기 연락해도 응해줄 수 있는 사람

목적이나 이유 없이 갑자기 연락해 만나자고 할 때 기꺼이 응해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어느 정도 있는지 알아보았다. 1인가구는 몇 명 있다는 응답이 63.6%, 거의 없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9.0%, 전혀 없다는 응답은 4.4%, 많이 있다는 응답은 3.0%로 나타났다. 다인가구는 몇 명 있다는 응답 비율은 71.1%, 거의 없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1.8%, 많이 있다는 응답은 4.6%, 전혀 없다는 2.5%로 나타나 1인가구보다는 다인가구가 갑자기 만나자고 할 때 응해줄 사람이 주변에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다인가구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많이 있다는 응답에서 남성은 7.5%로 여성의 1.8%보다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전혀 없는 경우는 다인가구 남성은 1.5%, 여성은 3.5%였는데 1인가구에서는 남성이 5.8%, 여성이 2.7%로 다른 경향을 보인 것도 특징이다. 다인가구는 가구소득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많이 있다는 응답이 소득이 많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몇 명 있다는 응답고 같은 경향으로 나타나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1인가구의 고소득층은 몇 명 있다에 대한 응답이 81.5%로 매우 높고 많이 있다는 응답은 오히려 줄어든다. 하지만 전혀 없

다고 응답한 사람은 없어 소득이 높은 1인가구는 너무 많은 인간관계보다는 필요한 요소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양적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확대되지 않은 정도를 유지하며 생활하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1인가구의 이러한 경향을 주관적 경제 수준에서 차이로 나타냈는데, 중상층 1인가구의 경우 전혀 없다는 응답이 역시 없었고, 몇 명 있다는 응답이 79.6%로 하층의 51.8%보다 높아 차이를 보였다. 다인가구도 경제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역시 몇 명 있다는 응답에서 중상층은 76.6%, 하층은 64.2%가 응답했다. 다인가구는 중상층은 많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3%로 하층의 0.6%보다 높게 나타나기도 해 중상층과 하층의 차이를 볼 수 있다.

<표 6-13> 갑자기 연락해 만나자고 할 때 응해줄 수 있는 사람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전혀 없다 | 거의 없는 편이다 | 몇 명 있다 | 많이 있다 | χ^2 | (명) | 전혀 없다 | 거의 없는 편이다 | 몇 명 있다 | 많이 있다 | χ^2 | (명) |
| 전체 | 4.4 | 29.0 | 63.6 | 3.0 | - | (500) | 2.5 | 21.8 | 71.1 | 4.6 | - | (800) |
| 성별 | 남자 | 5.8 | 30.9 | 59.6 | 3.6 | 5.896 | 1.5 | 21.6 | 69.4 | 7.5 | 17.690** | (402) |
| | 여자 | 2.7 | 26.7 | 68.4 | 2.2 | | (225) | 3.5 | 21.9 | 72.9 | | 1.8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4.4 | 28.4 | 64.8 | 2.4 | 0.775 | 2.5 | 22.6 | 71.1 | 3.7 | 1.688 | (402) |
| | 도지역 | 4.4 | 29.6 | 62.4 | 3.6 | | (250) | 2.5 | 20.9 | 71.1 | | 5.5 |
| 거주 권역 | 서울 | 4.7 | 26.7 | 66.3 | 2.3 | - | 2.1 | 21.4 | 71.7 | 4.8 | - | (145) |
| | 인천·경기·강원 | 5.7 | 32.7 | 59.1 | 2.5 | (159) | 2.2 | 18.2 | 76.0 | 3.6 | (275) | |
| | 충청권 | 5.8 | 25.0 | 63.5 | 5.8 | - | 2.4 | 27.7 | 65.1 | 4.8 | - | (83) |
| | 전라권 | 1.5 | 29.2 | 64.6 | 4.6 | (65) | 3.4 | 27.3 | 61.4 | 8.0 | (88) | |
| | 경북권 | 7.3 | 29.1 | 61.8 | 1.8 | (55) | 3.7 | 23.5 | 69.1 | 3.7 | (81) | |
| | 경남권 | 1.2 | 26.5 | 69.9 | 2.4 | (83) | 2.3 | 21.1 | 71.9 | 4.7 | (128) | |
| 연령 | 45-49세 | 4.3 | 27.6 | 67.2 | 0.9 | - | 4.8 | 21.4 | 68.6 | 5.2 | - | (210) |
| | 50-54세 | 5.1 | 39.0 | 55.1 | 0.8 | (118) | 1.9 | 24.4 | 69.9 | 3.8 | 9.682 | (209) |
| | 55-59세 | 3.0 | 20.7 | 70.4 | 5.9 | (135) | 2.0 | 21.4 | 73.1 | 3.5 | | (201) |
| | 60-64세 | 5.3 | 29.8 | 61.1 | 3.8 | (131) | 1.1 | 19.4 | 73.3 | 6.1 | (180) | |
| 혼인 지위 | 유배우 | 1.4 | 24.8 | 70.2 | 3.5 | - | 2.3 | 21.4 | 71.6 | 4.7 | - | (141) |
| | 사별 | - | 27.3 | 72.7 | - | (22) | - | 40.0 | 60.0 | - | - | (5) |
| | 이혼·별거 | 7.9 | 30.2 | 58.3 | 3.6 | (139) | 7.0 | 16.3 | 74.4 | 2.3 | - | (43) |
| 교육 수준 | 미혼·비혼·기타 | 4.5 | 31.3 | 61.6 | 2.5 | (198) | 1.8 | 28.6 | 64.3 | 5.4 | - | (56) |
| | 고교 이하 | 6.3 | 33.8 | 57.7 | 2.1 | (142) | 4.4 | 26.6 | 65.5 | 3.5 | - | (229) |
| | 대학교 | 4.4 | 26.6 | 65.7 | 3.4 | - | 1.9 | 20.3 | 72.5 | 5.3 | 11.517 | (469) |
| 대학원 | - | 29.5 | 67.2 | 3.3 | (61) | 1.0 | 17.6 | 77.5 | 3.9 | (102) | | |
| 근로 여부 | 그렇다 | 3.6 | 28.5 | 64.6 | 3.3 | - | 2.0 | 20.5 | 72.1 | 5.4 | 5.779 | (390) |
| | 아니다 | 7.3 | 30.9 | 60.0 | 1.8 | (110) | 3.7 | 24.5 | 69.0 | 2.9 | | (245) |
| 소득 | 199 이하 | 9.1 | 35.4 | 53.7 | 1.8 | - | 7.5 | 29.9 | 61.2 | 1.5 | - | (164) |
| | 200~399 | 2.7 | 33.5 | 59.9 | 3.8 | (182) | 4.0 | 29.1 | 63.9 | 3.1 | 36.010*** | (227) |
| | 400~599 | 2.2 | 16.9 | 76.4 | 4.5 | (89) | 1.1 | 19.3 | 75.4 | 4.3 | | (280) |
| 600 이상 | - | 16.9 | 81.5 | 1.5 | (65) | 1.3 | 15.0 | 76.1 | 7.5 | (226) | | |
| 주택 형태 | 자가 | 1.3 | 26.8 | 69.8 | 2.1 | - | 1.5 | 21.3 | 73.3 | 3.9 | - | (235) |
| | 전세 | 2.0 | 27.7 | 66.3 | 4.0 | (101) | 6.4 | 16.5 | 69.7 | 7.3 | - | (109) |
| | 월세 기타 | 10.4 | 32.9 | 53.0 | 3.7 | (164) | 4.2 | 30.2 | 59.4 | 6.3 | (96) | |
| 주관적 수준 | 중상층 | - | 17.3 | 79.6 | 3.1 | (98) | 2.0 | 15.1 | 76.6 | 6.3 | - | (252) |
| | 경제 중하층 | 2.2 | 25.3 | 69.2 | 3.3 | 24.244*** | 1.4 | 22.5 | 70.7 | 5.4 | 30.137*** | (182) |
| | 하층 | 8.2 | 37.3 | 51.8 | 2.7 | (220) | 5.6 | 29.6 | 64.2 | 0.6 | (179) |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3)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다. 다양한 관계에 대한 기대

관계에 대한 욕구를 알아보기 위해, 현재 맺고 있는 관계보다 더 다양한 관계를 원하는지 알아보았다. 이 질문에 1인가구는 약간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45.2%로 가장 많았고,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8.0%, 매우 그렇다는 10.2%, 전혀 그렇지 않다는 6.6%로 나타났다. 다인가구는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6.5%로 역시 가장 높았고, 약간 그렇다는 39.6%, 매우 그렇다는 8.1%, 전혀 그렇지 않다는 5.8%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다인가구보다는 1인가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관계보다 더 다양한 관계를 갖길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인가구와 다인가구 모두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1인가구 남성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13.8%로 여성의 5.8%보다 높게 나타나 여성보다 남성이 더욱 다양한 관계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인가구는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 41.0%, 여성은 52.0%이고, 약간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은 45.8%, 여성은 33.4%로 여성보다 남성이 더 다양한 관계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는 주택 점유형태와 주관적 경제 수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 월세 등의 형태로 사는 1인가구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15.9%로 매우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주관적 경제 수준이 낮은 1인가구도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16.4%로 높아 다른 그룹과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1인가구 중 충청권에 거주하는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9.6%,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13.5%로 양극단의 응답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또한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1인가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18.2%로 나타나 관계를 확장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이 강한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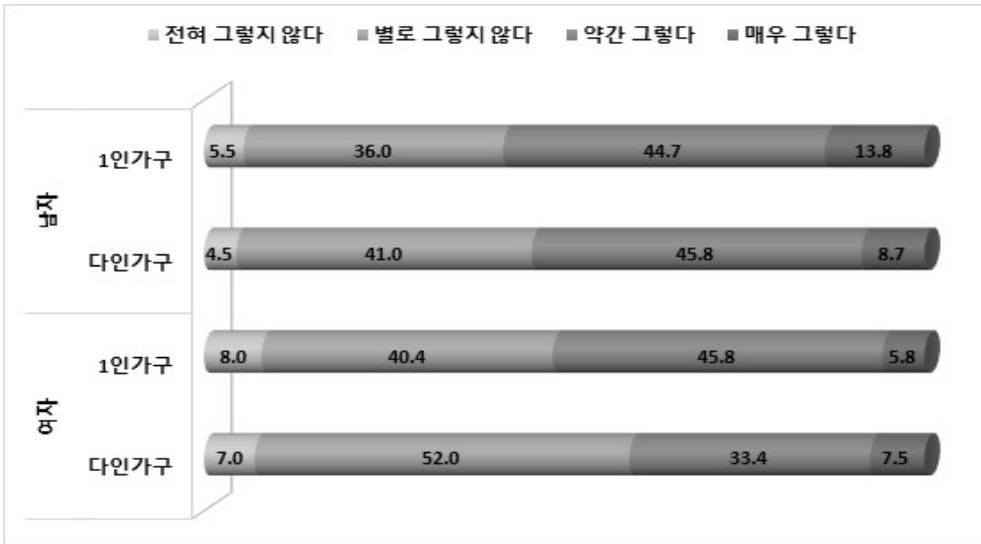
<표 6-14> '현재보다 더 다양한 관계가 있으면 좋겠다'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χ^2 | (명)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χ^2 | (명) | |
| 전체 | 6.6 | 38.0 | 45.2 | 10.2 | - | (500) | 5.8 | 46.5 | 39.6 | 8.1 | - | (800) | |
| 성별 | 남자 | 5.5 | 36.0 | 44.7 | 13.8 | 9.732* | (275) | 4.5 | 41.0 | 45.8 | 8.7 | 15.486** | (402) |
| | 여자 | 8.0 | 40.4 | 45.8 | 5.8 | | (225) | 7.0 | 52.0 | 33.4 | 7.5 | | (398)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도·자치도 | 6.8 | 36.8 | 45.2 | 11.2 | 0.710 | (250) | 6.2 | 47.3 | 38.3 | 8.2 | 0.771 | (402) |
| | 지역 | 6.4 | 39.2 | 45.2 | 9.2 | | (250) | 5.3 | 45.7 | 41.0 | 8.0 | | (398) |
| 거주 권역 | 서울 | 4.7 | 32.6 | 53.5 | 9.3 | 20.742 | (86) | 6.2 | 48.3 | 37.2 | 8.3 | 6.665 | (145) |
| | 인천·경기·강원 | 5.0 | 40.3 | 45.3 | 9.4 | | (159) | 6.2 | 46.9 | 39.3 | 7.6 | | (275) |
| | 충청권 | 9.6 | 36.5 | 40.4 | 13.5 | | (52) | 3.6 | 44.6 | 43.4 | 8.4 | | (83) |
| | 전라권 | 1.5 | 43.1 | 44.6 | 10.8 | | (65) | 2.3 | 46.6 | 42.0 | 9.1 | | (88) |
| | 경북권 | 18.2 | 36.4 | 34.5 | 10.9 | | (55) | 6.2 | 46.9 | 42.0 | 4.9 | | (81) |
| | 경남권 | 6.0 | 37.3 | 47.0 | 9.6 | | (83) | 7.8 | 44.5 | 37.5 | 10.2 | | (128) |
| 연령 | 45-49세 | 8.6 | 33.6 | 47.4 | 10.3 | 3.667 | (116) | 7.6 | 48.6 | 38.1 | 5.7 | 14.056 | (210) |
| | 50-54세 | 5.1 | 39.8 | 44.9 | 10.2 | | (118) | 7.7 | 44.5 | 39.7 | 8.1 | | (209) |
| | 55-59세 | 8.1 | 39.3 | 42.2 | 10.4 | | (135) | 2.0 | 51.2 | 36.8 | 10.0 | | (201) |
| | 60-64세 | 4.6 | 38.9 | 46.6 | 9.9 | | (131) | 5.6 | 41.1 | 44.4 | 8.9 | | (180) |
| 혼인 지위 | 유배우 | 5.0 | 43.3 | 44.7 | 7.1 | 6.991 | (141) | 5.3 | 44.7 | 41.4 | 8.6 | - | (696) |
| | 사별 | 9.1 | 27.3 | 54.5 | 9.1 | | (22) | - | 80.0 | 20.0 | - | | (5) |
| | 이혼 | 7.2 | 33.1 | 48.9 | 10.8 | | (139) | 9.3 | 51.2 | 34.9 | 4.7 | | (43) |
| | 미혼·비혼·기타 | 7.1 | 38.9 | 41.9 | 12.1 | | (198) | 8.9 | 62.5 | 23.2 | 5.4 | | (56)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7.7 | 31.7 | 47.9 | 12.7 | 5.972 | (142) | 6.1 | 41.0 | 43.2 | 9.6 | 8.264 | (229) |
| | 대학교 | 6.7 | 39.4 | 44.1 | 9.8 | | (297) | 5.3 | 50.3 | 36.5 | 7.9 | | (469) |
| | 대학원 | 3.3 | 45.9 | 44.3 | 6.6 | | (61) | 6.9 | 41.2 | 46.1 | 5.9 | | (102) |
| 근로 여부 | 그렇다 | 5.9 | 40.8 | 43.1 | 10.3 | 6.677 | (390) | 5.2 | 45.2 | 41.8 | 7.7 | 3.986 | (555) |
| | 아니다 | 9.1 | 28.2 | 52.7 | 10.0 | | (110) | 6.9 | 49.4 | 34.7 | 9.0 | | (245)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7.3 | 34.8 | 44.5 | 13.4 | 9.243 | (164) | 7.5 | 38.8 | 43.3 | 10.4 | 11.265 | (67) |
| | 200~399 | 5.5 | 43.4 | 42.9 | 8.2 | | (182) | 5.7 | 49.8 | 34.4 | 10.1 | | (227) |
| | 400~599 | 5.6 | 32.6 | 49.4 | 12.4 | | (89) | 6.1 | 41.8 | 45.0 | 7.1 | | (280) |
| 600 이상 | 9.2 | 38.5 | 47.7 | 4.6 | (65) | 4.9 | 51.3 | 37.2 | 6.6 | (226) | | | |
| 주택 형태 | 자가 | 7.2 | 43.4 | 42.1 | 7.2 | 17.553** | (235) | 5.7 | 47.1 | 39.7 | 7.6 | 4.027 | (595) |
| | 전세 | 5.9 | 27.7 | 58.4 | 7.9 | | (101) | 7.3 | 48.6 | 34.9 | 9.2 | | (109) |
| | 월세 기타 | 6.1 | 36.6 | 41.5 | 15.9 | | (164) | 4.2 | 40.6 | 44.8 | 10.4 | | (96) |
| 주관적 수준 | 중상층 | 7.1 | 37.8 | 52.0 | 3.1 | 19.407** | (98) | 7.1 | 48.8 | 38.9 | 5.2 | 6.298 | (252) |
| | 중하층 | 5.5 | 39.0 | 48.9 | 6.6 | | (182) | 4.9 | 45.8 | 40.4 | 8.9 | | (369) |
| | 하층 | 7.3 | 37.3 | 39.1 | 16.4 | | (220) | 5.6 | 44.7 | 39.1 | 10.6 | | (17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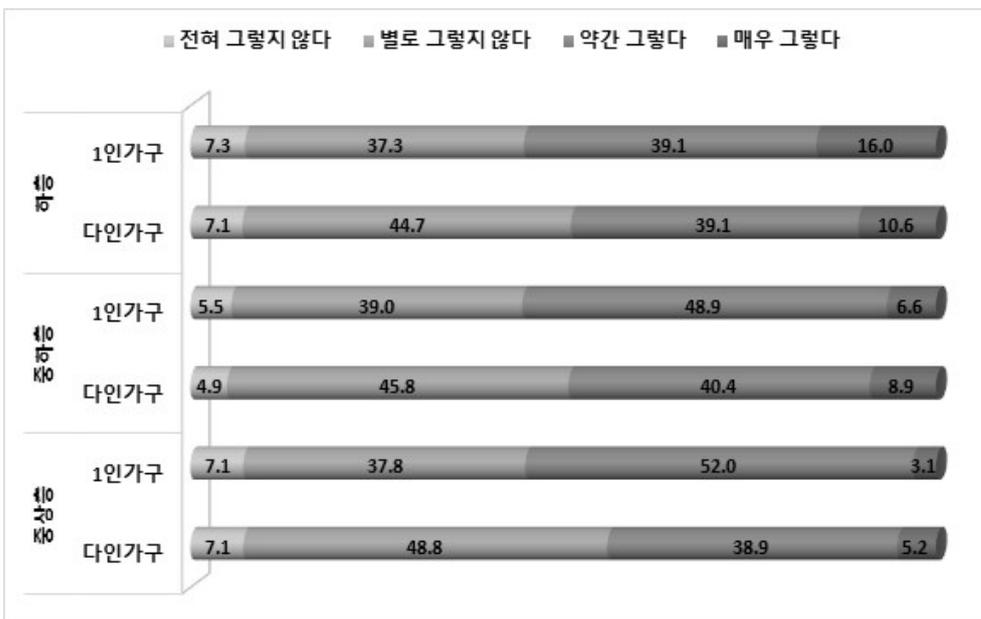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3)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단위: %)



<그림 6-3> 다양한 관계에 대한 욕구: 성별

(단위: %)



<그림 6-4> 다양한 관계에 대한 욕구: 주관적 경제 수준별

지금보다 더 다양한 관계를 맺기 원한다는 응답자에 한해 새롭게 생기기 희망하는 관계는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1인가구는 친구가 45.5%, 애인이 36.1%, 이웃이 11.9%, 가족 및 친척은 6.1% 등으로 나타났다. 다인가구는 친구가 60.2%, 이웃이 19.9%, 애인이 12.8%, 가족 및 친척이 5.8% 등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와 다인가구 모두 친구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1인가구는 애인인 것에 반해 다인가구는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웃이 더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이 애인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 남성의 경우 애인이 46.0%, 친구가 36.0%이고, 여성은 친구가 58.6%, 애인이 22.4%로 나타나 희망하는 새로운 관계가 매우 달랐다. 다인가구에서도 남성은 애인이 19.2%로 여성의 4.3%보다 높고 여성은 남성보다 친구나 이웃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어 다인가구에서도 희망하는 관계에 대해 성별에 따라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배우자가 있는 1인가구는 가족 및 친척과 관계를 맺기 원하는 비율이 13.7%로 다른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또한 1인가구 중 이웃과 관계 맺기를 원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룹은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경제적 수준이 중상층 이상인 경우 18% 이상의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인가구에서 이웃과의 관계 확장을 상대적으로 원하는 그룹은 여성, 서울과 전라권 거주자, 고졸 이하, 일하지 않는 경우, 199만 원 이하 소득 그룹, 경제적 수준이 중상층이 이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4% 이상으로 나타난 그룹이다. 다인가구나 1인가구 모두 서울 거주, 일하지 않는 경우, 경제적 수준이 중상층인 경우 다른 그룹보다 이웃과의 관계 확장을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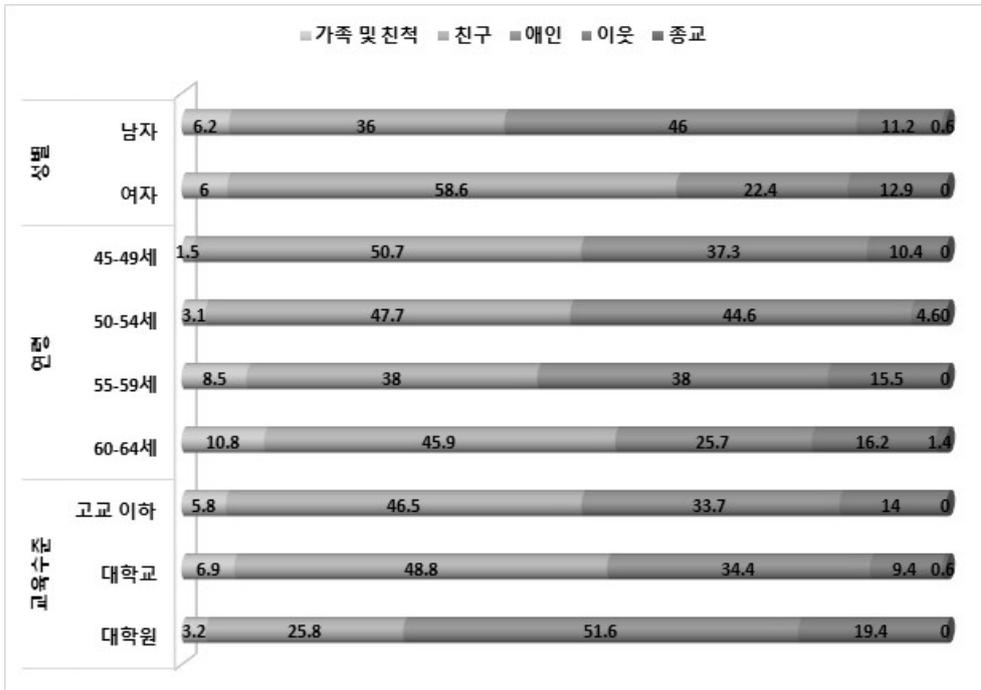
<표 6-15> 새롭게 생기기를 희망하는 관계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
| | 가족 및 친척 | 친구 | 애인 | 이웃 | 종교 | (명) | 가족 및 친척 | 친구 | 애인 | 이웃 | 종교 | 직장 동료 | 상담사 | (명) | |
| 전체 | 6.1 | 45.5 | 36.1 | 11.9 | 0.4 | (277) | 5.8 | 60.2 | 12.8 | 19.9 | 0.3 | 0.8 | 0.3 | (382) | |
| 성별 | 남자 | 6.2 | 36.0 | 46.0 | 11.2 | 0.6 | (161) | 7.3 | 57.5 | 19.2 | 15.5 | - | 0.5 | - | (219) |
| | 여자 | 6.0 | 58.6 | 22.4 | 12.9 | - | (116) | 3.7 | 63.8 | 4.3 | 25.8 | 0.6 | 1.2 | 0.6 | (163)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3.5 | 44.0 | 39.0 | 13.5 | - | (141) | 4.8 | 63.6 | 10.2 | 20.3 | - | 1.1 | - | (187) |
| | 도지역 | 8.8 | 47.1 | 33.1 | 10.3 | 0.7 | (136) | 6.7 | 56.9 | 15.4 | 19.5 | 0.5 | 0.5 | 0.5 | (195) |
| 거주 권역 | 서울 | 5.6 | 44.4 | 31.5 | 18.5 | - | (54) | 7.6 | 56.1 | 10.6 | 24.2 | - | 1.5 | - | (66) |
| | 인천·경기·강원 | 9.2 | 50.6 | 32.2 | 8.0 | - | (87) | 3.1 | 62.8 | 14.7 | 17.1 | 0.8 | 1.6 | - | (129) |
| | 충청권 | 10.7 | 42.9 | 32.1 | 14.3 | - | (28) | 7.0 | 55.8 | 16.3 | 20.9 | - | - | - | (43) |
| | 전라권 | 5.6 | 38.9 | 38.9 | 16.7 | - | (36) | 6.7 | 60.0 | 8.9 | 24.4 | - | - | - | (45) |
| | 경북권 | 4.0 | 28.0 | 56.0 | 8.0 | 4.0 | (25) | 5.3 | 65.8 | 7.9 | 21.1 | - | - | - | (38) |
| | 경남권 | - | 53.2 | 38.3 | 8.5 | - | (47) | 8.2 | 59.0 | 14.8 | 16.4 | - | - | 1.6 | (61) |
| 연령 | 45-49세 | 1.5 | 50.7 | 37.3 | 10.4 | - | (67) | 4.3 | 56.5 | 15.2 | 22.8 | - | 1.1 | - | (92) |
| | 50-54세 | 3.1 | 47.7 | 44.6 | 4.6 | - | (65) | 8.0 | 62.0 | 15.0 | 15.0 | - | - | - | (100) |
| | 55-59세 | 8.5 | 38.0 | 38.0 | 15.5 | - | (71) | 4.3 | 61.7 | 12.8 | 17.0 | 1.1 | 2.1 | 1.1 | (94) |
| | 60-64세 | 10.8 | 45.9 | 25.7 | 16.2 | 1.4 | (74) | 6.3 | 60.4 | 8.3 | 25.0 | - | - | - | (96) |
| 혼인 지위 | 유배우 | 13.7 | 54.8 | 17.8 | 13.7 | - | (73) | 5.7 | 60.6 | 11.5 | 20.7 | 0.3 | 0.9 | 0.3 | (348) |
| | 사별 | 7.1 | 35.7 | 42.9 | 14.3 | - | (14) | - | 100.0 | - | - | - | - | - | (1) |
| | 이혼·별거 | 3.6 | 44.6 | 39.8 | 10.8 | 1.2 | (83) | 11.8 | 58.8 | 11.8 | 17.6 | - | - | - | (17) |
| 교육 수준 | 미혼·비혼·기타 | 2.8 | 41.1 | 44.9 | 11.2 | - | (107) | - | 50.0 | 43.8 | 6.3 | - | - | - | (16) |
| | 고교 이하 | 5.8 | 46.5 | 33.7 | 14.0 | - | (86) | 6.6 | 53.7 | 12.4 | 24.0 | 0.8 | 1.7 | 0.8 | (121) |
| | 대학교 | 6.9 | 48.8 | 34.4 | 9.4 | 0.6 | (160) | 5.8 | 63.0 | 13.0 | 18.3 | - | - | - | (208) |
| 근로 여부 | 대학원 | 3.2 | 25.8 | 51.6 | 19.4 | - | (31) | 3.8 | 64.2 | 13.2 | 17.0 | - | 1.9 | - | (53) |
| | 그렇다 | 5.3 | 46.6 | 38.0 | 9.6 | 0.5 | (208) | 6.2 | 60.7 | 15.6 | 16.0 | - | 1.1 | 0.4 | (275) |
| 가구 소득 | 아니다 | 8.7 | 42.0 | 30.4 | 18.8 | - | (69) | 4.7 | 58.9 | 5.6 | 29.9 | 0.9 | - | - | (107) |
| | 199 이하 | 6.3 | 45.3 | 34.7 | 13.7 | - | (95) | 5.6 | 47.2 | 22.2 | 25.0 | - | - | - | (36) |
| | 200~399 | 3.2 | 44.1 | 44.1 | 7.5 | 1.1 | (93) | 6.9 | 58.4 | 11.9 | 21.8 | - | 1.0 | - | (101) |
| 주택 형태 | 400~599 | 10.9 | 43.6 | 32.7 | 12.7 | - | (55) | 4.8 | 61.0 | 12.3 | 19.9 | 0.7 | 0.7 | 0.7 | (146) |
| | 600 이상 | 5.9 | 52.9 | 23.5 | 17.6 | - | (34) | 6.1 | 65.7 | 11.1 | 16.2 | - | 1.0 | - | (99) |
| 주관적 수준 | 자가 | 8.6 | 55.2 | 23.3 | 12.9 | - | (116) | 5.7 | 59.8 | 13.5 | 19.9 | 0.4 | 0.4 | 0.4 | (281) |
| | 전세 | 4.5 | 41.8 | 37.3 | 16.4 | - | (67) | 6.3 | 62.5 | 10.4 | 18.8 | - | 2.1 | - | (48) |
| | 월세 기타 | 4.3 | 36.2 | 51.1 | 7.4 | 1.1 | (94) | 5.7 | 60.4 | 11.3 | 20.8 | - | 1.9 | - | (53) |
| 경제 수준 | 중상층 | 5.6 | 44.4 | 29.6 | 20.4 | - | (54) | 5.4 | 57.7 | 12.6 | 24.3 | - | - | - | (111) |
| | 중하층 | 5.9 | 47.5 | 37.6 | 7.9 | 1.0 | (101) | 6.6 | 63.2 | 11.5 | 15.9 | 0.5 | 1.6 | 0.5 | (182) |
| | 하층 | 6.6 | 44.3 | 37.7 | 11.5 | - | (122) | 4.5 | 57.3 | 15.7 | 22.5 | - | - | - | (89) |

주: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단위: %)



<그림 6-5> 새롭게 생기기를 희망하는 관계(1인가구)

2. 베이비붐 세대의 온라인 활동과 사회참여

가. 인터넷, 온라인 활동: 1인가구와 다인가구

인터넷 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았다. 먼저, SNS 활동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나 카카오토티 등 자신의 SNS에 얼마나 자주 글을 썼는지 알아보았다. 1인가구는 거의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3.6%, 한 달에 1-3회 정도가 20.8%, 전혀 해본 적 없다는 응답은 20.0%, 일주일에 1-3회 정도는 12.8%, 하루에 한 번 정도나 하루에 수시로 했다는 응답은 각각 6.4%로 나타났다. 다인가구에서는 거의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40.6%, 전혀 해본 적 없다는 응답은 23.0%, 한 달에 1-3회 정도는 16.5%, 일주일에 1-3회 정도는 8.8%, 하루에 수시로 했다는 응답은 6.1%, 하루에 한 번 정도는 5.0%로 나타나 다인가구보다 1인가구가 SNS 활동을 하는

빈도가 더 높은 것을 보인다.

특성에 따른 차이는 다인가구에서만 나타났는데, 우선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여성은 해본 적 없다는 응답이 29.4%, 남성은 16.7%로 높아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거주지역별로 보면, 광역시나 특별시에 사는 경우 해본 적 없다는 비율이 26.6%, 도지역에 거주하는 다인가구는 19.3%로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이 광역시와 특별시보다 낮았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이 고졸 이하 그룹이 28.8%로 대졸이나 대학원 이상의 그룹이 약 21%인 것과 비교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 달에 1-3회 정도는 대학원 이상이 20.6%, 고졸 이하 그룹은 13.5%, 그리고 하루에 수시로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고졸 이하 그룹이 9.2%, 대학원 이상은 2.9%로 고졸 이하 그룹이 더 높아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다인가구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SNS를 해 본 적 없는 비율은 낮고, 거의 하지 않거나 한 달에 1-3회 정도와 하루에 한 번 정도의 활동한 비율이 높다. 전혀 해본 적 없다는 응답에 대해 일을 하는 다인가구는 19.8%, 일을 하지 않는 경우는 30.2%로 일하지 않는 경우에 SNS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비율이 더 높아 차이를 보였다.

1인가구에서 SNS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25% 이상 높게 나타난 그룹은 충청권과 경북권 거주자, 미혼이나 비혼 그룹,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주관적 경제 수준이 낮은 그룹이다. 반면, 하루에 수시로 SNS 활동을 하는 비율이 높은 1인가구 그룹은 60대, 199만 원 이하의 소득 그룹이 10% 이상의 응답 비율을 보였다.

<표 6-16> 자신의 SNS에 글쓰기 빈도_1인가구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 χ^2 | (명) | |
|-----------|----------|---------------|-----------------|-----------------------|------------------------|---------------------|----------|--------|------------|
| | 전혀 없다 | 해본 적 없다 | 거의 하지 않았다 | 한 달에 1-3회 정도 | 일주일 에 1-3회 정도 | 하루에 한 번 정도 | | | 하루에 수시로 |
| 전체 | 20.0 | 33.6 | 20.8 | 12.8 | 6.4 | 6.4 | - | (500) | |
| 성별 | 남자 | 21.1 | 31.3 | 25.1 | 10.2 | 6.2 | 6.2 | 10.122 | (275) |
| | 여자 | 18.7 | 36.4 | 15.6 | 16.0 | 6.7 | 6.7 | | (225)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16.8 | 36.8 | 20.0 | 12.8 | 8.4 | 5.2 | 8.488 | (250) |
| | 도지역 | 23.2 | 30.4 | 21.6 | 12.8 | 4.4 | 7.6 | | (250) |
| 거주 권역 | 서울 | 12.8 | 43.0 | 16.3 | 10.5 | 10.5 | 7.0 | 19.802 | (86) |
| | 인천·경기·강원 | 23.3 | 30.8 | 21.4 | 14.5 | 3.1 | 6.9 | | (159) |
| | 충청권 | 25.0 | 30.8 | 21.2 | 9.6 | 7.7 | 5.8 | | (52) |
| | 전라권 | 18.5 | 30.8 | 21.5 | 12.3 | 7.7 | 9.2 | | (65) |
| | 경북권 | 25.5 | 25.5 | 23.6 | 14.5 | 5.5 | 5.5 | | (55) |
| | 경남권 | 15.7 | 38.6 | 21.7 | 13.3 | 7.2 | 3.6 | | (83) |
| 연령 | 45-49세 | 19.8 | 34.5 | 23.3 | 14.7 | 4.3 | 3.4 | 15.603 | (116) |
| | 50-54세 | 18.6 | 30.5 | 24.6 | 11.9 | 10.2 | 4.2 | | (118) |
| | 55-59세 | 20.7 | 37.0 | 17.0 | 12.6 | 6.7 | 5.9 | | (135) |
| | 60-64세 | 20.6 | 32.1 | 19.1 | 12.2 | 4.6 | 11.5 | | (131) |
| 혼인 지위 | 유배우 | 9.2 | 29.8 | 27.0 | 21.3 | 5.0 | 7.8 | - | (141) |
| | 사별 | 18.2 | 40.9 | 13.6 | 4.5 | 13.6 | 9.1 | | (22) |
| | 이혼·별거 | 23.7 | 36.7 | 16.5 | 9.4 | 8.6 | 5.0 | | (139) |
| 교육 수준 | 미혼·비혼·기타 | 25.3 | 33.3 | 20.2 | 10.1 | 5.1 | 6.1 | 5.583 | (198) |
| | 고교 이하 | 22.5 | 35.9 | 20.4 | 11.3 | 3.5 | 6.3 | | (142) |
| | 대학교 | 19.2 | 33.0 | 21.2 | 12.5 | 7.4 | 6.7 | | (297) |
| 근로 여부 | 대학원 | 18.0 | 31.1 | 19.7 | 18.0 | 8.2 | 4.9 | 6.463 | (61) |
| | 그렇다 | 18.2 | 34.4 | 21.8 | 13.1 | 6.9 | 5.6 | | (390) |
| 가구 소득 | 아니다 | 26.4 | 30.9 | 17.3 | 11.8 | 4.5 | 9.1 | 22.719 | (110) |
| | 199 이하 | 22.0 | 34.1 | 17.7 | 10.4 | 5.5 | 10.4 | | (164) |
| | 200~399 | 24.7 | 30.8 | 22.0 | 12.1 | 6.0 | 4.4 | | (182) |
| 주택 형태 | 400~599 | 10.1 | 37.1 | 22.5 | 20.2 | 7.9 | 2.2 | 11.423 | (89) |
| | 600 이상 | 15.4 | 35.4 | 23.1 | 10.8 | 7.7 | 7.7 | | (65) |
| | 자가 | 18.3 | 29.8 | 20.4 | 16.6 | 7.7 | 7.2 | | (235) |
| 주관적 수준 | 전세 | 21.8 | 35.6 | 18.8 | 12.9 | 5.9 | 5.0 | 12.224 | (101) |
| | 월세 기타 | 21.3 | 37.8 | 22.6 | 7.3 | 4.9 | 6.1 | | (164) |
| | 중상층 | 13.3 | 33.7 | 19.4 | 16.3 | 10.2 | 7.1 | | (98) |
| 경제 수준 | 중하층 | 17.0 | 34.6 | 23.6 | 12.1 | 6.6 | 6.0 | 12.224 | (182) |
| | 하층 | 25.5 | 32.7 | 19.1 | 11.8 | 4.5 | 6.4 | | (220)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3)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표 6-17> 자신의 SNS에 글쓰기 빈도_다인가구

(단위: %, 명)

| 항목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χ^2 | (명) |
|----------|---------------|---------------|----------|--------------------|--------------------|------------------|------------|----------|-----|
| | 전혀 없다 | 해당 적 없다 | 거의 없다 | 한 달에 1-3회 정도 | 일주일에 1-3회 정도 | 하루에 한 번 정도 | 하루에 수시로 | | |
| 전체 | 23.0 | 40.6 | 16.5 | 8.8 | 5.0 | 6.1 | - | (800) | |
| 성별 | | | | | | | | | |
| 남자 | 16.7 | 41.3 | 19.9 | 9.2 | 5.5 | 7.5 | 22.756*** | (402) | |
| 여자 | 29.4 | 39.9 | 13.1 | 8.3 | 4.5 | 4.8 | | (398) | |
| 거주 지역 | | | | | | | | | |
| 광역시·특별시 | 26.6 | 39.1 | 15.9 | 9.7 | 3.2 | 5.5 | 11.690* | (402) | |
| 지역 도시 | 19.3 | 42.2 | 17.1 | 7.8 | 6.8 | 6.8 | | (398) | |
| 서울 | 22.1 | 38.6 | 19.3 | 10.3 | 4.1 | 5.5 | | (145) | |
| 인천·경기·강원 | 23.3 | 40.7 | 17.1 | 7.3 | 5.1 | 6.5 | | (275) | |
| 거주 권역 | | | | | | | | | |
| 충청권 | 20.5 | 44.6 | 21.7 | 3.6 | 6.0 | 3.6 | 21.547 | (83) | |
| 전라권 | 21.6 | 40.9 | 10.2 | 10.2 | 4.5 | 12.5 | | (88) | |
| 경북권 | 25.9 | 37.0 | 16.0 | 9.9 | 7.4 | 3.7 | | (81) | |
| 경남권 | 24.2 | 42.2 | 13.3 | 11.7 | 3.9 | 4.7 | | (128) | |
| 연령 | | | | | | | | | |
| 45-49세 | 25.2 | 41.4 | 18.1 | 7.1 | 3.3 | 4.8 | 15.231 | (210) | |
| 50-54세 | 21.5 | 45.0 | 17.2 | 8.1 | 2.9 | 5.3 | | (209) | |
| 55-59세 | 23.4 | 36.8 | 13.9 | 10.0 | 7.0 | 9.0 | | (201) | |
| 60-64세 | 21.7 | 38.9 | 16.7 | 10.0 | 7.2 | 5.6 | | (180) | |
| 혼인 지위 | | | | | | | | | |
| 유배우 | 21.3 | 43.0 | 16.2 | 8.3 | 5.2 | 6.0 | | (696) | |
| 사별 | 40.0 | 40.0 | 20.0 | - | - | - | | (5) | |
| 이혼 별거 | 34.9 | 23.3 | 16.3 | 14.0 | 7.0 | 4.7 | | (43) | |
| 미혼·비혼·기타 | 33.9 | 25.0 | 19.6 | 10.7 | 1.8 | 8.9 | | (56) | |
| 교육 수준 | | | | | | | | | |
| 고교 이하 | 28.8 | 36.2 | 13.5 | 9.6 | 2.6 | 9.2 | | (229) | |
| 대학교 | 20.7 | 42.6 | 17.1 | 8.5 | 5.8 | 5.3 | 18.419* | (469) | |
| 대학원 | 20.6 | 41.2 | 20.6 | 7.8 | 6.9 | 2.9 | | (102) | |
| 근로 여부 | | | | | | | | | |
| 그렇다 | 19.8 | 41.8 | 17.5 | 9.7 | 5.4 | 5.8 | 12.602* | (555) | |
| 아니다 | 30.2 | 38.0 | 14.3 | 6.5 | 4.1 | 6.9 | | (245) | |
| 가구 소득 | | | | | | | | | |
| 199 이하 | 25.4 | 35.8 | 16.4 | 11.9 | 6.0 | 4.5 | | (67) | |
| 200~399 | 30.4 | 36.1 | 17.2 | 5.3 | 4.4 | 6.6 | 24.933 | (227) | |
| 400~599 | 20.0 | 43.9 | 13.9 | 12.5 | 4.6 | 5.0 | | (280) | |
| 600 이상 | 18.6 | 42.5 | 19.0 | 6.6 | 5.8 | 7.5 | | (226) | |
| 주택 형태 | | | | | | | | | |
| 자가 | 23.9 | 40.2 | 15.1 | 8.6 | 5.5 | 6.7 | | (595) | |
| 전세 | 23.9 | 39.4 | 22.9 | 3.7 | 4.6 | 5.5 | 18.156 | (109) | |
| 월세 기타 | 16.7 | 44.8 | 17.7 | 15.6 | 2.1 | 3.1 | | (96) | |
| 주관적 수준 | | | | | | | | | |
| 중상층 | 20.2 | 38.1 | 19.0 | 9.1 | 6.7 | 6.7 | | (252) | |
| 경제 중하층 | 23.3 | 41.5 | 15.7 | 8.1 | 5.4 | 6.0 | 10.035 | (369) | |
| 하층 | 26.3 | 42.5 | 14.5 | 9.5 | 1.7 | 5.6 | | (179) |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3)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두 번째 인터넷 활동으로 알아본 것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시지, 네이트온 등 채팅이나 메신저 이용이다. 1인가구는 하루에 수시로 이용한다는 비율이 32.4%, 한 달에 1-3회 정도는 18.4%, 하루에 한 번 정도는 17.2%, 일주일에 1-3회 정도는 13.6%, 거의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3.0%, 전혀 해본 적 없다는 비율은 5.4%로 나타났다. 다인가구는 하루에 수시로 한다는 비율이 41.6%, 일주일에 1-3회 정도는 16.8%, 하루에 한 번 정도는 14.5%, 한 달에 1-3회 정도는 11.3%, 거의 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10.1%, 그리고 전혀 해본 적 없다는 응답 비율은 5.8%로 나타났다.

1인가구와 다인가구 모두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1인가구 응답에서 여성은 하루에 수시로 이용한다는 비율이 38.2%였으나 남성은 27.7%로 나타났고, 거의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남성이 16.7%, 여성이 8.4%로 나타나 채팅이나 메신저 사용을 남성이 여성보다 적게 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인가구에서도 하루에 수시로 사용한다는 비율이 여성은 47.5%, 남성은 35.8%로 나타났고, 거의 하지 않았다는 응답과 한 달에 1-3회 정도 한다는 응답이 남성이 더 높아 다인가구에서도 1인가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남성이 여성보다 채팅이나 메신저 이용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1인가구와 다인가구 모두 차이를 보였는데, 1인가구에서는 하루에 수시로 했다는 비율이 고졸의 경우 23.9%, 대학원 이상의 그룹에서는 47.5%로 차이를 보였고, 해본 적 없다는 비율도 고졸 이하는 9.9%, 대학원 이상은 1.6%, 한 달에 1-3회 한 경우는 고졸 이하가 26.1%, 대학원 이상은 9.8%로 고졸 이하의 그룹은 사용이 드문 응답에 대한 비율이 높아 차이를 보였다. 다인가구에서는 하루에 한 번 정도와 하루에 수시로 이용한다는 응답에 대졸과 대학원 이상의 그룹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는데 반해 고졸 이하의 다른 두 그룹보다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반면, 일주일에 1-3회 정도라고 응답한 비율에서 대졸 그룹은 20.5%인데 반해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그룹은 9.8%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거의 하지 않았다는 한 달에 1-3회 정도에 대한 응답에서 대졸 그룹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면서 일주일에 1-3회 정도라는 응답에 집중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근로 여부에 따라서는 1인가구에서만 차이가 나타났는데, 하루에 수시로 한다는 응답이 일을 하는 그룹은 35.9%인데 반해 일을 하지 않는 그룹은 20.0%로 수시로 이용하는 비율이 낮았다. 한 달에 1-3회 정도로 사용한다는 응답은 일을 하지 않는 그룹이 24.5%, 일을 하는 그룹은 16.7%로 드물게 사용하는 응답에서는 일을 하지 않는 그룹의 비율이 높아 일을 하지 않는 1인가구는 일을 하는 1인가구

보다 채팅이나 메신저 사용 비율이 낮은 특징을 보인다. 가구소득은 1인가구와 다인가구 모두 차이가 나타났다. 1인가구 결과에서 하루에 수시로 사용한다는 응답은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높아졌는데, 600만 원 이상의 소득 그룹에서는 47.7%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199만 원 이하의 그룹은 22.0%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600만 원 이상 소득의 1인가구는 채팅이나 메신저 이용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없고 소득이 낮아지면서 그 비율이 증가해 소득별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다인가구에서도 하루에 수시로 이용한다는 비율이 600만 원 이상의 소득 그룹에서는 49.6%로 높았고, 199만 원 이하와 200-399만 원 구간의 소득 그룹은 각각 35.8%와 34.8%로 나타났다. 소득에 이어 주관적 경제 수준에 따라서도 1인가구는 차이를 보였다. 중상층은 하루에 수시로 사용한다는 응답이 45.9%, 중하층은 32.4%, 하층은 26.4%로 수시로 사용한다는 응답은 가구소득에서와 비슷한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표 6-18> 채팅/메신저 사용 빈도_1인가구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 χ ² | (명) | |
|-----------|----------|---------------|-----------------|--------------------|------------------------|------------------|----------------|----------|------------|
| | 전혀 없다 | 해본 적 없다 | 거의 하지 않았다 | 한 달에 1-3회 정도 | 일주일 에 1-3회 정도 | 하루에 한 번 정도 | | | 하루에 수시로 |
| 전체 | 5.4 | 13.0 | 18.4 | 13.6 | 17.2 | 32.4 | - | (500) | |
| 성별 | 남자 | 4.7 | 16.7 | 19.6 | 15.6 | 15.6 | 27.6 | 14.563* | (275) |
| | 여자 | 6.2 | 8.4 | 16.9 | 11.1 | 19.1 | 38.2 | | (225)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4.4 | 14.8 | 17.2 | 15.6 | 17.6 | 30.4 | 4.698 | (250) |
| | 도지역 | 6.4 | 11.2 | 19.6 | 11.6 | 16.8 | 34.4 | | (250) |
| 거주 권역 | 서울 | 3.5 | 12.8 | 10.5 | 18.6 | 19.8 | 34.9 | 20.886 | (86) |
| | 인천·경기·강원 | 7.5 | 10.1 | 17.6 | 13.2 | 17.6 | 34.0 | | (159) |
| | 충청권 | 3.8 | 15.4 | 23.1 | 11.5 | 13.5 | 32.7 | | (52) |
| | 전라권 | 4.6 | 12.3 | 20.0 | 10.8 | 23.1 | 29.2 | | (65) |
| | 경북권 | 7.3 | 18.2 | 16.4 | 14.5 | 7.3 | 36.4 | | (55) |
| 연령 | 경남권 | 3.6 | 14.5 | 25.3 | 12.0 | 18.1 | 26.5 | (83) | |
| | 45-49세 | 2.6 | 11.2 | 18.1 | 16.4 | 19.0 | 32.8 | 21.845 | (116) |
| | 50-54세 | 8.5 | 16.9 | 16.9 | 14.4 | 17.8 | 25.4 | | (118) |
| | 55-59세 | 1.5 | 11.1 | 20.7 | 11.1 | 14.1 | 41.5 | | (135) |
| | 60-64세 | 9.2 | 13.0 | 17.6 | 13.0 | 18.3 | 29.0 | | (131) |
| 유배우 | 0.7 | 9.2 | 14.9 | 14.2 | 15.6 | 45.4 | (141) | | |
| 혼인 지위 | 사별 | 4.5 | 9.1 | 4.5 | 18.2 | 22.7 | 40.9 | - | (22) |
| | 이혼 별거 | 6.5 | 14.4 | 21.6 | 13.7 | 16.5 | 27.3 | (139) | |
| | 미혼·비혼·기타 | 8.1 | 15.2 | 20.2 | 12.6 | 18.2 | 25.8 | (198) |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9.9 | 13.4 | 26.1 | 14.1 | 12.7 | 23.9 | 27.041** | (142) |
| | 대학교 | 4.0 | 12.5 | 16.5 | 14.5 | 19.2 | 33.3 | | (297) |
| | 대학원 | 1.6 | 14.8 | 9.8 | 8.2 | 18.0 | 47.5 | | (61) |
| 근로 여부 | 그렇다 | 4.9 | 12.6 | 16.7 | 13.6 | 16.4 | 35.9 | 11.405* | (390) |
| | 아니다 | 7.3 | 14.5 | 24.5 | 13.6 | 20.0 | 20.0 | | (110)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7.9 | 17.7 | 22.6 | 13.4 | 16.5 | 22.0 | 31.312** | (164) |
| | 200~399 | 6.0 | 11.0 | 19.8 | 13.2 | 16.5 | 33.5 | | (182) |
| | 400~599 | 3.4 | 12.4 | 15.7 | 15.7 | 14.6 | 38.2 | | (89) |
| 주택 형태 | 600 이상 | - | 7.7 | 7.7 | 12.3 | 24.6 | 47.7 | (65) | |
| | 자가 | 4.3 | 10.2 | 17.4 | 13.6 | 17.4 | 37.0 | 17.859 | (235) |
| | 전세 | 10.9 | 11.9 | 18.8 | 12.9 | 21.8 | 23.8 | | (101) |
| 월세 기타 | 3.7 | 17.7 | 19.5 | 14.0 | 14.0 | 31.1 | (164) | | |
| 주관적 수준 | 중상층 | 1.0 | 12.2 | 11.2 | 6.1 | 23.5 | 45.9 | 28.042** | (98) |
| | 경제 중하층 | 6.6 | 9.9 | 19.2 | 17.6 | 14.3 | 32.4 | | (182) |
| | 하층 | 6.4 | 15.9 | 20.9 | 13.6 | 16.8 | 26.4 | | (220)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3)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² 값을 제시하지 않음

<표 6-19> 채팅/메신저 사용 빈도_다인가구

(단위: %, 명)

| 항목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χ^2 | (명) |
|-----------|---------------|-----------|--------------|--------------|------------|---------|------|----------|-------|
| | 전혀 해본 적 없다 | 거의 하지 않았다 | 한 달에 1-3회 정도 | 일주일에 1-3회 정도 | 하루에 한 번 정도 | 하루에 수시로 | | | |
| 전체 | 5.8 | 10.1 | 11.3 | 16.8 | 14.5 | 41.6 | - | (800) | |
| 성별 | 남자 | 6.5 | 11.4 | 14.9 | 16.9 | 14.4 | 35.8 | 18.368** | (402) |
| | 여자 | 5.0 | 8.8 | 7.5 | 16.6 | 14.6 | 47.5 | | (398)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6.7 | 10.4 | 12.9 | 16.2 | 14.7 | 39.1 | 4.898 | (402) |
| | 도지역 | 4.8 | 9.8 | 9.5 | 17.3 | 14.3 | 44.2 | | (398) |
| 거주 권역 | 서울 | 6.9 | 8.3 | 13.1 | 16.6 | 13.8 | 41.4 | 27.853 | (145) |
| | 인천·경기·강원 | 5.5 | 6.2 | 9.8 | 15.6 | 17.8 | 45.1 | | (275) |
| | 충청권 | 3.6 | 18.1 | 10.8 | 22.9 | 7.2 | 37.3 | | (83) |
| | 전라권 | 8.0 | 9.1 | 8.0 | 15.9 | 15.9 | 43.2 | | (88) |
| | 경북권 | 6.2 | 12.3 | 13.6 | 16.0 | 14.8 | 37.0 | | (81) |
| | 경남권 | 4.7 | 14.8 | 13.3 | 16.4 | 11.7 | 39.1 | | (128) |
| 연령 | 45-49세 | 4.8 | 10.5 | 11.4 | 14.8 | 14.3 | 44.3 | 10.117 | (210) |
| | 50-54세 | 7.2 | 12.9 | 12.9 | 15.8 | 12.9 | 38.3 | | (209) |
| | 55-59세 | 6.5 | 8.5 | 9.5 | 16.9 | 17.4 | 41.3 | | (201) |
| | 60-64세 | 4.4 | 8.3 | 11.1 | 20.0 | 13.3 | 42.8 | | (180) |
| 혼인 지위 | 유배우 | 5.5 | 10.1 | 10.5 | 16.7 | 14.7 | 42.7 | - | (696) |
| | 사별 | - | 20.0 | - | 60.0 | - | 20.0 | | (5) |
| | 이혼·별거 | 9.3 | 9.3 | 11.6 | 4.7 | 20.9 | 44.2 | | (43) |
| 교육 수준 | 미혼·비혼·기타 | 7.1 | 10.7 | 21.4 | 23.2 | 8.9 | 28.6 | 26.739** | (56) |
| | 고교 이하 | 7.4 | 14.0 | 15.7 | 12.2 | 12.7 | 38.0 | | (229) |
| | 대학교 | 4.9 | 7.9 | 8.5 | 20.5 | 15.1 | 43.1 | | (469) |
| 근로 여부 | 대학원 | 5.9 | 11.8 | 13.7 | 9.8 | 15.7 | 43.1 | 3.144 | (102) |
| | 그렇다 | 5.4 | 11.2 | 11.2 | 17.3 | 14.1 | 40.9 | | (555) |
| 가구 소득 | 아니다 | 6.5 | 7.8 | 11.4 | 15.5 | 15.5 | 43.3 | 31.024** | (245) |
| | 199 이하 | 9.0 | 11.9 | 19.4 | 13.4 | 10.4 | 35.8 | | (67) |
| | 200~399 | 7.5 | 11.9 | 13.7 | 20.7 | 11.5 | 34.8 | | (227) |
| 주택 형태 | 400~599 | 3.9 | 10.0 | 10.0 | 18.6 | 15.4 | 42.1 | 11.067 | (280) |
| | 600 이상 | 5.3 | 8.0 | 8.0 | 11.5 | 17.7 | 49.6 | | (226) |
| 주관적 경제 수준 | 자가 | 5.4 | 9.4 | 10.9 | 17.6 | 13.6 | 43.0 | 16.259 | (595) |
| | 전세 | 5.5 | 11.9 | 8.3 | 17.4 | 17.4 | 39.4 | | (109) |
| | 월세 기타 | 8.3 | 12.5 | 16.7 | 10.4 | 16.7 | 35.4 | | (96) |
| 수준 | 중상층 | 4.4 | 7.5 | 10.3 | 15.5 | 18.3 | 44.0 | 16.259 | (252) |
| | 중하층 | 4.9 | 10.0 | 11.9 | 17.3 | 13.0 | 42.8 | | (369) |
| | 하층 | 9.5 | 14.0 | 11.2 | 17.3 | 12.3 | 35.8 | | (179)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3)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온라인 카페나 밴드 등 온라인에서 하는 커뮤니티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알아본 결과, 1인가구는 거의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3.2%, 한 달에 1-3회 정도라는 응답은 20.8%, 전혀 해본 적 없다는 응답은 15.0%, 하루에 한 번 정도 했다는 응답은 11.2%, 일주일에 1-3회 정도는 10.0%, 하루에 수시로 했다는 응답은 9.8%로 나타났다. 다인가구에서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2.4%, 한 달에 1-3회 정도라고 응답한 비율은 22.0%, 전혀 해본 적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3.9%, 일주일에 1-3회 정도는 12.8%, 하루에 한 번 정도는 10.1%, 하루에 수시로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8.9%로 나타났다.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에 대해서는 1인가구보다 다인가구에서 특성별 차이가 더 많이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다인가구의 차이에서는 거의 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30% 이상으로 가장 높은 것을 동일하나 다인가구의 여성은 전혀 해본 적 없다는 응답이 18.3%로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이며 남성의 9.5%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남성은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인 한 달에 1-3회 정도가 26.1%인데 반해 여성에서는 17.8%로 나타나 다인가구의 남성보다 여성이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덜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다인가구는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전혀 해본 적 없다는 응답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거의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50-54세가 40.2%로 높게 나타났고, 55-59세와 60-64세는 각각 24.9%, 24.4%로 비교적 낮았다. 하루에 수시로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54세만 4.8%이고 나머지 연령대는 약 10%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50-54세 연령대가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에 있어서 다른 양상을 보였다. 다인가구의 교육수준에 따라서 전혀 해본 적 없다는 응답을 비교해 보면, 고졸 이하는 22.7%, 대졸은 11.5%, 대학원 이상은 4.9%로 학력이 높아지면서 이 응답에 대한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고졸 이하와 대학원 이상 그룹 차이를 볼 수 있다. 다인가구의 근로 여부에 따라서 보면,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전혀 해본 적 없다는 응답이 23.3%, 일을 하는 경우는 9.7%였다. 일을 하는 경우는 한 달에 1-3회 정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24.7%, 일을 하지 않는 경우는 15.9%로 차이를 보였다.

1인가구와 다인가구 모두에서 차이가 나타난 것을 가구소득, 주관적 경제 수준이었고, 주택 점유형태는 1인가구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1인가구는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전혀 해본 적 없다는 응답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199만 원 이하는 22.0%, 600만 원 이상은 3.1%로 나타나 소득이 낮은 1인가구가 온라인 커뮤니티의 접근도가

확연히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하루에 수시로 했다는 응답으로 비교해 보면, 소득 가장 낮은 그룹과 가장 높은 그룹이 각각 12.8%, 15.4%였고 중간 그룹은 6%대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은 1인가구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이 다른 그룹보다 양극으로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찾아 볼 수 있다. 다인가구의 가구소득에서도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전혀 해본 적 없다는 응답 비율은 낮아져 199만 원 이하의 다인가구는 20.9%, 6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8.8%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하루에 수시로 했다는 다인가구의 응답에서는 1인가구와 같은 특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1인가구의 주택 점유형태에 따른 차이에서는 전혀 해본 적 없다는 응답이 전세에서 24.8%로 높았고, 거의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전세가 19.8%로 자가나 월세 등에서 35% 이상 나타난 것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하루에 수시로 했다는 응답은 자가, 월세 등에서는 10% 이상인데 반해, 전세의 경우는 4.0%로 차이를 보이는 등 다른 점유 형태와 비교해 전세로 살고 있는 1인가구가 다른 양상을 보였다. 1인가구의 주관적 경제 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면, 전혀 해본 적 없다는 응답이 수준이 높아질수록 비율은 낮아져 하층은 18.6%, 중상층은 7.1%로 중상층과 하층 사이의 차이를 보였고, 하루에 수시로 했다는 응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층과 다른 한 층 사이의 차이를 볼 수 있는 경우이다. 다인가구에서는 주관적 경제 수준이 낮은 그룹이 전혀 해본 적 없다는 응답 비율이 21.2%로 높고 중상층은 10.3%로 나타나 온라인 커뮤니티 접근에서 차이를 보였다.

<표 6-20>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빈도_1인가구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 χ ² | (명) |
|-----------------|---------------|--------------|-----------------|----------------|---------------|------------|----------------|-------|
| | 전혀 해본 적 없다 | 거의 하지 않았다 | 한 달에 1-3회 정도 | 일주일 1-3회 정도 | 하루에 한 번 정도 | 하루에 수시로 | | |
| 전체 | 15.0 | 33.2 | 20.8 | 10.0 | 11.2 | 9.8 | - | (500) |
| 성별 | 남자 | 13.8 | 33.8 | 21.5 | 11.3 | 11.6 | 3.879 | (275) |
| | 여자 | 16.4 | 32.4 | 20.0 | 8.4 | 10.7 | | (225)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16.0 | 32.0 | 20.8 | 10.0 | 10.4 | 1.346 | (250) |
| | 도지역 | 14.0 | 34.4 | 20.8 | 10.0 | 12.0 | | (250) |
| 연령 | 45-49세 | 13.8 | 41.4 | 20.7 | 10.3 | 9.5 | 19.100 | (116) |
| | 50-54세 | 16.1 | 32.2 | 25.4 | 7.6 | 7.6 | | (118) |
| | 55-59세 | 12.6 | 31.1 | 20.0 | 14.1 | 12.6 | | (135) |
| | 60-64세 | 17.6 | 29.0 | 17.6 | 7.6 | 14.5 | | (131) |
| 혼인 지위 | 유배우 | 6.4 | 27.7 | 19.1 | 15.6 | 17.7 | - | (141) |
| | 사별 | 13.6 | 31.8 | 22.7 | - | 22.7 | | (22) |
| | 이혼 별거 | 18.7 | 29.5 | 22.3 | 8.6 | 10.1 | | (139) |
| | 미혼·비혼·기 타 | 18.7 | 39.9 | 20.7 | 8.1 | 6.1 | | (198)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21.1 | 35.9 | 17.6 | 7.7 | 10.6 | 12.402 | (142) |
| | 대학교 | 12.8 | 32.0 | 23.6 | 10.4 | 10.8 | | (297) |
| | 대학원 | 11.5 | 32.8 | 14.8 | 13.1 | 14.8 | | (61) |
| 근로 여부 | 그렇다 | 13.6 | 34.1 | 20.5 | 11.0 | 11.0 | 4.774 | (390) |
| | 아니다 | 20.0 | 30.0 | 21.8 | 6.4 | 11.8 | | (110)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22.0 | 33.5 | 20.1 | 4.3 | 7.3 | 34.361*** | (164) |
| | 200~399 | 17.0 | 34.1 | 23.6 | 8.2 | 10.4 | | (182) |
| | 400~599 | 6.7 | 31.5 | 19.1 | 19.1 | 16.9 | | (89) |
| | 600 이상 | 3.1 | 32.3 | 16.9 | 16.9 | 15.4 | | (65)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 11.1 | 35.7 | 17.4 | 10.6 | 13.2 | 29.328** | (235) |
| | 전세 | 24.8 | 19.8 | 29.7 | 12.9 | 8.9 | | (101) |
| | 월세 기타 | 14.6 | 37.8 | 20.1 | 7.3 | 9.8 | | (164) |
| 주관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7.1 | 32.7 | 16.3 | 15.3 | 16.3 | 24.551** | (98) |
| | 중하층 | 14.8 | 28.6 | 25.3 | 11.5 | 12.6 | | (182) |
| | 하층 | 18.6 | 37.3 | 19.1 | 6.4 | 7.7 | | (220)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3)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² 값을 제시하지 않음

〈표 6-21〉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빈도_다인가구

(단위: %, 명)

| 항목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χ^2 | (명) |
|-----------------|---------------|--------------|-----------------|-----------------|---------------|------------|-----------|-------|
| | 전혀 해본 적 없다 | 거의 하지 않았다 | 한 달에 1-3회 정도 | 일주일에 1-3회 정도 | 하루에 한 번 정도 | 하루에 수시로 | | |
| 전체 | 13.9 | 32.4 | 22.0 | 12.8 | 10.1 | 8.9 | - | (800) |
| 성별 | 남자 | 9.5 | 30.8 | 26.1 | 13.2 | 11.2 | 19.336** | (402) |
| | 여자 | 18.3 | 33.9 | 17.8 | 12.3 | 9.0 | | (398)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16.4 | 33.8 | 21.9 | 11.2 | 8.7 | 8.201 | (402) |
| | 도지역 | 11.3 | 30.9 | 22.1 | 14.3 | 11.6 | | (398) |
| 연령 | 45-49세 | 10.0 | 34.3 | 24.8 | 12.4 | 8.1 | 26.655* | (210) |
| | 50-54세 | 12.9 | 40.2 | 18.2 | 14.4 | 9.6 | | (209) |
| | 55-59세 | 16.4 | 24.9 | 20.9 | 15.4 | 11.9 | | (201) |
| | 60-64세 | 16.7 | 29.4 | 24.4 | 8.3 | 11.1 | | (180) |
| 혼인 지위 | 유배우 | 13.1 | 31.9 | 23.0 | 13.1 | 9.9 | - | (696) |
| | 사별 | 40.0 | - | - | 20.0 | 40.0 | | (5) |
| | 이혼·별거 | 14.0 | 34.9 | 14.0 | 11.6 | 14.0 | | (43) |
| | 미혼·비혼·기 타 | 21.4 | 39.3 | 17.9 | 8.9 | 7.1 | | (56)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22.7 | 32.8 | 20.1 | 9.6 | 6.1 | 29.387** | (229) |
| | 대학교 | 11.5 | 31.6 | 22.6 | 13.9 | 11.5 | | (469) |
| | 대학원 | 4.9 | 35.3 | 23.5 | 14.7 | 12.7 | | (102) |
| 근로 여부 | 그렇다 | 9.7 | 33.7 | 24.7 | 13.9 | 10.1 | 32.983*** | (555) |
| | 아니다 | 23.3 | 29.4 | 15.9 | 10.2 | 10.2 | | (245)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20.9 | 28.4 | 20.9 | 7.5 | 13.4 | 29.359* | (67) |
| | 200~399 | 20.3 | 35.2 | 20.3 | 9.3 | 7.5 | | (227) |
| | 400~599 | 11.1 | 34.6 | 20.4 | 14.6 | 10.4 | | (280) |
| | 600 이상 | 8.8 | 27.9 | 26.1 | 15.5 | 11.5 | | (226)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 13.4 | 31.1 | 22.7 | 12.3 | 10.9 | 13.524 | (595) |
| | 전세 | 18.3 | 29.4 | 22.0 | 15.6 | 10.1 | | (109) |
| | 월세 기타 | 11.5 | 43.8 | 17.7 | 12.5 | 5.2 | | (96) |
| 주관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10.3 | 29.8 | 22.6 | 14.7 | 12.3 | 19.241* | (252) |
| | 중하층 | 12.7 | 32.5 | 24.1 | 11.7 | 9.8 | | (369) |
| | 하층 | 21.2 | 35.8 | 16.8 | 12.3 | 7.8 | | (179)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3)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온라인 상에서 글을 쓰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 또는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활동 보다는 유튜브 및 검색 엔진을 활용해 정보를 얻기 위한 활동을 얼마나 자주하는지 알아보았다. 이러한 활동은 앞서 알아본 활동들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1인가구는 하루에 수시로 했다는 응답이 62.4%, 하루에 한 번 정도는 16.8%, 일주일에 1-3회 정도는 10.6%, 한 달에 1-3회 정도는 8.0%, 거의 하지 않았다는 1.2%, 전혀 해본 적 없다는 응답은 1.0%로 나타났다. 다인가구에서도 하루에 수시로 했다는 응답은 65.8%, 하루에 한 번 정도는 14.9%, 일주일에 1-3회 정도는 9.0% 등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검색은 하루에도 여러 번 자주 하기 때문에 응답이 집중되어 차이 분석 값은 제외한다. 인터넷 검색 활동은 하루에 수시로 했다는 응답에 대부분 60% 이상이 집중되어 있으나 1인가구 중 학력이 고교 이하인 그룹은 하루에 수시로 했다는 응답이 51.4%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다인가구에서도 고교 이하의 학력 그룹은 하루에 수시로 했다는 응답이 59.8%로 낮은 편이었고, 이보다 더 낮은 비율을 보인 그룹은 가구소득 199만 원 이하인 경우로 55.2%가 응답하였는데, 이는 같은 응답에 대해 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그룹의 비율이 74.3%인 것을 고려해 본다면 비교되는 수준이다.

〈표 6-22〉 인터넷 정보검색 빈도_1인가구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 (명) | |
|-----------------|---------------|--------------|-----------------|-----------------|---------------|------------|-------|-------|
| | 전혀 해본 적 없다 | 거의 하지 않았다 | 한 달에 1-3회 정도 | 일주일에 1-3회 정도 | 하루에 한 번 정도 | 하루에 수시로 | | |
| 전체 | 1.0 | 1.2 | 8.0 | 10.6 | 16.8 | 62.4 | (500) | |
| 성별 | 남자 | 1.1 | 0.7 | 8.0 | 9.8 | 18.5 | 61.8 | (275) |
| | 여자 | 0.9 | 1.8 | 8.0 | 11.6 | 14.7 | 63.1 | (225)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1.2 | 2.0 | 8.8 | 8.8 | 16.8 | 62.4 | (250) |
| | 도지역 | 0.8 | 0.4 | 7.2 | 12.4 | 16.8 | 62.4 | (250) |
| 거주 권역 | 서울 | - | 2.3 | 7.0 | 9.3 | 16.3 | 65.1 | (86) |
| | 인천·경기·강원 | 1.9 | - | 8.2 | 10.1 | 12.6 | 67.3 | (159) |
| | 충청권 | - | 3.8 | 7.7 | 3.8 | 19.2 | 65.4 | (52) |
| | 전라권 | - | 1.5 | 7.7 | 16.9 | 18.5 | 55.4 | (65) |
| | 경북권 | 3.6 | 1.8 | 5.5 | 12.7 | 21.8 | 54.5 | (55) |
| | 경남권 | - | - | 10.8 | 10.8 | 19.3 | 59.0 | (83) |
| 연령 | 45-49세 | - | 0.9 | 7.8 | 8.6 | 18.1 | 64.7 | (116) |
| | 50-54세 | 1.7 | 0.8 | 6.8 | 10.2 | 12.7 | 67.8 | (118) |
| | 55-59세 | 0.7 | 0.7 | 9.6 | 11.9 | 17.8 | 59.3 | (135) |
| | 60-64세 | 1.5 | 2.3 | 7.6 | 11.5 | 18.3 | 58.8 | (131) |
| 혼인 지위 | 유배우 | - | 1.4 | 10.6 | 10.6 | 17.0 | 60.3 | (141) |
| | 사별 | - | - | - | 4.5 | 9.1 | 86.4 | (22) |
| | 이혼·별거 | 0.7 | 0.7 | 7.9 | 13.7 | 17.3 | 59.7 | (139) |
| | 미혼·비혼·기타 | 2.0 | 1.5 | 7.1 | 9.1 | 17.2 | 63.1 | (198)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2.1 | 2.8 | 13.4 | 14.1 | 16.2 | 51.4 | (142) |
| | 대학교 | 0.7 | 0.3 | 6.7 | 9.8 | 15.5 | 67.0 | (297) |
| | 대학원 | - | 1.6 | 1.6 | 6.6 | 24.6 | 65.6 | (61) |
| 근로 여부 | 그렇다 | 0.5 | 1.0 | 7.2 | 11.8 | 17.2 | 62.3 | (390) |
| | 아니다 | 2.7 | 1.8 | 10.9 | 6.4 | 15.5 | 62.7 | (110)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2.4 | 1.8 | 7.9 | 9.1 | 17.1 | 61.6 | (164) |
| | 200~399 | 0.5 | 1.1 | 8.8 | 12.1 | 17.6 | 59.9 | (182) |
| | 400~599 | - | 1.1 | 10.1 | 12.4 | 13.5 | 62.9 | (89) |
| | 600 이상 | - | - | 3.1 | 7.7 | 18.5 | 70.8 | (65) |
| 주택 접유 형태 | 자가 | 1.3 | 1.3 | 7.2 | 9.8 | 16.2 | 64.3 | (235) |
| | 전세 | 2.0 | 1.0 | 9.9 | 9.9 | 12.9 | 64.4 | (101) |
| | 월세 기타 | - | 1.2 | 7.9 | 12.2 | 20.1 | 58.5 | (164) |
| 주관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 | 1.0 | 6.1 | 8.2 | 24.5 | 60.2 | (98) |
| | 중하층 | 1.1 | 1.1 | 8.2 | 12.1 | 13.7 | 63.7 | (182) |
| | 하층 | 1.4 | 1.4 | 8.6 | 10.5 | 15.9 | 62.3 | (220) |

주: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표 6-23> 인터넷 정보검색 빈도_다인가구

(단위: %, 명)

| 항목 | 다인가구 | | | | | | χ ² | (명) |
|---------------------|-------------------|--------------|-----------------|-----------------|---------------|------------|----------------|-------|
| | 전혀 해본 적 없다 | 거의 하지 않았다 | 한 달에 1-3회 정도 | 일주일에 1-3회 정도 | 하루에 한 번 정도 | 하루에 수시로 | | |
| 전체 | 1.5 | 3.0 | 5.9 | 9.0 | 14.9 | 65.8 | - | (800) |
| 성별 | 남자 | 1.7 | 3.2 | 5.5 | 8.0 | 16.4 | 2.988 | (402) |
| | 여자 | 1.3 | 2.8 | 6.3 | 10.1 | 13.3 | | (398)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1.2 | 3.7 | 5.2 | 9.7 | 15.9 | 3.716 | (402) |
| | 도지역 | 1.8 | 2.3 | 6.5 | 8.3 | 13.8 | | (398) |
| 연령 | 45-49세 | - | 2.9 | 5.7 | 7.1 | 14.8 | 16.527 | (210) |
| | 50-54세 | 2.9 | 1.9 | 8.1 | 7.7 | 15.3 | | (209) |
| | 55-59세 | 1.5 | 3.0 | 6.0 | 9.0 | 14.9 | | (201) |
| | 60-64세 | 1.7 | 4.4 | 3.3 | 12.8 | 14.4 | | (180) |
| 혼인 지위 | 유배우 | 1.6 | 2.7 | 5.2 | 9.3 | 14.7 | - | (696) |
| | 사별 | - | - | - | 20.0 | 20.0 | | (5) |
| | 이혼·별거 미혼·비혼·기타 | 2.3 | 7.0 | 9.3 | 4.7 | 16.3 | | (43)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2.6 | 3.5 | 9.2 | 11.8 | 13.1 | 17.930 | (229) |
| | 대학교 | 1.3 | 2.6 | 4.9 | 8.3 | 14.7 | | (469) |
| | 대학원 | - | 3.9 | 2.9 | 5.9 | 19.6 | | (102) |
| 근로 여부 | 그렇다 | 1.3 | 3.2 | 6.1 | 8.6 | 14.2 | 2.139 | (555) |
| | 아니다 | 2.0 | 2.4 | 5.3 | 9.8 | 16.3 | | (245)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4.5 | 9.0 | 9.0 | 10.4 | 11.9 | - | (67) |
| | 200~399 | 1.8 | 1.8 | 7.0 | 11.5 | 18.1 | | (227) |
| | 400~599 | 1.8 | 3.2 | 6.1 | 8.2 | 14.6 | | (280) |
| | 600 이상 | - | 2.2 | 3.5 | 7.1 | 12.8 | | (226)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 1.3 | 2.4 | 5.5 | 8.9 | 15.8 | - | (595) |
| | 전세 | 0.9 | 3.7 | 6.4 | 8.3 | 12.8 | | (109) |
| | 월세 기타 | 3.1 | 6.3 | 7.3 | 10.4 | 11.5 | | (96) |
| 주관 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1.2 | 1.2 | 5.6 | 7.1 | 16.3 | 14.503 | (252) |
| | 중하층 | 1.1 | 3.3 | 6.8 | 10.3 | 12.5 | | (369) |
| | 하층 | 2.8 | 5.0 | 4.5 | 8.9 | 17.9 | | (179)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3)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² 값을 제시하지 않음

나. 집단 및 조직 참여 경험과 친밀도

집단이나 조직에 참한 경험과 그 안에서 느끼는 친밀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에 대해 1인가구와 다인가구와의 비교도 가능하나 1인가구가 얼마나 집단에 소속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할 수 있어 다인가구 분석은 제외하고 1인가구의 참여 경험과 1인가구 내에서 그룹 간 차이를 알아보는 것을 중심으로 다룬다.

집단이나 조직에 참여한 내용으로는 동창회나 동창모임, 계모임이나 친목회, 향우회 등부터 인터넷에서 알게 된 온라인 카페, 커뮤니티 모임, 그리고 취미생활로 만난 동호회, 종교단체, 시민운동단체까지 다양한 집단에 참여 경험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친밀도를 알아보았다. 특정 모임에 참여한 비율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아 친밀도에 응답한 표본이 전반적으로 작고, 친밀도 그룹 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친밀도 평균만 제시하고 그룹 간 평균차이는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친밀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난 그룹에 대해서는 본문 논의에 기록한다. 친밀도는 전혀 가깝지 않다=1, 별로 가깝지 않다=2, 대체로 가깝다=3, 매우 가깝다=4로 점수화하고 평균을 구한 것이다.

1인가구가 동창회나 동호회, 모임 등 다양한 집단 및 조직에 참여한 경험과 그 안에서 느끼는 친밀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선 가장 중장년층에서 흔하게 참여하는 모임인 동창회나 동창 모임에 참여한 경험을 알아보았다. 참여 경험이 있는 비율은 41.4%, 없는 비율은 58.6%로 나타났다.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동창회나 동창 모임에서 느끼는 친밀도는 대체로 가깝다는 응답이 60.9%, 별로 가깝지 않다는 비율은 26.1%, 매우 가깝다고 응답한 비율은 11.1%, 전혀 가깝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9%이다.

동창회 참여는 1인가구 남성이 45.8%, 여성은 36.0%로 남성이 더 많이 참여하고 있었다. 그리고 참여하는 1인가구 중 매우 가깝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은 15.9%, 여성은 3.7%로 동창회에서 더 강한 친밀도를 느끼는 남성이 더욱 많았다. 친밀도 평균을 보면 남성 2.90점, 여성 2.68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2.399$, $p<.05$).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는 동창회 참여 비율이 51.2%로 과반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고, 인천, 경기, 강원은 34.0%, 충청은 32.7%로 낮은 지역도 있었다. 충청지역은 참여는 낮은 수준이지만, 매우 가깝다고 응답한 비율이 17.6%로 높았고, 대체로 가깝다는 비율도 70.6%로 높아 참여 비율은 낮으나 일단 참여를 하는 그룹은 그 안에서 강한 친밀도

를 가지며 친밀감을 느끼는 비율도 매우 높다. 충청지역과 같이 참여 비율이 다소 낮은 권역인 인천, 경기, 강원 지역의 경우는 매우 가깝다는 비율이 9.3%로 낮았다. 하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을 뿐 아니라 지역별 사례수가 많지 않아 경향 정도로만 이해해야 할 것이다. 동창 모임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연령대는 55-59세로 48%가 참여했다. 그리고 친밀도를 느끼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로 보인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1인가구는 참여 비율이 51.8%로 다른 혼인 상태의 1인가구보다 동창회에 많이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미혼 및 비혼, 고졸 이하, 가구소득이 및 주관적 경제 수준이 낮은 경우, 월세 등으로 사는 1인가구의 경우 동창회 참여 비율이 35% 이하로 낮은 그룹에 속했다. 주관적 경제 수준이 높은 1인가구는 동창 모임을 갖고 있는 경우가 54.1%로 높고, 매우 가깝다고 느끼는 비율도 17.0%로 높았다. 그러나 친밀도 평균 점수로 비교했을 때에는 성별 이외에 두드러진 차이는 없었다.

<표 6-24> 1인가구의 동창회/동창모임 참여 경험과 친밀도

(단위: %, 명)

| 항목 | 참여 경험 | | | | 친밀도 | | | | 평균 | (명) | | |
|---------------------|----------|------|----------|--------------|-----------------|-----------------|------------|-----------|------|-------|-------|------|
| | 있음 | 없음 | χ^2 | (명) | 전혀 가깝지 않다 | 별로 가깝지 않다 | 대체로 가깝다 | 매우 가깝다 | | | | |
| 전체 | 41.4 | 58.6 | | (500) | 1.9 | 26.1 | 60.9 | 11.1 | 2.81 | (207) | | |
| 성별 | 남자 | 45.8 | 54.2 | 4.917* | (275) | 1.6 | 23.0 | 59.5 | 15.9 | 2.90 | (126) | |
| | 여자 | 36.0 | 64.0 | | (225) | 2.5 | 30.9 | 63.0 | 3.7 | 2.68 | (81) |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43.6 | 56.4 | 0.998 | (250) | 1.8 | 24.8 | 62.4 | 11.0 | 2.83 | (109) | |
| | 도지역 | 39.2 | 60.8 | | (250) | 2.0 | 27.6 | 59.2 | 11.2 | 2.80 | (98) | |
| 거주 권역 | 서울 | 51.2 | 48.8 | 10.932 | (86) | 0.0 | 20.5 | 68.2 | 11.4 | 2.91 | (44) | |
| | 인천·경기·강원 | 34.0 | 66.0 | | (159) | 3.7 | 24.1 | 63.0 | 9.3 | 2.78 | (54) | |
| | 충청권 | 32.7 | 67.3 | | (52) | 0.0 | 11.8 | 70.6 | 17.6 | 3.06 | (17) | |
| | 전라권 | 41.5 | 58.5 | | (65) | 0.0 | 22.2 | 63.0 | 14.8 | 2.93 | (27) | |
| | 경북권 | 43.6 | 56.4 | | (55) | 8.3 | 29.2 | 45.8 | 16.7 | 2.71 | (24) | |
| | 경남권 | 49.4 | 50.6 | | (83) | 0.0 | 41.5 | 53.7 | 4.9 | 2.63 | (41) | |
| 연령 | 45-49세 | 31.0 | 69.0 | 8.143* | (116) | 0.0 | 33.3 | 52.8 | 13.9 | 2.81 | (36) | |
| | 50-54세 | 40.7 | 59.3 | | (118) | 2.1 | 31.3 | 56.3 | 10.4 | 2.75 | (48) | |
| | 55-59세 | 48.1 | 51.9 | | (135) | 1.5 | 21.5 | 64.6 | 12.3 | 2.88 | (65) | |
| | 60-64세 | 44.3 | 55.7 | | (131) | 3.4 | 22.4 | 65.5 | 8.6 | 2.79 | (58) | |
| 혼인 지위 | 유배우 | 51.8 | 48.2 | 11.931* | (141) | 1.4 | 20.5 | 67.1 | 11.0 | 2.88 | (73) | |
| | 사별 | 31.8 | 68.2 | | (22) | 0.0 | 42.9 | 57.1 | 0.0 | 2.57 | (7) | |
| | 이혼·별거 | 43.2 | 56.8 | | * | (139) | 5.0 | 31.7 | 53.3 | 10.0 | 2.68 | (60) |
| | 미혼·비혼기타 | 33.8 | 66.2 | | (198) | 0.0 | 25.4 | 61.2 | 13.4 | 2.88 | (67) |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30.3 | 69.7 | 10.45 ** | (142) | 2.3 | 23.3 | 65.1 | 9.3 | 2.81 | (43) | |
| | 대학교 | 45.1 | 54.9 | | (297) | 2.2 | 25.4 | 61.2 | 11.2 | 2.81 | (134) | |
| | 대학원 | 49.2 | 50.8 | | (61) | 0.0 | 33.3 | 53.3 | 13.3 | 2.80 | (30) | |
| 근로 여부 | 그렇다 | 42.8 | 57.2 | 1.474 | (390) | 2.4 | 26.9 | 59.3 | 11.4 | 2.80 | (167) | |
| | 아니다 | 36.4 | 63.6 | | (110) | 0.0 | 22.5 | 67.5 | 10.0 | 2.88 | (40) |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31.1 | 68.9 | 16.01 ** | (164) | 2.0 | 23.5 | 64.7 | 9.8 | 2.82 | (51) | |
| | 200~399 | 45.1 | 54.9 | | (182) | 2.4 | 31.7 | 52.4 | 13.4 | 2.77 | (82) | |
| | 400~599 | 40.4 | 59.6 | | (89) | 2.8 | 22.2 | 63.9 | 11.1 | 2.83 | (36) | |
| | 600 이상 | 58.5 | 41.5 | | (65) | 0.0 | 21.1 | 71.1 | 7.9 | 2.87 | (38) |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 44.7 | 55.3 | 4.441 | (235) | 1.0 | 23.8 | 64.8 | 10.5 | 2.85 | (105) | |
| | 전세 | 44.6 | 55.4 | | (101) | 0.0 | 40.0 | 48.9 | 11.1 | 2.71 | (45) | |
| | 월세 기타 | 34.8 | 65.2 | | (164) | 5.3 | 19.3 | 63.2 | 12.3 | 2.82 | (57) | |
| 주관 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54.1 | 45.9 | 12.452* * | (98) | 0.0 | 20.8 | 62.3 | 17.0 | 2.96 | (53) | |
| | 중하층 | 44.0 | 56.0 | | (182) | 2.5 | 22.5 | 66.3 | 8.8 | 2.81 | (80) | |
| | 하층 | 33.6 | 66.4 | | (220) | 2.7 | 33.8 | 54.1 | 9.5 | 2.70 | (74) |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지역모임이나 향우회에 참여한 경험을 알아보면, 82.4%가 없다, 17.6%는 있다고 응답했다. 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과반은 그 모임에 대해 친밀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대체로 가깝다: 48.9%, 매우 가깝다: 6.8%).

지역모임 및 향우회 참여 경험에서 차이를 보인 요인은 혼인지위, 가구소득, 경제수준이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1인가구가 그 외의 그룹과 비교해 참여 경험이 많았고, 소득이 400-599만원 인 경우의 참여율이 다른 소득 그룹보다 높았다. 또한, 경제수준이 가장 높은 그룹이 그 이하의 그룹들보다 참여율이 높았다.

지역모임이나 향우회에 참여한 경험이 25% 이상인 그룹을 보면, 그룹 간 차이에서 나타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소득이 400-599만 원인 경우, 주관적 경제수준이 중상층 이상인 경우에 더해 1인가구 중 충청도에 거주하는 그룹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55-59세 1인가구 그룹은 참여 경험 비율이 22.2%로 높은 편에 속하는 그룹이며, 참여한 경우의 사례 수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가깝다고 느끼는 비율이 63.3%로 높은 특징을 보이는 그룹이다.

〈표 6-25〉 1인가구의 지역모임/향우회 참여 경험과 친밀도

(단위: %, 명)

| 항목 | 참여 경험 | | | | 친밀도 | | | | 평균 | (명) | | | | | | | | |
|---------------------|----------|------|----------|-----------|-----------------|-----------------|------------|-----------|------|------|------|-------|------|------|------|------|------|------|
| | 있음 | 없음 | χ^2 | (명) | 전혀 가깝지 않다 | 별로 가깝지 않다 | 대체로 가깝다 | 매우 가깝다 | | | | | | | | | | |
| 전체 | 17.6 | 82.4 | | (500) | 8.0 | 36.4 | 48.9 | 6.8 | 2.55 | (88) | | | | | | | | |
| 성별 | 남자 | 19.3 | 80.7 | 1.179 | (275) | 5.7 | 37.7 | 45.3 | 11.3 | 2.62 | (53) | | | | | | | |
| | 여자 | 15.6 | 84.4 | | | | | | | | | (225) | 11.4 | 34.3 | 54.3 | 0.0 | 2.43 | (35) |
| 거주 지역 | 광역·특별시 | 18.4 | 81.6 | .221 | (250) | 8.7 | 41.3 | 43.5 | 6.5 | 2.48 | (46) | | | | | | | |
| | 도지역 | 16.8 | 83.2 | | | | | | | | | (250) | 7.1 | 31.0 | 54.8 | 7.1 | 2.62 | (42) |
| 연령 | 45-49세 | 12.1 | 87.9 | 5.34 | (116) | 0.0 | 50.0 | 28.6 | 21.4 | 2.71 | (14) | | | | | | | |
| | 50-54세 | 15.3 | 84.7 | | | | | | | | | (118) | 16.7 | 33.3 | 44.4 | 5.6 | 2.39 | (18) |
| | 55-59세 | 22.2 | 77.8 | | | | | | | | | (135) | 6.7 | 23.3 | 63.3 | 6.7 | 2.70 | (30) |
| | 60-64세 | 19.8 | 80.2 | | | | | | | | | (131) | 7.7 | 46.2 | 46.2 | 0.0 | 2.38 | (26) |
| 혼인 지위 | 유배우 | 25.5 | 74.5 | 10.231* | (141) | 5.6 | 30.6 | 61.1 | 2.8 | 2.61 | (36) | | | | | | | |
| | 사별 | 18.2 | 81.8 | | | | | | | | | (22) | 25.0 | 75.0 | 0.0 | 0.0 | 1.75 | (4) |
| | 이혼·별거 | 17.3 | 82.7 | | | | | | | | | (139) | 12.5 | 37.5 | 45.8 | 4.2 | 2.42 | (24) |
| | 미혼·비혼·기타 | 12.1 | 87.9 | | | | | | | | | (198) | 4.2 | 37.5 | 41.7 | 16.7 | 2.71 | (24)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18.3 | 81.7 | 0.402 | (142) | 7.7 | 38.5 | 50.0 | 3.8 | 2.50 | (26) | | | | | | | |
| | 대학교 | 17.8 | 82.2 | | | | | | | | | (297) | 9.4 | 35.8 | 47.2 | 7.5 | 2.53 | (53) |
| | 대학원 | 14.8 | 85.2 | | | | | | | | | (61) | 0.0 | 33.3 | 55.6 | 11.1 | 2.78 | (9) |
| 근로 여부 | 그렇다 | 17.4 | 82.6 | 0.033 | (390) | 8.8 | 33.8 | 50.0 | 7.4 | 2.56 | (68) | | | | | | | |
| | 아니다 | 18.2 | 81.8 | | | | | | | | | (110) | 5.0 | 45.0 | 45.0 | 5.0 | 2.50 | (20)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15.2 | 84.8 | 15.125*** | (164) | 8.0 | 44.0 | 44.0 | 4.0 | 2.44 | (25) | | | | | | | |
| | 200~399 | 15.4 | 84.6 | | | | | | | | | (182) | 14.3 | 28.6 | 46.4 | 10.7 | 2.54 | (28) |
| | 400~599 | 31.5 | 68.5 | | | | | | | | | (89) | 3.6 | 35.7 | 53.6 | 7.1 | 2.64 | (28) |
| | 600 이상 | 10.8 | 89.2 | | | | | | | | | (65) | 0.0 | 42.9 | 57.1 | 0.0 | 2.57 | (7)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 21.3 | 78.7 | 4.387 | (235) | 8.0 | 34.0 | 50.0 | 8.0 | 2.58 | (50) | | | | | | | |
| | 전세 | 15.8 | 84.2 | | | | | | | | | (101) | 12.5 | 37.5 | 43.8 | 6.3 | 2.44 | (16) |
| | 월세 기타 | 13.4 | 86.6 | | | | | | | | | (164) | 4.5 | 40.9 | 50.0 | 4.5 | 2.55 | (22) |
| 주관 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26.5 | 73.5 | 6.763* | (98) | 0.0 | 34.6 | 61.5 | 3.8 | 2.69 | (26) | | | | | | | |
| | 중하층 | 15.9 | 84.1 | | | | | | | | | (182) | 17.2 | 41.4 | 34.5 | 6.9 | 2.31 | (29) |
| | 하층 | 15.0 | 85.0 | | | | | | | | | (220) | 6.1 | 33.3 | 51.5 | 9.1 | 2.64 | (33)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중장년층의 1인가구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온라인 카페 모임에 참여한 경험이 전체 30.6%로 앞서 알아 본 지역모임이나 향우회에 참여한 경험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참여한 경우 별로 가깝지 않다가 52.3%, 전혀 가깝지 않다가 7.8%로 가깝

다고 느끼지 않는 비율이 60% 이상으로 높아 지역모임이나 향우회와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온라인 카페 참여는 혼인지위, 교육수준, 가구소득, 경제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참여 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고졸 이하 그룹의 참여 비율이 대학교 졸업 이상과 비교해 낮은 특징을 보였다. 소득이 가장 높은 그룹은 참여 경험이 50.8%로 다른 그룹보다 높아 차이를 보였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참여 경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룹 간 차이에서 나타난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경우와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거주 권역에서 경북 지역 거주하는 1인가구는 이러한 모임에 참여한 경험 비율이 21%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그룹으로 나타났다. 참여 비율이 특히 높은 그룹은 배우자가 있는 1인가구와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은 그룹으로 각각 40.4%와 44.9%로 나타났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온라인 카페 모임에는 남정보다 여성이 많이 참여하기는 하지만 가깝다고 느끼는 비율은 여성이 오히려 더 낮게 나타났다. 친밀도를 평균 점수로 보더라도 여성은 2.21점, 남성은 2.48점으로 차이가 있었다($t=2.568, p<.05$). 친밀도에서 전혀 가깝다고 느끼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그룹은 이혼 및 별거한 그룹, 일을 하지 않는 경우, 가구소득이 낮은 그룹, 경제 수준이 낮은 그룹으로 이 그룹들은 전혀 가깝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15%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혀 가깝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그룹은 전라권(14.3%), 경북권(16.7%) 1인가구도 있지만 사례 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표 6-26〉 1인가구의 인터넷 커뮤니티/온라인카페 참여 경험과 친밀도

(단위: %, 명)

| 항목 | 참여 경험 | | | | 친밀도 | | | | | | |
|---------------------|----------|------|------|----------|-----------------|-----------------|------------|-----------|------|-------|-------|
| | 있음 | 없음 | χ2 | (명) | 전혀 가깝지 않다 | 별로 가깝지 않다 | 대체로 가깝다 | 매우 가깝다 | 평균 | (명) | |
| 전체 | 30.6 | 69.4 | | (500) | 7.8 | 52.3 | 37.3 | 2.6 | 2.35 | (153) | |
| 성별 | 남자 | 28.0 | 72.0 | 1.945 | (275) | 2.6 | 50.6 | 42.9 | 3.9 | 2.48 | (77) |
| | 여자 | 33.8 | 66.2 | | (225) | 13.2 | 53.9 | 31.6 | 1.3 | 2.21 | (76)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31.6 | 68.4 | 0.235 | (250) | 11.4 | 46.8 | 38.0 | 3.8 | 2.34 | (79) |
| | 도지역 | 29.6 | 70.4 | | (250) | 4.1 | 58.1 | 36.5 | 1.4 | 2.35 | (74) |
| 연령 | 45-49세 | 28.4 | 71.6 | 1.074 | (116) | 6.1 | 63.6 | 27.3 | 3.0 | 2.27 | (33) |
| | 50-54세 | 33.9 | 66.1 | | (118) | 10.0 | 52.5 | 35.0 | 2.5 | 2.30 | (40) |
| | 55-59세 | 28.9 | 71.1 | | (135) | 2.6 | 46.2 | 46.2 | 5.1 | 2.54 | (39) |
| | 60-64세 | 31.3 | 68.7 | | (131) | 12.2 | 48.8 | 39.0 | 0.0 | 2.27 | (41) |
| 혼인 지위 | 유배우 | 40.4 | 59.6 | 9.514* | (141) | 3.5 | 59.6 | 35.1 | 1.8 | 2.35 | (57) |
| | 사별 | 31.8 | 68.2 | | (22) | 0.0 | 57.1 | 42.9 | 0.0 | 2.43 | (7) |
| | 이혼 별거 | 28.1 | 71.9 | | (139) | 17.9 | 28.2 | 51.3 | 2.6 | 2.38 | (39) |
| | 미혼·비혼·기타 | 25.3 | 74.7 | | (198) | 6.0 | 62.0 | 28.0 | 4.0 | 2.30 | (50)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21.1 | 78.9 | 8.381* | (142) | 13.3 | 46.7 | 36.7 | 3.3 | 2.30 | (30) |
| | 대학교 | 34.3 | 65.7 | | (297) | 6.9 | 53.9 | 36.3 | 2.9 | 2.35 | (102) |
| | 대학원 | 34.4 | 65.6 | | (61) | 4.8 | 52.4 | 42.9 | 0.0 | 2.38 | (21) |
| 근로 여부 | 그렇다 | 31.5 | 68.5 | 0.735 | (390) | 4.9 | 54.5 | 38.2 | 2.4 | 2.38 | (123) |
| | 아니다 | 27.3 | 72.7 | | (110) | 20.0 | 43.3 | 33.3 | 3.3 | 2.20 | (30)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26.8 | 73.2 | 17.257** | (164) | 15.9 | 45.5 | 34.1 | 4.5 | 2.27 | (44) |
| | 200~399 | 24.7 | 75.3 | | (182) | 11.1 | 48.9 | 37.8 | 2.2 | 2.31 | (45) |
| | 400~599 | 34.8 | 65.2 | | (89) | 0.0 | 64.5 | 32.3 | 3.2 | 2.39 | (31) |
| | 600 이상 | 50.8 | 49.2 | | (65) | 0.0 | 54.5 | 45.5 | 0.0 | 2.45 | (33)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 33.6 | 66.4 | 2.49 | (235) | 5.1 | 51.9 | 43.0 | 0.0 | 2.38 | (79) |
| | 전세 | 30.7 | 69.3 | | (101) | 3.2 | 58.1 | 29.0 | 9.7 | 2.45 | (31) |
| | 월세 기타 | 26.2 | 73.8 | | (164) | 16.3 | 48.8 | 32.6 | 2.3 | 2.21 | (43) |
| 주관 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44.9 | 55.1 | 12.364** | (98) | 2.3 | 47.7 | 50.0 | 0.0 | 2.48 | (44) |
| | 중하층 | 29.1 | 70.9 | | (182) | 3.8 | 60.4 | 35.8 | 0.0 | 2.32 | (53) |
| | 하층 | 25.5 | 74.5 | | (220) | 16.1 | 48.2 | 28.6 | 7.1 | 2.27 | (56)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1인가구가 등산이나 취미로 만나게 된 동호회 모임에 참여한 경험을 알아보면, 경험 있는 비율이 32.2%, 없는 비율이 67.8%로 나타났고 대체로 가깝다고 느끼는 비율이 59.0%, 매우 가깝다고 느끼는 비율은 12.4%로 가깝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인천.경기.강원에 거주하는 경우, 50-54세 연령그룹, 미혼이나 비혼 등, 그리고 월세 등의 형태로 거주 중인 1인가구는 동호회 모임에 참여 경험이 있는 비율이 25% 정도 또는 그 이하로 낮은 그룹이다. 반대로 참여 비율이 높은 그룹은 60대,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 경제 수준이 중상층 이상인 1인가구로 약 40% 이상인 그룹들이 참여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유배우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미혼 등의 그룹과 차이가 두드러졌다. 또한, 주택이 자가인 경우가 전세, 월세 등의 형태로 생활하는 1인가구 경우보다 참여 경험이 높고 소득이 높은 그룹의 참여 경험 비율이 높아 차이를 보였다.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은 그룹은 동호회에 대해 매우 가깝다는 응답 비율이 17.4%로 높은 편이다. 대체로 가깝다고 느끼는 비율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가구소득 400만 원 이상의 그룹들이 약 68% 이상으로 응답 비율이 높아 소득이 높은 그룹이 친밀도를 느끼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7> 1인가구의 등산/취미 등 동호회 모임 참여 경험과 친밀도

(단위: %, 명)

| 항목 | 참여 경험 | | | | 친밀도 | | | | 평균 | (명) | |
|---------------------|----------|------|------|----------|-----------------|-----------------|------------|-----------|------|-------|-------|
| | 있음 | 없음 | χ2 | (명) | 전혀 가깝지 않다 | 별로 가깝지 않다 | 대체로 가깝다 | 매우 가깝다 | | | |
| 전체 | 32.2 | 67.8 | | (500) | 3.1 | 25.5 | 59.0 | 12.4 | 2.81 | (161) | |
| 성별 | 남자 | 33.8 | 66.2 | 0.733 | (275) | 2.2 | 30.1 | 55.9 | 11.8 | 2.77 | (93) |
| | 여자 | 30.2 | 69.8 | | (225) | 4.4 | 19.1 | 63.2 | 13.2 | 2.85 | (68) |
| 거주 지역 | 광역·특별시 | 33.6 | 66.4 | 0.449 | (250) | 3.6 | 23.8 | 60.7 | 11.9 | 2.81 | (84) |
| | 도지역 | 30.8 | 69.2 | | (250) | 2.6 | 27.3 | 57.1 | 13.0 | 2.81 | (77) |
| 연령 | 45-49세 | 29.3 | 70.7 | 7.173 | (116) | 5.9 | 38.2 | 44.1 | 11.8 | 2.62 | (34) |
| | 50-54세 | 24.6 | 75.4 | | (118) | 0.0 | 27.6 | 58.6 | 13.8 | 2.86 | (29) |
| | 55-59세 | 34.1 | 65.9 | | (135) | 2.2 | 15.2 | 67.4 | 15.2 | 2.96 | (46) |
| | 60-64세 | 39.7 | 60.3 | | (131) | 3.8 | 25.0 | 61.5 | 9.6 | 2.77 | (52) |
| 혼인 지위 | 유배우 | 40.4 | 59.6 | 8.186* | (141) | 1.8 | 17.5 | 64.9 | 15.8 | 2.95 | (57) |
| | 사별 | 31.8 | 68.2 | | (22) | 0.0 | 14.3 | 85.7 | 0.0 | 2.86 | (7) |
| | 이혼 별거 | 33.1 | 66.9 | | (139) | 2.2 | 32.6 | 54.3 | 10.9 | 2.74 | (46) |
| | 미혼·비혼·기타 | 25.8 | 74.2 | | (198) | 5.9 | 29.4 | 52.9 | 11.8 | 2.71 | (51)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26.1 | 73.9 | 4.315 | (142) | 2.7 | 24.3 | 59.5 | 13.5 | 2.84 | (37) |
| | 대학교 | 35.7 | 64.3 | | (297) | 3.8 | 27.4 | 56.6 | 12.3 | 2.77 | (106) |
| | 대학원 | 29.5 | 70.5 | | (61) | 0.0 | 16.7 | 72.2 | 11.1 | 2.94 | (18) |
| 근로 여부 | 그렇다 | 32.1 | 67.9 | 0.018 | (390) | 2.4 | 29.6 | 56.8 | 11.2 | 2.77 | (125) |
| | 아니다 | 32.7 | 67.3 | | (110) | 5.6 | 11.1 | 66.7 | 16.7 | 2.94 | (36)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27.4 | 72.6 | 7.531 | (164) | 4.4 | 26.7 | 55.6 | 13.3 | 2.78 | (45) |
| | 200~399 | 31.9 | 68.1 | | (182) | 5.2 | 31.0 | 51.7 | 12.1 | 2.71 | (58) |
| | 400~599 | 31.5 | 68.5 | | (89) | 0.0 | 21.4 | 67.9 | 10.7 | 2.89 | (28) |
| | 600 이상 | 46.2 | 53.8 | | (65) | 0.0 | 16.7 | 70.0 | 13.3 | 2.97 | (30)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 38.7 | 61.3 | 9.037* | (235) | 2.2 | 20.9 | 61.5 | 15.4 | 2.90 | (91) |
| | 전세 | 28.7 | 71.3 | | (101) | 3.4 | 31.0 | 51.7 | 13.8 | 2.76 | (29) |
| | 월세 기타 | 25.0 | 75.0 | | (164) | 4.9 | 31.7 | 58.5 | 4.9 | 2.63 | (41) |
| 주관 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46.9 | 53.1 | 12.525** | (98) | 0.0 | 21.7 | 60.9 | 17.4 | 2.96 | (46) |
| | 중하층 | 30.2 | 69.8 | | (182) | 1.8 | 25.5 | 63.6 | 9.1 | 2.80 | (55) |
| | 하층 | 27.3 | 72.7 | | (220) | 6.7 | 28.3 | 53.3 | 11.7 | 2.70 | (60)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1인가구가 계모임이나 친목회에 참여한 경험은 전체 34.8%로 참여 경험이 높은 모임에 속했다. 친밀도 또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대체로 가깝다고 응답한 비율이 62.1%, 매우 가깝다고 응답한 비율은 23.0%로 전체적으로 75.1%가 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계모임이나 친목회 참여경험 및 친밀도에서 모두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계모임이나 친목회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참여한 경험이 높았는데, 남성은 29.8%, 여성은 40.9%로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친밀도를 느끼는 경우는 남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대체로 가깝다고 응답한 비율이 66.3%, 매우 가깝다는 16.3%였다. 남성은 대체로 가깝다고 응답한 비율이 57.3%이지만 매우 가깝다는 응답이 30.5%로 높았다. 평균 점수로 비교해 보면, 남성은 3.18점, 여성은 2.96점으로 차이가 나타났다($t=2.303, p<.05$).

계모임 및 친목회 참여 경험은 성별 이외에 거주권역, 연령, 혼인지위, 주택점유형태, 경제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권역별 참여비율을 살펴보면 인천, 경기, 강원 지역에서는 참여비율이 높았고 경북과 전라권의 참여비율은 저조하였다. 혼인지위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사별의 경우는 참여 경험 비율이 과반 이상으로 높아 차이가 두드러졌다. 조사 참여자 중 미혼이나 비혼은 40대에 가장 많을 것이기 때문에 40대와 미혼 및 비혼 1인가구가 계모임이나 친목회 참여가 낮은 경향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가 주택 소유자는 전세나 월세 등의 형태로 거주하는 1인가구보다 계모임 등에 참여 경험이 많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그 참여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계모임이나 친목회에서 전혀 가깝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별로 가깝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 중에서 20% 이상인 그룹은 서울 거주, 연령 50-54세, 사별한 경우, 전세로 살고 있는 경우, 주관적 경제수준이 하층인 경우가 있었다. 매우 가깝다는 응답이 30% 이상으로 높은 그룹은 경남권에 거주하는 경우, 전세로 살고 있는 경우, 주관적 경제수준이 중상층인 경우로, 이들은 계모임이나 친목회 참여를 통해 매우 높은 친밀감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친밀도에서는 앞서 설명한 성별에 따른 차이 이외에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중상층의 친밀도는 3.23점, 하층의 친밀도는 2.90점으로 1인가구는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라 계모임에서 느끼는 친밀도에 차이가 있었다.

<표 6-28> 1인가구의 계모임/친목회 참여 경험과 친밀도

(단위: %, 명)

| 항목 | 참여 경험 | | | | 친밀도 | | | | | | |
|---------------------|----------|------|----------|-----------|-----------------|-----------------|------------|-----------|------|-------|-------|
| | 있음 | 없음 | χ^2 | (명) | 전혀 가깝지 않다 | 별로 가깝지 않다 | 대체로 가깝다 | 매우 가깝다 | 평균 | (명) | |
| 전체 | 34.8 | 65.2 | | (500) | 1.7 | 13.2 | 62.1 | 23.0 | 3.06 | (174) | |
| 성별 | 남자 | 29.8 | 70.2 | 6.685* | (275) | 0.0 | 12.2 | 57.3 | 30.5 | 3.18 | (82) |
| | 여자 | 40.9 | 59.1 | | (225) | 3.3 | 14.1 | 66.3 | 16.3 | 2.96 | (92)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37.6 | 62.4 | 1.728 | (250) | 1.1 | 14.9 | 61.7 | 22.3 | 3.05 | (94) |
| | 도지역 | 32.0 | 68.0 | | (250) | 2.5 | 11.3 | 62.5 | 23.8 | 3.08 | (80) |
| 거주 권역 | 서울 | 34.9 | 65.1 | 14.791* | (86) | 0.0 | 20.0 | 60.0 | 20.0 | 3.00 | (30) |
| | 인천·경기·강원 | 23.9 | 76.1 | | (159) | 5.3 | 10.5 | 60.5 | 23.7 | 3.03 | (38) |
| | 충청권 | 40.4 | 59.6 | | (52) | 4.8 | 14.3 | 61.9 | 19.0 | 2.95 | (21) |
| | 전라권 | 44.6 | 55.4 | | (65) | 0.0 | 10.3 | 69.0 | 20.7 | 3.10 | (29) |
| | 경북권 | 45.5 | 54.5 | | (55) | 0.0 | 16.0 | 64.0 | 20.0 | 3.04 | (25) |
| | 경남권 | 37.3 | 62.7 | | (83) | 0.0 | 9.7 | 58.1 | 32.3 | 3.23 | (31) |
| 연령 | 45-49세 | 24.1 | 75.9 | 10.111* | (116) | 0.0 | 7.1 | 67.9 | 25.0 | 3.18 | (28) |
| | 50-54세 | 32.2 | 67.8 | | (118) | 2.6 | 26.3 | 47.4 | 23.7 | 2.92 | (38) |
| | 55-59세 | 40.7 | 59.3 | | (135) | 0.0 | 14.5 | 61.8 | 23.6 | 3.09 | (55) |
| | 60-64세 | 40.5 | 59.5 | | (131) | 3.8 | 5.7 | 69.8 | 20.8 | 3.08 | (53) |
| 혼인 지위 | 유배우 | 51.8 | 48.2 | 32.426*** | (141) | 0.0 | 11.0 | 63.0 | 26.0 | 3.15 | (73) |
| | 사별 | 50.0 | 50.0 | | (22) | 0.0 | 27.3 | 72.7 | 0.0 | 2.73 | (11) |
| | 이혼·별거 | 31.7 | 68.3 | | (139) | 4.5 | 13.6 | 63.6 | 18.2 | 2.95 | (44) |
| | 미혼·비혼·기타 | 23.2 | 76.8 | | (198) | 2.2 | 13.0 | 56.5 | 28.3 | 3.11 | (46)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35.2 | 64.8 | 0.733 | (142) | 4.0 | 12.0 | 64.0 | 20.0 | 3.00 | (50) |
| | 대학교 | 33.7 | 66.3 | | (297) | 1.0 | 15.0 | 61.0 | 23.0 | 3.06 | (100) |
| | 대학원 | 39.3 | 60.7 | | (61) | 0.0 | 8.3 | 62.5 | 29.2 | 3.21 | (24) |
| 근로 여부 | 그렇다 | 32.8 | 67.2 | 3.061 | (390) | 1.6 | 15.6 | 59.4 | 23.4 | 3.05 | (128) |
| | 아니다 | 41.8 | 58.2 | | (110) | 2.2 | 6.5 | 69.6 | 21.7 | 3.11 | (46)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28.7 | 71.3 | 4.898 | (164) | 6.4 | 17.0 | 61.7 | 14.9 | 2.85 | (47) |
| | 200~399 | 35.7 | 64.3 | | (182) | 0.0 | 9.2 | 67.7 | 23.1 | 3.14 | (65) |
| | 400~599 | 39.3 | 60.7 | | (89) | 0.0 | 14.3 | 57.1 | 28.6 | 3.14 | (35) |
| | 600 이상 | 41.5 | 58.5 | | (65) | 0.0 | 14.8 | 55.6 | 29.6 | 3.15 | (27)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 42.6 | 57.4 | 12.763** | (235) | 2.0 | 8.0 | 69.0 | 21.0 | 3.09 | (100) |
| | 전세 | 31.7 | 68.3 | | (101) | 0.0 | 25.0 | 43.8 | 31.3 | 3.06 | (32) |
| | 월세 기타 | 25.6 | 74.4 | | (164) | 2.4 | 16.7 | 59.5 | 21.4 | 3.00 | (42) |
| 주관 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49.0 | 51.0 | 13.602** | (98) | 0.0 | 10.4 | 56.3 | 33.3 | 3.23 | (48) |
| | 중하층 | 35.7 | 64.3 | | (182) | 1.5 | 6.2 | 73.8 | 18.5 | 3.09 | (65) |
| | 하층 | 27.7 | 72.3 | | (220) | 3.3 | 23.0 | 54.1 | 19.7 | 2.90 | (61)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종교단체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인가구의 25.4%로 나타났고, 참여한 경우 대체로 가깝다고 느끼는 비율이 46.5%, 매우 가깝다고 느끼는 경우는 18.1%로 나타났다. 종교 단체 참여 경험에서는 성별, 혼인지위에 따른 차이를 찾아볼 수 있다. 다른 친목모임과 달리 종교단체 참여에서는 경제적인 조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모임 자체의 특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종교단체에는 남성보다 여성의 참여 경험이 높았는데, 남성은 20.7%, 여성은 31.1%로 나타났다. 혼인지위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있거나 사별한 경우의 참여 비율이 이혼 및 별거나 미혼 등인 경우보다 높았다. 특히 이혼 및 별거 중인 1인가구의 종교단체 참여 경험은 18.7%로 낮은 특징을 보였다.

<표 6-29> 1인가구의 종교단체 참여 경험과 친밀도

(단위: %, 명)

| 항목 | 참여 경험 | | | | 친밀도 | | | | 평균 | (명) | |
|---------------------|----------|------|----------|----------|-----------------|-----------------|------------|-----------|------|-------|-------|
| | 있음 | 없음 | χ^2 | (명) | 전혀 가깝지 않다 | 별로 가깝지 않다 | 대체로 가깝다 | 매우 가깝다 | | | |
| 전체 | 25.4 | 74.6 | | (500) | 5.5 | 29.9 | 46.5 | 18.1 | 2.77 | (127) | |
| 성별 | 남자 | 20.7 | 79.3 | 7.042** | (275) | 5.3 | 35.1 | 43.9 | 15.8 | 2.70 | (57) |
| | 여자 | 31.1 | 68.9 | | (225) | 5.7 | 25.7 | 48.6 | 20.0 | 2.83 | (70)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25.2 | 74.8 | 0.011 | (250) | 3.2 | 28.6 | 47.6 | 20.6 | 2.86 | (63) |
| | 도지역 | 25.6 | 74.4 | | (250) | 7.8 | 31.3 | 45.3 | 15.6 | 2.69 | (64) |
| 거주 권역 | 서울 | 25.6 | 74.4 | 3.306 | (86) | 0.0 | 40.9 | 36.4 | 22.7 | 2.82 | (22) |
| | 인천·경기·강원 | 22.0 | 78.0 | | (159) | 5.7 | 37.1 | 37.1 | 20.0 | 2.71 | (35) |
| | 충청권 | 25.0 | 75.0 | | (52) | 7.7 | 15.4 | 46.2 | 30.8 | 3.00 | (13) |
| | 전라권 | 30.8 | 69.2 | | (65) | 10.0 | 30.0 | 45.0 | 15.0 | 2.65 | (20) |
| | 경북권 | 21.8 | 78.2 | | (55) | 8.3 | 25.0 | 50.0 | 16.7 | 2.75 | (12) |
| | 경남권 | 30.1 | 69.9 | | (83) | 4.0 | 20.0 | 68.0 | 8.0 | 2.80 | (25) |
| 연령 | 45-49세 | 23.3 | 76.7 | 1.009 | (116) | 11.1 | 37.0 | 37.0 | 14.8 | 2.56 | (27) |
| | 50-54세 | 23.7 | 76.3 | | (118) | 7.1 | 42.9 | 32.1 | 17.9 | 2.61 | (28) |
| | 55-59세 | 28.1 | 71.9 | | (135) | 0.0 | 28.9 | 55.3 | 15.8 | 2.87 | (38) |
| | 60-64세 | 26.0 | 74.0 | | (131) | 5.9 | 14.7 | 55.9 | 23.5 | 2.97 | (34) |
| 혼인 지위 | 유배우 | 35.5 | 64.5 | 12.354** | (141) | 2.0 | 26.0 | 46.0 | 26.0 | 2.96 | (50) |
| | 사별 | 31.8 | 68.2 | | (22) | 0.0 | 14.3 | 57.1 | 28.6 | 3.14 | (7) |
| | 이혼·별거 | 18.7 | 81.3 | | (139) | 7.7 | 30.8 | 57.7 | 3.8 | 2.58 | (26) |
| | 미혼·비혼·기타 | 22.2 | 77.8 | | (198) | 9.1 | 36.4 | 38.6 | 15.9 | 2.61 | (44)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28.2 | 71.8 | 0.806 | (142) | 5.0 | 22.5 | 47.5 | 25.0 | 2.93 | (40) |
| | 대학교 | 24.2 | 75.8 | | (297) | 6.9 | 34.7 | 44.4 | 13.9 | 2.65 | (72) |
| | 대학원 | 24.6 | 75.4 | | (61) | 0.0 | 26.7 | 53.3 | 20.0 | 2.93 | (15) |
| 근로 여부 | 그렇다 | 25.6 | 74.4 | 0.054 | (390) | 6.0 | 33.0 | 46.0 | 15.0 | 2.70 | (100) |
| | 아니다 | 24.5 | 75.5 | | (110) | 3.7 | 18.5 | 48.1 | 29.6 | 3.04 | (27)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25.6 | 74.4 | 2.315 | (164) | 9.5 | 31.0 | 42.9 | 16.7 | 2.67 | (42) |
| | 200~399 | 22.0 | 78.0 | | (182) | 5.0 | 20.0 | 52.5 | 22.5 | 2.93 | (40) |
| | 400~599 | 29.2 | 70.8 | | (89) | 3.8 | 34.6 | 42.3 | 19.2 | 2.77 | (26) |
| | 600 이상 | 29.2 | 70.8 | | (65) | 0.0 | 42.1 | 47.4 | 10.5 | 2.68 | (19)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 27.2 | 72.8 | 0.870 | (235) | 4.7 | 28.1 | 46.9 | 20.3 | 2.83 | (64) |
| | 전세 | 24.8 | 75.2 | | (101) | 4.0 | 36.0 | 48.0 | 12.0 | 2.68 | (25) |
| | 월세 기타 | 23.2 | 76.8 | | (164) | 7.9 | 28.9 | 44.7 | 18.4 | 2.74 | (38) |
| 주관 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27.6 | 72.4 | 0.302 | (98) | 3.7 | 37.0 | 40.7 | 18.5 | 2.74 | (27) |
| | 중하층 | 24.7 | 75.3 | | (182) | 4.4 | 20.0 | 55.6 | 20.0 | 2.91 | (45) |
| | 하층 | 25.0 | 75.0 | | (220) | 7.3 | 34.5 | 41.8 | 16.4 | 2.67 | (55)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자원봉사단체, 시민운동 단체에 참여한 경험은 각각 12.2%, 5.4%로 낮은 편이다. 자원봉사 단체도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참여율이 높았고 이혼 및 별거 상태의 1인가구는 참여 경험 비율이 특히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지역별 구분에서는 경남권 거주자의 경우가 참여 경험율이 낮았다. 시민운동 단체는 전체적으로 참여 경험이 5% 정도로 낮았고 특성별 비율에서도 모두 10% 미만으로 참여 경험이 매우 낮은 단체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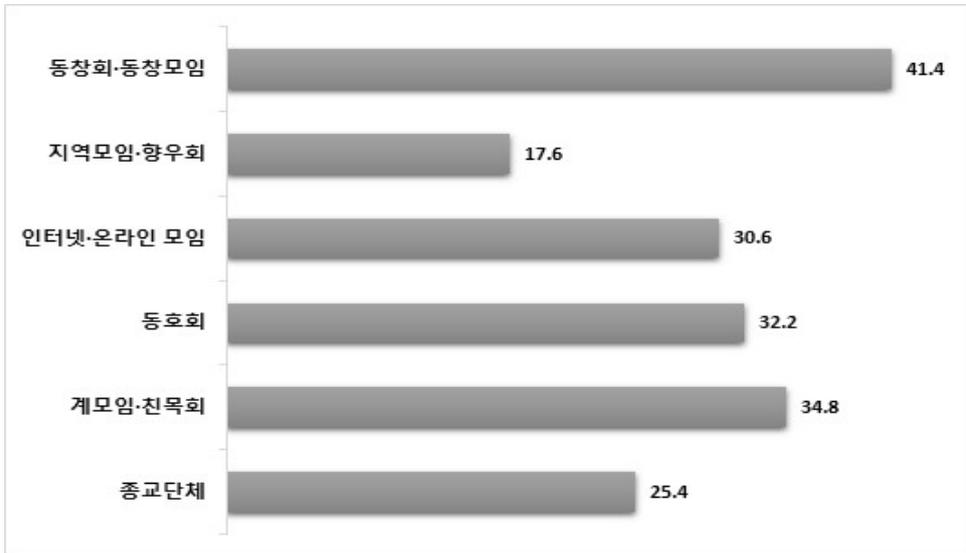
<표 6-30> 1인가구의 자원봉사 단체 및 시민운동단체 참여 경험

(단위: %, 명)

| 항목 | 자원봉사 단체 | | | 시민운동 단체 | | | |
|-----------|----------|------|-------|---------|------|-------|-------|
| | 있음 | 없음 | (명) | 있음 | 없음 | (명) | |
| 전체 | 12.2 | 87.8 | (500) | 5.4 | 94.6 | (500) | |
| 성별 | 남자 | 10.2 | 89.8 | (275) | 4.4 | 95.6 | (275) |
| | 여자 | 14.7 | 85.3 | (225) | 6.7 | 93.3 | (225)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11.6 | 88.4 | (250) | 4.4 | 95.6 | (250) |
| | 도지역 | 12.8 | 87.2 | (250) | 6.4 | 93.6 | (250) |
| 거주 권역 | 서울 | 12.8 | 87.2 | (86) | 5.8 | 94.2 | (86) |
| | 인천·경기·강원 | 15.1 | 84.9 | (159) | 6.3 | 93.7 | (159) |
| | 충청권 | 13.5 | 86.5 | (52) | 3.8 | 96.2 | (52) |
| | 전라권 | 9.2 | 90.8 | (65) | 7.7 | 92.3 | (65) |
| | 경북권 | 12.7 | 87.3 | (55) | 1.8 | 98.2 | (55) |
| | 경남권 | 7.2 | 92.8 | (83) | 4.8 | 95.2 | (83) |
| 연령 | 45-49세 | 7.8 | 92.2 | (116) | 3.4 | 96.6 | (116) |
| | 50-54세 | 11.0 | 89.0 | (118) | 5.1 | 94.9 | (118) |
| | 55-59세 | 14.8 | 85.2 | (135) | 8.1 | 91.9 | (135) |
| | 60-64세 | 14.5 | 85.5 | (131) | 4.6 | 95.4 | (131) |
| 혼인 지위 | 유배우 | 20.6 | 79.4 | (141) | 9.2 | 90.8 | (141) |
| | 사별 | 13.6 | 86.4 | (22) | 9.1 | 90.9 | (22) |
| | 이혼·별거 | 7.2 | 92.8 | (139) | 1.4 | 98.6 | (139) |
| | 미혼·비혼·기타 | 9.6 | 90.4 | (198) | 5.1 | 94.9 | (198)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12.0 | 88.0 | (142) | 6.3 | 93.7 | (142) |
| | 대학교 | 12.1 | 87.9 | (297) | 4.0 | 96.0 | (297) |
| | 대학원 | 13.1 | 86.9 | (61) | 9.8 | 90.2 | (61) |
| 근로 여부 | 그렇다 | 12.6 | 87.4 | (390) | 4.9 | 95.1 | (390) |
| | 아니다 | 10.9 | 89.1 | (110) | 7.3 | 92.7 | (110)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12.2 | 87.8 | (164) | 7.9 | 92.1 | (164) |
| | 200~399 | 9.9 | 90.1 | (182) | 2.2 | 97.8 | (182) |
| | 400~599 | 15.7 | 84.3 | (89) | 5.6 | 94.4 | (89) |
| | 600 이상 | 13.8 | 86.2 | (65) | 7.7 | 92.3 | (65)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 12.8 | 87.2 | (235) | 4.7 | 95.3 | (235) |
| | 전세 | 13.9 | 86.1 | (101) | 7.9 | 92.1 | (101) |
| | 월세 기타 | 10.4 | 89.6 | (164) | 4.9 | 95.1 | (164) |
| 주관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13.3 | 86.7 | (98) | 8.2 | 91.8 | (98) |
| | 중하층 | 12.1 | 87.9 | (182) | 2.7 | 97.3 | (182) |
| | 하층 | 11.8 | 88.2 | (220) | 6.4 | 93.6 | (2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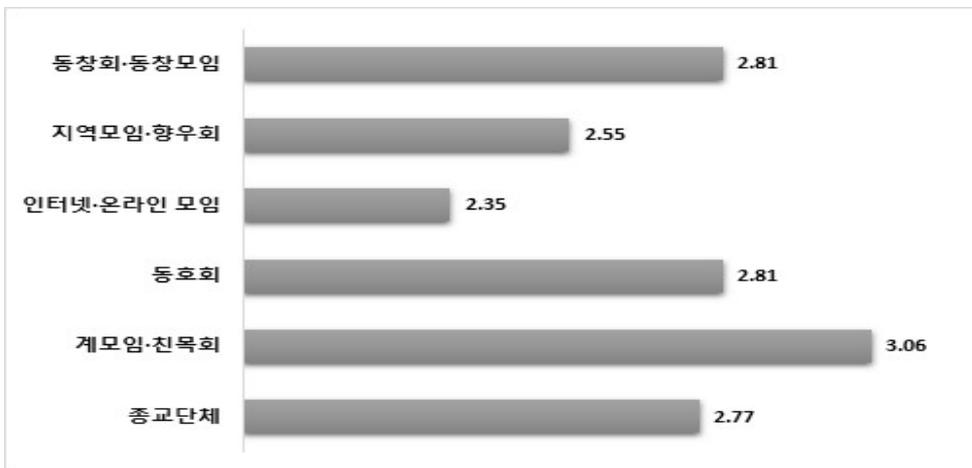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단위: %)



<그림 6-6> 1인가구 사회활동 참여 경험

(단위: 점)



<그림 6-7> 1인가구 사회활동 참여자가 느끼는 친밀도

3.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질: 1인가구와 다인가구

가. 정서적 건강 상태

일반적으로 1인가구는 정서적으로 취약한 가구이고, 다인가구에 비해 우울, 외로움, 자살생각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 연구에서 우울에서는 가구유형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외로움, 자살생각은 다인가구에 비해 1인가구가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로움을 “가끔” 느꼈다는 응답에서 1인가구는 46.4%, 다인가구는 39.9로 1인가구가 더 높았고, “자주” 있었다고 대답한 비율도 1인가구는 14.4%, 다인가구는 11.5%로 나타났다. 다인가구의 경우 가족관계 속에 있으므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현저히 낮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으나 51.4%, 절반 이상이 외로움을 “가끔” 혹은 “자주” 느꼈다고 응답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정서적 욕구는 1인가구뿐만 아니라 다인가구에서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자살생각은 1인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난 1년 자살생각을 “가끔” 혹은 “자주” 했다는 비율은 19.6%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다인가구는 13.6%로 나타났다. 1인가구의 개인이 다인가구보다 강도 높은 부정적 정서에 취약함을 의미한다. 우울 있어서는 1인가구의 61.8%가 가끔 또는 자주 우울감을 느꼈다고 응답했고, 다인가구의 에서는 55.7%가 그렇다고 답했는데,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6-31> 정서에서 1인가구·다인가구 차이

(단위: %, 명)

| | 가구유형 | 전혀 없었다 | 거의 없는 편이었다 | 가끔 있었다 | 자주 있었다 | χ^2 | (명) |
|------|------|--------|------------|--------|--------|-----------|-------|
| 우울 | 1인가구 | 9.6 | 28.6 | 50.0 | 11.8 | 5.555 | (500) |
| | 다인가구 | 10.5 | 33.8 | 43.6 | 12.1 | | (800) |
| 외로움 | 1인가구 | 7.4 | 31.8 | 46.4 | 14.4 | 14.87** | (500) |
| | 다인가구 | 12.8 | 35.9 | 39.9 | 11.5 | | (800) |
| 자살생각 | 1인가구 | 52.4 | 28.0 | 17.0 | 2.6 | 17.754*** | (500) |
| | 다인가구 | 63.9 | 22.5 | 12.1 | 1.5 | | (800)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지난 1년간 우울감을 경험한 빈도에 대해 질문했을 때 1인가구에서 성별, 연령 및 교육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인가구에서는 여성의 우울감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1인가구, 다인가구할 것 없이 우울감을 가끔 혹은 자주 느낀 비율이 64%정도로 유사하고, 남성 1인가구 역시 60% 정도의 우울감을 보였다. 이에 비해 다인가구 남성의 우울감은 훨씬 낮다(47.3%)는 특징이 있다. 중장년 남성에게는 (다인가구의) 가족생활이 부정적 정서로부터 보호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역으로 생각한다면 다인가구에서 1인가구로 이행할 때 여성보다는 남성이 정서적 문제를 더 많이 안게 될 가능성을 함축하기도 한다.

1인가구와 다인가구 모두에서 혼인지위, 근로여부, 주관적 경제적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났다(다인가구는 5이하 셀이 있어 카이스퀘어 제시하지 않음). 1인가구에서는 미혼<유배우<이혼별거<사별의 순으로 우울감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비취업자의 경우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이 현저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경제적 수준에서도 중상층에 비해 하층이 우울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인가구도 동일했다.

<표 6-32> 지난 1년간 우울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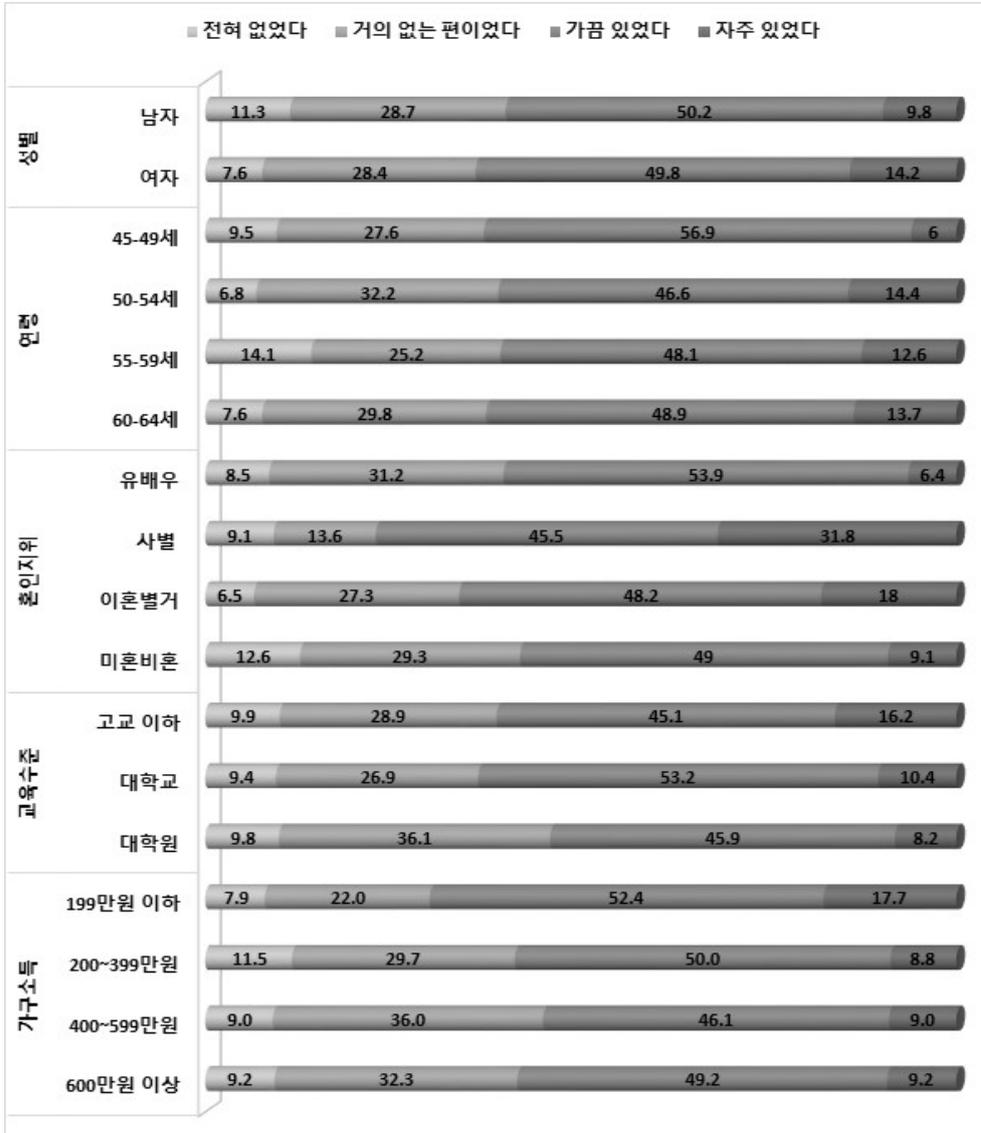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 전혀 없었다 | 거의 없는 편이 있다 | 가끔 있었다 | 자주 있었다 | χ^2 | (명) | 전혀 없었다 | 거의 없는 편이 있다 | 가끔 있었다 | 자주 있었다 | χ^2 | (명) | |
| 전체 | 9.6 | 28.6 | 50.0 | 11.8 | - | (500) | 10.5 | 33.8 | 43.6 | 12.1 | - | (800) | |
| 성별 | 남자 | 11.3 | 28.7 | 50.2 | 9.8 | 3.82 | (275) | 13.7 | 39.1 | 38.8 | 8.5 | 27.79*** | (402) |
| | 여자 | 7.6 | 28.4 | 49.8 | 14.2 | | (225) | 7.3 | 28.4 | 48.5 | 15.8 | | (398) |
| 연령 | 45-49세 | 9.5 | 27.6 | 56.9 | 6.0 | 11.45 | (116) | 12.9 | 33.3 | 40.5 | 13.3 | 6.52 | (210) |
| | 50-54세 | 6.8 | 32.2 | 46.6 | 14.4 | | (118) | 8.6 | 31.6 | 48.8 | 11.0 | | (209) |
| | 55-59세 | 14.1 | 25.2 | 48.1 | 12.6 | | (135) | 11.4 | 32.3 | 43.8 | 12.4 | | (201) |
| | 60-64세 | 7.6 | 29.8 | 48.9 | 13.7 | | (131) | 8.9 | 38.3 | 41.1 | 11.7 | | (180) |
| 혼인 지위 | 유배우 | 8.5 | 31.2 | 53.9 | 6.4 | 23.02** | (141) | 10.6 | 34.3 | 43.8 | 11.2 | - | (696) |
| | 사별 | 9.1 | 13.6 | 45.5 | 31.8 | | (22) | - | 20.0 | 40.0 | 40.0 | | (5) |
| | 이혼별거 | 6.5 | 27.3 | 48.2 | 18.0 | | (139) | 11.6 | 18.6 | 44.2 | 25.6 | | (43) |
| | 미혼비혼 | 12.6 | 29.3 | 49.0 | 9.1 | (198) | 8.9 | 39.3 | 41.1 | 10.7 | (56) | |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9.9 | 28.9 | 45.1 | 16.2 | 6.47 | (142) | 9.2 | 31.4 | 41.0 | 18.3 | 12.46 | (229) |
| | 대학교 | 9.4 | 26.9 | 53.2 | 10.4 | | (297) | 10.9 | 34.1 | 45.0 | 10.0 | | (469) |
| | 대학원 | 9.8 | 36.1 | 45.9 | 8.2 | | (61) | 11.8 | 37.3 | 43.1 | 7.8 | | (102) |
| 근로 여부 | 그렇다 | 10.5 | 31.3 | 48.7 | 9.5 | 14.62** | (390) | 11.7 | 34.4 | 44.1 | 9.7 | 11.46 ** | (555) |
| | 아니다 | 6.4 | 19.1 | 54.5 | 20.0 | | (110) | 7.8 | 32.2 | 42.4 | 17.6 | | (245) |
| 주관적 경제 수준 | 증상층 | 11.2 | 42.9 | 37.8 | 8.2 | 21.28** | (98) | 13.1 | 34.9 | 45.2 | 6.7 | 35.44*** | (252) |
| | 중하층 | 9.3 | 30.8 | 50.5 | 9.3 | | (182) | 10.6 | 36.0 | 43.4 | 10.0 | | (369) |
| | 하층 | 9.1 | 20.5 | 55.0 | 15.5 | | (220) | 6.7 | 27.4 | 41.9 | 24.0 | | (179)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단위: %)



<그림 6-8> 지난 1년간 우울 경험(1인가구)

지난 1년간의 외로움을 얼마나 느꼈는지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외로움 역시 혼인지위에 따른 차이가 가장 크다. 1인가구에서 사별은 90.9%가 가끔 혹은 자주 외로움을 느꼈다고 응답했으며, 이혼(63.4%), 유배우(62.4%), 미혼

(54.5%) 순으로 나타났다. 비취업자의 경우 73.8%가 외로움을 느꼈다고 응답했고, 자주 느낀 비율도 24.5%로 높게 나타났다. 취업은 소득활동을 통한 경제적 안정성보다 사회적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1인가구 비취업자의 경우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6-33> 지난 1년간 외로움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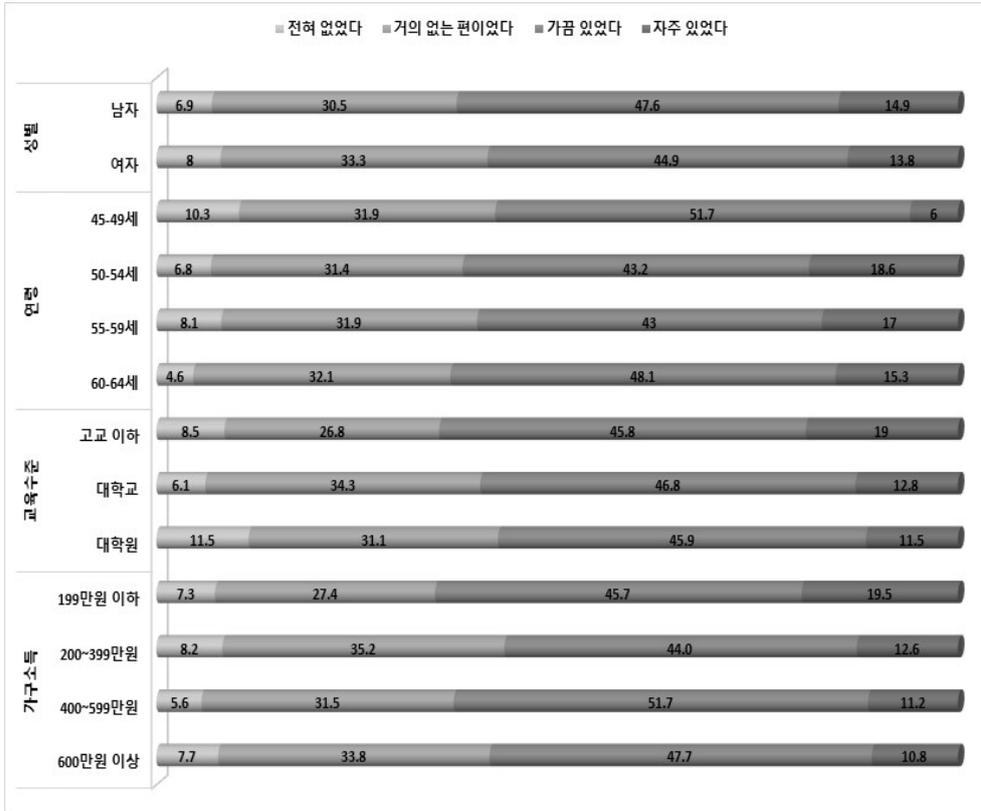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 전혀 없었다 | 거의 없는 편이었다 | 가끔 있었다 | 자주 있었다 | χ^2 | (명) | 전혀 없었다 | 거의 없는 편이었다 | 가끔 있었다 | 자주 있었다 | χ^2 | (명) | |
| 전체 | 7.4 | 31.8 | 46.4 | 14.4 | - | (500) | 12.8 | 35.9 | 39.9 | 11.5 | - | (800) | |
| 성별 | 남자 | 6.9 | 30.5 | 47.6 | 14.9 | 0.81 | (275) | 14.7 | 37.6 | 38.1 | 9.7 | 5.93 | (402) |
| | 여자 | 8.0 | 33.3 | 44.9 | 13.8 | | (225) | 10.8 | 34.2 | 41.7 | 13.3 | | (398) |
| 연령 | 45-49세 | 10.3 | 31.9 | 51.7 | 6.0 | 12.17 | (116) | 13.3 | 35.7 | 35.7 | 15.2 | 9.41 | (210) |
| | 50-54세 | 6.8 | 31.4 | 43.2 | 18.6 | | (118) | 10.0 | 39.2 | 39.7 | 11.0 | | (209) |
| | 55-59세 | 8.1 | 31.9 | 43.0 | 17.0 | | (135) | 12.9 | 32.8 | 42.8 | 11.4 | | (201) |
| | 60-64세 | 4.6 | 32.1 | 48.1 | 15.3 | | (131) | 15.0 | 35.6 | 41.7 | 7.8 | | (180) |
| 혼인 지위 | 유배우 | 4.3 | 33.3 | 53.2 | 9.2 | 31.19*** | (141) | 13.4 | 36.9 | 39.1 | 10.6 | - | (696) |
| | 사별 | 4.5 | 4.5 | 50.0 | 40.9 | | (22) | - | - | 80.0 | 20.0 | | (5) |
| | 이혼별거 | 4.3 | 32.4 | 41.0 | 22.3 | | (139) | 4.7 | 25.6 | 41.9 | 27.9 | | (43) |
| | 미혼비혼 | 12.1 | 33.3 | 44.9 | 9.6 | (198) | 12.5 | 33.9 | 44.6 | 8.9 | (56) | |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8.5 | 26.8 | 45.8 | 19.0 | 7.07 | (142) | 12.7 | 31.4 | 40.6 | 15.3 | 8.28 | (229) |
| | 대학교 | 6.1 | 34.3 | 46.8 | 12.8 | | (297) | 13.2 | 36.5 | 39.7 | 10.7 | | (469) |
| | 대학원 | 11.5 | 31.1 | 45.9 | 11.5 | | (61) | 10.8 | 43.1 | 39.2 | 6.9 | | (102) |
| 근로 여부 | 그렇다 | 7.4 | 35.1 | 45.9 | 11.5 | 16.36*** | (390) | 12.8 | 35.7 | 41.3 | 10.3 | 3.28 | (555) |
| | 아니다 | 7.3 | 20.0 | 48.2 | 24.5 | | (110) | 12.7 | 36.3 | 36.7 | 14.3 | | (245) |
| 주관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10.2 | 37.8 | 42.9 | 9.2 | 12.61* | (98) | 14.7 | 38.9 | 41.3 | 5.2 | 32.81*** | (252) |
| | 중하층 | 5.5 | 33.5 | 50.0 | 11.0 | | (182) | 13.6 | 35.5 | 40.4 | 10.6 | | (369) |
| | 하층 | 7.7 | 27.7 | 45.0 | 19.5 | | (220) | 8.4 | 32.4 | 36.9 | 22.3 | | (179)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단위: %)



<그림 6-9> 지난 1년간 외로움 경험(1인가구)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자살생각은 다인가구보다 1인가구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서적 상황과 관련해서 1인가구 남성의 자살생각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1년 자살생각을 “가끔” 혹은 “자주” 했다는 비율은 남성이 각각 21.5%, 2.2% 이며 여성은 11.6%, 3.1%였다. 1인가구 남성의 약 1/4 정도가 자살생각을 가끔 이상 한다는 것은 이들의 정서적,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사회적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1인가구에서 자살생각은 특히 교육수준이 낮고, 비취업, 주관적 경제적 수준이 하층일 경우 더 높게 나타나, 취약 조건들이 다차원적으로 중첩된 집단에서는 위험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인가구에서는 주관적 경제적 수준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하층의 21.8%가 가끔 혹은 자

주 자살생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상층과 중하층에서는 자살생각 경험이 10.7%, 11.7% 수준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표 6-34> 지난 1년간 자살생각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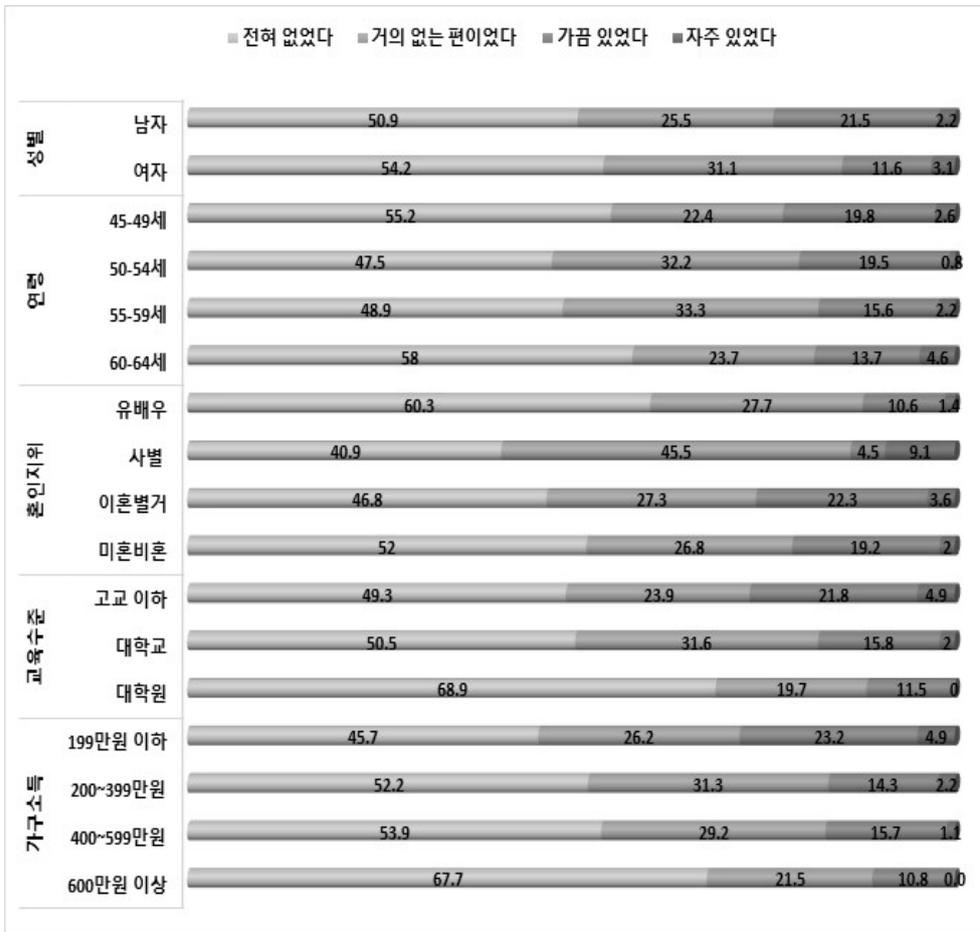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 전혀 없었다 | 거의 없는 편이 있다 | 가끔 있었다 | 자주 있었다 | χ^2 | (명) | 전혀 없었다 | 거의 없는 편이 있다 | 가끔 있었다 | 자주 있었다 | χ^2 | (명) | |
| 전체 | 52.4 | 28.0 | 17.0 | 2.6 | - | (500) | 63.9 | 22.5 | 12.1 | 1.5 | - | (800) | |
| 성별 | 남자 | 50.9 | 25.5 | 21.5 | 2.2 | 9.218* | (275) | 64.7 | 21.9 | 12.7 | 0.7 | 3.485 | (402) |
| | 여자 | 54.2 | 31.1 | 11.6 | 3.1 | | (225) | 63.1 | 23.1 | 11.6 | 2.3 | | (398) |
| 연령 | 45-49세 | 55.2 | 22.4 | 19.8 | 2.6 | (116) | 64.3 | 19.5 | 13.8 | 2.4 | (210) | | |
| | 50-54세 | 47.5 | 32.2 | 19.5 | 0.8 | (118) | 61.7 | 24.4 | 12.0 | 1.9 | (209) | | |
| | 55-59세 | 48.9 | 33.3 | 15.6 | 2.2 | (135) | 65.7 | 20.9 | 12.4 | 1.0 | (201) | | |
| | 60-64세 | 58.0 | 23.7 | 13.7 | 4.6 | (131) | 63.9 | 25.6 | 10.0 | 0.6 | (180) | | |
| 혼인 지위 | 유배우 | 60.3 | 27.7 | 10.6 | 1.4 | (141) | 64.4 | 22.7 | 11.8 | 1.1 | (696) | | |
| | 사별 | 40.9 | 45.5 | 4.5 | 9.1 | (22) | 60.0 | - | 20.0 | 20.0 | (5) | | |
| | 이혼별거 | 46.8 | 27.3 | 22.3 | 3.6 | (139) | 53.5 | 23.3 | 20.9 | 2.3 | (43) | | |
| | 미혼비혼 | 52.0 | 26.8 | 19.2 | 2.0 | (198) | 66.1 | 21.4 | 8.9 | 3.6 | (56) | |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49.3 | 23.9 | 21.8 | 4.9 | (142) | 59.8 | 23.1 | 14.0 | 3.1 | (229) | | |
| | 대학교 | 50.5 | 31.6 | 15.8 | 2.0 | 15.594* | (297) | 66.3 | 22.2 | 10.4 | 1.1 | 9.778 | (469) |
| | 대학원 | 68.9 | 19.7 | 11.5 | - | (61) | 61.8 | 22.5 | 15.7 | - | (102) | | |
| 근로 여부 | 그렇다 | 56.2 | 27.4 | 14.1 | 2.3 | 14.306** | (390) | 63.6 | 21.8 | 13.2 | 1.4 | 2.035 | (555) |
| | 아니다 | 39.1 | 30.0 | 27.3 | 3.6 | (110) | 64.5 | 24.1 | 9.8 | 1.6 | (245) | | |
| 주관적 경제수준 | 중상층 | 66.3 | 24.5 | 8.2 | 1.0 | (98) | 72.2 | 17.1 | 10.3 | 0.4 | (252) | | |
| | 중하층 | 54.4 | 30.2 | 14.8 | 0.5 | 24.312*** | (182) | 65.3 | 23.0 | 10.3 | 1.4 | 29.468*** | (369) |
| | 하층 | 44.5 | 27.7 | 22.7 | 5.0 | (220) | 49.2 | 29.1 | 18.4 | 3.4 | (179) | |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단위: %)



<그림 6-10> 지난 1년간 자살생각 경험(1인가구)

나. 여가 활동

여가시간과 관련하여 평소 자신의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했다. 1인가구의 35.2%, 다인가구는 38.1%가 부족하다고 답했는데,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1인가구에서 여가시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변수는 근로 여부이다. 비취업의 경우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충분함+매우 충분) 응답한 비율은 77.3%였으나 취업자의 경우 62.6%가 충분하다고 응답했다.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은 소득과의 관계에서 트레이드 오프관계가 있는데, 다인가구에서도 취업자와 비취업자의 여가충분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다인가구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64.8%), 연령이 높을수록,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평소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했다.

<표 6-35> 가구유형별 여가시간 충분성

(단위: %, 명)

| | 가구유형 | 매우 부족함 | 부족함 | 충분함 | 매우 충분함 | χ^2 | (명) |
|------|------|-----------|------|------|-----------|----------|-------|
| 여가시간 | 1인가구 | 4.6 | 28.8 | 60.0 | 6.6 | 3.141 | (500) |
| | 다인가구 | 5.6 | 32.5 | 56.1 | 5.8 | | (800)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표 6-36> 인구사회학적 요인별 여가시간 충분성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매우 부족 | 부족 | 충분 | 매우 충분 | χ^2 | (명) | 매우 부족 | 부족 | 충분 | 매우 충분 | χ^2 | (명) |
| 전체 | 4.6 | 28.8 | 60.0 | 6.6 | - | (500) | 5.6 | 32.5 | 56.1 | 5.8 | - | (800) |
| 성별 | 남자 | 5.8 | 29.1 | 57.1 | 8.0 | (275) | 5.0 | 36.1 | 56.0 | 3.0 | | (402) |
| | 여자 | 3.1 | 28.4 | 63.6 | 4.9 | 4.67 (225) | 6.3 | 28.9 | 56.3 | 8.5 | 14.52 | (398) |
| 연령 | 45-49세 | 7.8 | 31.0 | 55.2 | 6.0 | (116) | 9.0 | 37.6 | 48.6 | 4.8 | | (210) |
| | 50-54세 | 3.4 | 31.4 | 58.5 | 6.8 | (118) | 2.4 | 34.0 | 57.4 | 6.2 | 19.66* | (209) |
| | 55-59세 | 4.4 | 28.1 | 60.0 | 7.4 | 6.10 (135) | 7.5 | 30.8 | 55.7 | 6.0 | | (201) |
| | 60-64세 | 3.1 | 25.2 | 65.6 | 6.1 | (131) | 3.3 | 26.7 | 63.9 | 6.1 | | (180) |
| 혼인 지위 | 미혼비혼 | 4.6 | 26.7 | 62.6 | 6.2 | (198) | 3.9 | 23.1 | 65.4 | 7.7 | | (56) |
| | 유배우 | 4.2 | 30.6 | 63.2 | 2.1 | 11.67 (141) | 5.7 | 32.9 | 55.6 | 5.9 | 4.50 | (696) |
| | 사별이혼 | 5.0 | 29.8 | 54.0 | 11.2 | (161) | 6.3 | 37.5 | 54.2 | 2.1 | | (48)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5.6 | 25.4 | 61.3 | 7.7 | (142) | 7.0 | 31.4 | 56.8 | 4.8 | | (229) |
| | 대학교 | 4.7 | 31.0 | 58.2 | 6.1 | 3.64 (297) | 5.3 | 33.5 | 54.8 | 6.4 | 3.09 | (469) |
| | 대학원 | 1.6 | 26.2 | 65.6 | 6.6 | (61) | 3.9 | 30.4 | 60.8 | 4.9 | | (102) |
| 근로 여부 | 그렇다 | 4.6 | 31.8 | 58.2 | 5.4 | (390) | 5.9 | 39.1 | 53.2 | 1.8 | | (555) |
| | 아니다 | 4.5 | 18.2 | 66.4 | 10.9 | 10.44* (110) | 4.9 | 17.6 | 62.9 | 14.7 | 76.60*** | (245) |
| 가구 소득 | 199만이하 | 4.3 | 20.7 | 65.2 | 9.8 | (164) | 6.0 | 23.9 | 64.2 | 6.0 | | (67) |
| | 200~399만 | 4.9 | 33.5 | 56.0 | 5.5 | (182) | 6.6 | 35.2 | 52.4 | 5.7 | 7.68 | (227) |
| | 400~599만 | 5.6 | 31.5 | 59.6 | 3.4 | 11.72 (89) | 6.4 | 31.1 | 57.9 | 4.6 | | (280) |
| | 600만 이상 | 3.1 | 32.3 | 58.5 | 6.2 | (65) | 3.5 | 34.1 | 55.3 | 7.1 | | (226) |
| 주관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2.0 | 25.5 | 66.3 | 6.1 | (98) | 4.0 | 29.4 | 58.3 | 8.3 | | (252) |
| | 중하층 | 3.3 | 34.6 | 56.6 | 5.5 | 9.58 (182) | 4.6 | 35.0 | 55.8 | 4.6 | 14.33* | (369) |
| | 하층 | 6.8 | 25.5 | 60.0 | 7.7 | (220) | 10.1 | 31.8 | 53.6 | 4.5 | | (179)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베이비부머들의 여가시간 활동에서 1인가구, 다인가구 모두 TV 시청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외식, 쇼핑 등의 활동들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 나들이 활동에서는 절반정도의 응답자가 1년에 1~3회 여행나들이 활동을 한다고 응답했고, 한 달에 1-3회 여행과 나들이를 즐기는 집단도 25~26%수준을 보였다. 1년에 1-3회 이상 활동하는 집단은 1인가구(79.2%), 다인가구(84.9%)로 다인가구의 활동 비율이

더 높았다. 영화, 미술관, 운동경기 관람 등 문화관람에서는 1년 동안 거의 참여하지 않은 비율은 1인가구에서 높지만 한 달에 1~3회 이상 자주 참여하는 집단은 1인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스포츠활동, 종교활동, 봉사활동 참여에서는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차이가 크지 않다.

<표 6-37> 여가 활동의 유형(1인가구)

(단위: %, 명)

| | 가구유형 | 거의 안함 | 1년에 1~3회 | 한 달에 1~3회 정도 | 일주일에 1~3회 정도 | 매일 | χ^2 | (명) |
|------------------------|------|-------|-------------|--------------------|--------------------|------|----------|-------|
| | | | | | | | | |
| TV/비디오 | 1인가구 | 5.6 | 0.8 | 4.4 | 14.8 | 74.4 | 2.747 | (500) |
| | 다인가구 | 4.1 | 0.5 | 4.6 | 16.9 | 73.9 | | (800) |
| 외식쇼핑 | 1인가구 | 8.4 | 10.6 | 51.6 | 26.0 | 3.4 | 9.211 | (500) |
| | 다인가구 | 5.3 | 10.9 | 55.6 | 26.5 | 1.8 | | (800) |
| 여행나들이 | 1인가구 | 20.8 | 48.0 | 25.2 | 5.6 | 0.4 | 10.755* | (500) |
| | 다인가구 | 15.1 | 54.5 | 26.1 | 3.8 | 0.5 | | (800) |
| 취미활동 (그림그리기, 독서) | 1인가구 | 42.6 | 18.0 | 22.8 | 10.6 | 6.0 | 8.983 | (500) |
| | 다인가구 | 39.1 | 24.9 | 20.8 | 10.5 | 4.8 | | (800) |
| 스포츠활동 | 1인가구 | 31.4 | 17.0 | 24.4 | 20.2 | 7.0 | 8.334 | (500) |
| | 다인가구 | 25.6 | 22.3 | 24.5 | 19.6 | 8.0 | | (800) |
| 문화관람 | 1인가구 | 30.8 | 38.4 | 26.6 | 3.8 | .4 | 12.121** | (500) |
| | 다인가구 | 26.6 | 48.1 | 22.1 | 2.8 | .4 | | (800) |
| 종교활동 | 1인가구 | 64.8 | 9.2 | 11.6 | 11.6 | 2.8 | 3.749 | (500) |
| | 다인가구 | 61.1 | 8.9 | 12.0 | 13.6 | 4.4 | | (800) |
| 봉사활동 | 1인가구 | 77.0 | 13.4 | 6.2 | 3.0 | 0.4 | 7.077 | (500) |
| | 다인가구 | 71.0 | 17.6 | 8.0 | 2.6 | 0.8 | | (800)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여가활동 중에서 1인가구의 참여도가 높고 집 밖에서 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서 문화관람에 대해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문화관람은 “조용한 함께함”(silent togetherness)(Snell, 2015)을 누릴 수 있는 여가활동으로서, 타인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있지만 언어적 소통이 없이 함께 공통의 관람의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1인가구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한 달에 1~3회 이상 참여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다인가구에

서는 남녀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6-38> 문화관람 참여율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거의 안함 | 1년에 1~3회 | 1달에 1회 이상 | χ^2 | (명) | 거의 안함 | 1년에 1~3회 | 1달에 1회 이상 | χ^2 | (명) | |
| 전체 | 30.8 | 38.4 | 30.8 | - | (500) | 26.6 | 48.1 | 25.3 | - | (800) | |
| 성별 | 남자 | 31.6 | 40 | 28.4 | 1.724 | 21.1 | 46.8 | 32.1 | 24.397*** | (275) | |
| | 여자 | 29.8 | 36.4 | 33.8 | | (225) | 32.2 | 49.5 | | 18.3 | (398) |
| 연령 | 45-49세 | 26.7 | 41.4 | 31.9 | 3.981 | 23.8 | 46.2 | 30 | 7.008 | (116) | |
| | 50-54세 | 31.4 | 35.6 | 33.1 | | (118) | 26.8 | 49.8 | | 23.4 | (209) |
| | 55-59세 | 29.6 | 37 | 33.3 | | (135) | 27.4 | 45.3 | | 27.4 | (201) |
| | 60-64세 | 35.1 | 39.7 | 25.3 | | (131) | 28.9 | 51.7 | | 19.4 | (180) |
| 혼인 지위 | 미혼비혼 | 29.8 | 38.9 | 31.3 | 16.466** | 23.27 | 48.2 | 28.6 | .683 | (198) | |
| | 유배우 | 21.3 | 39.0 | 39.7 | | (141) | 26.7 | 42.3 | | 25.0 | (696) |
| | 사별이혼 | 40.4 | 37.3 | 22.4 | | (161) | 29.2 | 45.8 | | 25.3 | (48)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38.7 | 39.4 | 21.1 | 12.440* | 36.7 | 45 | 18.4 | 20.207*** | (142) | |
| | 대학교 | 29.3 | 38 | 32.3 | | (297) | 23.5 | 49.3 | | 27.2 | (469) |
| | 대학원 이상 | 19.7 | 37.7 | 42.6 | | (61) | 18.6 | 50 | | 31.4 | (102) |
| 근로 여부 | 그렇다 | 29.7 | 39 | 31 | .928 | 23.8 | 48.1 | 28.1 | 11.358** | (390) | |
| | 아니다 | 34.5 | 36.4 | 28.1 | | (110) | 33.1 | 48.2 | | 18.7 | (245) |
| 가구 소득 | 199만 이하 | 37.2 | 38.4 | 23.8 | 19.343** | 46.3 | 38.8 | 14.9 | 27.699*** | (164) | |
| | 200~399만 | 30.2 | 43.4 | 25.8 | | (182) | 30 | 47.6 | | 22.5 | (227) |
| | 400~599만 | 29.2 | 30.3 | 40.5 | | (89) | 26.8 | 48.9 | | 24.2 | (280) |
| | 600만 이상 | 18.5 | 35.4 | 46.2 | | (65) | 17.3 | 50.4 | | 32.3 | (226) |
| 주관적 경제 수준 | 중상층 이상 | 27.6 | 31.6 | 40.8 | 17.171** | 18.3 | 49.6 | 32.2 | 19.915*** | (98) | |
| | 중하층 | 23.1 | 45.1 | 31.3 | | (182) | 28.5 | 47.7 | | 23.9 | (369) |
| | 하층 | 38.6 | 35.9 | 25 | | (220) | 34.6 | 46.9 | | 18.4 | (179)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여가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는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 응답자중 41.1%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여가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일이 바쁜 등의 이유도 9.6%로 나타났다. 적당한 시설, 프로그램의 부족, 정보부족, 혼자 할 만한 프로그램 없음 때문으로 여가이용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도 각각

10.8%, 6.6%, 5.4%, 14.6% 로 서비스 개선을 통해 충족될 수 있는 비율은 약 37.4%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부담 때문에 여가가 제약된다는 응답은 낮았으며, 대학원졸의 경우 혼자 할 만한 것이 없다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24.6%). 또 가구소득, 주관적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는 응답은 적었으며, 일이 바빠서(시간부족)라고 응답한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표 6-39> 여가활동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 | | χ ² | (명) | |
|-----------------|-----------|------------|------------------|---------------------|-------------|------------------|--------------------|------|----------------|----------|--------|
| | 일이 너무 바빠서 | 경제적 부담 때문에 | 적당한 여가 프로그램이 없어서 | 적당한 여가시설이 나 장소가 없어서 | 함께할 친구가 없어서 | 여가와 관련한 정보가 부족해서 | 혼자서 할 만한 것이 별로 없어서 | 기타 | | | |
| 전체 | 9.6 | 41.0 | 10.8 | 6.6 | 8.2 | 5.4 | 14.6 | 3.8 | - | (500) | |
| 성별 | 남자 | 9.1 | 40.4 | 11.6 | 5.5 | 7.6 | 6.2 | 17.1 | 2.5 | 7.89 | (275) |
| | 여자 | 10.2 | 41.8 | 9.8 | 8.0 | 8.9 | 4.4 | 11.6 | 5.3 | | (225) |
| 연령 | 45-49세 | 13.8 | 35.3 | 12.9 | 6.9 | 4.3 | 5.2 | 16.4 | 5.2 | 33.02* | (116) |
| | 50-54세 | 7.6 | 44.1 | 10.2 | 5.9 | 12.7 | 7.6 | 9.3 | 2.5 | | (118) |
| | 55-59세 | 8.9 | 45.2 | 4.4 | 11.1 | 8.1 | 4.4 | 14.8 | 3.0 | | (135) |
| | 60-64세 | 8.4 | 38.9 | 16.0 | 2.3 | 7.6 | 4.6 | 17.6 | 4.6 | | (131) |
| 혼인 지위 | 유배우 | 14.2 | 36.9 | 13.5 | 8.5 | 5.7 | 7.8 | 10.6 | 2.8 | - | (141) |
| | 사별 | 4.5 | 54.5 | 9.1 | 4.5 | 4.5 | 9.1 | 9.1 | 4.5 | | (22) |
| | 이혼, 별거 | 8.6 | 43.9 | 7.9 | 4.3 | 12.9 | 2.9 | 15.8 | 3.6 | | (139) |
| 교육 수준 | 미혼, 비혼 | 7.6 | 40.4 | 11.1 | 7.1 | 7.1 | 5.1 | 17.2 | 4.5 | - | (198) |
| | 고교 이하 | 5.6 | 50.7 | 11.3 | 4.2 | 7.0 | 4.2 | 13.4 | 3.5 | | (142) |
| | 대학교 | 10.8 | 40.4 | 9.4 | 7.7 | 8.1 | 6.4 | 13.1 | 4.0 | | 24.03* |
| 근로 여부 | 대학원 | 13.1 | 21.3 | 16.4 | 6.6 | 11.5 | 3.3 | 24.6 | 3.3 | 7.05 | (61) |
| | 그렇다 | 11.3 | 40.3 | 10.8 | 6.7 | 8.5 | 4.9 | 14.1 | 3.6 | | (390) |
| 가구 소득 | 아니다 | 3.6 | 43.6 | 10.9 | 6.4 | 7.3 | 7.3 | 16.4 | 4.5 | (110) | |
| | 199만 이하 | 2.4 | 54.9 | 9.8 | 3.7 | 8.5 | 4.9 | 14.0 | 1.8 | 30.69*** | (164) |
| | 200~399만 | 10.4 | 41.2 | 12.1 | 7.1 | 5.5 | 3.8 | 15.9 | 3.8 | | (182) |
| | 400~599만 | 10.1 | 34.8 | 3.4 | 9.0 | 11.2 | 7.9 | 15.7 | 7.9 | | (89) |
| 600만 이상 | 24.6 | 13.8 | 20.0 | 9.2 | 10.8 | 7.7 | 10.8 | 3.1 | (65) | | |
| 주관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16.3 | 17.3 | 13.3 | 12.2 | 10.2 | 9.2 | 14.3 | 7.1 | 30.28*** | (98) |
| | 중하층 | 11.0 | 36.3 | 14.3 | 6.0 | 8.8 | 6.0 | 13.7 | 3.8 | | (182) |
| | 하층 | 5.5 | 55.5 | 6.8 | 4.5 | 6.8 | 3.2 | 15.5 | 2.3 | | (220)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다. 생활 만족도

일반적으로 삶의 만족은 안정적인 경제적 수준, 좋은 건강, 좋은 가족관계 등의 함수로 나타나지만, 사회에 따라 또 해당 사회 내에서도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노년층의 경우 혼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만족은 파트너가 있는 사람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Jakobsson et al., 2004) 성별과 연령을 교차해 보면 젊은 층에서는 여성의 만족도가 더 높고, 45세 이상에서는 남성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Inglehart, 2002).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여성은 사회적 관계 통합의 정도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고, 남성은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되기도 했다(Gaymu and Springer, 2012). 166개국 180만이 넘는 사례를 연구한 Joshanloo and Jovanovic(2020)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경제적으로 여성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에서 사회적 관계에의 통합도가 여성에서 더 높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다. 행복이 사회경제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삶의 만족도는 성별, 연령, 혼인지위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2019년 (13세 이상) 여가 생활만족도(매우 만족, 약간 만족)는 남성(29.4%)이 여성(28.2%)보다 더 높고, 가족관계 만족도도 남성(59.0%)이 여성(54.4%)보다 높게 나타났다.²¹⁾ 흥미로운 점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서는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국가통계지표중의 하나인 삶의 만족도(한국 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를 참조했을 때 삶의 만족도는 여성이 6.1점으로 남성 5.9점보다 높아 여가만족, 가족관계 만족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와 같은 특징은 OECD Better Life index (2016) 결과에서도 나타나는데, 한국인의 생활만족도는 전체 평균 5.9점이며, 여성은 6.1점, 남성은 5.6점으로 나타나 여성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기존의 1인가구 연구에서 생활만족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도권 및 광역시 거주하는 25~59세 1인가구 2,000명에 대해 1인가구 삶의 만족도를 분석한 서정주·

21) 일반적으로 삶의 만족도는 여가만족도와 가족관계만족도와 높은 상관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동일 조사에서는 측정되지 못했다.

김예구(2018) 연구에 따르면, 생활만족도는 여성이 높고 경제 만족도는 남성이 높다. 여성은 연령에 상관없이 70%이상 만족도를 보이고 45~49세도 73.7%의 만족도를 보인다. 반면 남성의 만족도는 청년기부터 점차 하강하여 45~49세가 되면 53.0%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했다.

또, 서울 거주 만 20세 이상 60세미만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변미리 외(2014)의 조사에서도 “서울에서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63.8%였고, 남자는 61.7%, 여자는 66.0%로 여성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70.3%, 30대 66.5% 40대 63.3% 50대가 44.9%,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연령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도 미혼(66.1%)일 때가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기혼은 55.2%, 이혼/별거/사별은 38.8%로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의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생활 만족도를 비교하면(<표 6-40>), 1인가구는 건강상태와 인간관계에서 다인가구보다 만족도가 낮은 특징을 보였다. 건강만족은 1인가구는 54.4%, 다인가구는 62.4%로 다인가구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인간관계 만족은 1인가구는 58.0%, 다인가구는 67.5%로 나타나, 1인가구의 인간관계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²²⁾ 경제상태와 여가 생활에서 다인가구와 1인가구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22) 앞 절의 분석에서 가족관계 만족도를 가족관계별로 질문했을 때 역시 다인가구의 만족도가 1인가구의 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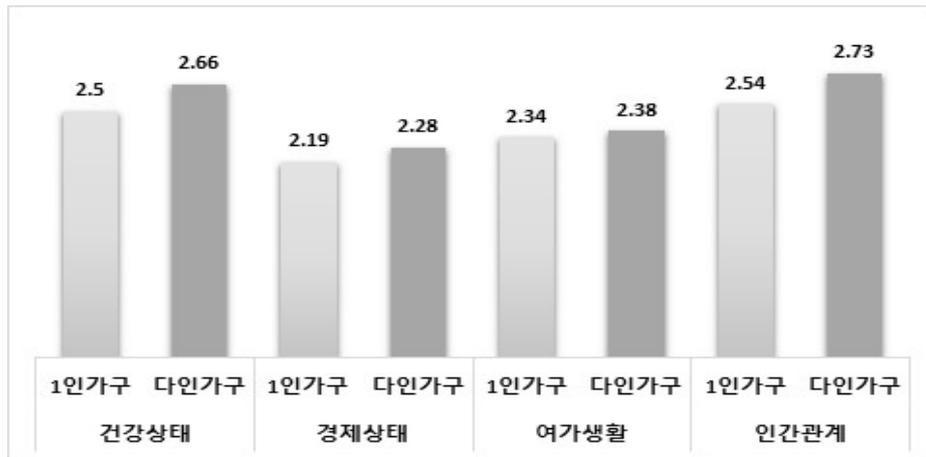
<표 6-40> 삶의 영역별 만족도

(단위: %, 명)

| 영역 | 가구유형 | 전혀 만족 하지 않는다 | 별로 만족 하지 않는다 | 약간 만족 한다 | 매우 만족 한다 | 평균 | t | (명) |
|-------|------|--------------------|--------------------|-------------|----------------|------|-----------|-------|
| 건강상태 | 1인가구 | 8.6 | 37.0 | 50.0 | 4.4 | 2.50 | -3.97*** | (500) |
| | 다인가구 | 4.6 | 33.0 | 54.0 | 8.4 | 2.66 | | (800) |
| 경제상태 | 1인가구 | 18.8 | 45.6 | 33.0 | 2.6 | 2.19 | -1.94 | (500) |
| | 다인가구 | 15.1 | 44.8 | 37.4 | 2.8 | 2.28 | | (800) |
| 여가 생활 | 1인가구 | 10.4 | 48.2 | 38.2 | 3.2 | 2.34 | -1.007 | (500) |
| | 다인가구 | 9.8 | 45.5 | 41.5 | 3.3 | 2.38 | | (800) |
| 인간관계 | 1인가구 | 6.2 | 35.8 | 52.4 | 5.6 | 2.54 | -4.101*** | (500) |
| | 다인가구 | 2.9 | 29.6 | 59.1 | 8.4 | 2.73 | | (800)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단위: 점)



<그림 6-11> 삶의 영역별 만족도

현재의 삶에서 얼마나 행복한가를 0~10점으로 측정했을 때, 1인가구 평균은 5.6점, 다인가구는 6.2점으로 나타나, 다인가구가 더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1>). 1인가구 내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혼인지위에서는 유배우>미혼비혼>사별이혼 순으로 행복감이 높았으며, 교육

수준에서는 대학원 이상 고학력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행복감이 높았다. 취업자가 미취업자에 비해 행복수준이 높았으며, 주관적 경제수준에서도 하층<중하층<중상층 순으로 행복감이 높았다. 다인가구에서 남녀 행복감 평균은 여성이 약간 높았으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또 1인가구에서는 근로여부에 따른 행복도 차이가 유의했으나, 취업/미취업이 행복감에 큰 차이를 낳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1> 행복감 수준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다인가구 | | |
|---------------------|-----------------------|-----------|-------|------|-----------|-------|
| | 평균 | F | (명) | 평균 | F | (명) |
| 전체 | 5.64 | - | (500) | 6.18 | - | (800) |
| 성별 | 남자 | -3.297*** | (275) | 6.17 | -1.165 | (402) |
| | 여자 | | (225) | 6.20 | | (398) |
| 연령 | 45-49세 | 1.61 | (116) | 6.40 | 1.67 | (210) |
| | 50-54세 | | (118) | 6.02 | | (209) |
| | 55-59세 | | (135) | 6.03 | | (201) |
| | 60-64세 | | (131) | 6.28 | | (180) |
| 혼인 지위 | 미혼비혼 ¹ | 14.539*** | (198) | 6.06 | 1.21 | (52) |
| | 유배우동거 ² | | (141) | 6.20 | | (700) |
| | 사별이혼 ³ | | (161) | 6.02 | | (48)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¹ | 3.662 | (142) | 5.87 | 4.896 | (229) |
| | 대학교 ² | | (297) | 6.25 | | (469) |
| | 대학원 이상 ³ | | (61) | 6.56 | | (102) |
| 근로 여부 | 그렇다 | -3.236** | (390) | 6.19 | -1.148 | (555) |
| | 아니다 | | (110) | 6.17 | | (245) |
| 가구 소득 | 199만 이하 ¹ | 20.75*** | (164) | 5.12 | 20.84*** | (67) |
| | 200~399만 ² | | (182) | 5.79 | | (227) |
| | 400~599만 ³ | | (89) | 6.13 | | (280) |
| | 600만 이상 ⁴ | | (65) | 6.97 | | (226) |
| 주관 적 경제 수준 | 중상층 이상 ¹ | 33.712*** | (98) | 7.12 | 50.322*** | (252) |
| | 중하층 ² | | (182) | 6.15 | | (369) |
| | 하층 ³ | | (220) | 4.95 | | (179)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생활 만족의 다양한 차원에 대해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각 변인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했다(<표 6-42>). 먼저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차이를 독립변수로 포함시켜 다른 변인을 통제했을 때 만족도와 행복감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표 6-42>). 건강상태 만족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며 다인가구와 1인가구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앞의 t-test에서 다인가구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은 교육수준과 주관적 경제수준에서 다인가구의 특성이 유리한 집단이 더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제상태 만족은 여성,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높았고, 다인가구에 비해 1인가구일 때 오히려 만족도가 더 높았다. 베이비부머 세대에 다인가구는 자녀의 학업, 취업, 혼인 등 가족관계와 관련된 생애과업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 상황 등을 통제했을 때 1인가구보다 다인가구의 만족도가 더 낮았다.

여가 생활 만족은 여성, 60~64세 미혼/비혼, 미취업일 때 높았으며, (주관적)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여가 생활에서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인간관계 역시 여성, 60~64세,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높다.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했을 때, 혼인지위는 인간관계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혼일 때 여가 생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과 대비된다. 다인가구와 1인가구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전반적인 행복감은 여성, 유배우,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높다. 행복감뿐 아니라 다른 삶의 영역의 만족도에서도 여성과 중상층 집단은 만족도가 높은 집단이다. 행복감에서는 두 변수뿐 아니라 혼인지위가 주요하고, 유배우일 때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삶의 개별 영역별 만족도와 전반적인 행복감을 결정하는 요인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베이비부머의 행복감을 결정하는 데 있어 유배우 즉 기혼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베이비부머들은 보편혼, 평생혼의 가족주의적 사회규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혼인해서 배우자가 있다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중장년기에도 여전히 미혼이거나 사별, 이혼, 별거 등으로 배우자와 분리되었을 때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또, 중장년 이후 혼자 사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중요한 타자, 친밀한 관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6-42〉 생활 만족의 다양한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항목 | | 건강상태 | 경제상태 | 여가 생활 | 인간관계 | 행복감 |
|-----------------|--------|----------|----------|----------|--------------------|-----------|
| | | coef | coef | coef | coef | coef |
| 성별 | 여자 | .650 | .111** | .099* | .099** | .385*** |
| 연령 | 50-54세 | -.624 | -.089 | -.015 | -.046 ⁺ | -.305 |
| | 55-59세 | .057 | -.075 | .085 | .071 | -.220 |
| | 60-64세 | .104 | .040 | .178** | .182*** | -.101 |
| 혼인 지위 | 유배우 | .054 | -.012 | -.130* | -.033 | .368* |
| | 사별이혼별거 | -.069 | -.086 | -.260*** | -.070 | -.182 |
| 교육 수준 | 대학교 | .104* | .055 | .021 | .023 | .029 |
| | 대학원 이상 | .266*** | .57 | .036 | .028 | .208 |
| 근로 여부 | 일함 | .031 | .018 | -.092* | .078 ⁺ | .202 |
| 주관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144*** | -.473** | -.311*** | -.280*** | -.987*** |
| | 하층 | -.395*** | -1.075** | -.605*** | -.494*** | -2.076*** |
| 가구 유형 | 다인가구 | .043 | -.120** | -.056 | .089 | -.071 |
| | 상수 | 2.560*** | 2.797** | 2.772*** | 2.740*** | 6.66*** |
| R-squared | | .095 | .307 | 0.130 | 0.106 | 0.178 |

주: 1) 기준변수는 성별(남성), 연령(45~49세), 혼인지위(미혼/비혼), 교육수준(고졸 이하), 근로여부(비취업), 주관적 경제수준(중상층), 가구유형(1인가구)임.

2) p<.05 *, p<.01 **, p<.001 ***

4. 소결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관계망을 알아보기 위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있는지 조사한 결과 1인가구가 다인가구보다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목돈이 필요할 때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경우가 1인가구는 30% 정도로 높았는데 이는 다인가구도 20% 이상으로 나타나 1인가구나 다인가구 모두에게 어려운 일일 수 있다. 또한, 다른 일상생활 도움이나 정서적 도움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비율보다 경제적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상생활 도움이나 정서적 도움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경우가 1인가구는 각각 20% 가까이 나타났는데 이는 다인가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의 약 2배 가까이 되는 수준으로 다인가구에 비해 1인가구는 주변에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이 높은 수준이다. 이는 평소 생활에서는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 있으나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는 경우가 많다면 어려움을 겪거나 도움이 필요한 순간 다인가구와 1인가구가 느끼고 경험하는 어려움의 크기나 극복 과정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6-43> 도움이 필요할 때 1인가구와 다인가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단위: %)

| 구분 | 1인가구(n=500) | | | | | 다인가구(n=800) | | | | |
|---------|-------------|------|------|------|--------|-------------|------|------|------|--------|
| | 없음 | 1-2명 | 3-4명 | 5-9명 | 10명 이상 | 없음 | 1-2명 | 3-4명 | 5-9명 | 10명 이상 |
| 경제적 도움 | 30.4 | 55.4 | 11.4 | 1.8 | 1.0 | 22.6 | 59.1 | 15.3 | 1.8 | 1.3 |
| 일상생활 도움 | 19.2 | 61.6 | 16.4 | 1.8 | 1.0 | 8.6 | 63.5 | 22.6 | 4.0 | 1.3 |
| 정서적 도움 | 17.0 | 60.8 | 18.4 | 3.2 | 0.6 | 9.0 | 61.8 | 24.3 | 3.6 | 1.4 |

1인가구는 현재보다는 더 다양한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과반으로 나타났는데 그중에서 더 맺고 싶은 관계로는 친구를 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애인, 이웃 순으로 나타나 관계에 대한 욕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현재보다 다양한 관계를 적극적으로 맺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었고, 남성은 애인, 친구 순으로, 여성은 친구, 애인 순으로 성별이 원하는 관계가 달랐다.

다. 특히 여성은 친구 관계를 더 맺고 싶어 하는 경우의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활동에 있어서는 SNS 글쓰기는 많이 하지 않는 응답에 집중되고, 인터넷 정보검색은 자주하는 응답에 집중되어 1인가구 내에서 그룹 간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채팅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은 성별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채팅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은 다른 인터넷 활동보다 양방향 교류가 조금 더 활발할 수 있는 활동들로 여성이 남성보다 활발하고, 경제적 상황이 좋을수록 활동도 활발한 경우가 많았다. 이를 소통의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앞서 가족이나 친구와의 교류에 대한 결과에서도 보았듯이 경제적 상황이 영향을 미치는 비슷한 맥락을 찾아볼 수 있고 여성 1인가구가 남성 1인가구보다는 좀 더 활발한 소통이나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이라 단체, 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험에서도 나타났는데 종교 모임을 제외하고는 향우회나 동창회, 동호회 등 경제활동에 따른 참여 비율 차이를 볼 수 있었다. 동호회, 향우회, 동창회에서만 남성의 참여 비율이 여성의 참여 비율보다 높았고 나머지 모임이나 단체에 참여 경험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느끼는 친밀감은 남성이 더 높게 느끼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동창회, 인터넷 커뮤니티, 계모임이나 친목회 등을 통해서 남성 여성보다 친밀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이 참여 비율은 여성보다 낮지만 일단 참여하면 더 깊은 친밀감을 느끼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여성은 소통이나 교류의 폭이 남성보다 넓고, 남성은 직접 교류하는 폭은 적을 수 있으나 대신 자신이 속한 곳에서 친밀함을 느끼기 때문에, 1인가구의 우울이나 외로움 등의 결과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남성이 다양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점은 1인가구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모임에 참여하는 비율에서 혼인지위에 따른 차이가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중 배우자가 있는 1인가구가 단체나 모임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사별이나 이혼 및 별거한 그룹도 배우자가 있을 당시에는 단체나 모임에 참가하는 활동이 더 활발했을 것을 생각해 본다면, 혼인지위의 변화와 함께 소속되어 있던 단체나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되는 시점이

교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혼인지위의 변화 시기는 자의든 그렇지 않은 배우자라는 존재를 잃은 것에 대한 상실감과 함께 타인과의 교류도 감소하는 시점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외로움이나 우울 결과에서도 혼인지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것을 고려한다면 사별이나 이혼 및 별거 한 1인가구의 외부와 교류 감소로 인한 정서적인 변화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절에서는 1인가구의 삶의 질을 정서와 여가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다음으로 다양한 생활영역에서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1인가구는 정서적으로 외로움, 자살생각의 비율이 다인가구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다인가구의 건강성에 비해 1인가구가 병리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외로움을 가끔 혹은 자주 경험한다는 다인가구 응답자도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주의가 확산된 현대 사회에서는 같이 살면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normal)”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외로움 자체는 병리적인 현상이 아니지만 외로움이 고립과 배제, 불안과 소외로 가지 않도록 제도적인 지원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인가구에서는 자살생각을 가끔, 혹은 자주 했다는 비율도 높게 나타나는 데, 사생활 보호가 되면서도 접근성이 높은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적절한 상담 및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여가영역에서는 여가시간 충분성에서는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고 1인가구 내부의 차이도 뚜렷하지 않았다. 다만 취업변수와 같이 시간과 직접 연관이 있는 변수에서는 취업자보다 미취업자가 더 충분하다고 응답했다. 여가의 유형에서는 특히 여행 나들이와 문화관람에서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참여빈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여행나들이는 1년에 1~3회 하는 집단의 비율이 높았는데, 다인가구가 더 많이 여행과 나들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중에서는 거의 안한다는 비율도 20.8%에 달했다(다인가구 15.1%). 중장년의 베이비부머에게 여행이나 나들이는 함께 사는 가족의 행사일 가능성이 높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람에서도 다인가구가 1인가구보다 더 자주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는 여가활동 중에 상대적으로 1인가구의 참여도가 높고 집밖에서 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문화관람에 대해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문화관람은 “조용한 함께함”을 누릴 수 있는 경험으로서, 타인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간섭은 하지 않고 자기 성장적 체험을 공유할 수 있다. 1인가구중 한달에 1번 이상 문화관람을 하는 비율은

30.8%이다. 경제적으로 부담없고 혼자서 참여하더라도 부담 없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참여의 경험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생활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젠더(건강영역 제외)와 계층이 다양한 생활 영역의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차이는 경제 만족도에서만 나타나고 다른 영역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건강을 제외하고 경제, 여가, 인간, 행복감 등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만족도가 높다. 또, 주관적 계층은 분석 대상 모든 영역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계층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도 높았다.

젠더와 계층 외, 여가와 인간관계 영역에서 우리 표본의 가장 고연령 베이비부머 집단인 60대 초반의 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기준집단인 40대 후반 중년 초반기의 베이비부머는 생애과정에서 바쁘고 시간빈곤을 경험하는 집단인 반면, 60대 초반은 40대 후반에 비한다면 여가와 인간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여유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삶의 만족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제 7 장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인식과 정책 수요

1. 노후준비와 노후생활에 대한 기대
2. 정책 수요
3. 소결

7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인식과 정책 수요

1. 노후준비와 노후생활에 대한 기대

가. 노후대비: 경제 · 인간관계 · 건강관리 · 여가 생활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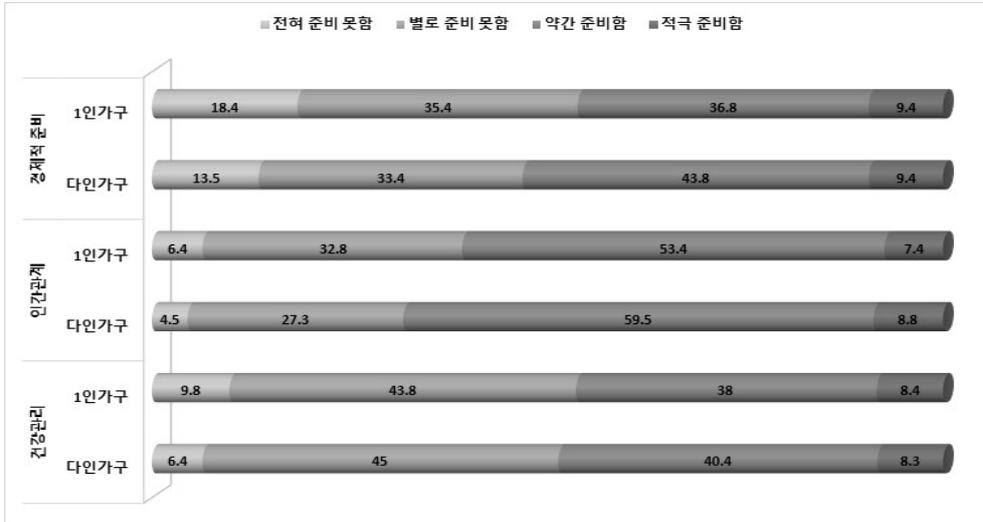
이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대비를 경제적 준비, 가족 친구 등 인간관계 유지, 건강과 체력관리, 여가 생활 등 네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응답은 인간관계 유지(“적극 준비함” 8.2%+“약간 준비함” 57.2%=65.4%)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경제적 준비(50.5%), 건강과 체력관리(47.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준비를 못했다는 응답은 여가 생활 분야(61.3%)에서 가장 높았다. 일반적으로 노후대비라고 하면 경제적인 준비를 가장 우선시 하기 때문에 여가 생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또는 미처 여력이 없어 노후의 여가 생활까지는 대비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표 7-1> 베이비붐 세대의 분야별 노후대비 - 경제, 인간관계, 건강, 여가

(단위: %, 명)

| 항목 | 전혀 준비 못함 | 별로 준비 못함 | 약간 준비함 | 적극적으로 준비함 | 계 | (명) |
|---------------------------|----------|----------|--------|-----------|-------|--------|
| 1) 노후생활을 대비한 경제적 준비 | 15.4 | 34.2 | 41.1 | 9.4 | 100.0 | (1300) |
| 2) 가족 친구 동료들과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 | 5.2 | 29.4 | 57.2 | 8.2 | 100.0 | (1300) |
| 3)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체력관리 | 7.7 | 44.5 | 39.5 | 8.3 | 100.0 | (1300) |
| 4) 노후 여가 생활을 위한 대비 | 16.8 | 44.5 | 33.2 | 5.5 | 100.0 | (1300) |

(단위: %)



<그림 7-1>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1인가구와 다인가구

노후준비 정도를 1인가구와 그 외 가구(다인가구)로 구분하여 네 가지 영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1인가구와 다인가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네 가지 노후대비 영역 모두에서 가구소득,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주거 형태가 안정적인 집단에서 노후대비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축, 보험 등 경제적 대비 뿐 아니라 인간관계, 건강과 체력관리, 여가 생활 대비 등 모든 분야에서 소득 및 경제적 수준에 따라 노후대비의 수준이 다르다는 점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달리 표현하면 경제적인 불안정성은 노후대비에서 경제적 대비뿐 아니라 인간관계의 형성, 건강관리, 그리고 여가 생활과 같은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공통점과 더불어, 노후대비의 네 가지 영역에서 가구 형태에 따라 응답의 양상이 달리 나타나는 점도 관찰된다. 먼저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응답을 보면 성별, 연령, 교육수준, 근로여부 등에 따른 경제적 준비 수준의 차이가 1인가구와 다인가구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인가구의 경우 경제적 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률(약간 준비함+적극 준비함)이 여성은 54.7%, 남성은 39.3%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지만, 다인가구에서는 성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1인가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대비 수준이 높아졌지만 다인가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한편 다인가구에서는 연령, 그리고 근로 여부에 따라 경제적 대비수준에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노후에 대한 경제적 대비를 더 잘 하고 있다. 하지만 1인가구의 경우 연령이 높은 층이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서도 경제적 노후대비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응답이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1인가구의 경우 고연령층의 경제적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일을 하는 경우에도 일자리의 불안정성이나 낮은 임금 등으로 인해 노후대비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표 7-2〉 노후준비 정도_1) 노후생활을 대비한 경제적 준비(보험, 저축 등)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 | 전혀 준비 못함 | 별로 준비 못함 | 약간 준비 | 적극 준비 함 | χ^2 | (명) | 전혀 준비 못함 | 별로 준비 못함 | 약간 준비 함 | 적극 준비 함 | χ^2 | (명) | | |
| 전체 | 18.4 | 35.4 | 36.8 | 9.4 | - | (500) | 13.5 | 33.4 | 43.8 | 9.4 | - | (800) | | |
| 성별 | 남자 | 22.5 | 38.2 | 30.9 | 8.4 | 13.505 | (275) | 14.7 | 35.1 | 41.3 | 9.0 | (402) | | |
| | 여자 | 13.3 | 32.0 | 44.0 | 10.7 | ** | (225) | 12.3 | 31.7 | 46.2 | 9.8 | (398) | |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17.6 | 36.4 | 36.0 | 10.0 | 0.594 | (250) | 11.7 | 30.6 | 49.3 | 8.5 | (402) | | |
| | 도지역 | 19.2 | 34.4 | 37.6 | 8.8 | | (250) | 15.3 | 36.2 | 38.2 | 10.3 | 10.146* | (398) | |
| 연령 | 45-49세 | 16.4 | 39.7 | 31.9 | 12.1 | 6.902 | (116) | 9.0 | 38.6 | 43.8 | 8.6 | (210) | | |
| | 50-54세 | 18.6 | 33.1 | 39.8 | 8.5 | | (118) | 18.2 | 31.6 | 42.1 | 8.1 | 17.348 * | (209) | |
| | 55-59세 | 19.3 | 38.5 | 36.3 | 5.9 | | (135) | 16.4 | 31.8 | 39.3 | 12.4 | | (201) | |
| | 60-64세 | 19.1 | 30.5 | 38.9 | 11.5 | | (131) | 10.0 | 31.1 | 50.6 | 8.3 | (180) | | |
| 혼인 지위 | 유배우 | 9.2 | 35.5 | 44.0 | 11.3 | 20.870* | (141) | 12.9 | 32.8 | 44.1 | 10.2 | (696) | | |
| | 사별 | 18.2 | 45.5 | 31.8 | 4.5 | | (22) | 20.0 | 40.0 | 40.0 | - | (5) | | |
| | 이혼 별거 | 28.8 | 33.1 | 30.9 | 7.2 | | (139) | 20.9 | 39.5 | 39.5 | - | (43) | | |
| | 미혼·비혼·기 타 | 17.7 | 35.9 | 36.4 | 10.1 | | (198) | 14.3 | 35.7 | 42.9 | 7.1 | (56) | |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23.9 | 34.5 | 34.5 | 7.0 | 16.163* | (142) | 15.7 | 34.9 | 42.4 | 7.0 | (229) | | |
| | 대학교 | 16.2 | 39.1 | 36.0 | 8.8 | | (297) | 12.8 | 33.7 | 44.1 | 9.4 | 6.810 | (469) | |
| | 대학원 | 16.4 | 19.7 | 45.9 | 18.0 | | (61) | 11.8 | 28.4 | 45.1 | 14.7 | (102) | | |
| 근로 여부 | 그렇다 | 16.9 | 35.9 | 37.2 | 10.0 | 2.974 | (390) | 13.2 | 36.8 | 40.7 | 9.4 | (555) | | |
| | 아니다 | 23.6 | 33.6 | 35.5 | 7.3 | | (110) | 14.3 | 25.7 | 50.6 | 9.4 | 10.173* | (245) |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34.1 | 36.0 | 28.0 | 1.8 | 18.320 | (164) | 35.8 | 35.8 | 26.9 | 1.5 | (67) | | |
| | 200~399 | 14.3 | 40.1 | 37.4 | 8.2 | | (182) | 19.8 | 41.4 | 33.9 | 4.8 | 98.938 | (227) | |
| | 400~599 | 9.0 | 32.6 | 46.1 | 12.4 | | *** | (89) | 9.6 | 34.3 | 47.9 | 8.2 | *** | (280) |
| | 600 이상 | 3.1 | 24.6 | 44.6 | 27.7 | | (65) | 5.3 | 23.5 | 53.5 | 17.7 | (226) | |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 7.7 | 33.6 | 46.8 | 11.9 | 19.703 | (235) | 10.9 | 32.4 | 46.9 | 9.7 | (595) | | |
| | 전세 | 9.9 | 41.6 | 42.6 | 5.9 | | *** | (101) | 17.4 | 28.4 | 41.3 | 12.8 | 31.353 | (109) |
| | 월세 기타 | 39.0 | 34.1 | 18.9 | 7.9 | | (164) | 25.0 | 44.8 | 27.1 | 3.1 | *** | (96) | |
| 주관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2.0 | 16.3 | 53.1 | 28.6 | 25.577 | (98) | 2.8 | 17.5 | 59.5 | 20.2 | (252) | | |
| | 중하층 | 6.0 | 39.6 | 47.3 | 7.1 | | *** | (182) | 9.5 | 40.7 | 44.2 | 5.7 | 210.731 | (369) |
| | 하층 | 35.9 | 40.5 | 20.9 | 2.7 | | (220) | 36.9 | 40.8 | 20.7 | 1.7 | *** | (179) |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노후생활에서 외로움이나 고립감도 위험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노후대비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인간관계 측면에서의 노후대비에 대한 응답을 보면, 1인가구에서는 역시 남성에 비해 여성이,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다. 하지만 다인가구에서는 성별, 교육수준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다인가구에서는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적극적으로 노후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아졌다.

세 번째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체력관리에서는 1인가구 응답자 가운데 성별, 교육수준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다인가구에서는 연령별로, 즉 60대 이상 고연령층일수록 노후를 위한 건강대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아졌다.

네 번째 노후 여가 생활을 위한 대비를 보면, 1인가구 응답에서 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교육수준이 낮은 층에서 대비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높아졌다. 또한 현재 일을 하지 않는다는 집단에서 여가 생활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다인가구의 경우에는 1인가구와 마찬가지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대비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여가 생활에 대한 대비는 교육수준이 높은 층에서 보다 적극적인 공통점을 관찰할 수 있다.

노후대비의 네 가지 영역에 대한 응답 추이를 종합해 보면, 1인가구와 다인가구 모두 가구소득, 주관적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대비한다는 응답이 높아졌다. 주택 형태에 따라서도 월세 거주자의 노후대비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가구 형태별로 응답의 차이도 나타났는데, 다인가구의 경우 경제적 대비, 인간관계, 건강관리 세 영역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더 적극적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이가 들에 따라 노후준비에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1인가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노후준비에 더 적극적인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은 층일수록 노후대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아졌다. 전반적으로 다인가구의 노후대비 정도는 소득수준과 생애단계에 따라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양상이라면, 1인가구에서는 소득의 영향이 큰 가운데 성별, 교육수준, 그리고 혼인지위에 따른 차이와 내부의 다양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3> 노후준비 정도_2)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
| | 전혀 준비 못함 | 별로 준비 못함 | 약간 준비 | 적극 준비 함 | χ^2 | (명) | 전혀 준비 못함 | 별로 준비 못함 | 약간 준비 함 | 적극 준비 함 | χ^2 | (명) | | | |
| 전체 | 6.4 | 32.8 | 53.4 | 7.4 | - | (500) | 4.5 | 27.3 | 59.5 | 8.8 | - | (800) | | | |
| 성별 | 남자 | 8.7 | 37.8 | 47.6 | 5.8 | 15.732 | 3.7 | 27.4 | 60.7 | 8.2 | 1.529 | (275) | | | |
| | 여자 | 3.6 | 26.7 | 60.4 | 9.3 | ** | (225) | 5.3 | 27.1 | 58.3 | | 9.3 | (398) | |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5.6 | 31.6 | 54.4 | 8.4 | 1.489 | 4.7 | 26.6 | 61.7 | 7.0 | 3.805 | (250) | | | |
| | 도지역 | 7.2 | 34.0 | 52.4 | 6.4 | | (250) | 4.3 | 27.9 | 57.3 | | 10.6 | (398) | | |
| 연령 | 45-49세 | 5.2 | 35.3 | 54.3 | 5.2 | 6.466 | 4.8 | 30.5 | 59.0 | 5.7 | 29.272 | (116) | | | |
| | 50-54세 | 7.6 | 32.2 | 50.0 | 10.2 | | (118) | 6.2 | 34.9 | 53.1 | | 5.7 | (209) | | |
| | 55-59세 | 8.1 | 34.8 | 49.6 | 7.4 | | (135) | 5.0 | 22.9 | 62.2 | | 10.0 | ** | (201) | |
| | 60-64세 | 4.6 | 29.0 | 59.5 | 6.9 | | (131) | 1.7 | 19.4 | 64.4 | | 14.4 | (180) | | |
| 혼인 지위 | 유배우 | 3.5 | 25.5 | 58.2 | 12.8 | 25.523 | 4.2 | 27.4 | 59.2 | 9.2 | - | (141) | | | |
| | 사별 | - | 18.2 | 77.3 | 4.5 | | (22) | 20.0 | 20.0 | 40.0 | | 20.0 | (5) | | |
| | 이혼·별거 미혼·비혼·기 타 | 9.4 | 38.8 | 49.6 | 2.2 | | ** | (139) | 7.0 | 20.9 | | 67.4 | 4.7 | (43) | |
| 교육 수준 | 미혼·비혼·기 타 | 7.1 | 35.4 | 50.0 | 7.6 | (198) | 5.4 | 30.4 | 58.9 | 5.4 | (56) | | | | |
| | 고교 이하 | 9.2 | 35.2 | 49.3 | 6.3 | (142) | 6.6 | 28.8 | 57.2 | 7.4 | (229) | | | | |
| | 대학교 | 5.7 | 31.3 | 57.2 | 5.7 | 16.211* | (297) | 4.5 | 25.8 | 59.9 | 9.8 | 9.541 | (469) | | |
| 근로 여부 | 대학원 | 3.3 | 34.4 | 44.3 | 18.0 | (61) | - | 30.4 | 62.7 | 6.9 | (102) | | | | |
| | 그렇다 | 5.6 | 32.8 | 54.1 | 7.4 | 1.763 | 3.4 | 28.1 | 61.6 | 6.8 | 14.030 | (390) | | | |
| 아니다 | 9.1 | 32.7 | 50.9 | 7.3 | (110) | | 6.9 | 25.3 | 54.7 | 13.1 | ** | (245) | | |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12.2 | 39.0 | 43.9 | 4.9 | (164) | 14.9 | 37.3 | 41.8 | 6.0 | (67) | | | | |
| | 200~399 | 5.5 | 35.2 | 54.9 | 4.4 | 0.626 | (182) | 8.4 | 29.5 | 54.6 | 7.5 | 60.341 | (227) | | |
| | 400~599 | 2.2 | 31.5 | 53.9 | 12.4 | *** | (89) | 1.8 | 28.2 | 64.3 | 5.7 | *** | (280) | | |
| | 600 이상 | - | 12.3 | 72.3 | 15.4 | (65) | 0.9 | 20.8 | 63.7 | 14.6 | (226) | | | |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 2.6 | 26.8 | 60.4 | 10.2 | 1.531 | 3.5 | 25.2 | 62.5 | 8.7 | 21.168 | (235) | | | |
| | 전세 | 5.0 | 34.7 | 55.4 | 5.0 | | *** | (101) | 7.3 | 24.8 | | 59.6 | 8.3 | ** | (109) |
| | 월세 기타 | 12.8 | 40.2 | 42.1 | 4.9 | | (164) | 7.3 | 42.7 | 40.6 | | 9.4 | (96) | | |
| 주관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2.0 | 14.3 | 63.3 | 20.4 | (98) | 0.8 | 19.8 | 67.1 | 12.3 | (252) | | | | |
| | 중하층 | 4.4 | 25.3 | 65.4 | 4.9 | 5.559 | (182) | 4.6 | 27.1 | 58.8 | 9.5 | 47.845 | (369) | | |
| | 하층 | 10.0 | 47.3 | 39.1 | 3.6 | *** | (220) | 9.5 | 38.0 | 50.3 | 2.2 | *** | (179) | |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표 7-4> 노후준비 정도_3)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체력관리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
| | 전혀 준비 못함 | 별로 준비 못함 | 약간 준비 | 적극 준비 함 | χ^2 | (명) | 전혀 준비 못함 | 별로 준비 못함 | 약간 준비 함 | 적극 준비 함 | χ^2 | (명) | | | |
| 전체 | 9.8 | 43.8 | 38.0 | 8.4 | - | (500) | 6.4 | 45.0 | 40.4 | 8.3 | - | (800) | | | |
| 성별 | 남자 | 12.4 | 45.5 | 33.8 | 8.4 | 7.294 | 5.2 | 47.5 | 39.6 | 7.7 | 3.233 | (402) | | | |
| | 여자 | 6.7 | 41.8 | 43.1 | 8.4 | | (225) | 7.5 | 42.5 | 41.2 | | 8.8 | (398) | |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8.0 | 42.4 | 40.4 | 9.2 | 3.016 | 6.5 | 44.3 | 42.5 | 6.7 | 3.344 | (402) | | | |
| | 도지역 | 11.6 | 45.2 | 35.6 | 7.6 | | (250) | 6.3 | 45.7 | 38.2 | | 9.8 | (398) | | |
| 연령 | 45-49세 | 11.2 | 47.4 | 36.2 | 5.2 | 5.722 | 8.1 | 48.6 | 38.6 | 4.8 | 30.951 | (116) | | | |
| | 50-54세 | 10.2 | 43.2 | 39.0 | 7.6 | | (118) | 8.6 | 51.2 | 33.0 | | 7.2 | (209) | | |
| | 55-59세 | 7.4 | 46.7 | 36.3 | 9.6 | | (135) | 6.0 | 44.8 | 40.3 | | 9.0 | *** | (201) | |
| | 60-64세 | 10.7 | 38.2 | 40.5 | 10.7 | | (131) | 2.2 | 33.9 | 51.1 | | 12.8 | (180) | | |
| 혼인 지위 | 유배우 | 5.7 | 35.5 | 45.4 | 13.5 | 16.678 | 6.3 | 44.5 | 40.8 | 8.3 | - | (141) | | | |
| | 사별 | 13.6 | 50.0 | 31.8 | 4.5 | | (22) | - | 60.0 | 40.0 | | - | (5) | | |
| | 이혼·별거 | 12.2 | 48.2 | 34.5 | 5.0 | | (139) | 9.3 | 48.8 | 32.6 | | 9.3 | (43) | | |
| | 미혼·비혼·기 타 | 10.6 | 46.0 | 35.9 | 7.6 | | (198) | 5.4 | 46.4 | 41.1 | | 7.1 | (56) | |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14.1 | 44.4 | 33.1 | 8.5 | 6.083 | 8.3 | 46.3 | 38.9 | 6.6 | 7.322 | (142) | | | |
| | 대학교 | 8.8 | 43.8 | 39.4 | 8.1 | | (297) | 6.4 | 44.3 | 39.9 | | 9.4 | (469) | | |
| | 대학원 | 4.9 | 42.6 | 42.6 | 9.8 | | (61) | 2.0 | 45.1 | 46.1 | | 6.9 | (102) | | |
| 근로 여부 | 그렇다 | 8.2 | 43.1 | 41.0 | 7.7 | 10.140* | 6.3 | 48.1 | 37.7 | 7.9 | 7.446 | (390) | | | |
| | 아니다 | 15.5 | 46.4 | 27.3 | 10.9 | | (110) | 6.5 | 38.0 | 46.5 | | 9.0 | (245) | |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14.0 | 48.2 | 31.7 | 6.1 | 28.106 | 13.4 | 53.7 | 29.9 | 3.0 | 33.159 | (164) | | | |
| | 200~399 | 9.9 | 47.3 | 36.3 | 6.6 | | (182) | 8.4 | 52.0 | 34.4 | | 5.3 | (227) | | |
| | 400~599 | 9.0 | 33.7 | 48.3 | 9.0 | | ** | (89) | 5.0 | 44.3 | | 42.1 | 8.6 | *** | (280) |
| | 600 이상 | - | 36.9 | 44.6 | 18.5 | | (65) | 4.0 | 36.3 | 47.3 | | 12.4 | (226) | |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 6.0 | 42.6 | 39.6 | 11.9 | 24.232 | 4.9 | 44.4 | 42.2 | 8.6 | 23.804 | (235) | | | |
| | 전세 | 10.9 | 33.7 | 52.5 | 3.0 | | *** | (101) | 10.1 | 35.8 | | 44.0 | 10.1 | ** | (109) |
| | 월세 기타 | 14.6 | 51.8 | 26.8 | 6.7 | | (164) | 11.5 | 59.4 | 25.0 | | 4.2 | (96) | | |
| 주관 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2.0 | 29.6 | 46.9 | 21.4 | 25.284 | 2.8 | 34.1 | 50.0 | 13.1 | 57.280 | (98) | | | |
| | 중하층 | 5.5 | 40.1 | 46.7 | 7.7 | | *** | (182) | 6.5 | 45.0 | | 40.7 | 7.9 | *** | (369) |
| | 하층 | 16.8 | 53.2 | 26.8 | 3.2 | | (220) | 11.2 | 60.3 | 26.3 | | 2.2 | (179) | |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표 7-5> 노후준비 정도_4) 노후의 여가 생활을 위한 대비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 | 전혀 준비 못함 | 별로 준비 못함 | 약간 준비 | 적극 준비 함 | χ^2 | (명) | 전혀 준비 못함 | 별로 준비 못함 | 약간 준비 함 | 적극 준비 함 | χ^2 | (명) | | |
| 전체 | 18.4 | 45.0 | 29.2 | 7.4 | - | (500) | 15.8 | 44.3 | 35.6 | 4.4 | - | (800) | | |
| 성별 | 남자 | 21.8 | 45.1 | 26.5 | 6.5 | 5.959 | 13.9 | 47.0 | 35.3 | 3.7 | 3.881 | (275) | | |
| | 여자 | 14.2 | 44.9 | 32.4 | 8.4 | | (225) | 17.6 | 41.5 | 35.9 | | 5.0 | (398) |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16.8 | 45.6 | 28.8 | 8.8 | 2.087 | 15.7 | 42.8 | 36.8 | 4.7 | 0.944 | (250) | | |
| | 도지역 | 20.0 | 44.4 | 29.6 | 6.0 | | (250) | 15.8 | 45.7 | 34.4 | | 4.0 | (398) | |
| 연령 | 45-49세 | 18.1 | 52.6 | 25.9 | 3.4 | 12.049 | 18.6 | 44.3 | 33.3 | 3.8 | 11.593 | (116) | | |
| | 50-54세 | 20.3 | 39.0 | 33.9 | 6.8 | | (118) | 19.1 | 45.0 | 32.5 | | 3.3 | (209) | |
| | 55-59세 | 15.6 | 49.6 | 27.4 | 7.4 | | (135) | 14.9 | 44.3 | 36.3 | | 4.5 | (201) | |
| | 60-64세 | 19.8 | 38.9 | 29.8 | 11.5 | | (131) | 9.4 | 43.3 | 41.1 | | 6.1 | (180) | |
| 혼인 지위 | 유배우 | 7.8 | 46.8 | 33.3 | 12.1 | 23.262* | 15.8 | 43.8 | 35.5 | 4.9 | - | (141) | | |
| | 사별 | 18.2 | 40.9 | 31.8 | 9.1 | | (22) | 40.0 | 20.0 | 40.0 | | - | (5) | |
| | 이혼 별거 | 27.3 | 43.2 | 25.2 | 4.3 | | * | 20.9 | 46.5 | 32.6 | | - | (139) | |
| | 미혼·비혼·기 타 | 19.7 | 45.5 | 28.8 | 6.1 | | (198) | 8.9 | 50.0 | 39.3 | | 1.8 | (56) |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23.2 | 44.4 | 24.6 | 7.7 | 13.436* | 20.1 | 45.9 | 32.3 | 1.7 | 13.813* | (142) | | |
| | 대학교 | 17.5 | 45.8 | 31.3 | 5.4 | | (297) | 15.4 | 43.3 | 36.0 | | 5.3 | (469) | |
| | 대학원 | 11.5 | 42.6 | 29.5 | 16.4 | | (61) | 7.8 | 45.1 | 41.2 | | 5.9 | (102) | |
| 근로 여부 | 그렇다 | 16.2 | 45.1 | 31.5 | 7.2 | 8.304* | 15.5 | 47.0 | 33.9 | 3.6 | 7.258 | (390) | | |
| | 아니다 | 26.4 | 44.5 | 20.9 | 8.2 | | (110) | 16.3 | 38.0 | 39.6 | | 6.1 | (245) |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31.1 | 43.9 | 22.0 | 3.0 | 10.148* | 37.3 | 43.3 | 16.4 | 3.0 | 75.419* | (164) | | |
| | 200~399 | 17.0 | 51.1 | 26.9 | 4.9 | | (182) | 20.7 | 51.1 | 25.6 | | 2.6 | (227) | |
| | 400~599 | 9.0 | 39.3 | 40.4 | 11.2 | | ** | (89) | 12.9 | 45.0 | | 39.6 | 2.5 | (280) |
| | 600 이상 | 3.1 | 38.5 | 38.5 | 20.0 | | (65) | 8.0 | 36.7 | 46.5 | | 8.8 | (226) |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 11.1 | 44.3 | 33.6 | 11.1 | 5.270** | 12.8 | 44.7 | 37.8 | 4.7 | 28.009* | (235) | | |
| | 전세 | 14.9 | 44.6 | 34.7 | 5.9 | | * | 22.0 | 34.9 | 37.6 | | 5.5 | (109) | |
| | 월세 기타 | 31.1 | 46.3 | 19.5 | 3.0 | | (164) | 27.1 | 52.1 | 19.8 | | 1.0 | (96) | |
| 주관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3.1 | 31.6 | 44.9 | 20.4 | 34.154* | 4.0 | 32.1 | 56.0 | 7.9 | 145.363*** | (98) | | |
| | 중하층 | 8.2 | 46.2 | 39.0 | 6.6 | | ** | (182) | 14.4 | 49.6 | | 32.2 | 3.8 | (369) |
| | 하층 | 33.6 | 50.0 | 14.1 | 2.3 | | (220) | 35.2 | 50.3 | 14.0 | | 0.6 | (179) |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나. 노후에 하고 싶은 활동

노후생활에 대한 기대를 알아보기 위해 노후에 어떤 일을 하면서 보내고 싶은지를 질문한 결과, 1인가구와 다인가구 사이에 유의미한 응답의 차이가 나타났다. 1인가구 거주자들은 ‘나에게 맞는 취미·여가 활동’(44.2%), ‘건강을 위한 운동과 식생활 관리’(23.8%), ‘소득창출을 위한 일’(19.2%), ‘동호회 자원봉사 등 사람들과 어울리는 활동’(12.8%)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다인가구 응답자들은 취미·여가 활동(42.9%), 소득 창출(22.4%), 건강관리(21.3%), 동호회 자원봉사(13.5%)의 순으로 나타나, 소득창출을 위한 활동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인가구에서 소득창출을 위한 활동을 하고 싶다는 응답은 모든 연령층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러한 응답이 높았다.

1인가구의 경우 자신에게 맞는 취미와 여가활동을 하고 싶다는 응답이 여성(42.2%)보다 남성(45.8%)에서 더 높았으며, 55세 이상의 고연령층, 가구소득나 주관적 계층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다인가구 응답자들이 노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는데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나타나며 여성보다는 남성, 가구 소득수준이나 주관적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소득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반면 1인가구의 응답은 성별, 근로 여부, 가구소득수준,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남성, 가구소득이나 주관적 경제수준이 낮은 응답자들도 취미나 여가활동을 하고 싶다는 응답이 다인가구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다인가구에서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소득을 늘리는 데 관심이 더 많고, 1인가구는 자신의 취미와 여가에 상대적으로 더 관심이 높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표 7-6> 노후를 주로 어떤 활동을 하면서 보내기를 희망하는가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 | 소득 창출을 위한 일 | 건강 위한 운동, 식생 활관 리 | 동호 회, 자원 봉사 등 | 취미 , 여가 활동 | χ^2 | (명) | 소득 창출을 위한 일 | 건강 위한 운동, 식생 활관 리 | 동호 회, 자원 봉사 등 | 취미, 여가 활동 | χ^2 | (명) | | |
| 전체 | 19.2 | 23.8 | 12.8 | 44.2 | - | (500) | 22.4 | 21.3 | 13.5 | 42.9 | - | (800) | | |
| 성별 | 남자 | 21.5 | 21.5 | 11.3 | 45.8 | 4.506 | (275) | 27.4 | 20.1 | 11.4 | 41.0 | 12.611* | (402) | |
| | 여자 | 16.4 | 26.7 | 14.7 | 42.2 | | (225) | 17.3 | 22.4 | 15.6 | 44.7 | * | (398) |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18.0 | 26.8 | 10.4 | 44.8 | 4.556 | (250) | 21.4 | 21.9 | 13.2 | 43.5 | 0.645 | (402) | |
| | 도지역 | 20.4 | 20.8 | 15.2 | 43.6 | | (250) | 23.4 | 20.6 | 13.8 | 42.2 | | (398) | |
| 연령 | 45-49세 | 12.9 | 22.4 | 11.2 | 53.4 | 9.851 | (116) | 21.9 | 16.2 | 12.4 | 49.5 | 18.819* | (210) | |
| | 50-54세 | 25.4 | 25.4 | 11.9 | 37.3 | | (118) | 24.9 | 19.1 | 9.1 | 46.9 | | (209) | |
| | 55-59세 | 20.7 | 23.7 | 12.6 | 43.0 | | (135) | 21.4 | 24.4 | 15.9 | 38.3 | | (201) | |
| | 60-64세 | 17.6 | 23.7 | 15.3 | 43.5 | | (131) | 21.1 | 26.1 | 17.2 | 35.6 | | (180) | |
| 혼인 지위 | 유배우 | 16.3 | 29.8 | 15.6 | 38.3 | 12.819 | (141) | 21.7 | 21.1 | 13.8 | 43.4 | - | (696) | |
| | 사별 | 18.2 | 31.8 | 9.1 | 40.9 | | (22) | 20.0 | 20.0 | 20.0 | 40.0 | | (5) | |
| | 이혼·별거 | 25.2 | 16.5 | 12.9 | 45.3 | | (139) | 23.3 | 27.9 | 16.3 | 32.6 | | (43) | |
| | 미혼·비혼· 기타 | 17.2 | 23.7 | 11.1 | 48.0 | | (198) | 30.4 | 17.9 | 7.1 | 44.6 | | (56) |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20.4 | 23.9 | 14.1 | 41.5 | 1.106 | (142) | 19.2 | 25.8 | 10.5 | 44.5 | 8.389 | (229) | |
| | 대학교 | 18.5 | 23.2 | 12.5 | 45.8 | | (297) | 24.5 | 19.2 | 14.9 | 41.4 | | (469) | |
| | 대학원 | 19.7 | 26.2 | 11.5 | 42.6 | | (61) | 19.6 | 20.6 | 13.7 | 46.1 | | (102) | |
| 근로 여부 | 그렇다 | 21.3 | 23.3 | 12.3 | 43.1 | 5.006 | (390) | 26.1 | 18.6 | 13.2 | 42.2 | 17.951 | (555) | |
| | 아니다 | 11.8 | 25.5 | 14.5 | 48.2 | | (110) | 13.9 | 27.3 | 14.3 | 44.5 | *** | (245) |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21.3 | 16.5 | 14.0 | 48.2 | 9.773 | (164) | 32.8 | 16.4 | 7.5 | 43.3 | 16.113 | (67) | |
| | 200~399 | 20.9 | 26.9 | 11.0 | 41.2 | | (182) | 16.7 | 22.5 | 13.7 | 47.1 | | (227) | |
| | 400~599 | 13.5 | 29.2 | 13.5 | 43.8 | | (89) | 25.4 | 22.5 | 11.4 | 40.7 | | (280) | |
| | 600 이상 | 16.9 | 26.2 | 13.8 | 43.1 | | (65) | 21.2 | 19.9 | 17.7 | 41.2 | | (226) |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 18.3 | 30.6 | 12.3 | 38.7 | 20.580* | (235) | 21.8 | 21.3 | 13.1 | 43.7 | 2.395 | (595) | |
| | 전세 | 14.9 | 12.9 | 18.8 | 53.5 | | (101) | 25.7 | 19.3 | 16.5 | 38.5 | | (109) | |
| | 월세 기타 | 23.2 | 20.7 | 9.8 | 46.3 | | (164) | 21.9 | 22.9 | 12.5 | 42.7 | | (96) | |
| 주관 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16.3 | 33.7 | 10.2 | 39.8 | 11.928 | (98) | 14.3 | 24.6 | 17.9 | 43.3 | 21.576* | (252) | |
| | 중하층 | 17.6 | 25.8 | 11.0 | 45.6 | | (182) | 24.1 | 20.6 | 12.7 | 42.5 | | * | (369) |
| | 하층 | 21.8 | 17.7 | 15.5 | 45.0 | | (220) | 30.2 | 17.9 | 8.9 | 43.0 | | (179) |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다. 노후에 누구와 함께 살까: 1인가구와 다인가구

1) 노후에 함께 살고 싶은 사람: 희망사항

노후에 누구와 함께 살고 싶은지 알아본 결과, 1인가구는 배우자, 파트너 및 애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5.6%, 혼자 살고 싶다는 응답은 38.4%, 그 외 형제.자매는 5.0%, 친구 4.6%, 자녀 4.4%, 부모 2.0%의 순이었다. 다인가구는 배우자나 파트너 및 애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4.1%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혼자 살고 싶다는 응답은 15.7%, 자녀가 3.8%, 부모는 1.9%, 형제.자매는 1.5%, 그리고 친구는 1.3%로 1인가구와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노후에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은 1인가구와 다인가구 모두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1인가구에서는 배우자나 파트너 및 애인과 살고 싶다는 비율이 남성은 57.5%로 높았으나 여성은 30.9%로 나타났고, 혼자 살고 싶다는 비율이 남성은 36.0%였는데 여성은 41.3%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1인가구 여성은 형제, 자매와 살고 싶다는 비율이 9.9%, 친구와 살고 싶다는 비율은 8.5%인데 반해 남성은 모두 1%대로 낮게 나타났다. 다인가구의 경우에는 배우자 및 파트너나 애인으로 응답한 비율이 남성은 80.6%, 여성은 67.5%로 1인가구와 마찬가지로 남성의 응답이 높았다. 다인가구에서 혼자 살고 싶다는 응답은 남성이 14.7%, 여성이 20.4%로 여성의 응답이 높아 차이를 보였다. 1인가구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40대에서는 배우자나 파트너 및 애인과 살고 싶다는 응답이 50.0%로 높았으나 60대에서는 34.6%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혼자 살고 싶다는 응답은 40, 50대에는 응답 비율이 30%대에 머무르지만, 60대에서는 49.2%로 절반 가까이 비율이 높아져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볼 수 있다. 또한, 가구소득이 낮은 1인가구는 혼자 살고 싶다는 응답 비율이 높고, 소득이 400만 원 이상 되는 1인가구는 배우자나 파트너 및 애인과 살고 싶다는 비율이 그 이하의 소득 그룹보다 높아지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소득이 높은 그룹은 그 전 높은 그룹보다 혼자 살고 싶은 응답이 높고 배우자나 파트너 및 애인과 살고 싶다는 응답은 약간 줄어든다. 다인가구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주관적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나 파트너 및 애인과 살고 싶다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표 7-7> 희망하는 노후생활 동반자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
| | 자녀 | 부모 | 형제 자매 | 혼자 | 배우자, 파트너 /애인 | 친구 | χ^2 | (명) | 자녀 | 부모 | 형제 자매 | 혼자 | 배우자 파트 너 /애인 | 친구 | χ^2 | (명) | |
| 전체 | 4.4 | 2.0 | 5.0 | 38.4 | 45.6 | 4.6 | - | (498) | 3.8 | 1.9 | 1.5 | 17.5 | 74.1 | 1.3 | - | (799) | |
| 성별 | 남자 | 2.2 | 1.8 | 1.1 | 36.0 | 57.5 | 1.5 | 29.742 | (275) | 2.0 | 2.5 | 0.2 | 14.7 | 80.6 | - | 35.258 | (402) |
| | 여자 | 7.2 | 2.2 | 9.9 | 41.3 | 30.9 | 8.5 | *** | (223) | 5.5 | 1.3 | 2.8 | 20.4 | 67.5 | 2.5 | *** | (397)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3.6 | 2.4 | 5.6 | 41.1 | 44.4 | 2.8 | | (248) | 5.2 | 2.2 | 1.5 | 18.2 | 71.8 | 1.0 | | (401) |
| | 도지역 | 5.2 | 1.6 | 4.4 | 35.6 | 46.8 | 6.4 | 6.102 | (250) | 2.3 | 1.5 | 1.5 | 16.8 | 76.4 | 1.5 | 6.478 | (398) |
| 연령 | 45-49세 | 0.9 | 6.0 | 4.3 | 34.5 | 50.0 | 4.3 | | (116) | 1.4 | 2.9 | 2.4 | 17.6 | 74.8 | 1.0 | | (210) |
| | 50-54세 | 4.3 | 1.7 | 6.0 | 36.8 | 48.7 | 2.6 | 33.760* | (117) | 4.3 | 2.4 | - | 22.5 | 69.9 | 1.0 | | (209) |
| | 55-59세 | 4.4 | 0.7 | 6.7 | 32.6 | 49.6 | 5.9 | * | (135) | 4.0 | 0.5 | 2.0 | 17.5 | 74.0 | 2.0 | | (200) |
| | 60-64세 | 7.7 | - | 3.1 | 49.2 | 34.6 | 5.4 | | (130) | 5.6 | 1.7 | 1.7 | 11.7 | 78.3 | 1.1 | | (180) |
| 혼인 지위 | 유배우 | 4.3 | 0.7 | 2.8 | 17.7 | 73.0 | 1.4 | | (141) | 2.4 | 0.4 | 1.2 | 14.0 | 81.3 | 0.7 | | (695) |
| | 사별 | 18.2 | - | 13.6 | 50.0 | 13.6 | 4.5 | | (22) | 40.0 | - | - | 20.0 | 20.0 | 20.0 | | (5) |
| | 이혼 별거 | 7.9 | 1.4 | 4.3 | 50.4 | 30.2 | 5.8 | | (139) | 25.6 | 2.3 | 4.7 | 32.6 | 25.6 | 9.3 | | (43) |
| | 미혼·비혼·기타 | 0.5 | 3.6 | 6.1 | 43.4 | 40.3 | 6.1 | | (196) | - | 19.6 | 3.6 | 50.0 | 26.8 | - | | (56)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9.9 | 0.7 | 5.6 | 37.3 | 38.7 | 7.7 | | (142) | 3.1 | 2.6 | 2.2 | 18.0 | 71.5 | 2.6 | | (228) |
| | 대학교 | 2.0 | 3.1 | 5.4 | 38.6 | 47.1 | 3.7 | | (295) | 4.3 | 1.3 | 1.1 | 17.7 | 75.3 | 0.4 | | (469) |
| | 대학원 | 3.3 | - | 1.6 | 39.3 | 54.1 | 1.6 | | (61) | 2.9 | 2.9 | 2.0 | 15.7 | 74.5 | 2.0 | | (102) |
| 근로 여부 | 그렇다 | 3.6 | 2.6 | 5.9 | 35.6 | 47.9 | 4.4 | | (390) | 3.2 | 2.0 | 1.3 | 18.6 | 74.2 | 0.7 | | (555) |
| | 아니다 | 7.4 | - | 1.9 | 48.1 | 37.0 | 5.6 | | (108) | 4.9 | 1.6 | 2.0 | 15.2 | 73.8 | 2.5 | | (244)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6.2 | 1.9 | 3.7 | 48.1 | 30.9 | 9.3 | | (162) | 9.1 | 9.1 | 4.5 | 21.2 | 54.5 | 1.5 | | (66) |
| | 200~399 | 4.4 | 1.1 | 4.9 | 40.7 | 46.2 | 2.7 | | (182) | 3.1 | 1.8 | 0.9 | 23.8 | 68.3 | 2.2 | | (227) |
| | 400~599 | 4.5 | 3.4 | 5.6 | 23.6 | 61.8 | 1.1 | | (89) | 3.2 | 1.1 | 2.1 | 15.0 | 77.9 | 0.7 | | (280) |
| | 600 이상 | - | 3.1 | 7.7 | 27.7 | 58.5 | 3.1 | | (65) | 3.5 | 0.9 | 0.4 | 13.3 | 81.0 | 0.9 | | (226)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 5.2 | 2.1 | 6.0 | 37.8 | 42.9 | 6.0 | | (233) | 2.9 | 1.5 | 1.2 | 16.1 | 77.3 | 1.0 | | (595) |
| | 전세 | 4.0 | 2.0 | 6.9 | 41.6 | 40.6 | 5.0 | | (101) | 6.5 | - | 2.8 | 24.1 | 65.7 | 0.9 | | (108) |
| | 월세 기타 | 3.7 | 1.8 | 2.4 | 37.2 | 52.4 | 2.4 | | (164) | 6.3 | 6.3 | 2.1 | 18.8 | 63.5 | 3.1 | | (96) |
| 주관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5.1 | 3.1 | 6.1 | 25.5 | 58.2 | 2.0 | | (98) | 2.4 | 2.0 | 0.8 | 13.1 | 81.0 | 0.8 | | (252) |
| | 중하층 | 3.8 | 2.7 | 3.8 | 39.0 | 47.3 | 3.3 | | (182) | 3.5 | 2.2 | 1.1 | 18.4 | 73.2 | 1.6 | | (369) |
| | 하층 | 4.6 | 0.9 | 5.5 | 43.6 | 38.5 | 6.9 | | (218) | 6.2 | 1.1 | 3.4 | 21.9 | 66.3 | 1.1 | | (178)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3)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노후에 함께 살 사람: 현실

본인이 희망하는 노후의 생활 동반자를 알아보았다면, 희망이 아닌 현실적으로는 과연 누구와 살 것 같은지 알아보았다. 1인가구는 혼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5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배우자나 파트너 및 애인이라고 예상하는 경우는 35.9%로 나타났다. 그 외 형제.자매 또는 자녀가 각각 4.0%, 부모는 2.0%, 친구는 1.8%로 나타나 희망에서는 배우자나 파트너 및 애인이라는 응답이 더 높았으나 현실에서는 혼자 살 것 같다는 응답이 높아 희망과 현실이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다인가구는 희망에서 배우자나 파트너 및 애인이 74.1%로 나타났던 결과와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노후 동반자도 배우자나 파트너 및 애인이 79.6%로 가장 높았고 그 비율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혼자 살 것 같다는 응답은 14.5%, 자녀는 2.8%, 부모는 1.8%, 형제.자매는 1.1%, 친구는 0.3%로 나타났다.

빈도가 낮은 셀로 인해 차이 검증 값은 제시하지 않았다. 1인가구나 다인가구의 주관적 경제 수준이 중상층인 경우는 배우자나 파트너 및 애인과 살 것 같다는 응답이 높고 경제적 수준이 낮아질수록 그 비율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대신 혼자 살 것 같다는 비율이 역으로 하층이 높고 경제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은 낮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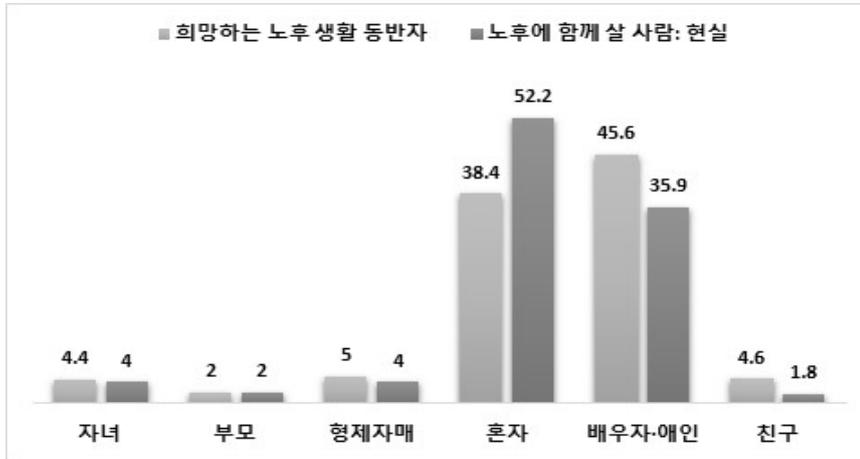
<표 7-8>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노후생활 동반자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 | 자녀 | 부모 | 형제 자매 | 혼자 | 배우자, 파트너 /애인 | 친구 | (명) | 자녀 | 부모 | 형제 자매 | 혼자 | 배우자, 파트너 /애인 | 친구 | (명) | |
| 전체 | 4.0 | 2.0 | 4.0 | 52.2 | 35.9 | 1.8 | (498) | 2.8 | 1.8 | 1.1 | 14.5 | 79.6 | 0.3 | (799) | |
| 성별 | 남자 | 1.5 | 1.8 | 1.1 | 51.1 | 43.4 | 1.1 | (274) | 1.2 | 1.7 | 0.2 | 13.4 | 82.8 | 0.5 | (402) |
| | 여자 | 7.1 | 2.2 | 7.6 | 53.6 | 26.8 | 2.7 | (224) | 4.3 | 1.8 | 2.0 | 15.6 | 76.3 | - | (397)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3.6 | 2.0 | 4.8 | 54.6 | 34.5 | 0.4 | (249) | 4.0 | 1.7 | 1.5 | 16.5 | 75.8 | 0.5 | (401) |
| | 도지역 | 4.4 | 2.0 | 3.2 | 49.8 | 37.3 | 3.2 | (249) | 1.5 | 1.8 | 0.8 | 12.6 | 83.4 | - | (398) |
| 연령 | 45-49세 | - | 4.3 | 2.6 | 52.6 | 39.7 | 0.9 | (116) | 1.0 | 2.9 | 1.4 | 14.3 | 80.0 | 0.5 | (210) |
| | 50-54세 | 1.7 | 1.7 | 5.1 | 48.3 | 41.5 | 1.7 | (118) | 2.9 | 2.4 | 1.0 | 17.2 | 76.1 | 0.5 | (209) |
| | 55-59세 | 4.4 | 1.5 | 3.7 | 50.4 | 37.8 | 2.2 | (135) | 3.0 | 0.5 | 1.0 | 13.5 | 82.0 | - | (200) |
| | 60-64세 | 9.3 | 0.8 | 4.7 | 57.4 | 25.6 | 2.3 | (129) | 4.4 | 1.1 | 1.1 | 12.8 | 80.6 | - | (180) |
| 혼인 지위 | 유배우 | 2.9 | 0.7 | 2.1 | 19.3 | 75.0 | - | (140) | 1.7 | 0.1 | 0.4 | 8.6 | 89.1 | - | (695) |
| | 사별 | 22.7 | - | - | 72.7 | 4.5 | - | (22) | 40.0 | - | - | 40.0 | 20.0 | - | (5) |
| | 이혼 별거 | 7.2 | 0.7 | 5.1 | 66.7 | 18.8 | 1.4 | (138) | 18.6 | 2.3 | - | 60.5 | 16.3 | 2.3 | (43) |
| | 미혼·비혼기 타 | 0.5 | 4.0 | 5.1 | 63.1 | 23.7 | 3.5 | (198) | - | 21.4 | 10.7 | 50.0 | 16.1 | 1.8 | (56)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9.2 | 2.1 | 4.2 | 57.0 | 24.6 | 2.8 | (142) | 2.6 | 1.8 | 1.3 | 16.7 | 77.2 | 0.4 | (228) |
| | 대학교 | 2.0 | 2.0 | 4.4 | 49.3 | 40.9 | 1.4 | (296) | 2.6 | 1.3 | 1.3 | 13.6 | 81.0 | 0.2 | (469) |
| | 대학원 | 1.7 | 1.7 | 1.7 | 55.0 | 38.3 | 1.7 | (60) | 3.9 | 3.9 | - | 13.7 | 78.4 | - | (102) |
| 근로 여부 | 그렇다 | 2.6 | 2.3 | 4.6 | 49.4 | 39.1 | 2.1 | (389) | 2.7 | 1.8 | 0.9 | 15.0 | 79.3 | 0.4 | (555) |
| | 아니다 | 9.2 | 0.9 | 1.8 | 62.4 | 24.8 | 0.9 | (109) | 2.9 | 1.6 | 1.6 | 13.5 | 80.3 | - | (244)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5.5 | 1.2 | 3.7 | 68.7 | 17.8 | 3.1 | (163) | 4.5 | 6.1 | 3.0 | 24.2 | 62.1 | - | (66) |
| | 200~399 | 4.4 | 2.2 | 3.8 | 52.2 | 36.3 | 1.1 | (182) | 3.5 | 1.3 | 1.3 | 21.1 | 71.8 | 0.9 | (227) |
| | 400~599 | 3.4 | 2.2 | 5.6 | 34.8 | 52.8 | 1.1 | (89) | 2.1 | 1.8 | 1.1 | 12.5 | 82.5 | - | (280) |
| | 600 이상 | - | 3.1 | 3.1 | 34.4 | 57.8 | 1.6 | (64) | 2.2 | 0.9 | 0.4 | 7.5 | 88.9 | - | (226)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 4.7 | 3.0 | 5.1 | 47.2 | 38.7 | 1.3 | (235) | 2.0 | 1.3 | 1.3 | 12.9 | 82.2 | 0.2 | (595) |
| | 전세 | 3.0 | 1.0 | 5.1 | 55.6 | 32.3 | 3.0 | (99) | 5.6 | - | 0.9 | 19.4 | 74.1 | - | (108) |
| | 월세 기타 | 3.7 | 1.2 | 1.8 | 57.3 | 34.1 | 1.8 | (164) | 4.2 | 6.3 | - | 18.8 | 69.8 | 1.0 | (96) |
| 주관 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5.1 | 3.1 | 4.1 | 34.7 | 52.0 | 1.0 | (98) | 2.4 | 2.0 | - | 9.9 | 85.7 | - | (252) |
| | 중하층 | 3.9 | 2.2 | 3.3 | 50.3 | 38.7 | 1.7 | (181) | 2.2 | 1.9 | 1.6 | 12.5 | 81.6 | 0.3 | (369) |
| | 하층 | 3.7 | 1.4 | 4.6 | 61.6 | 26.5 | 2.3 | (219) | 4.5 | 1.1 | 1.7 | 25.3 | 66.9 | 0.6 | (17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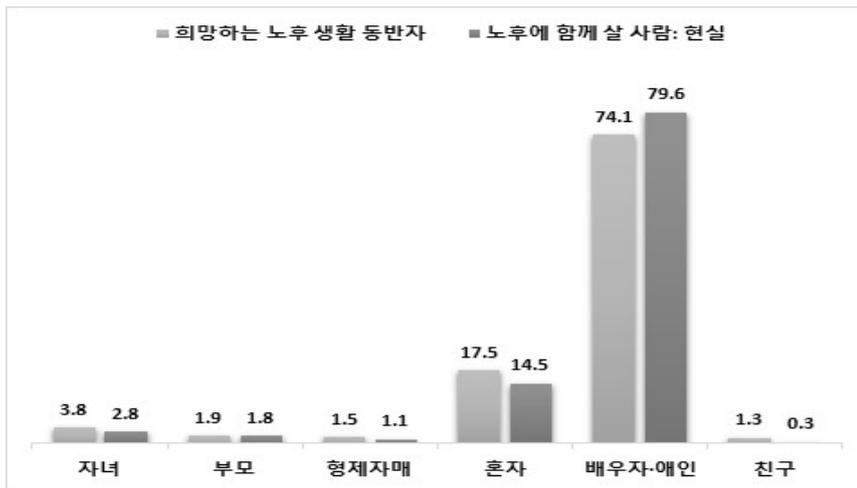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단위: %)



<그림 7-2> 희망하는 노후생활 동반자와 노후에 함께 살 사람: 1인가구

(단위: %)



<그림 7-3> 희망하는 노후생활 동반자와 노후에 함께 살 사람: 다인가구

라. 노후생활의 불안과 어려움

1) 노후에 대한 불안감: 네 가지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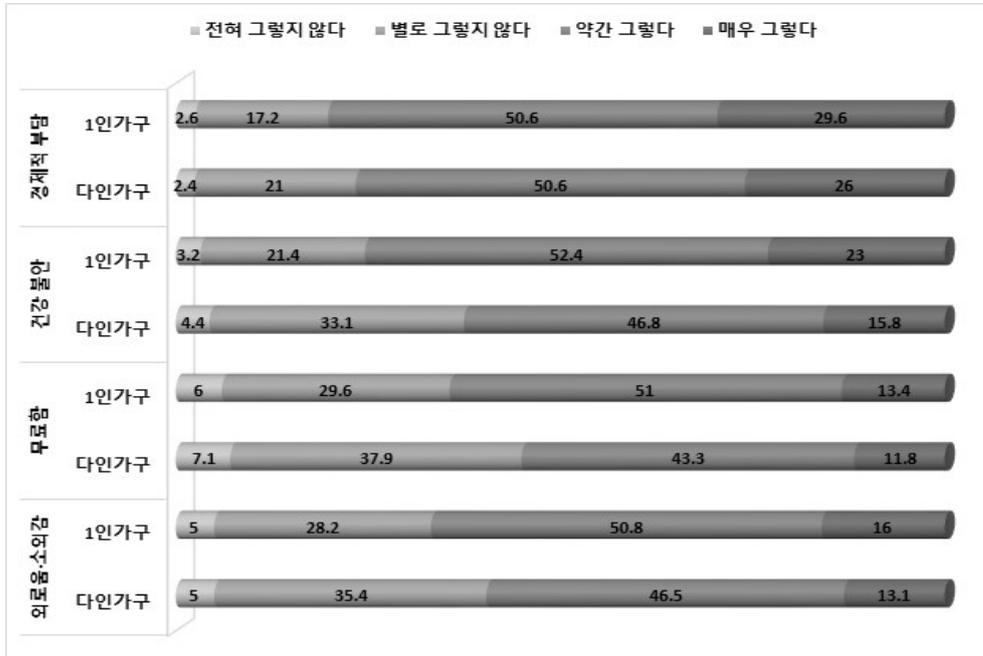
노후에 대해 어떤 고민이나 불안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네 가지 영역, 즉 소득감소 및 경제형편 악화, 건강 악화나 간병에 대한 우려, 취미나 소일거리가 없어 무료함, 외로움과 소외감에 대해 각각 얼마나 불안하게 느끼는지 조사하였다. <표 7-9>에서 보듯이, 베이비붐 세대 응답자들이 가장 불안을 많이 느끼는 영역은 소득과 경제 영역(약간 그렇다+매우 그렇다 78.0%)이며 그다음은 건강에 대한 불안, 외로움과 소외감, 그리고 소일거리가 없는 무료함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7-9> 노후에 대한 불안 - 소득감소, 건강, 무료함, 외로움

(단위: %)

| 항목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계 | (명) |
|---|-----------------|-----------------|-----------|-----------|-------|--------|
| 1) 노후에 소득이 줄고 경제 형편이 어려워질 것 같아 걱정된다 | 2.5 | 19.5 | 50.6 | 27.4 | 100.0 | (1300) |
| 2) 몸이 아파도 적절한 치료나 간병을 받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 3.9 | 28.6 | 48.9 | 18.5 | 100.0 | (1300) |
| 3) 노후에 마땅한 취미나 소일거리가 없어 무료함을 느낄 것 같다 | 6.7 | 34.7 | 46.2 | 12.4 | 100.0 | (1300) |
| 4)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왕래가 줄어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낄 것 같다 | 5.0 | 32.6 | 48.2 | 14.2 | 100.0 | (1300) |

(단위:%)



<그림 7-4> 노후에 대한 불안 - 소득감소, 건강, 무료함, 외로움

노후에 대한 불안의 네 가지 영역에서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응답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경제적 불안의 경우 1인가구와 다인가구 모두에서 불안하다는 응답률이 각각 80.2%, 76.6%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가구형태에 따른 차이는 적은 편이다. 두 집단 모두에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주관적 경제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사람일수록 불안을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이 나타난다. 1인가구의 경우 주거형태에 따라 월세 거주자들이 느끼는 노후에 대한 경제적 불안 수준이 상당히 높은 점이 주목된다.

<표 7-10> 노후 불안_1)소득이 줄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질 것 같아 걱정된다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 | 전혀 그렇 지 않다 | 별로 그렇 지 않다 | 약간 그렇 다 | 매우 그렇 다 | χ^2 | (명) | 전혀 그렇 지 않다 | 별로 그렇 지 않다 | 약간 그렇 다 | 매우 그렇 다 | χ^2 | (명) | | |
| 전체 | 2.6 | 17.2 | 50.6 | 29.6 | - | (500) | 2.4 | 21.0 | 50.6 | 26.0 | - | (800) | | |
| 성별 | 남자 | 2.9 | 16.7 | 48.7 | 31.6 | 1.584 | 1.7 | 19.9 | 53.2 | 25.1 | 3.156 | (275) | | |
| | 여자 | 2.2 | 17.8 | 52.9 | 27.1 | | (225) | 3.0 | 22.1 | 48.0 | | 26.9 | (398) |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 시 | 2.4 | 16.8 | 51.6 | 29.2 | 0.249 | 1.5 | 21.6 | 50.2 | 26.6 | 2.949 | (250) | | |
| | 도지역 | 2.8 | 17.6 | 49.6 | 30.0 | | (250) | 3.3 | 20.4 | 51.0 | | 25.4 | (398) | |
| 연령 | 45-49세 | 2.6 | 13.8 | 55.2 | 28.4 | - | 2.9 | 21.0 | 53.8 | 22.4 | - | (116) | | |
| | 50-54세 | 1.7 | 16.9 | 49.2 | 32.2 | - | 1.4 | 21.1 | 48.3 | 29.2 | - | (118) | | |
| | 55-59세 | 0.7 | 20.0 | 50.4 | 28.9 | - | 2.5 | 20.4 | 48.8 | 28.4 | - | (135) | | |
| | 60-64세 | 5.3 | 17.6 | 48.1 | 29.0 | - | 2.8 | 21.7 | 51.7 | 23.9 | - | (131) | | |
| 혼인 지위 | 유배우 | 1.4 | 22.0 | 60.3 | 16.3 | - | 2.3 | 20.7 | 50.7 | 26.3 | - | (141) | | |
| | 사별 | 4.5 | 18.2 | 45.5 | 31.8 | - | - | 20.0 | 20.0 | 60.0 | - | (22) | | |
| | 이혼 | 2.9 | 10.8 | 45.3 | 41.0 | - | 4.7 | 18.6 | 46.5 | 30.2 | - | (139) | | |
| | 미혼·비혼· 기타 | 3.0 | 18.2 | 48.0 | 30.8 | - | 1.8 | 26.8 | 55.4 | 16.1 | - | (198) | |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3.5 | 10.6 | 50.0 | 35.9 | - | 0.9 | 19.2 | 43.7 | 36.2 | - | (142) | | |
| | 대학교 | 2.4 | 17.8 | 52.5 | 27.3 | 13.514* | 2.8 | 21.1 | 51.8 | 24.3 | 27.704 | (297) | | |
| | 대학원 | 1.6 | 29.5 | 42.6 | 26.2 | - | 3.9 | 24.5 | 60.8 | 10.8 | *** | (61) | | |
| 근로 여부 | 그렇다 | 2.1 | 17.2 | 53.8 | 26.9 | 10.037* | 2.9 | 20.4 | 51.0 | 25.8 | 2.408 | (390) | | |
| | 아니다 | 4.5 | 17.3 | 39.1 | 39.1 | | (110) | 1.2 | 22.4 | 49.8 | | 26.5 | (245) |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1.2 | 11.6 | 43.3 | 43.9 | - | - | 7.5 | 38.8 | 53.7 | - | (164) | | |
| | 200~399 | 3.8 | 14.3 | 50.5 | 31.3 | - | 0.4 | 14.5 | 51.1 | 33.9 | 68.992 | (182) | | |
| | 400~599 | 2.2 | 24.7 | 58.4 | 14.6 | - | 2.9 | 22.5 | 52.1 | 22.5 | *** | (89) | | |
| | 600 이상 | 3.1 | 29.2 | 58.5 | 9.2 | - | 4.4 | 29.6 | 51.8 | 14.2 | - | (65) | |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 3.0 | 21.7 | 55.7 | 19.6 | 42.765 | 2.0 | 22.4 | 51.4 | 24.2 | 11.981 | (235) | | |
| | 전세 | 2.0 | 18.8 | 51.5 | 27.7 | | *** | 3.7 | 22.0 | 48.6 | | 25.7 | (109) | |
| | 월세 기타 | 2.4 | 9.8 | 42.7 | 45.1 | | (164) | 3.1 | 11.5 | 47.9 | | 37.5 | (96) | |
| 주관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6.1 | 31.6 | 57.1 | 5.1 | 13.955 | 5.6 | 36.1 | 50.8 | 7.5 | 171.372 | (98) | | |
| | 중하층 | 3.8 | 18.1 | 59.3 | 18.7 | | *** | 1.4 | 18.2 | 56.6 | | 23.8 | *** | (182) |
| | 하층 | - | 10.0 | 40.5 | 49.5 | | (220) | - | 5.6 | 38.0 | | 56.4 | (179) |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건강에 대한 불안에서는 가구형태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노후에 몸이 아파도 적절한 치료나 간병을 받지 못할까봐 불안을 느낀다는 응답은 1인가구(75.4%)가 다인가구(62.6%)보다 12.8% 포인트가 높다. 함께 거주하는 가족원이 없기 때문에 간병에 대한 불안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후 건강에 대한 불안은 앞서 살펴본 경제적 불안과 마찬가지로 소득수준이나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1인가구와 다인가구 모두에서 소득이 낮고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낮게 평가할수록 노후의 건강에 대한 불안이 높아졌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다인가구의 경우 고학력층에서 노후의 건강불안이 유의미하게 낮아지고 있지만, 1인가구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 다시 말해, 고소득 고학력층이라도 1인가구 거주자라면 다인가구 거주자보다 노후 건강에 대한 불안을 좀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후에 마땅한 취미나 소일거리가 없어 무료함을 느낄 것 같다는 불안감은 1인가구에서 64.4%인 반면, 다인가구는 54.6%로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다. 두 집단 모두에서 주관적인 경제수준을 낮게 평가할수록 무료함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다. 1인가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의 무료함에 대한 고민이 낮아지는 경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왕래가 줄어들어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낄 것 같다는 응답 역시 1인가구(66.8%)가 다인가구(59.6%)보다 높았지만, 두 집단 간 격차는 7.2% 포인트로 크지 않은 편이다. 주관적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1인가구와 다인가구 모두에서 외로움과 소외감에 대한 불안감은 더 높아졌다. 1인가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이 외로움에 대한 불안을 더 뚜렷하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후에 대한 불안감에서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차이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네 가지 영역에서 모두에서 주관적 계층 지위가 낮을수록 불안감이 높아졌으며, 가구소득에 따라 불안감이 높아지는 추이는 다인가구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주관적 경제 인식이 경제적 불안뿐 아니라 건강, 무료함, 외로움에 대한 불안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인가구에서는 다인가구에 비해 무료함이나 외로움에 대한 불안감에서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졌다. 즉, 1인가구이면서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노후에 마땅한 소일거리가 없다거나 사람들과의 왕래가 없어 소외감을 느낄 것 같다는 고민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1> 노후 불안_2) 몸이 아파도 적절한 치료나 간병을 못 받을까봐 불안하다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 전혀 그렇 지 않다 | 별로 그렇 지 않다 | 약간 그렇 다 | 매우 그렇 다 | χ^2 | (명) | 전혀 그렇 지 않다 | 별로 그렇 지 않다 | 약간 그렇 다 | 매우 그렇 다 | χ^2 | (명) | |
| 전체 | 3.2 | 21.4 | 52.4 | 23.0 | - | (500) | 4.4 | 33.1 | 46.8 | 15.8 | - | (800) | |
| 성별 | 남자 | 3.6 | 20.0 | 51.6 | 24.7 | 1.784 | 4.2 | 34.3 | 45.5 | 15.9 | 0.668 | (275) | |
| | 여자 | 2.7 | 23.1 | 53.3 | 20.9 | | (225) | 4.5 | 31.9 | 48.0 | | 15.6 | (398)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3.2 | 19.6 | 52.4 | 24.8 | 1.461 | 3.7 | 33.6 | 47.5 | 15.2 | 1.087 | (250) | |
| | 도지역 | 3.2 | 23.2 | 52.4 | 21.2 | | (250) | 5.0 | 32.7 | 46.0 | | 16.3 | (398) |
| 연령 | 45-49세 | 3.4 | 14.7 | 61.2 | 20.7 | - | 5.7 | 35.2 | 40.0 | 19.0 | - | (116) | |
| | 50-54세 | 2.5 | 19.5 | 53.4 | 24.6 | - | 3.3 | 30.6 | 50.7 | 15.3 | - | (118) | |
| | 55-59세 | 2.2 | 27.4 | 44.4 | 25.9 | - | 3.5 | 34.8 | 47.3 | 14.4 | - | (135) | |
| | 60-64세 | 4.6 | 22.9 | 51.9 | 20.6 | - | 5.0 | 31.7 | 49.4 | 13.9 | - | (131) | |
| 혼인 지위 | 유배우 | 3.5 | 29.1 | 53.9 | 13.5 | - | 4.3 | 32.9 | 47.0 | 15.8 | - | (141) | |
| | 사별 | 4.5 | 22.7 | 54.5 | 18.2 | - | - | 40.0 | 60.0 | - | - | (22) | |
| | 이혼·별거 | 2.2 | 17.3 | 48.2 | 32.4 | - | 9.3 | 25.6 | 41.9 | 23.3 | - | (139) | |
| | 미혼·비혼·기타 | 3.5 | 18.7 | 54.0 | 23.7 | - | 1.8 | 41.1 | 46.4 | 10.7 | - | (198) |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6.3 | 14.8 | 53.5 | 25.4 | - | 2.6 | 27.1 | 48.5 | 21.8 | - | (142) | |
| | 대학교 | 2.0 | 23.6 | 51.5 | 22.9 | 11.453 | 5.1 | 35.4 | 44.8 | 14.7 | 17.779* | (297) | |
| | 대학원 | 1.6 | 26.2 | 54.1 | 18.0 | - | 4.9 | 36.3 | 52.0 | 6.9 | * | (61) | |
| 근로 여부 | 그렇다 | 2.6 | 21.3 | 55.4 | 20.8 | - | 4.9 | 33.0 | 46.1 | 16.0 | - | (390) | |
| | 아니다 | 5.5 | 21.8 | 41.8 | 30.9 | 9.101* | 3.3 | 33.5 | 48.2 | 15.1 | 1.252 | (110) |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1.8 | 18.3 | 48.2 | 31.7 | - | 3.0 | 11.9 | 52.2 | 32.8 | - | (164) | |
| | 200~399 | 3.3 | 17.6 | 55.5 | 23.6 | 22.783 | 1.3 | 25.6 | 53.3 | 19.8 | 54.293 | (182) | |
| | 400~599 | 4.5 | 25.8 | 55.1 | 14.6 | ** | 5.4 | 36.4 | 45.4 | 12.9 | *** | (89) | |
| | 600 이상 | 4.6 | 33.8 | 50.8 | 10.8 | - | 6.6 | 42.9 | 40.3 | 10.2 | - | (65) | |
| 주택 형태 | 자가 | 3.4 | 27.2 | 51.1 | 18.3 | 18.668 ** | 4.4 | 35.8 | 45.4 | 14.5 | 9.834 | (235) | |
| | 점유 | 3.0 | 22.8 | 54.5 | 19.8 | | (101) | 5.5 | 26.6 | 50.5 | | 17.4 | (109) |
| | 월세 기타 | 3.0 | 12.2 | 53.0 | 31.7 | | (164) | 3.1 | 24.0 | 51.0 | | 21.9 | (96) |
| 주관 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4.1 | 39.8 | 49.0 | 7.1 | - | 7.5 | 47.6 | 39.7 | 5.2 | - | (98) | |
| | 중하층 | 4.9 | 25.3 | 53.8 | 15.9 | 18.343 *** | 3.5 | 31.7 | 50.4 | 14.4 | 100.338 *** | (182) | |
| | 하층 | 1.4 | 10.0 | 52.7 | 35.9 | - | 1.7 | 15.6 | 49.2 | 33.5 | - | (220) |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표 7-12> 노후 불안_3) 마땅한 취미, 소일거리 없어 무료함을 느낄 것 같다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 | 전혀 그렇 지 않다 | 별로 그렇 지 않다 | 약간 그렇 다 | 매우 그렇 다 | χ^2 | (명) | 전혀 그렇 지 않다 | 별로 그렇 지 않다 | 약간 그렇 다 | 매우 그렇 다 | χ^2 | (명) | | |
| 전체 | 6.0 | 29.6 | 51.0 | 13.4 | - | (500) | 7.1 | 37.9 | 43.3 | 11.8 | - | (800) | | |
| 성별 | 남자 | 5.8 | 26.9 | 54.5 | 12.7 | 3.241 | 5.0 | 40.8 | 44.8 | 9.5 | 11.126* | (275) | | |
| | 여자 | 6.2 | 32.9 | 46.7 | 14.2 | | (225) | 9.3 | 34.9 | 41.7 | | 14.1 | (398) | |
| 거주 지역 | 광역·특별시 | 4.4 | 36.0 | 45.6 | 14.0 | 12.045* | 6.7 | 39.6 | 42.5 | 11.2 | 1.097 | (250) | | |
| | 도지역 | 7.6 | 23.2 | 56.4 | 12.8 | * | (250) | 7.5 | 36.2 | 44.0 | | 12.3 | (398) | |
| 연령 | 45-49세 | 6.0 | 31.9 | 55.2 | 6.9 | 10.767 | 6.7 | 41.4 | 39.5 | 12.4 | 5.225 | (116) | | |
| | 50-54세 | 5.1 | 28.0 | 50.0 | 16.9 | | (118) | 6.7 | 34.0 | 47.8 | | 11.5 | (209) | |
| | 55-59세 | 4.4 | 32.6 | 45.9 | 17.0 | | (135) | 6.5 | 39.8 | 41.3 | | 12.4 | (201) | |
| | 60-64세 | 8.4 | 26.0 | 53.4 | 12.2 | | (131) | 8.9 | 36.1 | 44.4 | | 10.6 | (180) | |
| 혼인 지위 | 유배우 | 2.8 | 28.4 | 57.4 | 11.3 | 15.448 | 6.5 | 38.5 | 43.5 | 11.5 | - | (141) | | |
| | 사별 | 4.5 | 31.8 | 59.1 | 4.5 | | (22) | - | 60.0 | 40.0 | | - | (5) | |
| | 이혼 | 5.8 | 25.9 | 48.2 | 20.1 | | (139) | 14.0 | 30.2 | 32.6 | | 23.3 | (43) | |
| | 별거 | 8.6 | 32.8 | 47.5 | 11.1 | | (198) | 10.7 | 33.9 | 48.2 | | 7.1 | (56) | |
| 교육 수준 | 미혼·비혼·기타 | 8.6 | 32.8 | 47.5 | 11.1 | (198) | 10.7 | 33.9 | 48.2 | 7.1 | (56) | | | |
| | 고교 이하 | 6.3 | 20.4 | 53.5 | 19.7 | (142) | 5.7 | 34.5 | 44.5 | 15.3 | (229) | | | |
| | 대학교 | 5.1 | 33.0 | 50.8 | 11.1 | 14.107* | 6.6 | 39.4 | 43.7 | 10.2 | 10.505 | (297) | | |
| 근로 여부 | 대학원 | 9.8 | 34.4 | 45.9 | 9.8 | (61) | 12.7 | 38.2 | 38.2 | 10.8 | (102) | | | |
| | 근로 그렇다 | 6.4 | 31.5 | 50.3 | 11.8 | 6.348 | 7.2 | 38.2 | 44.5 | 10.1 | 4.976 | (390) | | |
| | 아니다 | 4.5 | 22.7 | 53.6 | 19.1 | | (110) | 6.9 | 37.1 | 40.4 | | 15.5 | (245) | |
| 199 이하 | 4.9 | 26.8 | 51.2 | 17.1 | (164) | | 4.5 | 29.9 | 41.8 | 23.9 | | (67) | | |
| 가구 소득 | 200-399 | 7.7 | 29.7 | 49.5 | 13.2 | 6.859 | 5.3 | 33.5 | 51.5 | 9.7 | 27.532* | (182) | | |
| | 400-599 | 3.4 | 32.6 | 53.9 | 10.1 | | (89) | 6.8 | 37.5 | 43.9 | | 11.8 | * | (280) |
| | 600 이상 | 7.7 | 32.3 | 50.8 | 9.2 | | (65) | 10.2 | 45.1 | 34.5 | | 10.2 | (226) |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 5.5 | 33.6 | 49.8 | 11.1 | (235) | 6.9 | 37.6 | 43.7 | 11.8 | (595) | | | |
| | 전세 | 6.9 | 30.7 | 51.5 | 10.9 | 8.347 | 8.3 | 41.3 | 42.2 | 8.3 | 3.211 | (101) | | |
| | 월세 기타 | 6.1 | 23.2 | 52.4 | 18.3 | (164) | 7.3 | 35.4 | 41.7 | 15.6 | (96) | | | |
| 주관 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8.2 | 41.8 | 44.9 | 5.1 | (98) | 8.7 | 46.4 | 38.1 | 6.7 | (252) | | | |
| | 중하층 | 7.1 | 30.8 | 52.7 | 9.3 | 23.820 *** | 6.8 | 35.2 | 48.2 | 9.8 | 38.797 *** | (182) | | |
| | 하층 | 4.1 | 23.2 | 52.3 | 20.5 | (220) | 5.6 | 31.3 | 40.2 | 22.9 | (179) | | |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표 7-13> 노후 불안_4) 사람의 왕래가 줄어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낄 것 같다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 그 외 가구 (다인가구) | | | | | | | |
|---------------------|---------------------|---------------------|---------------|---------------|----------|---------|---------------------|---------------------|---------------|---------------|----------|--------|-------|-------|
| | 전혀 그렇 지 않다 | 별로 그렇 지 않다 | 약간 그렇 다 | 매우 그렇 다 | χ^2 | (명) | 전혀 그렇 지 않다 | 별로 그렇 지 않다 | 약간 그렇 다 | 매우 그렇 다 | χ^2 | (명) | | |
| 전체 | 5.0 | 28.2 | 50.8 | 16.0 | - | (500) | 5.0 | 35.4 | 46.5 | 13.1 | - | (800) | | |
| 성별 | 남자 | 4.4 | 25.8 | 52.7 | 17.1 | 2.626 | (275) | 4.0 | 37.1 | 46.5 | 12.4 | 2.624 | (402) | |
| | 여자 | 5.8 | 31.1 | 48.4 | 14.7 | | (225) | 6.0 | 33.7 | 46.5 | 13.8 | | (398) |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4.4 | 28.0 | 51.6 | 16.0 | 0.430 | (250) | 4.5 | 35.3 | 47.5 | 12.7 | 0.738 | (402) | |
| | 도지역 | 5.6 | 28.4 | 50.0 | 16.0 | | (250) | 5.5 | 35.4 | 45.5 | 13.6 | | (398) | |
| 연령 | 45-49세 | 5.2 | 27.6 | 53.4 | 13.8 | 3.434 | (116) | 7.1 | 37.6 | 41.9 | 13.3 | 5.512 | (210) | |
| | 50-54세 | 3.4 | 26.3 | 53.4 | 16.9 | | (118) | 3.8 | 36.8 | 45.9 | 13.4 | | (209) | |
| | 55-59세 | 5.2 | 30.4 | 45.9 | 18.5 | | (135) | 4.5 | 33.8 | 48.3 | 13.4 | | (201) | |
| | 60-64세 | 6.1 | 28.2 | 51.1 | 14.5 | | (131) | 4.4 | 32.8 | 50.6 | 12.2 | | (180) | |
| 혼인 지위 | 유배우 | 5.0 | 30.5 | 52.5 | 12.1 | 15.694 | (141) | 4.7 | 35.1 | 48.0 | 12.2 | - | (696) | |
| | 사별 | 4.5 | 36.4 | 45.5 | 13.6 | | (22) | - | 40.0 | 40.0 | 20.0 | | (5) | |
| | 이혼 별거 | 5.8 | 23.0 | 45.3 | 25.9 | | (139) | 4.7 | 34.9 | 30.2 | 30.2 | | (43) | |
| | 미혼·비혼·기타 | 4.5 | 29.3 | 54.0 | 12.1 | | (198) | 8.9 | 39.3 | 41.1 | 10.7 | | (56) |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4.2 | 21.8 | 53.5 | 20.4 | 15.465* | (142) | 2.2 | 33.6 | 48.5 | 15.7 | 8.770 | (229) | |
| | 대학교 | 4.0 | 31.3 | 51.9 | 12.8 | | (297) | 6.2 | 35.0 | 46.7 | 12.2 | | (469) | |
| | 대학원 | 11.5 | 27.9 | 39.3 | 21.3 | | (61) | 5.9 | 41.2 | 41.2 | 11.8 | | (102) | |
| 근로 여부 | 그렇다 | 4.9 | 30.5 | 51.3 | 13.3 | 11.381* | (390) | 5.6 | 36.6 | 45.9 | 11.9 | 4.202 | (555) | |
| | 아니다 | 5.5 | 20.0 | 49.1 | 25.5 | | (110) | 3.7 | 32.7 | 47.8 | 15.9 | | (245) |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3.7 | 26.2 | 45.7 | 24.4 | 14.698 | (164) | 3.0 | 28.4 | 35.8 | 32.8 | 35.176 | (67) | |
| | 200-399 | 6.0 | 26.9 | 55.5 | 11.5 | | (182) | 3.1 | 36.6 | 45.4 | 15.0 | | (227) | |
| | 400-599 | 4.5 | 31.5 | 51.7 | 12.4 | | (89) | 5.0 | 34.3 | 49.3 | 11.4 | | *** | (280) |
| | 600 이상 | 6.2 | 32.3 | 49.2 | 12.3 | | (65) | 7.5 | 37.6 | 47.3 | 7.5 | | (226) |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 6.0 | 28.9 | 52.3 | 12.8 | 4.653 | (235) | 4.0 | 36.3 | 47.1 | 12.6 | 10.406 | (595) | |
| | 전세 | 3.0 | 28.7 | 48.5 | 19.8 | | (101) | 10.1 | 33.9 | 45.0 | 11.0 | | (109) | |
| | 월세 기타 | 4.9 | 26.8 | 50.0 | 18.3 | | (164) | 5.2 | 31.3 | 44.8 | 18.8 | | (96) | |
| 주관 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10.2 | 34.7 | 45.9 | 9.2 | 1.071 | (98) | 6.7 | 42.5 | 46.8 | 4.0 | 64.510 | (252) | |
| | 중하층 | 3.8 | 33.0 | 53.3 | 9.9 | | (182) | 4.9 | 32.8 | 50.7 | 11.7 | | *** | (369) |
| | 하층 | 3.6 | 21.4 | 50.9 | 24.1 | | (220) | 2.8 | 30.7 | 37.4 | 29.1 | | *** | (179)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2) 노후에 누구로부터 지원을 받고 싶은가

노후에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 가족, 친구, 국가나 정부 중 주로 누구로부터 지원을 받고 싶은지를 조사하였다. 최근 복지정책의 확대, 코로나 상황에서의 재난지원금 등을 경험하면서 국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복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후 지원을 가족과 같은 사적 자원에 의지하기를 원하는지, 또는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적 자원을 통해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향후 정책 설계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가족이나 친인척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싶다는 응답은 1인가구(44.5%)보다 다인가구(61.0%)가 훨씬 높았다. 정부나 공공기관 등 국가의 지원을 원하는 경우는 1인가구(28.7%)가 다인가구(20.1%)보다 높게 나타났다. 노후의 불안과 위험에 대한 지원에서도 1인가구는 상대적으로 국가 등 공공기관에 대한 기대가 높은 반면, 다인가구는 60% 이상이 가족의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서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응답은 1인가구(13.4%)에서 다인가구(8.3%)보다 높다는 점도 주목된다. 정리하면, 베이비붐 세대 1인가구는 같은 세대의 다인가구에 비해 노후에 가족지원에 대한 기대가 낮은 편이며, 그 대안으로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또는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노후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표 7-14> 노후에 어려움에 처하면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가

(단위: %)

| 구분 | 가족이나 친인척 | 친구나 직장 동료 | 민간단체 (시민단체/종교단체/비영리기관 등) | 국가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 등) | 도움을 원하지 않음 (혼자서) | 간병인 | 계 (명) |
|------|----------|-----------|--------------------------|-----------------------|------------------|-----|-------------|
| 1인가구 | 44.5 | 8.2 | 5.2 | 28.7 | 13.4 | - | 100.0 (499) |
| 다인가구 | 61.0 | 6.9 | 3.6 | 20.1 | 8.3 | 0.1 | 100.0 (800) |

<표 7-15> 노후에 어려움에 처하면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가 (1인가구)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χ ² | (명) | |
|------------|------------|-----------|--------------------------|-----------------------|------------------|----------------|------------|-------|
| | 가족이나 친인척 | 친구나 직장 동료 | 민간단체 (시민단체/종교단체/비영리기관 등) | 국가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 등) | 도움을 원하지 않음 (혼자서) | | | |
| 전체 | 44.5 | 8.2 | 5.2 | 28.7 | 13.4 | - | (499) | |
| 성별 | 남자 | 42.5 | 10.2 | 5.8 | 27.3 | 14.2 | 4.504 | (275) |
| | 여자 | 46.9 | 5.8 | 4.5 | 30.4 | 12.5 | | (224)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43.6 | 8.4 | 6.4 | 30.4 | 11.2 | 3.851 | (250) |
| | 도지역 | 45.4 | 8.0 | 4.0 | 26.9 | 15.7 | | (249) |
| 연령 | 45-49세 | 46.6 | 10.3 | 3.4 | 25.0 | 14.7 | 20.026 | (116) |
| | 50-54세 | 37.3 | 11.9 | 5.1 | 39.0 | 6.8 | | (118) |
| | 55-59세 | 47.4 | 7.4 | 5.2 | 24.4 | 15.6 | | (135) |
| | 60-64세 | 46.2 | 3.8 | 6.9 | 26.9 | 16.2 | | (130) |
| 혼인 지위 | 유배우 | 66.0 | 6.4 | 3.5 | 17.7 | 6.4 | - | (141) |
| | 사별 | 38.1 | 4.8 | 4.8 | 42.9 | 9.5 | | (21) |
| | 이혼, 별거 | 38.1 | 3.6 | 5.0 | 37.4 | 15.8 | | (139) |
| | 미혼, 비혼, 기타 | 34.3 | 13.1 | 6.6 | 28.8 | 17.2 | | (198)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39.0 | 8.5 | 9.9 | 26.2 | 16.3 | - | (141) |
| | 대학교 | 46.1 | 7.1 | 3.4 | 31.6 | 11.8 | | (297) |
| | 대학원 | 49.2 | 13.1 | 3.3 | 19.7 | 14.8 | | (61) |
| 근로 여부 | 그렇다 | 46.5 | 9.5 | 4.9 | 26.0 | 13.1 | 10.213* | (389) |
| | 아니다 | 37.3 | 3.6 | 6.4 | 38.2 | 14.5 | | (110)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29.9 | 5.5 | 7.3 | 40.2 | 17.1 | - | (164) |
| | 200~399 | 47.0 | 7.7 | 4.4 | 26.5 | 14.4 | | (181) |
| | 400~599 | 55.1 | 9.0 | 3.4 | 22.5 | 10.1 | | (89) |
| | 600 이상 | 60.0 | 15.4 | 4.6 | 13.8 | 6.2 | | (65)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 51.5 | 7.7 | 4.3 | 23.4 | 13.2 | 15.633* | (235) |
| | 전세 | 47.0 | 6.0 | 5.0 | 30.0 | 12.0 | | (100) |
| | 월세 기타 | 32.9 | 10.4 | 6.7 | 35.4 | 14.6 | | (164) |
| 주관 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61.2 | 14.3 | 4.1 | 14.3 | 6.1 | 18.419 *** | (98) |
| | 중하층 | 52.2 | 4.4 | 3.3 | 25.3 | 14.8 | | (182) |
| | 하층 | 30.6 | 8.7 | 7.3 | 37.9 | 15.5 | | (219) |

주: 1) 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
 2) p<.05 *, p<.01 **, p<.001 ***

1인가구 내부의 차이를 살펴보면, 스스로 인지하는 주관적 경제지위가 낮은 집단,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집단, 그리고 주거 형태에서 월세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이 국가의 지원을 원하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다. 복지 수요가 높은 집단에서 국가의 노후 지원을 선호하는 흐름을 읽을 수 있다. 반면, 1인가구 안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가구소득이 높고 주관적 경제 지위가 높을수록 가족의 지원을 보다 선호하는 경향도 관찰된다.

2. 정책 수요

가. 지역사회 기반의 정책 수요

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 환경에 대한 만족도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 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7가지 항목으로 조사하였다.

7가지 항목 모두에서 다인가구에 비해 1인가구의 만족도 평균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사생활 보호나 안전한 환경, 녹지와 쾌적한 환경, 자녀양육 여건 등 주거지 주변 환경에 대해 1인가구들의 만족도는 3점에서 2점 사이, 즉 약간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다. 1인가구의 경우 가장 만족도가 낮은 항목이 이웃관계, 마을공동체 활성화(평균점수 2.36)인 반면, 다인가구는 자녀교육에 좋은 여건(평균 2.78점) 항목에서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았다.

전체적인 성별 차이를 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들의 주거지 환경 만족도가 약간 높았는데, 특히 공원 녹지 등 쾌적한 환경, 자녀양육에 좋은 여건, 사생활 보호, 이웃관계와 마을 공동체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7-16> 주거지 환경에 대한 만족도: 성별·가구형태별 비교

(단위: 점)

| 구분 | ① 사생활 보호 (방음, 공간 분리 등) | ② 치안이 안정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 ③ 공원, 녹지 등 쾌적한 환경 | ④ 교통, 쇼핑 등이 편리한 편의성 | ⑤ 교육, 자녀 양육에 좋은 여건 | ⑥ 이웃관계, 마을 공동체 활성화 | ⑦ 좋은 지역 이미지, 자산 가치 |
|-----------|------------------------|-------------------------|-------------------|---------------------|--------------------|--------------------|--------------------|
| 전체 (1300) | 2.76 | 3.08 | 2.91 | 2.90 | 2.71 | 2.45 | 2.54 |
| 남성 (677) | 2.72 | 3.07 | 2.86 | 2.88 | 2.64 | 2.41 | 2.53 |
| 여성 (623) | 2.82 | 3.09 | 2.97 | 2.92 | 2.78 | 2.49 | 2.55 |
| t | -2.299* | -.537 | -2.763** | -1.001 | -3.647*** | -2.013* | -.310 |
| 1인가구(500) | 2.63 | 2.96 | 2.82 | 2.83 | 2.59 | 2.36 | 2.44 |
| 다인가구(800) | 2.85 | 3.15 | 2.98 | 2.95 | 2.78 | 2.50 | 2.60 |
| t | -5.029*** | -5.343*** | -3.693*** | -2.736** | -4.493*** | -3.567*** | -3.751*** |

주: 1) 점수는 4점 척도의 평균 점수임 (1점 매우 불만족 ~ 4점 매우 만족함)

2) p<.05 *, p<.01 **, p<.001 ***

<표 7-17> 주거지 환경에 대한 만족도 (평균 비교): 1인가구 (단위: 점)

| 구분 | ①사생활 보호 (방음, 공간 분리 등) | ②치안이 안정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 ③공원, 녹지 등 쾌적한 환경 | ④교통, 쇼핑 등이 편리한 편의성 | ⑤교육, 자녀 양육에 좋은 여건 | ⑥이웃관계, 마을 공동체 활성화 | ⑦좋은 지역 이미지, 자산 가치 |
|---------------------|--------------------------------|---------------------------------|------------------------|-----------------------------|-------------------------|-------------------------|-------------------------|
| 전체 (N=500) | 2.63 | 2.96 | 2.82 | 2.83 | 2.59 | 2.36 | 2.44 |
| 성별 | | | | | | | |
| 남성 | 2.52 | 2.94 | 2.76 | 2.78 | 2.49 | 2.27 | 2.42 |
| 여성 | 2.76 | 2.99 | 2.89 | 2.89 | 2.72 | 2.47 | 2.48 |
| t | -3.218** | -.874 | -2.014* | -1.653 | -3.494** | -3.223** | -.903 |
| 거주 지역 | | | | | | | |
| 광역시·특별 시 | 2.62 | 3.00 | 2.84 | 2.84 | 2.62 | 2.37 | 2.44 |
| 도지역 | 2.63 | 2.92 | 2.80 | 2.82 | 2.56 | 2.35 | 2.44 |
| t | -.110 | 1.396 | .563 | .238 | .943 | .254 | .000 |
| 연령 | | | | | | | |
| 45-49세 | 2.67 | 3.04 | 2.91 | 2.81 | 2.59 | 2.36 | 2.51 |
| 50-54세 | 2.62 | 2.99 | 2.80 | 2.92 | 2.58 | 2.30 | 2.44 |
| 55-59세 | 2.60 | 2.93 | 2.83 | 2.81 | 2.64 | 2.36 | 2.36 |
| 60-64세 | 2.63 | 2.90 | 2.74 | 2.79 | 2.56 | 2.42 | 2.47 |
| F | .175 | 1.128 | 1.260 | .777 | .327 | .635 | .990 |
| 혼인 지위 | | | | | | | |
| 유배우 | 2.71 | 3.03 | 2.92 | 2.93 | 2.70 | 2.50 | 2.55 |
| 사별 | 2.86 | 2.95 | 2.59 | 2.95 | 2.73 | 2.45 | 2.41 |
| 이혼, 별거 | 2.55 | 2.87 | 2.76 | 2.70 | 2.51 | 2.24 | 2.31 |
| 미혼, 비혼기 타 | 2.60 | 2.98 | 2.81 | 2.84 | 2.57 | 2.33 | 2.46 |
| F | 1.642 | 1.362 | 2.043 | 2.493 | 1.955 | 3.645* | 2.909* |
| 교육 수준 | | | | | | | |
| 고교 이하 | 2.52 | 2.80 | 2.72 | 2.70 | 2.48 | 2.31 | 2.38 |
| 대학교 | 2.68 | 3.02 | 2.87 | 2.87 | 2.62 | 2.35 | 2.44 |
| 대학원 | 2.64 | 3.08 | 2.79 | 2.95 | 2.75 | 2.51 | 2.59 |
| F | 1.789 | 6.415** | 2.305 | 3.196* | 3.584* | 1.730 | 1.887 |
| 가구 소득 | | | | | | | |
| 199 이하 | 2.46 | 2.82 | 2.71 | 2.76 | 2.47 | 2.27 | 2.32 |
| 200~399 | 2.64 | 2.98 | 2.80 | 2.90 | 2.60 | 2.34 | 2.42 |
| 400~599 | 2.71 | 3.00 | 2.89 | 2.81 | 2.76 | 2.46 | 2.58 |
| 600 이상 | 2.89 | 3.20 | 3.06 | 2.86 | 2.66 | 2.51 | 2.63 |
| F | 4.999** | 5.321** | 4.251** | .967 | 3.623* | 2.559 | 4.452** |
| 주택 점유 형태 | | | | | | | |
| 자가 | 2.84 | 3.09 | 2.94 | 2.91 | 2.74 | 2.50 | 2.56 |
| 전세 | 2.55 | 2.89 | 2.77 | 2.90 | 2.60 | 2.37 | 2.43 |
| 월세 기타 | 2.37 | 2.83 | 2.68 | 2.68 | 2.37 | 2.15 | 2.29 |
| F | 17.666*** | 7.884*** | 6.784** | 4.877** | 13.957*** | 12.475*** | 6.978** |
| 주관 적 경제 수준 | | | | | | | |
| 중상층 | 2.94 | 3.22 | 3.04 | 2.85 | 2.74 | 2.60 | 2.73 |
| 중하층 | 2.69 | 2.99 | 2.86 | 2.92 | 2.62 | 2.35 | 2.52 |
| 하층 | 2.44 | 2.82 | 2.68 | 2.75 | 2.51 | 2.26 | 2.25 |
| F | 14.310*** | 12.883*** | 9.436*** | 2.381 | 3.898* | 8.117*** | 18.944*** |

주: 1) 점수는 4점 척도의 평균 점수임 (1점 매우 불만족 ~ 4점 매우 만족함)
 2) p<.05 *, p<.01 **, p<.001 ***

<표 7-18> 주거지 환경에 대한 만족도 (평균 비교): 다인가구

(단위: 점)

| 구분 | ①사생활 보호 (방음, 공간 분리 등) | ②치안이 안정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 ③공원, 녹지 등 쾌적한 환경 | ④교통, 쇼핑 등이 편리한 편의성 | ⑤교육, 자녀 양육에 좋은 여건 | ⑥이웃관계, 마을 공동체 활성화 | ⑦좋은 지역 이미지, 자산 가치 |
|--------------|-----------------------|------------------------|------------------|--------------------|-------------------|-------------------|-------------------|
| 전체 (N=800) | 2.85 | 3.15 | 2.98 | 2.95 | 2.78 | 2.50 | 2.60 |
| 성별 | | | | | | | |
| 남성 | 2.85 | 3.16 | 2.93 | 2.95 | 2.73 | 2.50 | 2.61 |
| 여성 | 2.85 | 3.15 | 3.02 | 2.94 | 2.82 | 2.49 | 2.59 |
| t | -.019 | .376 | -1.754 | .203 | -1.665 | .208 | .511 |
| 거주 지역 | | | | | | | |
| 광역시·특별시 | 2.82 | 3.14 | 2.88 | 3.03 | 2.80 | 2.51 | 2.58 |
| 도지역 | 2.88 | 3.17 | 3.07 | 2.86 | 2.75 | 2.49 | 2.62 |
| t | -1.254 | -.801 | -3.439*** | 3.209** | .950 | .417 | -.838 |
| 연령 | | | | | | | |
| 45-49세 | 2.80 | 3.13 | 2.96 | 2.90 | 2.72 | 2.48 | 2.58 |
| 50-54세 | 2.77 | 3.18 | 2.95 | 2.97 | 2.74 | 2.44 | 2.57 |
| 55-59세 | 2.87 | 3.12 | 2.92 | 2.93 | 2.77 | 2.46 | 2.54 |
| 60-64세 | 2.98 | 3.18 | 3.09 | 2.99 | 2.88 | 2.63 | 2.72 |
| F | 3.193* | .491 | 1.854 | .617 | 2.008 | 3.087* | 2.284 |
| 혼인 지위 | | | | | | | |
| 유배우 | 2.87 | 3.17 | 3.00 | 2.95 | 2.80 | 2.51 | 2.61 |
| 사별 | 2.40 | 3.20 | 3.00 | 3.00 | 2.60 | 2.40 | 2.60 |
| 이혼, 별거 | 2.58 | 3.02 | 2.84 | 2.79 | 2.65 | 2.37 | 2.42 |
| 미혼, 비혼기 타 | 2.84 | 3.11 | 2.79 | 3.00 | 2.61 | 2.52 | 2.54 |
| F | 2.650* | .884 | 1.836 | .770 | 1.851 | .583 | 1.115 |
| 교육 수준 | | | | | | | |
| 고교 이하 | 2.74 | 3.02 | 2.87 | 2.85 | 2.65 | 2.43 | 2.52 |
| 대학교 | 2.86 | 3.19 | 3.01 | 2.97 | 2.81 | 2.50 | 2.60 |
| 대학원 | 3.04 | 3.31 | 3.04 | 3.05 | 2.88 | 2.64 | 2.75 |
| F | 6.017** | 10.413*** | 2.904 | 3.457* | 5.486** | 3.248* | 3.674* |
| 가구 소득 | | | | | | | |
| 199 이하 | 2.40 | 2.91 | 2.69 | 2.70 | 2.42 | 2.31 | 2.27 |
| 200~399 | 2.75 | 3.11 | 2.92 | 2.93 | 2.69 | 2.48 | 2.53 |
| 400~599 | 2.91 | 3.13 | 2.98 | 2.93 | 2.83 | 2.51 | 2.59 |
| 600 이상 | 3.00 | 3.30 | 3.11 | 3.06 | 2.90 | 2.57 | 2.77 |
| F | 13.628*** | 9.061*** | 6.112*** | 4.517** | 9.994*** | 2.543 | 9.527*** |
| 주택 점유 형태 | | | | | | | |
| 자가 | 2.92 | 3.17 | 3.00 | 2.95 | 2.80 | 2.53 | 2.63 |
| 전세 | 2.72 | 3.12 | 2.93 | 3.08 | 2.78 | 2.42 | 2.59 |
| 월세 기타 | 2.57 | 3.08 | 2.86 | 2.79 | 2.63 | 2.39 | 2.45 |
| F | 10.787*** | 1.098 | 1.583 | 4.046* | 2.521 | 2.794 | 2.437 |
| 주관 적 경제 수준 | | | | | | | |
| 중상층 | 3.04 | 3.31 | 3.13 | 3.10 | 2.98 | 2.64 | 2.81 |
| 중하층 | 2.89 | 3.12 | 2.98 | 2.90 | 2.73 | 2.49 | 2.59 |
| 하층 | 2.49 | 3.00 | 2.74 | 2.83 | 2.58 | 2.32 | 2.32 |
| F | 32.627*** | 15.971*** | 13.649*** | 8.536*** | 19.703*** | 12.024*** | 24.323*** |

주: 1) 점수는 4점 척도의 평균 점수임 (1점 매우 불만족 ~ 4점 매우 만족함)

2) p<.05 *, p<.01 **, p<.001 ***

2) 거주지 주변의 공적 공간/ 공공 서비스 필요도

현재 거주하는 지역 주변에서 어떤 공적 시설이나 공공 서비스가 필요한지 조사하였다. 베이비붐 세대 전체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항목은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여가시간을 보내 수 있는 문화 공간’(3.09)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고립되지 않은 곳에서 함께 자녀나 노부모를 돌볼 수 있는 공간’(3.02), ‘바쁜 업무, 이동 중 잠시 머물면서 편의시설 이용 및 휴식이 가능한 공간’(2.98), ‘금융, 재테크 등 유용한 경제 및 취·창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2.86), ‘동호회, 동아리 등 관심이 비슷한 사람들과 만나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2.84),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보제공, 상담, 소규모 모임이 제공되는 공간’(2.8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소셜 다이닝, 마을 부엌 등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공간’(2.54)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성별에 따른 응답을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여성들의 척도점수 평균이 높다. 이는 사는 곳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적 공간이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선호하는 시설의 순위는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특히 여성들의 선호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들은 큰 돈 들이지 않고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문화 공간,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상담이나 소규모 모임이 제공되는 공간이었다.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주거지 주변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가구 형태별로 보면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공적 공간 및 서비스 수요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난다. 1인가구나 다인가구 응답자 모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적 공간은 ‘큰 비용 없이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문화시설’이며, 척도 평균점수는 다인가구(3.12)가 1인가구(3.04)보다 좀 더 높았다. 두 번째, 세 번째로 선호하는 공간의 순위를 보면 다인가구의 경우 ‘고립되지 않은 공간에서 함께 자녀와 노부모를 돌볼 수 있는 공간(다인가구 3.06, 1인가구 2.95)인 반면, 1인가구에서는 ‘바쁜 업무나 이동 중 잠시 편의시설을 이용하거나 쉴 수 있는 공간’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다인가구 2.97, 1인가구 3.00). 다인가구에서 자녀 및 가족 돌봄을 약간 더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동호회, 동아리 등 관심이 비슷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공간, 금융 재테크 등 경제 정

보 및 취·창업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응답에서도 1인가구보다 다인가구에서 약간 더 높았다. 한편 정서적 지지와 상담, 소규모 모임이 제공되는 공간, 소셜 다이닝, 마을 부엌 등 함께 식사하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인가구와 다인가구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7-19> 거주지 주변에 필요한 공적 시설/ 공적 서비스: 1인가구와 다인가구

(단위: 점)

| 구분 | ① 여가/ 문화 공간 (북카페등) | ② 자녀나 노부모 함께 돌봄 | ③ 동아리 등 사람들과 소통 | ④ 금융, 재테크 등 경제/ 취·창업 정보 | ⑤ 소셜 다이닝, 마을 부엌 등 | ⑥ 정서적지지 상담, 소규모 모임 제공 | ⑦ 업무, 이동 중 편의 시설 이용 및 휴식 |
|---------------|-----------------------------|--------------------------|--------------------------|--|-------------------------------|-----------------------------------|--------------------------------------|
| 전체 (1300) | 3.09 | 3.02 | 2.84 | 2.86 | 2.54 | 2.80 | 2.98 |
| 남성 (677) | 3.05 | 2.97 | 2.81 | 2.82 | 2.50 | 2.75 | 2.97 |
| 성별 여성 (623) | 3.14 | 3.06 | 2.87 | 2.91 | 2.59 | 2.86 | 3.00 |
| t | -2.606** | -2.544* | -1.844 | -2.461* | -2.158* | -3.082** | -.823 |
| 1인가구 (500) | 3.04 | 2.95 | 2.83 | 2.84 | 2.54 | 2.80 | 3.00 |
| 다인가구 (800) | 3.12 | 3.06 | 2.85 | 2.88 | 2.54 | 2.80 | 2.97 |
| t | -2.413* | -2.905** | -.349 | -1.127 | .127 | .020 | .661 |

주: 1) 점수는 4점 척도의 평균 점수임 (1점 전혀 필요하지 않음 ~ 4점 매우 필요함)
 2) p<.05 *, p<.01 **, p<.001 ***

공적 시설 및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1인가구 내부의 응답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표 7-19>이다. 거주지 주변의 다양한 공적 공간이나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1인가구 내부에서 성별, 연령, 거주지역, 교육수준 등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달리 표현하면, 전반적으로 이러한 공간과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1인가구 거주자들이 의견이 엇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높고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은 층에서는 북카페 등 세련된 문화 공간에 대한 수요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7-20> 거주지 주변에 필요한 공적 공간/ 공적 서비스: 1인가구 (단위: 점)

| 구분 | ① 여가/ 문화 공간 (북카페등) | ② 자녀나 노부모 함께 돌봄 | ③ 동아리 사람들과 소통 | ④ 금융, 등 재테크/ 취창업 정보 | ⑤ 소셜 다이닝,부업 마을 등 | ⑥ 정서적지지 상담, 소규모 모임 제공 | ⑦ 업무, 이동 편의 시설 이용 및 휴식 |
|---------------|-----------------------------|--------------------------|------------------------|---------------------------------|---------------------------|-----------------------------------|------------------------------------|
| 성별 남성 | 2.99 | 2.91 | 2.82 | 2.80 | 2.49 | 2.77 | 2.99 |
| 여성 | 3.09 | 3.00 | 2.84 | 2.88 | 2.61 | 2.84 | 3.00 |
| t | -1.663 | -1.633 | -0.371 | -1.148 | -1.781 | -1.154 | -0.197 |
| 거주 지역 광역, 특별시 | 3.04 | 2.96 | 2.81 | 2.83 | 2.54 | 2.80 | 2.96 |
| 도지역 | 3.03 | 2.94 | 2.85 | 2.84 | 2.55 | 2.80 | 3.03 |
| t | .256 | .198 | -.659 | -.128 | -.242 | .067 | -1.153 |
| 연령 45-49세 | 3.05 | 3.03 | 2.73 | 2.83 | 2.47 | 2.78 | 2.93 |
| 50-54세 | 3.08 | 2.92 | 2.81 | 2.80 | 2.47 | 2.77 | 2.97 |
| 55-59세 | 2.97 | 2.93 | 2.85 | 2.87 | 2.62 | 2.84 | 3.02 |
| 60-64세 | 3.05 | 2.93 | 2.92 | 2.84 | 2.59 | 2.82 | 3.05 |
| F | .574 | .636 | 1.569 | .265 | 1.355 | .289 | .817 |
| 혼인 지위 유배우 | 3.13 | 2.98 | 2.91 | 2.86 | 2.60 | 2.89 | 3.04 |
| 사별 | 3.05 | 3.00 | 2.91 | 2.77 | 2.64 | 2.82 | 3.09 |
| 이혼, 별거 | 2.92 | 2.86 | 2.80 | 2.74 | 2.52 | 2.71 | 2.89 |
| 미혼, 비혼기 타 | 3.05 | 2.98 | 2.79 | 2.89 | 2.51 | 2.81 | 3.03 |
| F | 2.113 | 1.064 | 1.012 | 1.427 | .608 | 1.756 | 1.721 |
| 교육 수준 고교 이하 | 2.92 | 2.89 | 2.77 | 2.82 | 2.57 | 2.78 | 3.01 |
| 대학교 | 3.07 | 2.98 | 2.85 | 2.85 | 2.53 | 2.81 | 2.98 |
| 대학원 | 3.13 | 2.95 | 2.89 | 2.80 | 2.54 | 2.79 | 3.07 |
| F | 2.828 | .900 | .782 | .136 | .130 | .136 | .446 |
| 가구 소득 199 이하 | 2.95 | 2.96 | 2.84 | 2.89 | 2.57 | 2.83 | 3.10 |
| 200~399 | 3.05 | 2.90 | 2.79 | 2.82 | 2.48 | 2.79 | 2.92 |
| 400~599 | 2.99 | 2.92 | 2.88 | 2.79 | 2.53 | 2.80 | 2.93 |
| 600 이상 | 3.28 | 3.11 | 2.86 | 2.82 | 2.68 | 2.78 | 3.03 |
| F | 3.746* | 1.563 | .396 | .535 | 1.288 | .143 | 2.556 |
| 주택 점유 형태 자가 | 3.09 | 3.00 | 2.78 | 2.82 | 2.57 | 2.77 | 2.98 |
| 전세 | 2.96 | 2.82 | 2.85 | 2.79 | 2.46 | 2.85 | 2.96 |
| 월세 기타 | 3.01 | 2.95 | 2.89 | 2.88 | 2.56 | 2.82 | 3.04 |
| F | 1.270 | 2.594 | 1.260 | .643 | .918 | .587 | .601 |
| 주관적 경제 수준 중상층 | 3.19 | 2.96 | 2.86 | 2.82 | 2.67 | 2.82 | 2.99 |
| 중하층 | 3.05 | 2.95 | 2.81 | 2.76 | 2.43 | 2.74 | 2.97 |
| 하층 | 2.95 | 2.95 | 2.84 | 2.90 | 2.58 | 2.85 | 3.02 |
| F | 4.085* | .014 | .202 | 2.089 | 4.069* | 1.483 | .297 |

주: 1) 4점 척도 평균 점수 (1점 전혀 필요하지 않음 ~ 4점 매우 필요함)
 2) p<.05 *, p<.01 **, p<.001 ***

<표 7-21> 거주지 주변에 필요한 공적 공간/ 공적 서비스: 다인가구

(단위: 점)

| 구분 | ① 여가/ 문화 공간 (북카페등) | ② 자녀나 노부모 함께 돌봄 | ③ 동아리 등 사람들과 소통 | ④ 금융, 재테크 등 경제/ 취·창업 정보 | ⑤ 소셜 다이닝, 마을 부엌 등 | ⑥ 정서적지지 상담, 소규모 모임 제공 | ⑦ 업무, 이동 중 편의 시설 이용 및 휴식 |
|---------------|-----------------------------|--------------------------|--------------------------|--|-------------------------------|-----------------------------------|--------------------------------------|
| 남성 | 3.08 | 3.02 | 2.80 | 2.83 | 2.50 | 2.73 | 2.95 |
| 여성 | 3.16 | 3.10 | 2.89 | 2.93 | 2.57 | 2.87 | 2.99 |
| t | -1.868 | -1.785 | -2.077* | -2.173* | -1.343 | -3.057** | -.943 |
| 광역·특별시 | 3.11 | 3.04 | 2.85 | 2.89 | 2.52 | 2.80 | 3.01 |
| 도지역 | 3.13 | 3.08 | 2.84 | 2.87 | 2.56 | 2.80 | 2.94 |
| t | -.444 | -.869 | .034 | .338 | -.650 | -.011 | 1.627 |
| 45-49세 | 3.15 | 3.04 | 2.80 | 2.96 | 2.49 | 2.81 | 2.95 |
| 50-54세 | 3.16 | 3.06 | 2.81 | 2.89 | 2.57 | 2.74 | 3.01 |
| 연령 55-59세 | 3.06 | 3.06 | 2.84 | 2.86 | 2.55 | 2.81 | 3.00 |
| 60-64세 | 3.12 | 3.06 | 2.94 | 2.81 | 2.54 | 2.86 | 2.92 |
| F | 1.238 | .045 | 1.830 | 1.739 | .512 | 1.085 | .878 |
| 고교 이하 | 3.03 | 3.07 | 2.84 | 2.92 | 2.49 | 2.79 | 2.93 |
| 혼인 대학교 | 3.15 | 3.06 | 2.84 | 2.88 | 2.54 | 2.80 | 2.99 |
| 지위 대학원 | 3.19 | 3.01 | 2.90 | 2.79 | 2.66 | 2.83 | 2.98 |
| F | 3.702* | .384 | .467 | 1.163 | 1.860 | .167 | .779 |
| 그렇다 | 3.11 | 3.03 | 2.81 | 2.86 | 2.55 | 2.77 | 2.98 |
| 교육 수준 아니다 | 3.16 | 3.12 | 2.92 | 2.93 | 2.52 | 2.87 | 2.96 |
| t | -1.244 | -1.888 | -2.289* | -1.292 | .428 | -2.158* | .311 |
| 199 이하 | 3.13 | 3.15 | 2.81 | 2.72 | 2.57 | 2.76 | 2.99 |
| 200~399 | 3.06 | 3.02 | 2.80 | 2.84 | 2.55 | 2.79 | 2.99 |
| 가구 소득 400~599 | 3.09 | 3.06 | 2.83 | 2.91 | 2.50 | 2.83 | 2.96 |
| 600 이상 | 3.23 | 3.06 | 2.92 | 2.94 | 2.57 | 2.80 | 2.98 |
| F | 3.422* | .813 | 1.404 | 2.323 | .468 | .257 | .106 |
| 자가 | 3.14 | 3.06 | 2.86 | 2.90 | 2.55 | 2.80 | 2.98 |
| 주택 점유 형태 전세 | 3.10 | 3.05 | 2.80 | 2.90 | 2.43 | 2.77 | 2.99 |
| 월세 기타 | 3.02 | 3.03 | 2.80 | 2.73 | 2.61 | 2.85 | 2.94 |
| F | 1.871 | .121 | .687 | 2.717 | 1.808 | .473 | .202 |
| 중상층 | 3.17 | 3.05 | 2.90 | 2.91 | 2.60 | 2.81 | 2.98 |
| 주관적 중하층 | 3.11 | 3.03 | 2.84 | 2.89 | 2.52 | 2.80 | 2.96 |
| 경계 수준 하층 | 3.08 | 3.12 | 2.78 | 2.82 | 2.50 | 2.78 | 2.98 |
| F | 1.350 | 1.214 | 2.013 | 1.089 | 1.211 | .110 | .11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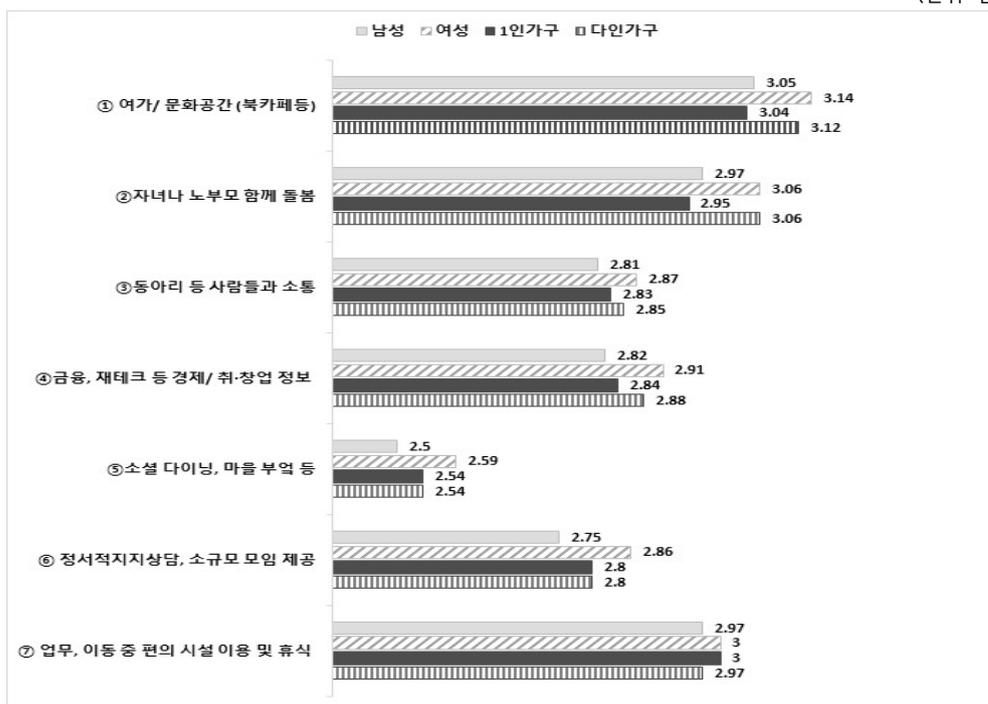
주: 1) 4점 척도 평균 점수 (1점 전혀 필요하지 않음 ~ 4점 매우 필요함)

2) p<.05 *, p<.01 **, p<.001 ***

한편 다인가구 내부의 차이를 살펴보면, 공적 공간 및 공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뚜렷한 편이다. 여성들은 7가지 항목 모두에서 남성보다 공적 공간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더 많이 느끼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별 차이는 정서적 지지와 소규모 모임 제공, 금융 재테크 취·창업 등 경제 정보 제공, 그리고 동아리나 동아리 등 관심이 비슷한 사람들이 소통하는 공간에서 나타났다. 금융, 재테크, 일자리 등 경제 정보에 대해서도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많은 관심을 보인 점이 주목된다.

또한 다인가구 응답자 안에서도 교육수준이 높고 가구 소득수준이 높은 응답자들에서 세련된 문화 공간에 대한 수요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일을 하는 사람에 비해 일을 하지 않는 응답자들에서 정서적 지지와 소규모 모임 제공, 동아리나 동호회 같은 소통 공간을 선호하는 경향이 좀 더 높았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성별 수요 차이와도 어느 정도 중첩되는데, 일을 하지 않는 응답자 중에 여성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단위: 점)



<그림 7-5> 거주지 주변에 필요한 공적 공간/ 공적 서비스 수요

나. 중장년 가족을 위한 정책 수요와 전달체계 선호

1) 중장년 가족지원 정책의 필요성

베이비붐 세대 응답자들이 중장년 가족에게 필요한 정책으로 어떤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13가지 정책 항목을 제시하고 필요한 정도를 질문하였다. 모든 항목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매우 높았는데, 4점 척도 평균 점수로 하더라도 대부분의 항목에서 3점 이상의 점수를 보여 중장년 가족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척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정책은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와 취업지원(3.37점)이었으며, 그 다음은 신체 건강 증진(3.28점), 가족 돌봄에 대한 지원(3.20점), 노후대비 재무설계(3.15), 문화·취미활동 프로그램, 힐링캠프와 힐링 여행(각각 3.06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데, 여성들은 신체건강 증진, 마을공동체와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문화·취미활동 프로그램, 웰다잉 교육, 안전 확인을 위한 주기적 연락, 중장년층 취업지원, 고립 방지를 위한 관계 맺기 지원 등 많은 항목에서 남성보다 정책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 특히 건강관리, 중장년 일자리, 문화와 취미활동 프로그램은 전체적인 선호도도 높은 동시에 남성보다 여성의 수요가 높은 정책으로 조사되었다.

가구형태별로는 중장년 가족을 위한 정책 필요성에 대한 응답에서 차이가 크지 않은 편이었다. 가족돌봄에 대한 지원은 1인가구(3.15)보다 다인가구(3.23)에서 더 수요가 높았으며, 반면 안전확인을 위한 주기적 연락·방문(1인가구 2.99, 다인가구 2.90), 고립 방지를 위한 관계 맺기 지원(1인가구 3.00, 다인가구 2.93)에서는 1인가구들의 필요성 인식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표 7-22> 중장년 가족을 위한 정책 수요: 전체 가구

(단위: 점)

| 구분 | ① 가족 돌봄에 대한 지원 | ②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취업 지원 | ③ 노후대비를 위한 재무설계 지원 | ④ 가족 갈등 상담 등 가족관계 개선 | ⑤ 우울증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 ⑥ 신체건강 증진 (생활체육 등) | ⑦ 마을공동체, 지역 참여활동 활성화 |
|------------|------------------------|------------------------|-----------------------------|----------------------|---------------------------|---------------------------|----------------------|
| 전체 (1300) | 3.20 | 3.37 | 3.15 | 2.93 | 3.17 | 3.28 | 2.78 |
| 성별 | | | | | | | |
| 남성 (677) | 3.18 | 3.32 | 3.11 | 2.90 | 3.11 | 3.21 | 2.71 |
| 여성 (623) | 3.22 | 3.42 | 3.20 | 2.96 | 3.22 | 3.35 | 2.86 |
| t | -1.101 | -2.781** | -2.429* | -1.481 | -3.144** | -4.422*** | -3.948*** |
| 가구 형태 | | | | | | | |
| 1인가구 (500) | 3.15 | 3.36 | 3.16 | 2.92 | 3.20 | 3.29 | 2.78 |
| 다인가구 (800) | 3.23 | 3.37 | 3.15 | 2.94 | 3.14 | 3.27 | 2.79 |
| t | -2.219* | -.271 | .214 | -.431 | 1.729 | .569 | -.163 |
| 구분 | ⑧ 문화/취미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⑨ 웰다잉 (품위 있는 죽음) 준비 교육 | ⑩ 안전 확인, 심리안정을 위한 주기적 연락/방문 | ⑪ 힐링 캠프, 여행 | ⑫ 외로움, 고립 방지를 위한 관계 맺기 지원 | ⑬ 독립생활 역량강화 (집밥, 가사 관리 등) | |
| 전체 (1300) | 3.06 | 2.94 | 2.93 | 3.06 | 2.96 | 2.92 | |
| 성별 | | | | | | | |
| 남성 (677) | 2.97 | 2.81 | 2.86 | 3.03 | 2.90 | 2.87 | |
| 여성 (623) | 3.16 | 3.08 | 3.01 | 3.10 | 3.02 | 2.98 | |
| t | -5.737*** | -6.534*** | -3.929*** | -1.800 | -3.379** | -3.036** | |
| 가구 형태 | | | | | | | |
| 1인가구 (500) | 3.04 | 2.97 | 2.99 | 3.08 | 3.00 | 2.96 | |
| 다인가구 (800) | 3.07 | 2.92 | 2.90 | 3.05 | 2.93 | 2.89 | |
| t | -.843 | 1.189 | 2.247* | .877 | 2.017* | 1.746 | |

주: p<.05 *, p<.01 **, p<.001 ***

1인가구 응답자들 사이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중장년 가족지원정책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표 7-23>와 <표 7-24>이다. 거주지역, 가구 소득, 교육수준, 주택점유 형태 등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항목에서는 가족지원 정책 선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가장 뚜렷한 차이는 1인가구 여성 응답자들이 남성에 비해 중장년 가족지원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이다. 여성과 남성 모두 중장년층 취업 지원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점은 공통적이지만, 우울증 예방과 정신건강, 문화·취미활동 프로그램, 웰다잉 준비교육 등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필요하다는 응답이 뚜렷하게 높았다.

1인가구 내의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베이비붐 세대 1인가구 내부에서도 취업 지원에 대한 관심, 신체 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은 50대 후반과 60대 초반 연령층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힐링 캠프와 힐링 여행, 고립방지 관계 맺기에 대해서는 60대 초반보다 50대 후반 연령층에서 더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점도 주목된다. 1인가구 안에서 문화 활동이나 웰다잉 교육, 독립생활 역량강화와 관련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50대 후반 연령층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인다. 또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 비해 일을 하지 않는 1인가구 응답자들이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한 관계 맺기 프로그램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다인가구 응답자 내부에서도 성별에 따른 의견 차이가 가장 뚜렷하다 (<표 7-25, 26> 참조). 특히 다인가구 안에서도 남성에 비해 여성 응답자들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중장년 가족지원 정책은 신체건강 생활체육, 문화·취미활동 프로그램, 웰다잉 준비교육, 고립방지 관계 맺기, 중장년 취업지원 등이다. 연령별로는 40대 후반과 50대 초반의 연령층이 60대 초반의 고연령층보다 노후대비 재무설계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마을공동체와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관심은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더 높은 편이다. 다인가구 중에서도 주관적 경제수준이 '하층'인 응답자들은 중장년 취업 지원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23> 중장년 가족에게 필요한 정책: 1인가구 (1)

(단위: 점)

| 구분 | ① 가족 돌봄 지원 | ② 중장년층 취업 지원 | ③ 노후대비 재무 설계 | ④ 가족 상담·관계 개선 | ⑤ 우울증 예방, 정신건강 | ⑥ 신체건강 생활체육 | ⑦ 마을공동체, 지역 참여 |
|-------------|------------|--------------|--------------|---------------|----------------|-------------|----------------|
| 성별 남성 | 3.15 | 3.32 | 3.10 | 2.87 | 3.13 | 3.23 | 2.71 |
| 여성 | 3.15 | 3.42 | 3.23 | 2.98 | 3.30 | 3.36 | 2.86 |
| t | .101 | -1.865 | -2.096* | -1.714 | -2.952** | -2.281* | -2.421* |
| 거주지역 광역·특별시 | 3.16 | 3.39 | 3.12 | 2.95 | 3.21 | 3.32 | 2.75 |
| 도지역 | 3.14 | 3.33 | 3.19 | 2.89 | 3.20 | 3.26 | 2.81 |
| t | .471 | 1.107 | -1.144 | .916 | .138 | 1.190 | -907 |
| 연령 45-49세 | 3.23 | 3.25 | 3.16 | 2.91 | 3.16 | 3.15 | 2.62 |
| 50-54세 | 3.16 | 3.31 | 3.14 | 2.90 | 3.22 | 3.30 | 2.81 |
| 55-59세 | 3.07 | 3.44 | 3.20 | 2.93 | 3.22 | 3.37 | 2.87 |
| 60-64세 | 3.15 | 3.43 | 3.13 | 2.94 | 3.21 | 3.32 | 2.80 |
| F | 1.205 | 2.798* | .275 | .079 | .209 | 3.159* | 2.938 |
| 근로여부 그렇다 | 3.17 | 3.35 | 3.16 | 2.90 | 3.17 | 3.28 | 2.77 |
| 아니다 | 3.09 | 3.39 | 3.14 | 2.98 | 3.31 | 3.30 | 2.82 |
| t | 1.058 | -.566 | .386 | -1.075 | -1.933 | -2.237 | -656 |
| 혼인지위 유배우 | 3.23 | 3.40 | 3.18 | 2.97 | 3.21 | 3.36 | 2.83 |
| 사별 | 3.14 | 3.45 | 3.23 | 3.00 | 3.18 | 3.32 | 2.82 |
| 이혼, 별거 | 3.09 | 3.40 | 3.17 | 2.93 | 3.22 | 3.26 | 2.85 |
| 미혼, 비혼기타 | 3.14 | 3.30 | 3.13 | 2.87 | 3.19 | 3.25 | 2.69 |
| F | .998 | 1.097 | .291 | .747 | .071 | 1.062 | 1.812 |
| 교육수준 고교 이하 | 3.07 | 3.33 | 3.14 | 2.95 | 3.24 | 3.22 | 2.80 |
| 대학교 | 3.18 | 3.37 | 3.16 | 2.90 | 3.19 | 3.31 | 2.78 |
| 대학원 | 3.18 | 3.38 | 3.16 | 2.97 | 3.20 | 3.36 | 2.75 |
| F | 1.429 | .259 | .066 | .477 | .300 | 1.540 | .081 |
| 가구소득 199 이하 | 3.14 | 3.45 | 3.17 | 2.92 | 3.23 | 3.32 | 2.77 |
| 200~399 | 3.14 | 3.36 | 3.17 | 2.97 | 3.26 | 3.27 | 2.80 |
| 400~599 | 3.12 | 3.24 | 3.07 | 2.75 | 3.03 | 3.18 | 2.76 |
| 600 이상 | 3.25 | 3.32 | 3.22 | 3.02 | 3.23 | 3.40 | 2.77 |
| F | .534 | 2.419 | .752 | 2.510 | 2.601 | 1.879 | .060 |
| 주택접유형태 자가 | 3.16 | 3.36 | 3.18 | 2.91 | 3.17 | 3.29 | 2.76 |
| 전세 | 3.05 | 3.27 | 3.07 | 2.86 | 3.24 | 3.24 | 2.79 |
| 월세 기타 | 3.20 | 3.43 | 3.18 | 2.97 | 3.23 | 3.32 | 2.80 |
| F | 1.666 | 2.185 | 1.131 | .824 | .605 | .636 | .158 |
| 주관적경제수준 중상층 | 3.09 | 3.28 | 3.19 | 2.94 | 3.22 | 3.36 | 2.88 |
| 중하층 | 3.16 | 3.36 | 3.10 | 2.86 | 3.15 | 3.29 | 2.72 |
| 하층 | 3.16 | 3.40 | 3.19 | 2.96 | 3.24 | 3.25 | 2.79 |
| F | .467 | 1.548 | .934 | 1.039 | 1.079 | .990 | 1.685 |

주: p<.05 *, p<.01 **, p<.001 ***

<표 7-24> 중장년 가족에게 필요한 정책: 1인가구 (2)

(단위: 점)

| 구분 | ⑧ 문화/취미활동 프로그램 | ⑨ 웰다잉 준비 교육 | ⑩ 안전 확인, 주기적 연락/방문 | ⑪ 힐링캠프, 여행 | ⑫ 외로움, 고립 방지 관계 맺기 | ⑬ 독립생활 역량 강화 |
|------------|-------------------|----------------|-----------------------|---------------|-----------------------|-----------------|
| 성별 | 남성 2.96 | 2.84 | 2.93 | 3.03 | 2.96 | 2.93 |
| | 여성 3.13 | 3.12 | 3.06 | 3.16 | 3.05 | 3.00 |
| t | -3.109** | -4.288*** | -2.182* | -2.206* | -1.460 | -1.039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3.02 | 2.96 | 2.98 | 3.04 | 2.98 | 2.97 |
| | 도지역 3.06 | 2.98 | 3.00 | 3.12 | 3.02 | 2.95 |
| t | -.584 | -.245 | -.259 | -1.359 | -.619 | .258 |
| 연령 | 45-49세 2.98 | 2.90 | 3.05 | 2.98 | 2.84 | 2.95 |
| | 50-54세 2.98 | 2.91 | 2.94 | 2.99 | 3.03 | 2.91 |
| | 55-59세 3.13 | 3.10 | 3.02 | 3.21 | 3.07 | 3.06 |
| | 60-64세 3.05 | 2.95 | 2.94 | 3.12 | 3.04 | 2.92 |
| F | 1.590 | 2.069 | .844 | 3.668* | 3.080* | 1.347 |
| 근로 여부 | 그렇다 3.05 | 2.97 | 2.98 | 3.08 | 2.96 | 2.96 |
| | 아니다 3.01 | 2.96 | 3.00 | 3.08 | 3.15 | 2.97 |
| t | .599 | .071 | -.206 | .039 | -2.635** | -.218 |
| 혼인 지위 | 유배우 3.11 | 3.00 | 2.96 | 3.17 | 3.01 | 2.89 |
| | 사별 3.05 | 3.36 | 3.14 | 3.23 | 3.14 | 3.14 |
| | 이혼, 별거 2.96 | 2.91 | 2.91 | 3.06 | 3.01 | 2.93 |
| | 미혼, 비혼, 기타 3.05 | 2.94 | 3.05 | 3.03 | 2.97 | 3.01 |
| F | 1.430 | 2.673 | 1.428 | 1.760 | .508 | 1.355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2.99 | 2.94 | 3.05 | 3.05 | 3.06 | 2.95 |
| | 대학교 3.04 | 2.96 | 2.98 | 3.10 | 3.00 | 2.95 |
| | 대학원 3.18 | 3.08 | 2.89 | 3.10 | 2.90 | 3.02 |
| F | 2.168 | .895 | 1.257 | .275 | 1.234 | .230 |
| 가구 소득 | 199 이하 2.99 | 2.98 | 3.03 | 3.07 | 3.09 | 3.01 |
| | 200~399 3.08 | 2.94 | 2.95 | 3.04 | 2.95 | 3.01 |
| | 400~599 3.04 | 2.94 | 3.03 | 3.09 | 3.01 | 2.82 |
| | 600 이상 3.06 | 3.05 | 2.92 | 3.23 | 2.92 | 2.91 |
| F | .645 | .391 | .706 | 1.341 | 1.609 | 1.846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3.07 | 3.02 | 2.99 | 3.15 | 3.04 | 2.95 |
| | 전세 3.06 | 2.89 | 3.08 | 3.06 | 2.99 | 2.93 |
| | 월세 기타 2.99 | 2.94 | 2.93 | 3.00 | 2.96 | 2.99 |
| F | .893 | 1.319 | 1.405 | 2.719 | .770 | .233 |
| 주관 적 경제 수준 | 중상층 3.11 | 3.02 | 3.05 | 3.19 | 2.96 | 2.95 |
| | 중하층 3.05 | 2.92 | 2.91 | 3.05 | 2.93 | 2.89 |
| | 하층 3.00 | 2.99 | 3.02 | 3.06 | 3.08 | 3.02 |
| F | 1.319 | .757 | 1.792 | 1.703 | 3.055* | 1.849 |

주: p<.05 *, p<.01 **, p<.001 ***

〈표 7-25〉 중장년 가족에게 필요한 정책: 다인가구 (1)

(단위: 점)

| 구분 | ① 가족 돌봄 지원 | ② 중장년층 취업지원 | ③ 노후대비 재 설계 | ④ 가족 상담, 관계개선 | ⑤ 우울증 예방, 정신건강 | ⑥ 신체건강 생활체육 | ⑦ 마을공동체, 지역참여 |
|-----------------|------------------|-------------------|-------------------|---------------------|-------------------------|-------------------|---------------------|
| 성별 | | | | | | | |
| 남성 | 3.20 | 3.33 | 3.12 | 2.93 | 3.10 | 3.19 | 2.71 |
| 여성 | 3.26 | 3.41 | 3.18 | 2.95 | 3.18 | 3.35 | 2.86 |
| t | -1.421 | -2.054* | -1.447 | -.478 | -1.774 | -3.880*** | -3.112** |
| 거주 지역 | | | | | | | |
| 광역시·특별시 | 3.21 | 3.35 | 3.15 | 2.95 | 3.15 | 3.28 | 2.77 |
| 도지역 | 3.25 | 3.39 | 3.15 | 2.92 | 3.13 | 3.26 | 2.80 |
| t | -1.064 | -1.099 | -.033 | .615 | .585 | .475 | -.540 |
| 연령 | | | | | | | |
| 45-49세 | 3.26 | 3.35 | 3.20 | 2.98 | 3.17 | 3.22 | 2.69 |
| 50-54세 | 3.25 | 3.41 | 3.22 | 2.90 | 3.11 | 3.32 | 2.78 |
| 55-59세 | 3.15 | 3.32 | 3.11 | 2.94 | 3.14 | 3.24 | 2.79 |
| 60-64세 | 3.24 | 3.42 | 3.05 | 2.93 | 3.14 | 3.30 | 2.90 |
| F | 1.432 | 1.237 | 2.901* | .504 | .287 | 1.382 | 3.243* |
| 근로 여부 | | | | | | | |
| 그렇다 | 3.21 | 3.36 | 3.13 | 2.92 | 3.10 | 3.24 | 2.77 |
| 아니다 | 3.27 | 3.39 | 3.19 | 2.97 | 3.24 | 3.33 | 2.82 |
| t | -1.283 | -.521 | -1.209 | -1.023 | -2.985** | -2.108* | -.966 |
| 혼인 지위 | | | | | | | |
| 유배우 | 3.22 | 3.37 | 3.15 | 2.95 | 3.15 | 3.28 | 2.79 |
| 사별 | 3.00 | 3.40 | 3.00 | 3.00 | 3.20 | 3.20 | 2.60 |
| 이혼, 별거 | 3.28 | 3.63 | 3.23 | 2.88 | 3.14 | 3.23 | 2.93 |
| 미혼, 비혼 | 3.29 | 3.20 | 3.09 | 2.80 | 3.09 | 3.11 | 2.66 |
| 기타 | 3.29 | 3.20 | 3.09 | 2.80 | 3.09 | 3.11 | 2.66 |
| F | .542 | 4.341** | .482 | .998 | .150 | 1.651 | 1.478 |
| 교육 수준 | | | | | | | |
| 고교 이하 | 3.22 | 3.39 | 3.11 | 2.98 | 3.20 | 3.24 | 2.82 |
| 대학교 | 3.23 | 3.38 | 3.16 | 2.91 | 3.13 | 3.28 | 2.76 |
| 대학원 | 3.25 | 3.27 | 3.20 | 2.93 | 3.08 | 3.30 | 2.82 |
| F | .050 | 1.576 | .649 | .850 | 1.495 | .478 | .807 |
| 가구 소득 | | | | | | | |
| 199 이하 | 3.33 | 3.43 | 3.18 | 3.09 | 3.15 | 3.24 | 2.85 |
| 200~399 | 3.20 | 3.37 | 3.18 | 2.93 | 3.15 | 3.20 | 2.73 |
| 400~599 | 3.20 | 3.36 | 3.12 | 2.92 | 3.12 | 3.27 | 2.81 |
| 600 이상 | 3.26 | 3.37 | 3.15 | 2.92 | 3.15 | 3.35 | 2.79 |
| F | 1.214 | .297 | .399 | 1.380 | .144 | 2.424 | .861 |
| 주택 점유 형태 | | | | | | | |
| 자가 | 3.23 | 3.35 | 3.17 | 2.91 | 3.12 | 3.28 | 2.77 |
| 전세 | 3.20 | 3.41 | 3.10 | 3.05 | 3.23 | 3.27 | 2.81 |
| 월세 기타 | 3.27 | 3.45 | 3.10 | 2.97 | 3.16 | 3.20 | 2.86 |
| F | .354 | 1.401 | .737 | 2.152 | 1.353 | .817 | .906 |
| 주관적 경제 수준 | | | | | | | |
| 중상층 | 3.22 | 3.24 | 3.15 | 2.93 | 3.15 | 3.32 | 2.79 |
| 중하층 | 3.22 | 3.38 | 3.15 | 2.93 | 3.10 | 3.24 | 2.79 |
| 하층 | 3.25 | 3.55 | 3.16 | 2.97 | 3.21 | 3.25 | 2.79 |
| F | .096 | 14.669** | .039 | .252 | 1.953 | 1.474 | .001 |

주: p<.05 *, p<.01 **, p<.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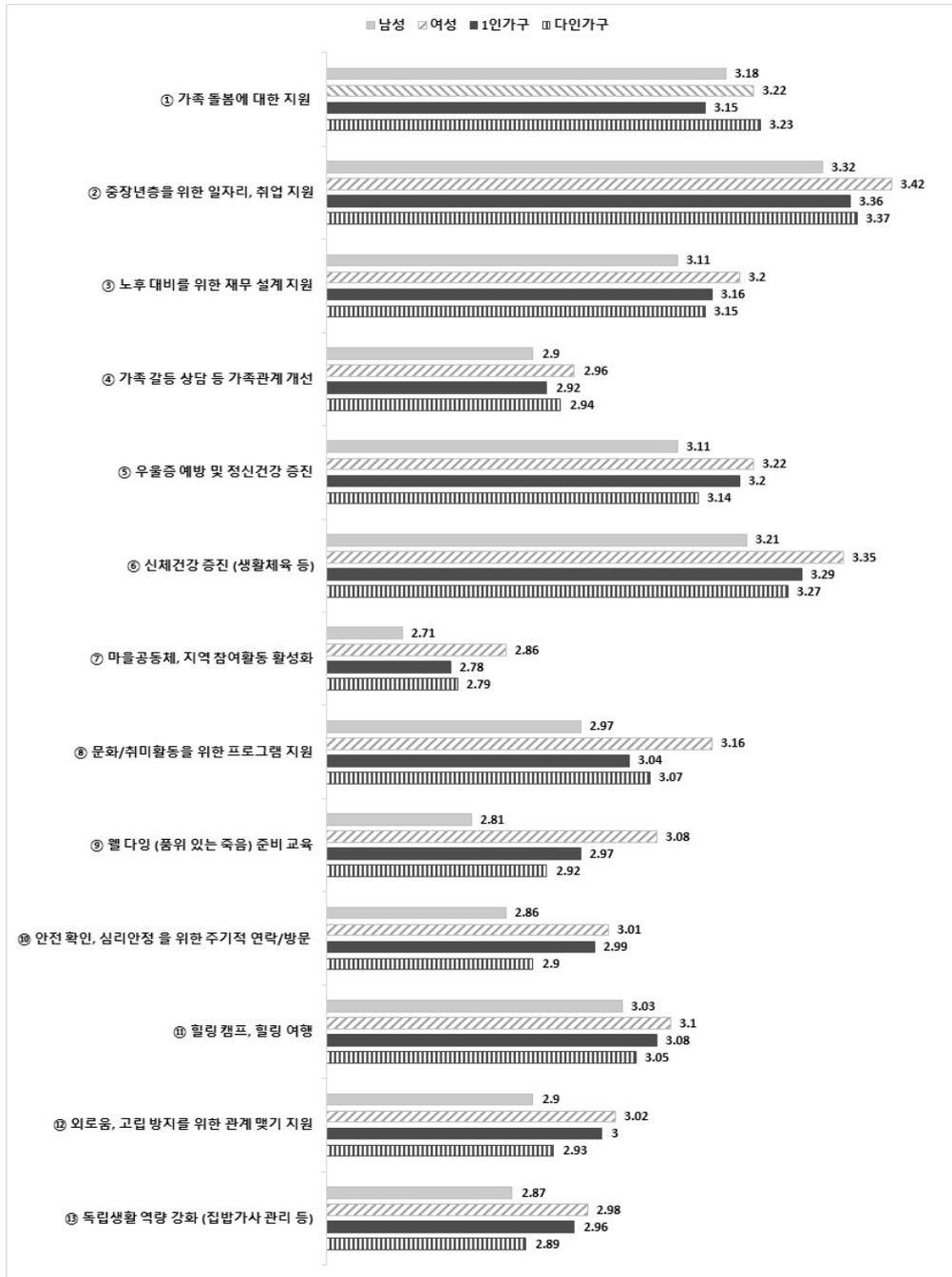
<표 7-26> 중장년 가족에게 필요한 정책: 다인가구 (2)

(단위: 점)

| 구분 | ⑧ 문화/취미활동 프로그램 | ⑨ 웰다잉 준비 교육 | ⑩ 안전 확인, 주기적 연락/방문 | ⑪ 힐링캠프, 여행 | ⑫ 외로움, 고립 방지 관계 맺기 | ⑬ 독립생활 역량 강화 |
|-----------|-------------------|----------------|-----------------------|---------------|-----------------------|-----------------|
| 성별 | 남성 2.97 | 2.79 | 2.82 | 3.04 | 2.85 | 2.82 |
| | 여성 3.17 | 3.05 | 2.98 | 3.07 | 3.00 | 2.97 |
| | t -4.824*** | -5.028*** | -3.439** | -.606 | -3.286** | -3.212** |
| 거주 지역 | 광역시, 특별시 3.07 | 2.92 | 2.88 | 3.03 | 2.91 | 2.89 |
| | 도지역 3.07 | 2.91 | 2.92 | 3.07 | 2.94 | 2.90 |
| | t .163 | .109 | -.772 | -.823 | -.640 | -.140 |
| 연령 | 45-49세 3.08 | 2.84 | 2.84 | 3.00 | 2.90 | 2.85 |
| | 50-54세 3.08 | 2.88 | 2.93 | 3.06 | 2.92 | 2.92 |
| | 55-59세 3.06 | 2.97 | 2.88 | 3.10 | 2.93 | 2.83 |
| | 60-64세 3.06 | 2.99 | 2.96 | 3.04 | 2.97 | 2.99 |
| | F .049 | 1.723 | 1.328 | .761 | .360 | 2.392 |
| 근로 여부 | 그렇다 3.04 | 2.88 | 2.87 | 3.05 | 2.89 | 2.88 |
| | 아니다 3.14 | 2.99 | 2.97 | 3.06 | 3.01 | 2.93 |
| | t -2.371* | -1.855 | -1.976* | -.169 | -2.472* | -1.187 |
| 혼인 지위 | 유배우 3.07 | 2.92 | 2.90 | 3.07 | 2.95 | 2.90 |
| | 사별 3.20 | 2.60 | 3.00 | 3.00 | 3.00 | 3.00 |
| | 이혼, 별거 3.21 | 3.12 | 2.95 | 3.12 | 2.98 | 2.91 |
| | 미혼, 비혼, 기타 2.93 | 2.77 | 2.89 | 2.80 | 2.66 | 2.77 |
| | F 1.965 | 2.035 | .132 | 3.003* | 3.495* | .794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3.07 | 2.87 | 2.95 | 3.03 | 2.98 | 2.92 |
| | 대학교 3.06 | 2.93 | 2.87 | 3.06 | 2.89 | 2.87 |
| | 대학원 3.12 | 2.98 | 2.93 | 3.06 | 2.97 | 2.92 |
| | F .436 | .869 | 1.101 | .100 | 1.586 | .515 |
| 가구 소득 | 199 이하 3.04 | 2.85 | 3.01 | 3.04 | 3.01 | 2.94 |
| | 200~399 3.06 | 2.90 | 2.87 | 3.00 | 2.86 | 2.86 |
| | 400~599 3.03 | 2.89 | 2.87 | 3.03 | 2.95 | 2.87 |
| | 600 이상 3.13 | 3.00 | 2.94 | 3.13 | 2.94 | 2.94 |
| | F 1.317 | 1.196 | 1.355 | 1.809 | 1.274 | .868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3.23 | 3.35 | 3.17 | 2.91 | 3.12 | 3.28 |
| | 전세 3.20 | 3.41 | 3.10 | 3.05 | 3.23 | 3.27 |
| | 월세, 기타 3.27 | 3.45 | 3.10 | 2.97 | 3.16 | 3.20 |
| | F .354 | 1.401 | .737 | 2.152 | 1.353 | .817 |
| 주관적 경제 수준 | 중상층 3.08 | 2.92 | 2.91 | 3.04 | 2.92 | 2.91 |
| | 중하층 3.08 | 2.89 | 2.88 | 3.06 | 2.91 | 2.90 |
| | 하층 3.03 | 2.96 | 2.93 | 3.05 | 2.97 | 2.87 |
| | F .419 | .472 | .346 | .124 | .598 | .236 |

주: p<.05 *, p<.01 **, p<.001 ***

(단위: 점)



<그림 7-6> 중장년 가족을 위한 정책 수요

2) 서비스 이용방식 선호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지를 질문하였는데, 가족센터나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 관련 서비스를 잘 아는 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가 직접 1:1로 연락해 주는 것,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이용한 것 등 세 가지 항목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38.5%), 일대일 코디네이터 이용(37.9%)이 비슷한 비중으로 나타났으며, 공공기관이나 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것은 이보다 적은 23.6%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 방식에서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기관이나 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는 일대일 연락이나 앱/홈페이지 이용을 좀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 광역 특별시 지역과 도 지역에서도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7-27>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 전체

| 항목 | 전체 | | | | | |
|-------|--------------|--------------|-----------|------|--------|-------|
| | 주민/가족센터 등 방문 | 1:1 코디네이터 연락 | 앱/홈페이지 이용 | x2 | (명) | |
| 전체 | 23.6 | 37.9 | 38.5 | - | (1300) | |
| 성별 | 남자 | 23.8 | 37.7 | 38.6 | .044 | (677) |
| | 여자 | 23.4 | 38.2 | 38.4 | | (623) |
| 가구 형태 | 1인가구 | 20.0 | 40.0 | 40.0 | 5.921 | (500) |
| | 다인가구 | 25.9 | 36.6 | 37.5 | | (800) |
| 거주 지역 | 광역·특별시 | 24.4 | 39.1 | 36.5 | 2.120 | (652) |
| | 도지역 | 22.8 | 36.7 | 40.4 | | (648) |

주: p<.05 *, p<.01 **, p<.001 ***

1인가구 내부의 응답 차이를 보면, 교육수준 별로 대학교 이상 고학력층에서는 고교 이하의 저학력층에 비해 비대면 방식(앱/홈페이지 이용)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학력층은 가족센터 등 공공기관 방문이나 일대일 코디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전체적으로 고학력, 고소득, 그리고 일을 하고 있는 근로층에서 앱이나 홈페이지 등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반면,

일대일 코디네이터에 대한 선호는 좀 더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40대 후반의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 교육수준별로는 고교 이하의 저학력층에서, 혼인지위에서는 사별 집단이 일대일 코디네이터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인가구 응답자들은 1인가구에 비해 가족센터 등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다. 특히 다인가구의 50대 이상 60대 초반까지 연령층 응답자들은 센터 직접 방문하겠다는 의사가 1인가구의 같은 연령층보다 더 높다. 1인가구의 응답자들은 다인가구에 비해 센터 방문보다는 일대일 코디네이터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다인가구에 비해 1인가구 응답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으면서도 전문적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일대일 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28>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

(단위: %, 명)

| 항목 | 1인가구 | | | | | 다인가구 | | | | | |
|---------------------|----------------------------|----------------------------|----------------------|------|---------|----------------------------|----------------------------|----------------------|------|---------|-------|
| | 주민/ 가족 센터 등 방문 | 1:1 코디 네이 터 연락 | 앱/ 홈페 이지 이용 | x2 | (명) | 주민/ 가족 센터 등 방문 | 1:1 코디 네이 터 연락 | 앱/ 홈페 이지 이용 | x2 | (명) | |
| 전체 | 20.0 | 40.0 | 40.0 | - | (500) | 25.9 | 36.6 | 37.5 | | (800) | |
| 성별 | 남자 | 20.0 | 40.0 | 40.0 | .000 | (275) | 26.4 | 36.1 | 37.6 | .145 | (402) |
| | 여자 | 20.0 | 40.0 | 40.0 | | (225) | 25.4 | 37.2 | 37.4 | | (398)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 시 | 22.0 | 40.0 | 38.0 | 1.500 | (250) | 25.9 | 38.6 | 35.6 | 1.625 | (608) |
| | 도지역 | 18.0 | 40.0 | 42.0 | | (250) | 25.9 | 34.7 | 39.4 | | (192) |
| 연령 | 45-49세 | 15.5 | 44.8 | 39.7 | | (116) | 19.0 | 40.5 | 40.5 | | (210) |
| | 50-54세 | 18.6 | 42.4 | 39.0 | 8.177 | (118) | 27.8 | 42.6 | 29.7 | 16.427* | (209) |
| | 55-59세 | 21.5 | 43.0 | 35.6 | | (135) | 28.9 | 29.4 | 41.8 | | (201) |
| | 60-64세 | 23.7 | 30.5 | 45.8 | | (131) | 28.3 | 33.3 | 38.3 | | (180) |
| 혼인 지위 | 유배우 | 23.4 | 37.6 | 39.0 | | (141) | 26.4 | 35.9 | 37.6 | | (696) |
| | 사별 | 19.4 | 46.0 | 34.5 | | (22) | 20.0 | 40.0 | 40.0 | | (5) |
| | 이혼 별거 | 17.2 | 38.9 | 43.9 | 6.645 | (139) | 25.6 | 39.5 | 34.9 | - | (43) |
| | 미혼·비혼· 기타 | 17.2 | 38.9 | 43.9 | | (198) | 19.6 | 42.9 | 37.5 | | (56)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26.8 | 43.0 | 30.3 | | (142) | 24.9 | 40.6 | 34.5 | | (229) |
| | 대학교 | 16.2 | 39.4 | 44.4 | 11.107* | (297) | 26.7 | 33.9 | 39.4 | 3.723 | (469) |
| | 대학원 | 23.0 | 36.1 | 41.0 | | (61) | 24.5 | 40.2 | 35.3 | | (102) |
| 근로 여부 | 그렇다 | 18.7 | 40.0 | 41.3 | 2.185 | (390) | 25.4 | 37.3 | 37.3 | | (555) |
| | 아니다 | 24.5 | 40.0 | 35.5 | | (110) | 26.9 | 35.1 | 38.0 | | (245)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20.1 | 41.5 | 38.4 | | (164) | 23.9 | 37.3 | 38.8 | | (67) |
| | 200~399 | 22.0 | 36.3 | 41.8 | 2.496 | (182) | 27.8 | 31.7 | 40.5 | 3.709 | (227) |
| | 400~599 | 16.9 | 44.9 | 38.2 | | (89) | 26.1 | 38.6 | 35.4 | | (280) |
| | 600 이상 | 18.5 | 40.0 | 41.5 | | (65) | 24.3 | 38.9 | 36.7 | | (226)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 20.9 | 37.4 | 41.7 | | (235) | 26.7 | 37.0 | 36.3 | | (595) |
| | 전세 | 19.8 | 42.6 | 37.6 | 1.284 | (101) | 31.2 | 36.7 | 32.1 | 12.006* | (109) |
| | 월세 기타 | 18.9 | 42.1 | 39.0 | | (164) | 25.9 | 36.6 | 37.5 | | (96) |
| 주관 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20.4 | 32.7 | 46.9 | | (98) | 29.8 | 36.5 | 33.7 | | (252) |
| | 중하층 | 18.1 | 41.8 | 40.1 | 3.912 | (182) | 22.8 | 37.1 | 40.1 | 4.601 | (369) |
| | 하층 | 21.4 | 41.8 | 36.8 | | (220) | 26.8 | 35.8 | 37.4 | | (179) |

주: p<.05 *, p<.01 **, p<.001 ***

다. 가족관련 공적 지원서비스 인지도

베이비붐 세대가 가족관련 공적 서비스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4점 척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할 때 가장 인지도가 높은 것은 아이돌봄 지원 사업(2.57점)이었고, 그 다음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2.51),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2.13), 가족상담전화(2.13), 공동육아 나눔터(2.12)의 순이었다.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다누리콜 센터(2.04), 1인가구 상담과 자조모임 프로그램(1.79)의 인지도는 낮게 나타났다. 기존의 가족지원 서비스가 주로 가족 상담 및 자녀 양육 지원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가족주기 상으로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거나 독립한 베이비붐 세대에서는 인지도가 낮은 경향이 나타난다.

인지도가 높은 아이돌봄 지원 사업,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대도시 지역보다는 도 지역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권역별로는 전라권, 충청권의 인지도가 높은 편이었다.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는 대도시 지역의 인지도가 도 지역보다 더 높았는데, 권역별로는 전라권의 인지도가 높은 점에 눈에 띈다.

혼인지위별로는 아이돌봄사업의 경우 유배우자의 인지도가 높은 편이고, 건가다가 센터는 사별자 집단에서 인지도가 높았다. 미혼/비혼/기타 집단은 전반적으로 가족지원 서비스에 대해 관심이나 인식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가구형태별로 다인가구는 아이돌봄이나 육아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도 비슷한 경향이다. 그런데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는 1인가구 응답자가 다인가구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혼/미혼 집단, 그리고 1인가구 응답자의 입장에서는 가족을 위한 지원서비스가 자신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으며, 앞으로 1인가구에 대한 서비스나 사업을 확대할 경우 이러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표 7-29> 가족관련 공적 서비스 인지도

(단위: 점)

| 구분 | ①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② 공동육아나 눔터 | ③ 아이돌봄 지원 사업 | ④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 ⑤ 가족상담전 화 (1644 -6621) | ⑥ 다누리콜 센터 (1577 -1366) | ⑦ 1인가구 상담과 자조모임 프로그램 | |
|-----------------|-----------------------------|------------------|--------------------|-------------------------|---------------------------------|---------------------------------|----------------------------------|------|
| 전체 | 2.51 | 2.12 | 2.57 | 2.13 | 2.13 | 2.04 | 1.79 | |
| 성별 | 남성 | 2.42 | 2.01 | 2.45 | 2.05 | 2.03 | 1.97 | 1.75 |
| | 여성 | 2.61 | 2.23 | 2.71 | 2.22 | 2.24 | 2.12 | 1.83 |
| 가구 유형 | 1인가구 | 2.49 | 2.07 | 2.52 | 2.11 | 2.12 | 2.04 | 1.78 |
| | 다인가구 | 2.52 | 2.15 | 2.61 | 2.14 | 2.14 | 2.04 | 1.80 |
| 거주 지역 | 광역시·특별시 | 2.46 | 2.11 | 2.54 | 2.14 | 2.10 | 2.04 | 1.81 |
| | 도지역 | 2.56 | 2.13 | 2.60 | 2.11 | 2.16 | 2.04 | 1.77 |
| 거주 권역 | 서울 | 2.47 | 2.14 | 2.52 | 2.16 | 2.06 | 2.06 | 1.77 |
| | 인천,경기,강원 | 2.50 | 2.07 | 2.53 | 2.06 | 2.10 | 1.99 | 1.74 |
| | 충청권 | 2.54 | 2.15 | 2.58 | 2.08 | 2.17 | 2.07 | 1.84 |
| | 전라권 | 2.61 | 2.18 | 2.74 | 2.23 | 2.25 | 2.12 | 1.87 |
| | 경북권 | 2.50 | 2.10 | 2.58 | 2.15 | 2.13 | 2.02 | 1.75 |
| | 경남권 | 2.50 | 2.15 | 2.58 | 2.17 | 2.16 | 2.06 | 1.83 |
| 연령 | 45-49세 | 2.37 | 1.98 | 2.47 | 1.93 | 1.97 | 1.90 | 1.62 |
| | 50-54세 | 2.50 | 2.14 | 2.60 | 2.16 | 2.13 | 2.06 | 1.82 |
| | 55-59세 | 2.54 | 2.14 | 2.58 | 2.16 | 2.20 | 2.08 | 1.87 |
| | 60-64세 | 2.64 | 2.22 | 2.65 | 2.26 | 2.23 | 2.13 | 1.85 |
| 혼인 지위 | 유배우 | 2.55 | 2.17 | 2.62 | 2.15 | 2.17 | 2.07 | 1.82 |
| | 사별 | 2.63 | 2.19 | 2.59 | 2.11 | 1.89 | 1.93 | 1.74 |
| | 이혼, 별거 | 2.51 | 2.10 | 2.58 | 2.18 | 2.15 | 2.09 | 1.82 |
| | 미혼·비혼·기타 | 2.38 | 1.96 | 2.41 | 2.02 | 2.03 | 1.94 | 1.67 |
| 교육 수준 | 고교 이하 | 2.49 | 2.13 | 2.58 | 2.20 | 2.18 | 2.07 | 1.83 |
| | 대학교 | 2.50 | 2.10 | 2.56 | 2.07 | 2.10 | 2.01 | 1.76 |
| | 대학원 이상 | 2.59 | 2.20 | 2.63 | 2.23 | 2.17 | 2.12 | 1.85 |
| 가구 소득 | 199 이하 | 2.40 | 1.98 | 2.39 | 2.03 | 1.98 | 1.97 | 1.71 |
| | 200~399 | 2.54 | 2.13 | 2.56 | 2.13 | 2.12 | 2.01 | 1.76 |
| | 400~599 | 2.51 | 2.13 | 2.62 | 2.14 | 2.20 | 2.08 | 1.83 |
| | 600 이상 | 2.56 | 2.19 | 2.68 | 2.19 | 2.18 | 2.09 | 1.85 |
| 주관적 경제 수준 | 중상층 | 2.60 | 2.25 | 2.69 | 2.23 | 2.21 | 2.12 | 1.91 |
| | 중하층 | 2.52 | 2.12 | 2.56 | 2.12 | 2.16 | 2.04 | 1.76 |
| | 하층 | 2.42 | 2.01 | 2.48 | 2.05 | 2.03 | 1.98 | 1.72 |

주: 1) 점수는 4점 척도의 평균 점수임 (1점 매우 불만족 ~ 4점 매우 만족함)

3. 소결

베이비붐 세대는 노년기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어 노후준비의 중요성이 크다. 1인가구와 다인가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경제, 인간관계, 정서, 건강 등 네 가지 노후대비 영역 모두에서 가구소득,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주거 형태가 안정적인 집단에서 노후대비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후의 생활 동반자에 대한 질문에서, 1인가구의 경우 혼자 살고 싶다(희망)는 응답은 38.4%였지만 현실적으로 혼자 살게 될 것 같다(실제)는 응답은 52.2%로 높아졌다. 자신이 원하지 않지만 혼자서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무겁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을 가장 많이 느끼는 영역은 소득과 경제 영역(78.0%)이며 그 다음은 건강에 대한 불안, 외로움과 소외감, 그리고 소일거리가 없는 무료함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불안은 1인가구와 다인가구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1인가구에서는 노후에 아파도 적절한 치료나 간병을 받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이 더 높다. 노후의 무료함이나 외로움에 대한 걱정도 1인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나며, 특히 교육수준이 낮은 1인가구에서 노후의 무료함이나 소외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정책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도 조사하였다. 거주지 주변의 공적 시설이나 서비스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은 문화 공간이었으며, 자녀나 부모를 함께 돌보는 공간, 업무나 이동 중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다인가구에 비해 1인가구는 공적 시설과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다소 낮았는데, 정책의 접근성 차원에서 고려해볼 만한 대목이다. 한편 여성들은 문화 공간이나 돌봄 공간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았고, 다인가구는 1인가구에 비해 문화 공간이나 자녀 돌봄 공간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았다.

베이비부머들은 중장년 가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선호도가 높은 정책은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와 취업지원(3.37점)이었으며, 그 다음은 신체건강 증진(3.28점), 가족 돌봄에 대한 지원(3.20점), 노후대비 재무설계(3.15), 문화·취미활동 프로그램, 힐링 캠프와 힐링 여행(각각 3.06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은 신체건강 증진, 마을공동체와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문화·취미활동 프로그램, 웰다잉 교육, 안전 확인을 위한 주기적 연락, 중장년층 취업지원, 고립 방지를 위한 관계 맺기 지원 등의 필요성을 남성보다 더 크게 느끼고 있다. 가족돌봄에 대한

지원은 다인가구가 더 관심이 높은 반면, 안전확인을 위한 주기적 연락·방문, 고립 방지를 위한 관계 맺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1인가구에서 좀 더 높았다. 1인가구는 고립이나 소외방지, 관계 맺기와 관련된 정책 서비스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아 보인다. 또한 비혼/미혼 집단, 그리고 1인가구 응답자의 입장에서는 가족을 위한 지원 서비스가 자신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으므로, 앞으로 1인가구에 대한 서비스나 사업을 확대할 경우 이러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제 8 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 제언 : 베이비붐 세대 1인가구를 고려한
가족지원 서비스 운영모형

1. 연구 결과 요약

한국 사회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가족의 확대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가족정책의 전체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이다. 지난 20~30년 동안 1인가구는 양적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해 왔다. 2015년에는 1인가구가 주된 가구유형(최빈가구)이 되었으며, 2019년에는 1인가구가 600만을 넘어서면서 전체 가구의 30%선을 돌파했다. 이처럼 1인가구의 규모가 커지면서 1인가구의 전형으로 여겨졌던 청년과 노년층뿐 아니라 중장년층도 증가하고 있는데, 2018년 기준으로 중장년기(45세~64세) 1인가구는 전체 1인가구 중 32.9%, 약 1/3을 차지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하는 이 연령층을 연령 구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체 1인가구 중 45~54세는 15.8%를 차지하며, 그중 40%가 여성이다. 55~64세 비중은 17.1%이고 여성이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다. 중장년기로 접어들면서 55세를 기점으로 1인가구 중 여성의 비율이 현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혼인상태별 구성을 보면, 2015년 현재 40대 후반에서는 미혼이 45.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50대에는 이혼이(50대 초반 38.3%, 50대 후반 38.4%), 60대 초반에는 사별(40.9%)이 가장 많다. 전체 베이비부머 1인가구 161만 명 중 가장 많은 혼인지위는 이혼(34.6%), 미혼(24.8%), 유배우(21.9%), 사별(18.6%)의 순으로 나타났다(KOSIS, 성별/연령별/혼인상태별 1인가구 자료 재구성).

기존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가져올 사회정책 전반의 새로운 수요, 그리고 1인가구 증가에 대한 정책대응의 필요성을 각각 별도로 분석하고 논의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1인가구를 고려한 가족지

원 서비스의 방향을 제언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우선 베이비붐 1인가구의 규모와 특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인구 총조사 자료에는 베이비붐 세대 1인가구의 전체적인 규모와 성별·연령별 구성이 포함되어 있으나, 보다 상세한 생활실태나 삶의 질, 정책 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부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패널조사 자료에 대한 재분석, 그리고 온라인 조사를 통해 중장년 1인가구의 특성을 보다 상세하게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가. 베이비붐 세대 1인가구의 취약성과 차별경험

1) 유형별 특성과 취약성 : 패널자료 재분석

베이비붐 1인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1인가구로 진입하는 경로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과 한국복지패널 두 자료에 포함된 베이비붐 세대 1인가구 응답자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²³⁾ 특히 패널자료는 현재 1인가구로 살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지난 14년간 누구와 함께 살아왔는지 '생활 배열'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먼저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중졸 이하의 비율이 2배 가까이 높고, 대졸 학력자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지위를 보면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상용직 비율이 낮은 반면, 반면 실업(1인가구 2.3%, 다인가구 4.5%), 또는 '그냥 쉰다'(1인가구 21.1%, 다인가구 6.7%)고 응답한 사람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에서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

성별, 연령, 교육수준에 따라 혼인지위의 차이를 보면, 다인가구 내 집단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는데 비해 1인가구 내부의 이질성은 상당히 크다는 점이 주목된다. 1인가구의 경우 남성은 절반이 미·비혼 상태인데 비해 여성은 미·비혼보다 이혼·별거·사별로 인한 1인가구 비율이 더 높다. 평균소득을 보면 두 패널자료에서 1인가구 중 81.7%가 소득 1, 2분위의 하층에 속해 있는 반면, 다인가구는 전체적으로 61.2%가 상층(소득 4, 5분위)이었다. 그런데 평균소득액을 보면 3분위까지는 다인가구의

23) 두 패널조사 응답자 중 1인가구는 865명이며, 표본크기는 크지 않지만 인구 총조사 자료에 비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3장 참조.

소득이 1인가구보다 약간 높지만, 소득 4분위 이상 상층에서는 1인가구의 소득이 더 높게 나타나서, 1인가구 내부의 경제적 격차가 큰 것으로 보인다.

배열분석을 통해 현재 1인가구인 응답자가 지난 14년 동안 어떤 혼인지위에서 누구와 같이 살았는지의 시계열적 변화를 유형화하였다(배열분석). 혼인상태와 가구구성 상태를 결합한 ‘혼인-동거배열’을 최적일치법에 근거하여 유형화한 결과, 6개의 군집이 가장 뚜렷하게 구별되었다.

첫 번째 군집인 “미혼 1인가구”는 남성(72.2%), 미·비혼자(97.0%)가 많으며 40대 고학력 상위직 남성형이라고 부를 만한 특성을 보인다. [군집 1]과 정반대 특성을 보이는 [군집 5]는 “사별 1인가구”라고 부를 수 있는데, 주로 60대 저학력 빈곤층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혼·별거 후 1인가구가 된 [군집 2, 3, 4]는 55세 이상이 대부분이라는 유사점이 있지만,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서는 다소 차이가 나타난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군집 3]은 이혼 후 평균 혼자 생활한 기간이 9.1년으로 가장 길며, 성별, 학력, 직종 등의 분포가 고른 편이지만 절반 이상이 소득 1분위에 속해있어 ‘55세 이상 빈곤층 장기 이혼·별거형’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군집 2]는 이혼 후 원가족과 결합하여 생활하다가 다시 1인가구가 된 유형이며 ‘55세 이상 저학력 하층 여성형’으로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한편 [군집 4]는 배우자나 자녀와 동거한 기간이 평균 9.4년으로 가장 긴 집단이며, ‘55세 이상 고학력 상층 최근 이혼·별거형’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패널자료 재분석 결과는 중장년 1인가구 내부의 이질성과 격차를 다시금 확인해 준다. 군집별로 삶의 질 조사결과도 차이를 보인다. 가령 “미혼 1인가구”(군집 1)는 건강이나 수입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지만 가족관계나 사회관계, 여가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소득 지원은 필요하지 않더라도 관계망이나 여가에 대한 욕구가 있을 수 있는 집단이다. 이와 달리 “이혼 후 1인가구”(군집3)는 전반적인 만족도가 6개 군집 중 가장 낮은 편이며, 특히 건강, 가족관계, 여가 만족도 점수가 다른 1인가구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혼 후 장기간 혼자 생활한 1인가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2) 1인가구의 삶의 질과 차별 경험 : 온라인 조사

온라인 조사는 베이비붐 세대 1인가구와 다인가구를 모두 포함하여 실시하였다. 1인가구 생활에 대한 질문(1인가구로서의 어려움, 차별경험 등)과 더불어 1인가구

와 다인가구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문항(가족관계 등 관계 만족도, 삶의 질, 행복도 등)을 모두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먼저, 혼자 살면서 겪는 어려움과 불편에 대한 응답을 보면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이 가장 많았고(77%), 다음으로 혼자 있을 때 외로움(60%)도 어려운 점이였다. 가사일 처리와 관련된 어려움은 남성이, 경제적 어려움은 여성이 더 어렵다고 응답했다. 1인가구가 경험하는 어려움에서도 성별 격차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특히 “혼자 사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사회적 시선”과 “편견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에서도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뿐만 아니라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정,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에서 젠더와 관련된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1인가구로 살면서 사회적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응답은 미혼자인 경우, 그리고 혼자 산 기간이 길수록 더 많았다.

사회관계망은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경제, 일상생활, 정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관계망을 조사한 결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다인가구보다 1인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1인가구의 사회관계망은 다인가구에 비해 양적으로 다소 취약해 보이며, 가족의 지원은 다인가구보다 적은 반면 친구와의 관계는 더 중요하게 나타났다.

삶의 질을 진단해 보기 위해 생활 만족도, 행복 점수 등을 조사하였다. 베이비붐 세대 1인가구는 건강상태와 인간관계에서 다인가구보다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경제상태와 여가 생활에서 다인가구와 1인가구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1인가구의 취약성을 단지 경제적 차원이 아니라 관계망 자원의 부족, 사회적 고립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10점 만점으로 행복점수를 측정했을 때 1인가구 평균은 5.6점, 다인가구는 6.2점으로 나타나 다인가구가 더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 내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행복감이 높아졌다. 취업자와 주관적 계층지위가 높은 1인가구가 행복감도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서적인 삶의 질을 알아보기 위해 우울, 외로움, 자살생각을 자주 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우울에서는 가구유형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외로움, 자살생각은 다인가구에 비해 1인가구가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인가구의 경우에도 51.4%, 절반 이상이 외로움을 “가끔” 혹은 “자주” 느꼈다고 응답했다는 점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정서적 욕구는 1인가구뿐 아니라 다인가구에

서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지난 1년 자살생각을 “가끔” 혹은 “자주” 했다는 비율은 1인가구 중 19.6%로 다인가구(13.5%)보다 높다. 지난 1년 자살생각을 “가끔” 혹은 “자주” 했다는 비율은 남성이 각각 21.5%, 2.2% 이며 여성은 11.6%, 3.1%였다. 1인가구 남성의 약 1/4 정도가 자살생각을 가끔 이상 한다는 것은 이들의 정서적,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사회적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나. 베이비붐 세대 1인가구의 다양성 : 생애과정의 유동성과 다양한 가치관 . 정책 인식

1) 혼자 사는 이유와 생애과정의 유동성

온라인 조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 1인가구 응답자들이 언제부터(연도와 나이) 얼마나 오래 혼자 살아왔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40대 중반에 1인가구 생활을 시작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또, 비교적 최근 5년 이내(2015년부터) 1인가구의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았다.

혼인지위가 미혼인 집단을 보면, 혼자 산 기간이 5년 이하인 응답자가 25.3%인데 비해 20년 넘게 1인가구 생활을 한 비율이 28%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비혼인구의 증가 추세를 볼 때 앞으로 중장년층에서도 1인가구 중 미혼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혼자 살게 된 이유에 대한 응답을 보면 40대 후반 연령층일수록 가족관계 사유(18%)보다는 학교/직장의 생활(38%)과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37%)가 높게 나타난다. 이혼, 사별, 가족분가 등 가족관계 사유는 50대 후반부터 1인가구 형성의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의 생애과정에서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삶은 유동적이고 가역적인 과정임을 보여주는 조사결과도 있다. 1인가구 중 원래 가족과 함께 산 경험이 있는 비율도 60%정도로 높은 편이며, 다인가구 중 혼자 생활한 적이 있는 비율도 58%에 이른다. 1인가구, 다인가구의 각각 40%는 성인이 된 후 계속 같은 가구 형태로 살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족·친구관계와 가족가치관

1인가구가 따로 거주하는 가족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성인 자녀 등과의 만남과 연락 빈도 등을 조사하였다. 따로 사는 가족이 있는 다인가구의 응답과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가구 형태에 따른 가족 만남이나 연락 빈도에서 큰 차이는 나지 않았다. 오히려 1인가구 내에서 교육수준이 높고 가구 소득수준이 높은 응답자들은 따로 사는 가족과의 교류가 더 활발한 경향이 있다.

가족관계 만족도는 1인가구에서 전반적으로 다인가구보다 다소 낮게 나타난다. 특히 1인가구 내부의 차이가 있는데, 교육수준이 높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더 높아졌다. 특히 1인가구 중 고소득 고학력자는 다인가구보다 가족관계 만족도가 더 높아 1인가구 내부의 이질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1인가구가 다인가구보다 친구와의 만남이 빈번하며, 가족관계 만족도와 달리 친구관계 만족도에서는 1인가구와 다인가구에 차이가 없었다. 1인가구 응답자의 친구관계 만족도는 교육수준이 높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졌다. 다인가구가 가족 중심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한다면, 1인가구는 상대적으로 친구와의 관계가 더 중요시되는 점을 알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 전체의 가족가치관을 살펴보면 개인보다 가족, 부모의 희생을 강조하는 식의 전통적 태도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있다. 성별과 혼인지위,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여성, 미혼·비혼자, 그리고 40대 후반 연령층의 경우 가족보다 개인을 중시하며 독신생활이나 무자녀 가족에 대한 허용적 태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 중에서도 여성들은 남성에게 비해 전통적 가족가치관에 동의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독신도 괜찮다, 자녀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은 40대 후반 1인가구, 고학력층에서 높아졌다. 베이비부머 세대에서 전통적 가족중심주의, 근대적 핵가족 규범으로 수렴되지 않는 다른 다양한 가족가치관이 표출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이나 서비스에서도 이러한 가치관 변화를 부응하는 개인 중심의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3) 노후준비와 정책 인식

베이비붐 세대는 노년기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어 노후준비의 중요성이 크다. 1인가구와 다인가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경제, 인간관계, 정서, 건강 등 네 가

지 노후대비 영역 모두에서 가구소득,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주거 형태가 안정적인 집단에서 노후대비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후의 생활 동반자에 대한 질문에서, 1인가구의 경우 혼자 살고 싶다(희망)는 응답은 38.4%였지만 현실적으로 혼자 살게 될 것 같다(실제)는 응답은 52.2%로 높아졌다. 자신이 원하지 않지만 혼자서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무겁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을 가장 많이 느끼는 영역은 소득과 경제 영역(78.0%)이며 그 다음은 건강에 대한 불안, 외로움과 소외감, 그리고 소일거리가 없는 무료함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불안은 1인가구와 다인가구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1인가구에서는 노후에 아파도 적절한 치료나 간병을 받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이 더 높다. 노후의 무료함이나 외로움에 대한 걱정도 1인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나며, 특히 교육수준이 낮은 1인가구에서 노후의 무료함이나 소외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정책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도 조사하였다. 거주지 주변의 공적 시설이나 서비스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은 문화 공간이었으며, 자녀나 부모를 함께 돌보는 공간, 업무나 이동 중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다인가구에 비해 1인가구는 공적 시설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다소 낮았는데, 정책의 접근성 차원에서 고려해볼 만한 대목이다. 한편 여성들은 문화 공간이나 돌봄 공간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았고, 다인가구는 1인가구에 비해 문화 공간이나 자녀 돌봄 공간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았다.

베이비부머들은 중장년 가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선호도가 높은 정책은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와 취업지원(3.37점)이었으며, 그 다음은 신체건강 증진(3.28점), 가족 돌봄에 대한 지원(3.20점), 노후대비 재무설계(3.15), 문화·취미활동 프로그램, 힐링 캠프와 힐링 여행(각각 3.06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은 신체 건강 증진, 마을공동체와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문화·취미활동 프로그램, 웰다잉 교육, 안전확인을 위한 주기적 연락, 중장년층 취업지원, 고립 방지를 위한 관계 맺기 지원 등의 필요성을 남성보다 더 크게 느끼고 있다. 가족돌봄에 대한 지원은 다인가구가 더 관심이 높은 반면, 안전확인을 위한 주기적 연락·방문, 고립 방지를 위한 관계 맺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1인가구에서 좀 더 높았다. 1인가구는 고립이나 소외방지, 관계 맺기와 관련된 정책 서비스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아 보인다.

2. 정책 제언: 베이비붐 세대 1인가구를 고려한 가족지원 서비스 운영모형

가. 1인가구와 가족지원 서비스 현황

1) 가족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 방향

한국 가족의 급격한 변동은 가족정책의 방향의 전환, 그리고 가족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 가족서비스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센터를 통해 전달되어왔다.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성인기(3040)의 가족관계 및 가족 돌봄 지원을 위한 사업이 다수를 차지하며 특히 자녀 돌봄에 치중되어 있다. 둘째, 가족 단위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면서 개인화된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특히 개개인의 여가나 쉼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못했다. 셋째, 지역사회 기반 가족 다양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박정운 외, 2019).

기존 가족서비스 전달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전반적인 개편 방향은 다섯 가지로 논의되고 있다(박정운 외, 2019). 첫째, 가족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사회의 가족서비스 수요에 맞게끔 지역의 인구 여건, 주민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핵심 기능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복합화 시설의 특성을 살린 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사회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타 기관과의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고, 연계대상 기관도 늘릴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가족서비스 기관이 모든 가족의 상호소통, 교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

가족서비스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전달체계 개편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생활 SOC 복합화 정책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지자체의 수요 파악, 시범 컨설팅 등에 기반하여 박정운 등(2019)의 연구에서는 생활 SOC 복합시설로 들어가는 가족센터를 세 가지로 유형화하고, 다목적 소통공간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표 8-1〉 가족센터 생활 SOC 유형과 다목적 소통공간 예시

| 유형 | 서비스 확장대상 | 기능 | 대상지역 | 다목적 소통공간 예시 |
|-------------|------------------|------------------------|-------------|--|
| 맞벌이 소통 | 맞벌이 가족 한부모 가족 | 주기능: 돌봄 부기능: 관계, 쉽 | 중소도시 대도시 | 확장형 공동유아나눔터 키즈카페 장난감 도서관 작은 도서관 |
| 글로벌 소통 | 외국인 이주민 | 주기능: 관계 부기능: 성장, 돌봄 | 중소도시 대도시 | 스터디룸 |
| 지역공동체 통합 | 노인가구 1인가구 | 주기능: 관계 부기능: 성장, 쉽 | 농촌 중소도시 | 공동부엌 복카페 다목적 작업실 |

자료: 박정윤 외(2019)

2) 가족센터와 1인가구 지원

진미정 외(2019)의 연구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1인가구 대상 프로그램의 현황을 분석하고, 실무자들과의 초점집단면접 등 질적 자료 분석을 통해 1인가구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 중 주목되는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1인가구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반드시 1인가구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진미정 외, 2019). 1인가구에서 다인가구로, 다인가구에서 1인가구로의 이행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1인가구 준비과정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1인가구에 국한되지 않는 동일 연령대, 혹은 다양한 연령대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1인가구 대상 프로그램에서는 사생활 보장이 중요하며, 새로운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센터의 신뢰성을 보여주면서 느슨한 관계망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여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느슨한 관계는 앞에서 살펴본 일본의 사업 사례에서도 강조되었던 것이다. 셋째, 지역의 특성에 맞는 1인가구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단지 도시형/농촌형의 구분에서 벗어나 도시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다른 1인가구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1인가구는 주거가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고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도 약할 수 있다. 1인가구 프로그램은 자연스럽게 1인가구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고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거점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지역 가족센터에서 1인가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전문성 제

고,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과 강사진 확보 등이 필요하며, 프로그램 대상을 특정 세대로 분리한 사업과 세대통합형 프로그램을 균형 있게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 여건에 따라 기관들간의 협력사업, 센터 간의 협력사업으로 운영할 필요도 있다(진미정 외, 2019).

나. 베이비붐 세대 1인가구를 고려한 가족지원 서비스 운영모형 : 제언

1) 기본 방향

베이비부머 1인가구를 고려한 가족지원 서비스는 한편으로 기존 가족센터를 운영해온 사업 체계와 인력의 연장선상에서 운영되며, 다른 한편 생활 SOC 복합화의 영향으로 지역센터 안에 다목적 소통공간의 확대 및 인접 기관들과의 연계성 강화 등 새로운 기회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틀 위에서 베이비부머 1인가구를 고려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큰 방향을 세 가지로 제언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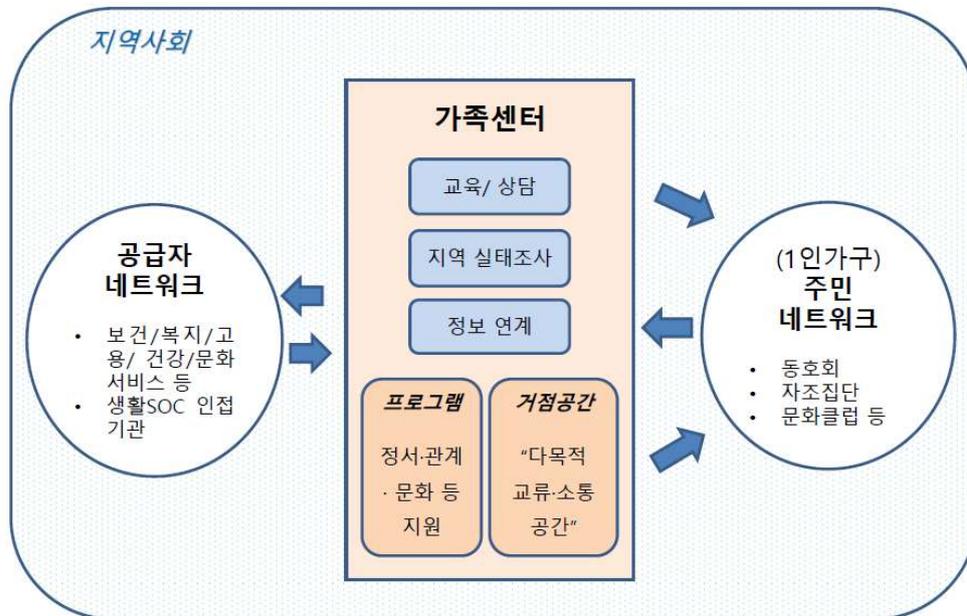
첫째, 가족지원 서비스 및 전달체계의 확장성 및 개방성을 지향하며, 특정한 가족 유형을 기준으로 하는 서비스보다는 보편적 가족정책, 개인화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장하려는 접근이 필요하다. 조사결과 및 문헌연구에서 이미 언급되었듯이, 1인가구와 다인가구는 고정된 가족지위가 아니며, 생애단계 및 가족주기의 변화과정에서 1인가구에서 다인가구로, 또 다인가구에서 1인가구로 이행하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만혼화와 비혼인구의 증가, 이른바 ‘싱글화’는 중장년 1인가구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그 내부의 다양성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베이비부머 1인가구를 특정한 가족 유형으로 고정하거나, 중장년 1인가구의 취약성을 스테레오타입화 하는 접근으로는 가족다양성 확대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모든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장년 베이비부머 1인가구를 포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양하게 나열된 가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보다는, 개인들이 생활상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프로그램을 특정 연령대를 중심으로, 혹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사회에 기반한 서비스의 접근성, 지역 특성에 맞는 기능을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 가족센터 운영에서 지자체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며, 생활 SOC의 확대는 가족센터와 지역 주민들 간의 접촉면을 넓히는 동시에 인접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족센터가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사회 실태 파악, 이 연구와 관련해서는 1인가구의 특성에 대한 실태 파악이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센터 SOC 유형은 지역에 따라 맞벌이 소통형, 글로벌 소통형, 지역공동체 통합형의 세 가지로 나누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특성을 맞게 운영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다양성 확대와 더불어 지역별 특성 및 지역별 격차도 확대되고 있으며, 같은 대도시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거주자의 특성이나 1인가구의 분포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베이비부머 1인가구 중에서도 40대는 주거의 이동성이 높아 지역 소속감이 낮은 반면, 60대 이상 연령층은 한 지역에 장기 거주하면서 이웃관계 등을 지속하는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에 기반한 가족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을 강화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지역사회의 공급자 네트워크와 주민(참여자) 네트워크를 연계하는 촉진자 역할을 검토할 수 있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보건, 건강, 돌봄, 생활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후지모리, 2018)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기반의 케어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지역의 보건소, 복지관, 가족센터, 생활 체육시설 등 서비스 제공자들의 상호연계, 즉 서비스 공급자의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급자 네트워크만으로 충족될 수 없는 다양한 교류와 참여, 여가와 문화활동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은 주민들이 단지 서비스의 대상이 아니라 활동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주민네트워크’를 통해 활성화될 수 있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의 지자체에서는 고령자 1인가구의 빈곤과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NPO 등 다양한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민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가족센터에서는 취약한 대상자를 위한 돌봄과 사례관리뿐만 아니라 가족 상담과 교육, 문화 프로그램 등을 폭넓은 사업을 운영해 왔다. 1인가구 프로그램에서도 지역 기반의 공급자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관을 연계

하는 한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인가구 주민들 사이의 느슨한 연대나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함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8-1> 가족센터 : 공급자 네트워크와 주민 네트워크

이러한 기본방향을 현실에서 기능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역 기반과 지역 내 연계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그림 8-1). 가족센터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주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지자체의 역할이나 다양한 파트너십이 확대되는 추세이다.²⁴⁾ 가족센터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가족돌봄과 관련된 서비스는 유지될 필요가 있겠지만, 생애과정의 유동성·가역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베이비부머 1인가구와 관련된 가족서비스는

24) 최근 1인가구를 포함한 가족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으며(진미정 외, 2019), 주거지 근처에서 가족관련 시설이나 공간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 등을 주목할 만하다(정가원 외, 2019).

개인의 독립적 생활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다. 또 개인의 성장과 삶에 있어서도 가족공간 위주, 가족관계 복원을 넘어 대안적 공간과 사회적 관계성을 확장해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생활 SOC 복합화와 1인가구를 고려한 가족센터 공간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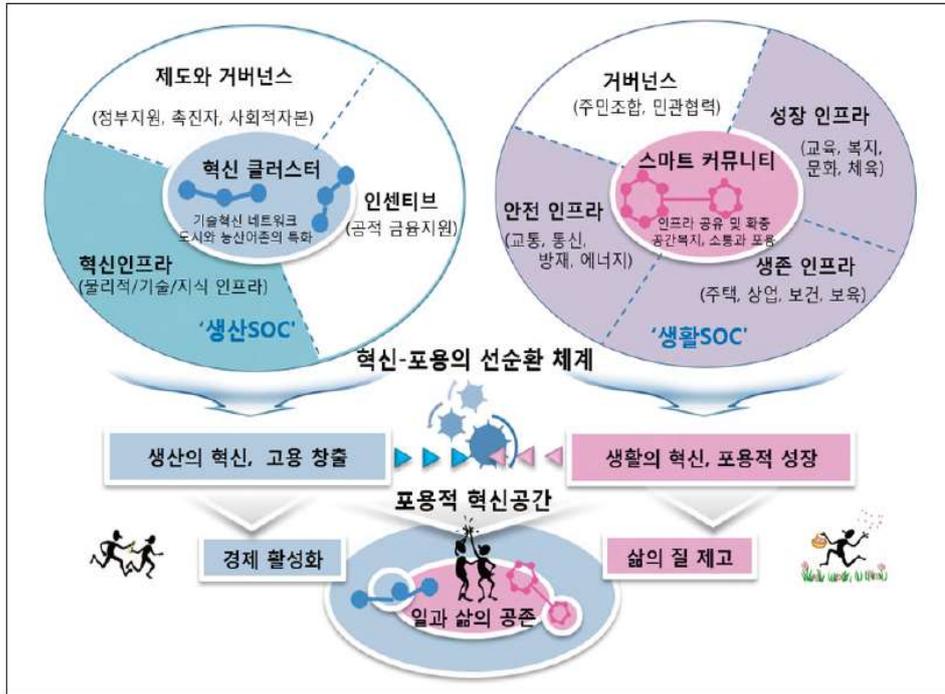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은 경제 생산에 기반이 되는 시설, 즉 도로, 철도, 항만 등을 의미하였으나, 최근에는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기반으로서의 생활 SOC 개념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도입되고 있다. 생활 사회간접자본은 공간, 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와는 다른 개념으로,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 시설보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국민이 생활하는 터전에서 손쉽게 접하게 되는 여가·건강·안전·환경분야 등과 관련한 생활 인프라를 의미한다(김유란, 2020; 임미화 외 2019). 정부는 2018년 8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개념을 처음 도입하였으며, 2019년부터 생활 SOC 확충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생활SOC 3개년 계획(2020~2022)에는 ‘활기차고 품격있는 삶터’(여가·활력), ‘따뜻하고 건강한 삶터’(생애·돌봄), ‘안전하고 깨끗한 삶터’(안전·안심) 등 3대 분야별로 8대 핵심과제를 제시되어 있다.²⁵⁾

이와 더불어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별도의 공간에 각 부처가 관장하는 시설을 만들던 방식에서 복수의 생활SOC 시설을 한 공간에 모아 설치함으로써 부지 이용의 효율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포함되는 시설은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모두 13종이다.²⁶⁾

25)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 소개된 생활SOC 관련 내용임.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5556>, 검색일 2020. 12. 1)

26) 생활SOC 13종 시설은 다음과 같다.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립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립노인요양시설, 주차장, 전통시장주차장, 로컬푸드복합센터.



<그림 8-2> 일과 삶이 공존하는 포용적 혁신공간

자료 : Andersson, M & Karlsson, C.의 지역혁신체계 개념을 커뮤니티 차원으로 확대 작성
 주 : 생활SOC는 커뮤니티 유지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생존인프라·성장인프라·안전인프라로 구분. '생존인프라'는 국민이 태어나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기초적인 인프라로 주택·상업시설·보건시설·보육시설 등이 해당되고, '성장인프라'는 신주체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로 교육시설·복지시설·문화시설·체육시설 등이 해당되며, '안전인프라'는 혁신 활동을 양성하고 안전하게 유지하여 공동체의 네트워크 강화에 필요한 인프라로 교통시설·통신시설·방재시설·에너지시설 등이 해당됨.
 출처 : 임은선, 2018, 3쪽.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가족센터의 공간적 환경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 내 역할을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로 볼 수 있다.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단순히 시설환경의 물리적 변화에 그치지 않으며, 산업·기술·문화 등이 역동적으로 변화되는 환경에서 시민들이 일과 삶을 함께 영위하면서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 복지의 확대, 시민들이 원하는 안전하고 좋은 삶의 적정 수준(national minimum)을 가까운 지역공동체 안에서 충족하는 것을 지향한다. 다시 말해 생활SOC는 '포용적 혁신공간'을 창출하는 한 축을 구성하며, 안전과 돌봄을 공유하는

공동체의 소통과 포용에 기초하고 있다(<그림 8-2>, 임은선, 2018).

생활SOC가 지역사회 안에서 거점 공간, 거점 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이 필요하다. 첫째, 주민이 일상생활 안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접근성). 둘째, 다양한 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가능할 때 세대간 교류와 융합이 일어날 수 있다(집객성). 셋째, 이용자들이 거점을 통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지역의 활동으로 확장할 수 있는 커뮤니티 수렴·발산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참여성). 넷째, 생활SOC가 부족한 취약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사업의 시급성)(김유란, 2020).

이와 같은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의미와 목적을 구현하는 공간 운영을 계획할 때 베이비부머 1인가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다목적 교류·소통공간”이다. 다목적 교류·소통공간을 포함한 가족센터의 공간이 중장년 1인가구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다목적 교류·소통공간은 중장년 1인가구 구성원들이 가족지원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기존 건강·다문화가정 지원센터는 아동양육, 가족상담 등을 지원하면서 센터의 공간구성도 아동이 있는 부모를 위한 편의 시설이나 상담·교육 공간을 중심으로 운영해 왔다. 이에 비해 지역사회 내 생활SOC 복합시설에 위치한 가족센터는 다양한 목적으로 복합화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과의 접촉면을 확대할 수 있으며, 센터 내에 비교적 넓은 면적으로 설치되는 다목적 소통공간²⁷⁾은 특정 목적이나 기능을 위한 공간으로 고정·구획하기보다는 가변형·다기능의 열린 공간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사회 내 다양한 세대와 계층 간의 교류가 센터 안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는 것이 필요하다. 다목적 교류공간을 특정 집단의 공간으로 표시하는 이미지(예를 들면, 아기를 상징하는 장난감, 가족의 화합을 상징하는 그림이나 문구 등)를 피하고, 압박감 없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구성(북카페나 넓은 테이블, 개인별 휴게 공간과 넓은 공유공간의 공존 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주민 네트워크나 자조모임 등 다양한 지역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주민참

27) 생활SOC 복합시설에 입주하는 가족센터는 기본형과 확장형으로 구분되며, 확장형의 경우 다목적 교류소통공간이 필수 시설로 설치되어야 한다.

여형 공간 운영이 필요하다. 취미모임, 독서 모임 등 주민들이 주도하는 다양한 소모임들은 베이비부머 1인가구들의 사회적 고립이나 정서적 취약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목적 교류·소통공간이 주민 참여와 소모임에 친화적인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구 배치나 공간 구성에 유의하고,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시간 조정 등 자율적 협력체계도 함께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베이비부머 1인가구들의 필요(needs)나 고충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된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베이비부머들은 직업경력의 정점에서 은퇴기로 이행하는 연령대에 해당하며, 플랫폼 노동이나 돌봄노동 등 이동이 많은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다. 지역의 인구구성이나 산업환경 등 실태 파악에 기초하여, 변화된 직업 환경에서 일과 삶을 병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휴게 및 사무공간 제공,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연계하는 기능 등 베이비붐 세대의 수요를 고려한 포용적 공간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표 8-2> 베이비붐 세대 1인가구를 고려한 가족센터 공간 운영

| 개념 | 방향 | 비고 |
|-----|---|--------------------|
| 접근성 | 기능별로 구획된 고정 공간 → 가변형 다기능 열린 공간 | 다목적 교류·소통공간 |
| 개방성 | 특정 집단을 위한 맞춤형 공간 이미지 → 누구나 부담 없이 머물 수 있는 공간 구성 | 다목적 교류·소통공간 |
| 참여성 | 내담자, 피교육자로서 공간 활용 + 주민주도적 참여, 소모임에 친화적 공간 구성 | 다목적 교류·소통공간 교육실 |
| 포용성 | 베이비붐 1인가구의 필요와 수요 파악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휴게·사무공간 제공 | 다목적 교류·소통공간 상담실 |

3) 조사결과에 기반한 사업 내용 제언

패널데이터 재분석, 온라인 조사 분석에서는 베이비부머 1인가구의 특성과 다양한 수요들이 관찰되었다. 베이비부머 1인가구는 혼인지위에 따라, 연령이나 교육수준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보이며, 내부의 이질성과 다양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 조사 결과에서 확인되었다. 베이비부머 1인세대가 직면할 수 있는 생활 리스크, 이들의

다양한 잠재력과 욕구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 내용을 검토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 아래와 같다.

첫째, 베이비부머 1인가구 중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집단을 파악하고 이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베이비부머 1인가구의 생활 리스크나 취약성은 청년세대나 노인 1인가구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미혼·비혼 상태에서 장기간 혼자 생활해왔거나, 외로움·자살 생각을 자주 하는 특성은 저소득층 남성 1인가구에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1인가구가 정서적 관계, 건강관리 등에서도 취약하고 노후준비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등 중첩된 취약성을 보이는 경향도 조사결과에서 확인된다. 중장년 남성 1인가구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 부조의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적 고립, 관계나 정서 측면에서 취약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 또한 이혼 후 장기간 혼자 생활해온 집단, 특히 여성들은 삶의 질을 측정하는 항목에서 만족도가 낮게 조사되었다. 이처럼 중첩된 취약성에 놓여있는 베이비부머세대 1인가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 이 집단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담과 필요한 연계지원 등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 이 집단의 실태를 파악하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휴먼 링크’(생활코디네이터)를 통한 접촉 및 일대일 정보제공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외로움과 정서적 고립을 치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문화 체험과 상담을 결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온라인 조사에서는 혼자 생활하는 남성 베이비부머들이 느끼는 정서적 고립감과 관계에서의 취약성이 여성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고위험군은 정신건강을 포함한 전문적 상담과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 다수의 1인가구들은 상담 등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경우라면 정서적 취약성을 ‘치료’하는 프로그램보다는,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 간의 상호교류와 참여, 베이비부머 남성들의 문화적 수요를 반영한 접근이 유용할 수 있다. 일본의 지역사회 사례에서 보듯이, 서로 안부를 묻고 돌아보는 관계, 가벼운 문화 프로그램이나 취미활동을 함께 하는 교류 등 주민 네트워크 활동을 문화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한다면 가족센터 이용자의 폭을 확장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베이비부머 세대, 베이비부머 1인가구 중에서도 일부 집단(혼인지위는 미혼·비혼 상태, 연령별로는 40대 후반, 성별로는 여성)에서는 가족보다는 개인 중심

의 라이프스타일을 중시하고 문화 및 여가 생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흐름이 나타났다. 정책 수요 조사결과를 보면, 베이비부머 여성들은 문화와 여가 생활뿐 아니라 취업·창업과 재테크 등 경제 정보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이 집단은 상업화된 문화 여가 시설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단지 소비자로서가 아니라 스스로 참여·주도하는 문화활동이나 지역에 기반한 동아리/자원 활동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일방향적인 교육 프로그램 보다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스스로의 관심을 표출하면서 참여자 주도적인 모임이나 활동을 이어가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베이비부머 1인가구는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 사회적 낙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여성, 그리고 비혼/미혼이나 이혼한 사람들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이 높은 편이었다. 중장년 1인가구가 가부장적 가족문화나 성차별적 편견, 사회적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교육이나 상담 프로그램뿐 아니라 참여자들이 주도하는 글쓰기 모임, 독서클럽 등을 통해 새로운 가족문화,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의 중요성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섯째, 베이비부머들이 중장년기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노년기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 중에서도 60대인 고연령층은 신체적 노화, 가족관계의 변화 등 생애주기상의 변화를 겪으면서 자기 돌봄, 독립적인 생활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한 상태이다. 간단한 집 수선과 셀프 인테리어, 건강 유기농 식단과 채식 요리, 홈트레이닝, 1인 방송 등 1인가구가 스스로 하는 활동에 필요한 기구나 장비²⁸⁾, 새로운 정보 등을 가족센터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볼 수 있다. 개인 역량강화에서 출발한 프로그램이 관심이 비슷한 주민들 간의 상호 교류나 동호회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여섯째, 1인가구 프로그램에서는 사생활 보호, 부담감을 주지 않는 느슨하고 완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가족센터 공간에도 누구나 부담 없이, 혼자 조용히 들어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북카페, 인터넷과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데

28) 예를 들면, 제빵기, 재봉틀, 전동드릴, 사다리, 홈 트레이닝 도구, 조명장비, 마이크, 편집 장비 등.

스크, 모바일용 충전기, 간단한 휴게 공간(빈백 소파, 캠핑용 텐트나 안락의자 등)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타인과 밀접하게 접촉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공간의 구성,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멀티미디어 교육장, 앱이나 온라인을 이용하여 상담, 교육이나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 등을 마련할 수 있다.

일곱째, 지역별로 1인가구가 주로 사는 주거공간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고시원, 오피스텔, 원룸, 구옥 단독주택, 임대 아파트 등 지역별 거주 형태의 특성을 고려하여 1인가구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1인가구들이 주로 입주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이 일부 시설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하는 공유형 임대주택, 청년과 베이비붐 세대가 같이 거주하는 공공주택도 늘어나고 있다. 일본의 콜렉티브 하우스 사례에서 보듯이, 1인가구들이 모여 있는 집합 주택에서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해볼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공공 임대주택에서는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줄이고 유대감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표 8-3> 조사결과에 기반한 1인가구 사업 예시

| 번호 | 사업 유형 | 주요 대상집단 | 프로그램/ 공간 및 전달체계 활용 |
|----|---------------------------|---|---|
| 1 | 생활리스크 중첩집단의 예방/관리 | - 장기간 1인가구로 생활한 사람 - 정신건강에서 취약성을 보이는 남성 1인가구 - 삶의 질 낮은 여성 1인가구 | - 지역별 실태 파악 - 상담을 통한 지원, 정신건강 관련 기관 연결 - '휴먼링크'(생활코디네이터)를 통한 일대일 정보제공과 관리 - 1인가구 온라인 플랫폼 |
| 2 | 외로움, 정서지원에 특화된 상담+문화 프로그램 | - 외로움, 소외감, 사회적 고립감에 장기 노출된 집단 - 정서적 취약성이 높은 남성 1인가구 | - 사회연결망, 관계망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참여형 주민 네트워크 형성 - 정서적 지원 + 접근성 향상 - 외로움 치유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과 상담을 함께 진행 |
| 3 | 지역참여형 문화활동 지원 | - 문화, 여가활동에 관심 많은 베이비부머 (비혼, 40대, 여성) - 단순한 문화 소비자에서 참여형 활동으로 확대하기를 원하는 사람 | - 교육 프로그램 + 참여자 주도형 모임 - 참여자들의 거점 공간 제공 (다목적 소통 공간) - 지역 내 문화기관들과 연계 |
| 4 | 1인가구 사회적 인정 제고 프로그램 | -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편견극복 (특히 여성/비혼/이혼자에 대한 낙인) | - 교육 프로그램 (가족 변화와 새로운 가치관) - 글쓰기, 독서토론 모임 (새로운 가족, 성평등한 가족문화에 대한 독서 리스트) |
| 5 | 자기돌봄, 독립 생활역량 강화 | - 독립적인 1인 라이프를 위한 역량 강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 | - 간단한 집 수선과 셀프 인테리어, 건강 유기농 식단과 채식 요리, 홈트레이닝, 1인 방송 등 활동에 필요한 기구, 장비, 새로운 정보 등 지원 (공간 및 장비 대여/ 교육 프로그램 등) |
| 6 | 느슨하고 완만한 공존 | - 누구나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공유하면서 느슨한 관계 맺기/비대면 프로그램 구축 | - 북카페, 멀티미디어 데스크, 멀티미디어 교육장, 모바일 충전, 빈백/캠핑용 텐트 등 간단한 휴식공간 등 - 1인가구 온라인 플랫폼 |
| 7 | 지역주거 특성에 맞는 1인가구 프로그램 | - 공공임대주택 등 콜렉티브 하우스에 거주하는 1인가구 (예비 1인가구, 다양한 세대 포함) | - 지역 주거환경을 고려한 주민과 이웃 간 관계 형성, 공동관리를 위한 자치회, 문화 프로그램 등. |

4) 전달체계 운영에서 유의점 및 고려 사항

가족센터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다인가구 뿐 아니라 1인가구를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할 경우 가장 먼저 제기될 수 있는 과제는 서비스의 중복과 전달체계의 효율성 문제이다. 서울시 1인가구 지원센터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1인가구의 독립적 생활능력과 원가구와의 관계회복, 사회적 관계망 확충과 관련된 상담 및 교육서비스, 일자리, 안전, 주거, 여가, 건강 등과 관련된 정보제공과 자원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다. 기존의 복지관이나 50플러스 센터의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검토하여 분절성을 줄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또, 대상자가 중장년 1인가구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센터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전달전략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4가지 요소는 통합성, 접근성, 연속성, 책임성이다(Neil Gilbert&Paul Terrell, 2005). 서비스 기관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서 서비스 내용은 중복되는 등의 단편성을 줄이고 (통합성) 서비스 전달체계에 진입하는 데 있어 소득, 연령, 성공 가능성 등의 조건이 장벽이 되지 않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서비스 전달 시 욕구와 자원의 매칭에서의 간격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소통, 연계 및 의뢰 시스템을 통해 연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 1인가구를 포함한 지원은 종전의 정상가족 모델에 기반한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비해 훨씬 광범위하고 다양한 서비스의 확대를 의미한다. 기존의 서비스에 가족 유형을 몇 가지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문화나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하여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새로운 자원들이 필요하다. 인력 양성 및 인력 관리, 역할 분담과 전문성 규정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새로운 가족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가족센터 운영인력의 교육과 재교육, 그리고 생활 SOC 등 변화된 환경 속에서 지역사회의 특성을 파악하고 연계 기관들과 협력하는데 필요한 역량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인 예산과 조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력 양성과 전문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요구된다. 또한 1인가구 전문상담을 진행할 경우 담당 인력이 기존의 가족 상담과는 다른 별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인지, 전문성의 성격에 대한 규정 역시 필요하다. 더불어 상

담 이후 사례관리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휴먼 링크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에도 유의할 대목들이 많다. 휴먼 링크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등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 비해 비전문적이고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아마추어리즘의 문제). 둘째, 조직 내 보조요원적 성격에서 출발하였는데 이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이들이 전달체계 안에서 정규 기능을 갖게 된다면 전문성에 대한 갈등과 전문가주의에서 비롯된 반발이 예상된다(Pruger and Specht, 1968). 업무에 대한 정당한 처우를 제공할 수 있는가도 문제이다. 셋째, 이들이 서비스 전달에서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할수록 일차적 임기응변적 소통적 기술을 통한 서비스 기여가 줄어들게 되는 측면이 있다. 조직에 효과적으로 적응하여 요원처럼 활동할수록 서비스 이용자의 눈높이를 이해하는 “링크”로서의 역할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휴먼 링크가 서비스 촉진자(expeditors of service)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상당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셋째, 1인가구 사업은 생활, 문화, 여가, 정서, 정보제공 등 다양한 사업 영역으로 확장되며 새로운 콘텐츠와 강사진 개발 등이 필요하다. 이 사업들에는 외부 인력과 조직, 즉 전문강사나 전문 콘텐츠를 보유한 사람 등 기관 등이 연계되며, 외부 기관의 역량에 따라 사업의 성과가 좌우될 우려가 있다. 또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체계 등 사업과 프로그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및 부록

1. 참고문헌
2. 부록 (설문지)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강소랑, 이은정, 신우진, 최은영, 임승연. (2017). 서울시 50+세대 실태 및 수요조사 연구. 서울시50플러스재단.
- 강은나, 이민홍. (2016). 우리나라 세대별 1인가구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47-56.
- 고아라, 정규형, 신보경. (2018).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 연구: 다인 가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 관계부처합동(2008).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관계부처합동.
- 관계부처합동(2012).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3~2017. 관계부처합동.
- 계봉오. (2016). 베이비붐: 한국. 인구대사전. 통계청.
- 김석호, 변미리, 정병은, 구서정. (2018). 인구특성별 1인가구 현황 및 정책대응 연구. 여성가족부
- 김성희, 이송희, 김완호, 민흥기, 박경수, 박은혜 등. (2012).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3~2017) 수립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희, 윤상용, 이승기, 변경희, 이석영, 이민경 등. (2011). 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희, 윤상용, 강민희, 이송희, 허수정, 강민희 등. (2010). 장애인의 통합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정책 연구: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복지분야 중간점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희, 이송희. (201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2012년 2월호
- 김성희, 이송희. (2012). 일본 장애인자립지원제도의 발전과 장애등급 판정체계 고찰. 보건복지포럼 2012년 3월호
- 김영란, 주재선. (2010). 베이비붐 세대 남녀특성 비교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은지, 김소영, 최진희, 성경. (2017).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 개발, 한국정책연구원.
- 김용하, 임성은. (2011).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 노동시장 충격, 세대간 이전에 대한 고찰. 보건사회연구 31(2): 36-59.

- 김유란. (2020). 도시재생 거점시설 역할을 위한 생활 SOC 복합화 방안 - 시설별 국가적 최저기준을 적용한 접근성 분석, 국토연구원 워킹페이퍼.
- 김찬우, 김미옥, 신형익, 임정기. (2008).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을 위한 정책연구. 가톨릭대학교.
- 김태현. (2010). 우리나라 인구전개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의미. 연금포럼 37: 4-11.
- 김혜영. (2014). 유동하는 한국가족: 1인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15(2), 255-292.
- 드 파올로, 벨라. (2012). 싱글리즘: 나는 미혼이 아니다, 나는 싱글병글이다 (Singled Out: How Singles are stereotyped, and ignored, and still live happily ever after). 슈나.
- 박건, 김연재. (2016). 서울 1인가구 여성의 삶 연구: 4050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노후준비와 사회관계를 중심으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박명아, 조시울, 신혜리, 박설우, 김영선. (2018). 베이비붐 세대의 재무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후기 베이비붐 세대 비교연구. 보건사회연구 38(2): 133-166.
- 박정윤, 김영란, 손서희, 진미정, 김민진, 조수진. (2019).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변미리. (2019). 1인가구의 삶의 질. 한국의 사회 동향 2019. 통계청 통계개발원. 78-88.
- 변미리, 최정원, 박민진, 이혁준, 김진아. (2015). 서울특별시 1인가구 대책 정책연구. 서울특별시의회.
- 변미리. (2016). 베이비붐 세대와 인구절벽. 한국의 사회동향 2016. 통계개발원.
- 서정주, 김예구. (2017). 2017 한국 1인가구 보고서.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 서혜경. (2015). 베이비붐 세대 여부와 가정폭력 행동과의 관계: 부부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5(4): 1081-1094.
- 성은미, 김세원, 박다정. (2016). 저소득 1인생활인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경기복지재단.
- 손정연, 한경혜. (2014).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관계적 특성이 결혼만족도 및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남녀차이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4(4): 185-216.
- 송혜림, 윤서영, 고신강. (2018). 서울지역 1인가구 현황 분석에 따른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박소영, 최윤정, 김주희. (2020).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남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자활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담론과 정책. 13(1): 69-96.
- 야마다 마사히로. (2019). 가족난민 (니시아마 치나 . 함인희 역). 그린비

- 염인숙. (2019). 중장년층의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19(10): 472-486.
- 이명진, 최유성, 이상수. (2014). 1인가구의 현황과 사회적 함의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7(1): 229-253.
- 이수인, 전희진, 최지훈. (2020). 전라북도 농촌 1인가구 실태와 삶의 만족도. 전북연구원.
- 이여봉. (2016). 베이비붐: 개관과 역사. 인구대사전. 통계청
- 이진숙, 이윤석. (2014). 비혼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여성과 남성의 교제활동 시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7(4): 1-24.
- 이호영, 고흥석, 김석호, 이윤석, 허명희. (2013). 디지털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 비교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임미화, 이승희, 손순금, 전유신, 박병순, 박경아, 최호정. (2019). 생활 SOC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임유진, 박미현. (2018). 1인가구 중년의 사회경제적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4(1): 187-206.
- 임은선. (2018). 포용적 혁신공간 창출을 위한 생활 SOC 확충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혁신성장 연구단 Research Brief.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장진희. (2018). 서울거주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서울여성가족재단.
- 정가원, 홍승아, 김난주, 김수진, 성지혜. (2019). 가족친화 지역사회 환경조성정책 실효성 강화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경희, 손찬균, 박보미. (2010). 신노년층의 특징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오영희, 이윤경, 박보미. (2011). 베이비 부모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오영희, 황남희, 신현구, 남효정. (2013). 미래고령사회 대응 베이비붐 세대 및 전·후세대 실태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진미정, 장미나, 노신애. (2019). 1인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실태 및 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최석현, 김을식, 김정훈, 류기락, 이지혜. (2014).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 변화와 경기도 정책방향. 경기연구원.
- 최현수. (2020). 1인가구 증가 및 가구구성 변화에 따른 사회정책 추진 방향 및 제도 개선방안. 제2차 사회정책포럼 발표자료.
- 클라이넨버그(Klinenberg, Eric). (2012). 고잉 솔로: 싱글턴이 온다(Going Solo: The Extraordinary Rise and Surprising Appeal of Living Alone). 더퀘스트.

- 클라이넨버그(Klinenberg, Eric). (2018). 폭염사회. 글항아리.
- 클라이넨버그(Klinenberg, Eric). (2019).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Places for the People). 웅진지식하우스.
- 함인희. (2002). 베이비붐 세대의 문화와 세대경험. 나남출판사.
- 후지모리 가즈히코. (2018). 1인가구 사회 - 일본의 충격과 대응. 나남.

[국외문헌]

- Demey, Dieter, A. Berrington, M. Evandrou & J. Falkingham. (2013). Pathways into living alone in mid-life: Diversity and policy implications.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18: 161-174.
- Esteve, A., Reher, D.S., Trevino, R., Zuras, P. and Turu, A.(2020) Living Alone over the Life Course: Cross-National Variations on an Emerging Issu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6(1): 169-189.
- Gaymu, J. and Springer, S. (2012). Translated by Lynda Stringer How does Living Alone or with a Partner Influence Life Satisfaction among Older Men and Women in Europe? *Population*. 67(1): 43- 69.
- Glick, P.C. (1994). Living Alone During Middle Adulthood. *Sociological Perspective* 37(3): 445-457.
- HM Government. (2018). A connected society.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Crown copyright.
- Jakobsson U., Hallberg, J., R., WESTERGREN A. (2004). "Overall and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the oldest old in pain". *Quality of Life Research*. 13(1): 125-136.
- Inglehart R. (2002). Gender, aging, and subjective well-being. *Int J Comp Sociol* 43(3-5): 391-408.
- Joshanloo, M., Jovanović, V.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and life satisfaction: Analysis across demographic groups and global regions. *Archives of Women's Mental Health*, 23: 331-338
- Neil Gilbert, Paul Terrell. (2007).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Pearson Allyn and Bacon.
- Park, H. and Choi, J., (2015). Long-term trends in living alone among Korean

- adults: Age, gender and educational differences. *Demographic Research*. 32: 1177-1208.
- Pruger, R. & Specht, H. (1969). Assessing Theoretical Models of Community Organization Practice: Alinsky as a Case in Point. *Social Service Review*. 43(2): 123-135.
- Snell, K.D.M. (2015). Agendas for the Historical Study of Loneliness and Lone Living. *The Open Psychology Journal* 8 (Supple 3-M2): 61-70.

[데이터 및 기타 자료]

- 통계청. (2019a). 가계금융복지조사 micro data. 통계청 MDIS.
- 통계청. (2019b). 사회조사.
- 통계청.(2020). 인구주택총조사 설문지. 통계청.
- KOSIS(2020a). e-지방비표: 1인가구 비율. 2000~2018.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1161&vw_cd=MT_GTITLE01&list_id=10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GTITLE01 에서 인출.
- KOSIS(2020b). 장래가구추계. 2000~2047.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Z0503&vw_cd=MT_ZTITLE01&list_id=A42_1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에서 인출.
- OECD. (2016). Better Life Index (Edition 2016),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database). <https://doi.org/10.1787/b1699f36-en> (accessed on 10 December 2020).

[보도자료]

- 통계청. (2012). 베이비부머 및 에코세대의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중심으로. 2012. 8. 2. 통계청 보도자료.
- 통계청. (2018).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1인가구의 현황 및 특성. 통계청 보도자료.
- 통계청. (2020). 2019년 인구주택 총조사 보도자료.

[설문지 문항]

중장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가족 서비스 욕구 조사

안녕하십니까?
 이 조사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위탁에 의해 중장년 가구의 가족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자료는 가족서비스 정책 개발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안내에 따라 조사문항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길 바랍니다. 조사결과는 다른 분들의 의견과 함께 집계되어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는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설문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기관 : (사단법인) 한국여성연구소
 연구책임자 황정미
 연구실무자 이예진
 2020년 8월

• 연 락 처 : 연구책임자 : 사단법인 한국여성연구소 황정미 / 연구담당자 이예진 02-881-9104



SQ. 응답자 특성

SQ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년도 출생 [연령 범위 : 1956 ~ 1975년]

SQ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성 ② 여성

SQ3-1) 귀하께서 거주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PROG : 지도형]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세종
 9) 경기 10) 강원 11) 충북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

SQ3-2. 그럼,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PROG : 지도형]
 _____구/시/군

SQ4) 귀하는 1인가구에 해당되십니까?
 ① 1인가구임 (☞문 A1 로 이동)
 ② 아님 (☞문 SQ5 로 이동)

※1인가구란 "혼자서 살립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통계청 정의)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자녀, 기타 가족이 있더라도 학업, 직장, 기타 사유로 인해 따로 살고 있어, 지금 혼자 사는 가구는 1인가구에 포함됩니다.

SQ5) [SQ4. ② 응답자만] 현재 귀댁에서 귀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 () 명

SQ5-1) [SQ4. ② 응답자만] 현재 귀댁에서 귀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이십니까? 다음의 경우 중 해당되는 사람들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손자녀
 ④ 자신의 부모님 ⑤ 배우자의 부모님 ⑥ 자신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⑦ 자신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⑧ 기타

SQ6) [SQ4. ② 응답자만] 현재 생활하는 가구에서 가구주이십니까?

- ① 가구주임 ② 아님

※ 가구주란 한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으로, 단순히 가구원중에 연장자이거나 소득이 제일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비용을 주로 조달하면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생계책임자를 말합니다.

SQ7) [SQ4. ② 응답자만] 귀하는 성인(만 19세)이 되고 혼자 생활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문 SQ8 로 이동) ② 없다 (☞문 B1 로 이동)

SQ8) [SQ7. ① 응답자만] 만일 혼자 생활하신 적이 있었다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 ① 학교, 직장 때문에 (유학, 주말부부 등)
 ② 배우자와의 이혼, 별거, 사별 때문에
 ③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혹은 관계단절 때문에
 ④ 함께 살던 자녀의 독립(혼인, 분가 등, 기러기 가족 포함) 때문에
 ⑤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⑥ 마땅히 함께 살 사람이 없어서
 ⑦ 기타()



[SQ4. ① 1인가구임 응답자만] 1. 1인가구 생활

A1) 지금처럼 혼자 생활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년도부터

A2) 귀하가 현재 혼자 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직장과의 거리(주말부부 등) 때문에
 ② 배우자와의 이혼, 별거, 사별 때문에
 ③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혹은 관계단절 때문에
 ④ 함께 살던 자녀의 독립(혼인, 분가) 때문에
 ⑤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⑥ 마땅히 함께 살 사람이 없어서
 ⑦ 기타()

A3) 귀하는 과거에 혼자 살다가 원래 가족과 함께 사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A3-1로
- ② 없다 → A4로

[A3 ①번 응답자만] 3-1) 만일 있었다면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 ① 생활비, 주거비 등 경제적인 문제
- ② 부모님을 돌봐야 해서
- ③ (손)자녀를 돌봐야 해서
- ④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서
- ⑤ 혼자 사는 것이 안전하지 못해서
- ⑥ 기타()

A4) 귀하는 현재 혼자 사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② 별로 만족하지 않음 ③ 대체로 만족하는 편임 ④ 매우 만족함

A5) 귀하는 혼자 생활하면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 구분 | 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
| 1) 혼자 있을 때 외로움 | ① | ② | ③ | ④ |
| 2) 가사일, 은행 업무 등을 도와줄 사람이 없음 | ① | ② | ③ | ④ |
| 3) 소득 등 경제적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 4)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음 | ① | ② | ③ | ④ |
| 5) 혼자 사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사회적 시선 | ① | ② | ③ | ④ |

A6) 귀하는 혼자 살면서 사회적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불이익 받음 ② 불이익 받는 편 ③ 보통
- ④ 불이익 받지 않는 편 ⑤ 전혀 불이익 받지 않음

A7) 혼자 사는 것으로 인해 무시를 당하거나 편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A7-1로 이동
- ② 아니다 → A8로 이동

[A7 ①번 응답자만]

A7-1) 해당 경험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무능력자 또는 사연이 있는 사람으로 보는 시선
- ② 결혼을 해야 한다는 강요 ③ 성희롱 ④ 성적으로 방탕한 사람으로 보는 시선
- ⑤ 기타()

A7-2) 누구로부터 차별이나 무시를 당하셨습니다?

- ① 가족이나 친족 ② 이웃주민 ③ 관공서 공무원
- ④ 사회복지사 또는 노인시설 직원 ⑤ 모르는 사람 ⑥ 기타 ()

A8) 귀하가 처음 1인 가구 생활을 시작했을 때와 비교해 현재 경제적 상황은 '전반적으로' 어떠합니까?

- ① 경제적 상황이 더 좋아졌다
- ② 경제적 상황이 더 나빠졌다
- ③ 비슷하다

A9) 귀하가 처음 1인 가구 생활을 시작했을 때와 비교해 현재 정서적 상황은 '전반적으로' 어떠합니까?

- ① 정서적으로 더 좋아졌다
- ② 정서적으로 더 나빠졌다
- ③ 비슷하다



2. 가족·친구 및 사회관계 관련 사항

◆[모든 응답자] 다음은 가족, 친구 및 사회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묻는 문항입니다.

<B. 가족·친구 관계 사항>

B1) 귀하의 거주지와 다른 곳에서 따로 사는 가족이 있습니까?

| 구분 | | 있음 | 없음 |
|-------|---------------------------|----|----|
| B1-1) | 부모 (본인 부모만, 배우자 부모 제외) | ① | ② |
| B1-2) | 형제·자매 | ① | ② |
| B1-3) | 배우자 | ① | ② |
| B1-4) | 자녀 | ① | ② |

B1-4-1) [B1-4 의1 응답자만] 귀하는 따로 사는 성인(만19세이상)자녀가 있습니까?

①있음 ②없음

B2) 귀하는 따로 사는 가족이나 친구와 얼마나 자주 만나거나 연락하십니까?

| 구분 | | 소통 전혀 없음 | 월1회 이하 | 월2-3회 | 월4회 이상 |
|----------------------|---------------------|-------------|--------|-------|-----------|
| 직접만남 | [B1-1의1 응답자만] 부모 | ① | ② | ③ | ④ |
| | [B1-2의1 응답자만] 형제·자매 | ① | ② | ③ | ④ |
| | [B1-3의1 응답자만] 배우자 | ① | ② | ③ | ④ |
| | [B1-4의1 응답자만] 자녀 | ① | ② | ③ | ④ |
| | 친구 | ① | ② | ③ | ④ |
| 전화 또는 문자 연락 | [B1-1의1 응답자만] 부모 | ① | ② | ③ | ④ |
| | [B1-2의1 응답자만] 형제·자매 | ① | ② | ③ | ④ |
| | [B1-3의1 응답자만] 배우자 | ① | ② | ③ | ④ |
| | [B1-4의1 응답자만] 자녀 | ① | ② | ③ | ④ |
| | 친구 | ① | ② | ③ | ④ |

B3) [B1-1의1 응답자만]

귀하는 지난1년 동안 부모님과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주고 받았습니까?

| 구분 | B3-1) 귀하가 부모님께 해드린 일 | | | |
|---------------|----------------------|-------------------|------------|------------|
| | 전혀 해드리지 않았다 | 적은 해드리지 않았다 | 가끔 해드렸다 | 자주 해드렸다 |
| 1) 경제적 지원 해주기 | ① | ② | ③ | ④ |

| | | | | |
|--|---|---|---|---|
| 2) 청소, 식사준비, 장보기, 심부름 등의 집안일 혹은 건강 돌보기 | ① | ② | ③ | ④ |
| 3) 개인적인 문제나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 들어주기 | ① | ② | ③ | ④ |

| 구분 | B3-2) 부모님이 귀하에게 해주신 일 | | | |
|--|-----------------------|------------|---------|---------|
| | 전혀 해주지 않았다 | 거의 해주지 않았다 | 가끔 해주었다 | 자주 해주었다 |
| 1) 경제적 지원 해주기 | ① | ② | ③ | ④ |
| 2) 청소, 식사준비, 장보기, 심부름 등의 집안일 혹은 건강 돌보기 | ① | ② | ③ | ④ |
| 3) 개인적인 문제나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 들어주기 | ① | ② | ③ | ④ |

B4) [B1-4-1의1 응답자만]

귀하는 지난1년 동안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주고 받았습니까?

| 구분 | B4-1) 귀하가성인자녀에게해주실 일 | | | | |
|--|----------------------|------------|---------|---------|-------------------|
| | 전혀 해주지 않았다 | 거의 해주지 않았다 | 가끔 해주었다 | 자주 해주었다 | 행담 없음 (손자녀 없는 경우) |
| 1) 경제적 지원 해주기 | ① | ② | ③ | ④ | |
| 2) 청소, 식사준비, 장보기, 심부름 등의 집안일 혹은 건강 돌보기 | ① | ② | ③ | ④ | |
| 3) 손자녀 돌봄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개인적인 문제나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 들어주기 | ① | ② | ③ | ④ | |

| 구분 | B4-2) 귀하의성인자녀가귀하에게해주실 일 | | | |
|--|-------------------------|------------|---------|---------|
| | 전혀 해주지 않았다 | 거의 해주지 않았다 | 가끔 해주었다 | 자주 해주었다 |
| 1) 경제적 지원 해주기 | ① | ② | ③ | ④ |
| 2) 청소, 식사준비, 장보기, 심부름 등의 집안일 혹은 건강 돌보기 | ① | ② | ③ | ④ |
| 4) 개인적인 문제나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 들어주기 | ① | ② | ③ | ④ |

B5) 귀하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구분 |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 | 약간 만족한다 | 매우 만족한다 | 해당 없음 (각 대상이 없는 경우) |
|------------------------|-------------|-------------|---------|---------|---------------------|
| 부모 (본인 부모만, 배우자 부모 제외) | ① | ② | ③ | ④ | ⑤ |
| 형제·자매 | ① | ② | ③ | ④ | ⑤ |
| 배우자 | ① | ② | ③ | ④ | ⑤ |
| 자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친구 | ① | ② | ③ | ④ | ⑤ |

B6) 귀하의 노후생활 동반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 구분 | 자녀 | 부모 | 형제·자매 | 혼자 | 배우자·파트너/애인 | 친구 | 기타 () |
|---|----|----|-------|----|------------|----|--------|
| B6-1) 귀하는 노후에 누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까?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B6-2) 귀하는 현실적으로 노후에 누구와 함께 살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C. 사회온라인 관계 사항>

C1) 귀하의 주변에는 귀하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은 주로누구입니까? 한 명만 선택해 주십시오.

| 구분 | C1-1) 도움줄 수 있는 사람수 | | | | | C1-2) 도움줄 수 있는 사람 [C1-1의2,3,4,5 응답자만] | | | | |
|---|--------------------|------|------|------|--------|---------------------------------------|-----|----|----------|--------|
| | 없음 | 1-2명 | 3-4명 | 5-9명 | 10명 이상 | 가족 | 친인척 | 친구 | 직장 동료/선배 | 기타 () |
| 1)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아플때나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걱정거리가 있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항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수-> 도움 줄 수 있는 사람 순으로 응답하도록]

C2)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귀하가 가장 많이 도움을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 구분 | C2-1) 도움준경험 | | C2-2) 도움준사람 [C2-1의 응답자만] | | | | |
|--|-------------|----|-----------------------------|-----|----|--------------|-----------|
| | 있음 | 없음 | 가족 | 친인척 | 친구 | 직장동료 /선후배 | 기타 () |
| 1) 목돈을 빌려준 경험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집안일이나 일상생활을 도와준 경험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우울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항별 도움을 준 경험-> 도움을 준 사람 순으로 응답하도록]

C3) 귀하가 별일 없이 갑자기 연락해 만나자고 할 때 기꺼이 응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거의 없는 편이다
③ 몇 명 있다 ④ 많이 있다

C4) 귀하는 현재 귀하가 맺고 있는 관계보다 더 다양한 관계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C5번으로) ② 별로 그렇지 않다(→C5번으로)
③ 약간 그렇다(→C4-1번으로) ④ 매우 그렇다(→C4-1번으로)

C4-1) [C4의 3,4 응답자만] 귀하는 어떤 관계가 새롭게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가족 및 친척 ② 친구 ③ 애인 ④ 이웃 ⑤ 기타()

C5)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인터넷 상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 구분 | 전혀 본적 없다 | 거의 하지 않았다 | 한 달에 1-3 회 정도 | 일주일 에 1-3회 정도 | 하루에 한 번 정도 | 하루에 수시로 |
|--|----------------|-----------------|---------------------------|------------------------|------------------|------------|
| 1) 자신의 SNS에 글쓰기(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토리 등) | | | | | | |
| 2) 채팅/메신저(카톡, 텔레그램, 메시지, 네이버 등) | | | | | | |
| 3)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카페, 밴드 등) | | | | | | |
| 4) 인터넷 정보검색(유튜브, 네이버, 다음 등) | | | | | | |

C6)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집단이나 조직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집단이나 조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얼마나 가깝다고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 C6-1) 참여경험 | |
|-----------------------------|------------|----|
| | 있다 | 없다 |
| 1) 동창회/ 동창모임 | ① | ② |
| 2) 지역모임/ 향우회 | ① | ② |
| 3) 인터넷 커뮤니티/ 온라인 카페 | ① | ② |
| 4) 등산/취미 등 동호회 모임 | ① | ② |
| 5) 자원봉사 단체 | ① | ② |
| 6) 계모임/ 친목회 | ① | ② |
| 7) 시민운동단체(환경/여성/인권/노동 단체 등) | ① | ② |
| 8) 종교단체 | ① | ② |
| 9) 기타() | ① | ② |

| | C2-2) 친밀도 [C6-1의문항별1 응답자만] | | | |
|-----------------------------|-------------------------------|---------|-----------|-----------|
| | 매우 가깝다 | 대체로 가깝다 | 별로 가깝지 않다 | 전혀 가깝지 않다 |
| 1) 동창회/ 동창모임 | ① | ② | ③ | ④ |
| 2) 지역모임/ 향우회 | ① | ② | ③ | ④ |
| 3) 인터넷 커뮤니티/ 온라인 카페 | ① | ② | ③ | ④ |
| 4) 등산/취미 등 동호회 모임 | ① | ② | ③ | ④ |
| 5) 자원봉사 단체 | ① | ② | ③ | ④ |
| 6) 계모임/ 친목회 | ① | ② | ③ | ④ |
| 7) 시민운동단체(환경/여성/인권/노동 단체 등) | ① | ② | ③ | ④ |
| 8) 종교단체 | ① | ② | ③ | ④ |
| 9) 기타() | ① | ② | ③ | ④ |



3. 정서 및 삶의 질 관련 사항

◆ 다음은 정서 및 삶의 질과 관련된 사항을 묻는 문항입니다.

◆ 다음은 정서 및 삶의 질과 관련된 사항을 묻는 문항입니다.

<D. 정서 사항>

D1) 귀하의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감정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십니까?

| 구분 | 전혀 없었다 | 거의 없는 편이었다 | 가끔 있었다 | 자주 있었다 |
|------------|--------|------------|--------|--------|
| D1-1) 우울 | ① | ② | ③ | ④ |
| D1-2) 외로움 | ① | ② | ③ | ④ |
| D1-3) 자살생각 | ① | ② | ③ | ④ |

D1-4) [D1-1,2,3 중 하나라도 2,3,4를 선택한 응답자만] 귀하는 우울하고 외롭거나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 ① 사람을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다
- ② 운동이나 취미활동을 한다
- ③ 술을 마신다
- ④ 일에 집중한다
- ⑤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게임, 인터넷 서핑, SNS 등을 한다
- ⑥ 쇼핑(홈쇼핑, 인터넷 쇼핑, 오프라인 쇼핑)을 한다
- ⑦ 잠을 잔다
- ⑧ 청소, 빨래 등 집안일을 한다
- ⑨ 아무것도 안한다
- ⑩ 기타()

<E 여가 활동>

E1) 귀하께서는 평소 자신의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족함 ② 부족함 ③ 충분함 ④ 매우 충분함

E2) 귀하께서는 평소 다음과 같은 활동을 자주 하십니까?

| 구분 | 거의 안함 | 1년에 1~3회 | 한 달에 1~3회 정도 | 일주일당 1~3회 정도 | 매일 |
|------------------------------|-------|----------|--------------|--------------|----|
| 1) TV / 비디오 시청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외식, 쇼핑하기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나들이나 여행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문화관련 취미활동 (그림 그리기, 독서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스포츠 활동(헬스, 자전거 타기, 등산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문화관람 (영화, 미술관, 운동경기 관람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종교 활동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봉사 활동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기타 () | ① | ② | ③ | ④ | ⑤ |

E3) 귀하는 주로 누구와 함께 여가를 보내십니까?

- ① 가족 ② 친구 또는 이웃 ③ 동호회 등 단체 회원
- ④ 혼자 ⑤ 기타()

E4) 귀하께서 여가활동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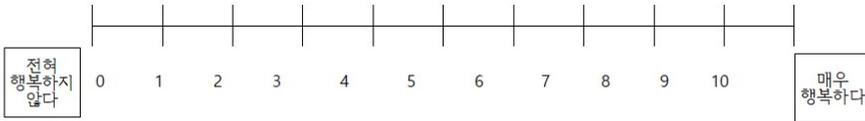
- ① 일이 너무 바빠서 ② 경제적 부담 때문에
- ③ 적당한 여가프로그램이 없어서 ④ 적당한 여가시설이나 장소가 없어서
- ⑤ 함께할 친구가 없어서 ⑥ 여가와 관련한 정보가 부족해서
- ⑦ 혼자서 할 만한 것이 별로 없어서
- ⑧ 기타 ()

<F. 삶의 질>

F1) 다음과 같은 삶의 각 영역에 대해 귀하께서는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다음 보기를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 약간 만족한다 | 매우 만족한다 |
|---------|-------------------|-------------------|------------|------------|
| 1) 건강상태 | ① | ② | ③ | ④ |
| 2) 경제상태 | ① | ② | ③ | ④ |
| 3) 여가생활 | ① | ② | ③ | ④ |
| 4) 인간관계 | ① | ② | ③ | ④ |

F2)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귀하는 현재의 삶에서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최근 한 달 동안의 전반적인 행복감을 떠올리며 아래에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행복하지 않은 상태는 0점, 매우 행복한 상태는 10점입니다)





4. 노후 준비 및 정책 관련 사항

<G. 노후 준비>

G1) 귀하께서는 노후를 대비해 현재 어느 정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 | 전혀 못함 | 별로 못함 | 약간 준비함 | 적극적으 로 준비함 |
|--------------------------------|----------|----------|-----------|------------------|
| 1) 노후생활을 대비한 경제적 준비 (보험, 저축 등) | ① | ② | ③ | ④ |
| 2)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 | ① | ② | ③ | ④ |
| 3)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체력 관리 | ① | ② | ③ | ④ |
| 4) 노후의 여가생활을 위한 대비 | ① | ② | ③ | ④ |

G2) 노후를 주로 어떤 활동을 하면서 보내길 원하십니까?

- ① 소득창출을 위한 일을 하면서
- ② 건강을 위해 운동, 식생활 관리 등을 하면서
- ③ 동호회, 자원 봉사 등 사람들과 어울리는 활동을 하면서
- ④ 나에게 맞는 취미, 여가활동을 하면서
- ⑤ 기타 ()

G3) 귀하의 노후에 대해 고민되거나 불안하다고 느끼는 점이 있습니까? 다음에 대해 응답하여 주십시오.

|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노후에 소득이 줄고 경제 형편이 어려워질 것 같아 걱정된다 | ① | ② | ③ | ④ |
| 2) 몸이 아파도 적절한 치료나 간병을 받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 ① | ② | ③ | ④ |
| 3) 노후에 마땅한 취미나 소일거리가 없어 무료함을 느낄 것 같다 | ① | ② | ③ | ④ |
| 4)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왕래가 줄어들어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낄 것 같다 | ① | ② | ③ | ④ |

G4) 귀하가 노후에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 주로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가족이나 친인척
- ② 친구나 직장 동료
- ③ 민간단체(시민단체, 협동조합, 종교단체, 비영리기관 등)
- ④ 국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 ⑤ 누구의 도움을 원하지 않음(혼자서)
- ⑥ 기타()

<H. 주거환경 및 정책>

H1) 현재 살고 계신 주거지(주택)와 주변 환경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아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 매우 불만족 | 약간 불만족 | 약간 만족 | 매우 만족함 |
|--------------------------|-----------|-----------|----------|-----------|
| 1) 사생활 보호 (방음, 공간 분리 등) | ① | ② | ③ | ④ |
| 2) 치안이 안정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 ① | ② | ③ | ④ |
| 3) 공원, 녹지 등 쾌적한 환경 | ① | ② | ③ | ④ |
| 4) 교통, 쇼핑 등이 편리한 편의성 | ① | ② | ③ | ④ |
| 5) 교육, 자녀 양육에 좋은 여건 | ① | ② | ③ | ④ |
| 6) 이웃관계, 마을 공동체 활성화 | ① | ② | ③ | ④ |
| 7) 좋은 지역 이미지, 자산 가치 | ① | ② | ③ | ④ |

H2) 주거지 주변에 다음과 같은 공적 공간이나 공공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전혀 필요하지 않음 | 별로 필요하지 않음 | 필요함 | 매우 필요함 |
|---|------------------|------------------|-----|-----------|
| (1)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세련된 문화공간 (북 카페, 작은 도서관, 갤러리 카페 등) | ① | ② | ③ | ④ |
| (2) 고립되지 않은 곳에서 함께 자녀나 노부모를 돌볼 수 있는 공간 | ① | ② | ③ | ④ |
| (3) 동호회, 동아리 등 관심이 비슷한 사람들과 만나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 | ① | ② | ③ | ④ |
| (4) 금융, 재테크 등 유용한 경제 및 취창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 | ① | ② | ③ | ④ |
| (5) 소셜 다이닝, 마을 부엌 등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공간 | ① | ② | ③ | ④ |
| (6) 내가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보와 상담, 소규모 모임이 제공되는 공간 | ① | ② | ③ | ④ |
| (7) 바쁜 업무, 이동 중에 잠시 머물면서 편의 시설 이용(충전, 와이파이 등) 및 휴식이 가능한 공간 | ① | ② | ③ | ④ |
| (8) 기타 () | ① | ② | ③ | ④ |

H3) 귀하는 중장년 가족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의 지원들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전혀 필요하지 않음 | 별로 필요하지 않음 | 필요함 | 매우 필요함 |
|-----------------------------------|------------------|------------------|-----|-----------|
| 1) 가족 돌봄에 대한 지원 (부모 간병, 손자녀 돌봄 등) | ① | ② | ③ | ④ |
| 2)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취업 지원 | ① | ② | ③ | ④ |
| 3) 노후 대비를 위한 재무 설계 지원 | ① | ② | ③ | ④ |
| 4) 가족 갈등 상담 등 가족관계 개선 | ① | ② | ③ | ④ |
| 5) 우울증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 ① | ② | ③ | ④ |

| | | | | |
|---|---|---|---|---|
| 6) 신체건강 증진 (생활체육, 홈트레이닝 등) | ① | ② | ③ | ④ |
| 7) 마을공동체, 지역 참여활동 활성화(마을카페, 동아리 등) | ① | ② | ③ | ④ |
| 8) 문화/취미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① | ② | ③ | ④ |
| 9) 웰 다잉 (품위 있는 죽음) 준비 교육 | ① | ② | ③ | ④ |
| 10) 안전 확인, 심리안정 지원을 위한 주기적 연락/방문 프로그램 (데일리 콜) | ① | ② | ③ | ④ |
| 11) 힐링 캠프, 힐링 여행 | ① | ② | ③ | ④ |
| 12) 외로움,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한 관계 맺기 지원 | ① | ② | ③ | ④ |
| 13) 독립생활 역량 강화 교육 (집밥, 가사 관리 등) | ① | ② | ③ | ④ |
| 14) 기타 () | ① | ② | ③ | ④ |

H3-1) 위의 정책 지원 중에서 중 귀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필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__, 2순위: __

(2순위 필수 응답)

- 1) 가족 돌봄에 대한 지원 (부모 간병, 손자녀 돌봄 등)
- 2)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취업 지원
- 3) 노후 대비를 위한 재무 설계 지원
- 4) 가족 갈등 상담 등 가족관계 개선
- 5) 우울증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 6) 신체건강 증진 (생활체육, 홈트레이닝 등)
- 7) 마을공동체, 지역 참여활동 활성화(마을카페, 동아리 등)
- 8) 문화/취미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9) 웰 다잉 (품위 있는 죽음) 준비 교육
- 10) 안전 확인, 심리안정 지원을 위한 주기적 연락/방문 프로그램 (데일리 콜)
- 11) 힐링 캠프, 힐링 여행
- 12) 외로움,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한 관계 맺기 지원
- 13) 독립생활 역량 강화 교육 (집밥, 가사 관리 등)
- 14) 기타()

H4) 귀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다음 중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주민센터/가족센터 등 공공기관을 찾아가서 서비스나 상담을 받는 것
- 2) 관련 서비스를 잘 아는 사람(코디네이터, 사회복지사)이 1:1로 나에게 직접 연락해주는 것
- 3) 모바일 앱(어플리케이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서 이용하는 것
- 4) 기타()

*H5-1) 아래의 공적 지원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요?

*H5-2) 아래의 공적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 H 5-1) 정책 인지도 | | | | H5-2) 이용 경험 | |
|--------------------|---------------|-------|----------|------------|-------------|----|
| | 전혀 모른다 | 잘 모른다 | 조금 알고 있다 | 매우 잘 알고 있다 | 있다 | 없다 |
| 1)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 | | | | | | |
|-----------------------------------|---|---|---|---|---|---|
| 2) 공동육아나눔터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 3) 아이돌봄 지원 사업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 4)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 5) 가족상담전화 (1644-6621)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 6) 다누리콜 센터 (1577-1366, 다문화 가족 상담)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 7) 1인가구 상담과 자조모임 프로그램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 8)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50 플러스 지원센터)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 9) 기타()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H5-1에서 ③ '조금 알고있다' ④ 매우 잘 알고 있다 선택시, H5-2 에서 해당 문항 활성화]



5. 가치관

<1. 가치관>

1) 귀하는 '삶의 방식과 가족가치관'에 대한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가족은 어떠한 희생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서로 단결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 2) 나는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3) 사회의 발전보다는 내 가족의 발전이 중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 4)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도 괜찮다 | ① | ② | ③ | ④ |
| 5) 노후를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 6)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2)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다음 각각의 속성에 가장 잘 부합되는 세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
|---------------------------|-----|-----|-----|-----|--------|
| 1)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는 세대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가족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세대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이기적인 세대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자신의 선호를 잘 표현하는 세대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불운한 세대 (시대를 잘못 타고난 세대)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는 세대 | ① | ② | ③ | ④ | ⑤ |



6. 배경 변인

※ 끝으로 귀하의 개인 배경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통계적 분류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1. 귀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중퇴, 재학, 수료의 경우 이전 학력으로 간주함)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이상
2. 귀하께서 중·고등학교 재학시절 또는 만13~18세이실 때 주로 거주하신 곳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특별시, 광역시, 직할시 등 대도시 ② 도청 소재지 ③ 그 외 중소 도시 ④ 읍면 지역(농어촌)
3. 귀하의 혼인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② 사별 ③ 이혼 ④ 별거 ⑤ 미혼/비혼 ⑥ 동거
4. 귀하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 | |
|---|---------------|
| ① 관리직 (고위직 공무원, 기업체 사장, 교장 등)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변호사, 의사, 교사, 공인회계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③ 사무종사자 (세무사, 일반 행정·사무원 등) ④ 서비스 종사자 (경찰, 소방관, 미용사, 음식점 종업원, 간병인 등) ⑤ 판매종사자 (영업원, 보험설계사, 판매원 등)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원예사, 각종 재배원 등)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제빵사, 자동차 정비원 등)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각종 조작용 및 조립원 등) ⑨ 가사 관련 단순 노무자 (가정부, 파출부, 아이돌보미 등) ⑩ 단순노무 종사자 (인부, 미화원, 경비원 등) ⑪ 기타 () ⑫ 학생 ⑬ 주부 ⑭ 무직 | ➡ [문 4-1]로 이동 |
| ⑫ 학생 ⑬ 주부 ⑭ 무직 | ➡ [문 5]로 이동 |

- 4-1. 현재 직장에서의 고용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 계약기간인 1년 이상 또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규에 의해 채용되어 인사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고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는 사람
 -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혹은 특정한 사업 완료의 필요 때문에 고용된 사람
 -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일급, 일당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받는 경우
 - ④ 고용주 : 한 사람 이상 유급 종업원을 두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
 - ⑤ 자영업자 : 유급 종업원 없이 혼자 또는 무급 가족과 함께 일하는 자
 - ⑥ 무급가족종사자 : 급여는 없으나 자가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소득에 기여한 자로 주 18시간 이상 일하는 자
 - ⑦ 기타 : _____

베이비붐 세대 1인가구를 고려한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운영모형 연구

발행일 | 2020년 12월

발행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발행인 | 김혜영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4~6층

전화 | 02-3479-7600

팩스 | 02-3479-7699

홈페이지 | www.kihf.or.kr

기획·편집 | 연구·사업기획부

수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여성연구소

인쇄처 | 통합 커뮤니케이션 센터(ECC B419)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용·발췌하거나
무단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